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768-14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

2021. 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연구

2021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 12. 24.

연구수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삶의질학회

연구책임자 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정병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대훈 (스탯코리아 대표)

연구보조원 이수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연구보고서는 연구자의 견해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 차

I. 조사개요 ····· 1

1. 조사배경과 목적 ····· 1

2. 조사내용 및 방법 ····· 6

II. 표본설계 및 모수추정 ····· 13

1. 표본설계 ····· 13

2. 가중값 작성 ····· 21

III. 조사결과 분석 ····· 25

1. 인권인식 ····· 25

1) 인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 ····· 25

2) 한국 인권상황의 전반적 평가 ····· 32

3) 인권 존중과 인권 인지 국제 비교 ····· 63

2. 인권침해와 차별 ····· 65

1)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평가 ····· 65

2) 인권침해, 차별 취약집단과 상황 ····· 92

3) 인권침해의 경험 ····· 100

4) 차별의 경험 ····· 113

5) 인권침해, 차별의 가해자와 대응 ····· 131

6) 시민, 정치적 권리의 침해 경험 여부에 대한 다변량 분석 ····· 138

7)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 여부에 대한 다변량 분석 ····· 139

8) 차별 경험 여부에 대한 다변량 분석 ····· 140

3. 인권 관련 쟁점 ····· 142

1) 주요 인권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 ····· 142

2)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 160

3)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 165

4)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 173

5) 혐오표현의 경험 및 대응 ····· 192

4. 인권교육 및 개선 ····· 210

1) 인권에 대한 인지와 교육 ····· 210

2) 인권교육에 대한 의견 ····· 223

3) 인권침해 또는 차별 해소 ····· 233

IV. 결과 요약 및 정책 함의와 과제 ····· 257

1. 요약 및 결론 ····· 257

2. 정책적 함의 ····· 262

참고문헌 ····· 266

부록

부록 1. 주요 항목별 상대표준오차

부록 2. 통계결과표

부록 3.「국가인권실태조사」조사표

표 목 차

〈표 2-1〉 모집단 및 표본추출 ····· 13
〈표 2-2〉 표본가구 규모 ····· 14
〈표 2-3〉 층화 변수 ····· 15
〈표 2-4〉 층별 모집단 조사구 수 현황 ····· 16
〈표 2-5〉 주요 조사변수에 대한 설계효과(design effect) 현황 ····· 17
〈표 2-6〉 17개 시/도별 표본배분 결과 ····· 18
〈표 2-7〉 세부 층별 표본배분 결과 ····· 19
〈표 2-8〉 가구 통계 유의사항 표기 및 해석 ····· 24
〈표 3-1〉 평소 인권 용어에 노출되는 정도 ····· 26
〈표 3-2〉 헌법 내 인권보호 명시 인지 정도 ····· 29
〈표 3-3〉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 33
〈표 3-4〉 본인의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인식 ····· 36
〈표 3-5〉 전반적인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인식 ····· 39
〈표 3-6〉 타인의 인권침해/차별 여부에 대한 인식 ····· 42
〈표 3-7〉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 45
〈표 3-8〉 우리나라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 47
〈표 3-9〉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 50
〈표 3-10〉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 52
〈표 3-11〉 우리나라에서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 55
〈표 3-12〉 자신의 기본적 권리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 ····· 58
〈표 3-13〉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의견에 동의 수준 ····· 61
〈표 3-14〉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존중 정도 ····· 66
〈표 3-15〉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 존중 정도 ····· 68
〈표 3-16〉 집회, 결사의 자유 존중 정도 ····· 69

〈표 3-17〉 신속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존중 정도 ····· 71
〈표 3-18〉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받을 권리 존중 정도 ····· 73
〈표 3-19〉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존중 정도 ····· 75
〈표 3-20〉 주거권 존중 정도 ····· 78
〈표 3-21〉 사회보장권 존중 정도 ····· 80
〈표 3-22〉 노동권 존중 정도 ····· 82
〈표 3-23〉 안전권 존중 정도 ····· 84
〈표 3-24〉 한국 사회 인권침해 심각 정도 ····· 87
〈표 3-25〉 한국 사회 차별 심각 정도 ····· 90
〈표 3-26〉 시민, 정치적 권리별 침해 경험의 배경별 비교 ····· 103
〈표 3-27〉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별 침해 경험 비율 ····· 107
〈표 3-28〉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나 불이익 응답 비율 ····· 109
〈표 3-29〉 남녀 차별 경험의 인구학적 배경 요인별 비교 ····· 119
〈표 3-30〉 사상, 정치적 차별 경험의 의식적 배경 요인별 비교 ····· 120
〈표 3-31〉 연령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의 인구학적 배경 요인별 비교 ····· 121
〈표 3-32〉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의 인구학적 배경별 비교 ····· 122
〈표 3-33〉 고용상 지위에 따른 차별 경험의 인구학적 배경별 비교 ····· 123
〈표 3-34〉 학력에 따른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의 인구학적 배경별 비교 ····· 124
〈표 3-35〉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의 인구학적 배경별 비교 ····· 125
〈표 3-36〉 혼인상황에 따른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의 인구학적 배경별 비교 ····· 126
〈표 3-37〉 차별 사유별 경험 유무 비율 ····· 127
〈표 3-38〉 배경 요인별 차별 피해나 불이익 비교 ····· 130
〈표 3-39〉 시민, 정치적 권리 침해 경험 여부에 대한 이분로짓모형 추정 결과 ····· 139
〈표 3-40〉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 침해 경험 여부에 대한 이분로짓모형 추정 결과 140
〈표 3-41〉 차별 경험 여부에 대한 이분로짓모형 추정 결과 ····· 141
〈표 3-42〉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의견 ····· 144
〈표 3-43〉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찬반 비율 ····· 146
〈표 3-44〉 국가정보기관의 사이버 감찰 찬반 비율 ····· 147

〈표 3-45〉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의견 ····· 149
〈표 3-46〉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에 대한 의견 ····· 151
〈표 3-47〉 학생 체벌 금지에 대한 의견의 배경 요인별 비교 ····· 153
〈표 3-48〉 한국의 난민 인정에 대한 의견의 배경 요인별 비교 ····· 155
〈표 3-49〉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찬성률 ····· 156
〈표 3-50〉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찬성률 ····· 158
〈표 3-5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 확인 여부 ····· 160
〈표 3-52〉 신상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불안 ····· 161
〈표 3-53〉 공공장소의 CCTV 설치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의견의 배경 요인별 비교 163
〈표 3-54〉 아동·청소년은 부모·교사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 ····· 166
〈표 3-55〉 아동·청소년도 사회·정치문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 ····· 169
〈표 3-55〉 학교 정규수업에서 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의 배경 요인별 비교 ····· 171
〈표 3-57〉 선출직 정치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 ····· 176
〈표 3-58〉 선출직 정치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거리감 ····· 178
〈표 3-59〉 선출직 정치인 결혼이주민에 대한 거리감 ····· 180
〈표 3-60〉 선출직 정치인 성소수자에 대한 거리감 ····· 182
〈표 3-61〉 선출직 정치인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 ····· 184
〈표 3-62〉 선출직 정치인 노인에 대한 거리감 ····· 186
〈표 3-63〉 선출직 정치인 청년에 대한 거리감의 배경 요인별 비교 ····· 188
〈표 3-64〉 선출직 정치인 여성에 대한 거리감의 배경 요인별 비교 ····· 190
〈표 3-65〉 혐오표현 노출 경험 ····· 193
〈표 3-66〉 혐오표현 접촉 경로 ····· 196
〈표 3-66〉 혐오표현의 주요 대상자 인식의 배경 요인별 차이 ····· 198
〈표 3-68〉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행동 배경 요인별 비교 ····· 199
〈표 3-69〉 혐오표현의 심각성 인지의 배경별 비교 ····· 201
〈표 3-70〉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 찬성률 ····· 204
〈표 3-71〉 인권친화적 태도에 대한 다변량 회귀분석 ····· 207
〈표 3-72〉 사회적 관용도에 대한 다변량 회귀분석 ····· 208

〈표 3-73〉 혐오표현의 심각성 인식에 대한 다변량 회귀분석 ····· 209
〈표 3-74〉 인권 존중을 위한 의무와 행동 규범에 대한 인지 정도 ····· 211
〈표 3-75〉 인권침해/차별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인지 정도 ····· 214
〈표 3-76〉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 ····· 217
〈표 3-77〉 인권교육을 주관한 기관의 배경 요인별 비교 ····· 220
〈표 3-78〉 경험한 인권교육 방식 ····· 222
〈표 3-79〉 인권교육이 도움이 된 정도 ····· 224
〈표 3-80〉 인권교육의 전반적인 필요성에 대한 의견 ····· 227
〈표 3-81〉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 의식 높여야 할 대상(1순위+2순위) ····· 230
〈표 3-82〉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 또는 내용(1순위+2순위) ····· 232
〈표 3-83〉 지난 1년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피해자 조언·상담 경험 ····· 234
〈표 3-84〉 지난 1년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 활동 경험 ··· 236
〈표 3-85〉 지난 1년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소수자, 약자 대상 기부 경험 ····· 238
〈표 3-86〉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인권단체 회원 가입·활동 경험 ···· 240
〈표 3-87〉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글쓰기/댓글 달기 경험 ····· 242
〈표 3-88〉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인권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에 참여한 경험 ····· 244
〈표 3-89〉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인권 캠페인이나 집회 참여 경험 ····· 246
〈표 3-90〉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1순위+2순위) ····· 249
〈표 3-91〉 우리나라 정부의 인권보호·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잘 되어있다는 평가 ·· 251
〈표 3-92〉 우리나라 정부의 인권침해·차별 발생에 적절한 대응에 대한 평가 ····· 253
〈표 3-93〉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 ····· 256

그 림 목 차

[그림 3-1] 평소 인권 용어에 노출되는 정도 ····· 25
[그림 3-2] 인권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비율의 배경별 비교 ····· 27
[그림 3-3]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보호에 대한 인지 정도 ····· 28
[그림 3-4] 헌법에 인권의 보호가 명시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의 배경별 비교 31
[그림 3-5]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 32
[그림 3-6]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배경별 비교 ····· 34
[그림 3-7] 우리나라에서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 35
[그림 3-8] 본인의 인권 존중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의 배경별 비교 ····· 37
[그림 3-9]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 38
[그림 3-10] 배경 요인별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인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40
[그림 3-11] 타인에 대한 인권침해/차별 여부 ····· 41
[그림 3-12] 타인이 인권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의 배경별 비교 · 43
[그림 3-13]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 44
[그림 3-14]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배경 요인별 비교 ····· 46
[그림 3-15]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배경 요인별 비교 49
[그림 3-16] 노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배경 요인별 비교 ····· 51
[그림 3-17]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배경 요인별 비교 ····· 54
[그림 3-18]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배경 요인별 비교 ····· 56
[그림 3-19]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 ····· 57
[그림 3-20] 자신의 기본적 권리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배경별 비교 ····· 59
[그림 3-21]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의 배경별 비교 ····· 62
[그림 3-22]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 ····· 63
[그림 3-23] 인권에 대한 일반적 지식 ····· 64
[그림 3-24] 시민적, 정치적 권리별 존중받는다는 응답 비율의 변화 ····· 65
[그림 3-25]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존중을 긍정하는 비율의 배경별 비교 ····· 67

[그림 3-26]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 존중을 긍정하는 비율의 배경별 비교 ····· 69
[그림 3-27] 집회, 결사의 자유 존중을 긍정하는 비율의 배경별 비교 ····· 70
[그림 3-28] 신속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존중을 긍정하는 비율의 배경별 비교 ····· 72
[그림 3-29]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받을 권리 존중을 긍정하는 비율의 배경별 비교 · 74
[그림 3-30]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존중을 긍정하는 비율의 배경별 비교 ····· 76
[그림 3-31]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는 응답 추이 ····· 77
[그림 3-32] 주거권 존중을 긍정하는 비율의 배경별 비교 ····· 79
[그림 3-33] 사회보장권 존중을 긍정하는 비율의 배경별 비교 ····· 81
[그림 3-34] 노동권 존중을 긍정하는 비율의 배경별 비교 ····· 83
[그림 3-35] 안전권 존중을 긍정하는 비율의 배경별 비교 ····· 85
[그림 3-36] 한국 사회의 인권침해 심각도에 대한 응답 비율의 추이 ····· 86
[그림 3-37] 한국 사회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의 배경별 비교 ····· 88
[그림 3-38] 한국 사회의 차별 심각도에 대한 응답 비율의 추이 ····· 89
[그림 3-39] 인권침해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의 국제 비교 ····· 89
[그림 3-40] 한국 사회의 차별 심각도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의 배경별 비교 ····· 91
[그림 3-41] 인권침해와 차별의 취약집단 응답 비율의 추이 ····· 92
[그림 3-42] 응답자 인구학적 배경과 인권침해, 차별 취약집단의 대응분석 결과 ····· 93
[그림 3-43] 응답자 사회경제적 배경과 인권침해, 차별 취약집단의 대응분석 결과 ····· 94
[그림 3-44] 응답자 의식적 배경과 인권침해, 차별 취약집단의 대응분석 결과 ····· 95
[그림 3-45] 인권침해와 차별 발생하기 쉬운 상황 응답 비율의 추이 ····· 96
[그림 3-46] 응답자 인구학적 배경과 인권침해, 차별 취약 상황의 대응분석 결과 ····· 97
[그림 3-47] 응답자 사회경제적 배경과 인권침해, 차별 취약 상황의 대응분석 결과 ··· 98
[그림 3-48] 응답자 의식적 배경과 인권침해, 차별 취약 상황의 대응분석 결과 ····· 99
[그림 3-49] 시민, 정치적 권리별 침해 경험 비율의 추이 ····· 100
[그림 3-50] 시민, 정치적 권리 침해 경험 비율의 배경별 비교 ····· 101
[그림 3-51] 시민, 정치적 권리 침해 경험 비율의 인구학적 배경별 비교 ····· 102
[그림 3-52] 시민, 정치적 권리 침해 경험 비율의 사회경제적 배경별 비교 ····· 102
[그림 3-53] 시민, 정치적 권리 침해 경험 비율의 의식적 배경별 비교 ····· 103

[그림 3-54]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별 침해 경험의 비율 추이 ····· 104
[그림 3-55]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 침해 경험 비율의 배경별 비교 ····· 105
[그림 3-56]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 침해 경험 비율의 인구학적 배경별 비교 ····· 106
[그림 3-57]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 침해 경험 비율의 사회경제적 배경별 비교 ····· 106
[그림 3-58]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 침해 경험 비율의 의식적 배경별 비교 ····· 107
[그림 3-59]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나 불이익의 추이 ····· 109
[그림 3-60]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나 불이익 응답 비율의 인구학적 배경별 비교 ···· 111
[그림 3-61]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나 불이익 응답 비율의 사회경제적 배경별 비교 ·· 111
[그림 3-62]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나 불이익 응답 비율의 의식적 배경별 비교 ····· 112
[그림 3-63] 유럽과 한국의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의 변화 비교 ····· 113
[그림 3-64]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의 유럽 국가별 한국과의 비교 ····· 114
[그림 3-65] 차별 경험 이유별 응답 비율의 유럽 국가별 한국과의 비교 ····· 114
[그림 3-66] 차별을 경험한 경우 차별을 당한 상황의 비교 ····· 115
[그림 3-67] 차별 경험 비율의 추이 ····· 115
[그림 3-68] 차별 경험 비율의 배경별 비교 ····· 116
[그림 3-69] 차별 경험 응답자의 평균 차별 사유수의 연도별 추이 ····· 117
[그림 3-70] 차별 경험 응답자의 평균 차별 사유수의 배경별 비교 ····· 117
[그림 3-71] 차별 사유별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의 추이 ····· 118
[그림 3-72] 남녀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의 인구학적 배경별 비교 ····· 119
[그림 3-73] 사상, 정치적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의 의식적 배경별 비교 ····· 120
[그림 3-74] 연령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의 인구학적 배경별 비교 ····· 121
[그림 3-75]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의 인구학적 배경별 비교 ····· 122
[그림 3-76] 고용상 지위에 따른 차별 경험의 인구학적 배경별 비교 ····· 123
[그림 3-77] 학력에 따른 차별 경험의 인구학적 배경별 비교 ····· 124
[그림 3-78]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경험의 인구학적 배경별 비교 ····· 125
[그림 3-79] 혼인상황에 따른 차별 경험의 인구학적 배경별 비교 ····· 126
[그림 3-80] 차별에 따른 피해나 불이익의 추이 ····· 128
[그림 3-81] 차별 피해나 불이익 비율의 인구학적 배경별 비교 ····· 128

[그림 3-82] 차별 피해나 불이익 비율의 사회경제적 배경별 비교 ····· 129
[그림 3-83] 차별 피해나 불이익 비율의 의식적 배경별 비교 ····· 129
[그림 3-84] 인권침해나 차별의 가해자와의 관계 ····· 131
[그림 3-85] 인권침해나 차별 가해자의 성별, 연령대 비율 ····· 132
[그림 3-86] 인권침해나 차별 가해자의 성별, 연령대별 결합 분포 ····· 132
[그림 3-87] 인권침해, 차별 피해자와 가해자 인구학적 배경의 대응분석 ····· 133
[그림 3-88] 인권침해, 차별 피해자 인구학적 배경과 가해자 관계의 대응분석 결과 · 134
[그림 3-89]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대응 응답 비율의 연도별 추이 ····· 135
[그림 3-90]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 응답 비율의 연도별 추이 ··· 135
[그림 3-91]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의 결과 응답 ····· 136
[그림 3-92] 민간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 해당 민간기관 응답 비율의 연도별 추이 · 136
[그림 3-93] 민간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 해당 민간기관 응답 비율의 결과 ····· 137
[그림 3-94]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시 아무 대응하지 않은 이유의 연도별 추이 ····· 137
[그림 3-95] 인권 쟁점의 시계열 추이 비교 ····· 142
[그림 3-96] 대체 형벌 도입 찬성률의 배경별 비교 ····· 145
[그림 3-97] 국가정보기관의 사이버 감찰 반대율의 배경별 비교 ····· 148
[그림 3-98] 국가안보 사안에 대한 다른 법률 적용 찬성률의 배경별 비교 ····· 150
[그림 3-99]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찬성률의 배경별 비교 ····· 152
[그림 3-100] 학생 체벌 금지 찬성률의 배경별 비교 ····· 154
[그림 3-101] 한국에서의 난민 인정 찬성률의 배경별 비교 ····· 155
[그림 3-102]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찬성률의 배경별 비교 ····· 157
[그림 3-103]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찬성률의 배경별 비교 ····· 159
[그림 3-104] 개인정보 수입 및 이용 동의서 내용 확인율의 배경별 비교 ····· 161
[그림 3-105] 신상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불안도의 배경별 비교 ····· 162
[그림 3-106] 공공장소의 CCTV 설치는 사생활 침해 공감도의 배경별 비교 ····· 164
[그림 3-107] 아동·청소년인권 쟁점의 시계열 추이 ····· 165
[그림 3-108] 아동청소년은 부모·교사 생각에 따라야 한다 공감도의 배경별 비교 ····· 167
[그림 3-109] 연령층별 아동·청소년은 부모·교사 생각을 따라야 한다는 동의율 비교 168

[그림 3-110] 아동청소년도 사회·정치 문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찬성률의 배경별 비교 … 170
[그림 3-111] 연령층별 아동·청소년도 사회. 정치문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찬성률 비교 ·· 170
[그림 3-112] 학교 정규수업에 인권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찬성률의 배경별 비교 172
[그림 3-113] 선출직 정치인 약자/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시계열 추이 …… 174
[그림 3-114] 최고위급 정치인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국제비교 175
[그림 3-115] 선출직 정치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의 배경별 비교 …… 177
[그림 3-116] 선출직 정치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거리감의 배경별 비교 …… 179
[그림 3-117] 선출직 정치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거리감의 배경별 비교 …… 181
[그림 3-118] 선출직 정치인 성소수자에 대한 거리감의 배경별 비교 …… 183
[그림 3-119] 선출직 정치인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의 배경별 비교 …… 185
[그림 3-120] 선출직 정치인 노인에 대한 거리감의 배경별 비교 …… 187
[그림 3-121] 선출직 정치인 청년에 대한 거리감의 배경별 비교 …… 189
[그림 3-122] 선출직 정치인 여성에 대한 거리감의 배경별 비교 …… 191
[그림 3-123] 혐오표현의 노출 경험 시계열 추이 …… 192
[그림 3-124] 혐오표현 노출 경험도의 배경별 비교 …… 194
[그림 3-125] 혐오표현의 접촉 경로 시계열 추이 …… 195
[그림 3-126] 혐오표현의 대상 시계열 추이 …… 197
[그림 3-127] 혐오표현 노출시 대응의 변화 …… 199
[그림 3-128] 혐오표현에 대한 무대응 비율의 배경별 비교 …… 200
[그림 3-129] 혐오표현의 심각성 인지도의 배경별 비교 …… 202
[그림 3-130]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 …… 203
[그림 3-131]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 찬성률의 배경별 비교 …… 205
[그림 3-132] 인권 존중을 위한 의무와 행동 규범에 대한 인지 정도 …… 210
[그림 3-133] 인권 존중을 위한 의무와 행동 규범 인지도의 배경별 비교 …… 212
[그림 3-134] 인권침해/차별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인지 정도 …… 213
[그림 3-135] 인권침해/차별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인지도의 배경별 비교 ·· 215
[그림 3-136] 인권교육 경험 추이 …… 216
[그림 3-137] 최근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의 배경별 비교 …… 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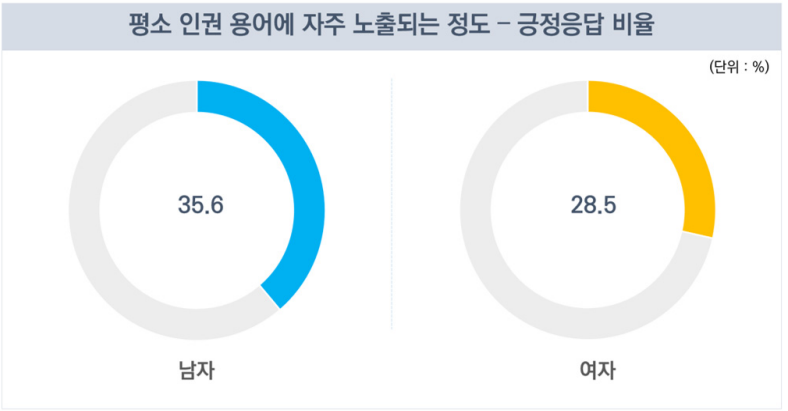
[그림 3-138] 인권교육을 받은 기관 추이(중복응답) ····· 219
[그림 3-139] 경험한 인권교육 방식 추이 ····· 221
[그림 3-140] 인권교육 도움 정도 ····· 223
[그림 3-141]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의 배경별 비교 ····· 225
[그림 3-142] 인권교육의 필요성 ····· 226
[그림 3-143] 인권교육의 전반적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의 배경별 비교 ····· 228
[그림 3-144]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제고가 필요한 대상 추이 ····· 229
[그림 3-145]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 추이 ····· 231
[그림 3-146] 인권침해 및 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추이 ····· 233
[그림 3-147] 지난 1년 인권침해 또는 차별 피해자 조언·상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배경별 비교 ····· 235
[그림 3-148] 지난 1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 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배경별 비교 ····· 237
[그림 3-149] 지난 1년 소수자, 약자를 위한 기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배경별 비교 ····· 239
[그림 3-150] 지난 1년 인권단체 회원가입/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배경별 비교 ····· 241
[그림 3-151] 지난 1년 인권문제와 관련한 글쓰기/댓글 달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배경별 비교 ····· 243
[그림 3-152] 지난 1년 인권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배경별 비교 ····· 245
[그림 3-153] 지난 1년 인권 캠페인이나 집회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배경별 비교 ····· 247
[그림 3-154]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1순위+2순위) ····· 248
[그림 3-155] 우리나라 정부의 인권증진 행위평가 ····· 250
[그림 3-156] 우리나라 정부의 인권보호·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잘 되어있다는 평가의 배경별 비교 ····· 252
[그림 3-157] 우리나라 정부의 인권침해·차별 발생에 적절한 대응에 대한 평가의 배경별 비교 ····· 254
[그림 3-158]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 ····· 255

연구요약

Ⅰ 인권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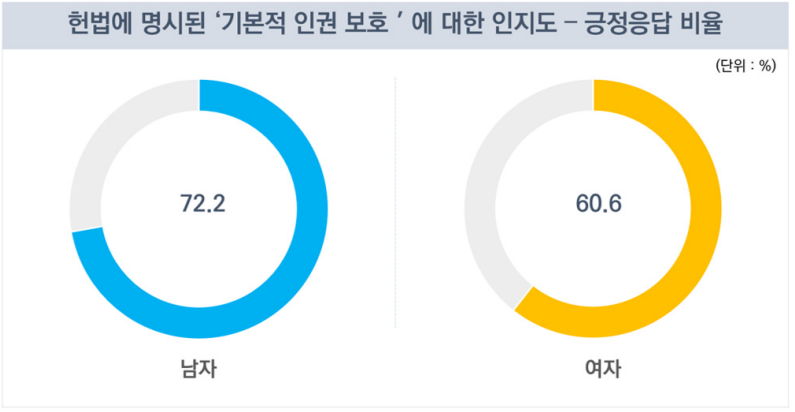
1) 평소 인권 용어에 노출되는 정도

- 평소 인권이라는 단어에 자주 접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여성(28.5%)에 비해 남성(35.6%)이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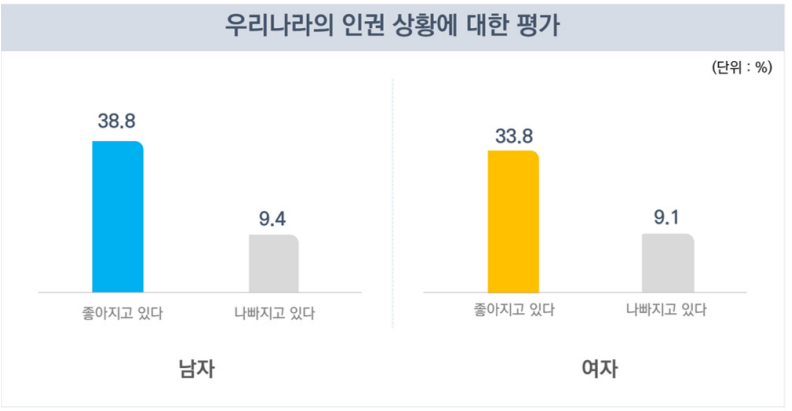
2)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보호에 대한 인지 정도

- 헌법에 기본적 인권보호가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성별로 비교해보면, 여성(60.6%)에 비해 남성(72,2%)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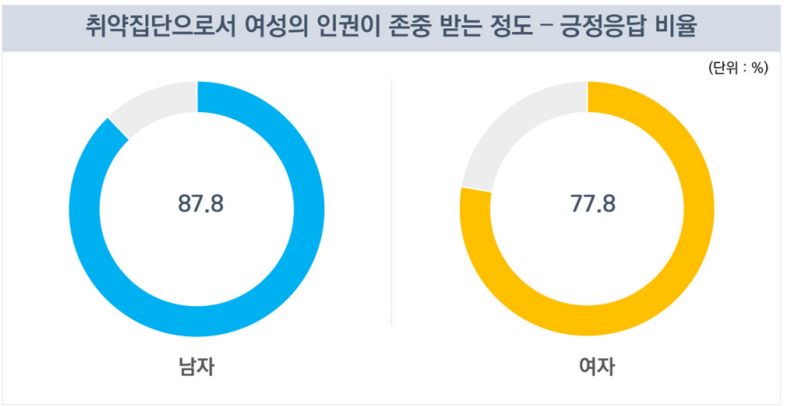
3)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성별 응답의 비율은 여성(33.8%)에 비해 남성(38.8%)이 더 높게 나타남.



4)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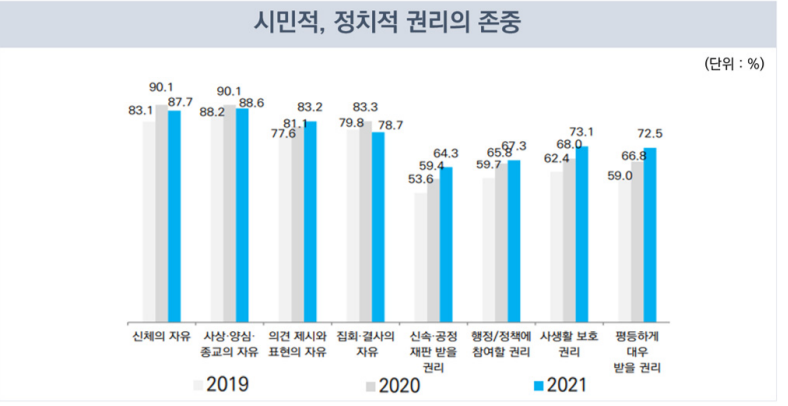
-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느냐는 질문에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여성(77.8%)에 비해 남성(87.8%)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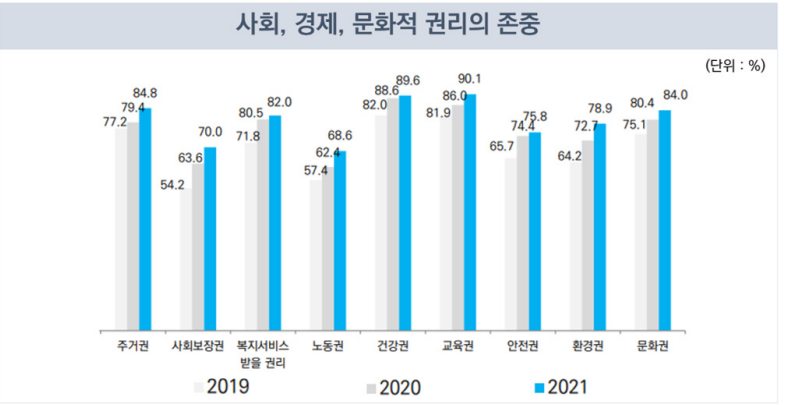
II 인권침해와 차별

1) 한국 사회에서 인권 내용별 존중 정도의 평가

- 시민적, 정치적 권리 중 한국 사회에서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88.6%)와 신체의 자유(87.7%) 그리고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83.2%)가 높음.
- 존중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낮은 것은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64.3%)와 행정, 정책에 참여할 권리(67.3%), 그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72.5%)임.



-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 중 한국 사회에서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은 교육권(90.1%), 건강권(89.6%), 주거권(84.8%), 문화권(84.0%)임. 존중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낮은 것은 노동권(68.6%), 사회보장권(70%)임.
- 전반적으로 2019년에 비해 2021년에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진 경우가 많으며,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시민, 정치적 권리 일부는 2020년에 비해 낮아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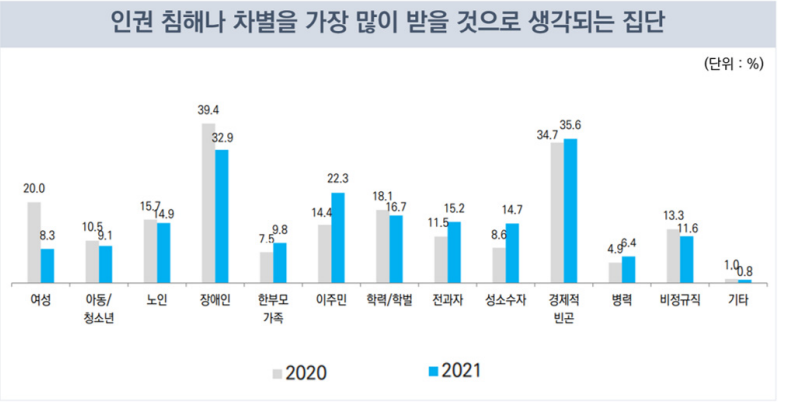


- 인구학적 배경 요인별로 비교하면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에서 모두 20-30대 여성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20-30대 남성과의 차이가 두드러짐.
- 이념 성향별로 비교하면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경우 보수와 진보가 모두 중도에 비해 부정적인 평가의 비율이 높으며,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의 경우 보수에 비해 중도가, 중도에 비해 진보가 더 부정적 평가의 비율이 높음.
- 한국 사회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41.8%)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58.2%)보다 낮으며, 이는 2019년에 비해 낮고, 2020년에 비해 높은 수준임.
- 한국 사회에서 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47.4%)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52.6%)보다 낮지만,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보다는 높음.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은 2019년에 비해 낮아졌지만, 2020년에 비해 높아졌음.
- 인권침해와 차별 모두 20-30대 여성에서 심각하다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인권침해는 보수가 진보 성향에 비해, 차별은 진보가 보수 성향에 비해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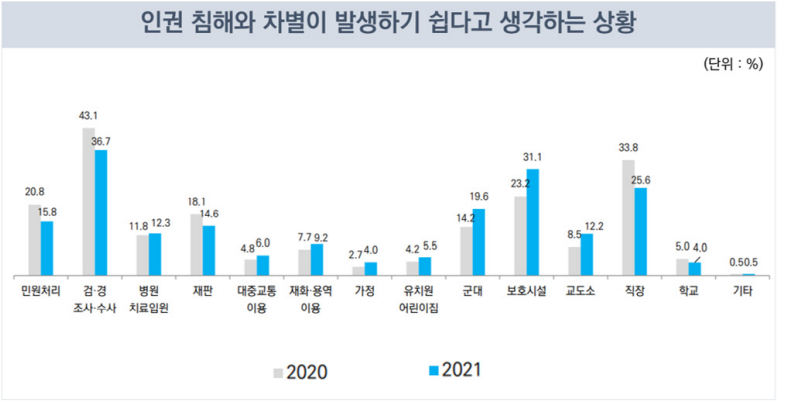
2) 인권침해, 차별 취약집단과 상황

- 다중 선택을 허용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집단은 경제적 빈곤층(35.6%), 장애인(32.9%), 이주민(22.3%)의 순임. 2020년 취약집단이 장애인, 경제적 빈곤층, 여성의 순이었던 것과 바뀌었음.
- 2020년에 비해 취약집단 응답 비율이 높아진 것은 경제적 빈곤층, 이주민, 전

과자와 성소수자이며, 낮아진 것은 여성, 장애인, 노인, 학력과 학벌, 비정규직, 아동·청소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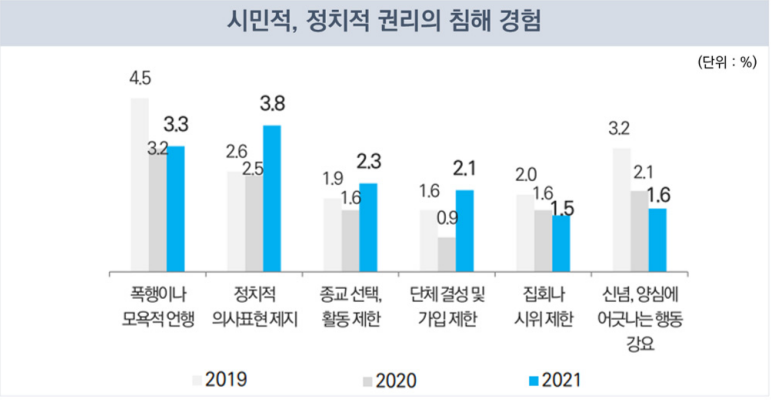
- 다중 선택을 허용한 결과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와 수사(36.7%). 보호시설(31.1%), 직장(25.6%)의 순임. 2020년에 비해 검찰, 경찰 조사와 수사가 여전히 가장 높지만, 그다음은 직장, 보호시설이었던 것에 비해 순위가 바뀌었음.
- 2020년에 비해 보호시설과 대중교통 이용, 재화, 용역 이용, 가정, 유치원과 어린이집, 군대, 교도소의 선택 비율이 높아진 반면, 민원처리, 재판, 직장과 학교는 선택 비율이 낮아졌음.



- 인구학적 배경과 인권침해, 차별 취약집단의 관계에 대해 대응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은 여성을, 노인은 노인을 취약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높았으며, 40-50대 남성이 사회경제적 취약층을 취약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두드러짐.
-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에 대해서도 20-30대 여성의 경우 직장과 학교, 40-50대 여성의 경우 어린이집, 20-30대 남성의 경우 군대 등으로 자신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 응답하는 경향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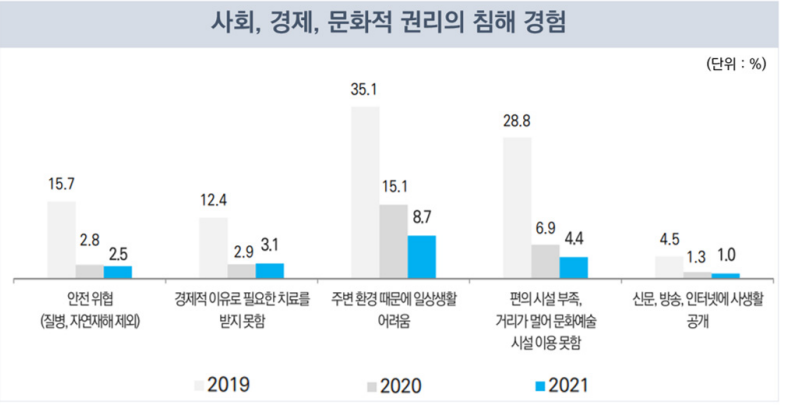
3) 인권침해의 경험

- 시민, 정치적 권리의 침해 경험은 4%가 채 못 되는 낮은 비율을 보임.
- 정치적 의사 표현의 제지, 방해, 비난, 처벌(3.8%)이 2020년(2.5%)보다 증가했으며, 2019년 4.5%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던 폭행이나 모욕적 언행이 다음임(3.3%).
- 종교 선택 및 활동의 제한(2.3%), 단체 결성 및 가입 제한(2.1%) 모두 2020년에 비해 증가
- 집회나 시위의 제한(1.5%)과 신념,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 강요(1.6%)는 2020년에 비해 응답이 감소



- 시민, 정치적 권리의 침해를 경험한 비율은 20-30대 남성이 20-30대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이념적으로 보수와 진보 모두 중도 성향에 비해 시민, 정치적 권리의 침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은 시민, 정치적 권리에 비해 응답 비율이 다소 높은 편임.
- 환경권 침해 경험 비율(8.7%)이 가장 높고, 다음이 문화권 침해(4.4%), 건강권 침해(3.1%)의 순임.
- 2019년, 2020년에 비해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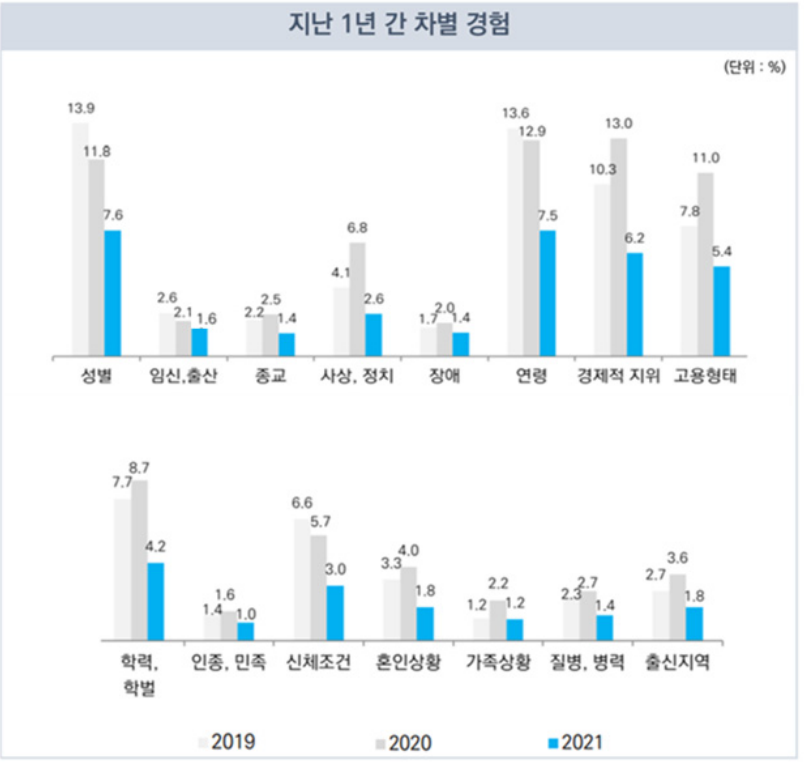
- 인구학적 배경 요인별로 비교하면 20-30대 여성에서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념 성향별로 비교하면 보수에 비해 중도 성향이, 중도에 비해 진보 성향이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이 높음.

4) 차별의 경험

- 지난 1년간 어떤 이유건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4%이며, 이는 2019년(28.2%), 2020년(29.5%)에 비해 줄어들었음.
- 인구학적 배경 요인별로 비교하면 20-30대 여성의 32%가 차별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서 전체 평균 19.2%, 20-30대 남성 20.9%의 1.5배 이상임.
- 의식적 배경 요인별로 비교하면 종교를 가질수록, 이념지향이 진보일수록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이 높으며, 종교를 가진 진보 성향의 차별 경험 응답이 26%로 가장 높음.
-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남녀 차별(7.6%)이며, 다음은 연령 차별

(7.5%),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6.2%)의 순임.

- 전반적으로 2020년에 비해 많게는 절반, 적게는 2/3 정도로 차별 경험 비율이 줄었음.
- 남녀차별 경험에 대해 20-30대 여성의 20.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서 가장 높았으며, 20-30대 남성도 8.1%가 남녀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음.
- 연령차별에 대해 20-30대 여성의 11.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가장 높으며, 다음은 60대 이상 남성으로 7.9%임.
- 학력에 따른 차별, 고용상 지위에 따른 차별,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혼인상황에 따른 차별 모두 20-30대 여성이 다른 성별, 연령대별 집단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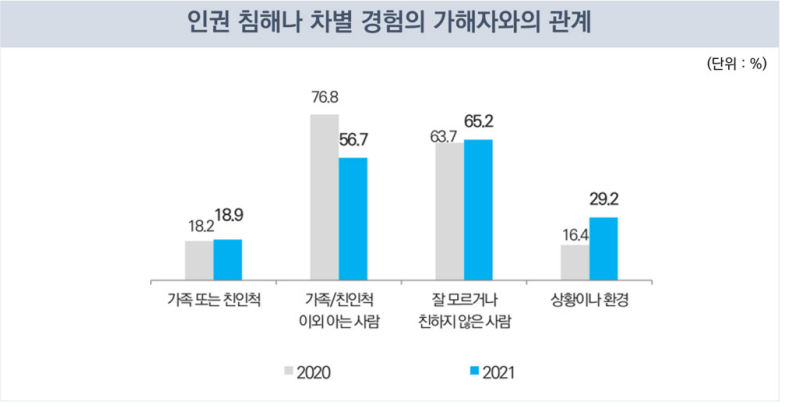
- 차별의 내용 면에서는 남녀 차별과 연령 차별 모두 일자리 관련 차별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장애에 따른 차별의 경우 따돌림과 배제, 일상생활에서

의 차별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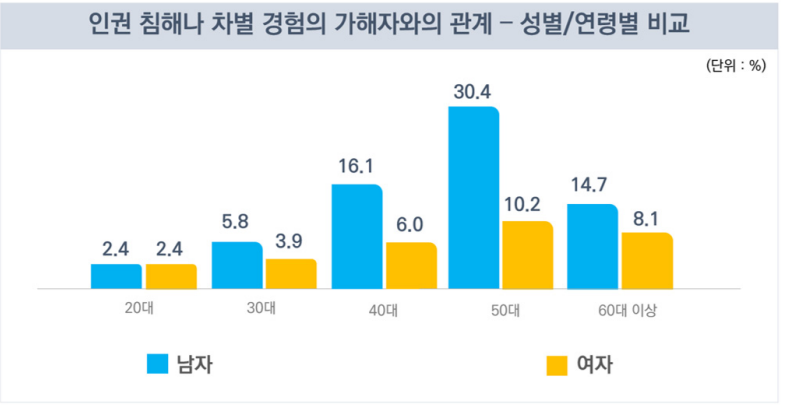
- 사상, 정치, 종교 등에 따른 차별과 신체조건, 가족 상황에 따른 차별에서는 폭행, 위협, 조롱 등 신체적, 언어적 폭력이 높게 나타남.
- 차별 경험자 72.6%가 정신적, 감정적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며 이것은 2020년(78%)에 비해 줄었음. 다음은 재산, 금전상 손해(9.8%), 명예 실추(5.2%), 신체적 상해(1.6%) 순임. 별다른 피해나 불이익이 없었다는 응답은 20.8%로 2020년에 비해 늘었음.

5) 인권침해, 차별의 가해자와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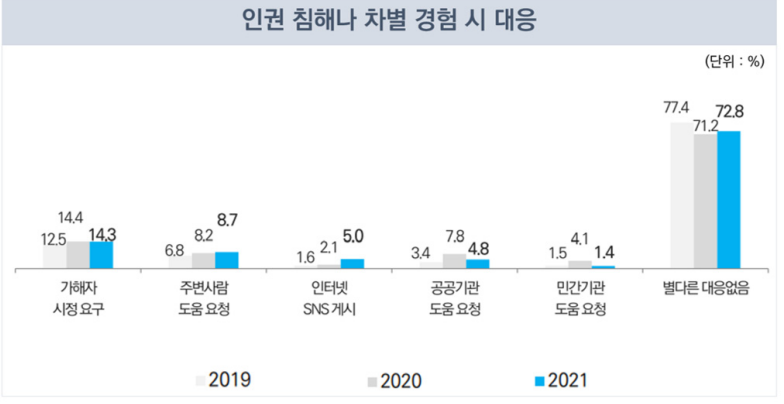
-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자 중 가해자와의 관계는 잘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응답(65.2%)이 가장 많고 다음이 가족,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56.7%)임.
- 2020년에 비해 가족,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은 비율이 줄고, 잘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늘었음.



-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자가 응답한 가해자의 성별, 연령대별 비율에서는 50대 남성(30.4%)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 보이며, 다음으로는 40대 남성(16.1%), 60대 이상 남성(14.7%), 50대 여성(10.2%)의 순임.



- 인권침해, 차별 경험자의 인구학적 배경과 가해자의 인구학적 배경의 관계를 대응분석한 결과 자신과 비슷한 성별, 연령대별 특성을 가진 가해자를 지목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 시 대응에 대해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72.8%)는 응답이 가장 많음. 다음은 가해자에게 시정 요구(14.3%),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8.7%), 인터넷이나 SNS에 게시(5%), 공공기관 도움 요청(4.8%), 민간기관 도움 요청(1.4%)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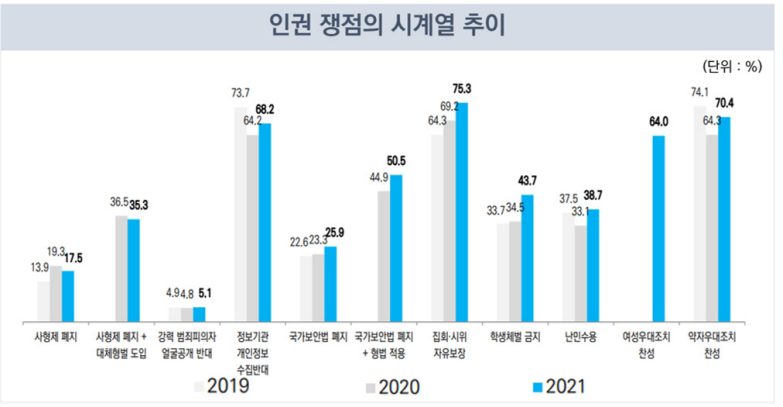


- 인권침해, 차별 경험 시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이유로는 문제가 심각해진다(33.9%)는 응답이 가장 높고, 다음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21.8%), 어떻게 대응할지 몰랐다(21.6%) 순임.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2019년에 가장 많이 응답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Ⅲ 인권 관련 쟁점

1) 주요 인권 쟁점에 대한 의견

- 주요 인권 쟁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과 태도에 따라 인권상황이 개선되고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추진이 수월해질 수 있으므로 인권 관련 쟁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여론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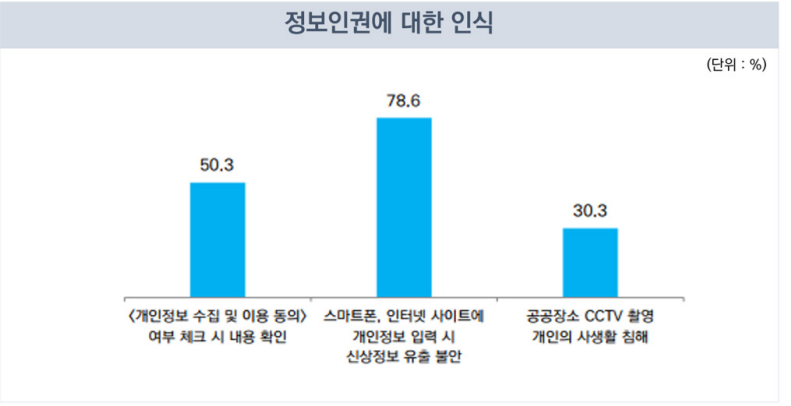


- 2020년 대비 큰 변화를 보인 항목은 학생 체벌 금지(+9.2%p), 집회·시위 자유 보장(+6.1%p),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등 다른 법률 적용(+5.6%p), 난민 수용(+5.6%p) 등으로 나타났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는 2021년에는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로 구분하여 질문했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경향적으로는 2019년보다 감소하고, 2020년보다 상승하였음.
- 인권 쟁점 중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및 다른 법률 적용,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학생 체벌 금지 항목은 2019년부터 꾸준히 인권 친화적으로 여론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사형제 폐지,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 도입,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여론은 별로 변화가 없음.
-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아무런 대안없이 인권침해적인 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비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증가하였으며, 쟁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

로 대재 이상의 고학력, 관리전문직, 정치적 진보 성향에서 공통적으로 인권친화적 태도를 보임.

2)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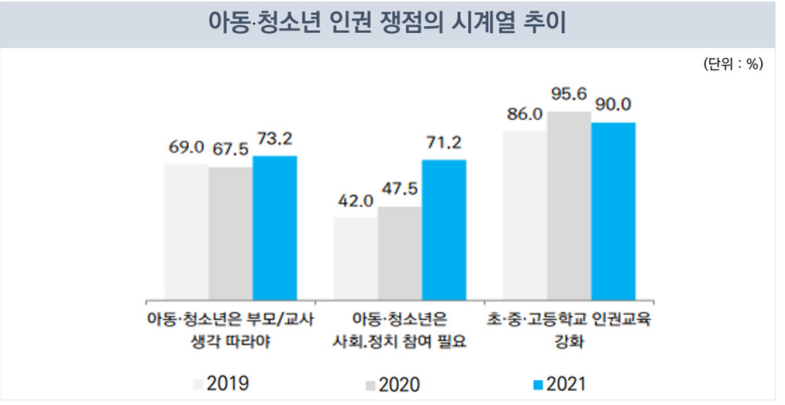
-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정보 접근권 등을 보장받을 권리인 정보인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굳건하지 않음.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이 비대면으로 바뀌고, 방역을 위해 신상정보를 빈번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보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호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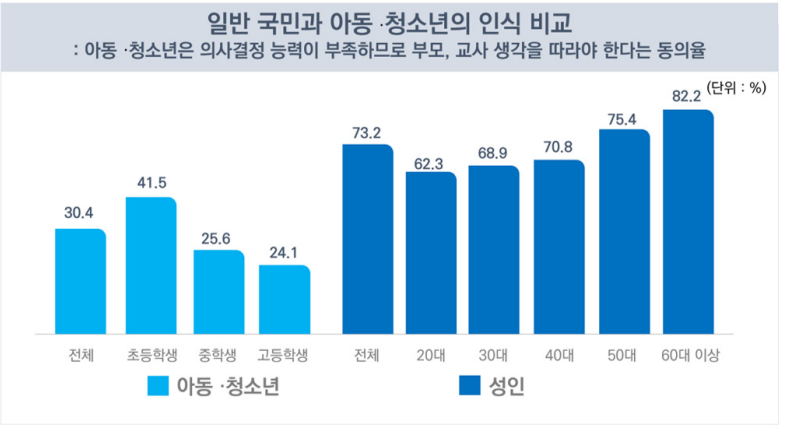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제대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로 체크하는 비율이 약 50%를 차지하고, 공공장소에 CCTV 설치는 사생활 침해라는 반응은 약 30%인 반면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도는 약 80%로 높음.
- 국내 대기업과 금융기관, 정부 기관에서 업무 담당자의 부주의와 관리 부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해지면서 불안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범죄 발생 우려와 안전을 위한 공공장소에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여론이 높으므로 전반적으로 정보인권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필요함.

3)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 어느 사회나 아동·청소년은 미성년으로서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간주되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으며, 인권의 담지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취약집단임. 또한 한국은 나이에 따른 위계가 강하고 장유유서의 전통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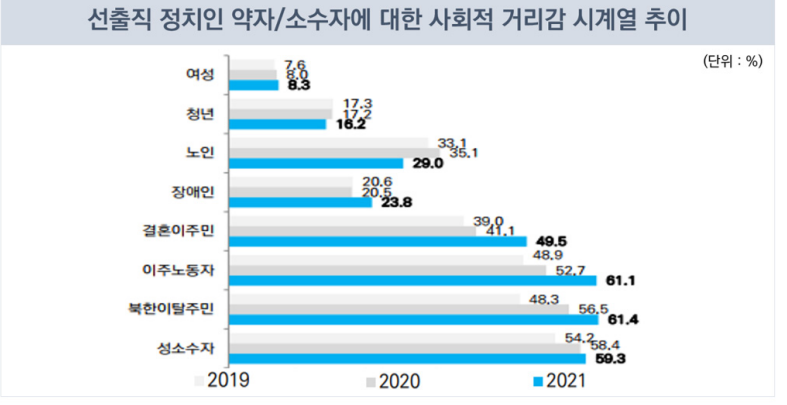


- 가장 큰 변화를 보인 항목은 '아동·청소년의 사회·정치 참여 필요' 항목으로 2019년 42.0%에서 2020년 47.5%로 5.5%p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71.2%로 무려 23.7%p 증가하였음. '아동·청소년은 부모/교사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항목은 2019년 69.0%에서 2020년 67.5%로 근소하게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73.2%로 다시 5.7%p 증가하였음. 반면 '학교 인권교육 강화'는 2020년 95.6%에서 2021년 90.0%로 오히려 5.6%p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90%의 높은 찬성의견을 나타내고 있음.
-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성인과 아동·청소년 사이에 인식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아동·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므로 부모·교사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는데 동의율이 아동·청소년 30.4%로서, 성인 73.2%의 절반도 되지 않음. 더욱이 초등학생은 41.5%가 동의한 반면 중학생은 25.6%, 고등학생은 24.1%가 동의하여 훨씬 더 낮아짐.



4)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 수용 가능한 사회적 접촉의 범위를 의미하는 사회적 거리감으로 선출직 정치인으로서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포용성과 관용도를 살펴보면 이주 배경을 가진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여성, 청년, 성소수자의 경우에는 시계열적으로 사회적 거리감에 큰 변화가 없는데, 여성과 청년은 거리감이 낮은 상태에서 변화가 별로 없고, 성소수자는 거리감이 높은 상태에서 변화가 별로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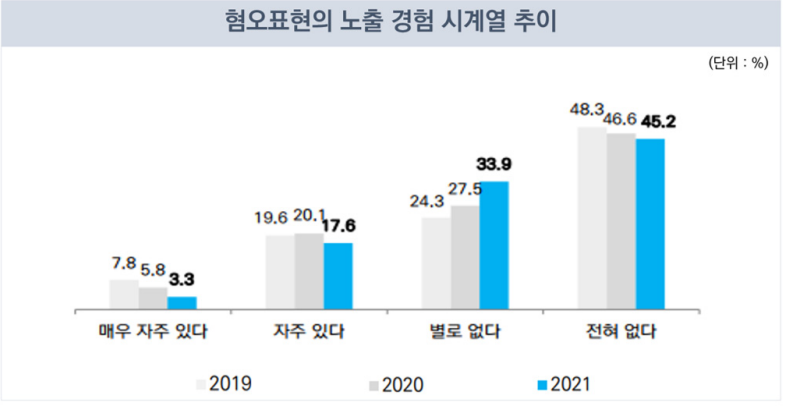


-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집단은 북한이탈주민(61.4%), 이주노동자(61.1%), 성소수자(59.3%), 결혼이주민(49.5%)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

성(8.3%)과 청년(16.2%)은 불편함을 느낀다는 비율이 높지 않으며, 장애인(23.8%)과 노인(29.0%)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는 비율은 23~29%로 중간 이하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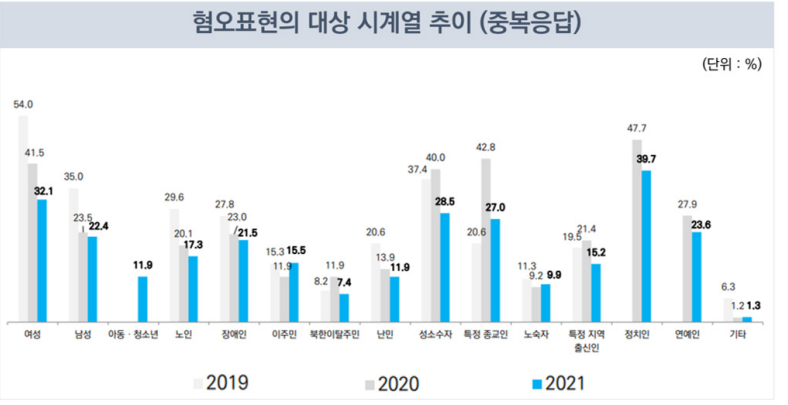
5) 혐오표현의 경험 및 대응

-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2019년 48.3%에서 2020년 46.6%로 근소하게 감소하였고 2021년에도 45.2%로 다시 근소하게 감소하였음. 매우 자주 있다는 응답은 2019년 7.8%, 2020년 5.8%에서 2021년 3.3%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자주 있다는 응답은 2019년 19.6%에서 2020년 20.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 17.6%로 근소하게 감소하였음. 반면 별로 없다는 2019년 24.3%에서 2020년 27.5%, 그리고 2021년 33.9%로 약 10%p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혐오표현 노출 경험은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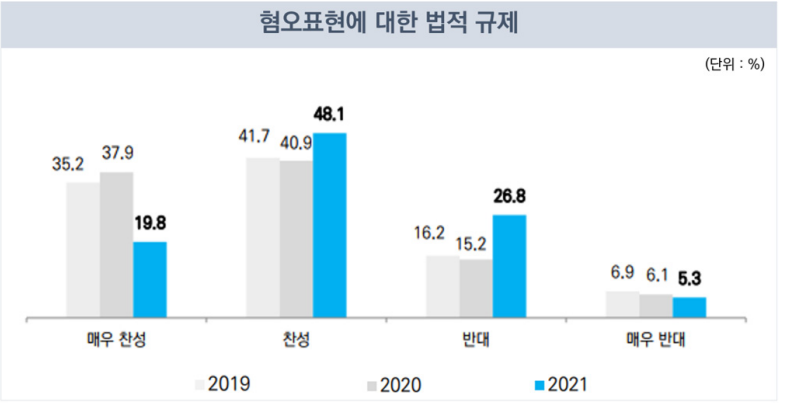
- 혐오표현 경험자를 대상으로 접촉 경로를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결과 TV/라디오 방송(49.6%), 온라인 포털 등(38.4%), 인터넷방송(36.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2020년 대비 혐오표현의 접촉 경로는 온라인 포털 등의 순위가 1위에서 2위로 바뀌고 TV/라디오방송의 순위가 2위에서 1위로 올라섰음. TV/라디오 방송은 5.5%p 증가한 반면, 온라인 포털 등은 7.3%p 감소, 인터넷방송은 6.5%p 감소, SNS도 9.2%p 감소 등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혐오표현의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결과 다양한 집단이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정치인(39.7%), 여성(32.1%), 성소수자(28.5%), 특정 종교인(27.0%), 연예인(23.6%), 남성(22.4%), 장애인(21.5%)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그 외 이주민(15.5%), 아동청소년(11.9%), 난민(11.9%), 노숙자(9.9%), 북한이탈주민(7.4%)에 대한 혐오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
- 2020년 대비 혐오표현의 대상자로서 여성, 성소수자, 특정 종교인, 정치인, 특정 지역 출신인 등은 뚜렷한 감소 경향을 보이는 반면 남성, 노인, 장애인, 노숙자, 난민 등은 큰 변화를 찾아볼 수 없음.



- 혐오표현의 경험자를 대상으로 대응 행동을 질문한 결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75.7%로 가장 많고, '반대의견 및 시정요구'는 17.3%, '동조'하는 경우도 7.0%에 달함. 2020년 대비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대응은 65.3%에서 75.7%로 10.4%p 증가한 반면 '반대의견 및 시정요구'는 24.5%에서 17.3%로 7.2%p 감소하였고, '동조'는 10.2%에서 7.0%로 3.2%p 감소하였음.
- 혐오표현이 심각(매우+다소)하다는 의견은 54.2%인 반면 심각하지 않다(매우+다소)는 의견은 45.8%로 나타나서 두 의견간 차이가 10%도 되지 않음. 그러나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비율은 67.9%로, 반대하는 비율 32.1%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2020년 대비 매우 찬성한다는 비율이 37.9%에서 19.8%로 무려 18.1%p 감소한 반면 다소 찬성한다는 의견은 40.9%에서 48.1%로 증가하였고(7.2%p), 다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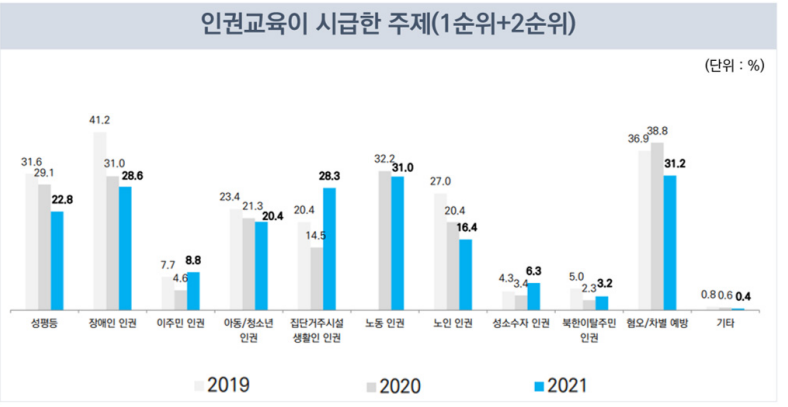
반대 의견도 15.2%에서 26.8%로 증가하였음(11.6%p). 전반적으로 법적 규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2020년 78.8%에서 2021년 67.9%로 10.9%p 감소하였음.



Ⅳ 인권교육 및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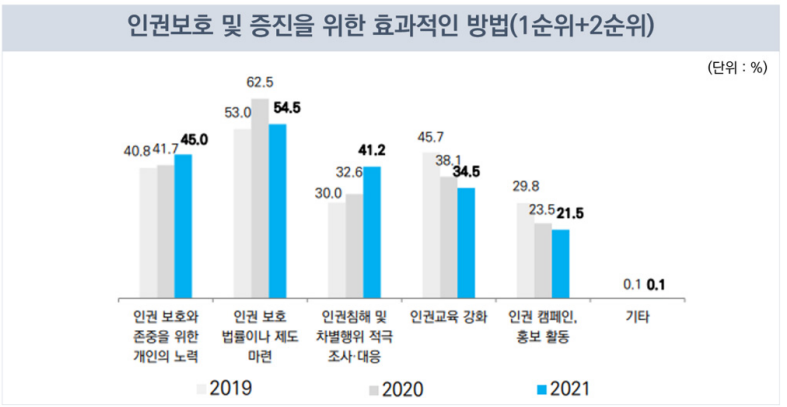
1)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

-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로는 혐오/차별 예방이 31.2%로 가장 높았으며, 2020년에 비해 집단거주시설 생활인 인권에 대한 교육에 대한 응답이 13.8%p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반면, 성평등(6.4%p), 혐오/차별 예방(7.6%p)은 전년도와 비교해 감소함.
-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 또는 내용을 1순위를 기준으로 남녀 성별로 비교하면 여성의 경우 성평등(16.7%)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남성은 장애인 인권(17.8%)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여성의 경우 그다음으로는 장애인 인권(15.6%)과 혐오/차별예방(15.6%)을 지목하고 있었던데 반해서 남성은 2순위로 노동인권(16.0%)을 꼽음.



2)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인권보호법률이나 제도 마련'이 54.5%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으며, 그다음으로는 '인권보호와 존중을 위한 개인의 노력'(45.0%),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적극 조사 대응'(41.2%)의 순으로 나타남.
-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성별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1순위 기준), 여성은 1위로 인권보호 법률이나 제도 마련(28.9%)을, 남성은 인권보호와 존중을 개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31.2%)고 응답하고 있었음. 2순위는 순서가 바뀌어 여성은 인권보호와 존중을 개인의 노력(28.3%), 남성은 인권보호 법률이나 제도 마련(27.9%)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Ⅰ

조사개요

1 조사배경과 목적

1) 조사목적과 법적 근거

본 조사는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권의식,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인권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 인권교육 및 인권 증진방안을 조사하여 「국가인권통계」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인권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권 취약집단인 장애인, 아동, 노인, 여성, 이주민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춘 조사와 달리 본 조사는 국민 일반의 인권상황과 인권보호 실태, 인권에 대한 의식 등을 조사하여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한 승인통계이며, 본 조사의 승인번호는 일반 조사통계 승인번호 제129001호이다.

2) 조사연혁, 주기 및 시기

본 조사는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로 최초 실시되었으며, 2020년에 이어 2021년 제3차 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조사의 조사 주기는 1년이다.

조사 시점은 2019년과 2020년에는 8월부터 한 달가량이었으나, 2021년에는 조사 시점을 앞당겨 7월 16일(금)에 시작하였고,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방역상황이 악화하여 수도권 지역은 9월 13일(월)에 시작되어 11월 8일(월)에 끝났다.

3) 조사기관

본 조사의 주관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이며, 조사를 시행한 기관은 ㈜한국리서치이다. 2019년과 2020년에는 통계청 통계대행과에서 조사를 수행했으며, 2021년은 민간 조사기관으로 조사가 넘어간 이후 첫 조사이다.

4) 선행연구 검토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인권에 대해 갖는 의식과 태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의 개념 자체가 개인을 모태로 형성되었으며, 인권의 핵심에 개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Donnelly, 2003). 또한 일련의 인권 제도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도의 영향권에 놓여있는 개인의 인권의식이 중요하다. 인권의식이 높고 인권에 호의적이며 인권 개선과 증진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개인이 다수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보다 인권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인권의식은 인권의 주관적 측면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개인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을 인권 문제로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문용린 외, 2002). 이것을 인권감수성 또는 인권민감성이라고 하는데, 인권이 얼마나 보호받고 보장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작업에 비해서 인권의 주관적 측면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그리 많지 않다.

1990년대에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갤럽조사(Gallup International Millennium Survey) 등에서 인권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지만, 개인의 인권의식이나 여론의 실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뿐만 아니라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인권의 강조점이 달랐고 이는 각 국가의 전반적인 인권의식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를테면 동독과 서독은 사회체제의 성격이 달라서 동독의 국민들은 사회권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반면 서독의 국민들은 자유권을 더 많이 알고 있었다(Stellmacher, Sommer, and Brahler, 2005). 러시아나 동유럽의 인권조사도 사회권에 더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가인권실태조사'는 인권의 다차원성 및 보편성을 적극 고려하여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문항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문항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경제.사회.문화적 영역에서 권리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사회보장, 건강권, 주거권 등에서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반면 미국의 인권조사는 외교정책의 고려 속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다루다 보니 자유권 및 차별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9·11 테러, 이라크전 등 군사분쟁이 확산되고 안보 위협이 커진 2000년

이후부터 인권과 안보 충돌에 대한 우려로 테러, 고문, 구금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본의 인권조사는 '인권옹호에 대한 세론조사'가 대표적이며, 자유권 중심의 관심이 더욱 심한 경향을 보인다. 공동체와 책임에 대한 강조, 인권존중과 권리의 주장이 타인에 폐를 끼치는지 여부를 묻는 것도 일본적 특수성을 보여준다(정진성 외, 2010).

한국사회도 인권과 관련하여 특수성을 갖고 있는데, 보편성을 인정받아 각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된 국제인권지표도 각국의 특수성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타당성에 한계가 있다. 남북대치 상황에서 국가안보 및 국가보안법 관련 쟁점, 공동체적 관점에서의 인권 인식, 인권과 이권의 불분명한 구분 등이 한국사회에서 인권을 논의하는데 어려움을 표출시킨다. 따라서 '국가인권실태조사'의 조사표에서 문항을 구성할 때 이런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은 2000년대 들어서부터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인권조사를 찾을 수 없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으로 인권운동이 제도화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거해서 인권의식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제공되었다. 그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도 하에 2005년 최초로 '국민인권의식조사'가 실시되었고,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대처법 등이 주를 이루었다. 한국인의 인권의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국민인권의식실태조사'부터였고, 인권지식, 인권평가,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인권쟁점, 인권행동 등의 다양한 영역이 인권의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2016년 '국민인권의식조사'는 2011년 조사내용을 계승하여 시계열적 비교가 가능하다. 이러한 흐름의 영향으로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가 승인통계로 자리 잡고 대규모 조사가 이루어졌다.

승인통계로서 안정성을 구축한 '국가인권실태조사'는 기존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고려하여 여러 문항들을 계승함으로써 시계열에 따른 변화를 추적할 수 있고, 실태 파악이 요구되는 인권 쟁점들을 추가하여 과거와의 연속성 속에서도 새롭게 등장한 현상을 포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인권침해와 차별의 구체적인 양태와 그로 인한 피해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 가해자의 특성 파악, 인권침해구제기관의 도움 정도 등이 추가로 개발되었다.

한편 전체 국민이 아닌 특정 집단 대상으로 학자, 국회의원, 공무원, 청소년, 대학생,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조사는 다수가 있지만, 인권민감성, 인권태도, 인권지식 등 인권의 일부 측면만을 다루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권의식과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인권의식은 개인이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인지, 정서, 행동의 3요소로 태도가 구성된다고 설명하는 사회심리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권에 대한 태도는 인지, 정서, 행동의 3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김자영

(2011)은 인권판단력, 인권감수성, 인권행동의사의 3요소를 토대로 8개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즉 3개 요소가 모두 높은 수호자형에서 모두 낮은 무관심형이 있고, 이 둘 사이에 관망형, 원칙형, 무감각형, 온정형, 맹목형, 무기력형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다수의 경험적 연구들은 인권의식의 의미와 차원이 훨씬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인권을 4가지 차원, 즉 시민적 억압(civilian constraint), 프라이버시(privacy), 평등(equality), 사회적 안전성(social security)으로 구분하고 각 차원과 관련된 요인은 다르다고 하는 연구도 있고(Diaz-Veizades, Widaman, Little, and Gibbs, 1995), 인권 개념을 인권지지(endorsement), 인권 헌신(commitment), 인권 제한(restriction)의 3차원으로 구분하면서 많은 요인이 상호작용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McFarland and Mathews, 2005). 인권에 관한 기존의 실증연구를 총망라한 논문(Koo, Cheong and Ramirez, 2015)에서는 인권을 지식, 평가, 경험, 민감성, 지지, 헌신, 행동 등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국가인권실태조사'는 인권에 대한 의식,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인권옹호를 위한 정책 대응 등의 프레임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인권에 대한 의식은 인지 및 지식 수준을 측정하며, 인권 상황 평가는 개인 및 사회 수준의 인권 존중, 인권취약 요인 및 상황, 인권의 다양한 항목 존중도를 측정한다. 인권침해 및 차별은 실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측면들을 측정하며, 정책 대응은 인권교육, 인권옹호활동 등을 포괄하였다.

경험적인 인권연구는 결국 누가 인권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는가? 개인들 간에 인권에 대한 인식, 태도, 경험, 행동 등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러한 차이를 낳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인권에 있어서 인지적 요소가 중요하다고 보고 도덕성 발달과 연관시킬 경우 인권의식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고, 그 외에 교육, 자율성, 자아존중감 등이 인권의식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Getz, 1985, 이승미, 1999). 서구에서는 인권의 등장에 공감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주장(Hunt, 2009)을 감안할 경우 공감력이 높은 여성이 인권의식이 더 높다고 기대할 수 있으며, 몇몇 연구에서도 여성의 인권의식이 남성보다 더 높다고 분석되었다(Diaz-Veizades, Widaman, Little, and Gibbs, 1995; 류지헌·허창영, 2008). 정치적 성향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보수주의 성향에 비해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인권을 옹호한다고 알려졌고, 정치적 보수주의, 자민족중심주의, 편견이 강하면 소수자 인권을 제한하는 경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다(Jost et al., 2003; Crowson, 2004).

또한 글로벌 사회에서 국제인권규범과 제도의 팽창이 개인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

할 수 없다. 세계화를 통해 국제민간단체로 대표되는 세계시민사회의 영역도 확산되는데, 세계시민의식은 타인에 대하여 개방적인 의식과 태도를 갖게 하므로 인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해외 거주 경험과 함께 세계시민의식은 개인의 인권의식을 가르는 주요한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Koo and Ramirez, 2009; Koo, 2017).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인권감수성, 세계시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인권교육은 대부분 학교 교육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도덕성의 발달이라는 직접적인 학습 효과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의식을 고양시키기 때문에 인권정책에 있어서 우선적인 중요성을 차지한다. 또한 인권에 헌신적일수록 글로벌주의 성향이 강하며 국제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McFarland and Mathews, 2005).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실태조사'에서는 인권교육의 전반적인 필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인권교육을 받은 비율은 높지 않다. 인권교육을 받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 이외의 상황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 많고 인권교육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한편 인권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이어지면서 개인의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데, 이를 활용하여 인권감수성을 예측하는 모형을 도출해 볼 수 있다(구정우·남윤창·황태희, 2018). 인권감수성은 개인이 사회화과정에서 체득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 중에서 인권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는가에 달려있다. 인권감수성을 예측하고 타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 차별적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1) 조사내용과 항목

2020년과 2021년의 「국가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년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거친 후, 데이터의 분석적 가치, 해석의 타당도, 결과의 활용도, 새로운 항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 내용이 일부 삭제, 추가되었다. 또한 응답의 일관성과 논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질문하는 방식을 수정하였다. 그 외의 항목들은 그대로 유지되어서 시계열에 따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조사 부문	조사항목	2020	2021
인권인식	① 평소 '인권' 용어를 어느 정도 접하는가?	○	○
	② 헌법에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가 명시된 것을 알고 있는가?	○	○
	-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인간이 존엄한 사회, 관용적 사회, 자유로운 사회, 평등한 사회)	○	×
	- 본인의 삶이 어떠했으면 좋겠는가? (경제적 풍요로운 삶, 즐거운 삶, 의미와 보람, 화목하게 어울림, 간섭받지 않고 자유로운 삶)	○	×
	③ 1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 인권 상황이 어떤가?	○	○
	④ 본인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는다고 보는가?	○	○
	⑤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는다고 보는가?	격년 조사	○
	⑥ 평소에 본인이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가?	--	◎
	⑦ 우리나라에서 다음 집단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보는가?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	◎
	⑧ 인권과 관련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의 기본적 권리라도 공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	◎

○ 동일하게 유지, ◎ 새롭게 추가, △ 부분적 수정, × 문항 삭제

조사 부문	조사항목	2020	2021
인권침해 및 차별	⑨ 인권 권리가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가?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신속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공공행정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주거권, 사회보장권,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안전권, 환경권, 문화권)	○	○
	⑩ 우리나라에서 누가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가?	○	○
	⑪ 인권침해/차별을 받기 쉬운 상황은 무엇인가?	○	○
	⑫ 전반적으로 인권침해가 어느 정도인가?	○	○
	⑬ 과거 1년간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	○
	⑭ 과거 1년간 인권침해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	○
	⑮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어떤 피해나 불이익이 있었는가?	○	○
	⑯ 전반적으로 차별이 어느 정도인가?	○	○
	⑰-1 과거 1년간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	○
	⑰-2 어떤 유형의 차별을 받았는가? 신체적/언어적, 고용(일자리) 관련, 사회적 차별(따돌림이나 배제), 재화/용역(일상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	△ (차별 이유와 연동)
	⑱ 차별을 받았을 때 어떤 피해나 불이익이 있었는가?	○	○
	⑲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	○
	⑲-1 누가 인권침해/차별을 했는가?	○	○
	⑲-1-1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차별을 가한 사람의 성별과 연령대는 무엇인가?	--	◎
	⑲-2 인권침해/차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가?	○	○
	⑲-2-1 도움을 요청한 공공기관은 어디인가?	○	○
	⑲-2-2 도움을 요청한 공공기관은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는가?	--	◎
	⑲-3-1 도움을 요청한 민간기관/전문가는 무엇인가?	○	○
	⑲-3-2 도움을 요청한 민간기관/전문가는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는가?	--	◎
	⑲-4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	○
인권 관련 쟁점	⑳ 상반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
	(사형제도 폐지 여부, 사형제 폐지 및 대체형벌 도입)	○	○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과 얼굴 공개)		
	(국가정보기관의 통신 감찰)	○	○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등 다른 법률 적용)		
	(시위·집회의 자유, 학생 체벌, 난민 수용,	○	○
	(성평등 위해 여성 적극적 우대조치, 사회적 약자 적극적 우대조치)	○	△ (여성/사회적 약자 구분)

조사 부문	조사항목	2020	2021
인권 관련 쟁점	㉑ 정보인권 관련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
	㉒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
	㉓ 가족, 이웃, 친구 중에 인권 취약계층의 사람이 있는가? (장애인,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난민)	○	○
	㉔ 인권 취약계층이 정치적 대표자가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
	- 인권 취약계층이 옆집 이웃이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
	- 인권 취약계층이 나의 친구가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
	㉕ 지난 1년간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었는가?	○	○
	㉕-1 혐오표현을 접한 경로는 무엇인가?	○	○
	㉕-2 혐오표현의 대상은 누구인가?	○	○
	㉕-3 혐오표현을 접할 때 어떻게 했는가?	○	○
	㉖ 우리 사회에서 혐오표현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	◎
	㉗ 혐오표현을 법적 규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
인권교육 및 개선	㉘ 인권존중/차별하지 않기 위한 의무와 행동 규범을 얼마나 아는가?	○	○
	㉙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을 얼마나 아는가?	○	○
	㉚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았는가?	○	○
	㉚-1 어디에서 인권교육을 받았는가?	○	○
	㉚-2 인권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가?	○	○
	㉚-3 인권교육이 인권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	○
	㉛ 전반적으로 인권교육이 얼마나 필요한가?	○	○
	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대상은 어디인가?	○	○
	㉝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 또는 내용은 무엇인가?	○	○
	㉞ 지난 1년간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에 참여했는가?	○	○
	㉟ 인권보호 및 증진, 차별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 방법은 무엇인가?	○	○
	㊱ 인권을 증진시키는 정부의 활동에 대한 평가	○	○
	㊲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은 누구인가?	○	○

본 조사에서 조사된 항목과 관련된 주요한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용어	내용
인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인권침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
차별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혐오표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소수자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편견을 조장하거나 멸시·모욕·위협을 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를 말함.
사상의 자유	어떤 관점이나 사상을 유지하거나 생각하는 자유
양심의 자유	외부의 억압을 받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
의견제시와 표현의 자유	사람 내부의 정신을 외부로 공표하는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외부의 제한을 받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 모이는 자유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절차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공행정 및 정책에 참여할 권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처리 받을 권리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 평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회보장권 중 빈곤해결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권 중 소득보장	인간으로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중 활동지원	장애로 인해서 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안전권	각종 재난과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
성소수자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범성애자, 젠더퀴어, 간성, 제3의 성 등을 포함하여 성정체성, 성별, 신체상 특징 또는 성적 지향 등과 같이 성적인 부분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결혼이주민	결혼을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해 온 사람
이주노동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해 노동하는 사람

용어	내용
난민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국가를 벗어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최근에는 전쟁, 테러, 극도의 빈곤, 기근, 자연재해로 인해서 다른 국가로 피해가는 사람들도 난민에 포함됨
보호시설 중 보육원	부모, 친지 등의 양육자가 없거나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에게 공적인 양육자가 되어주는 시설
보호시설 중 요양원	치매, 뇌졸중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집안생활이 불편한 노인들이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는 시설
보호시설 중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공공기관	개인의 이익(사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함 (정부기관, 공기업, 학교 등)
민간기관	정부와 관련되지 않는 단체 또는 기관. 대표적인 민간기관으로는 기업, 병원, 시민사회단체, 복지시설 등을 들 수 있음
국가정보기관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종전 국군기무사령부) 등과 같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시위	다른 말로 데모라고 하며,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기세를 보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
집회	일반적으로 옥외집회를 말하며,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이는 일
체벌	신체에 고통을 주는 벌이며, 통상 직접적 체벌과 간접적 체벌로 나뉨
난민 신청	난민이라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무부에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서 난민 인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
적극적 우대 조치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고 불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당제, 가산점, 의무고용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말함
물질주의/탈물질주의	개인의 가치관으로 국가안보와 질서,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경우 물질주의, 국민의 참여와 자유 보호, 환경보호를 우선시하는 경우 탈물질주의임
공동체주의/개인주의	개인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면 공동체주의이고, 공동체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면 개인주의임

2) 인지면접 및 사전조사

인지면접조사는 국가인권실태조사를 위해 미리 작성된 조사표에 대해 인지적인 접근법을 적용하여 주요 항목들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와 해석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신규 개발된 문항, 문항 순서나 워딩이 수정된 문항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질문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도록 하였다. 인지면접은 성별, 연령별로 다양하게 구성된 12명의 참여자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인지면접 결과에 따라 문항이 삭제되거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문구를 수정하고, 보기 문항을 조정하였다.

사전조사는 본조사에 진행하기에 앞 조사표의 조사 항목 및 조사표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용어, 문장 구성, 문항 이동 등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1주일간 전국 5개 권역에서 남녀 100명이 사전조사에 참여하였다. 응답시간은 최대 40분으로 조사되었고, 고령일수록 응답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었다.

3) 조사개요

본 조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은 전국에 걸친 표본 추출을 통해 얻은 표본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인이며, 최종적으로 조사된 표본은 10,106가구의 17,593명이었다. 조사 기간은 2021년 7월 16일(금)에서부터 2021년 11월 8일(월)까지였고,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9월 13일(월)부터 조사가 시작되었다. 조사 방법은 일대일 면접조사로 TAPI(Tablet PC Aided Personal Interview)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부득이한 경우 유치조사와 웹-모바일 방식의 조사가 병행되었다.

배경 변수에서 2020년과 달리 국가목표와 공동체 이익이 추가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 가치를 묻는 국가목표 문항은 2020년까지 포함되었던 가치관 문항을 대체하며 인권에 대한 인식과 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식과 가치이라고 판단해서 승인통계 변경을 통해 추가하였다. 공동체와 개인 이익의 중요성을 묻는 문항 역시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 가치관을 묻는 문항으로 인권과 차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서 추가했다.

최종적으로 조사가 완결된 응답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구분	명	%
성별	**(17,593)**	**100.0**
남자	(8,706)	49.5
여자	(8,887)	50.5
연령	**(17,593)**	**100.0**
20대 이하	(3,001)	17.1
30대	(2,769)	15.7
40대	(3,324)	18.9
50대	(3,484)	19.8
60대 이상	(5,015)	28.5
지역	**(17,593)**	**100.0**
도 시(동 부)	(14,431)	82.0
농어촌(읍면부)	(3,162)	18.0
학력	**(17,593)**	**100.0**
중졸 이하	(3,181)	18.1
고졸 이하	(6,675)	37.9
대졸 이하	(7,272)	41.3
대학원 이상	(465)	2.6
직업	**(17,593)**	**100.0**
관리자/전문가/관련 종사자	(1,891)	10.7
사무직	(2,692)	15.3
서비스/판매직	(3,534)	20.1
생산/기술직	(1,510)	8.6
농림어업 관련 종사자	(613)	3.5
단순노무직	(1,036)	5.9
기타	(18)	0.1
무직	(6,298)	35.8
국가 목표	**(17,593)**	**100.0**
물질주의	(6,158)	35.0
탈물질주의	(1,217)	6.9
혼합형	(10,219)	58.1
공동체 이익	**(17,593)**	**100.0**
공동체 이익 중요	(2,037)	11.6
개인 이익 중요	(2,192)	12.5
둘 다 중요	(13,364)	76.0

주 : 사례수는 최종가중치를 통하여 보정된 가중치 적용 결과(weighted analysis)이며, 백분율은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Ⅱ

표본설계 및 모수추정

1 표본설계

1)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표본 추출은 다단계 확률비례계통추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개략적 내용은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모집단 및 표본추출

분 류	내 용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① 모집단 : 조사시점 기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② 표본추출틀 : 2019년 통계청 등록센서스 조사구 리스트
목표오차 또는 표본규모	① 표본규모 - 전국 10,000가구(표본가구 내 약 17,000명의 가구원) - 1000개 조사구 추출 - 조사구 당 목표가구 10가구(조사구 당 25가구 추가 추출) ②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1.6%p(설계효과 2.64 적용)
표본추출방식 (층화, 특성, 분류지표 포함)	① 층화 : 시/도(17개 권역), 동부/읍면부, 조사구 특성(아파트. 일반) - 분류지표 : 65세 이상 인구 비율, 1인가구 비율 ② 표본 배분 - 시/도 : 가구 수 기준 제곱근비례배분 - 시도, 동부/읍면부, 조사구특성(일반/아파트) : 비례배분 ② 표본추출단위 - 1차(psu) : 조사구 → 확률비례계통추출 - 2차(ssu) : 조사구 내 가구(조사구당 10가구) → 계통추출 - 최종조사단위 : 표본가구 내 적격가구원 전수조사

모집단의 정의는 목표 모집단의 경우, 조사시점 기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이며, 조사 모집단은 조사가 곤란한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조사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제외한 일반가구의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이었다. 시/도별 모집단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2〉 표본가구 규모

(단위: 개, 가구, 명)

시도	조사구(2019년 기준)		가구(2019년 기준)		인구(2019년 기준)	
	조사구 수	열%	가구 수	열%	19세 이상 인구	열%
전국	373,284	100.0%	20,343,188	100.0%	41,707,452	100.0%
서울	69,535	18.6%	3,896,389	19.2%	7,941,951	19.0%
부산	25,681	6.9%	1,377,030	6.8%	2,833,406	6.8%
대구	16,761	4.5%	968,620	4.8%	2,000,821	4.8%
인천	20,074	5.4%	1,120,576	5.5%	2,371,908	5.7%
광주	10,222	2.7%	587,159	2.9%	1,190,334	2.9%
대전	10,584	2.8%	609,043	3.0%	1,219,740	2.9%
울산	8,269	2.2%	437,094	2.1%	910,873	2.2%
세종	2,392	0.6%	129,664	0.6%	249,066	0.6%
경기	88,240	23.6%	4,907,660	24.1%	10,399,012	24.9%
강원	12,259	3.3%	633,942	3.1%	1,262,551	3.0%
충북	12,291	3.3%	654,713	3.2%	1,307,763	3.1%
충남	16,315	4.4%	864,102	4.2%	1,721,347	4.1%
전북	13,851	3.7%	738,307	3.6%	1,471,988	3.5%
전남	14,629	3.9%	741,026	3.6%	1,456,909	3.5%
경북	21,654	5.8%	1,102,934	5.4%	2,184,225	5.2%
경남	25,331	6.8%	1,321,213	6.5%	2,671,554	6.4%
제주	5,196	1.4%	253,716	1.2%	514,004	1.2%

출처: 2019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추출틀은 2019년 등록센서스(통계청) 전체 조사구 중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조사구를 제외한 아파트 조사구와 일반조사구 리스트이다. 표본 추출에서는 17개 시도별로 조사가 완결된 최종 데이터의 비교분석 결과에서 일정 수준의 통계적 신뢰성을 갖도록 표본설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국가인권실태조사」의 표본설계에서 1차 추출단위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는 가구 및 가구원이다. 1차 추출단위인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는 기본적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가구들을 묶어 구성되며 대개 60~70여 가구로 이루어지며, 표본설계에서 층화는 1차 추출단위인 조사구의 특성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층화는 행정구역 구분, 동부 및 읍면부 구분, 조사구 특성(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을 고려하였다.

- 1차 층화 : 8개 특광역시와 9개 도
- 2차 층화 : 동부/읍면부
- 3차 층화 : 주택유형(아파트/일반)

〈표 2-3〉 층화 변수

지역	1차 층화	2차 층화	3차 층화	층수
특광역시	특광역시 : 8개	없음	조사구 특성 (아파트, 일반)	16
도 지역	도 : 9개	- 동부, 읍면부	조사구 특성 (아파트, 일반)	36

본 조사의 층별 모집단 조사구 수 분포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4〉 층별 모집단 조사구 수 현황

지역	동부		읍면부		합계
	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	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	
전국	166,460	135,246	21,908	48,759	372,373
서울	29,597	39,938	-	-	69,535
부산	14,686	10,994	-	-	25,680
대구	9,597	7,164	-	-	16,761
인천	10,827	9,126	-	-	19,953
광주	6,712	3,510	-	-	10,222
대전	5,870	4,714	-	-	10,584
울산	5,096	3,173	-	-	8,269
세종	1,817	575	-	-	2,392
경기	43,263	29,448	6,036	9,489	88,236
강원	4,174	2,749	1,449	3,887	12,259
충북	3,961	2,715	1,997	3,618	12,291
충남	4,421	2,697	3,075	6,089	16,282
전북	5,683	3,619	714	3,805	13,821
전남	3,698	2,031	1,891	6,452	14,072
경북	6,039	4,570	3,018	8,024	21,651
경남	9,563	5,976	3,599	6,066	25,204
제주	1,456	2,247	129	1,329	5,161

표본크기의 결정요소로는 생산되는 통계의 목표표본오차 크기와 주어진 예산 및 조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본 조사의 목표 표본크기는 전국 10,000가구 내 만 19세 이상의 일반 국민 약 17,000명을 조사하는 것이다. 2020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구당 평균 응답자 수는 1.7명이다[1]. 아래 표는 2020년도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얻은 주요 조사항목 추정에 대한 설계효과 현황이다. 이 조사의 설계효과 값[2]은 약 1.92-2.50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적용

1) 2019년 인구총조사에서 가구당 평균 만 19세 이상 가구원 수는 2.05명이지만, 가구내 응답률이 100%보다 낮기 때문에 가구당 평균 응답자 수가 1.7명이 되었음

한 본 조사의 목표 허용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1.1%p(설계효과 2.21을 적용한 결과임)이다.

〈표 2-5〉 주요 조사변수에 대한 설계효과(design effect) 현황

조사항목	2020년도 조사 결과		
	추정값	95% 오차의 한계	설계효과
1년 전과 비교한 인권상황(q5)	38.8%	1.2%	2.17
본인의 인권 존중 비율(q6)	79.3%	0.9%	1.92
전반적인 인권침해 여부(q10)	31.5%	1.1%	2.28
전반적인 차별 여부(q14)	35.0%	1.2%	2.50
인권교육의 필요 여부(q29)	92.9%	0.6%	2.18
평균	-	-	2.21
중위수	-	-	2.18

표본 배분과 관련하여 2021년도 「국가인권실태조사」의 표본크기는 1,000개 조사구로 하며, 각 표본조사구에서는 10가구를 조사하여 표본가구 내 만 19세 이상 약 17,000명의 가구원을 조사하였다. 표본배분 단계에서 1차적으로 시/도별로는 2020년도 조사의 표본설계와 마찬가지로 시도별 가구 수를 기준으로 제곱근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아래 식으로 17개 시/도별 표본을 배분하였다.

$$n_h = n \times \frac{\sqrt{N_h}}{\sum_{h=1}^{17} \sqrt{N_h}}$$

여기에서, N_h는 각각 h시/도의 가구 수이고, n는 전체 표본크기로 1,000개 조사구이고, n_h는 h시/도의 표본 조사구 수이다. 제곱근비례배분을 적용한 이유는 조사 결과의 활용성과 다양한 심층분석을 위해 시/도별로 충분한 규모의 표본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비례배분법과 비교하여 표본

2) 설계효과는 집락추출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산의 증가본을 의미한다.

크기의 시/도간 편차가 상대적으로 적어 추정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도 단위의 다양한 추가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표 2-6〉 17개 시/도별 표본배분 결과

지역	모집단		비례배분 결과			제곱근비례배분 결과		
	조사구 수	가구 수	조사구 수	표본 응답자 수	예상 오차의 한계	조사구 수	표본 응답자 수	예상 오차의 한계
전국	373,284	20,343,188	1,000	17,000	±1.2%p	1,000	17,000	±1.2%p
서울	69,535	3,896,389	192	3,264	±2.8%p	117	1,989	±3.6%p
부산	25,681	1,377,030	68	1,156	±4.8%p	69	1,173	±4.7%p
대구	16,761	968,620	48	816	±5.7%p	58	986	±5.2%p
인천	20,074	1,120,576	55	935	±5.3%p	62	1,054	±5.0%p
광주	10,222	587,159	29	493	±7.3%p	45	765	±5.9%p
대전	10,584	609,043	30	510	±7.2%p	46	782	±5.8%p
울산	8,269	437,094	21	357	±8.6%p	39	663	±6.3%p
세종	2,392	129,664	6	102	±16.1%p	21	357	±8.6%p
경기	88,240	4,907,660	241	4,097	±2.5%p	131	2,227	±3.4%p
강원	12,259	633,942	31	527	±7.1%p	47	799	±5.7%p
충북	12,291	654,713	32	544	±7.0%p	48	816	±5.7%p
충남	16,315	864,102	43	731	±6.0%p	55	935	±5.3%p
전북	13,851	738,307	36	612	±6.6%p	51	867	±5.5%p
전남	14,629	741,026	36	612	±6.6%p	51	867	±5.5%p
경북	21,654	1,102,934	54	918	±5.4%p	62	1,054	±5.0%p
경남	25,331	1,321,213	65	1,105	±4.9%p	68	1,156	±4.8%p
제주	5,196	253,716	13	221	±10.9%p	30	510	±7.2%p

주: 예상 오차의 한계는 설계효과를 반영하여 95% 신뢰수준에서 계산한 95% 신뢰수준 오차의 한계임

앞의 표에 주어진 표본배분 결과를 기준으로 2차 층화변수인 동부/읍면부 구분, 3차 층화변수인 조사구 특성(아파트, 일반)에 대해서는 조사구 수를 기준으로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 각 세부 층별 표본배분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7〉 세부 층별 표본배분 결과

지역	동부		읍면부		합계
	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	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	
전국	447	342	64	147	1,000
서울	50	67	-	-	117
부산	39	30	-	-	69
대구	33	25	-	-	58
인천	34	28	-	-	62
광주	30	15	-	-	45
대전	26	20	-	-	46
울산	24	15	-	-	39
세종	16	5	-	-	21
경기	64	44	9	14	131
강원	16	10	6	15	47
충북	15	11	8	14	48
충남	15	9	10	21	55
전북	21	13	3	14	51
전남	13	8	7	23	51
경북	17	13	9	23	62
경남	26	16	10	16	68
제주	8	13	2	7	30

조사구 당 목표 가구 수는 10가구로 하며, 예비 표본 가구 25가구를 추가 추출하여 조사구 당 35가구를 표본 가구로 하였다.

본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에서는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표본추출틀로 활용하여 1,000개 표본조사구를 추출하였다. 표본추출은 층화 2단 집락추출법을 적용하며, 1차 추출단위는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는 가구 및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이다. 1차 추출 단위(psu) 추출 즉 세부

층 내 표본조사구 추출에 대한 분류지표는 주택유형, 65세 이상 인구 비율, 1인 가구 비율 등을 고려하였다. 주택유형 구분은 세부 층화 단계에서 층화변수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과 1인 가구 비율을 분류지표로 사용하였다.

1차 기준	• 65세 이상 인구 비율
2차 기준	• 1인 가구 비율

1차 추출 단위(psu) 즉 조사구는 위의 표에 주어진 각 세부 층에서 표본조사구 추출은 세부 층별로 조사구를 아래 분류기준과 주소지 코드로 정렬한 후, 조사구 내 가구 수 기준의 확률비례 계통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2차 추출 단위(ssu)인 가구는 추출된 조사구 내의 가구명부를 기준으로 정렬한 후 조사구당 표본가구 수만큼을 계통추출하여 조사하며, 각 표본 조사구에서 목표 조사성공 가구 수는 10가구이다.

최종 조사단위인 가구원은 선정된 가구 내의 만 19세 이상 가구원을 모두 조사함으로써 조사원에 의한 선정 편향을 줄이고자 하였다.

2 가중값 작성

1) 설계 가중값(Design Weight)

본 조사에서 설계가중치는 표본설계에서 사용된 층화2단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따라 조사구 내의 가구별 추출확률이 달라짐에 따라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중치 작성 과정에서 사용될 기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H : 층의 수
- N_h : 층 h의 모집단 조사구 수
- n_h : 층 h의 표본 조사구 수
- S_{hi} : 층 h의 i번째 조사구에 대한 크기의 측도(해당 조사구의 총 가구 수)
- $S_h = \sum_{i=1}^{N_h} S_h$: 층 h에서 크기의 측도에 대한 총합
- M_{hi} : 층 h의 i번째 조사구 내 가구 수(조사완료+조사미완+조사미착수)
- m_{hi} : 층 h의 i번째 조사구 내 조사착수 가구 수(응답+거절)
- r_{hi} : 층 h의 i번째 표본조사구 내 조사완료 가구 수(응답)

본 조사의 설계가중치는 각 표본조사구에 대한 표본추출률의 역수와 각 표본조사구에서 가구조사 완료율의 역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text{설계가중치 } w_{hi} = \frac{S_h}{n_h\, S_{hi}} \times \frac{M_{hi}}{m_{hi}}$$

한편 위 식에서 각 표본조사구에서는 원칙적으로 $S_{hi} \approx M_{hi}$를 가정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역 내 세부 층에서 조사 가구에 대한 설계가중치는 원칙적으로 동일하며, 무응답 조정은 표본조사구 단위로 진행하였다.

$$w_{2hi} = \frac{m_{hi}}{r_{hi}}$$

여기에서, m_{hi}는 h층 내의 i조사구 내의 표본가구 수를 나타내며, r_{hi}는 h층 내의 i조사구 내 실제 응답한 가구 수를 나타낸다.

최근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가구의 가구원 수 분포를 반영하고자 가구원 수를 다음 식에 따라 보정하였다.

$$BF_{ab} = \frac{G_{ab}}{\sum_{a}\sum_{b}(w_{1hi} \times w_{2hi})}$$

여기에서, G_{ab}는 a 시/도, b 가구원 수(1인, 2인, 3인, 4인 이상)의 모집단 가구 수를 나타낸다.

표본가구 내에서 적격 가구원을 전수조사하지만 조사불능 및 조사불응의 사유로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가구마다 가구원 추출률이 상이하므로 이를 보정하고자 표본가구 내 가구원 응답률을 반영하였다.

한편 사후층화 보정은 모집단과 표본의 구조가 유사하도록 2020년 인구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시/도별(17), 연령대(5), 성별(2)의 구성비를 보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최종 가중치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얻었다.

최종가중치 = 설계가중치 × 무응답 조정 계수 × (가구원 수 분포) 보정 계수
× 표본가구 내 가구원 응답률 역수 × 사후층화 보정 계수

모수 추정과 관련하여, 본 조사의 표본설계는 복합표본설계 방법이 적용되어 표본을 추출함에 따라 이에 적합한 모수 추정식을 적용하였다.

모평균 추정에는 다음 식이 이용되었다.

$$\hat{\bar{Y}} = \frac{\sum_{h=1}^{H}\sum_{i=1}^{n_h}\sum_{j=1}^{m_{hi}} w_{hij} y_{hij}}{\sum_{h=1}^{H}\sum_{i=1}^{n_h}\sum_{j=1}^{m_{hi}} w_{hij}}$$

- $h = 1, 2, \cdots, h$: 설계층을 나타내는 첨자
- $i = 1, 2, \cdots, n_h$: 조사구를 나타내는 첨자
- $j = 1, 2, \cdots, m_{hi}$: 가구 및 가구원을 나타내는 첨자
- w_{hij} : h층 i조사구 j가구(가구원)의 가중값
- y_{hij} : h층 i조사구 j가구(가구원)의 관측값

또한 모평균에 대한 분산추정은 다음 식을 이용했다.

$$\hat{V}(\hat{\bar{Y}}) = \sum_{h=1}^{H}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cdot})^2$$

- $f_h = \frac{N_h}{n_h}$
- $e_{hi\cdot} = \left[\sum_{j=1}^{m} w_{hij}(y_{hij} - \hat{\bar{Y}}) \right] / w_{\cdot\cdot}$
- $\bar{e}_{h\cdot} = (\sum_{i=1}^{n_h} e_{hi\cdot})/n_h$

모평균에 대한 표준오차는 다음 식을 이용하였다.

$$\widehat{SE}(\hat{\bar{Y}}) = \sqrt{\hat{V}(\hat{\bar{Y}})}$$

모평균에 대한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추정은 다음 식을 이용하였다.

$$\widehat{rse}(\hat{\bar{Y}}) = \frac{\sqrt{\hat{V}(\hat{\bar{Y}})}}{\hat{\bar{Y}}} \times 100(\%)$$

통계자료 공표 시 또는 공표가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통계표 셀 내의 유효표본크기가 너무 작거나 상대표준오차가 큰 경우 등 신뢰성이 높지 않은 경우(분류, 항목)에는 유사한 층을 통합하여 통계표를 작성해야 하며, 그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통계청의 「표본설계 및 관리 지침」의 제10조(표본오차의 기준)를 따랐다.

〈표 2-8〉 가구 통계 유의사항 표기 및 해석

구분		RSE<30%		25%≤RSE<50%	50%≤RSE
		n≥10	n<10		
표기		표기 없음	*	*	**
	해석	신뢰도 높음	신뢰도 다소 낮음	신뢰도 다소 낮음	신뢰도 낮음

Ⅲ

조사결과 분석

1 인권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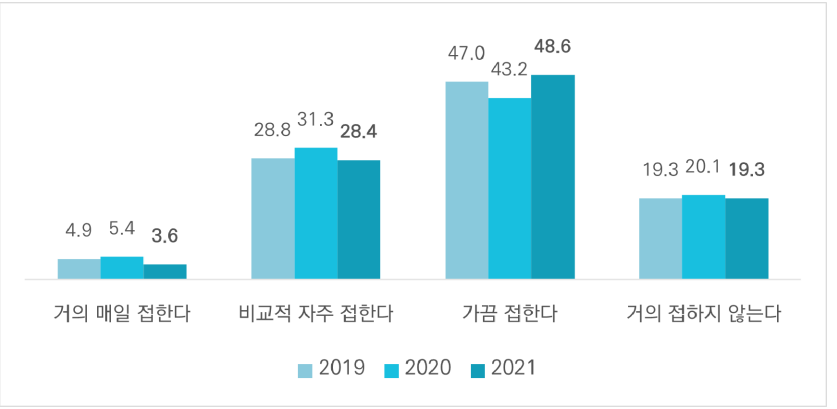
1) 인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

(1) 인권을 접하는 정도

평소 인권이란 용어에 접한다고 응답한 사람(거의 매일+비교적 자주+가끔)의 비율은 80.7%로 2020년 대비 0.8%p 증가하였다. 인권이란 용어를 거의 접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19.3%(2019)→20.1%(2020)→19.3%(2021)로 연도별로 큰 변화는 없다.

[그림 3-1] 평소 인권 용어에 노출되는 정도

(단위 : %)



인권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정도에 있어 남성과 여성에서 모두 인권이라는 단어를 접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으며, 인권을 접하는 경우 남성이 84.0%, 여성이 77.3%로 남성이 여성보다 6.7%p 더 많이 접한다고 답변했다. 연령대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20-30대가 86.7%로 가장 높은 인지율을 보였고, 그다음이 40-50대(86.3%), 60대 이상(66.1%) 순이었다.

이는 젊은 세대일수록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인권에 관심이 많거나 보다 많은 인권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이 인권을 접한다고 응답한 비율이(89.2%)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인권을 접한다고 한 비율(71.7%)보다 17.5%p 높았다. 직업의 경우 관리전문직(90.2%), 사무판매서비스(87.4%), 농림생산직(76.1%),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73.4%) 순으로, 관리전문직의 경우에 인권이라는 용어를 접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고려했을 때, 종교가 있을 때(79.9%)보다 종교가 없는 경우(81.1%) 좀 더 인권을 자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의 경우, 진보(87.6%), 중도(87.5%), 보수(78.0%), 무관심(70.9%) 순으로 정치에 무관심할 때 '인권'이라는 단어를 가장 적게 접하고 있었다.

가치관별로 살펴보면,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 중 평소 인권이라는 단어에 자주 접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79.2%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82.7%)에 비해 다소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공동체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중 평소 인권이라는 단어에 자주 접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78.1%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78.2%)와 유사했다.

〈표 3-1〉 평소 인권 용어에 노출되는 정도

(단위 : %)

구분	거의 매일 접함	비교적 자주 접함	가끔 접함	거의 접하지 않음	계	평균 (4점)	X^{2} 3) (df)
전체	3.6	28.4	48.6	19.3	100.0	2.2	
성별							176.935 (3)***
남자	4.4	31.2	48.4	15.9	100.0	2.2	
여자	2.9	25.6	48.8	22.6	100.0	2.1	
연령							1,028.244 (6)***
20-30대	4.3	32.4	50.0	13.3	100.0	2.3	
40-50대	3.9	31.7	50.7	13.7	100.0	2.3	
60대 이상	2.5	19.3	44.3	33.9	100.0	1.9	
학력							1,134.274 (3)***
고졸 이하	2.3	20.6	48.8	28.2	100.0	2.0	
대재 이상	4.9	35.8	48.5	10.8	100.0	2.3	
직업							790.206 (9)***
관리전문직	6.6	42.6	41.0	9.8	100.0	2.5	
사무판매서비스	4.1	31.5	51.8	12.5	100.0	2.3	
농림생산직	2.6	23.7	49.8	23.8	100.0	2.1	
비경제활동인구	2.8	23.4	47.2	26.6	100.0	2.0	
종교							59.568 (3)***
없음	3.4	26.9	50.8	18.9	100.0	2.1	
있음	4.0	30.9	45.0	20.1	100.0	2.2	

구분	거의 매일 접함	비교적 자주 접함	가끔 접함	거의 접하지 않음	계	평균 (4점)	X^{2}[3] (df)
정치 성향							
보수	3.7	27.2	47.1	22.0	100.0	2.1	756.743 (9)***
중도	4.3	32.4	50.8	12.6	100.0	2.3	
진보	5.1	35.4	47.1	12.4	100.0	2.3	
무관심	2.1	20.8	48.0	29.1	100.0	2.0	
국가 목표							
물질주의	3.5	27.7	48.0	20.9	100.0	2.1	26.609 (6)***
탈물질주의	5.3	30.3	47.1	17.3	100.0	2.2	
혼합형	3.5	28.6	49.2	18.6	100.0	2.2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익 중요	4.6	30.2	43.3	21.8	100.0	2.2	54.895 (6)***
개인 이익 중요	2.5	25.6	50.1	21.9	100.0	2.1	
둘 다 중요	3.7	28.6	49.2	18.5	100.0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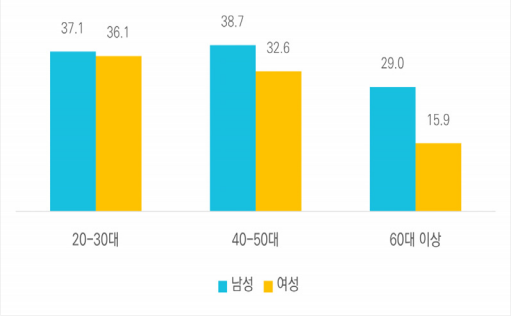
인구학적 배경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인권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는 집단(거의 매일+비교적 자주)은 40-50대 남성 집단(38.7%)인 반면, 가장 접하지 못하는 집단은 60대 이상의 여성 집단(15.9%)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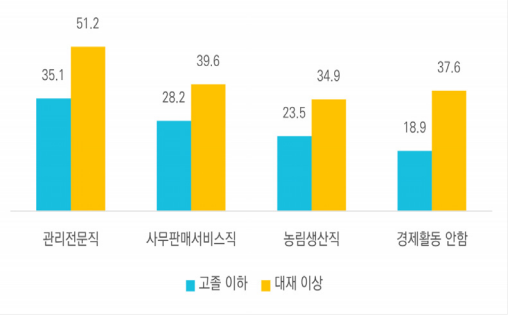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별로 보았을 때 인권이라는 단어에 자주 접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대학교 재학 이상의 관리전문직 집단(51.2%)인 반면, 가장 낮은 집단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1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식적 배경을 고려하였을 때 인권이라는 단어에 자주 접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진보적 성향의 종교가 있는 집단(44.5%), 가장 낮은 집단은 정치에 무관심한 종교가 없는 집단(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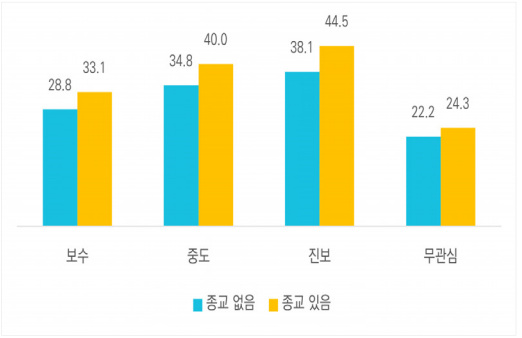
[그림 3-2] 인권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비율의 배경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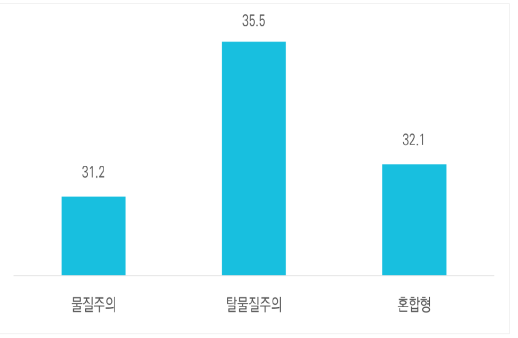
(단위 : %)





3) 교차분석 결과의 통계적 유의확률 기준은 *p<0.05 **p<0.01 ***p<0.001로, 이하 모든 분석에서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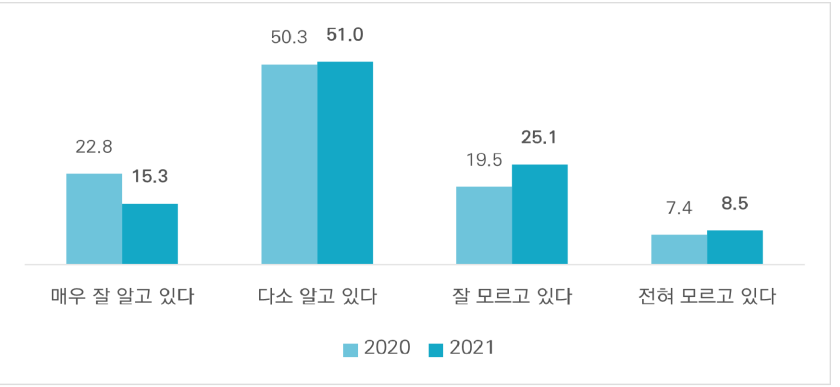


(2) 헌법에 기본적 인권보호의 명시 여부를 알고 있는 정도

우리 헌법에 기본적 인권보호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매우+다소)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66.4%로 2020년 73.1% 대비 6.7%p가 감소하였다. 기본적 인권보호의 명시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7.4%(2020)→8.5%(2021)로 약간 증가하였다.

[그림 3-3]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보호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과 여성에서 모두 헌법에 인권보호가 명시되어 있음을 아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이에 대한 인지는 남성이 72.2%, 여성이 60.6%로 남성이 11.6%p 더 많이 접한다고 답변했다. 연령대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20-30대가 75.7%로 가장 높은 인지율을 보였고, 그다음이 40-50대(73.5%), 60대 이상(45.9%) 순이었다. 즉, 젊은 세대일수록 헌법에 인권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더 잘 인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이 헌법에 인권보호가 명시되어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79.9%), 고등학교 졸업 이하(52.2%)보다 27.7%p 높았다. 직업의 경우 관리전문직(86.9%), 사무판매서비스(74.2%), 농림생산직(58.2%),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56.5%) 순으로, 관리전문직의 경우 약 80%가 헌법이 인권보호가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고려했을 때, 종교가 있는 경우(65.5%)보다, 종교가 없을 때(66.8%) 헌법에 인권보호가 명시된 것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의 경우, 보수(61.4%), 진보(76.7%), 중도(73.9%), 무관심(55.1%) 순으로 정치에 무관심할 때 헌법에 기본적인 인권보호가 되어있다는 사실에 대해 가장 인지도가 낮았다.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 중 헌법에 인권 보호가 명시되어 있는지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65.9%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69.1%)에 비해 다소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공동체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중 헌법에 인권 보호가 명시되어 있는지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67.2%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60.5%)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3-2〉 헌법 내 인권보호 명시 인지 정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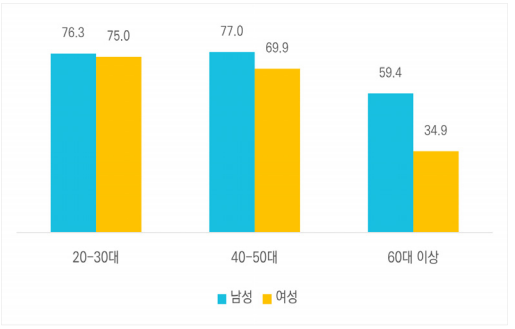
구분	매우 잘 알고 있음	다소 알고 있음	잘 모름	전혀 모름	계	평균 (4점)	X^2 (df)
전체	15.3	51.0	25.1	8.5	100.0	2.7	
성별							
남자	17.1	55.1	22.0	5.8	100.0	2.8	307.900 (3)***
여자	13.6	47.0	28.2	11.2	100.0	2.6	
연령							
20-30대	20.4	55.3	20.7	3.6	100.0	2.9	1,893.455 (6)***
40-50대	16.8	56.7	22.6	3.9	100.0	2.9	
60대 이상	7.4	38.5	33.7	20.4	100.0	2.3	
학력							
고졸 이하	8.1	44.0	32.8	15.0	100.0	2.5	1,955.958 (3)***
대재 이상	22.2	57.7	17.8	2.3	100.0	3.0	
직업							
관리전문직	30.9	56.1	11.5	1.6	100.0	3.2	1,297.450 (9)***
사무판매서비스	16.3	57.9	22.3	3.5	100.0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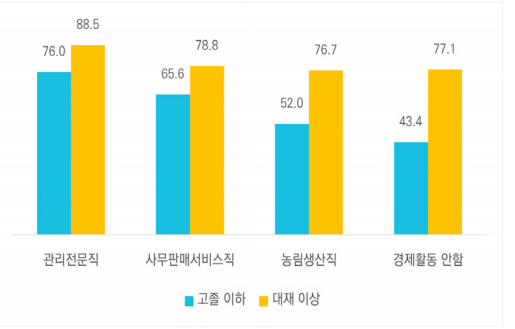
구분	매우 잘 알고 있음	다소 알고 있음	잘 모름	전혀 모름	계	평균 (4점)	X^2 (df)
농림생산직	10.4	47.8	29.5	12.3	100.0	2.6	
비경제활동인구	12.2	44.3	29.9	13.6	100.0	2.6	
종교							
없음	14.4	52.4	25.2	8.0	100.0	2.7	37.303 (3)***
있음	16.9	48.7	25.1	9.4	100.0	2.7	
정치 성향							
보수	13.2	48.2	26.8	11.9	100.0	2.6	
중도	18.0	55.9	22.1	4.0	100.0	2.9	857.437 (9)***
진보	20.3	56.4	19.8	3.5	100.0	2.9	
무관심	10.8	44.3	30.5	14.3	100.0	2.5	
국가 목표							
물질주의	15.6	50.3	25.6	8.6	100.0	2.7	11.395 (6)*
탈물질주의	17.3	51.8	21.9	8.9	100.0	2.8	
혼합형	14.9	51.4	25.3	8.4	100.0	2.7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익 중요	15.5	51.7	22.4	10.4	100.0	2.7	56.238 (6)***
개인 이익 중요	13.3	47.2	30.3	9.2	100.0	2.6	
둘 다 중요	15.6	51.6	24.7	8.1	100.0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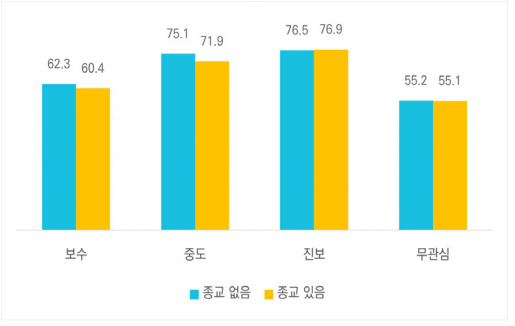
인구학적 배경을 고려하였을 때, 헌법에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집단은 40-50대 남성 집단이 77.0%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가장 알지 못하는 집단은 60대 이상의 여성 집단(3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면 헌법에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집단은 대학교 재학 이상의 관리전문직 집단(88.5%), 가장 알지 못하는 집단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4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식적 배경을 고려하였을 때 헌법에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집단은 진보적 성향의 종교가 있는 집단(44.5%), 가장 낮은 집단은 정치에 무관심한 종교가 없는 집단(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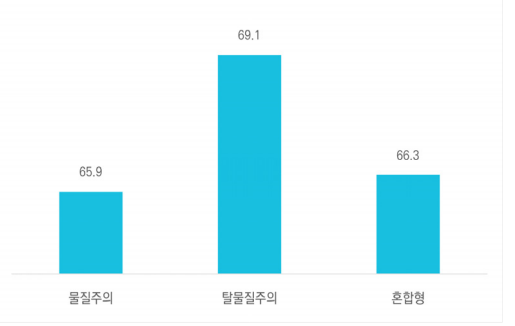
[그림 3-4] 헌법에 인권의 보호가 명시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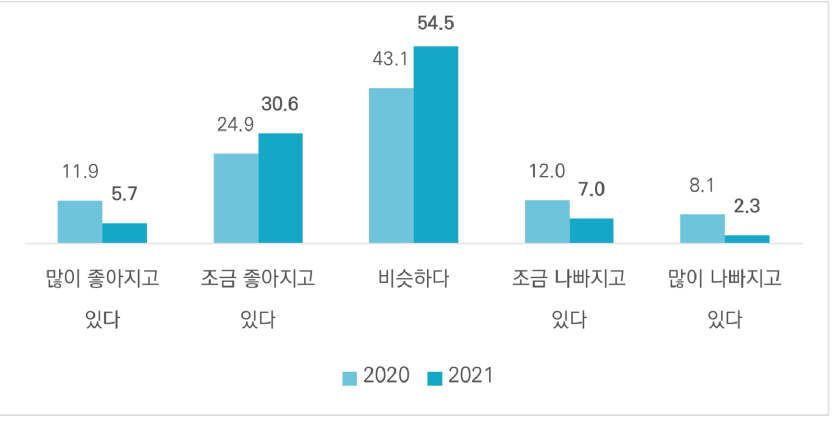
2) 한국 인권상황의 전반적 평가

(1)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지난 1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많이+조금)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36.3%로 2020년 36.8% 대비 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단위 : %)



지난 1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좋아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성(51.8%)과 여성(57.1%)에서 모두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40-50대가 39.9%로 가장 높은 비율로 좋아지고 있다고 보았고, 그다음이 20-30대(36.9%), 60대 이상(30.6%) 순이었다. 성별과 마찬가지로 연령대에서도 비슷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 재학 이상이 작년에 비해 인권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1.1%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31.2%)보다 9.9%p 높았다. 직업의 경우 관리전문직(47.5%), 사무판매서비스(38.0%), 농림생산직(33.6%),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32.5%) 순으로, 관리전문직이 다른 직업에 비해 인권 개선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고려했을 때, 종교가 없는 경우(35.6%) 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37.3%)에 지난 1년 인권 개선 정도에 대해 좋아졌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의 경우, 진보(47.4%), 중도(39.4%), 보수(32.5%), 무관심(29.0%) 순으로 정치에 무관심한 집단 중에 인권 개선의 정도에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 반면 인권이 나빠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보

수적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 13.8%로 가장 높았다.

가치관 차이에 따르면,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 중 지난 1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인권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35.4%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36.3%)에 비해 다소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공동체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중 지난 1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인권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41.9%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30.1%)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3-3〉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많이 좋아지고 있음	조금 좋아지고 있음	비슷	조금 나빠지고 있음	많이 나빠지고 있음	계	평균(5점)	X^2 (df)
전체	5.7	30.6	54.5	7.0	2.3	100.0	3.3	
성별								68.865 (4)***
남자	6.6	32.2	51.8	6.9	2.5	100.0	3.3	
여자	4.7	29.1	57.1	7.1	2.0	100.0	3.3	
연령								147.179 (8)***
20-30대	5.3	31.6	54.0	6.5	2.6	100.0	3.3	
40-50대	7.1	32.8	52.0	6.2	1.9	100.0	3.4	
60대 이상	4.1	26.5	58.4	8.7	2.3	100.0	3.2	
학력								233.171 (4)***
고졸 이하	3.9	27.3	58.3	8.2	2.3	100.0	3.2	
대재 이상	7.3	33.8	50.8	5.9	2.2	100.0	3.4	
직업								267.796(12)***
관리전문직	12.1	35.3	44.6	5.3	2.6	100.0	3.5	
사무판매서비스	5.2	32.8	53.3	6.8	1.9	100.0	3.3	
농림생산직	4.9	28.8	56.8	7.1	2.5	100.0	3.3	
비경제활동인구	4.5	28.0	57.4	7.7	2.4	100.0	3.2	
종교								47.478 (4)***
없음	5.0	30.6	55.8	6.7	1.9	100.0	3.3	
있음	6.7	30.7	52.3	7.5	2.8	100.0	3.3	
정치 성향								473.918 (12)***
보수	4.4	28.1	53.7	9.9	3.9	100.0	3.2	
중도	6.6	32.8	52.8	6.3	1.5	100.0	3.4	
진보	9.7	37.8	46.1	4.6	1.8	100.0	3.5	
무관심	3.2	25.8	61.4	7.3	2.3	100.0	3.2	
국가 목표								48.396 (8)***
물질주의	6.2	29.2	53.7	8.1	2.7	100.0	3.3	
탈물질주의	6.2	30.1	53.1	8.3	2.3	100.0	3.3	
혼합형	5.3	31.5	55.1	6.2	2.0	100.0	3.3	
공동체 이익								86.976 (8)***
공동체 이익 중요	8.7	33.2	49.0	6.7	2.4	100.0	3.4	
개인 이익 중요	3.9	26.6	59.2	7.7	2.6	100.0	3.2	
둘 다 중요	5.5	30.9	54.5	6.9	2.2	100.0	3.3	

인구학적 배경별로 살펴보면, 40-50대 남성이 42.9%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60대 이상 여성이 28.8%로 우리나라 인권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면 대학교 재학 이상의 관리전문직 집단의 49.3%가 우리나라 인권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제활동이 없는 집단의 28.7%가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식적 배경별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집단은 종교가 있는 진보 성향 집단(47.9%)인 반면, 종교가 없고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집단이 가장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27.9%).

[그림 3-6]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배경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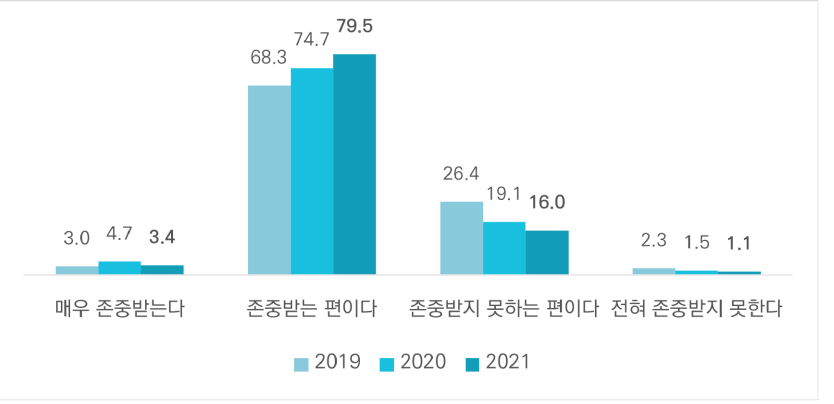
(단위 : %)

(2) 본인의 인권 존중에 대한 평가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82.9%로 2020년 79.4% 대비 3.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의 인권은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2.3%(2019)→1.5%(2020)→1.1%(2021)로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3-7] 우리나라에서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단위 : %)



우리나라에서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는 인식은 성별에 따라 여성의 경우 83.4%가 존중받는다(매우+받는 편)고 응답했으며 이는 남성의 82.4%(매우+받는 편)에 비해 1.0%p 높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20-30대가 84.7%로 가장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보았고, 그다음이 40-50대(83.2%), 60대 이상(80.4%) 순이었다. 즉, 젊은 사람일수록 스스로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이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5.8%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79.8%)보다 6.0%p 높았다. 직업의 경우 사무판매서비스(85.0%), 관리전문직(84.3%),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81.9%), 농림생산직(79.8%) 순으로, 농림생산직이 가장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종교를 고려했을 때, 종교가 있는 경우(82.3%)보다, 종교가 없는 경우(83.2%)에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의 경우, 진보(85.6%), 중도(85.1%), 보수(81.0%), 무관심(80.0%) 순으로 정치에 무관심할 때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 중 지난 1년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82.6%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78.4%)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공동체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중 지난 1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인권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84.0%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75.8%)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3-4〉 본인의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매우 존중 받음	존중 받는 편	존중 받지 못하는 편	전혀 존중 받지 못함	계	평균 (4점)	X^2 (df)
전체	3.4	79.5	16.0	1.1	100.0	2.9	
성별							15.902 (3)**
남자	3.8	78.5	16.4	1.2	100.0	2.8	
여자	3.0	80.4	15.7	1.0	100.0	2.9	
연령							85.177 (6)***
20-30대	4.8	79.9	14.4	1.0	100.0	2.9	
40-50대	3.0	80.2	15.7	1.0	100.0	2.9	
60대 이상	2.3	78.0	18.4	1.3	100.0	2.8	
학력							175.567 (3)***
고졸 이하	2.2	77.7	18.8	1.4	100.0	2.8	
대재 이상	4.6	81.3	13.4	0.8	100.0	2.9	
직업							99.915 (9)***
관리전문직	6.1	78.2	14.6	1.1	100.0	2.9	
사무판매서비스	3.5	81.5	14.1	0.9	100.0	2.9	
농림생산직	2.7	77.1	18.8	1.4	100.0	2.8	
비경제활동인구	2.8	79.1	17.0	1.1	100.0	2.8	
종교							17.550 (3)**
없음	3.1	80.1	15.9	0.9	100.0	2.9	
있음	3.8	78.5	16.2	1.4	100.0	2.8	
정치 성향							100.079 (9)***
보수	3.4	77.6	17.8	1.2	100.0	2.8	
중도	3.3	81.8	14.2	0.7	100.0	2.9	
진보	4.6	81.0	13.4	1.0	100.0	2.9	
무관심	2.8	77.2	18.5	1.5	100.0	2.8	
국가 목표							23.324 (6)***
물질주의	3.5	79.1	16.3	1.2	100.0	2.8	
탈물질주의	3.7	74.8	20.4	1.2	100.0	2.8	
혼합형	3.3	80.3	15.4	1.0	100.0	2.9	
공동체 이익							94.311 (6)***
공동체 이익 중요	3.8	80.2	14.7	1.3	100.0	2.9	
개인 이익 중요	3.3	72.5	22.4	1.8	100.0	2.8	
둘 다 중요	3.3	80.5	15.2	0.9	100.0	2.9	

인구학적 배경별 본인의 인권이 가장 존중받는다고 보는 집단은 20-30대 남성 집단(84.8%)인 반면, 가장 존중받는다는 평가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60대 이상 여성 집단(79.2%)이었다.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여 보면, 본인의 인권이 가장 존중받는다고 보는 집단은 대학교 재학 이상의 사무판매서비스직 남성 집단(86.9%)인 반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농림생산직 종사자는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78.6%). 의식적 배경을 고려하였을 때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집단은 종교가 없는 진보 성향 집단(86.3%)인 반면에, 종교가 있는 무관심 집단(79.6%)은 가장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본인의 인권 존중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의 배경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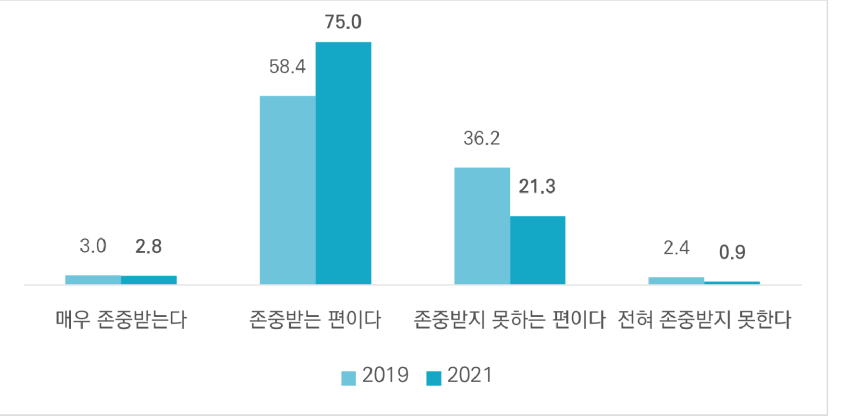
(단위 : %)

⑶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77.8%로 2019년 61.4% 대비 16.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이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2.4%(2019)→0.9%(202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9]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단위 : %)



성별에 따라 인권이 존중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여성의 경우 77.7%, 남성의 경우 77.8%로 남성과 여성 모두 약 78% 정도 존중받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단, 남성이 매우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에 비해 0.7%p 높았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20-30대가 79.7%로 전반적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가 크다고 보았고, 그다음이 40-50대(77.4%), 60대 이상(76.0%) 순이었다. 즉, 젊은 세대일수록 전반적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이 전반적으로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9.4%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76.0%)보다 3.4%p 높았다. 직업의 경우 사무판매서비스(78.9%), 관리전문직(78.4%),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77.6%), 농림생산직(75.6%) 순으로, 농림생산직이 전반적으로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종교에 따라서는 종교가 있는 경우(76.2%)보다 종교가 없는 경우(78.7%)에 전반적인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의 경우, 진보(80.3%), 중도(79.2%), 무관심(76.5%), 보수(74.9%)의 순으로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보수적일 때 전반적인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인식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치관별로 비교해 보면,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 중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78.3%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71.8%)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공동체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중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78.4%로 개인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73.6%)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전반적인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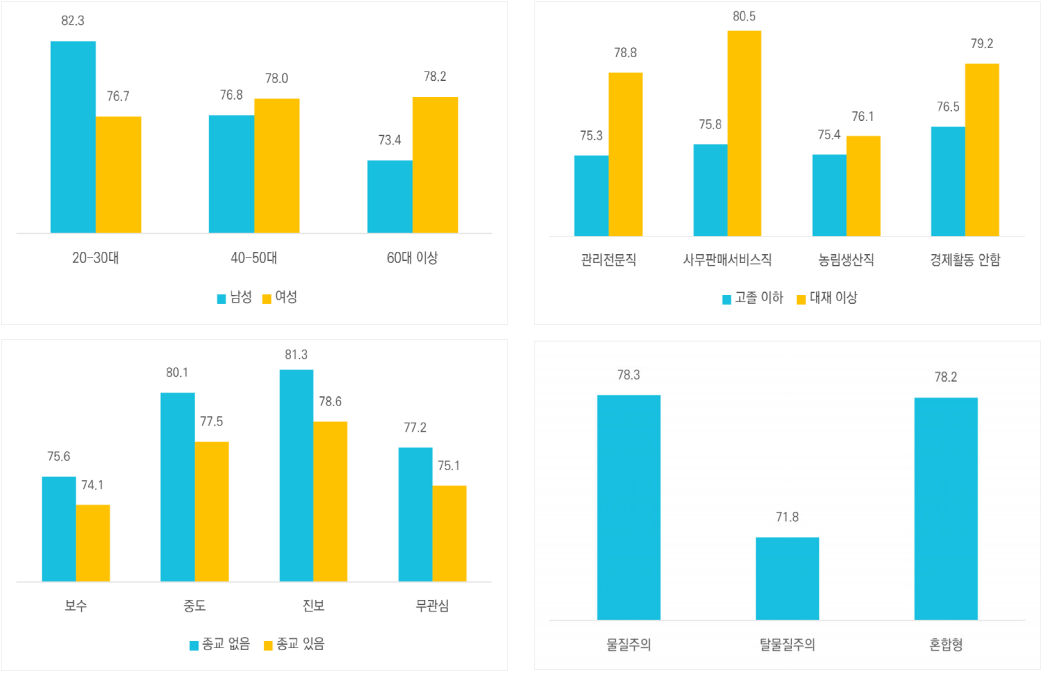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매우 존중 받음	존중 받는 편	존중 받지 못하는 편	전혀 존중 받지 못함	계	평균 (4점)	X^2 (df)
전체	2.8	75.0	21.3	0.9	100.0	2.2	
성별							17.441 (3)**
남자	3.1	74.7	21.0	1.1	100.0	2.2	
여자	2.4	75.3	21.6	0.7	100.0	2.2	
연령							82.995 (6)***
20-30대	3.8	75.8	19.2	1.2	100.0	2.2	
40-50대	2.8	74.6	21.9	0.7	100.0	2.2	
60대 이상	1.5	74.6	23.0	0.9	100.0	2.2	
학력							102.697 (3)***
고졸 이하	1.6	74.4	23.0	0.9	100.0	2.2	
대재 이상	3.9	75.6	19.7	0.9	100.0	2.2	
직업							75.116 (9)***
관리전문직	5.3	73.1	20.6	1.1	100.0	2.2	
사무판매서비스	3.0	75.9	20.2	0.9	100.0	2.2	
농림생산직	2.0	73.6	23.6	0.8	100.0	2.2	
비경제활동인구	2.2	75.4	21.5	0.9	100.0	2.2	
종교							26.053 (3)***
없음	2.5	76.2	20.5	0.9	100.0	2.2	
있음	3.3	73.0	22.8	1.0	100.0	2.2	
정치 성향							92.519 (9)***
보수	2.9	72.0	23.6	1.5	100.0	2.2	
중도	2.7	76.5	20.4	0.4	100.0	2.2	
진보	4.2	76.1	18.8	0.9	100.0	2.2	
무관심	2.0	74.5	22.3	1.2	100.0	2.2	
국가 목표							28.135 (6)***
물질주의	3.0	75.3	20.8	0.9	100.0	2.2	
탈물질주의	2.3	69.4	27.1	1.1	100.0	2.3	
혼합형	2.7	75.4	21.0	0.9	100.0	2.2	
공동체 이익							33.845. (6)***
공동체 이익 중요	3.7	74.7	20.7	0.8	100.0	2.2	
개인 이익 중요	2.4	71.2	25.1	1.3	100.0	2.3	
둘 다 중요	2.7	75.7	20.8	0.9	100.0	2.2	

인구학적 배경별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인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20-30대 남성 집단(82.3%)인 반면, 60대 이상의 남성 집단(73.4%)에서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배경별로 살펴보면 가장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대학교 재학 이상의 사무판매서비스직 집단(80.5%)인 반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관리전문직(75.3%)이 전반적인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식적 배경별로 살펴보면 가장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진보 성향의 종교가 없는 집단(81.3%)인 반면, 60대 이상의 보수 성향의 종교가 있는 집단(74.1%)이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0] 배경 요인별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인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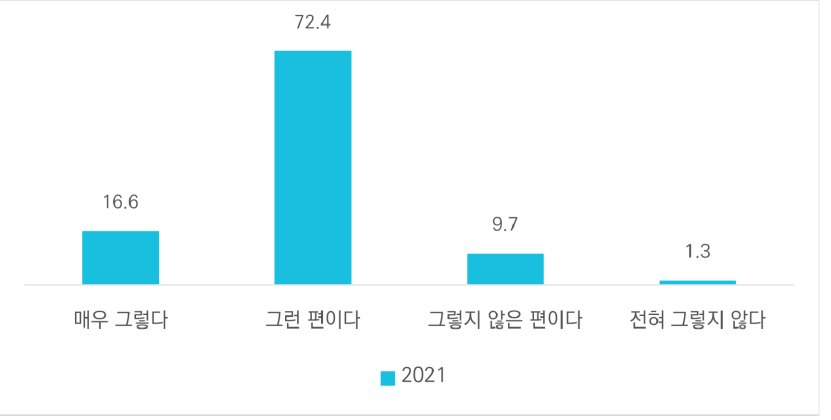


(4) 타인의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인식

평소에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매우+그런 편)은 89.0%로 나타났다.

[그림 3-11] 타인에 대한 인권침해/차별 여부

(단위 : %)



성별로는 남성이 89.3%, 여성이 88.7%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나 통계적 비교(X^2)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20-30대가 89.9%로 타인의 인권에 대한 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이 40-50대(88.8%), 60대 이상(88.4%) 순이었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 집단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89.9%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88.1%)보다 1.8%p 높았다. 직업의 경우 관리전문직(91.0%), 사무판매서비스(88.9%), 농림생산직(88.7%)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88.7%) 순으로, 관리전문직이 91.0%에서 높은 비율로 타인의 인권침해/차별을 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종교가 없는 경우(89.0%)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89.1%)에 0.1%p 정도 타인의 인권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정치 성향의 경우, 중도(90.6%), 보수(89.7%), 진보(87.9%), 무관심(87.4%) 순으로 나타난다.

가치관별로 비교해 보면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 중 평소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88.9%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88.2%)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공동체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중

평소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89.0%로 개인주의적 가치를 지닌 사람(84.4%)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3-6〉 타인의 인권침해/차별 여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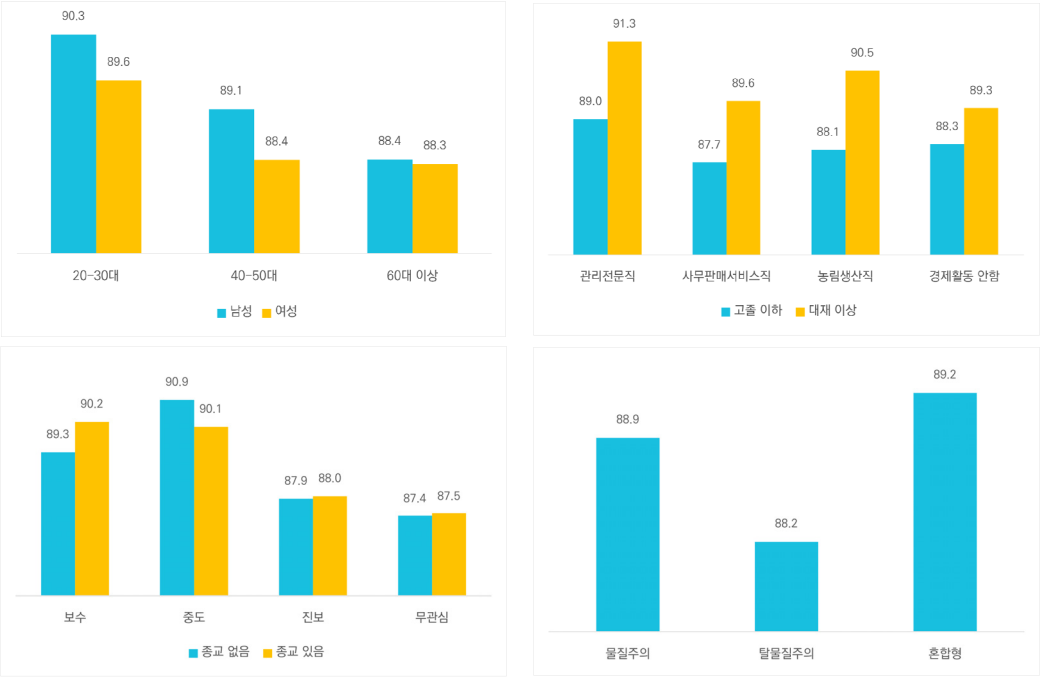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매우 그러함	그런 편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음	계	평균 (4점)	X^2 (df)
전체	16.6	72.4	9.7	1.3	100.0	2.0	
성별							
남자	16.8	72.5	9.5	1.2	100.0	2.0	2.025 (3)
여자	16.5	72.3	9.9	1.3	100.0	2.0	
연령							
20-30대	18.4	71.5	8.9	1.2	100.0	1.9	34.648 (6)***
40-50대	16.4	72.3	10.2	1.0	100.0	2.0	
60대 이상	14.9	73.5	10.0	1.6	100.0	2.0	
학력							
고졸 이하	14.2	73.9	10.3	1.6	100.0	2.0	90.688 (3)***
대재 이상	19.0	70.9	9.2	0.9	100.0	1.9	
직업							
관리전문직	24.3	66.8	7.7	1.3	100.0	1.9	111.466 (9)***
사무판매서비스	16.2	72.8	10.0	1.1	100.0	2.0	
농림생산직	13.4	75.3	9.9	1.4	100.0	2.0	
비경제활동인구	16.4	72.2	10.0	1.4	100.0	2.0	
종교							
없음	15.2	73.8	9.8	1.2	100.0	2.0	48.010 (3)***
있음	19.0	70.0	9.5	1.4	100.0	1.9	
정치 성향							
보수	18.2	71.6	9.2	1.1	100.0	1.9	62.626 (9)***
중도	17.6	72.9	8.3	1.1	100.0	1.9	
진보	17.2	70.7	10.8	1.2	100.0	2.0	
무관심	14.2	73.2	11.0	1.6	100.0	2.0	
국가 목표							
물질주의	17.8	71.1	9.5	1.6	100.0	1.9	35.643 (6)***
탈물질주의	19.2	69.0	11.1	0.7	100.0	1.9	
혼합형	15.6	73.6	9.7	1.1	100.0	2.0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익 중요	16.4	72.5	9.3	1.7	100.0	2.0	90.637 (6)***
개인 이익 중요	13.0	71.4	14.7	0.9	100.0	2.0	
둘 다 중요	17.3	72.5	9.0	1.2	100.0	1.9	

인구학적 배경으로 비교해 보면 타인의 인권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20-30대 남성 집단(90.3%)인 반면, 가장 인권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낮은 집단은 40-50대 여성 집단(88.4%)이었다. 사회경제적 배경 별로 볼 때, 타인의 인권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대학교 재학 이상의 관리전문직 집단(91.3%)인 반면, 가장 비율이 낮은 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사무판매서비스직 종사자들(87.7%) 이었다. 의식적 배경으로 볼 때, 타인의 인권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중도 성향의 종교가 없는 집단(90.9%)이며,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정치적으로 무관심하며 종교가 없는 집단(87.4%)이었다.

[그림 3-12] 타인이 인권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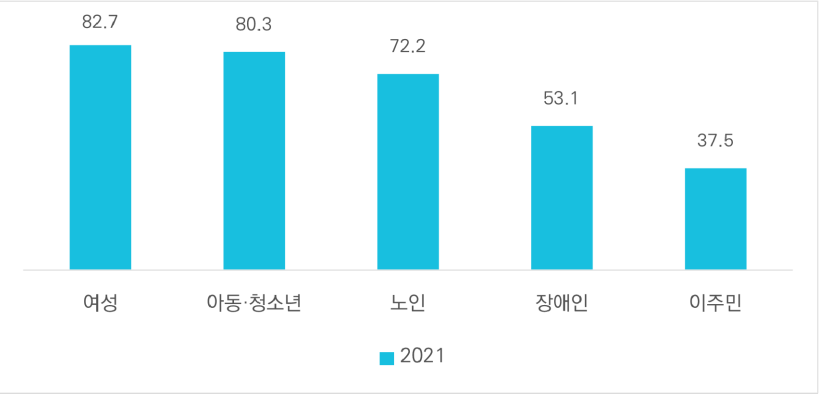


(5) 취약집단의 인권에 대한 인식

취약집단 중에서 가장 인권이 존중된다고 느끼는 집단의 순서대로 보면 여성(82.7%), 아동·청소년(80.3%), 노인(72.2%), 장애인(53.1%), 이주민(37.5%)으로, 상대적으로 인권이 가장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집단은 이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단위 : %)



①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여성의 인권이 존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매우+존중되는 편)은 82.7%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87.8%가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77.8%가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 10.0%p 낮게 여성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여기고 있었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60대 이상이 84.1%로 여성 집단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이 20-30대(82.6%), 40-50대(81.8%) 순이었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이 여성 집단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3.0%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82.4%)보다 0.6%p 높았다. 직업의 경우 농림생산직(83.5%), 관리전문직(83.2%), 사무판매서비스(82.8%),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82.2%) 순으로, 농림생산직이 여성 집단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여기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종교를 고려했을 때, 종교가 있는 경우(80.1%) 보다, 종교가 없는 경우(84.3%)에 4.2%p 정도 여성 집단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보는 비율이 높았다. 정치 성향의 경우, 중도(84.0%), 보수(83.1%), 진보(81.8%), 무관심(81.6%) 순으로 여성 집단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 중 여성 집단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85.3%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75.3%)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공동체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중 여성 집단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86.1%로 개인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사람(82.8%)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3-7〉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단위: %)

구분	매우 존중됨	존중 되는 편	존중 되지 않는 편	전혀 존중 되지 않음	계	평균 (4점)	X^2 (df)
전체	11.2	71.5	16.4	0.8	100.0	2.1	
성별							569.291 (3)***
남자	15.7	72.1	11.8	0.5	100.0	2.0	
여자	6.8	71.0	21.0	1.2	100.0	2.2	
연령							228.296 (6)***
20-30대	15.7	67.0	15.9	1.5	100.0	2.0	
40-50대	8.9	72.9	17.6	0.6	100.0	2.1	
60대 이상	9.2	74.9	15.4	0.5	100.0	2.1	
학력							95.339 (3)***
고졸 이하	8.9	73.5	16.9	0.7	100.0	2.1	
대재 이상	13.4	69.6	16.0	0.9	100.0	2.0	
직업							46.480 (9)***
관리전문직	14.7	68.5	15.3	1.5	100.0	2.0	
사무판매서비스	10.8	72.0	16.6	0.6	100.0	2.1	
농림생산직	11.6	71.9	15.7	0.8	100.0	2.1	
비경제활동인구	10.4	71.8	17.0	0.8	100.0	2.1	
종교							52.878 (3)***
없음	11.1	73.1	14.9	0.8	100.0	2.1	
있음	11.4	68.8	19.0	0.9	100.0	2.1	
정치 성향							44.890 (9)***
보수	12.8	70.3	16.3	0.6	100.0	2.0	
중도	10.6	73.4	15.3	0.7	100.0	2.1	
진보	12.8	68.9	17.2	1.0	100.0	2.1	
무관심	10.1	71.5	17.4	1.0	100.0	2.1	
국가 목표							114.608 (6)***
물질주의	13.2	72.1	14.2	0.5	100.0	2.0	
탈물질주의	9.1	66.1	22.9	1.8	100.0	2.2	
혼합형	10.3	71.8	17.0	0.9	100.0	2.1	
공동체 이익							60.537 (6)***
공동체 이익 중요	15.2	70.8	13.2	0.7	100.0	2.0	
개인 이익 중요	12.8	69.9	16.4	0.9	100.0	2.1	
둘 다 중요	10.3	71.9	16.9	0.8	100.0	2.1	

인구학적 배경별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20-30대의 남성 집단(90.4%)인 반면, 비율이 낮은 집단은 20-30대 여성 집단(74.2%)이었다. 사회경제적 배경별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대학교 재학 이상의 농림생산직 종사자(85.2%)인 반면, 여성의 인권이 가장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낮은 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관리전문직 종사자(77.6%)이었다. 종교가 없는 보수와 중도 성향(각 85.3%)에서 여성 집단의 인권이 존중받는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고, 종교가 있는 정치에 무관심한 집단(77.1%)에서의 응답자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림 3-14]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배경 요인별 비교

(단위 : %)

②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매우+존중되는 편)은 80.3%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82.7%가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78.0%가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여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60대 이상의 73.2%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존중되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로는 그다음이 20-30대(79.1%), 40-50대(78.8%) 순이었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아동·청소년집단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2.2%로, 대학교 재학 이상(78.5%)보다 3.7%p 높았다. 직업별로는 농림생산직(81.4%),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80.7%), 사무판매서비스(79.6%), 관리전문직(79.2%) 순으로, 농림생산직이 아동·청소년집단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여기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종교가 있는 경우(78.4%) 보다, 종교가 없는 경우(81.4%)에 3.0%p 정도 아동·청소년집단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보는 비율이 높았다. 정치 성향의 경우, 보수(81.2%)와 중도(81.2%), 무관심(79.7%), 진보(78.4%) 순으로 아동·청소년집단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 중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82.4%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74.7%)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공동체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중 83.7%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해 개인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지닌 사람(76.6%)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3-8〉 우리나라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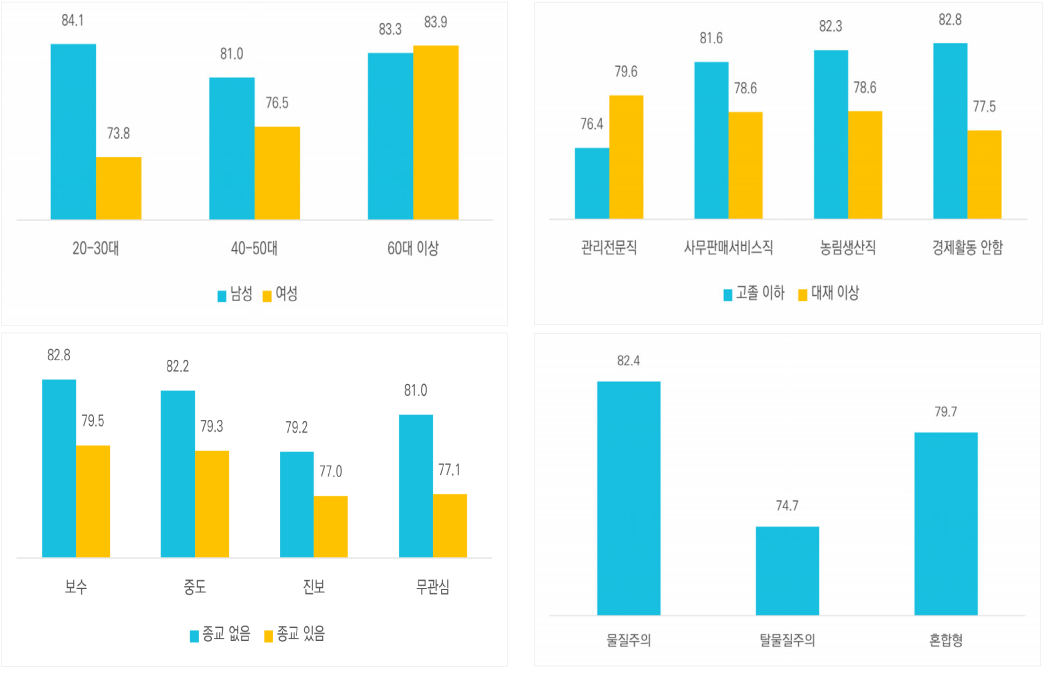
구분	매우 존중됨	존중 되는 편	존중 되지 않는 편	전혀 존중 되지 않음	계	평균 (4점)	X^2 (df)
전체	12.8	67.5	18.7	1.0	100.0	2.1	
성별							138.956 (3)***
남자	15.3	67.3	16.5	0.9	100.0	2.0	
여자	10.2	67.7	20.9	1.2	100.0	2.1	
연령							279.915 (6)***
20-30대	17.7	61.4	19.3	1.6	100.0	2.0	
40-50대	10.3	68.5	20.3	0.9	100.0	2.1	
60대 이상	10.4	73.2	15.8	0.6	100.0	2.1	
학력							131.607 (3)***
고졸 이하	10.7	71.5	17.0	0.8	100.0	2.1	
대재 이상	14.8	63.7	20.3	1.2	100.0	2.1	

구분	매우 존중됨	존중 되는 편	존중 되지 않는 편	전혀 존중 되지 않음	계	평균 (4점)	X^2 (df)
직업							
관리전문직	14.6	64.6	19.0	1.8	100.0	2.1	44.539 (9)***
사무판매서비스	13.8	65.9	19.5	0.9	100.0	2.1	
농림생산직	11.4	70.1	17.5	1.1	100.0	2.1	
비경제활동인구	11.9	68.8	18.4	1.0	100.0	2.1	
종교							24.861 (3)***
없음	13.1	68.3	17.6	1.0	100.0	2.1	
있음	12.1	66.2	20.5	1.1	100.0	2.1	
정치 성향							58.116 (9)***
보수	12.8	68.4	17.8	1.0	100.0	2.1	
중도	12.3	68.8	18.1	0.8	100.0	2.1	
진보	15.8	62.6	20.1	1.5	100.0	2.1	
무관심	11.5	68.2	19.2	1.1	100.0	2.1	
국가 목표							55.758 (6)***
물질주의	13.6	68.8	16.8	0.8	100.0	2.0	
탈물질주의	11.5	63.2	23.1	2.1	100.0	2.2	
혼합형	12.4	67.2	19.3	1.1	100.0	2.1	
공동체 이익							84.575 (6)***
공동체 이익 중요	17.6	66.1	15.2	1.2	100.0	2.0	
개인 이익 중요	13.1	63.5	21.8	1.6	100.0	2.1	
둘 다 중요	12.0	68.4	18.7	0.9	100.0	2.1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인구학적 배경별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20-30대의 남성 집단(84.1%)인 반면,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가장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낮은 집단은 20-30대 여성 집단(73.8%)이었다.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별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82.8%)인 반면, 비율이 낮은 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관리전문직 종사자(76.4%)이었다. 의식적 배경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종교가 없는 정치적 보수 성향 집단(82.8%)인 반면, 종교가 있는 진보 집단에서 존중되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77.0%).

[그림 3-15]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배경 요인별 비교

(단위 : %)



③ 노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

노인의 인권이 존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매우+존중되는 편)은 72.2%였다.

성별로는 남성 73.2%, 여성 71.3%가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여 남성이 노인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는 인식이 높았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40-50대가 72.9%로 노인집단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이 20-30대(72.4%), 60대 이상(71.2%) 순이었다. 60대 이상의 경우 노인집단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28.8%로 타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이 노인집단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2.7%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71.7%)보다 1.0%p 높았다. 직업의 경우 관리전문직(72.5%), 사무판매서비스(72.3%), 농림생산직(72.1%)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72.1%) 순으로, 관리전문직이 노인집단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여기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종교를 고려했을 때, 종교가 있는 경우(70.8%) 보다, 종교가 없는 경우(73.1%)에 2.3%p 정도 노인집단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보는 비율이 높았다. 정치 성향의 경우, 중도(74.2%), 진보(72.0%), 무관심(71.5%), 보수(70.0%) 순으로 노인집단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 중 노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72.5%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66.7%)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공동체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중 노인집단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74.6%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66.4%)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3-9〉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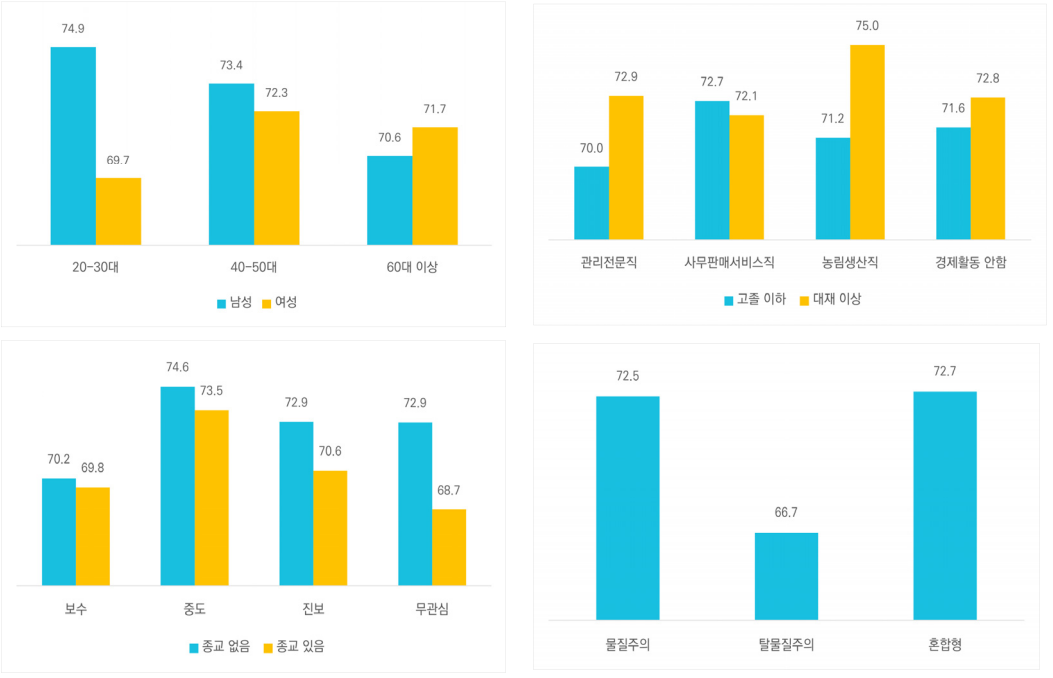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매우 존중됨	존중 되는 편	존중 되지 않는 편	전혀 존중 되지 않음	계	평균 (4점)	X^2 (df)
전체	10.4	61.8	25.9	1.9	100.0	2.2	
성별							29.229 (3)***
남자	11.6	61.6	24.9	1.9	100.0	2.2	
여자	9.2	62.1	26.8	1.9	100.0	2.2	
연령							25.754 (6)***
20-30대	11.7	60.6	25.4	2.2	100.0	2.2	
40-50대	9.9	63.0	25.5	1.7	100.0	2.2	
60대 이상	9.5	61.6	27.0	1.9	100.0	2.2	
학력							15.460 (3)**
고졸 이하	9.5	62.2	26.3	1.9	100.0	2.2	
대재 이상	11.3	61.4	25.4	1.8	100.0	2.2	
직업							12.815 (9)
관리전문직	9.8	62.8	25.0	2.4	100.0	2.2	
사무판매서비스	11.0	61.3	26.1	1.6	100.0	2.2	
농림생산직	10.7	61.4	26.0	1.9	100.0	2.2	
비경제활동인구	9.8	62.3	25.9	2.0	100.0	2.2	
종교							14.816 (3)**
없음	10.3	62.8	25.2	1.7	100.0	2.2	
있음	10.6	60.2	27.0	2.2	100.0	2.2	
정치 성향							32.201 (9)***
보수	9.9	60.1	27.9	2.1	100.0	2.2	
중도	10.0	64.2	24.3	1.5	100.0	2.2	
진보	11.3	60.7	25.9	2.1	100.0	2.2	
무관심	10.7	60.8	26.5	2.0	100.0	2.2	
국가 목표							28.256 (6)***
물질주의	10.9	61.7	25.6	1.9	100.0	2.2	
탈물질주의	8.0	58.7	30.3	2.9	100.0	2.3	
혼합형	10.4	62.3	25.5	1.8	100.0	2.2	
공동체 이익							73.001 (6)***
공동체 이익 중요	13.5	61.0	23.3	2.1	100.0	2.1	
개인 이익 중요	9.7	56.7	30.7	2.8	100.0	2.3	
둘 다 중요	10.0	62.8	25.5	1.7	100.0	2.2	

인구학적 배경별로 노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20-30대의 남성 집단(74.9%)인 반면, 노인의 인권이 가장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낮은 집단은 20-30대 여성 집단(69.7%)이었다. 사회경제적 배경별 노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대학교 재학 이상의 농림생산직 종사자(75.0%)인 반면, 노인의 인권이 가장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낮은 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관리전문직 종사자(70.0%)이었다. 의식적 배경별 노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종교가 없는 중도 집단(74.6%)인 반면, 종교가 있는 무관심 집단이 노인 인권이 가장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낮은 집단(68.7%)이었다.

[그림 3-16] 노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배경 요인별 비교

(단위 : %)



④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매우+존중되는 편)은 53.1%였다.

성별에 따른 장애인 인권에 대한 존중 정도를 살펴본 결과 남성 55.0%, 여성 51.4%가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60대 이상이 58.3%로 장애인집단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이 40-50대(51.9%), 20-30대(50.2%) 순이었다. 20-30대의 경우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9.8%로 가장 높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5.7%로, 대학교 재학 이상(50.7%)보다 5.0%p 높았다. 직업의 경우 농림생산직(56.3%),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53.3%), 관리전문직(52.0%), 사무판매서비스(51.7%) 순으로, 농림생산직이 장애인집단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여기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종교가 없는 경우(53.1%) 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53.2%)에 0.1%p 정도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보는 비율이 높았다. 정치 성향의 경우, 무관심(54.5%), 보수(54.0%), 중도(52.1%), 진보(51.9%) 순으로 장애인집단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 중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53.4%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44.6%)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공동체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중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54.6%로 개인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지닌 사람(48.3%)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3-10〉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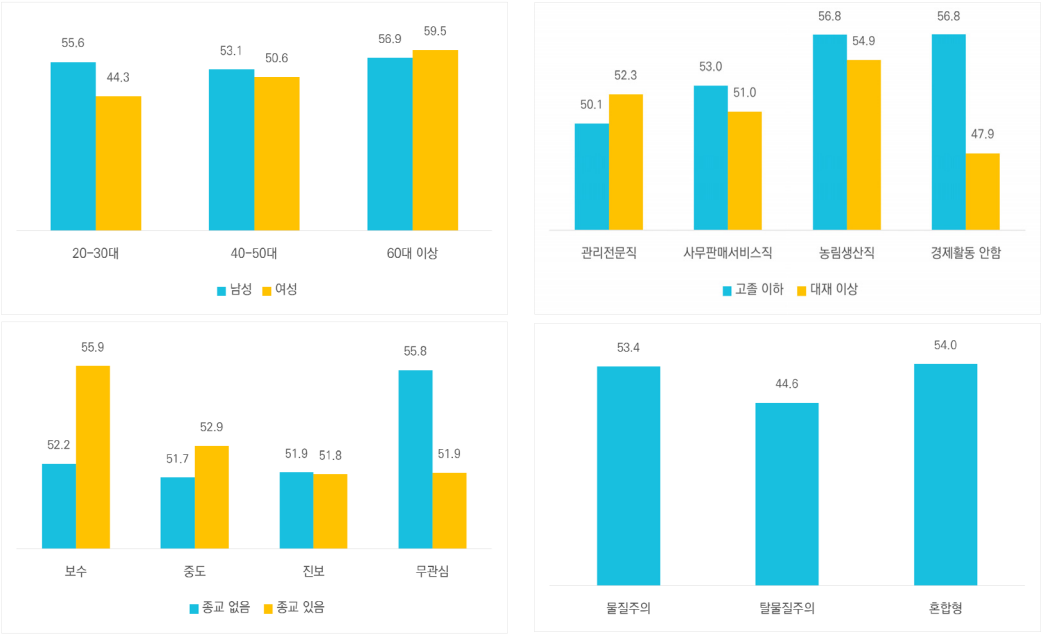
구분	매우 존중됨	존중 되는 편	존중 되지 않는 편	전혀 존중 되지 않음	계	평균 (4점)	X^2 (df)
전체	6.4	46.7	41.2	5.7	100.0	2.5	
성별							43.591 (3)***
남자	7.5	47.5	39.7	5.3	100.0	2.4	
여자	5.4	46.0	42.6	6.0	100.0	2.5	
연령							121.980 (6)***
20-30대	7.2	43.0	42.8	7.0	100.0	2.5	
40-50대	5.8	46.1	42.2	5.9	100.0	2.5	
60대 이상	6.5	51.8	37.8	3.9	100.0	2.4	
학력							74.044 (3)***
고졸 이하	5.8	49.8	39.4	4.9	100.0	2.4	
대재 이상	7.0	43.7	42.9	6.4	100.0	2.5	

구분	매우 존중됨	존중 되는 편	존중 되지 않는 편	전혀 존중 되지 않음	계	평균 (4점)	X^2 (df)
직업							
관리전문직	8.1	44.0	40.4	7.6	100.0	2.5	53.839 (9)***
사무판매서비스	6.6	45.1	42.3	6.0	100.0	2.5	
농림생산직	6.3	50.0	38.5	5.2	100.0	2.4	
비경제활동인구	5.8	47.5	41.6	5.0	100.0	2.5	
종교							3.888 (3)
없음	6.2	47.0	41.3	5.6	100.0	2.5	
있음	6.8	46.3	41.0	5.9	100.0	2.5	
정치 성향							42.073 (9)***
보수	7.4	46.6	40.9	5.1	100.0	2.4	
중도	5.1	47.0	42.1	5.7	100.0	2.5	
진보	7.3	44.6	41.3	6.8	100.0	2.5	
무관심	6.9	47.6	40.2	5.3	100.0	2.4	
국가 목표							89.802(6)***
물질주의	7.5	45.9	41.3	5.3	100.0	2.4	
탈물질주의	4.8	39.7	45.3	10.2	100.0	2.6	
혼합형	6.0	48.0	40.6	5.4	100.0	2.5	
공동체 이익							43.799(6)***
공동체 이익 중요	8.4	46.2	39.2	6.2	100.0	2.4	
개인 이익 중요	6.3	42.1	44.8	6.9	100.0	2.5	
둘 다 중요	6.2	47.6	40.9	5.4	100.0	2.5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인구학적 배경별로 비교하면, 존중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60대 이상의 여성 집단(59.5%)인 반면, 가장 비율이 낮은 집단은 20-30대 남성 집단(44.3%)이었다. 사회경제적 배경별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농림생산직 종사자(56.8%)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56.8%)인 반면, 장애인의 인권이 가장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낮은 집단은 대학교 재학 이상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47.9%)이었다. 종교와 정치 성향으로 볼 때,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보수 성향의 종교가 있는 집단(55.9%)인 반면, 장애인의 인권이 가장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낮은 집단은 중도 성향의 종교가 없는 집단(51.7%)이었다.

[그림 3-17]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배경 요인별 비교

(단위 : %)



⑤ 이주민의 인권에 대한 인식

이주민(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매우+존중되는 편)은 37.5%로 취약집단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다.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에 대해 남성 38.7%, 여성 36.4%가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60대 이상이 40.3%로 이주민집단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이 20-30대(38.1%), 40-50대(34.8%) 순이었다. 40-50대의 경우 이주민집단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65.2%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이주민집단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9.6%로, 대학교 재학 이상(35.4%)보다 4.2%p 높았다. 직업의 경우 농림생산직(40.4%),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37.2%), 사무판매서비스(36.7%), 관리전문직(36.2%) 순으로, 농림생산직이 이주민집단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여기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종교를 고려했을 때, 종교가 없는 경우(38.0%) 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36.5%)에 1.5%p 정도 이주민집단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보는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 비교(X^2)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치 성향의 경우, 무관심(40.7%), 진보(36.3%)와 보수(36.3%), 중도(35.8%) 순으로 이주민집단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치관에 따르면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 중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38.6%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32.1%)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공동체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중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50.9%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51.2%)에 비해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3-11〉 우리나라에서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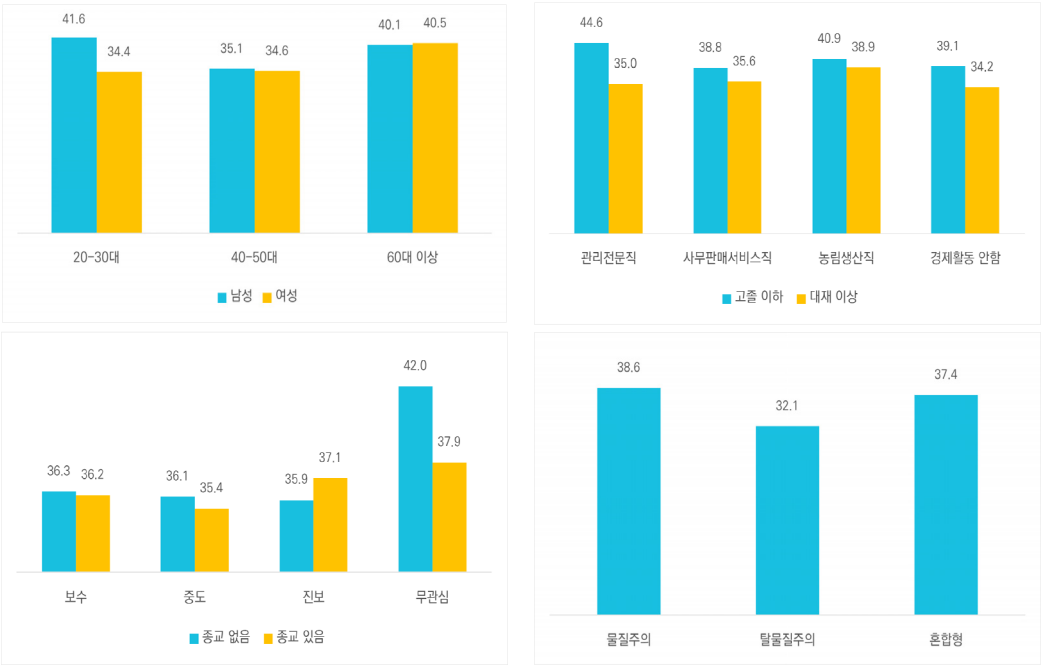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매우 존중됨	존중 되는 편	존중 되지 않는 편	전혀 존중 되지 않음	계	평균 (4점)	X^2 (df)
전체	3.1	34.4	52.8	9.7	100.0	2.7	
성별							21.862 (3)***
남자	3.7	35.0	51.9	9.5	100.0	2.7	
여자	2.6	33.8	53.8	9.9	100.0	2.7	
연령							96.838 (6)***
20-30대	4.2	33.9	50.9	11.0	100.0	2.7	
40-50대	2.4	32.4	55.2	10.0	100.0	2.7	
60대 이상	2.8	37.5	51.9	7.8	100.0	2.6	
학력							63.077 (3)***
고졸 이하	2.9	36.8	51.9	8.4	100.0	2.7	
대재 이상	3.4	32.0	53.7	10.9	100.0	2.7	
직업							27.543 (9)**
관리전문직	3.9	32.2	53.4	10.5	100.0	2.7	
사무판매서비스	3.0	33.6	53.0	10.3	100.0	2.7	
농림생산직	3.2	37.2	50.5	9.2	100.0	2.7	
비경제활동인구	2.9	34.3	53.7	9.1	100.0	2.7	
종교							4.368 (3)
없음	3.1	34.9	52.5	9.5	100.0	2.7	
있음	3.1	33.5	53.4	10.0	100.0	2.7	
정치 성향							51.312 (9)***
보수	3.4	32.8	52.9	10.8	100.0	2.7	
중도	2.4	33.4	54.1	10.1	100.0	2.7	
진보	3.2	33.2	53.9	9.8	100.0	2.7	
무관심	3.7	37.0	50.8	8.5	100.0	2.6	
국가 목표							65.361 (6)***
물질주의	3.8	34.8	52.9	8.5	100.0	2.7	
탈물질주의	2.0	30.1	53.4	14.6	100.0	2.8	
혼합형	2.8	34.6	52.8	9.8	100.0	2.7	
공동체 이익							15.115 (6)**
공동체 이익 중요	3.5	34.9	50.9	10.7	100.0	2.7	
개인 이익 중요	3.9	34.4	51.2	10.5	100.0	2.7	
둘 다 중요	2.9	34.3	53.4	9.4	100.0	2.7	

인구학적 배경별로 보면 20-30대의 남성 집단(41.6%)인 반면,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20-30대 여성 집단(34.4%)이었다. 사회경제적 배경별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관리전문직(44.6%)인 반면, 이주민의 인권이 가장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낮은 집단은 대학교 재학 이상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34.2%)이었다. 의식적 배경별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종교가 없는 무관심 집단(42.0%)인 반면,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종교가 있는 중도 성향 집단(35.4%)이었다.

[그림 3-18]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배경 요인별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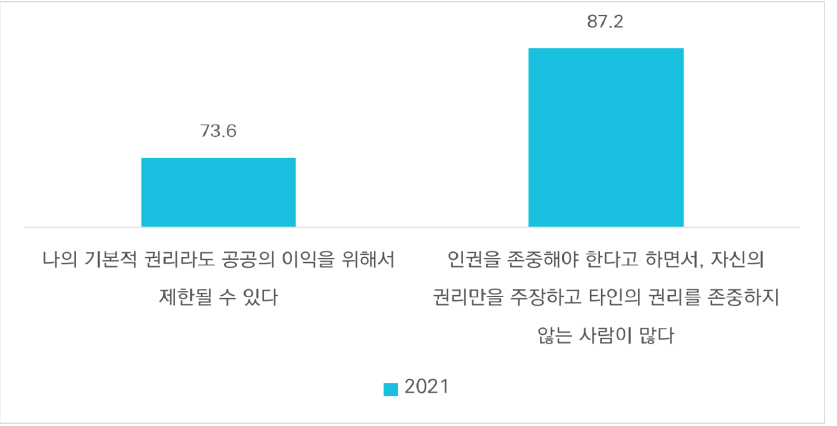


⑹ 인권에 대한 인식

인권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본 결과, 자신의 기본적 권리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73.6%,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응답한 사람은 87.2%로 나타났다.

[그림 3-19]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

(단위 : %)



① 나의 기본적 권리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

자신의 기본적 권리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는 남성이 74.5%, 여성이 72.8%로 남성이 여성보다 1.7%p정도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60대 이상이 79.2%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의 기본권이 제한되는데 동의한다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이 40-50대(75.8%), 20-30대(66.1%) 순이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좀 더 공공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76.6%로, 대학교 재학 이상(70.7%)보다 5.9%p 높았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직업의 경우 농림생산직(76.2%),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74.3%), 사무판매서비스(72.4%), 관리전문직(70.9%) 순으로, 농림생산직의 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종교를 고려했을 때, 종교가 없는 경우(72.2%) 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76.0%)에 3.8%p 정도 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기본권 제한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정치 성향의 경우, 보수(76.5%), 진보(75.9%), 중도(72.9%), 무관심(71.4%) 순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 중 나의 기본적 권리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74.3%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66.6%)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공동체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중 나의 기본적 권리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86.8%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63.4%)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3-12〉 자신의 기본적 권리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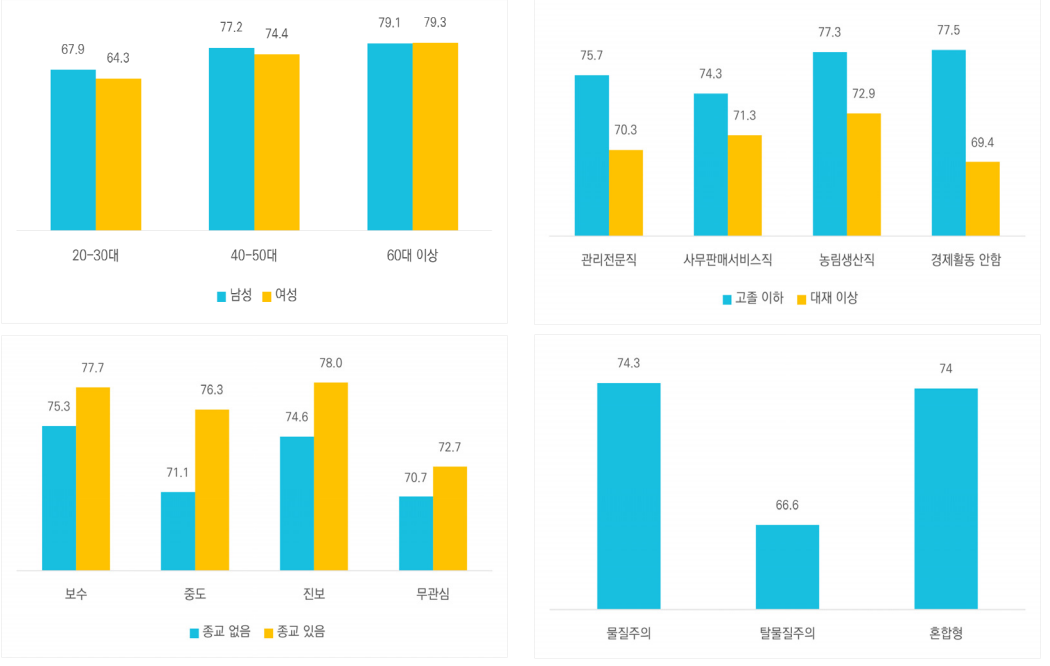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매우 동의	동의 하는 편	동의 하지 않는 편	전혀 동의 안함	계	평균 (4점)	X^2 (df)
전체	6.0	67.6	22.8	3.6	100.0	2.2	
성별							41.639 (3)***
남자	6.7	67.8	21.4	4.1	100.0	2.2	
여자	5.4	67.4	24.2	3.1	100.0	2.2	
연령							285.965 (6)***
20-30대	5.9	60.3	28.6	5.3	100.0	2.3	
40-50대	6.5	69.3	21.2	3.0	100.0	2.2	
60대 이상	5.6	73.6	18.3	2.5	100.0	2.2	
학력							96.381 (3)***
고졸 이하	5.5	71.1	20.2	3.2	100.0	2.2	
대재 이상	6.5	64.2	25.3	3.9	100.0	2.3	
직업							69.703 (9)***
관리전문직	8.4	62.5	23.6	5.5	100.0	2.3	
사무판매서비스	5.8	66.5	24.1	3.5	100.0	2.3	
농림생산직	6.2	70.0	20.3	3.4	100.0	2.2	
비경제활동인구	5.4	68.9	22.5	3.2	100.0	2.2	
종교							31.119 (3)***
없음	6.0	66.2	24.1	3.7	100.0	2.3	
있음	6.1	69.9	20.7	3.4	100.0	2.2	
정치 성향							85.379 (9)***
보수	7.4	69.1	20.3	3.3	100.0	2.2	
중도	5.8	67.2	23.2	3.8	100.0	2.3	
진보	8.1	67.8	20.9	3.2	100.0	2.2	
무관심	4.4	67.0	24.9	3.8	100.0	2.3	
국가 목표							107.054 (6)***
물질주의	6.5	67.9	20.7	5.0	100.0	2.2	
탈물질주의	6.7	59.9	29.4	4.0	100.0	2.3	
혼합형	5.7	68.3	23.3	2.7	100.0	2.2	
공동체 이익							412.455 (6)***
공동체 이익 중요	11.9	75.0	12.3	0.9	100.0	2.0	
개인 이익 중요	4.2	59.2	30.4	6.2	100.0	2.4	
둘 다 중요	5.4	67.8	23.1	3.6	100.0	2.2	

인구학적 배경별로 비교해 보면. 자신의 기본적 권리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60대 이상의 여성 집단(79.3%)인 반면,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20-30대 여성 집단(64.3%)이었다.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별 나의 기본적 권리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77.5%)인 반면, 비율이 낮은 집단은 대학교 재학 이상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69.4%)이었다. 의식적 배경별로 비교해 보면 자신의 기본적 권리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종교가 있는 진보 성향 집단(78,0%)이고,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종교가 없는 정치에 무관심한 집단(70.7%)으로 나타났다.

[그림 3-20] 자신의 기본적 권리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②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는 전체 87.2%였다.

성별에 따른 응답으로는 남성 86.8%, 여성 87.7%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0.9%p정도 높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20-30대(88.4%)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40-50대(86.9%), 60대 이상(86.3%) 순이었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좀 더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에 대해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이 87.9%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86.5%)보다 1.4%p 높았다. 직업군의 경우 관리전문직(89.3%), 사무판매서비스(87.4%),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87.0%), 농림생산직(86.3%) 순으로, 관리전문직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종교를 고려했을 때, 종교가 없는 경우 87.2%, 종교가 있는 경우 87.3%로 유사한 수준으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정치 성향의 경우, 중도(88.6%), 진보(87.7%), 보수(86.1%)와 무관심(86.1%) 순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 중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86.8%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87.9%)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공동체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중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87.0%로 개인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지닌 사람(86.6%)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3-13〉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의견에 동의 수준

(단위 : %)

구분	매우 동의	동의 하는 편	동의 하지 않는 편	전혀 동의 안함	계	평균 (4점)	X^2 (df)
전체	21.7	65.5	12.2	0.6	100.0	1.9	
성별							9.079 (3)*
남자	22.3	64.5	12.7	0.5	100.0	1.9	
여자	21.1	66.6	11.8	0.6	100.0	1.9	
연령							66.744 (6)***
20-30대	24.8	63.7	11.1	0.4	100.0	1.9	
40-50대	21.4	65.5	12.4	0.7	100.0	1.9	
60대 이상	18.6	67.7	13.2	0.5	100.0	2.0	
학력							34.803 (3)***
고졸 이하	20.0	66.5	12.8	0.7	100.0	1.9	
대재 이상	23.4	64.6	11.6	0.5	100.0	1.9	
직업							44.422 (9)***
관리전문직	25.1	64.3	10.2	0.5	100.0	1.9	
사무판매서비스	23.3	64.1	12.1	0.5	100.0	1.9	
농림생산직	19.9	66.3	13.1	0.6	100.0	1.9	
비경제활동인구	20.0	66.9	12.4	0.6	100.0	1.9	
종교							6.152 (3)
없음	22.0	65.2	12.3	0.5	100.0	1.9	
있음	21.2	66.0	12.0	0.7	100.0	1.9	
정치 성향							61.012 (9)***
보수	21.1	65.0	13.2	0.7	100.0	1.9	
중도	21.4	67.1	11.0	0.5	100.0	1.9	
진보	25.9	61.9	11.9	0.3	100.0	1.9	
무관심	20.1	66.0	13.2	0.7	100.0	1.9	
국가 목표							36.517 (6)***
물질주의	21.8	65.0	12.7	0.5	100.0	1.9	
탈물질주의	27.8	60.1	11.2	0.9	100.0	1.9	
혼합형	20.9	66.5	12.0	0.6	100.0	1.9	
공동체 이익							35.630 (6)***
공동체 이익 중요	20.8	66.2	12.3	0.7	100.0	1.9	
개인 이익 중요	25.9	60.7	13.1	0.3	100.0	1.9	
둘 다 중요	21.2	66.2	12.0	0.6	100.0	1.9	

인구학적 배경별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20-30대의 여성 집단(89.4%)인 반면,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낮은 집단은 40-50대 남성 집단(86.1%)이었다.

사회경제적 배경별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대학교 재학 이상의 관리전문직(89.8%)인 반면, 비율이 낮은 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관리전문직 종사자(85.9%)이었다. 의식적 배경으로 볼 때,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중도 성향의 종교가 없는 집단(88.7%)인 반면, 비율이 낮은 집단은 보수 성향의 종교가 없는 집단(85.6%)이었다.

[그림 3-21]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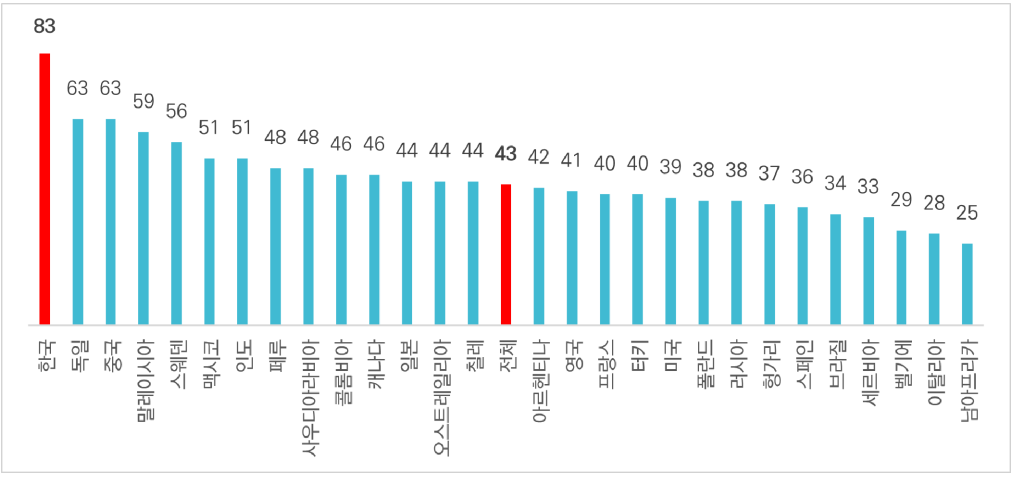
3) 인권 존중과 인권 인지 국제 비교

2018년 Ipsos Public Affairs에서 진행한 국제 조사인 「Human Rights in 2018」에서는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림 3-22]는 조사 내용 중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인권을 누린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을 이번 조사의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긍정 응답의 비율과 비교한 것이다. 비교해 보면 한국은 82.9%가 자신의 인권이 전반적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Ipsos의 조사 국가 평균인 43.0%보다 약 2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

[그림 3-22]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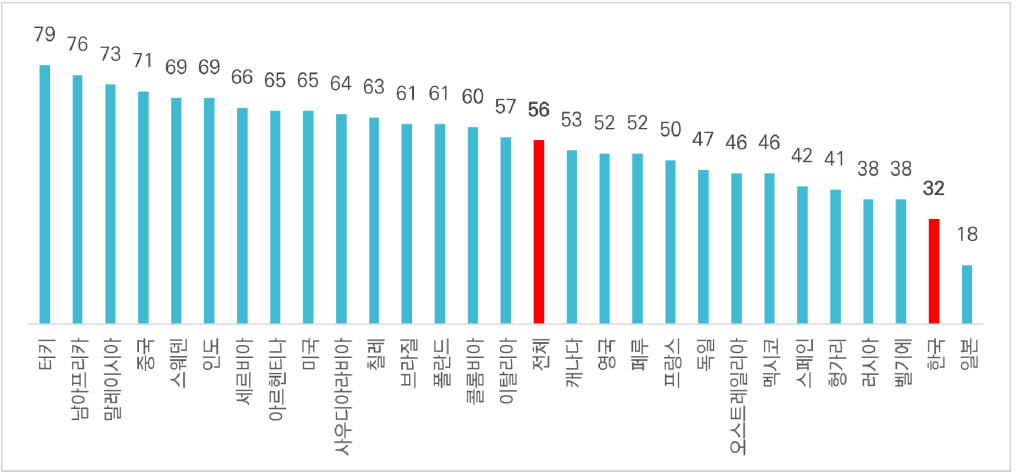


출처: Ipsos(2018), 「Human Rights in 2018」. p.16. 및 국가인권위원회(2021), 「국가인권실태조사」

또 동일한 조사에서는 일반적인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질문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동일한 문항은 아니지만 ‘귀하는 우리나라 헌법에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이 있다. 이 문항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32%, 조사대상 국가들의 전체 평균은 56%로 한국의 인권에 대한 일반적 지식에 대한 인지가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23] 인권에 대한 일반적 지식

(단위 : %)



출처: Ipsos(2018), 「Human Rights in 2018」. p.4. 및 국가인권위원회(2021), 「국가인권실태조사」

2 인권침해와 차별

인권을 구성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는 한국에서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가? 한국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은 얼마나 심각한가? 이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나 평가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인권의 내용 및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먼저 묻고 이어서 인권침해 및 차별의 직접 경험 여부에 대해 물었다.

1)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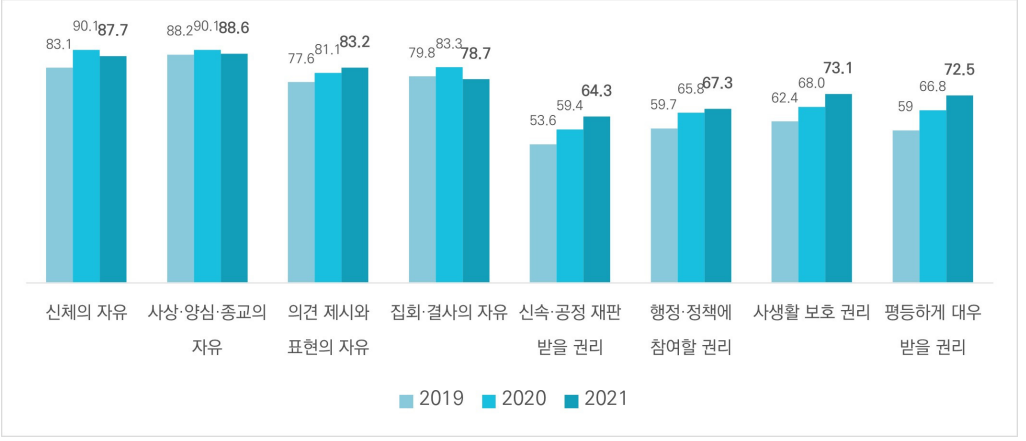
먼저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로 나누어 우리 사회에서 이들 권리에 속하는 다양한 내용의 권리들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1) 시민, 정치적 권리의 존중 정도

아래 [그림 3-24]는 시민적, 정치권 권리에 속하는 인권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4점 척도로 물은 것에 대해 '매우 존중된다'와 '존중되는 편이다'로 응답한 긍정적 평가의 비율이다.

[그림 3-24] 시민적, 정치적 권리별 존중받는다는 응답 비율의 변화

(단위 : %)



시민적, 정치적 권리 중에서 존중받는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88.6%)와 신체의 자유(87.7%) 그리고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83.2%)이다. 반면 존중받는다는 응답의 비율이 낮은 권리는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64.3%)와 행정, 정책에 참여할 권리(67.3%), 그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72.5%)이다. 2020년에 비해 존중받는다는 응답이 감소한 권리는 신체의 자유(-2.4%p),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1.5%p), 그리고 집회, 경사의 자유(-4.6%p)이다. 그 밖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은 모두 2020년에 비해 존중받는다는 응답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2019년 대비 증가가 두드러진 것은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10.7%p), 행정, 정책에 참여할 권리(7.6%p),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13.5%p) 등이다.

그러면 응답자의 배경에 따라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존중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보자.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가 존중받는다는 비율의 차이를 응답자의 배경에 따라 살펴보면 성별, 연령대별, 정치 성향별 응답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성별, 연령대별 차이에서 20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또한 종교와 이념별 차이에서는 보수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존중에 대한 평가가 낮으며 특히 종교를 가진 보수 성향이 특히 더 낮은 것이 주목할 만하다.

〈표 3-14〉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존중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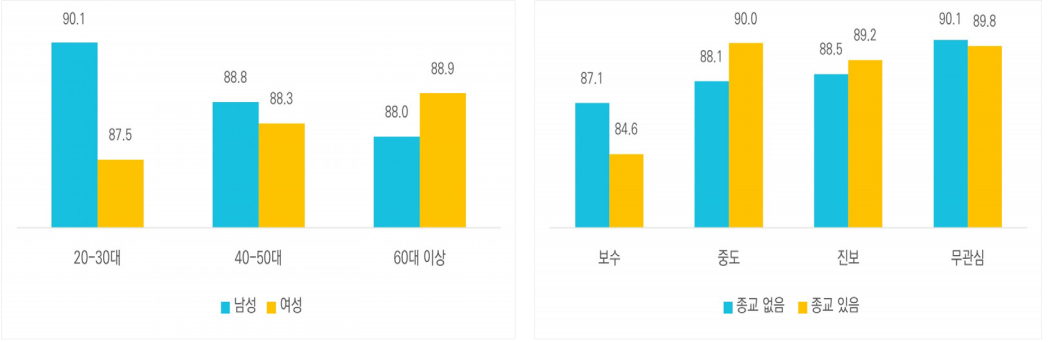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매우 존중됨	존중 되는 편	존중되지 않는 편	전혀 존중 안 됨	평균 (4점)	X^2 (df)
전체	23.6	65.0	10.5	0.8	3.1	
성별						13.591 (3)**
남자	24.8	64.2	10.2	0.8	3.1	
여자	22.5	65.7	10.9	0.9	3.1	
연령						66.955 (6)***
20-30대	27.0	61.8	10.3	0.9	3.1	
40-50대	22.6	65.9	10.5	1.0	3.1	
60대 이상	21.1	67.4	10.9	0.6	3.1	
학력						44.212 (3)***
고졸 이하	21.5	66.8	10.9	0.8	3.1	
대재 이상	25.7	63.2	10.2	0.8	3.1	
직업						52.210 (9)***
관리전문직	28.9	59.1	10.7	1.4	3.2	
사무판매서비스	23.7	64.6	10.9	0.9	3.1	
농림생산직	22.5	65.9	10.8	0.8	3.1	
비경제활동인구	22.5	66.8	10.0	0.7	3.1	
종교						4.884 (3)
없음	23.5	65.2	10.6	0.7	3.1	
있음	23.8	64.7	10.4	1.0	3.1	

구분	매우 존중됨	존중 되는 편	존중되지 않는 편	전혀 존중 안 됨	평균 (4점)	X^2 (df)
정치 성향						
보수	20.1	65.8	13.1	1.0	3.1	98.465 (9)***
중도	24.7	64.1	10.2	1.0	3.1	
진보	27.9	60.9	10.4	0.8	3.2	
무관심	22.3	67.8	9.4	0.5	3.1	
국가 목표						
물질주의	24.2	64.7	10.3	0.8	3.1	8.689 (6)
탈물질주의	21.3	66.4	11.0	1.3	3.1	
혼합형	23.5	65.0	10.6	0.8	3.1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익 중요	23.7	65.6	10.1	0.7	3.1	12.525 (6)
개인 이익 중요	22.4	64.3	12.6	0.7	3.1	
둘 다 중요	23.8	65.0	10.3	0.9	3.1	

[그림 3-25]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존중을 긍정하는 비율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살펴보면 20대에서 긍정적 평가가 낮게 나타나며, 특히 20대 여성의 긍정 비율이 80.8%로 가장 낮다. 반면 긍정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60대 이상 여성으로 86.1%이다. 의식 배경별로 보면 보수적 성향이 긍정 비율이 가장 낮으며, 특히 종교를 가진 보수 성향이 80.5%로 가장 낮다. 반면, 긍정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종교를 가진 중도 성향으로 85.6%이고, 다음이 종교를 갖지 않은 무관심층으로 85.1%이다. 가치관 중에서는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가 차이를 보인다. 물질주의와 혼합형은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가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이 비슷한 반면, 탈물질주의는 긍정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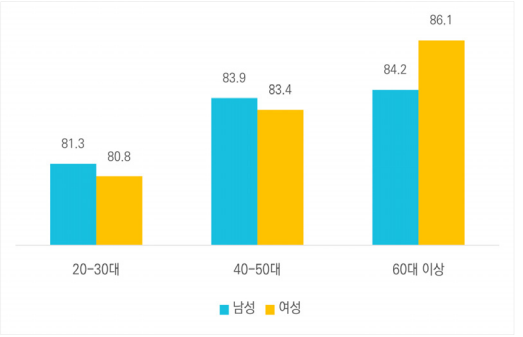
〈표 3-15〉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 존중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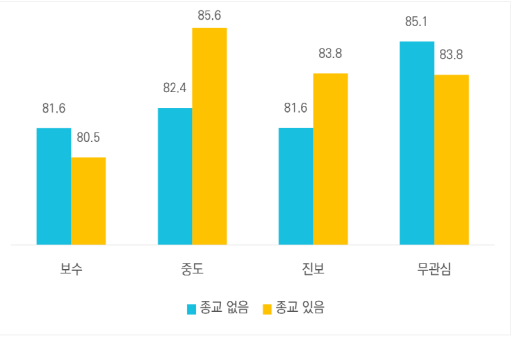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매우 존중됨	존중 되는 편	존중되지 않는 편	전혀 존중 안됨	평균 (4점)	X^2 (df)
전체	16.6	66.7	15.8	1.0	3.0	
성별						3.924 (3)
남자	16.9	66.2	15.9	1.1	3.0	
여자	16.2	67.2	15.7	0.9	3.0	
연령						94.124 (6)***
20-30대	18.7	62.3	17.7	1.3	3.0	
40-50대	16.3	67.3	15.4	1.0	3.0	
60대 이상	14.4	70.8	14.1	0.6	3.0	
학력						44.651 (3)***
고졸 이하	15.3	69.1	14.6	1.0	3.0	
대재 이상	17.7	64.4	16.9	1.0	3.0	
직업						43.271 (9)***
관리전문직	18.7	63.9	16.4	1.1	3.0	
사무판매서비스	17.3	64.5	17.0	1.1	3.0	
농림생산직	15.3	68.4	15.2	1.1	3.0	
비경제활동인구	15.8	68.8	14.6	0.7	3.0	
종교						11.841 (3)**
없음	15.9	67.1	16.1	0.9	3.0	
있음	17.6	66.0	15.3	1.1	3.0	
정치 성향						79.092 (9)***
보수	14.0	67.1	17.7	1.3	2.9	
중도	18.2	65.4	15.2	1.2	3.0	
진보	18.9	63.6	16.7	0.8	3.0	
무관심	15.1	69.6	14.7	0.7	3.0	
국가 목표						28.769 (6)***
물질주의	17.8	65.8	15.3	1.2	3.0	
탈물질주의	13.6	66.5	18.6	1.3	2.9	
혼합형	16.2	67.3	15.7	0.8	3.0	
공동체 이익						12.640 (6)*
공동체 이익 중요	17.6	65.9	16.0	0.5	3.0	
개인 이익 중요	17.8	64.8	16.3	1.1	3.0	
둘 다 중요	16.2	67.1	15.7	1.0	3.0	

[그림 3-26]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 존중을 긍정하는 비율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집회, 결사의 자유가 존중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78.7%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수가 중도나 진보 성향에 비해 긍정 응답 비율이 낮으며, 특히 종교를 가진 보수 성향이 72.4%로 가장 낮다. 반면 종교를 가진 중도와 진보는 각각 81.8%와 82.6%로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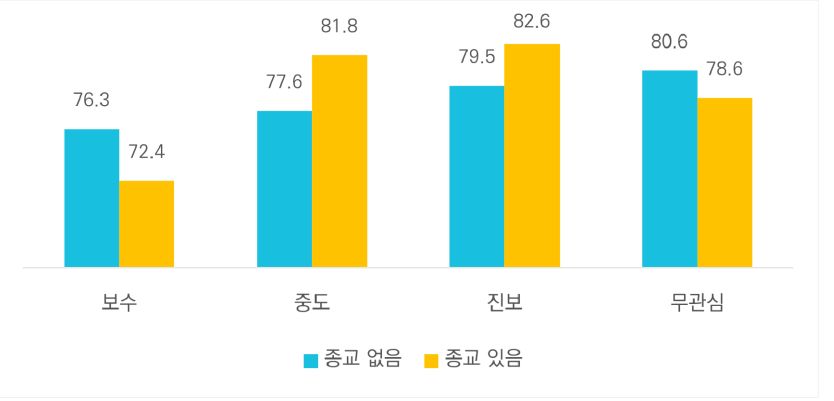
〈표 3-16〉 집회, 결사의 자유 존중 정도

(단위: %)

구분	매우 존중됨	존중되는 편	존중되지 않는 편	전혀 존중 안됨	평균 (4점)	X^2 (df)
전체	14.7	64.1	19.7	1.6	2.9	
성별						
남자	16.9	66.2	15.9	1.1	3.0	3.924(3)
여자	16.2	67.2	15.7	0.9	3.0	
연령						
20-30대	18.7	62.3	17.7	1.3	3.0	94.124
40-50대	16.3	67.3	15.4	1.0	3.0	(6)***
60대 이상	14.4	70.8	14.1	0.6	3.0	
학력						
고졸 이하	15.3	69.1	14.6	1.0	3.0	44.651
대재 이상	17.7	64.4	16.9	1.0	3.0	(3)***
직업						
관리전문직	18.7	63.9	16.4	1.1	3.0	
사무판매서비스	17.3	64.5	17.0	1.1	3.0	43.271
농림생산직	15.3	68.4	15.2	1.1	3.0	(9)***
비경제활동인구	15.8	68.8	14.6	0.7	3.0	
종교						
없음	15.1	63.6	19.7	1.6	2.9	5.619
있음	13.9	65.0	19.6	1.6	2.9	(3)
정치 성향						
보수	12.3	62.1	23.0	2.5	2.8	
중도	14.9	64.2	19.2	1.7	2.9	92.881
진보	17.8	62.9	18.4	1.0	3.0	(9)***
무관심	14.1	65.8	18.9	1.2	2.9	

[그림 3-27] 집회, 결사의 자유 존중을 긍정하는 비율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신속,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는 응답은 64.3%이며, [그림 3-28]은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의식적 배경에 따라 비교한 결과이다.

인구학적으로는 40-50대 연령층이 가장 낮은 긍정 비율을 보인다. 특히 40-50대 남성은 61.4%가 긍정하고 있으며, 40-50대 여성은 63.3%로 20-30대 여성의 63.1%와 비슷하다. 가장 긍정 비율이 높은 것은 60대 이상 여성으로 68.8%이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보면 대학교 재학 이상 관리전문직의 긍정 비율이 54.6%로 가장 낮은 반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68.8%로 가장 높은 긍정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사무판매서비스직의 긍정 비율이 66.3%로 높았다.

의식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신속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는 응답은 종교를 가진 진보층에서 가장 낮아서 59.7%인 반면, 종교를 갖지 않은 무관심층에서 가장 높아서 68%이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긍정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무관심층이고 다음이 중도층이며, 이들에 비해 보수와 진보 성향 모두 낮게 나타났다. 종교를 가진 경우 진보가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가치관 측면에서는 탈물질주의가 물질주의와 혼합형에 비해 신속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낮았다. 또한 공동체주의에 비해 개인주의 가치를 가진 경우 신속공정한 재판의 권리가 존중된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났다.

〈표 3-17〉 신속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존중 정도

(단위: %)

구분	매우 존중됨	존중 되는 편	존중되지 않는 편	전혀 존중 안됨	평균 (4점)	X^2 (df)
전체	7.4	57.0	32.2	3.5	2.7	
성별						
남자	7.8	55.9	32.4	3.9	2.7	18.164 (3)***
여자	6.9	58.0	32.0	3.1	2.7	
연령						
20-30대	8.5	55.6	31.9	4.1	2.7	57.887 (6)***
40-50대	6.6	55.8	34.2	3.4	2.7	
60대 이상	7.1	60.3	29.7	2.9	2.7	
학력						
고졸 이하	6.9	59.6	30.2	3.3	2.7	47.409 (3)***
대재 이상	7.8	54.5	34.1	3.7	2.7	
직업						
관리전문직	7.8	49.3	37.6	5.3	2.6	86.302 (9)***
사무판매서비스	8.1	57.0	32.0	2.9	2.7	
농림생산직	6.6	56.4	33.2	3.8	2.7	
비경제활동인구	6.9	59.5	30.2	3.4	2.7	
종교						
없음	7.2	57.8	31.6	3.4	2.7	7.494 (3)
있음	7.5	55.7	33.1	3.7	2.7	
정치 성향						
보수	7.3	54.6	34.4	3.7	2.7	46.816 (9)***
중도	7.1	57.4	32.3	3.2	2.7	
진보	8.2	53.6	34.5	3.7	2.7	
무관심	7.3	59.8	29.3	3.6	2.7	
국가 목표						
물질주의	8.2	57.7	30.3	3.8	2.7	36.143 (6)***
탈물질주의	5.5	53.9	37.0	3.6	2.6	
혼합형	7.0	56.9	32.7	3.3	2.7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익 중요	9.5	57.8	29.0	3.7	2.7	29.264 (6)***
개인 이익 중요	7.6	56.6	31.6	4.2	2.7	
둘 다 중요	7.0	56.9	32.8	3.4	2.7	

[그림 3-28] 신속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존중을 긍정하는 비율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73.1%이며, [그림 3-29]는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의 배경별 차이를 보여준다.

인구학적 배경별로 보면 남성이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에 반해, 여성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여성 20-30대가 가장 낮은 긍정 비율을 보여서 66.2%이며, 가장 긍정 비율이 높은 것은 60대 이상 여성으로 78%이다. 사회경제적 배경별로 비교하면 대학교 재

학 이상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전반적으로 긍정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나지만 직업군별 차이는 크지 않다. 반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 직업군별 차이가 나타나서 긍정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이 관리전문직으로 69.7%인 반면, 가장 높은 것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층으로 76.6%이다. 가치관별로 비교하면 물질주의와 혼합형에 비해 탈물질주의는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보호받는다는 응답이 유의하게 낮고, 공동체주의에 비해 개인주의와 공동체-개인주의 역시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응답이 유의하게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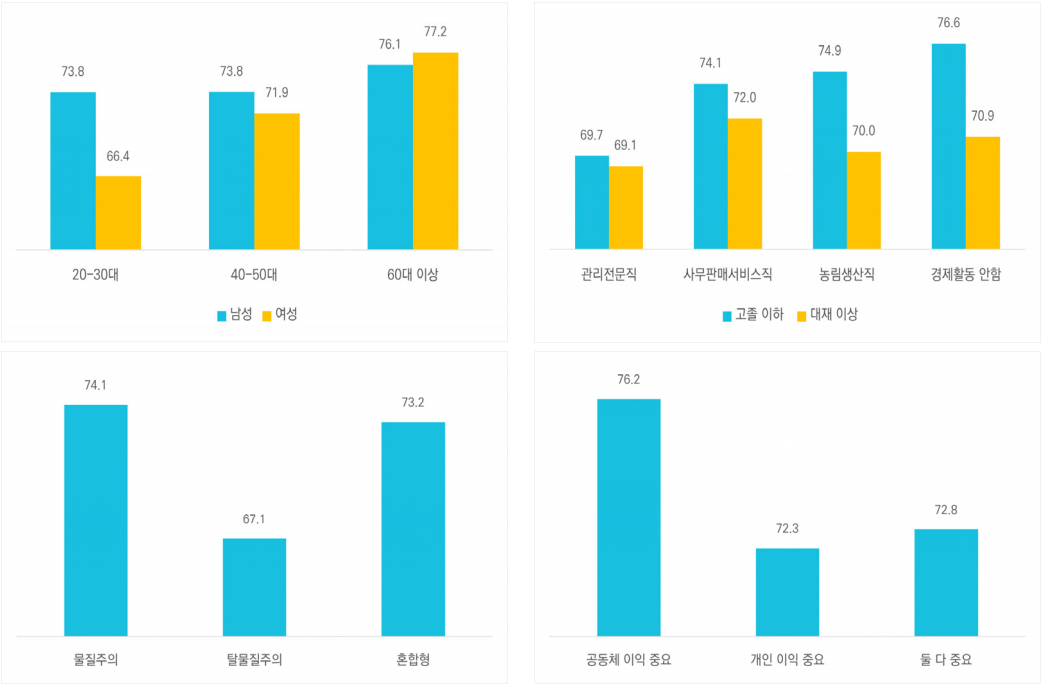
〈표 3-18〉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받을 권리 존중 정도

(단위: %)

구분	매우 존중됨	존중되는 편	존중되지 않는 편	전혀 존중 안됨	평균 (4점)	X^2 (df)
전체	10.8	62.3	23.8	3.1	2.8	
성별						23.283 (3)***
남자	11.7	62.7	22.6	3.1	2.8	
여자	10.0	61.8	25.1	3.1	2.8	
연령						105.094 (6)***
20-30대	12.3	58.0	25.7	4.0	2.8	
40-50대	10.3	62.6	24.4	2.8	2.8	
60대 이상	9.9	66.8	20.9	2.3	2.8	
학력						63.150 (3)***
고졸 이하	10.2	65.1	22.1	2.5	2.8	
대재 이상	11.4	59.6	25.5	3.5	2.8	
직업						40.945 (9)***
관리전문직	11.3	57.9	26.7	4.1	2.8	
사무판매서비스	11.8	61.0	24.3	3.0	2.8	
농림생산직	10.1	63.5	23.1	3.2	2.8	
비경제활동인구	10.1	64.2	22.9	2.7	2.8	
종교						13.294 (3)**
없음	10.5	63.3	23.1	3.1	2.8	
있음	11.3	60.6	25.0	3.0	2.8	
정치성향						18.478 (9)*
보수	10.3	62.4	24.1	3.1	2.8	
중도	10.7	61.5	24.4	3.4	2.8	
진보	11.9	61.3	24.4	2.3	2.8	
무관심	10.7	63.6	22.7	3.0	2.8	
국가 목표						108.694 (6)***
물질주의	10.9	63.3	21.4	4.4	2.8	
탈물질주의	9.3	57.7	29.2	3.7	2.7	
혼합형	11.0	62.2	24.6	2.1	2.8	
공동체 이익						34.150 (6)***
공동체 이익 중요	12.3	64.0	21.8	2.0	2.9	
개인 이익 중요	10.4	61.9	23.2	4.5	2.8	
둘 다 중요	10.7	62.1	24.2	3.0	2.8	

[그림 3-29]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받을 권리 존중을 긍정하는 비율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긍정하는 비율은 72.5%이다. 사생활과 개인정보와 비슷하게 남성의 경우 20-30대와 40-50대의 차이가 별로 없으며 60대 이상이 높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는 연령대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서 여성 20-30대는 66.2%인 반면, 60대 이상 여성은 78%로 10%p가 넘는 차이를 보인다.

사회경제적 배경별 비교 역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학교 재학 이상에서는 직업군별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큰 차이를 보여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 관리전문직의 경우 68.6%인 반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은 77.9%이다. 대학교 재학 이상에서 농림생산직의 긍정 비율이 가장 낮은 반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관리전문직의 긍정 비율이 가장 낮다.

가치관별 비교에서 물질주의에 비해 혼합형이, 혼합형에 비해 탈물질주의가 평등권이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이 낮았다. 또한 공동체주의에 비해 공동체-개인주의와 개인주의는 평등권이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이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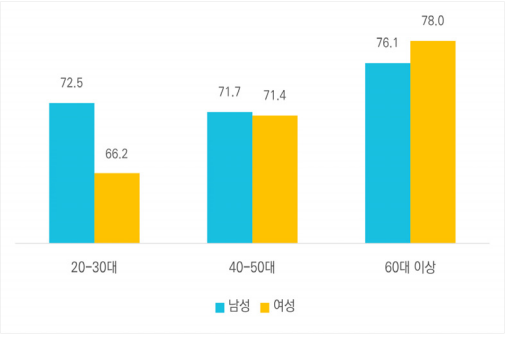
〈표 3-19〉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존중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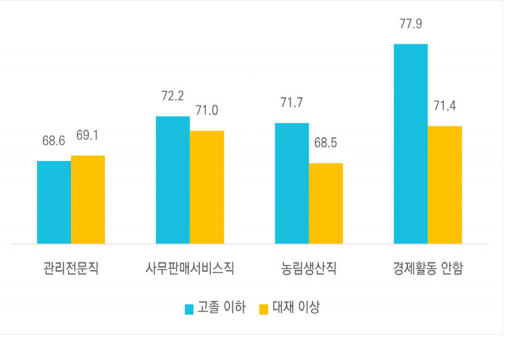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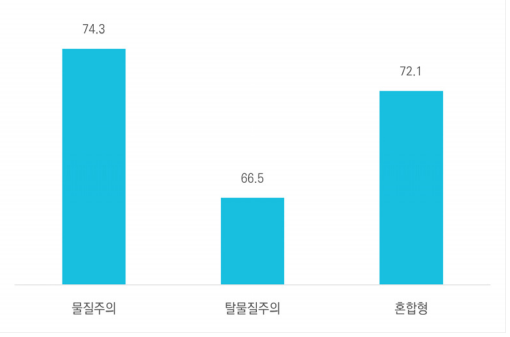
구분	매우 존중됨	존중 되는 편	존중되지 않는 편	전혀 존중 안됨	평균 (4점)	X^2 (df)
전체	8.8	63.7	25.3	2.2	2.8	
성별						14.509 (3)**
남자	9.4	63.7	24.5	2.3	2.8	
여자	8.1	63.7	26.1	2.0	2.8	
연령						164.331 (6)***
20-30대	10.0	59.5	27.0	3.5	2.8	
40-50대	8.0	63.6	26.6	1.8	2.8	
60대 이상	8.3	68.8	21.7	1.1	2.8	
학력						52.248 (3)***
고졸 이하	8.2	66.3	23.7	1.8	2.8	
대재 이상	9.3	61.2	27.0	2.5	2.8	
직업						85.171 (9)***
관리전문직	9.0	60.0	27.1	3.9	2.7	
사무판매서비스	9.5	61.9	26.7	1.9	2.8	
농림생산직	7.8	63.1	26.8	2.3	2.8	
비경제활동인구	8.4	67.0	22.8	1.8	2.8	
종교						1.666 (3)
없음	8.7	64.1	25.1	2.2	2.8	
있음	8.9	63.1	25.8	2.2	2.8	
정치성향						19.762 (9)*
보수	8.4	65.7	23.8	2.1	2.8	
중도	8.6	63.4	26.1	1.9	2.8	
진보	10.2	62.0	25.4	2.3	2.8	
무관심	8.4	63.8	25.4	2.4	2.8	
국가 목표						39.144 (6)***
물질주의	8.9	65.4	23.7	2.0	2.8	
탈물질주의	6.7	59.8	30.2	3.3	2.7	
혼합형	8.9	63.2	25.8	2.1	2.8	
공동체 이익						26.670 (6)***
공동체 이익 중요	9.9	67.0	21.5	1.7	2.8	
개인 이익 중요	8.6	62.8	25.8	2.8	2.8	
둘 다 중요	8.6	63.4	25.9	2.1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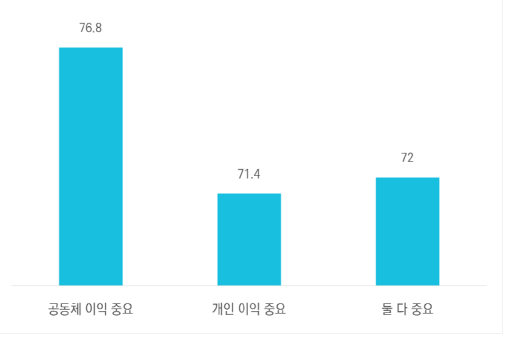
[그림 3-30]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존중을 긍정하는 비율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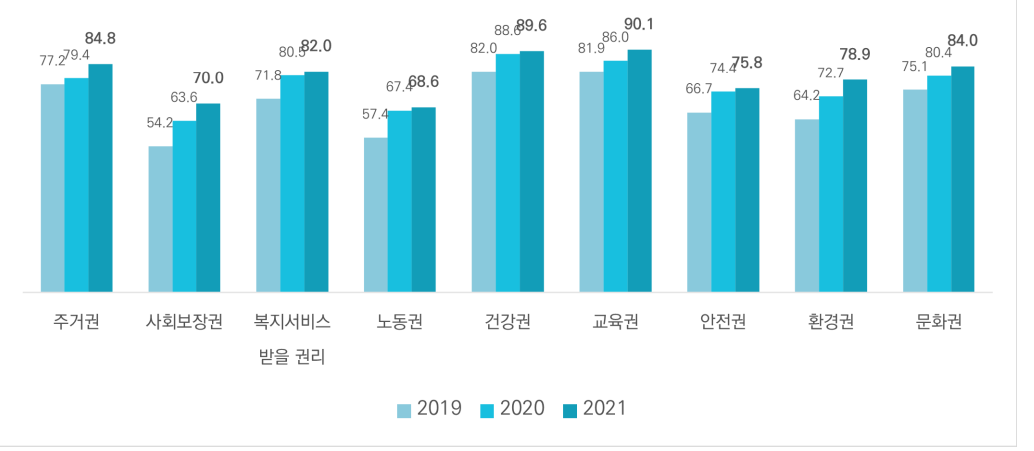
(2) 사회, 문화, 경제적 권리의 존중 정도

사회, 경제, 문화 권리별로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을 연도별로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긍정 비율이 부정 비율에 비해 높기는 하지만 권리 내용별로 차이도 상당하다.

비교적 높은 긍정 비율을 보이는 것이 교육권(90.1%), 건강권(89.6%), 주거권(84.8%), 문화권(84.0%)이고, 낮은 편에 속하는 것이 노동권(68.6%), 사회보장권(70%) 등이다. 전반적으로 2019년에 비해 긍정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9년에 비해 가장 큰 개선을 보이는 것은 사회보장권(15.8%p), 환경권(14.7%p), 노동권(11.2%p) 등이다.

[그림 3-31]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는 응답 추이

(단위 : %)



주거권이 존중되는 정도에 대한 긍정 비율은 84.8%이며, 주거권 존중에 대한 긍정 비율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20-30대 남성은 80.6%, 여성은 78.9%인 반면, 60대 이상 남성은 88.2%, 여성은 90.2%로 차이가 크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서도 주거권 존중에 대한 긍정 비율이 차이를 보여서 가장 낮은 대재 이상 관리전문직의 경우 78.1%인 반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89.6%가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대학교 재학 이상이 주거권 존중에 대한 긍정 응답의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난다.

가치관별 비교에서는 탈물질주의가 물질주의와 혼합형에 비해 주거권이 존중된다는 긍정 응답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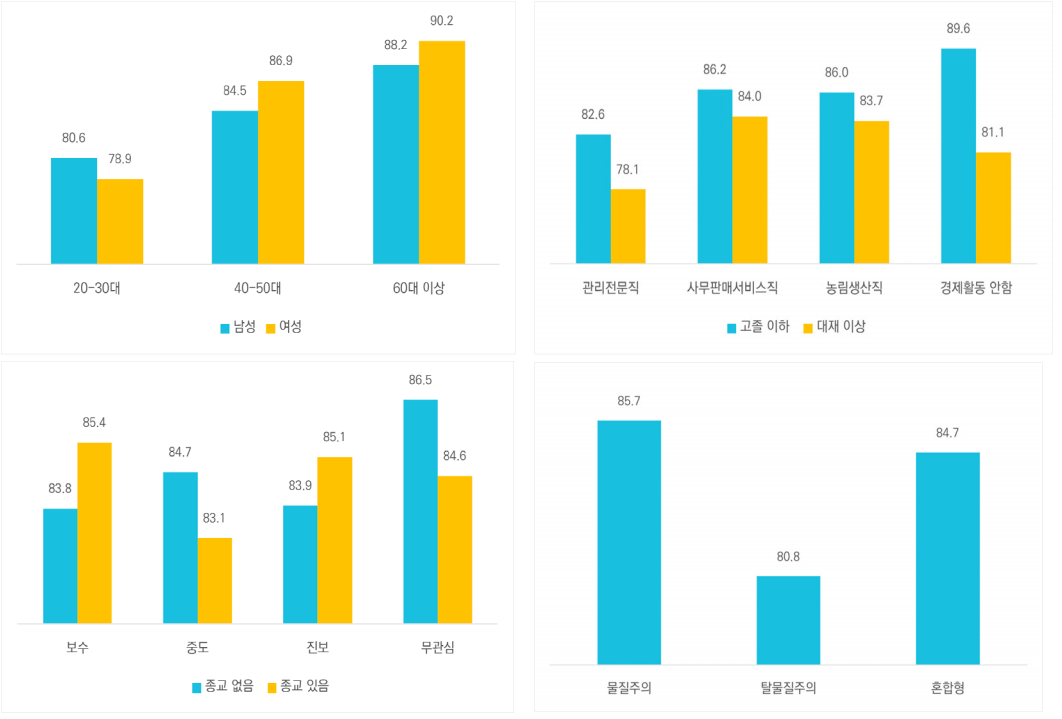
〈표 3-20〉 주거권 존중 정도

(단위: %)

구분	매우 존중됨	존중 되는 편	존중되지 않는 편	전혀 존중안됨	평균 (4점)	X^2 (df)
전체	11.0	73.7	13.9	1.3	2.9	
성별						20.459 (3)***
남자	11.6	72.6	14.3	1.6	2.9	
여자	10.5	74.9	13.6	1.0	2.9	
연령						265.801 (6)***
20-30대	10.7	69.1	17.5	2.7	2.9	
40-50대	10.5	75.2	13.5	0.8	3.0	
60대 이상	12.1	77.1	10.4	0.4	3.0	
학력						107.362 (3)***
고졸 이하	11.5	76.1	11.6	0.8	3.0	
대재 이상	10.6	71.5	16.2	1.7	2.9	
직업						73.815 (9)***
관리전문직	10.5	68.2	19.5	1.8	2.9	
사무판매서비스	11.1	73.7	13.8	1.4	2.9	
농림생산직	12.1	73.4	13.5	1.1	3.0	
비경제활동인구	10.6	75.7	12.6	1.2	3.0	
종교						5.018 (3)
없음	10.8	74.2	13.6	1.3	2.9	
있음	11.5	72.9	14.4	1.2	2.9	
정치성향						27.655 (9)**
보수	11.5	73.1	13.8	1.6	2.9	
중도	10.1	74.0	14.3	1.5	2.9	
진보	11.1	73.2	14.9	0.7	2.9	
무관심	11.8	74.1	13.0	1.2	3.0	
국가 목표						33.790 (6)***
물질주의	11.6	74.1	12.9	1.4	3.0	
탈물질주의	8.6	72.2	16.9	2.3	2.9	
혼합형	11.0	73.7	14.2	1.1	2.9	
공동체 이익						10.804 (6)
공동체 이익 중요	10.9	75.8	11.9	1.3	3.0	
개인 이익 중요	10.3	74.5	13.8	1.4	2.9	
둘 다 중요	11.2	73.3	14.3	1.3	2.9	

[그림 3-32] 주거권 존중을 긍정하는 비율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사회보장권이 존중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긍정 비율은 70.0%이며 주거권과 비슷하게 연령대별 차이가 높게 나타난다. 20-30대 남성의 긍정 비율이 68.1%, 여성의 긍정 비율이 64.9%인 반면, 60대 이상 남성은 72.4%, 여성은 75.6%이다. 여성의 경우 10%p가 넘는 차이를 보인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대학교 재학 이상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직업군별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가장 낮은 긍정 비율을 보이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관리, 전문직으로 64.6%이고, 가장 높은 긍정 비율을 보이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로 74.4%이다.

가치관별 비교를 보면, 사회보장권이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은 물질주의가 71%로 가장 높고, 혼합형이 69.8%이며, 탈물질주의가 66.8%로 가장 낮다. 또한 사회보장권이 존중된다는 응답은 공동체주의가 74.6%, 둘다 중요하다가 69.9%, 개인주의가 67% 순으로 낮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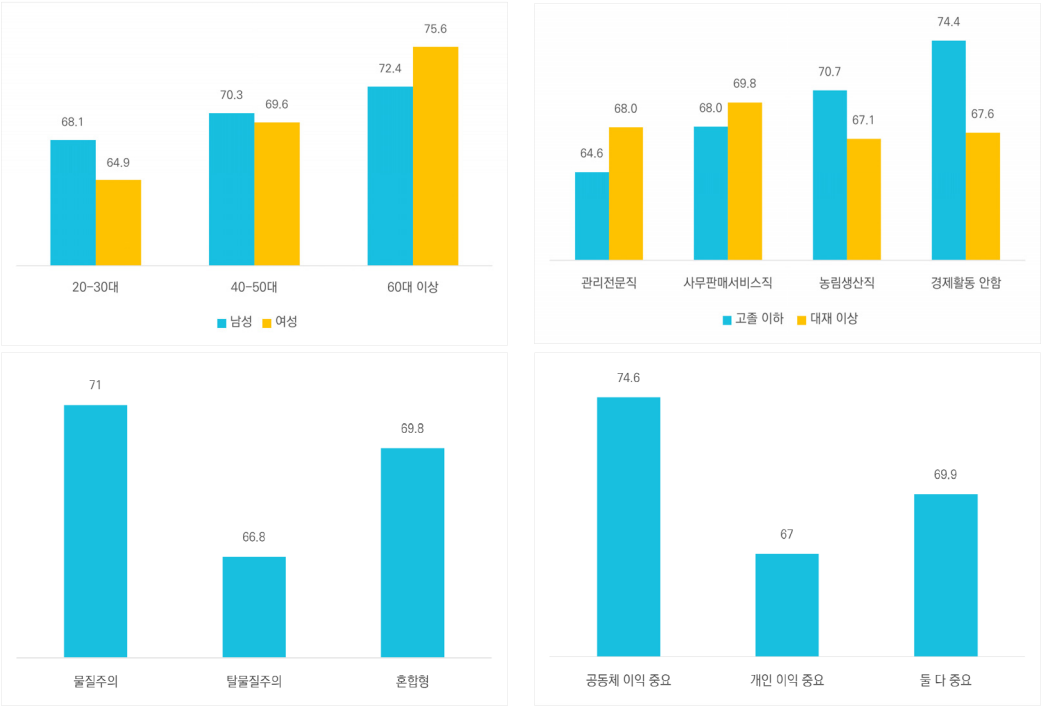
〈표 3-21〉 사회보장권 존중 정도

(단위: %)

구분	매우 존중됨	존중 되는 편	존중되지 않는 편	전혀 존중안됨	평균 (4점)	X^2 (df)
전체	10.4	59.6	27.8	2.2	2.8	
성별						6.399 (3)
남자	10.9	59.2	27.5	2.3	2.8	
여자	10.0	60.0	28.0	2.0	2.8	
연령						114.524 (6)***
20-30대	10.3	56.2	30.2	3.2	2.7	
40-50대	10.0	59.9	28.6	1.4	2.8	
60대 이상	11.2	63.0	23.9	1.9	2.8	
학력						17.881 (3)***
고졸 이하	10.7	60.8	26.5	2.0	2.8	
대재 이상	10.1	58.5	29.1	2.3	2.8	
직업						33.639 (9)***
관리전문직	8.6	59.0	29.5	2.9	2.7	
사무판매서비스	11.0	58.2	28.9	1.9	2.8	
농림생산직	9.8	60.0	27.8	2.4	2.8	
비경제활동인구	10.8	60.9	26.1	2.1	2.8	
종교						2.140 (3)
없음	10.4	59.9	27.6	2.1	2.8	
있음	10.6	59.0	28.1	2.3	2.8	
정치성향						27.934 (9)**
보수	10.1	59.0	28.2	2.7	2.8	
중도	9.8	59.2	28.8	2.2	2.8	
진보	12.0	59.0	27.5	1.5	2.8	
무관심	10.5	60.7	26.5	2.3	2.8	
국가 목표						23.081 (6)**
물질주의	11.1	59.9	26.5	2.5	2.8	
탈물질주의	9.3	57.5	30.3	2.9	2.7	
혼합형	10.2	59.7	28.3	1.9	2.8	
공동체 이익						39.836 (6)***
공동체 이익 중요	12.8	61.8	23.6	1.8	2.9	
개인 이익 중요	10.5	56.5	30.6	2.4	2.8	
둘 다 중요	10.1	59.8	28.0	2.2	2.8	

[그림 3-33] 사회보장권 존중을 긍정하는 비율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노동권이 존중되고 있다는 긍정 응답의 비율은 68.6%이다. 앞에서와 비슷하게 연령대별 차이가 나타나며, 특히 여성이 더 두드러진다. 가장 긍정 비율이 낮은 20-30대 여성의 긍정 비율이 64.8%인 반면, 60대 이상 여성의 긍정 비율은 74.5%이다.

사회경제적 배경별 비교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사무, 판매, 서비스직을 제외한 다른 직업군에서 대학교 재학 이상에 비해 높은 긍정 비율을 보인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 관리, 전문직의 긍정 비율이 가장 높아서 72.6%이며, 대학교 재학 이상의 관리 전문직이 65.9%, 농림생산직이 65.9%로 낮은 긍정 비율을 보인다.

가치관별 비교에서는 노동권이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이 물질주의와 혼합형에 비해 탈물질주의에서 낮았으며, 공동체주의에 비해 공동체-개인주의와 개인주의가 더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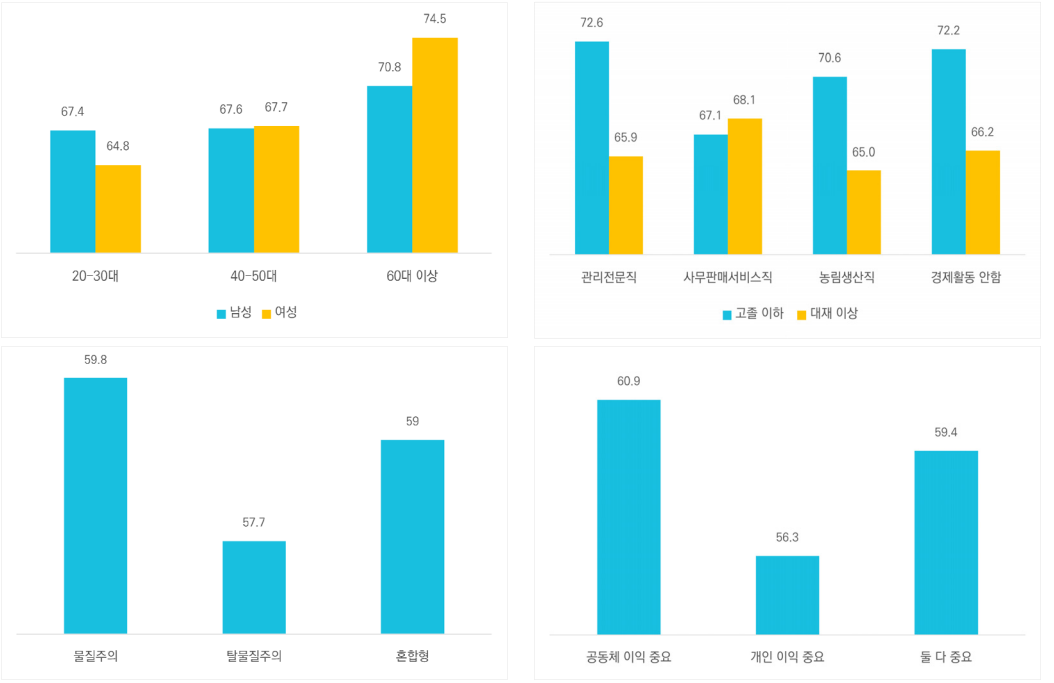
〈표 3-22〉 노동권 존중 정도

(단위: %)

구분	매우 존중됨	존중되는 편	존중되지 않는 편	전혀 존중안됨	평균 (4점)	X^2 (df)
전체	9.4	59.2	29.1	2.3	2.8	
성별						8.434 (3)*
남자	9.7	58.6	29.1	2.6	2.8	
여자	9.1	59.8	29.1	2.0	2.8	
연령						75.623 (6)***
20-30대	9.6	56.5	30.8	3.0	2.7	
40-50대	9.0	58.7	30.2	2.1	2.7	
60대 이상	9.8	63.0	25.5	1.7	2.8	
학력						32.291 (3)***
고졸 이하	9.2	61.3	27.3	2.2	2.8	
대재 이상	9.7	57.2	30.8	2.4	2.7	
직업						20.251 (9)*
관리전문직	8.5	58.1	30.7	2.6	2.7	
사무판매서비스	9.9	57.9	30.0	2.3	2.8	
농림생산직	9.6	59.5	28.1	2.7	2.8	
비경제활동인구	9.1	60.7	28.2	2.0	2.8	
종교						6.244(3)
없음	9.1	59.7	28.8	2.4	2.8	
있음	9.9	58.3	29.6	2.1	2.8	
정치성향						33.563(9)***
보수	9.2	60.1	28.5	2.2	2.8	
중도	8.7	58.3	30.2	2.7	2.7	
진보	10.7	56.8	30.4	2.1	2.8	
무관심	9.7	61.0	27.4	1.9	2.8	
국가 목표						25.284 (6)***
물질주의	10.0	59.8	27.4	2.8	2.8	
탈물질주의	8.1	57.7	31.9	2.3	2.7	
혼합형	9.2	59.0	29.7	2.0	2.8	
공동체 이익						33.209 (6)***
공동체 이익 중요	10.5	60.9	26.9	1.7	2.8	
개인 이익 중요	9.5	56.3	30.6	3.6	2.7	
둘 다 중요	9.3	59.4	29.2	2.2	2.8	

[그림 3-34] 노동권 존중을 긍정하는 비율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안전권 존중에 대한 긍정 응답의 비율은 75.8%이며, 인구학적 배경별로 비교하여 보면 연령대별 차이가 남성의 경우에는 크지 않은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연령대별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20-30대 여성의 긍정 비율이 70.1%인 반면, 60대 이상 여성은 긍정 비율이 78.9%이다. 또한 남성의 경우 차이는 크지 않지만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긍정 비율이 줄어드는 반면, 여성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긍정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도 볼 수 있다.

가치관별 비교를 보면 물질주의, 혼합형, 탈물질주의 순으로 안전권이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이 낮았으며, 공동체주의, 둘다 중요, 개인주의 순으로 안전권 존중 응답 비율이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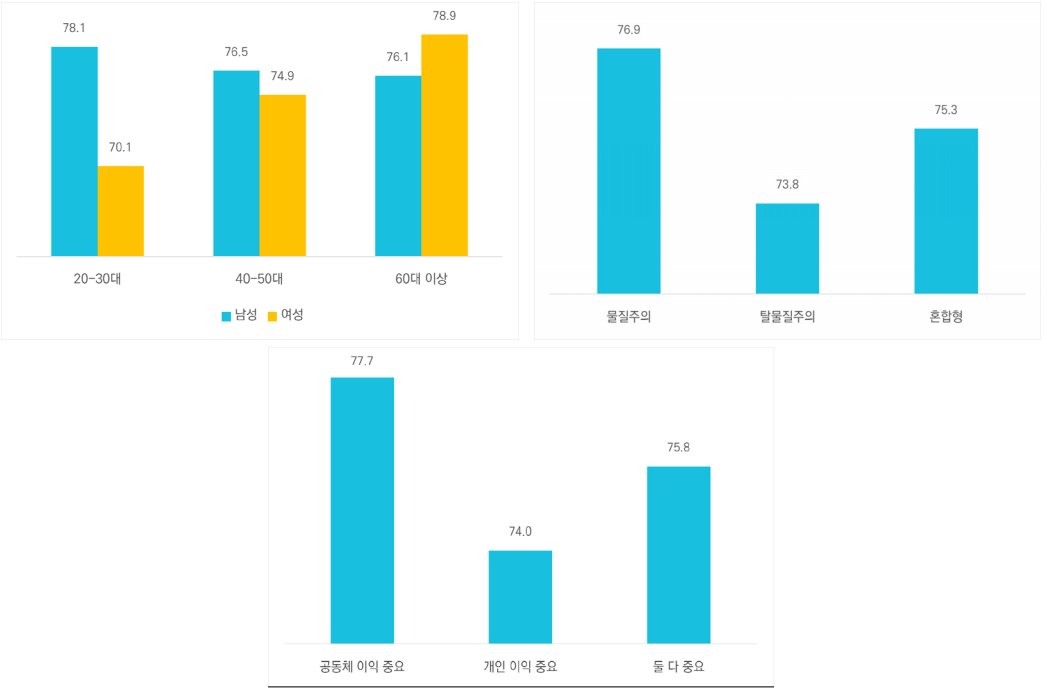
〈표 3-23〉 안전권 존중 정도

(단위: %)

구분	매우 존중됨	존중 되는 편	존중되지 않는 편	전혀 존중안됨	평균 (4점)	X^2 (df)
전체	11.8	64.0	21.9	2.4	2.9	
성별						25.831 (3)***
남자	12.6	64.3	21.1	2.0	2.9	
여자	11.0	63.6	22.6	2.7	2.8	
연령						81.749 (6)***
20-30대	13.7	60.6	22.5	3.3	2.8	
40-50대	10.6	65.0	22.4	1.9	2.8	
60대 이상	11.2	66.5	20.5	1.9	2.9	
학력						20.353 (3)***
고졸이하	10.9	65.5	21.3	2.3	2.8	
대재이상	12.7	62.5	22.4	2.4	2.9	
직업						23.359 (9)**
관리전문직	13.7	61.1	22.4	2.7	2.9	
사무판매서비스	12.1	62.9	22.7	2.2	2.8	
농림생산직	10.6	65.9	21.1	2.4	2.8	
비경제활동인구	11.5	64.9	21.2	2.4	2.9	
종교						12.472 (3)**
없음	11.7	64.9	21.1	2.3	2.9	
있음	11.9	62.5	23.2	2.4	2.8	
정치성향						34.446 (9)***
보수	10.9	63.3	23.4	2.4	2.8	
중도	12.7	63.4	21.9	1.9	2.9	
진보	12.4	63.7	21.8	2.0	2.9	
무관심	10.9	65.1	21.0	3.0	2.8	
국가 목표						40.628 (6)***
물질주의	11.9	65.1	20.0	3.1	2.9	
탈물질주의	11.1	62.7	23.8	2.4	2.8	
혼합형	11.8	63.5	22.8	1.9	2.9	
공동체 이익						33.992 (6)***
공동체 이익 중요	13.7	64.0	20.7	1.6	2.9	
개인 이익 중요	10.9	63.1	22.2	3.8	2.8	
둘 다 중요	11.7	64.1	22.0	2.2	2.9	

[그림 3-35] 안전권 존중을 긍정하는 비율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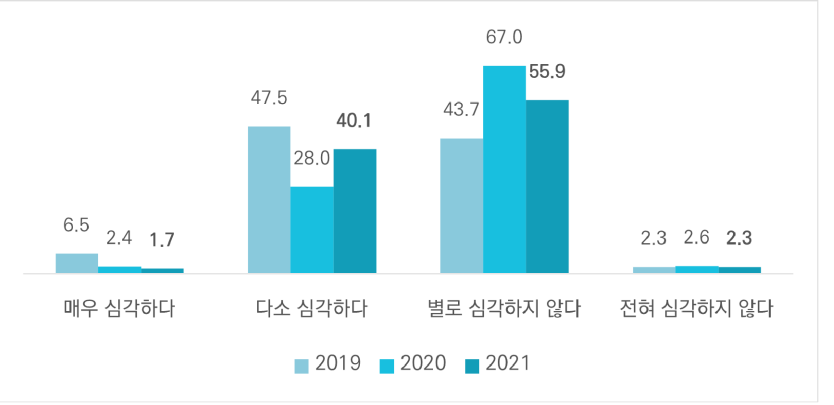


(3) 인권침해와 차별의 정도

한국 사회에서 인권침해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것에 대한 응답 비율의 추이가 [그림 3-36]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인권침해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심각하다(매우+다소)는 응답이 41.8%로 심각하지 않다(별로+전혀)는 응답 58.2%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2019년(54%)에 비해서는 낮고, 2020년(30.4%)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인다.

[그림 3-36] 한국 사회의 인권침해 심각도에 대한 응답 비율의 추이

(단위 : %)



인구학적 변수별 비교를 보면 남성과 여성의 연령대별 차이가 반대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남성의 경우 20-30대에 비해 40-50대와 60대 이상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은 반면, 여성은 20-30대와 40-50대에 비해 60대 이상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이 낮다. 그 결과 20-30대와 40-50대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인권 해가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고, 60대 이상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높다.

사회경제적 배경별로 비교한 결과를 보면, 대학교 재학 이상에서는 직업군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은 반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직업군별 차이가 나타나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 관리-전문직의 심각성 인식이 50.4%이고, 다음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 사무판매서비스 종사자가 45.3%이다. 의식적 배경 요인별 비교를 보면 전반적으로 종교를 갖지 않은 경우에 비해 종교를 가진 경우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를 가진 경우 중도 성향에 비해 보수와 진보가 모두 인권침해 심각성을 높게 응답했으며, 종교가 없는 경우 보수가 중도와 진보 성향에 비해 심각성 인식 응답 비율이 높았다. 무관심 집단의 경우 중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가치관별 비교를 보면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은 탈물질주의(44.5%)인 경우 물질주의(41.9%)와 혼합형(41.4%)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 또한 공동체주의(43.9%)와 개인주의(45%) 모두 둘 다 중요하다는 경우(41%)에 비해 인권침해를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표 3-24〉 한국 사회 인권침해 심각 정도

(단위: %)

구분	매우 심각	다소 심각	별로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평균 (4점)	X^2 (df)
전체	1.7	40.1	55.9	2.3	2.6	
연령						
20-30대	2.0	40.2	55.6	2.1	2.6	32.372 (6)***
40-50대	1.9	41.3	54.5	2.3	2.6	
60대 이상	1.1	38.2	58.1	2.6	2.6	
직업						
관리전문직	1.9	41.5	53.6	3.0	2.6	34.916 (9)***
사무판매서비스	1.5	41.5	55.0	2.0	2.6	
농림생산직	2.3	39.7	56.2	1.8	2.6	
비경제활동인구	1.7	38.4	57.2	2.7	2.6	
종교						
없음	1.3	39.1	57.2	2.4	2.6	44.042 (3)***
있음	2.4	41.7	53.7	2.2	2.6	
정치 성향						
보수	2.2	43.4	51.6	2.7	2.5	62.301 (9)***
중도	1.5	39.4	57.5	1.6	2.6	
진보	1.6	40.2	56.0	2.1	2.6	
무관심	1.8	38.6	56.6	3.0	2.6	
국가 목표						
물질주의	1.9	40.0	55.3	2.7	2.6	23.452 (6)**
탈물질주의	2.9	41.6	53.8	1.7	2.5	
혼합형	1.5	39.9	56.5	2.1	2.6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익 중요	1.8	42.1	53.7	2.4	2.6	26.164 (6)***
개인 이익 중요	2.4	42.6	52.2	2.7	2.6	
둘 다 중요	1.6	39.3	56.8	2.2	2.6	

[그림 3-37] 한국 사회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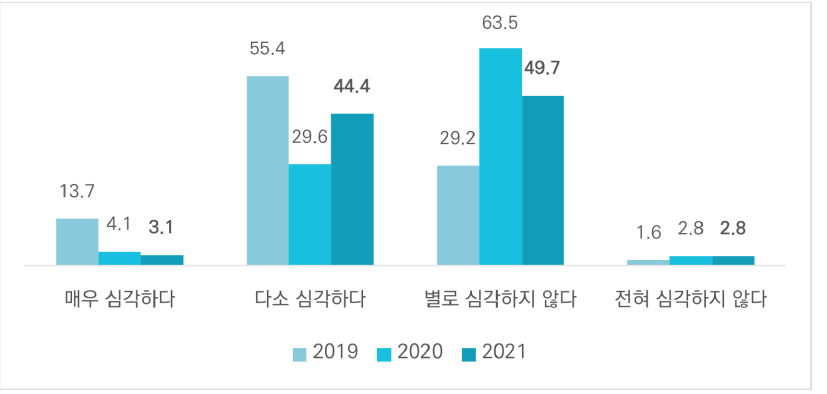
[그림 3-38]은 한국 사회에서 차별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의 비율의 추이를 보여준다. 이때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다.

차별이 심각하다(매우+다소)는 응답은 47.4%로 차별이 심각하지 않다(별로+전혀)는 응답 비율 52.6%에 비해 낮다. 하지만 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은 앞서 살펴본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41.8%)에 비해 높다. 한편 연도별 추이를 보면 심각하다는 응답은 2019년(69.1%)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2020년(33.7%)에 비해서는 늘었다.

[그림 3-38] 한국 사회의 차별 심각도에 대한 응답 비율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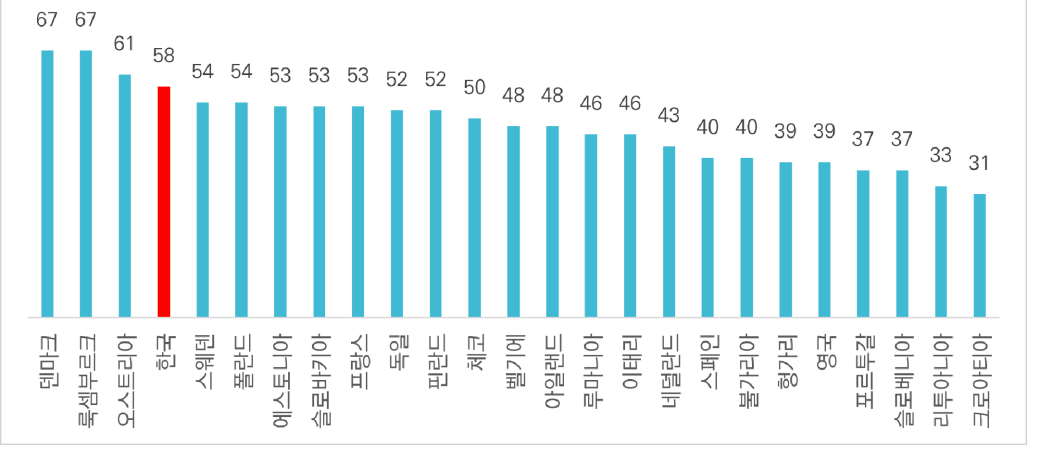
(단위 : %)



국제비교적으로 차별 심각도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자. 2019년 유럽 기본권기구(FRA: Fundamental Rights Agency)의 조사에서는 유럽 나라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어떤 나라들에서는 인권침해가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질문한 결과, 유럽 국가들 전체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평균 48%이다. 한국(58%)은 유럽 나라들과 비교해서 덴마크(67%), 룩셈부르크(67%), 오스트리아(61%)에 이어 인권침해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그림 3-39] 인권침해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의 국제 비교

(단위 : %)



출처: FRA(2020), 「What Do Fundamental Rights Mean for People in the EU?」 및 국가인권위원회(2021), 「국가인권실태조사」

한국 사회의 차별 심각도에 대한 응답을 인구학적 배경별로 비교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 연령대가 낮을수록 차별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령대별 차이는 여성에서 더 두드러져서, 20-30대 여성의 경우 55.1%가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60대 이상 여성은 39.2%가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사회경제적 배경별로 비교하면, 관리전문직과 사무판매서비스직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대학교 재학 이상에 비해 차별을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농림생산직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대학교 재학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장 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집단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 관리전문직인 반면,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이다.

가치관별 비교를 하면 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탈물질주의의 경우(53.8%) 물질주의(46.3%)나 혼합형(47.4%)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25〉 한국 사회 차별 심각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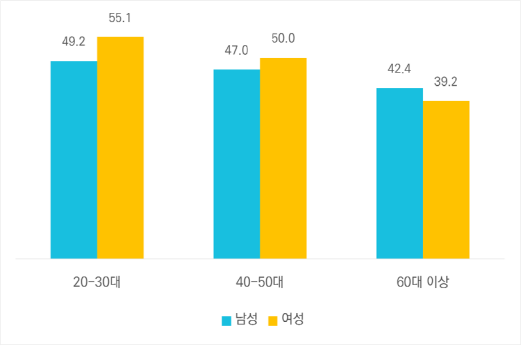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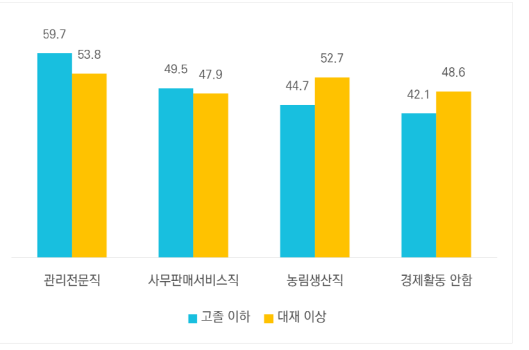
구분	매우 심각	다소 심각	별로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평균 (4점)	X^2 (df)
전체	3.1	44.4	49.7	2.8	2.5	
성별						12.693 (3)**
남자	3.3	43.3	50.3	3.1	2.5	
여자	2.9	45.4	49.2	2.6	2.5	
연령						184.701 (6)***
20-30대	4.5	47.5	45.2	2.8	2.5	
40-50대	2.9	45.6	48.8	2.7	2.5	
60대 이상	1.7	38.9	56.2	3.1	2.6	
학력						46.942 (3)***
고졸 이하	2.6	42.5	52.2	2.7	2.5	
대재 이상	3.5	46.1	47.4	3.0	2.5	
직업						91.560 (9)***
관리전문직	4.7	49.8	42.9	2.6	2.4	
사무판매서비스	2.8	45.7	48.4	3.1	2.5	
농림생산직	3.5	43.1	51.4	1.9	2.5	
비경제활동인구	2.6	42.1	52.2	3.1	2.6	
종교						19.565 (3)***
없음	3.2	43.2	50.4	3.1	2.5	
있음	2.8	46.2	48.5	2.4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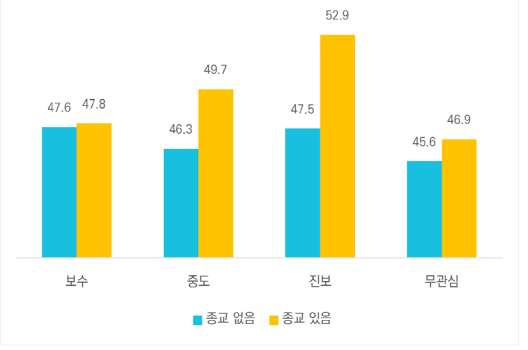
구분	매우 심각	다소 심각	별로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평균 (4점)	X^2 (df)
정치 성향						
보수	2.7	44.9	48.8	3.6	2.5	49.339 (9)***
중도	2.5	45.0	50.2	2.3	2.5	
진보	4.3	45.3	48.1	2.4	2.5	
무관심	3.3	42.7	50.7	3.3	2.5	
국가 목표						
물질주의	3.2	43.1	50.4	3.3	2.5	40.219 (6)***
탈물질주의	4.6	49.2	44.6	1.7	2.4	
혼합형	2.8	44.6	49.9	2.7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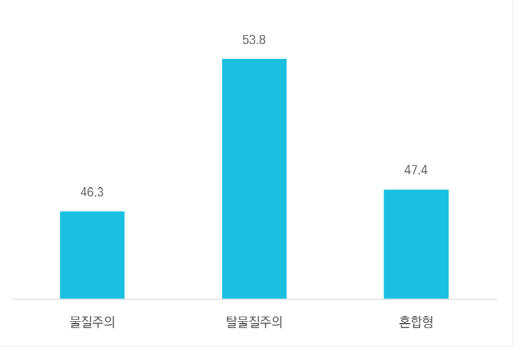
[그림 3-40] 한국 사회의 차별 심각도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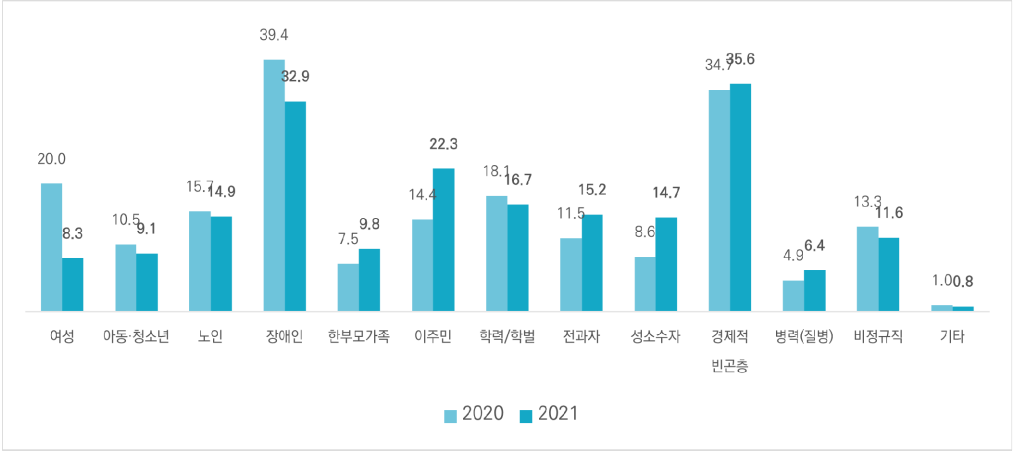
2) 인권침해, 차별 취약집단과 상황

(1) 인권침해와 차별의 취약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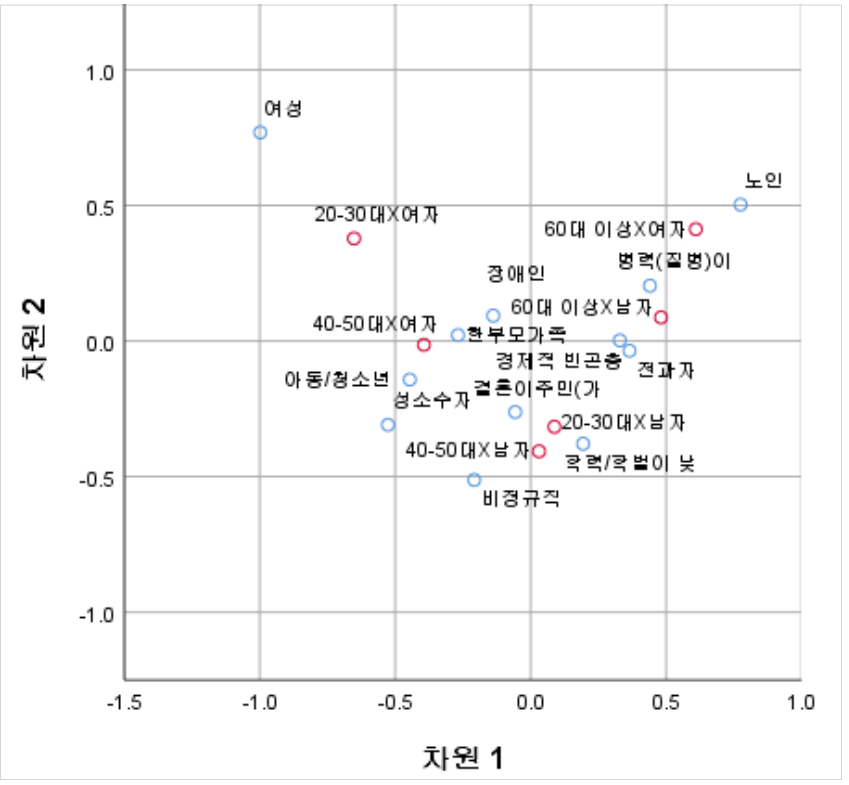
[그림 3-41]은 누가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것에 대한 응답 비율을 보여준다.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집단은 경제적 빈곤층(35.6%), 장애인(32.9%), 이주민(22.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장애인이 가장 많고, 다음이 경제적 빈곤층, 여성의 순이었던 것과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취약집단으로 응답한 비율이 2020년에 비해 높아진 것은 경제적 빈곤층, 이주민, 전과자와 성소수자 등이었으며, 낮아진 것은 여성, 장애인, 노인, 학력과 학벌, 비정규직, 아동·청소년 등이었다.

[그림 3-41] 인권침해와 차별의 취약집단 응답 비율의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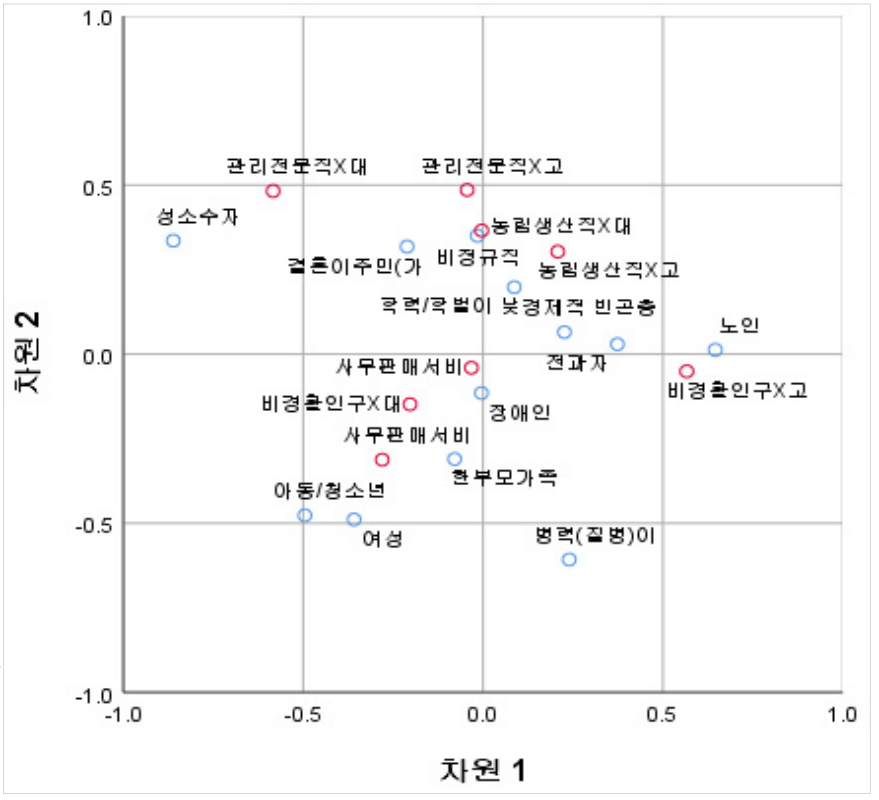
[그림 3-42] 응답자 인구학적 배경과 인권침해, 차별 취약집단의 대응분석 결과



[그림 3-42]는 인권침해와 차별의 취약집단에 대한 1순위 선택과 응답자의 인구학적 배경 간의 관계를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대응분석은 교차표의 내용에서 행과 열의 범주들 간의 관계를 이차원 평면상의 거리로 표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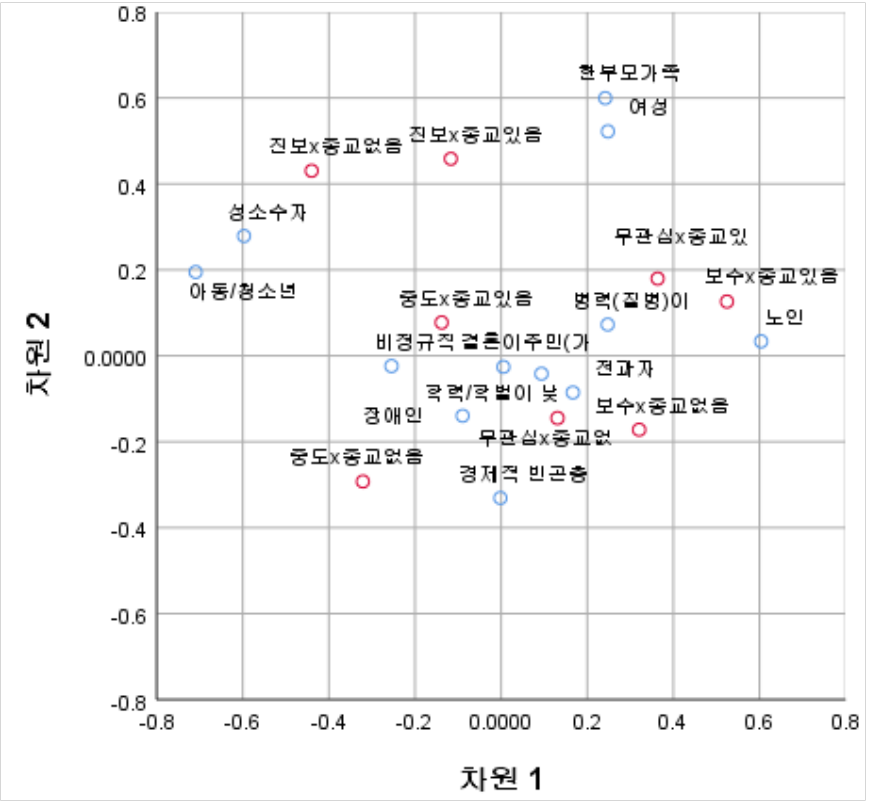
그래프에서 붉은색 점은 응답자의 특성이고, 파란색 점은 취약집단 선택 대상이다. 두 종류의 점 간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해당 특성의 응답자가 해당 취약집단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취약집단 중에서 가장 응답 비율이 높은 경제적 빈곤층이 중심에 있으며, 전과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결혼이주민 등이 주변에 있다. 이들 집단은 40-50대 여자와 남자, 60대 이상 남자, 20-30대 남자 등과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편이다. 한편 아래쪽으로 비정규직, 학력, 학벌이 낮은 사람을 취약집단으로 선택하는 응답자는 40-50대 남자에 가깝고, 그 좌측 위편으로 아동, 청소년과 성소수자를 취약집단으로 선택하는 집단은 40-50대 여성과 가깝다. 우측 상단에는 노인, 병력(질병)을 취약집단으로 선택한 집단이 60대 이상 여성과 가까이 있고, 좌측 상단에는 여성을 취약집단으로 선택한 집단이 20-30대 여성과 가깝게 있다.

[그림 3-43] 응답자 사회경제적 배경과 인권침해, 차별 취약집단의 대응분석 결과



[그림 3-43]은 인권침해와 차별 취약집단에 대한 1순위 선택과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간의 관계를 대응분석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이 그래프에는 중심부에 경제적 빈곤층, 결혼이주민, 비정규직, 학력과 학벌이 낮은 사람, 전과자 등이 농림생산직과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그 우측에 노인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과 가까이 있다. 그 아래로는 장애인, 한부모 가족,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사무, 판매, 서비스직 및 대재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과 가까이 모여 있다. 좌측 상단에는 성소수자가 대학교 재학 이상 관리전문직과 가까이 있다.

[그림 3-44] 응답자 의식적 배경과 인권침해, 차별 취약집단의 대응분석 결과



[그림 3-44]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집단과 응답자의 의식적 배경 간의 관계를 대응분석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그래프 하단의 경제적 빈곤층은 종교를 갖지 않은 정치적 무관심층이나 중도층, 보수층에 가까이 위치해 있다. 또한 그 위로 비정규직, 결혼이주민, 전과자, 학력, 학벌이 낮은 사람은 종교 있는 중도, 종교 없는 중도와 무관심층에 가까이 있다. 그래프 우측으로는 종교 있는 무관심층과 보수층이 노인과 병력(질병)이 있는 사람에 가까이 있으며, 그래프 좌측으로는 성소수자와 아동, 청소년이 종교 없는 진보층과 가까이 있다. 마지막으로 그래프 위쪽에는 한부모가족과 여성이 종교 있는 진보층과 가까이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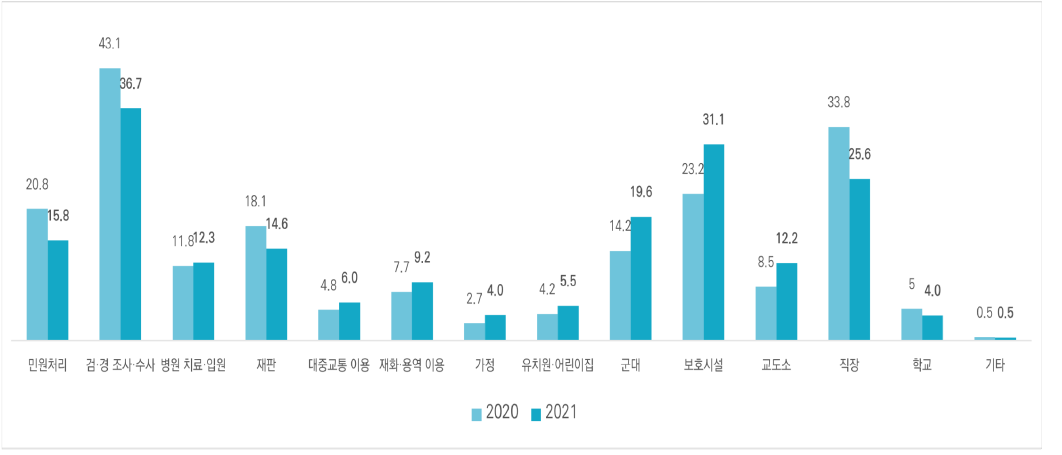
⑵ 인권침해와 차별 발생 쉬운 상황

[그림 3-45]는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이 무엇인가 질문에 대한 1순위와 2순위 종합 응답 비율을 보여준다.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 응답한 것은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와 수사로 36.7%이다. 이것은 2020년 43.1%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다음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은 보호시설로 31.1%가 선택했으며, 2020년 23.2%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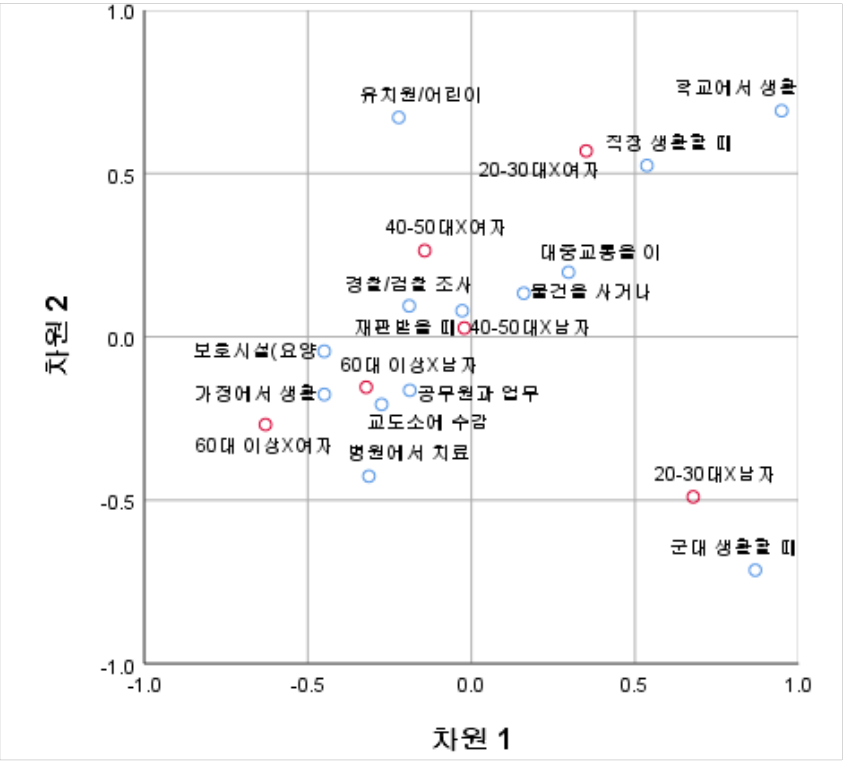
반면 2020년 둘째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직장은 33.8%에서 8.2%p가 낮아져 25.6%로 세 번째였다. 응답 비율이 높아진 상황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재화, 용역 이용, 가정, 유치원과 어린이집, 군대, 교도소 등이 있으며, 응답 비율이 낮아진 상황으로는 민원처리, 재판, 직장과 학교 등이 있다. 직장이나 학교는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이 늘어난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3-45] 인권침해와 차별 발생하기 쉬운 상황 응답 비율의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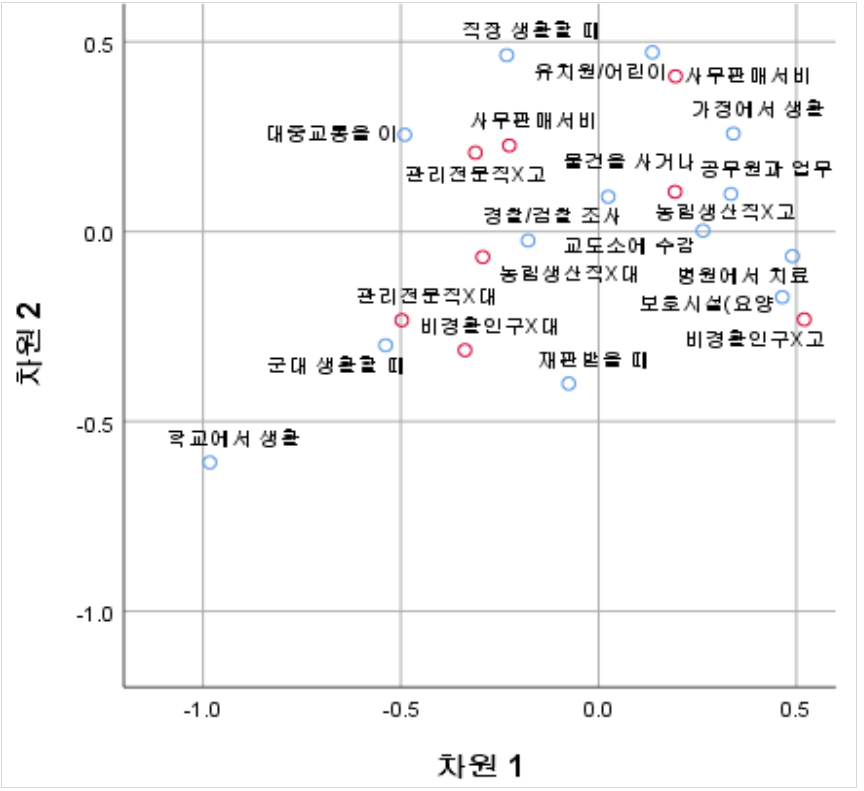


[그림 3-46] 응답자 인구학적 배경과 인권침해, 차별 취약 상황의 대응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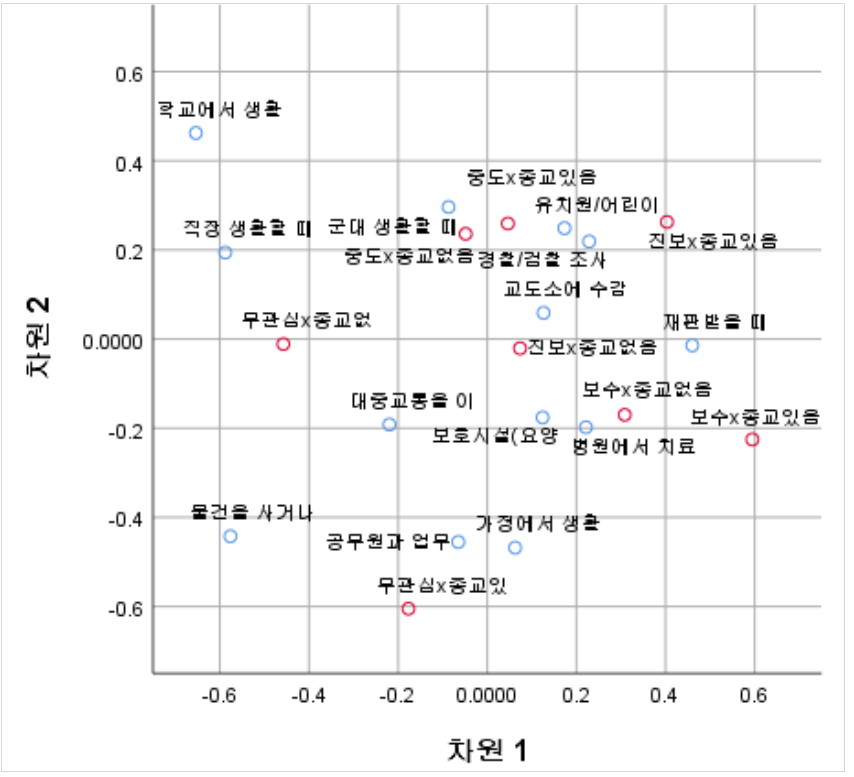
[그림 3-46]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에 대한 1순위 응답과 응답자의 인구학적 배경 간의 대응분석 결과이다. 20-30대 여성의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과 함께 직장생활, 학교생활 등이 가까이 있고, 20-30대 남자의 경우 군대 생활이 가까이 있어 일상적으로 자주 접하는 상황에 대한 응답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40-50대 남성과 여성 모두 대중교통 이용, 물건 사거나 서비스 이용 시, 재판받을 때와 경찰, 검찰 조사나 수사 등과 가까이 있다. 한편 60대 이상의 남성과 여성은 보호시설, 가정생활, 병원 치료, 교도소 수감 및 공무원과의 업무 등에 가까이 위치해 있다.

[그림 3- 47] 응답자 사회경제적 배경과 인권침해, 차별 취약 상황의 대응분석 결과



[그림 3-47]은 인권침해 및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에 대한 1순위 응답과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대응분석 결과이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 왼편 하단에 대재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과 군대 생활, 학교생활이 가까이 위치해 있고, 오른편에 고등학교 졸업 이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과 보호시설, 병원 치료 등이 가까이 위치해 있다. 한편 중앙부에는 경찰, 검찰 조사 및 교도소 수감, 공무원과의 업무처리, 물건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 등이 농림생산직과 가까이 위치해 있다. 상단에는 직장생활,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중교통 이용 등이 사무, 판매, 서비스직과 가까이 위치해 있다. 앞서 인구학적 배경과 마찬가지로 학력 및 직업군별로 자주 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응답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48] 응답자 의식적 배경과 인권침해, 차별 취약 상황의 대응분석 결과



[그림 3-48]은 인권침해 및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에 대한 1순위 응답과 응답자의 의식적 성향의 대응분석 결과이다. 이 그래프의 하단에는 물건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 공무원과 업무 처리, 가정생활 등이 종교 있는 무관심층과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상단 왼편에는 학교생활, 직장생활, 군대생활 등이 종교 없는 중도나 무관심층과 가까이 위치해 있다. 중앙에는 대중교통 이용 및 보호시설, 병원 치료 등이 보수층과 가까이 위치해 있다. 또한 상단 오른편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경찰 및 검찰 조사와 수사, 교도소 수감과 재판 등이 진보와 종교 있는 중도층과 가까이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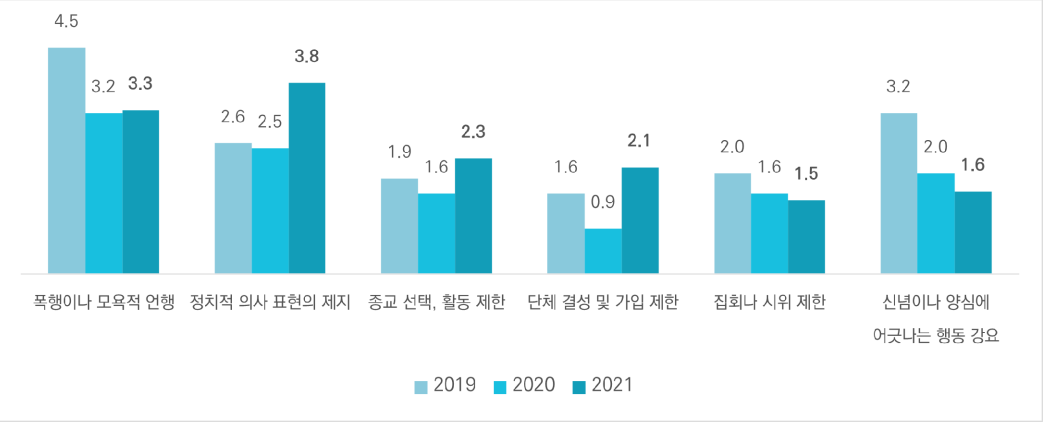
3) 인권침해의 경험

(1) 시민, 정치적 권리의 침해 경험

[그림 3-49]는 본인이 직접 시민, 정치적 권리의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은 것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시민, 정치적 권리의 침해를 경험한 비율은 4%가 채 못 되는 낮은 비율을 보인다. 그중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제지, 방해, 비난, 처벌 등으로 2020년 2.5%에서 증가해 3.8%이며, 다음은 2020년에 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던 폭행이나 모욕적 언행으로 3.3%이다. 종교 선택 및 활동의 제한과 단체 결성 및 가입 제한은 모두 2020년에 비해 증가해서 각각 2.3%, 2.1%이다. 반면 집회나 시위의 제한과 신념,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의 강요는 2020년에 비해 응답이 줄어서 각각 1.5%와 1.6%이다.

[그림 3-49] 시민, 정치적 권리별 침해 경험 비율의 추이

(단위 : %)



시민 정치적 권리들 중에서 하나라도 침해 경험이 있는 비율을 배경 요인별로 비교한 것이 그림 [3-50]이다.

인구학적으로 보면 시민, 정치적 권리의 침해 경험은 20-30대와 40-50대가 비슷하며, 60대 이상이 낮게 나타난다.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에 비해 시민, 정치적 권리의 침해 비율이 낮은 특성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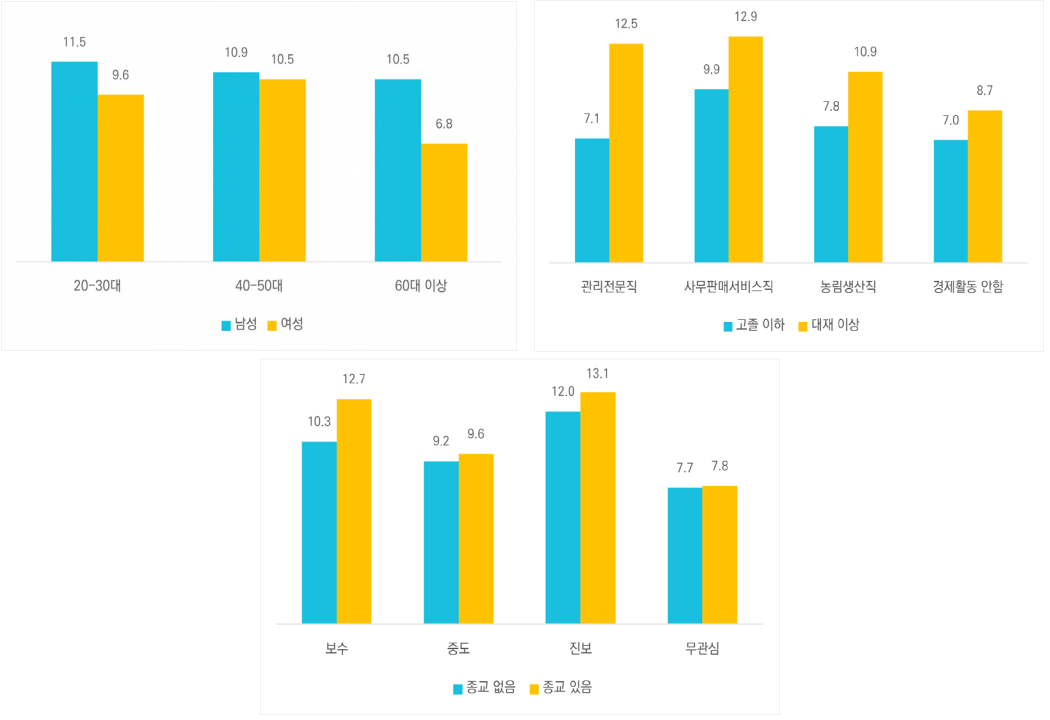
사회경제적 배경별로 비교하면 대학교 재학 이상이 모든 직업군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시민, 정치적 권리 침해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교 재학 이상 관리, 전문직

과 사무판매서비스직이 각각 12.5%, 12.9%로 침해 경험이 높은 편이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사무, 판매, 서비스직의 침해 비율이 9.9%로 높은 편이다.

의식적 배경에 따른 침해 경험의 비율 비교 결과 종교를 가진 경우 침해 경험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보수와 진보가 중도와 무관심층에 비해 침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이념의 양극단에 가까울수록 시민, 정치적 권리의 침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이다.

[그림 3-50] 시민, 정치적 권리 침해 경험 비율의 배경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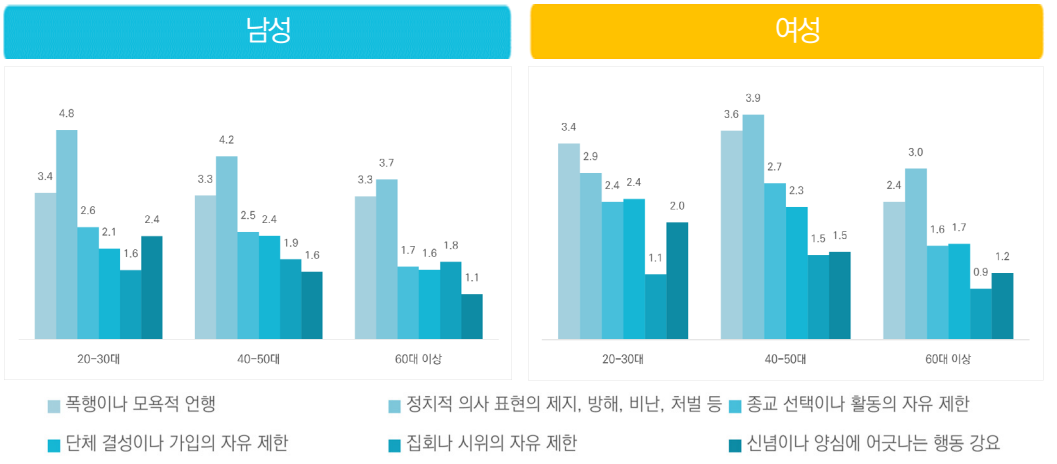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3-51]은 인구학적 배경 요인별로 시민, 정치적 권리 각각의 침해경험 비율을 비교한 결과이다. 왼편의 남성에서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제지, 방해, 비난, 처벌의 경험이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젊을수록 경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강요받은 경험도 젊은 남성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한편 오른편의 여성 중에서는 60대 이상이 전반적으로 낮은 경험을 보이며, 정치적 의사표현의 제지, 방해, 비난, 처벌 등은 40-50대 여성이 높고,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강요받은 경험은 20-30대에서 높다.

[그림 3-51] 시민, 정치적 권리 침해 경험 비율의 인구학적 배경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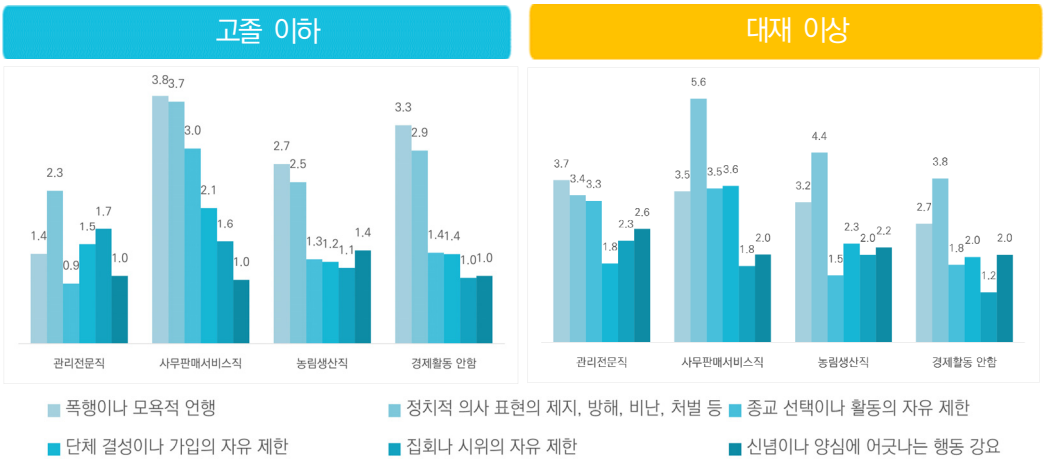
(단위 : %)



사회경제적 배경별로 시민, 정치적 권리별 침해 경험을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대학교 재학 이상이 높은 침해 경험을 보인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사무판매서비스직이 폭행이나 모욕적 언행, 정치적 의사표현의 제지, 방해, 비난, 처벌, 종교 선택이나 활동의 자유 제한 등의 경험 비율이 높다. 또한 대학교 재학 이상에서도 사무판매서비스직의 권리 침해 경험이 높은데, 특히 정치적 의사표현의 제한과 단체 결성 및 가입의 자유 제한이 그러하다. 폭행이나 모욕적 언행에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 관리 전문직의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림 3-52] 시민, 정치적 권리 침해 경험 비율의 사회경제적 배경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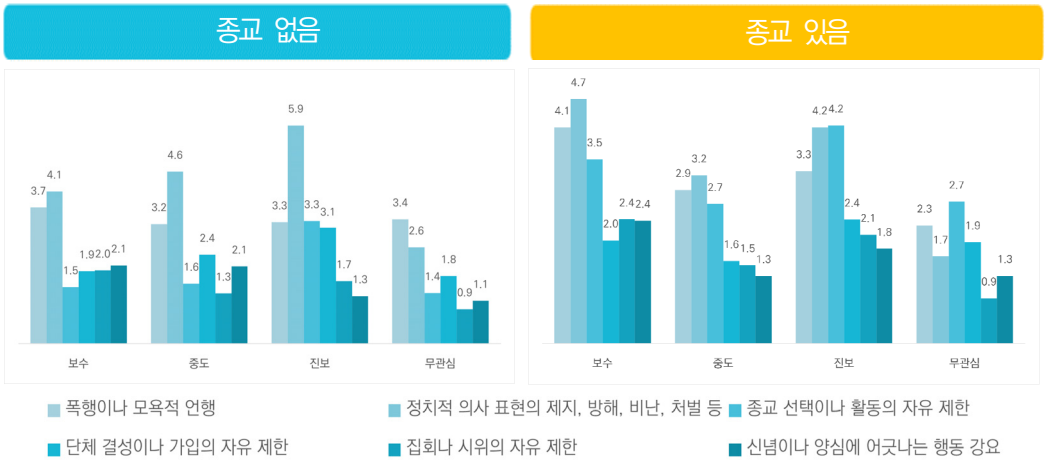
(단위 : %)



의식적 배경별로 시민, 정치적 권리 침해 경험을 비교하면 폭행이나 모욕적 언행, 정치적 의사표현의 제지, 방해, 비난, 처벌에서는 종교를 갖지 않은 경우가 더 높은 비율을 보이며, 종교 선택이나 활동의 자유 제한은 종교를 가진 경우의 경험 비율이 높다. 특히 종교를 갖지 않은 집단에서 진보 성향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침해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53] 시민, 정치적 권리 침해 경험 비율의 의식적 배경별 비교

(단위 : %)



〈표 3-26〉 시민, 정치적 권리별 침해 경험의 배경별 비교

(단위: %)

구분	없음	폭행이나 모욕적 언행	정치적 의사표현 제지, 방해, 비난, 처벌	종교 선택이나 활동의 자유 제한	단체 결성이나 가입의 자유 제한	집회나 시위의 자유 제한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 강요
전체	90.2	3.3	3.8	2.3	2.1	1.5	1.6
성별							
남자	89.6	3.3	4.3	2.3	2.1	1.8	1.7
여자	90.9	3.2	3.3	2.3	2.1	1.2	1.6
연령							
20-30대	89.4	3.4	3.9	2.5	2.3	1.4	2.2
40-50대	89.3	3.5	4.1	2.6	2.3	1.7	1.5
60대 이상	92.5	2.8	3.3	1.7	1.6	1.3	1.1
학력							
고졸 이하	92.1	3.2	3.0	1.7	1.5	1.2	1.1
대재 이상	88.5	3.3	4.6	2.8	2.7	1.7	2.1
직업							
관리전문직	88.2	3.4	3.3	3.0	1.8	2.3	2.4
사무판매서비스	88.2	3.6	4.9	3.3	3.1	1.7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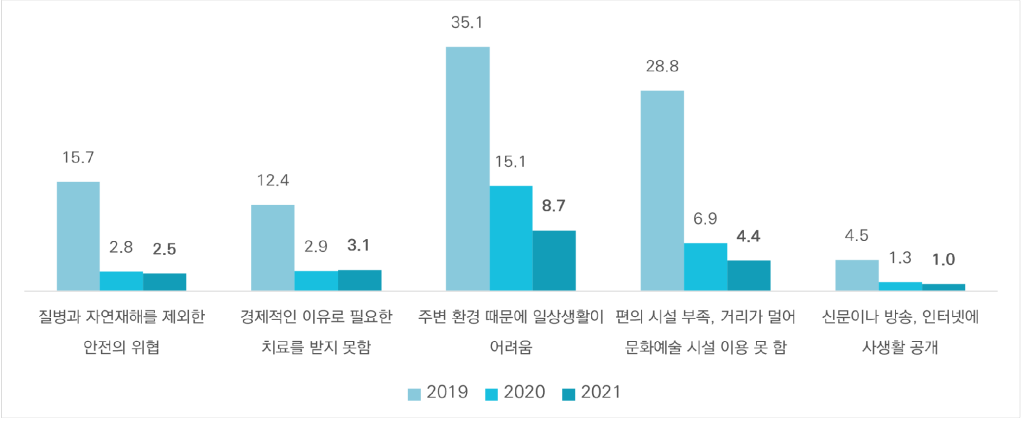
구분	없음	폭행이나 모욕적 언행	정치적 의사표현 제지, 방해, 비난, 처벌	종교 선택이나 활동의 자유 제한	단체 결성이나 가입의 자유 제한	집회나 시위의 자유 제한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 강요
농림생산직	91.4	2.9	2.9	1.3	1.5	1.4	1.6
비경제활동인구	92.4	3.1	3.3	1.5	1.6	1.1	1.4
종교							
없음	90.7	3.3	4.1	1.8	2.2	1.4	1.6
있음	89.6	3.1	3.3	3.1	1.9	1.6	1.6
정치성향							
보수	88.6	3.9	4.4	2.5	2.0	2.2	2.2
중도	90.7	3.1	4.1	2.0	2.1	1.4	1.8
진보	87.6	3.3	5.2	3.6	2.8	1.8	1.5
무관심	92.3	3.0	2.3	1.8	1.9	0.9	1.2
국가 목표							
물질주의	88.4	4.2	5.2	2.2	2.4	2.2	2.1
탈물질주의	90.5	2.2	3.1	2.4	2.3	1.3	1.6
혼합형	91.3	2.8	3.1	2.3	1.9	1.0	1.4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익 중요	86.6	5.2	5.8	3.6	3.1	1.6	1.7
개인 이익 중요	86.0	5.6	7.0	3.6	2.8	2.3	2.0
둘 다 중요	91.5	2.6	3.0	1.9	1.9	1.3	1.6

(2)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

전반적으로 시민, 정치적 권리에 비해 침해 경험 비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환경권의 침해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8.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문화권으로 4.4%가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2019년 및 2020년에 비해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림 3-54]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별 침해 경험의 비율 추이

(단위 : %)



[그림 3-55]는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 중 하나라도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배경 요인별로 비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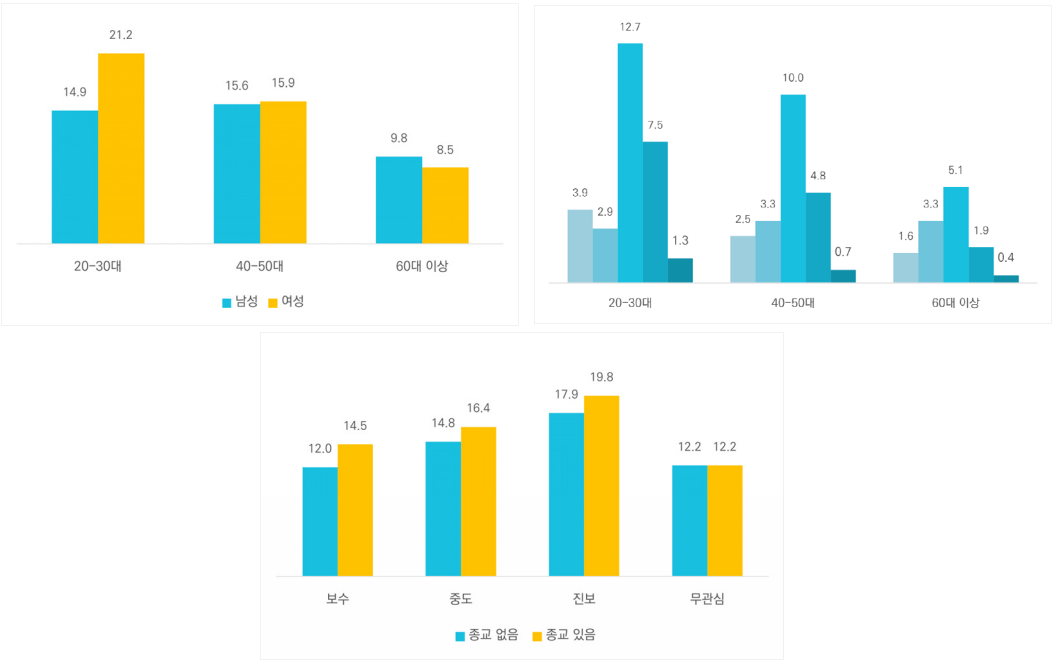
인구학적 배경을 보면 시민, 정치적 권리에서 남성이 더 침해 경험 비율이 높았던 것과 달리 20대 여성의 침해 경험 비율이 21.2%로 큰 차이를 보이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성이 20-30대와 40-50대가 큰 차이가 없고, 60대 이상에서 침해 경험 비율이 낮아진 반면, 여성은 연령대별 차이가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 비율을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관리전문직의 침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학력별로는 대학교 재학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더 높은 침해 경험 비율을 보인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대학교 재학 이상에 비해 직업군별 침해 경험 비율의 차이가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

의식적 배경에 따라 비교하면, 보수에서 진보로 갈수록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 침해의 경험 비율이 높으며, 종교를 가진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침해 경험 비율이 높다. 정치적 무관심층에서는 종교 유무에 따른 차이가 없다.

[그림 3-55]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 침해 경험 비율의 배경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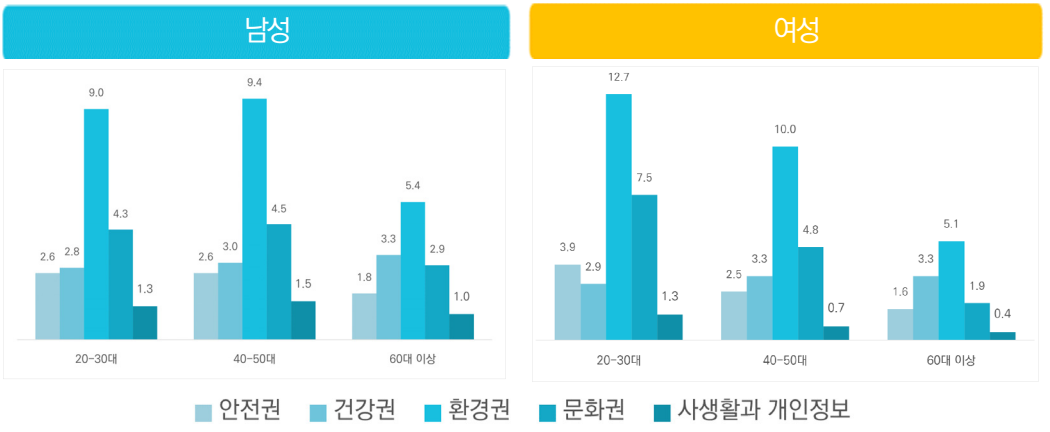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3-56]은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별로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침해 경험 비율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준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침해 경험 비율이 높다. 특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환경권과 문화권이다. 환경권과 문화권의 침해 비율은 여성 내 연령대별 차이 또한 크게 나타난다. 20-30대 여성의 환경권과 문화권에 대한 침해 경험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56]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 침해 경험 비율의 인구학적 배경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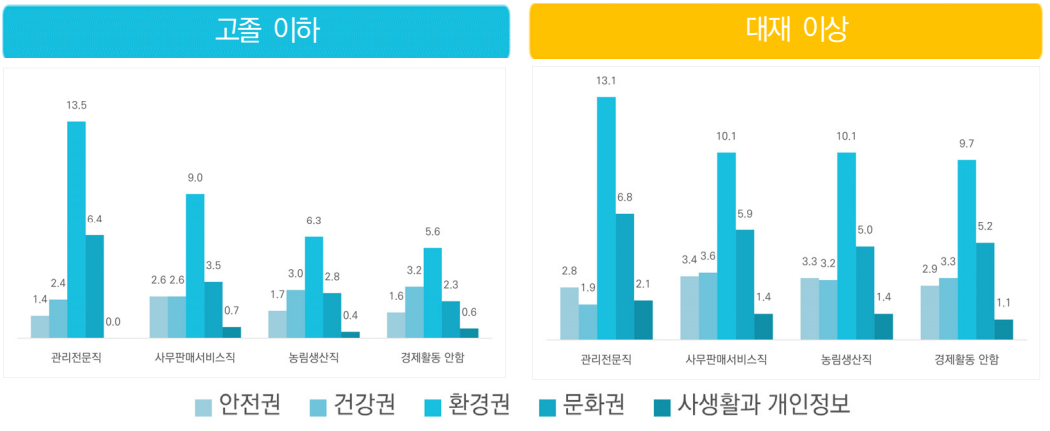
(단위 : %)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대학교 재학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침해 경험 비율이 높고, 침해 경험 비율이 높은 환경권과 문화권에 대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직업군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57]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 침해 경험 비율의 사회경제적 배경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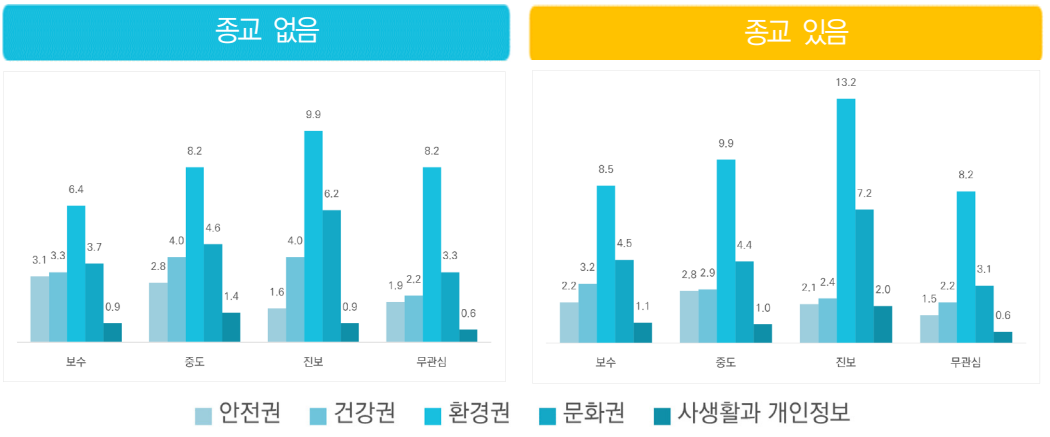
(단위 : %)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별로 침해 경험 응답 비율이 종교와 정치 성향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준다. 종교를 가진 집단이 종교가 없는 집단에 비해 침해 경험 비율이 높은 편이며, 특히 환경권 침해 경험에서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는 종교별 차이 외에 정치 성향별로도 차이가 커서 보수에서 진보로 갈수록 침해 경험 비율이 높으며, 특히 종교를 가진 경우에 차이는 더 크다.

[그림 3-58]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 침해 경험 비율의 의식적 배경별 비교

(단위 : %)



〈표 3-27〉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별 침해 경험 비율

(단위: %)

구분	없음	안전권	건강권	환경권	문화권	사생활과 개인정보
전체	85.4	2.5	3.1	8.7	4.4	1.0
성별						
남자	86.2	2.4	3.0	8.2	4.0	1.3
여자	84.7	2.7	3.2	9.3	4.7	0.8
연령						
20-30대	82.1	3.2	2.8	10.8	5.8	1.3
40-50대	84.3	2.5	3.1	9.7	4.6	1.1
60대 이상	90.9	1.7	3.3	5.2	2.3	0.6
학력						
고졸 이하	88.8	1.9	3.0	6.9	2.9	0.6
대재 이상	82.2	3.1	3.2	10.6	5.8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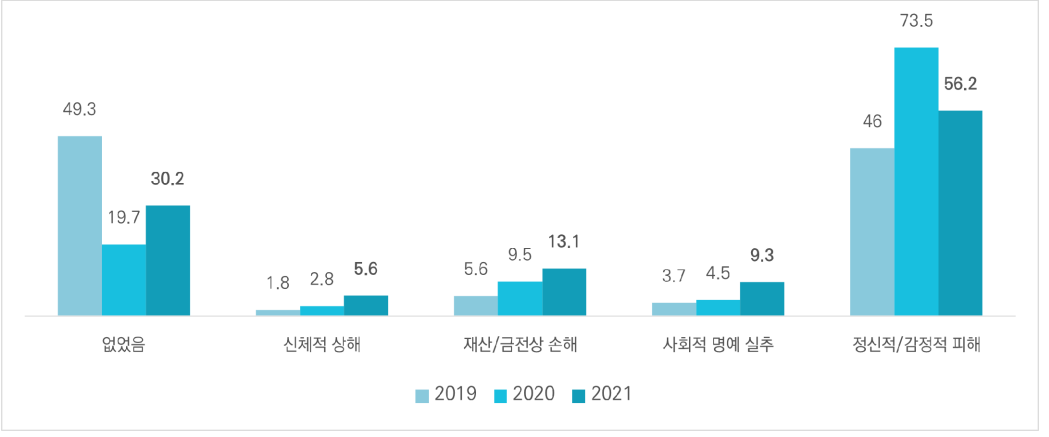
구분	없음	안전권	건강권	환경권	문화권	사생활과 개인정보
직업						
관리전문직	77.8	2.6	1.9	13.1	6.8	1.9
사무판매서비스	84.1	3.1	3.3	9.7	5.1	1.1
농림생산직	87.9	2.1	3.0	7.2	3.4	0.7
비경제활동인구	87.8	2.1	3.3	7.2	3.5	0.8
종교						
없음	86.0	2.7	3.3	8.2	4.3	1.0
있음	84.6	2.2	2.7	9.7	4.5	1.1
정치 성향						
보수	86.8	2.7	3.3	7.4	4.1	1.0
중도	84.6	2.8	3.6	8.8	4.5	1.3
진보	81.4	3.0	3.4	11.2	6.6	1.3
무관심	87.8	1.8	2.2	8.2	3.2	0.6
국가 목표						
물질주의	84.6	2.9	4.8	8.3	4.7	1.3
탈물질주의	82.9	3.1	2.4	10.1	5.8	0.8
혼합형	86.3	2.2	2.2	8.8	4.0	0.9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익 중요	82.4	3.9	6.3	10.8	3.7	1.1
개인 이익 중요	83.3	3.7	5.5	9.1	5.7	1.5
둘 다 중요	86.3	2.1	2.2	8.4	4.3	0.9

(4)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나 불이익

[그림 3-59]는 시민, 정치적 권리 혹은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의해 어떤 피해나 불이익을 당했는지 침해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의 응답 비율이다.

[그림 3-59]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나 불이익의 추이

(단위 : %)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정신적, 감정적 피해로 인권침해 경험자의 56.2%가 응답했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피해나 불이익이 없었다는 응답으로 30.2%이며, 재산, 금전상 손해가 13.1%, 명예 실추가 9.3%, 그리고 신체 상해가 5.6%의 순이었다. 피해가 없다는 응답은 2019년에 비해 줄었지만 2020년에 비해 늘었으며, 정신적, 감정적 피해는 2019년에 비해 늘었지만 2020년에 비해 줄었다. 다른 피해나 불이익 비율은 모두 2019년과 2020년에 비해 늘었다.

〈표 3-28〉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나 불이익 응답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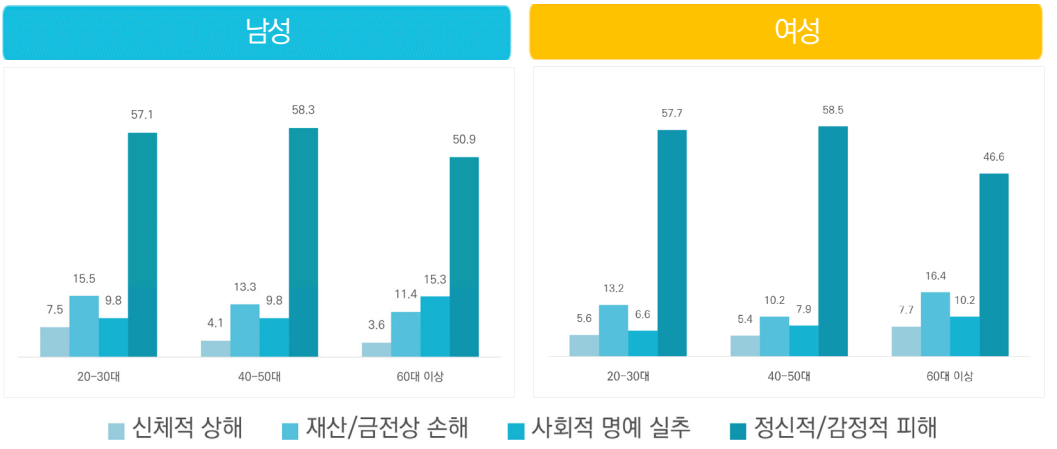
구분	없었음	신체적 상해	재산/금전상 손해	사회적 명예 실추	정신적/감정적 피해	기타
전체	30.2	5.6	13.1	9.3	56.2	1.3
성별						
남자	29.8	5.3	13.7	10.9	56.4	0.9
여자	30.6	5.9	12.6	7.8	56.0	1.7
연령						
20-30대	27.4	6.5	14.2	8.1	57.5	1.6
40-50대	30.3	4.7	11.7	8.8	58.4	1.4
60대 이상	35.9	5.7	14.0	12.7	48.8	0.4

구분	없었음	신체적 상해	재산/금전상 손해	사회적 명예 실추	정신적/감정적 피해	기타
학력						
고졸 이하	37.5	4.8	11.9	7.2	50.4	1.1
대재 이상	25.4	6.2	14.0	10.6	60.1	1.5
직업						
관리전문직	22.5	6.8	9.9	9.1	62.3	2.2
사무판매서비스	30.5	5.1	13.5	10.3	55.6	1.2
농림생산직	32.4	2.3	13.5	5.2	55.6	0.6
비경제활동인구	32.7	7.3	14.1	10.1	54.2	1.3
종교						
없음	31.3	6.0	14.7	9.7	54.5	1.1
있음	28.6	5.0	10.8	8.6	58.7	1.6
정치 성향						
보수	34.1	6.3	10.0	10.6	54.8	1.1
중도	27.3	7.1	15.7	11.3	56.7	1.6
진보	27.8	3.8	12.2	9.2	59.1	1.5
무관심	33.4	4.5	12.6	5.6	54.2	0.9
국가 목표						
물질주의	29.5	8.5	16.4	13.0	56.1	1.2
탈물질주의	29.3	3.7	10.6	4.3	58.6	1.8
혼합형	30.8	3.9	11.3	7.5	55.9	1.3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익 중요	36.3	7.9	14.0	11.9	43.6	1.1
개인 이익 중요	27.5	7.6	14.5	11.9	59.1	0.6
둘 다 중요	29.6	4.7	12.7	8.2	58.1	1.5

[그림 3-60]은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나 불이익의 응답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정신적, 감정적 피해에서는 남녀 모두 60대 이상이 이하에 비해 응답 비율이 적다. 신체적 상해와 재산, 금전상 손해는 남성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응답 비율이 높다. 사회적 명예의 실추는 남녀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응답 비율이 높다.

[그림 3-60]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나 불이익 응답 비율의 인구학적 배경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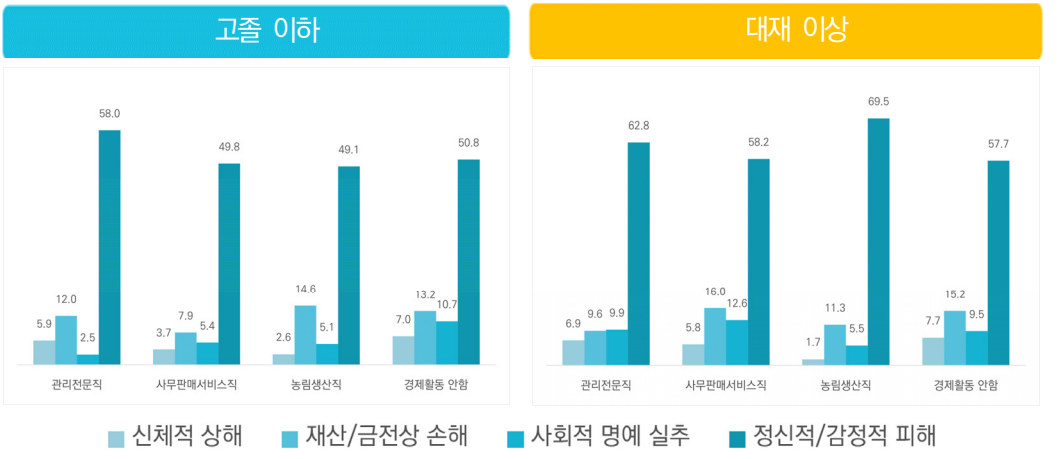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3-61]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나 불이익의 응답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정신적, 감정적 피해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은 관리전문직인 반면, 대학교 재학 이상에서는 관리전문직도 높지만 농림생산직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림 3-61]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나 불이익 응답 비율의 사회경제적 배경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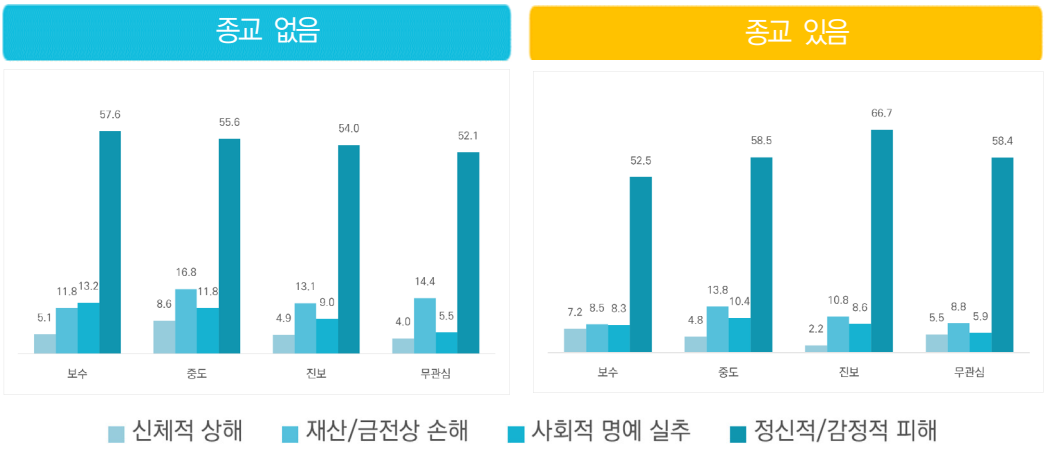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3-62]는 의식적 배경에 따라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나 불이익의 응답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종교 없는 집단에서는 보수 성향의 사회적 명예 실추와 정신적, 감정적 피해가 두드러지며, 종교를 가진 집단에서는 진보 성향의 정신적, 감정적 피해 비율이 두드러진다.

[그림 3-62]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나 불이익 응답 비율의 의식적 배경별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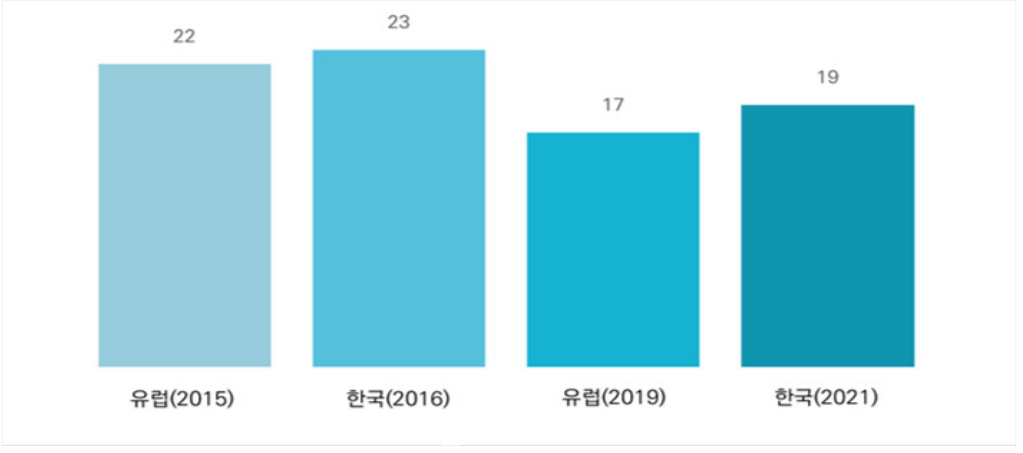
4) 차별의 경험

(1) 차별 경험에 대한 국제 비교

2019년 유럽통계기구(European Commission)의 유로바로미터 조사[4] 결과에 따르면 유럽에서 지난 1년간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2021년 인권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지난 1년간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9%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럽의 2015년 조사 결과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이 22%, 한국의 2016년 조사 결과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이 23%였던 것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그림 3-63] 유럽과 한국의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의 변화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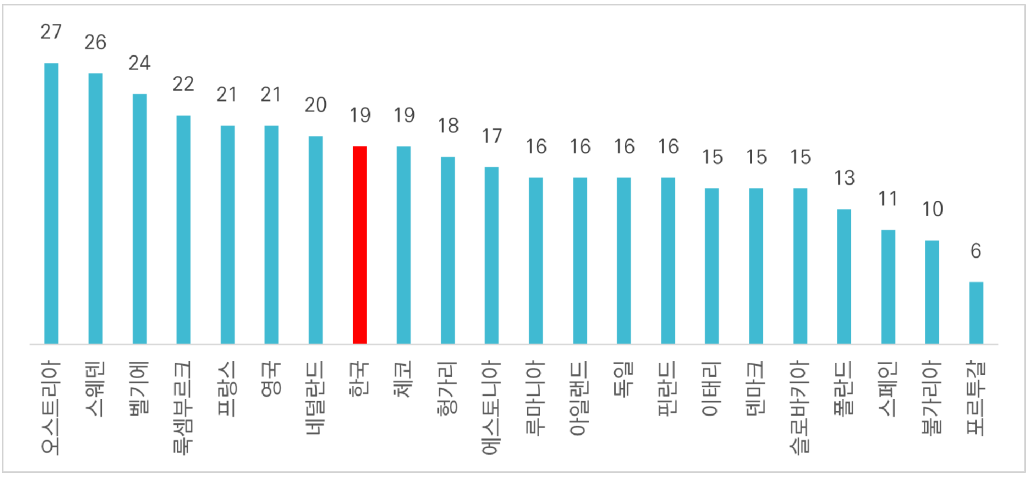
출처: European Commission(2019), 「Special Eurobarometer Report 493」. p. 150. 및 국가인권위원회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

국가별로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을 비교하면 유로바로미터 2019년 조사에서 1년간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오스트리아(27%), 스웨덴 (26%), 벨기에(24%), 룩셈부르크(22%), 프랑스(21%), 영국(21%), 네덜란드(20%)보다 한국(19%)이 낮으며, 독일(16%), 핀란드(16%), 이태리(15%), 덴마크(15%), 스페인(11%), 벨기에(10%), 포르투갈(6%) 보다 높다.

4) European Commission(2019), 「Special Eurobarometer Report 493: Discrimination in the European Union」.

[그림 3-64]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의 유럽 국가별 한국과의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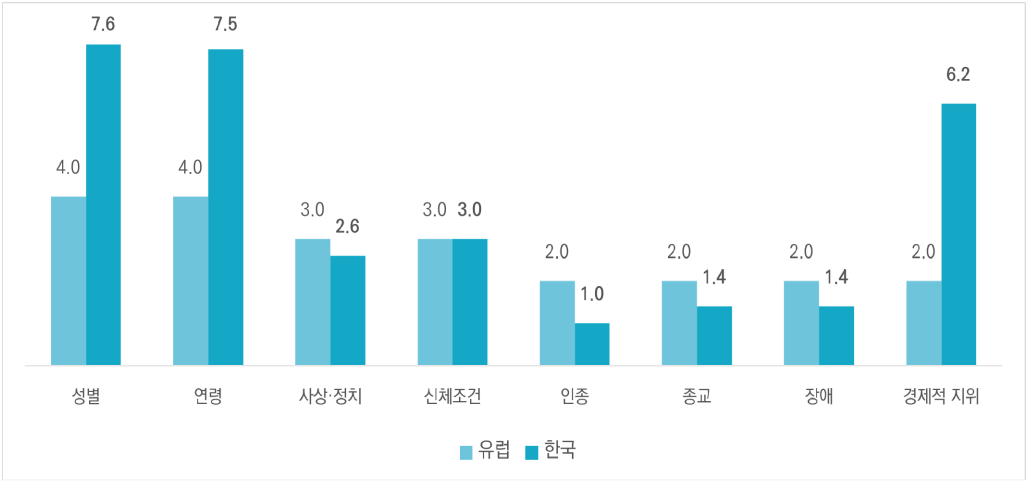


출처: European Commission(2019), 「Special Eurobarometer Report 493」. p. 150. 및 국가인권위원회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

차별 이유별 경험의 응답 비율을 비교하면 유럽 평균에 비해 한국은 성별, 연령,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의 경험이 더 많은 반면, 사상과 정치, 인종, 종교, 장애에 따른 차별 경험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5] 차별 이유별 경험 응답 비율의 유럽 국가별 한국과의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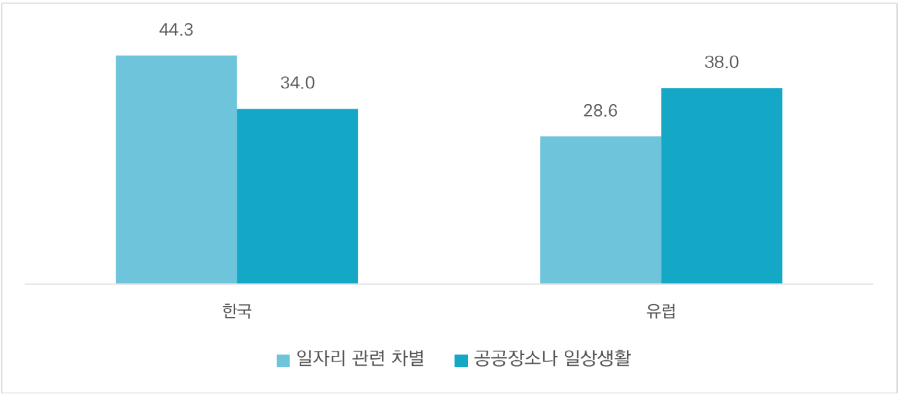


출처: European Commission(2019), 「Special Eurobarometer Report 493」. p. 150. 및 국가인권위원회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어떤 상황에서 경험했는지에 대해 한국은 일자리 관련 차별(44.3%)이 더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반면, 유럽에서는 일상생활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차별(38%)이 더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6] 차별을 경험한 경우 차별을 당한 상황의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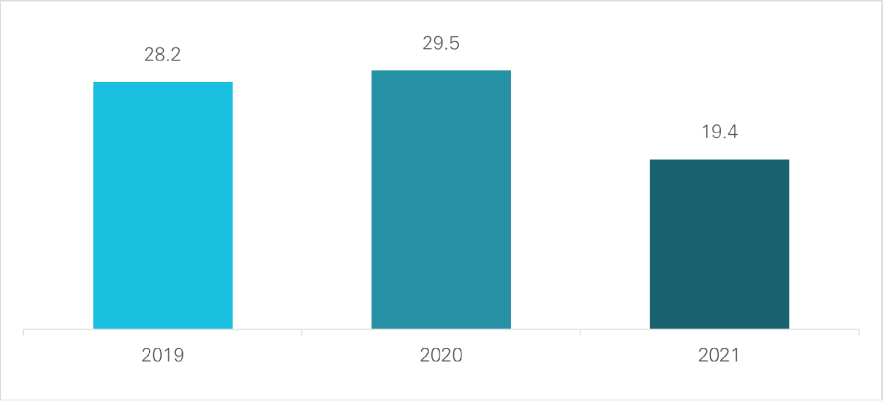
출처: European Commission(2019), 「Special Eurobarometer Report 493」. p. 150. 및 국가인권위원회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

(2) 차별 경험 비율 및 사유별 차별 경험

어떤 사유에서든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9년의 28.2%와 2020년의 29.5%에 비해 2021년에는 19.4%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줄어들었다.

[그림 3-67] 차별 경험 비율의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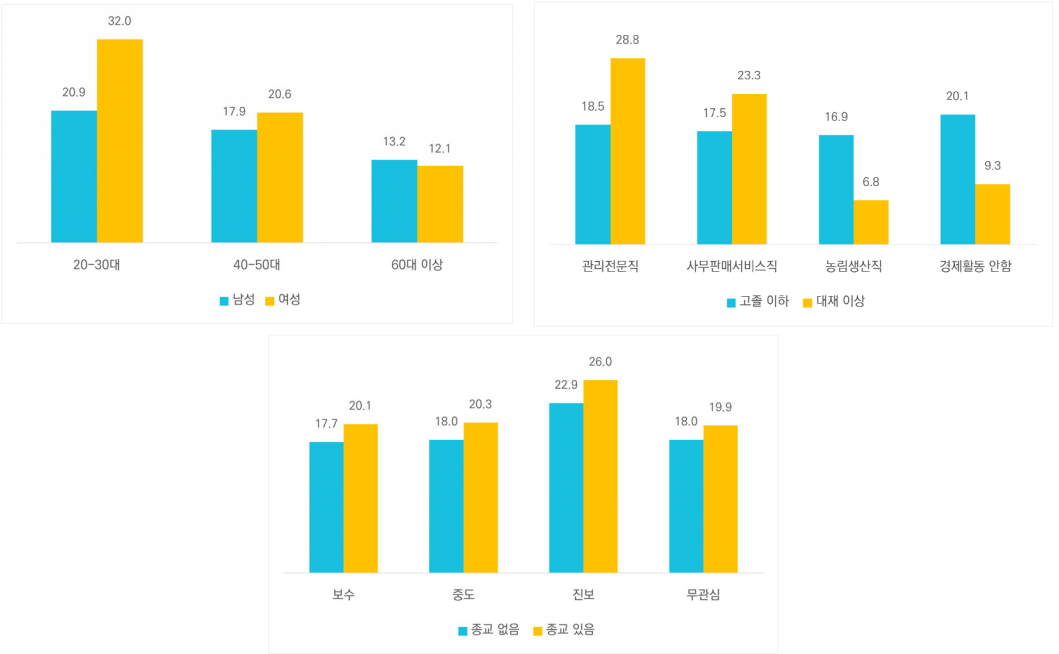
[그림 3-68]은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배경별로 비교한 것이다. 차별 경험에 대한 인구학적 배경 요인별 비교를 보면, 20-30대 여성은 32%가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서 전체 평균 19.2% 및 20-30대 남성 20.9%의 1.5배 이상이다. 남녀 모두 연령대가 낮을수록 차별 경험의 응답 비율이 높지만, 연령대별 차이는 여성이 훨씬 크다.

사회경제적 배경별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을 보면 대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에서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대재 이상에서 직업군별 차이도 크다. 대학교 재학 이상의 관리, 전문직 종사자는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이 28.8%로 가장 높고 다음은 사무, 판매, 서비스직 종사자로 23.3%이다.

의식적 배경별 비교를 보면 전반적으로 종교를 가질수록, 이념지향이 진보에 가까울수록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이 높다. 종교를 가진 진보는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이 26%로 가장 높다. 무관심층은 중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그림 3-68] 차별 경험 비율의 배경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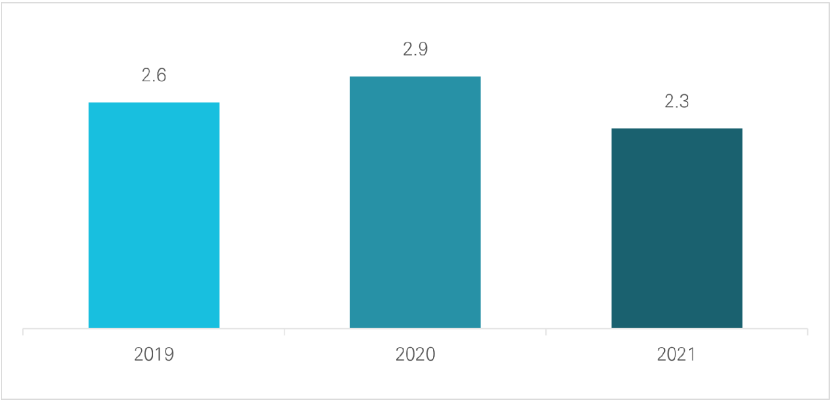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3-69]는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차별을 당한 사유의 평균 개수를 연도별로 나타낸다. 2019년의 2.6개, 2020년의 2.9개에 비해 2021년에는 2.3개로 차별 사유의 개수가 다소 감소하였다. 차별 경험의 비율과 함께 차별을 당한 사유의 개수도 감소한 것이다.

[그림 3-69] 차별 경험 응답자의 평균 차별 사유수의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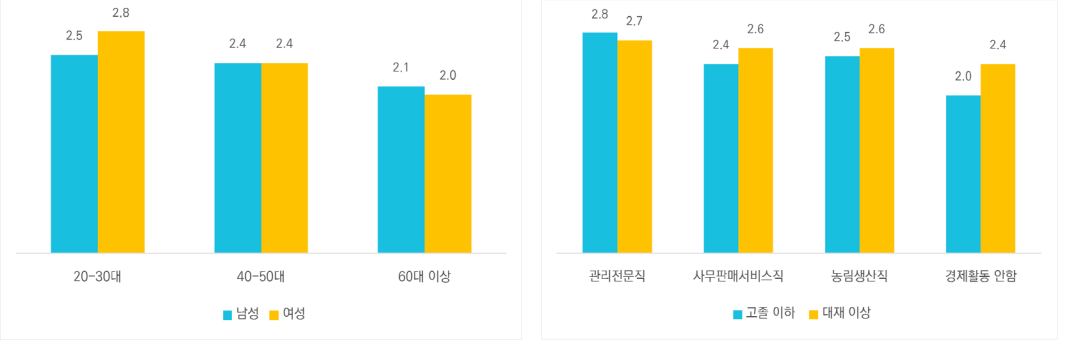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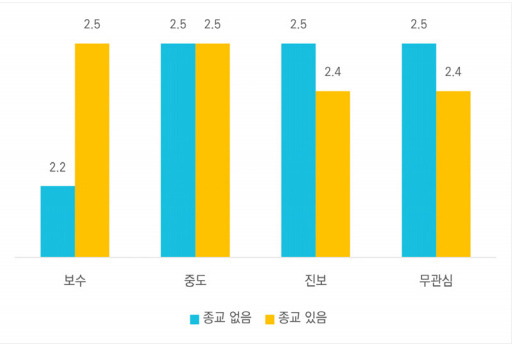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 차별 사유수에 대한 인구학적 배경 요인별 비교를 보면 20-30대 여성이 평균 2.8개로 평균 차별 사유수가 가장 많다. 20-30대 여성은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을 뿐 아니라 다양한 사유로 차별을 받는다고 응답한 것이다. 남녀 간 차이를 20-30대를 제외하면 크지 않고,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평균 차별 사유의 수가 적다.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별 비교를 보면 학력별 비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직업군별로 비교하면 관리, 전문직이 학력과 상 없이 평균 차별 사유수가 가장 많다. 의식별 배경 요인별 비교를 보면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림 3-70] 차별 경험 응답자의 평균 차별 사유수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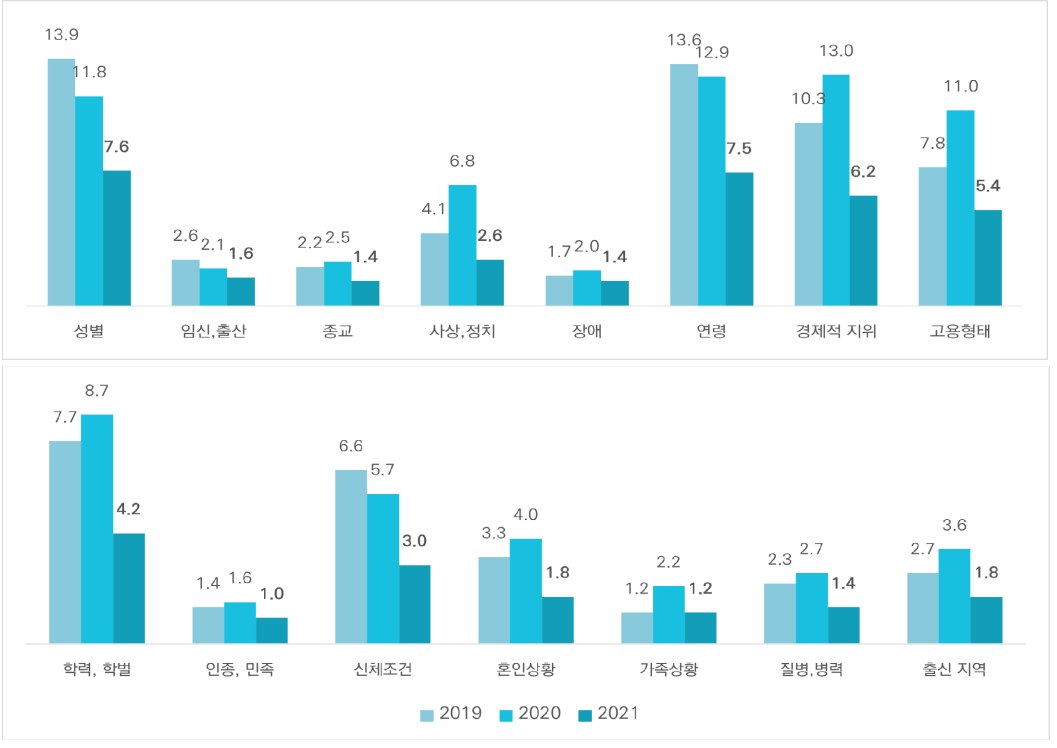




[그림 3-71]은 차별 사유별로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의 추이를 보여준다. 가장 차별 경험 응답이 높은 것은 7.6%의 남녀 차별이며, 다음은 7.5%의 연령 차별, 6.2%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이다. 전반적으로 2020년에 비해 많게는 절반, 적게는 2/3 정도로 차별 경험 비율이 줄었다.

[그림 3-71] 차별 사유별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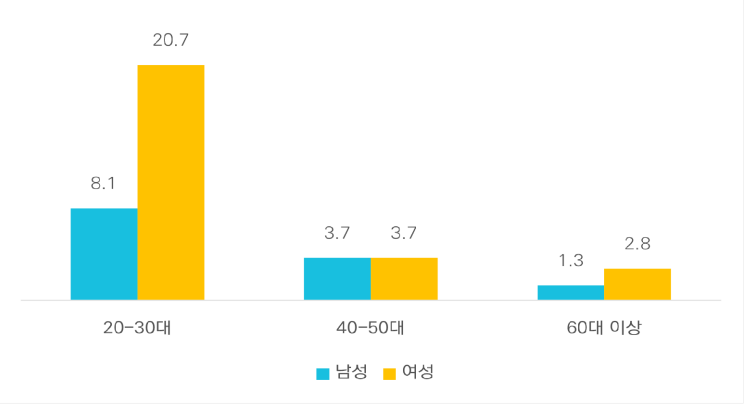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3-72]는 남녀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을 성별, 연령대별로 비교한 것이다. 20-30대 여성의 20.7%가 남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해서 다른 성별, 연령대별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다. 주목할 점은 20-30대 남성도 같은 연령대 여성에 비해서는 크게 낮지만 8.1%가 남녀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림 3-72] 남녀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의 인구학적 배경별 비교

(단위 : %)



〈표 3-29〉 남녀 차별 경험의 인구학적 배경 요인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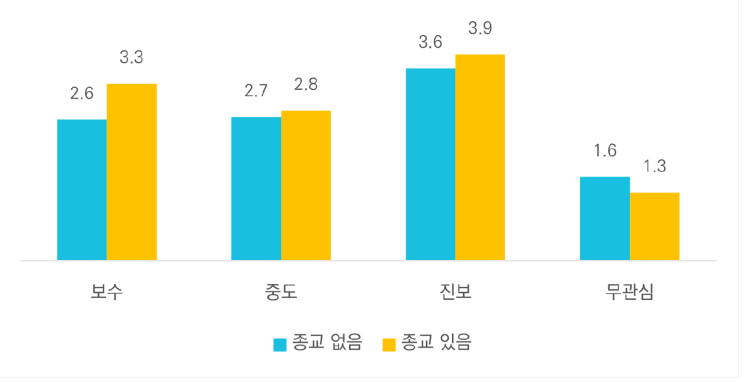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없다(해당 없음)	있다	X^2(df)
전체	92.4	7.6	
성별			
남자	95.4	4.6	212.892(1)***
여자	89.6	10.4	
연령			
20-30대	85.8	14.2	597.706(2)***
40-50대	94.0	6.0	
60대 이상	97.9	2.1	

[그림 3-73]은 사상, 정치적 입장 때문에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의 의식적 배경별 비교 결과다. 종교를 가진 사람일수록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이 높았다. 또한 의식적 배경 요인별로는 진보에서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정치적 무관심층이다.

[그림 3-73] 사상, 정치적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의 의식적 배경별 비교

(단위 : %)



〈표 3-30〉 사상, 정치적 차별 경험의 의식적 배경 요인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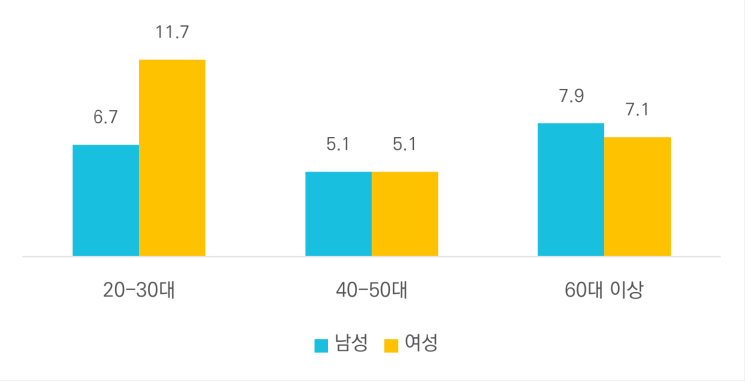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없다(해당 없음)	있다	X^2(df)
전체	97.4	2.6	
종교			
없음	97.5	2.5	0.920(1)
있음	97.3	2.7	
정치 성향			
보수	97.0	3.0	
중도	97.3	2.7	43.534(3)***
진보	96.3	3.7	
무관심	98.5	1.5	

[그림 3-74]는 연령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를 보여준다. 20-30대 여성의 11.7%가 연령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해서 다른 성별, 연령대별 집단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며 높다. 한편 남녀 모두 연령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50대가 가장 낮았다. 남성의 경우 60대 이상이 20-30대보다 연령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 차별이 청년과 노인에 모두 해당되는 문제임을 보여준다.

[그림 3-74] 연령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의 인구학적 배경별 비교

(단위 : %)



〈표 3-31〉 연령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의 인구학적 배경 요인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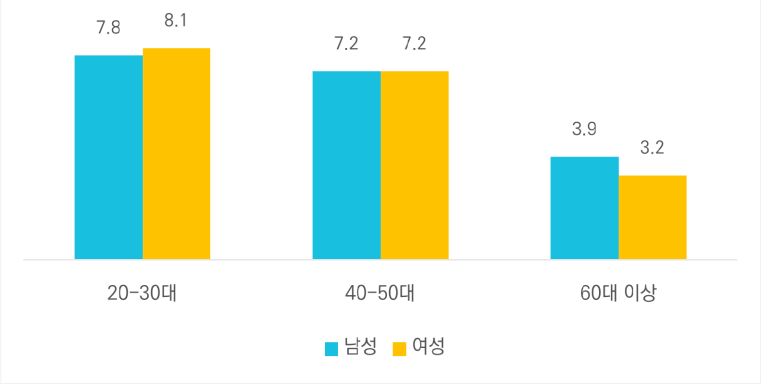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없다(해당 없음)	있다	X²(df)
전체	92.5	7.5	
성별			
남자	93.6	6.4	33.455(1)***
여자	91.3	8.7	
연령			
20-30대	90.9	9.1	36.548(2)***
40-50대	93.8	6.2	
60대 이상	92.5	7.5	

[그림 3-75]는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 경험의 응답 비율을 성별, 연령대별로 비교한 것이다. 20-30대 여성의 8.1%, 남성의 7.8%가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해서 다른 연령대, 특히 60대 이상에 비해 크게 높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으며 사회생활이 활발한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림 3-75]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의 인구학적 배경별 비교

(단위 : %)



〈표 3-32〉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의 인구학적 배경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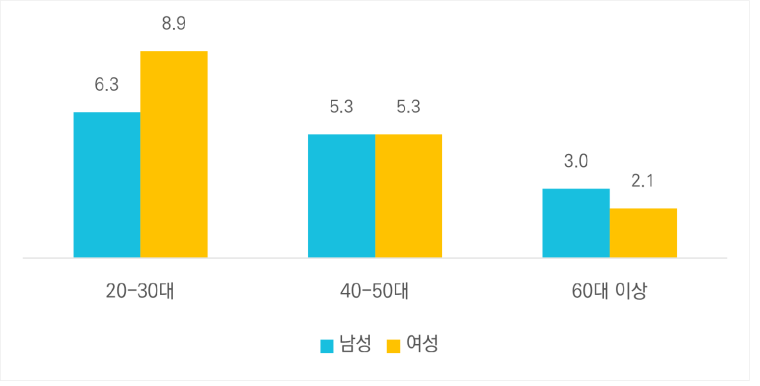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없다(해당 없음)	있다	X^2(df)
전체	93.8	6.2	
성별			
남자	93.4	6.6	4.287(1)*
여자	94.2	5.8	
연령			
20-30대	92.1	7.9	92.939(2)***
40-50대	93.4	6.6	
60대 이상	96.5	3.5	

[그림 3-76]은 고용상 지위에 따른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이다. 20-30대 여성의 8.9%가 고용상 지위에 따른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해서 20-30대 남성의 6.3%보다 크게 높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고용상 지위에 따른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이 낮아지며, 여성의 연령대별 차이가 더 크다.

[그림 3-76] 고용상 지위에 따른 차별 경험의 인구학적 배경별 비교

(단위 : %)



〈표 3-33〉 고용상 지위에 따른 차별 경험의 인구학적 배경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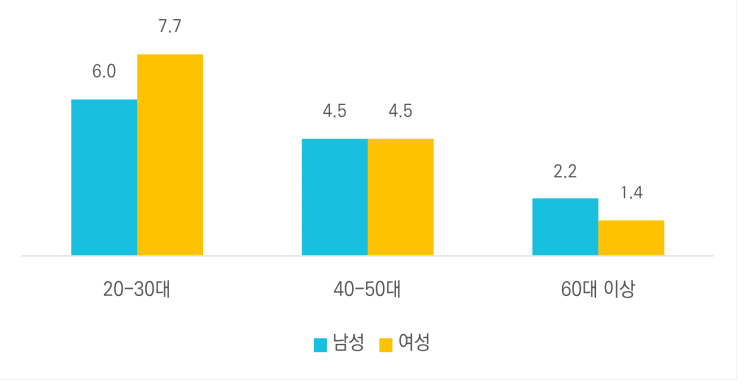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없다(해당 없음)	있다	X^2(df)
전체	94.6	5.4	
성별			
남자	95.0	5.0	3.944(1)*
여자	94.3	5.7	
연령			
20-30대	92.5	7.5	133.479(2)***
40-50대	94.3	5.7	
60대 이상	97.5	2.5	

[그림 3-77]은 학력에 따른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이다. 20-30대 여성의 7.7%가 학력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해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20-30대 남성의 경우 6%였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학력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여성에서 그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그림 3-77] 학력에 따른 차별 경험의 인구학적 배경별 비교

(단위 : %)



〈표 3-34〉 학력에 따른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의 인구학적 배경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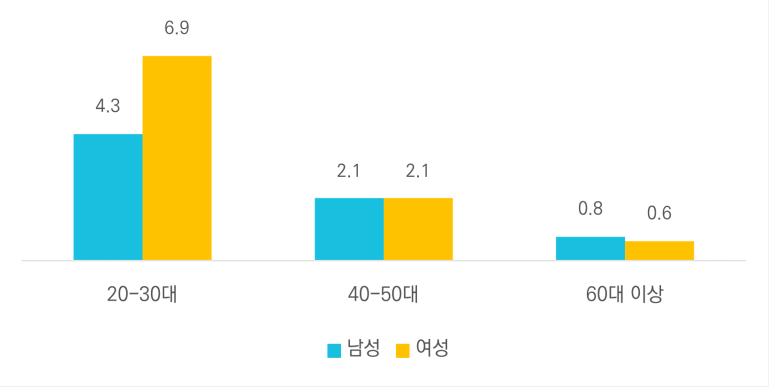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없다(해당 없음)	있다	X^2(df)
전체	95.8	4.2	
성별			
남자	95.6	4.4	1.496(1)
여자	96.0	4.0	
연령			
20-30대	93.2	6.8	176.605(2)***
40-50대	96.1	3.9	
60대 이상	98.3	1.7	
학력			
고졸 이하	96.5	3.5	22.630(1)***
대재 이상	95.1	4.9	

[그림 3-78]은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경험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이다. 20-30대 여성이 6.9%가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20-30대 남성의 경우 4.3%였다. 연령대가 젊을수록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별 차이는 여성에서 더 크다.

[그림 3-78]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경험의 인구학적 배경별 비교

(단위 : %)



〈표 3-35〉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의 인구학적 배경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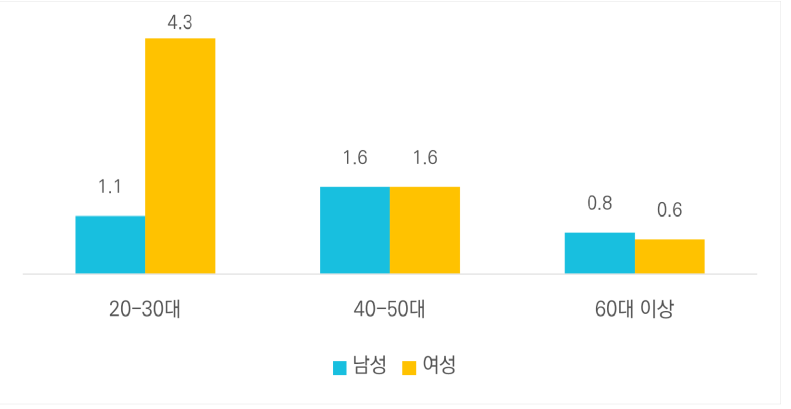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없다(해당 없음)	있다	X^2(df)
전체	97.0	3.0	
성별			
남자	97.5	2.5	13.093(1)***
여자	96.6	3.4	
연령			
20-30대	94.5	5.5	223.582(2)***
40-50대	97.5	2.5	
60대 이상	99.3	0.7	

[그림 3-79]는 혼인상황에 따른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성별, 연령대별 비교이다. 20-30대 여성의 4.3%가 혼인상황에 따른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해서 가장 높다. 20-30대 남성의 경우 1.1%로 40-50대 남성의 1.6%보다 낮다. 20-30대 여성을 제외한 다른 성별, 연령대 집단에서는 혼인상태에 따른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에 못미치는 반면 20-30대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그림 3-79] 혼인상황에 따른 차별 경험의 인구학적 배경별 비교

(단위 : %)



〈표 3-36〉 혼인상황에 따른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의 인구학적 배경별 비교

(단위: %)

구분	없다(해당 없음)	있다	X^2(df)
전체	98.2	1.8	
성별			
남자	98.8	1.2	38.438(1)***
여자	97.6	2.4	
연령			
20-30대	97.4	2.6	57.450(2)***
40-50대	98.0	2.0	
60대 이상	99.3	0.7	

⑵ 사유별 차별의 유형

〈표 3-37〉은 차별 사유별로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차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유형별 응답 비율을 보여준다. 가장 차별 경험이 많은 남녀 차별의 경우 채용이나 승진 등 일자리 관련된 차별이 4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폭행, 위협, 조롱 등 신체적, 언어적 폭력으로 36.3%였다. 또한 일상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차별을 당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28.6%였다.

남녀 차별 다음으로 경험이 많은 연령 차별의 경우도 채용이나 승진 등 일자리 관련된 차별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일상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차별을 당한다는 응답도 26.3%였다. 연령 차별에서는 특히 따돌림이나 배제를 당한다는 응답도 16%로 높은 편이었다.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차별의 유형은 채용이나 승진 등 일자리 관련된 차별로 성별이나 연령 외에도 고용형태(73.6%), 임신과 출산(73.6%), 학력과 학벌(70.3%), 경제적 지위(44.1%), 혼인상황(40.9%)에 따라 일자리 관련 차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로 인해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 일상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할 때(30.9%)나 따돌림과 배제를 당하는 경우(37.1%)가 많았다. 또한 장애 외에도 종교(50.6%)나 사상과 정치(41.2%)에 따라 따돌림과 배제를 당한다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표 3-37〉 차별 사유별 경험 유무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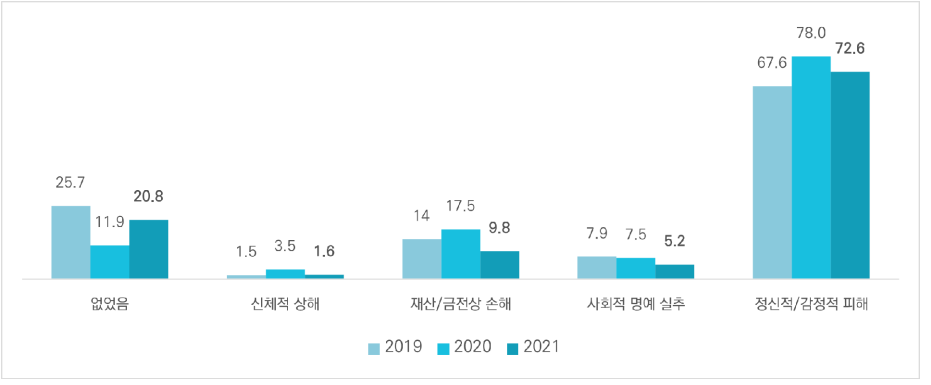
차별 이유	차별 경험	차별 유형			
	있다	폭행, 위협, 조롱 등 신체적/언어적 폭력	채용이나 승진 등 일자리 관련 차별	일상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당하는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성별	7.6	36.6	44.3	28.6	7.1
임신, 출산	1.6	14.4	73.6	15.9	7.6
종교	1.4	26.7	11.4	22.8	50.6
사상, 정치	2.6	36.5	19.6	14.5	41.2
장애	1.4	23.6	30.3	30.9	37.1
연령	7.5	14.9	52.8	26.3	16.0
경제적 지위	6.2	23.6	44.1	25.5	18.0
고용형태	5.4	13.5	73.6	10.6	11.1
학력, 학벌	4.2	9.9	70.3	10.7	17.2
인종, 민족	1.0	22.5	37.6	18.2	32.5
신체조건	3.0	38.2	28.6	20.1	23.9
혼인상황	1.8	26.6	40.9	15.7	26.9
가족상황	1.2	30.2	28.8	18.1	33.5
질병, 병력	1.4	16.3	38.0	24.6	32.2
출신지역	1.8	27.0	37.0	13.5	34.0

⑶ 차별에 따른 피해나 불이익

[그림 3-80]은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 어떤 피해나 불이익을 당했는지에 대한 응답 비율을 보여준다. 차별 경험이 있는 사람의 72.6%가 정신적, 감정적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해서 가장 많았다. 이것은 2020년의 78%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다음으로는 재산, 금전상 손해로 9.8%, 명예 실추 5.2%, 신체적 상해 1.6% 순이었다. 별다른 피해나 불이익이 없었다는 응답은 20.8%로 2020년에 비해 늘어났다.

[그림 3-80] 차별에 따른 피해나 불이익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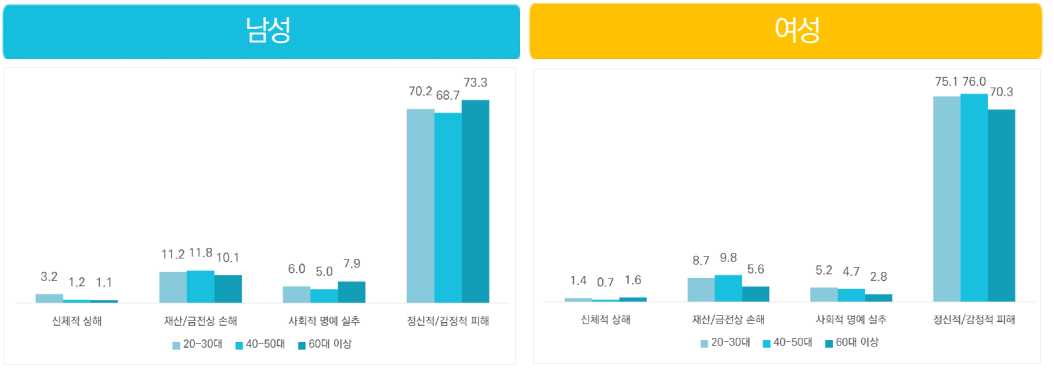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3-81]은 성별, 연령대별로 차별로 인한 피해나 불이익의 비율을 보여준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전반적으로 정신적, 감정적 피해 비율이 높지만 60대 이상 여성은 60대 이상 남성에 비해 낮다. 재산, 금전상 손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편이며, 사회적 명예 실추의 경우 남성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성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비율이 높다.

[그림 3-81] 차별 피해나 불이익 비율의 인구학적 배경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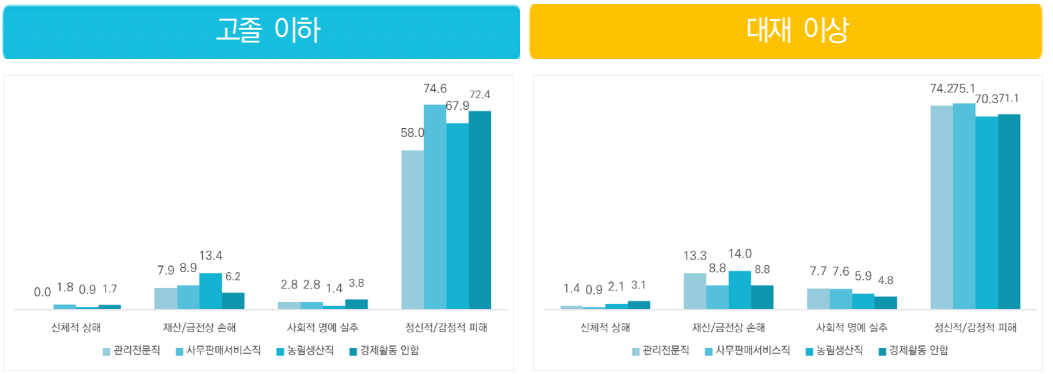
(단위: %)



[그림 3-82]는 학력별, 직업군별로 차별에 따른 피해나 불이익 비율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대학교 재학 이상에서 정신적, 감정적 피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재산이나 금전상의 손해 및 사회적 명예 실추 역시 마찬가지이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정신적, 감정적 피해의 직업군별 차이가 큰 편이어서 사무판매서비스직에서 비율이 높고 관리전문직에서 낮은 편이다.

[그림 3-82] 차별 피해나 불이익 비율의 사회경제적 배경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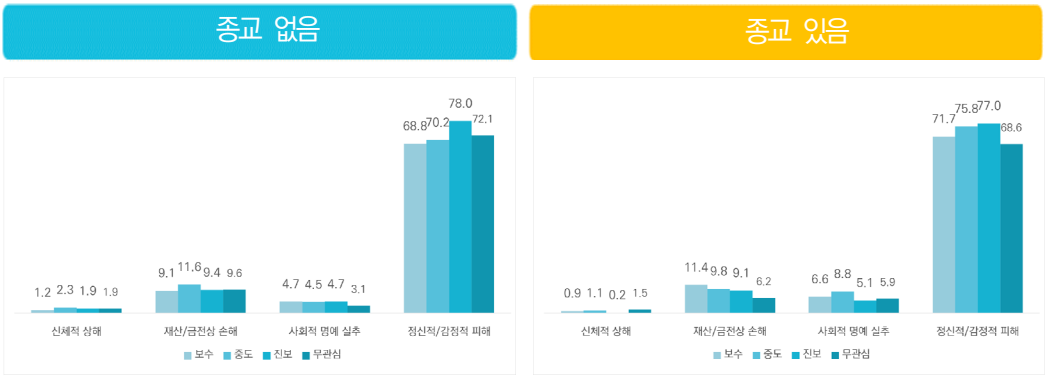
(단위: %)



[그림 3-83]은 종교, 이념 성향별로 차별에 따른 피해나 불이익 비율을 보여준다. 의식적 배경에 따른 차별의 피해나 불이익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3] 차별 피해나 불이익 비율의 의식적 배경별 비교

(단위: %)



〈표 3-38〉 배경 요인별 차별 피해나 불이익 비교

(단위: %)

구분	없었음	신체적 상해	재산/금전 손해	명예 실추	정신/감정적 피해	기타
전체	20.8	1.6	9.8	5.2	72.6	0.8
성별						
남자	22.2	2.0	11.2	6.0	70.2	0.8
여자	19.6	1.2	8.6	4.6	74.6	0.8
연령						
20-30대	20.1	2.2	9.8	5.5	73.0	1.1
40-50대	20.0	0.9	10.7	4.8	72.6	0.7
60대 이상	24.0	1.4	7.7	5.2	71.8	0.3
학력						
고졸 이하	23.1	1.5	9.1	2.8	71.2	0.6
대재 이상	19.2	1.6	10.2	6.8	73.6	1.0
직업						
관리전문직	19.6	1.3	12.8	7.3	72.9	1.0
사무판매서비스	18.8	1.1	8.8	6.2	75.0	0.6
농림생산직	23.4	1.3	13.5	2.7	68.6	1.3
비경제활동인구	22.4	2.4	7.4	4.3	71.8	0.7
종교						
없음	21.3	2.0	10.2	4.1	72.2	0.2
있음	19.9	0.9	9.1	6.8	73.3	1.7
정치 성향						
보수	23.9	1.0	10.3	5.7	70.3	1.3
중도	20.6	1.8	10.9	6.1	72.4	0.7
진보	15.8	1.2	9.3	4.9	77.6	0.3
무관심	22.5	1.8	8.4	4.1	70.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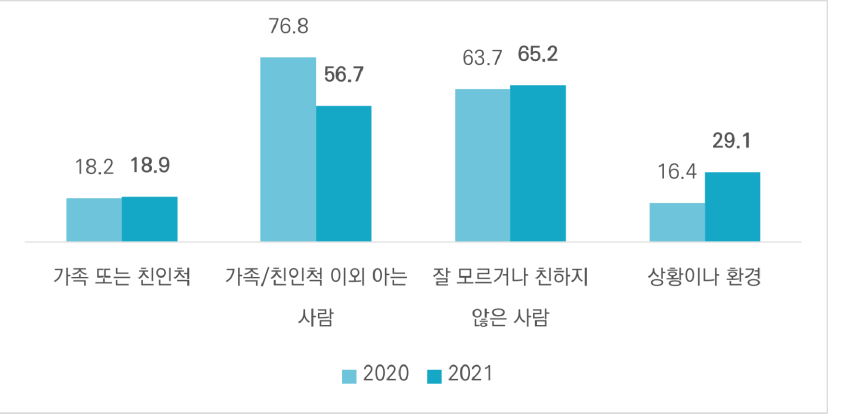
5) 인권침해, 차별의 가해자와 대응

(1) 인권침해나 차별의 가해자

[그림 3-84]는 인권침해나 차별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가해자가 본인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응답 비율의 추이를 보여준다. 가해자가 잘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응답이 6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가족,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으로 56.7%이다. 이러한 결과는 2020년과 차이를 보이는데 가족,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은 비율이 줄어든 반면, 잘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늘었다.

[그림 3-84] 인권침해나 차별의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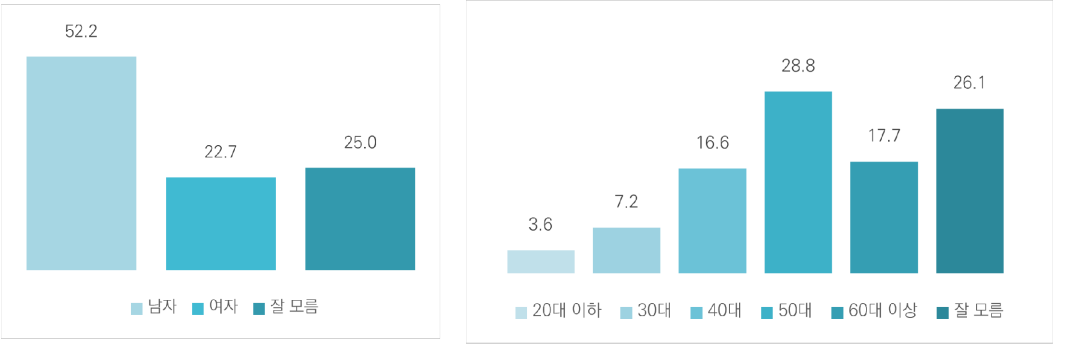


가해자와의 관계를 좀더 상세하게 나누어 비교하면 가해자와의 관계를 보다 상세하게 응답한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경우는 직장 상사나 상급자로 22.5%이며, 다음이 주변 생활환경으로 10.4%, 그리고 이웃, 동호회, 동창회 등 속한 집단의 사람이 10.1%이다. 중복응답을 고려하면 직장 상사나 상급자는 29%이며, 다음이 주변 생활환경으로 19.2%, 그리고 이웃, 동호회, 동창회 등 속한 집단의 사람이 16.1%이다.

[그림 3-85]는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 가해자의 성별과 연령대를 질문한 것에 대한 응답의 분포이다. 인권침해나 차별의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52.2%로 여성 22.7%의 두 배 이상이며, 연령대는 50대가 28.8%, 40대가 16.6%, 60대 이상이 17.7%로 5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10%p가 넘게 높다.

[그림 3-85] 인권침해나 차별 가해자의 성별, 연령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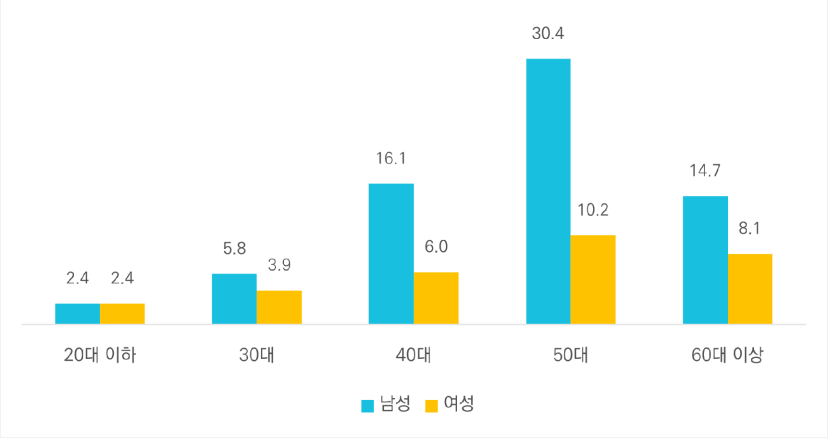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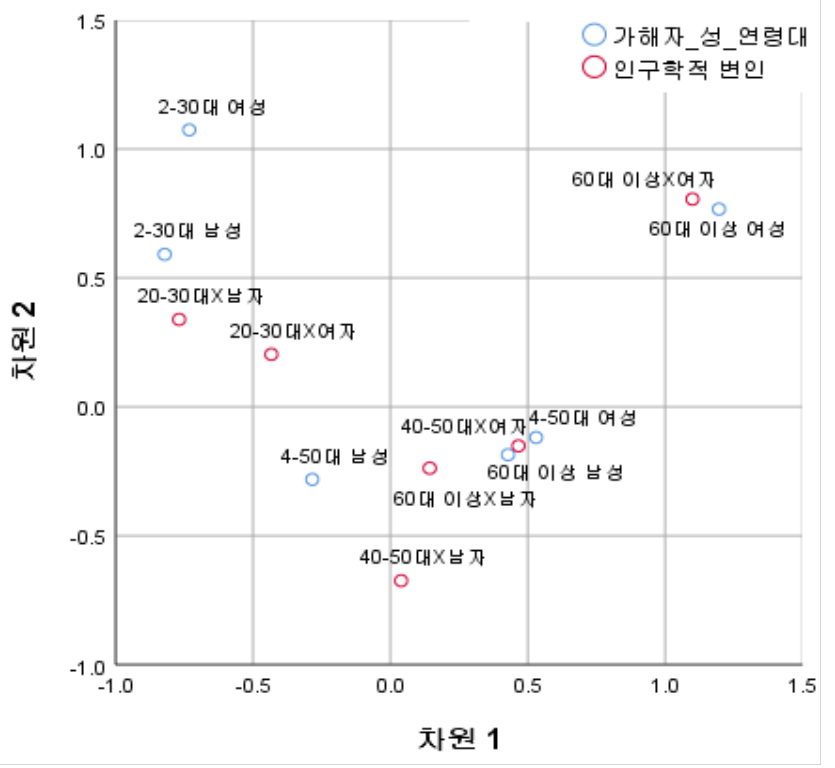
[그림 3-86]은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응답한 가해자의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보여준다. 전체 중에서 50대 남성이 30.4%를 차지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40대 남성 16.1%, 60대 이상 남성 14.7%, 50대 여성 10.2%의 순이다.

[그림 3-86] 인권침해나 차별 가해자의 성별, 연령대별 결합 분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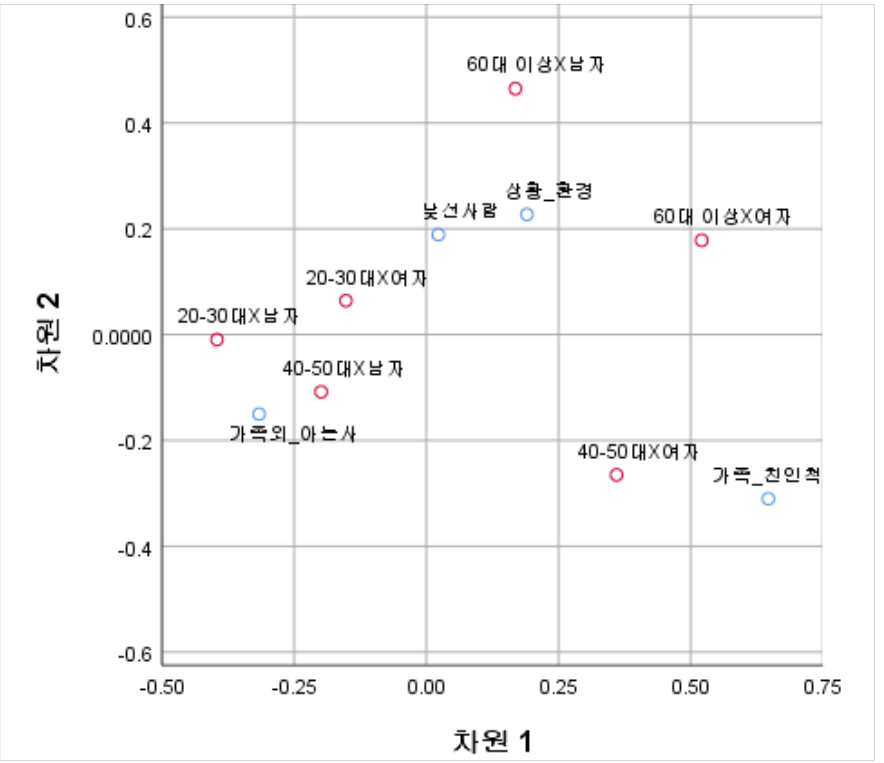


[그림 3-87] 인권침해, 차별 피해자와 가해자 인구학적 배경의 대응분석



[그림 3-87]은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인구학적 배경과 이들이 가해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인구학적 배경 간의 대응분석 결과이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붉은점은 응답자 특성을 파란점은 인권침해와 차별의 가해자로 선택한 대상을 나타낸다. 그래프 왼편 위에 20-30대 남성과 여성 응답자가 같은 연령대의 남성과 여성을, 또한 오른편 위에 60대 이상 여성 응답자가 같은 배경의 여성을 그리고 가운데 아래 부분에는 40-50대 여성과 남성, 그리고 60대 이상 남성 응답자들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함께 몰려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인권침해와 차별 피해자들이 인구학적으로 비슷한 특성을 지닌 가해자들에 의해 피해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그림 3-88] 인권침해, 차별 피해자 인구학적 배경과 가해자 관계의 대응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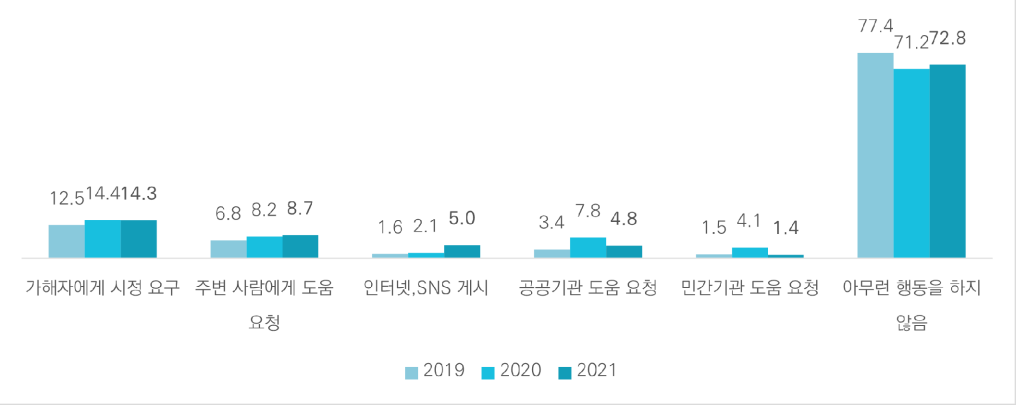


[그림 3-88]은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자의 인구학적 배경과 이들이 가해자와의 관계로 응답한 특성의 대응분석 결과이다. 그래프 왼편의 20-30대 남성과 여성, 40-50대 남성은 가해자로 가족 외 아는 사람과 밀접하다. 이는 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사와의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프 오른편 위에는 60대 이상 남성과 여성이 낯선 사람이나 상황 및 환경과 가깝다. 또한 오른편 아래에는 40-50대 여성이 가족이나 친인척과 가깝다. 이는 40-50대 여성이 직장생활 비율이 낮고, 그에 따라 가족이나 친인척 특히 남편에 의해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할 가능성이 높음을, 그리고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가족보다 일반적인 낯선 상황에서 인권침해나 차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89]는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대해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것에 대한 응답 비율의 연도별 추이이다.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2.8%로 가장 많다. 이것은 2019년보다 줄었지만, 2020년보다 늘었다. 가해자에게 시정을 요구한 경우는 14.3%였으며,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 경우가 8.7%, 인터넷이나 SNS에 게시한 경우가 5%,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각각 4.8%와 1.4%이다.

[그림 3-89]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대응 응답 비율의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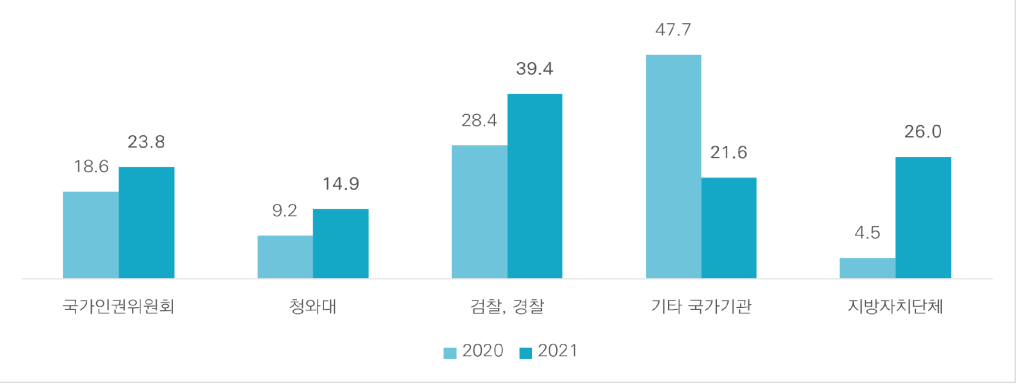
(단위 : %)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고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응답한 경우에 가장 많이 도음을 요청한 곳은 경찰이나 검찰로 39.4%이고,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26%,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23.8% 등의 순이다.

[그림 3-90]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 응답 비율의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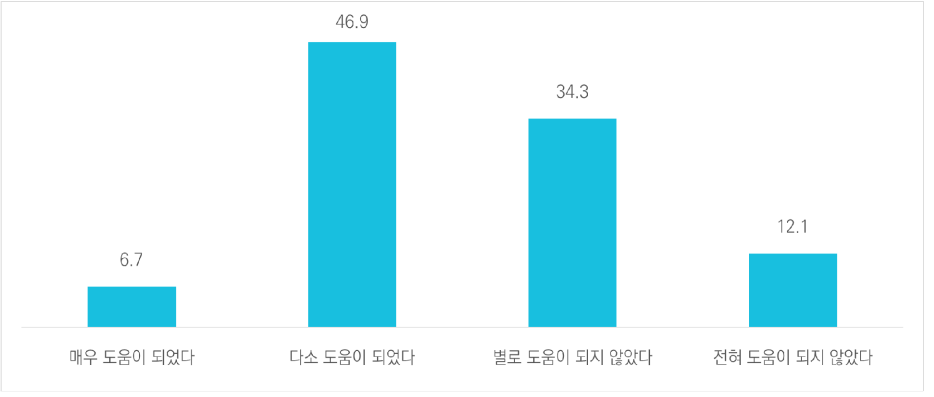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3-91]은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 도움이 되었는가를 물은 것에 대한 응답 분포이다.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3.6%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 46.4%에 비해 조금 더 높았다.

[그림 3-91]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의 결과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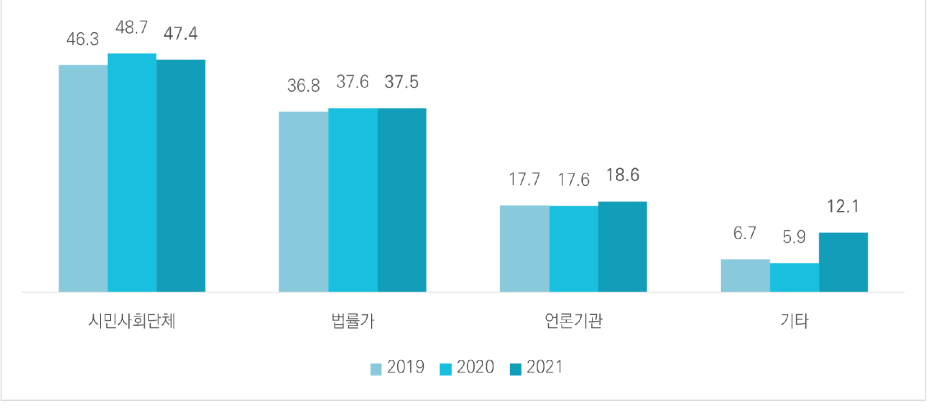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3-92]는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고 민간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응답한 경우에 도움을 요청한 민간기관의 분포를 보여준다. 가장 많이 도음을 요청한 경우는 시민사회단체로 47.4%이고, 다음은 법률가로 37.5%, 그리고 언론기관 18.6% 순이다.

[그림 3-92] 민간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 해당 민간기관 응답 비율의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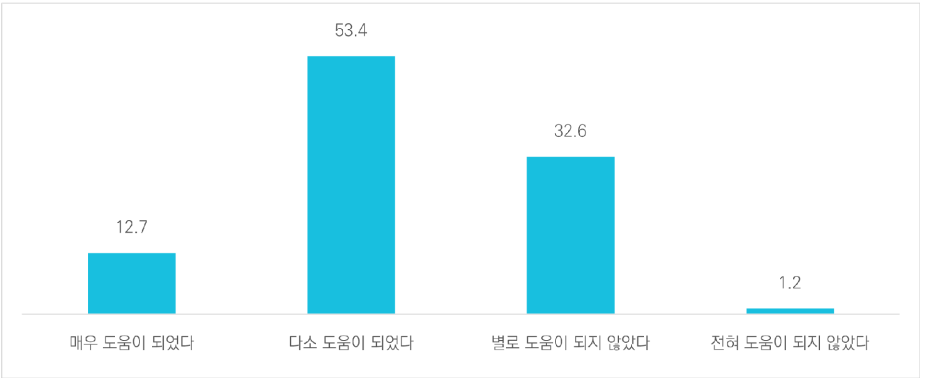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3-93]은 민간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 도움이 되었는가를 물은 것에 대한 응답 분포이다.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66.2%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 33.8%에 비해 높았고 공공기관에 도움을 청한 경우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보다 더 높았다.

[그림 3-93] 민간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 해당 민간기관 응답 비율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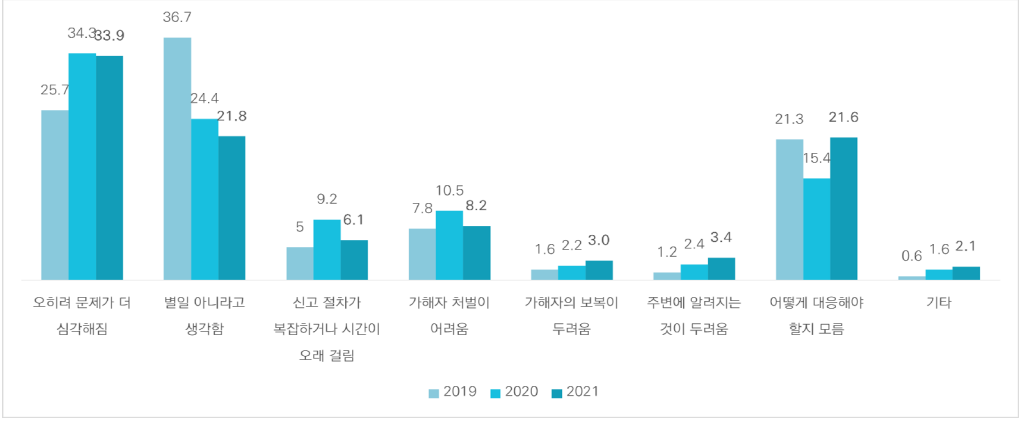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3-94]는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경우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에 그 이유를 물은 것에 대한 응답의 연도별 추이이다. 많이 응답한 이유는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으로 33.9%이며 다음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로 21.8%, 어떻게 대응할지 몰랐다는 것이 21.6% 순이다.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2019년에 가장 많이 응답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림 3-94]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시 아무 대응하지 않은 이유의 연도별 추이

(단위 : %)



6) 시민, 정치적 권리의 침해 경험 여부에 대한 다변량 분석

이제까지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전반적인 추세와 가용한 국제비교 자료를 이용해서 비교, 그리고 인구학적 배경(성과 연령), 사회경제적 배경(학력과 직업), 의식과 성향(종교와 정치성향) 각각을 배경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이들 개인의 배경이 통합적으로 인권침해와 차별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확인하고자 이들 배경을 모두 변수로 포함한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시민, 정치적 권리의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할 가능성에 대해 경험 여부(있다=1, 없다=0)를 종속변수로 한 다변량 이분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은 만 연령 연속값을, 성별은 '남성'을 0, '여성'을 1로 하는 가변수를, 그리고 학력은 기준범주를 '중학교 졸업 이하'로,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재학 이상을 각각 가변수로, 종교는 '있다'를 1, '없다'를 0으로 하는 가변수로, 그리고 정치 성향은 중도와 무관심을 기준범주로 보수와 진보를 각각 가변수로 변환하여 회귀분석에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분석모형을 시민, 정치적 권리의 침해 여부에 대해 적용한 결과, 성별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다른 변수들은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민, 정치적 권리의 침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으며,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재학 이상은 각각 중학교 졸업에 비해 유의하게 경험 가능성이 높았다. 종교가 있는 경우에 시민, 정치적 권리의 침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고, 보수와 진보 모두 중도나 무관심층에 비해 침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보수가 진보에 비해 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른 개인적 배경을 통제했을 때에 젊은 사람들이 시민, 정치적 권리 침해를 당했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또한 종교를 갖거나, 이념성향이 보수나 진보일수록 시민, 정치적 권리 침해를 당했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변수별 효과는 인과적이기보다는 비교적이다. 이는 각 배경적 특성 때문에 시민, 정치적 권리 침해를 당했다기보다는 특정 배경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시민, 정치적 권리의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젊은 사람이 나이 때문에 차별을 당할 수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인권의식이 더 높아서 인권침해를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이념성향의 양 극단이 중도에 비해 더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집회, 시위 등이 제약되면서 종교의식과 정치적 행사가 제약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표 3-39〉 시민, 정치적 권리 침해 경험 여부에 대한 이분로짓모형 추정 결과

	회귀계수 추정치	회귀계수 표준오차
연령	-0.007*	0.002
성별 (가변수, 여성=1)	-0.022	0.056
학력		
고졸 이하	0.552*	0.095
대재 이상	0.677*	0.100
종교 (가변수, 종교 있음=1)	0.230*	0.057
정치적 이념		
보수	0.390*	0.069
진보	0.262*	0.072
상수항	-2.733	0.165

* p<0.01

7)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 여부에 대한 다변량 분석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의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할 가능성에 대해 경험 여부(있다=1, 없다=0)를 종속변수로 한 다변량 이분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은 만연령 연속값을, 성별은 남성을 0, 여성을 1로 하는 가변수를, 그리고 학력은 기준범주를 중졸 이하로, 고졸과 대재 이상을 각각 가변수로, 종교는 있다를 1, 없다를 0으로 하는 가변수로, 그리고 이념성향은 중도와 무관심을 기준범주로 보수와 진보를 각각 가변수로 변환하여 회귀분석에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추가로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였다.

분석모형을 자료에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 보수 이념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 침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와 대학교 재학 이상이 중학교 졸업에 비해 유의하게 침해경험 가능성이 높다. 종교가 있는 경우에 시민, 정치적 권리의 침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고, 보수는 약하게, 진보는 강하게 중도나 무관심층에 비해 침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성별과 연령 상호작용항은 음으로 유의해서, 여성과 남성의 연령에 따른 경험 가능성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른 개인적 배경을 통제했을 때에 여성이 남성보다,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보다, 그리고 여성 중에서도 젊은 층이 사회, 경제적 권리 침해를 당했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또한 종교를 갖거나, 이념성향이 진보일수록 사회, 경제적 권리 침해를 당했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배경 변수별 효과는 인과적이기보다는 비교적이다. 이는 각 배경적 특성 때문에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의 침해를 당했다기보다는 특정 배경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시민, 정치적 권리의 침해 경험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던 성별 및 성별과 연령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젊은 여성들이 사회, 경제적 권리의 침해 경험을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표 3-40〉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 침해 경험 여부에 대한 이분로짓모형 추정 결과

	회귀계수 추정치	회귀계수 표준오차
연령	-0.010*	0.002
성별 (가변수, 여성=1)	0.548*	0.142
학력		
고졸 이하	0.535*	0.082
대재 이상	0.714*	0.086
종교 (가변수, 종교 있음=1)	0.235*	0.047
정치적 이념		
보수	0.112+	0.062
진보	0.288*	0.058
연령*성별	-0.009*	0.003
상수항	-2.148	0.150

* p<0.01, + p<0.10

8) 차별 경험 여부에 대한 다변량 분석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할 가능성에 대해 경험 여부(있다 =1, 없다 =0)를 종속변수로 한 다변량 이분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은 만연령 연속값을, 성별은 남성을 0, 여성을 1로 하는 가변수를, 그리고 학력은 기준범

주를 중졸 이하로, 고졸과 대재 이상을 각각 가변수로, 종교는 있다를 1, 없다를 0으로 하는 가변수로, 그리고 이념성향은 중도와 무관심을 기준범주로 보수와 진보를 각각 가변수로 변환하여 회귀분석에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추가로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였다.

분석모형을 자료에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대재이상이 중졸에 비해 유의하게 차별 경험 가능성이 높다. 종교가 있는 경우에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고, 보수와 진보 모두 중도나 무관심층에 비해 침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성별과 연령 상호작용항은 음으로 유의해서, 여성과 남성의 연령에 따른 경험 가능성이 서로 반대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른 개인적 배경을 통제했을 때에 여성이 남성보다,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보다, 그리고 여성 중에서도 젊은 여성이 특히 차별을 당했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고, 학력이 대학교 재학 이상일수록, 또한 종교를 갖거나, 이념성향이 보수나 진보일수록 차별을 당했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 변수별 효과는 앞서 시민, 정치적 및 사회, 경제적 인권의 침해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인과적이기보다는 비교적이다. 이는 각 배경적 특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기보다는 특정 배경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표 3-41〉 차별 경험 여부에 대한 이분로짓모형 추정 결과

	회귀계수 추정치	회귀계수 표준오차
연령	-0.015*	0.002
성별 (가변수, 여성=1)	1.038*	0.126
학력		
학력 - 고졸 이하	0.106	0.069
학력 - 대재 이상	0.208*	0.072
종교 (가변수, 종교 있음=1)	0.277*	0.042
정치적 이념		
보수	0.221*	0.054
진보	0.264*	0.053
연령*성별	-0.016*	0.002
상수항	-1.277	0.133

* p<0.01

3 인권 관련 쟁점

인권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일반국민이 어떤 의견 또는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인권상황이 개선되고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추진이 수월하기도 하고 난관에 부딪히기도 한다. 인권은 사회적 변화 속에서 내용이 바뀌기도 하고 인권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고 이러한 의견의 교류와 논의를 통해 인권정책과 제도가 생긴다. 따라서 인권 쟁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여론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권 관련 쟁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고 이러한 의견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유지 또는 변화하는지, 전체 인구집단과 비교했을 때 특징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하위집단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여론의 향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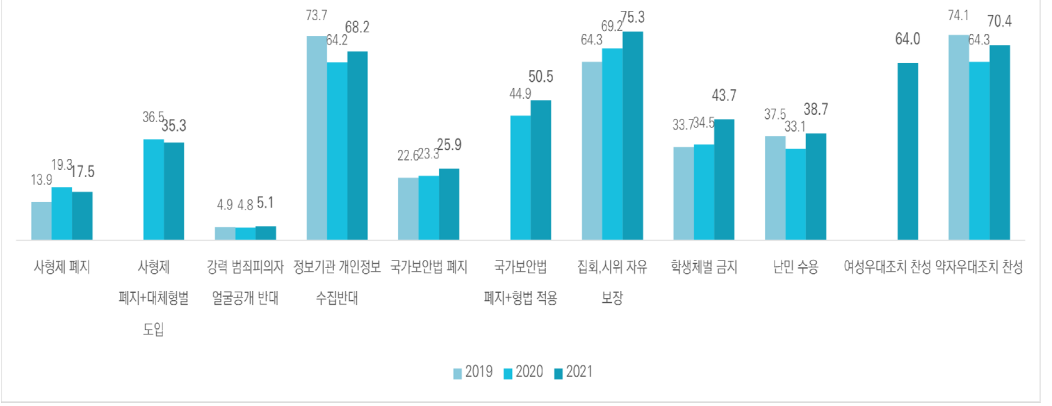
1) 주요 인권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

(1) 주요 인권 쟁점의 시계열 추이

[그림 3-95]는 한국에서 인권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쟁점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 변화를 제시한 것으로서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를 합친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3-95] 인권 쟁점의 시계열 추이 비교

(단위 : %)



2020년 대비 큰 변화를 보인 항목은 학생 체벌 금지(+9.2%p), 집회·시위 자유 보장 (+6.1%p),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등 다른 법률 적용(+5.6%p), 난민 수용(+5.6%p)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는 2021년에는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로 각각 구분하여 질문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향적으로는 2019년보다는 감소하고, 2020년보다는 상승하였다.

국가보안법 폐지 및 다른 법률 적용, 집회·시위의 자유 허용, 학생 체벌 금지 항목은 2019년부터 꾸준히 인권친화적인 여론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사형제 폐지, 사형제 폐지 및 대체형벌 도입,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여론은 별로 변화가 없다.

(2) 사형제도 폐지 여부 및 대체 형벌의 도입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인권을 존중한다는 모든 사회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지만, 사형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사형선고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매우+다소)는 의견은 17.5%로 낮은 비율이며, 2019년 13.9%에서 2020년 19.3%로 5.4%p 증가하였으나 2021년에는 17.5%로 다소 감소하였다.

응답자의 배경 요인별로 사형제도 폐지론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고, 연령별로는 40-50대 중년층이 1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보다 대학교 재학 이상,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20.7%)에서 사형제 폐지론이 가장 높으며, 정치적 진보 성향의 23.8%가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였다. 가치지향에서 탈물질주의 성향은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하고 물질주의 성향은 사형제도 유지에 찬성하고, 공동체 이익 중시 성향은 사형제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한편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의 대체형벌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매우+다소)하는 의견이 35.3%로 나타났다. 아무런 대안없이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률 17.5%보다는 2배 정도 높아졌지만, 여전히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형벌 도입에 반대(매우+다소)하는 의견이 64.7%로 더 우세하다.

〈표 3-42〉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매우 유지해야	다소 유지해야	다소 폐지해야	매우 폐지해야	평균 (4점)	X^2 (df)
전체	58.4	24.2	9.1	8.3	3.3	
성별						19.507 (3)***
남자	58.7	23.1	9.1	9.1	3.3	
여자	58.0	25.2	9.1	7.6	3.3	
연령						99.733 (6)***
20-30대	56.8	26.6	9.5	7.0	3.3	
40-50대	56.9	23.6	9.1	10.4	3.3	
60대 이상	62.2	22.2	8.6	7.1	3.4	
학력						85.469 (3)***
고졸 이하	61.6	23.0	8.4	7.0	3.4	
대재 이상	55.3	25.3	9.8	9.6	3.3	
직업						79.962 (9)***
관리전문직	56.5	22.8	8.6	12.1	3.2	
사무판매서비스	55.9	26.1	9.8	8.2	3.3	
농림생산직	61.6	21.3	8.9	8.2	3.4	
비경제활동인구	59.7	24.1	8.7	7.5	3.4	
종교						28.519 (3)***
없음	58.7	24.4	9.4	7.5	3.3	
있음	57.8	23.8	8.7	9.8	3.3	
정치 성향						225.152 (9)***
보수	66.1	20.2	6.9	6.9	3.5	
중도	56.9	25.1	8.8	9.2	3.3	
진보	50.5	25.8	11.8	12.0	3.1	
무관심	59.6	24.7	9.4	6.3	3.4	
국가 목표						137.428 (6)***
물질주의	62.7	21.4	7.7	8.1	3.4	
탈물질주의	46.2	31.9	11.4	10.4	3.1	
혼합형	57.2	24.9	9.7	8.2	3.3	
공동체 이익						40.657 (6)***
공동체 이익 중요	59.4	21.5	9.9	9.2	3.3	
개인 이익 중요	54.3	27.6	10.9	7.2	3.3	
둘 다 중요	58.9	24.0	8.7	8.4	3.3	

배경 요인별로는 대학교 재학 이상, 관리전문직, 종교가 있는 응답자, 정치적 진보 성향의 응답자들이 대체형벌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특히 대학교 재학 이상 관리전문직(40.2%), 종교가 있는 정치적 진보 성향층(42.8%)에서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찬성의견을 보였다. 반면 60대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하, 사무판매서비스직, 종교가 없는 응답자, 정치적 보수 성향은 사형제 폐지와 대체형벌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낮다. 특히 고졸 이하의 관리전문직(30.7%), 종교 없는 정치적 보수층(26.8%)은 다른 인구집단보다 찬성의견이 낮게 나타났다.

[그림 3-96] 대체 형벌 도입 찬성률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3)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강력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94.9%의 압도적인 비율로 찬성(매우+다소)하는 의견이 강세이고 반대(매우+다소)하는 의견은 5.1%에 불과하다. 2019년, 2020년에도 얼굴 공개에 반대하는 의견은 각각 4.9%, 4.8%로 올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성별, 연령별로는 의견 차이가 없으며, 학력수준, 직업, 종교 유무에 따른 의견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는 별로 크지 않다. 정치적 진보 성향일 경우 얼굴 공개에 반대하는 의견이 7.5%로 상대적으로 높지만, 전반적으로 얼굴 공개 찬성이 강세를 보인다.

또한 가치지향에서는 물질주의 성향은 얼굴 공개를 강력하게 찬성(79.8%)하고 탈물질주의 성향은 강력한 찬성의견이 69.2%로 상대적으로 낮다. 개인 이익 중시 성향(68.7%)에 비해서 공동체 이익 중시 성향(78.0%)은 얼굴 공개를 더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표 3-43〉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찬반 비율

(단위: %)

구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다소 반대	매우 반대	평균 (4점)	X^2 (df)
전체	78.4	16.5	3.5	1.6	3.7	
학력						16.566 (3)**
고졸 이하	79.4	15.5	3.3	1.8	3.7	
대재 이상	77.5	17.4	3.7	1.4	3.7	
직업						85.220 (9)***
관리전문직	81.5	13.4	3.4	1.7	3.7	
사무판매서비스	75.0	19.1	4.4	1.5	3.7	
농림생산직	80.9	14.4	2.9	1.8	3.7	
비경제활동인구	79.6	15.8	3.0	1.6	3.7	
종교						36.164 (3)***
없음	77.2	17.5	3.9	1.4	3.7	
있음	80.4	14.8	3.0	1.8	3.7	
정치 성향						94.197 (9)***
보수	82.5	13.5	2.6	1.4	3.8	
중도	78.5	16.7	3.1	1.7	3.7	
진보	73.6	18.9	5.6	1.9	3.6	
무관심	78.4	16.8	3.5	1.4	3.7	
국가 목표						89.254 (6)***
물질주의	79.8	15.1	3.3	1.8	3.7	
탈물질주의	69.2	25.5	4.2	1.1	3.6	
혼합형	78.6	16.3	3.6	1.5	3.7	
공동체 이익						149.674 (6)***
공동체 이익 중요	78.0	16.1	4.3	1.5	3.7	
개인 이익 중요	68.7	23.9	5.3	2.1	3.6	
둘 다 중요	80.1	15.3	3.1	1.5	3.7	

(4) 국가정보기관의 사이버 감찰

개인 간의 대화나 통신기록을 조사하고 수집하는 것을 프라이버시 침해이지만 국가안보 등의 목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이 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사이버 감찰에 대해서는 찬성(매우+다소) 의견이 31.8%, 반대(매우+다소) 의견이 68.2%로 나타나 반대 의견이 2배 이상 많다. 사이버 감찰에 대한 반대 의견은 2019년 73.7%에서 2020년 64.2%로 9.5%p 감소하였으나 22021년에는 68.2%로 약간 증가하였다.

〈표 3-44〉 국가정보기관의 사이버 감찰 찬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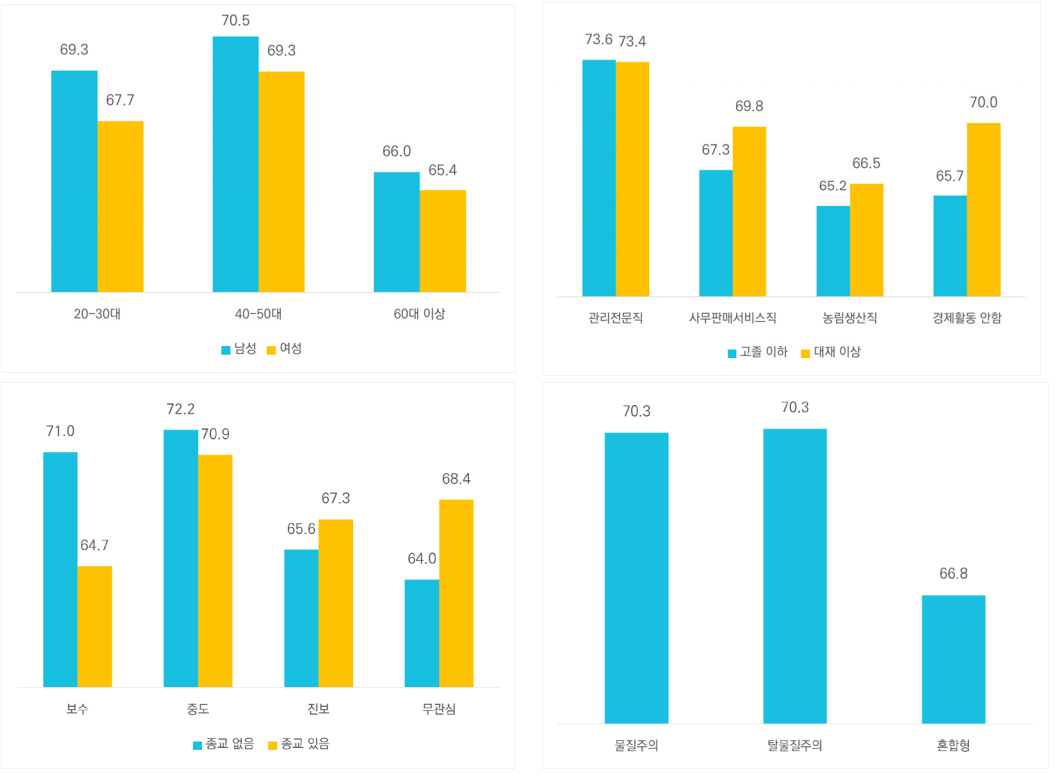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다소 반대	매우 반대	평균 (4점)	X^2 (df)
전체	10.3	21.5	31.8	36.4	2.1	
성별						34.916 (3)***
남자	10.3	20.8	30.4	38.5	2.0	
여자	10.3	22.1	33.2	34.4	2.1	
연령						118.819 (6)***
20-30대	10.6	20.9	30.9	37.6	2.0	
40-50대	10.4	19.8	30.4	39.5	2.0	
60대 이상	9.9	24.5	34.9	30.7	2.1	
학력						73.131 (3)***
고졸 이하	11.0	22.8	32.9	33.3	2.1	
대재 이상	9.6	20.2	30.8	39.4	2.0	
직업						125.682 (9)***
관리전문직	9.9	16.6	28.3	45.1	1.9	
사무판매서비스	9.2	21.9	30.9	38.0	2.0	
농림생산직	11.7	22.8	30.9	34.6	2.1	
비경제활동인구	10.7	21.9	34.3	33.1	2.1	
종교						6.617 (3)
없음	10.0	21.7	32.3	36.0	2.1	
있음	10.8	21.1	31.0	37.1	2.1	
정치 성향						85.149 (9)***
보수	12.0	19.9	31.3	36.7	2.1	
중도	8.5	19.8	33.3	38.5	2.0	
진보	10.9	22.9	29.7	36.6	2.1	
무관심	11.0	23.6	31.7	33.7	2.1	
국가 목표						49.871 (6)***
물질주의	10.1	19.7	31.1	39.1	2.0	
탈물질주의	8.5	21.1	36.6	33.8	2.0	
혼합형	10.6	22.6	31.7	35.1	2.1	

응답자의 배경 요인별로 여성보다는 남성, 저연령층, 고학력층, 관리전문직에서 반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치지향에서는 물질주의 성향, 탈물질주의 성향이 혼합형에 비해서 사이버 감찰을 반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한편 60대 이상 노년층은 남녀 모두 사이버 감찰에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40-50대 남성은 반대 의견이 70.5%로 다른 인구집단보다 가장 높다. 직업별로는 전반적으로 대학교 재학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보다 사이버 감찰에 대해 반대 의견이 강하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은 학력에 따른 의견 차이가 크다. 반면 관리전문직의 경우에는 학력 수준에 관계없이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97] 국가정보기관의 사이버 감찰 반대율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5) 국가보안법 폐지 및 국가안보 사안에 대해 형법 등 다른 법률 적용

국가보안법 역시 오래전부터 인권침해적 소지를 가진 법률로 인식되어 폐지론이 불거져왔다. 그러나 실제로 국가보안법을 폐지(매우+다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5.9%로 유지(매우+다소)해야 한다는 의견 74.1%의 1/3 수준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은 2019년 22.6%, 2020년 23.3%와 비교했을 때 근소하게 증가했을 뿐 큰 변동이 없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에 형법 등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매우+다소)한다는 의견이 50.5%로 나타났으며,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국가보안법 폐지론보다 찬성의견이 2배 정도 증가하였다. 사형제 폐지와 마찬가지로 대안을 제시할 경우에는 인권친화적인 여론이 더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배경 요인별로는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은 여성보다 남성, 연령별로는 40-50대층, 학력 수준별

로는 대학교 재학 이상,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의견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은 37.1%가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하여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폐지 여론이 강하다. 가치지향에서는 탈물질주의 성향은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났고, 개인 이익 추구 성향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에 국가안보 사안에 대해서 다른 법률 적용 안에 대해서는 20-30대 여성, 40-50대 남성, 그리고 대학교 재학 이상의 관리전문직, 종교 유무에 관계없이 정치적 진보 성향에서는 찬성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가지 지향에서는 물질주의 성향이 국가보안법 대신 다른 법률 적용하는데 대한 찬성 비율이 45.9%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탈물질주의 성향은 56.6%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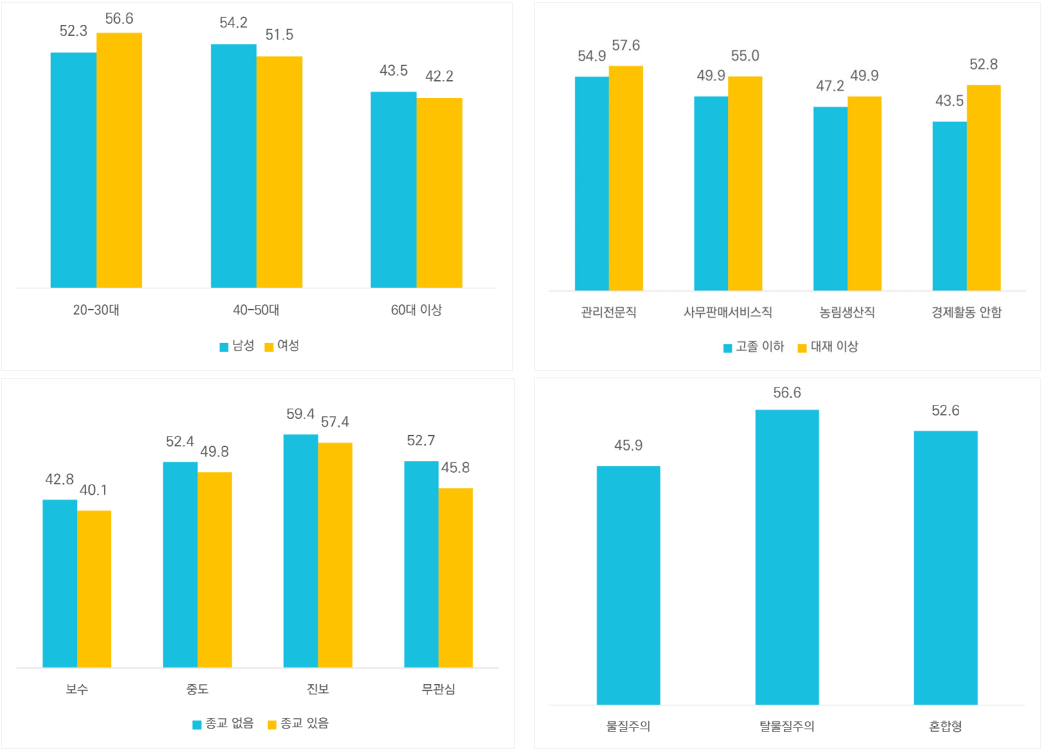
〈표 3-45〉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의견

(단위 : %)

구분	매우 유지해야	대체로 유지해야	대체로 폐지해야	매우 폐지해야	평균 (4점)	X^2(df)
전체	**38.3**	**35.8**	**17.5**	**8.4**	**3.0**	
연령						
20-30대	34.4	38.9	19.3	7.4	3.0	452.865
40-50대	34.7	34.0	19.3	11.9	2.9	(6)***
60대 이상	47.7	34.6	13.0	4.7	3.3	
학력						
고졸 이하	44.0	35.4	14.8	5.8	3.2	345.938
대재 이상	32.9	36.2	20.1	10.9	2.9	(3)***
직업						
관리전문직	35.0	31.7	19.4	13.9	2.9	205.444
사무판매서비스	34.3	37.0	19.8	8.8	3.0	(9)***
농림생산직	41.5	35.2	15.6	7.6	3.1	
비경제활동인구	41.6	36.1	15.6	6.7	3.1	
정치성향						
보수	50.9	29.4	13.7	6.0	3.3	619.122
중도	35.0	36.8	19.3	8.9	3.0	(9)***
진보	29.5	33.3	21.6	15.5	2.8	
무관심	39.1	39.9	15.6	5.4	3.1	
국가 목표						
물질주의	46.7	30.1	15.7	7.4	3.2	418.700
탈물질주의	20.8	41.6	22.9	14.7	2.7	(6)***
혼합형	35.3	38.5	17.9	8.2	3.0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익 중요	44.8	30.4	16.7	8.1	3.1	73.864
개인 이익 중요	32.7	37.8	20.0	9.5	2.9	(6)***
둘 다 중요	38.2	36.3	17.2	8.3	3.0	

[그림 3-98] 국가안보 사안에 대한 다른 법률 적용 찬성률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6) 집회·시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기본적인 자유권의 항목으로서 오랫동안 민주주의 발전에 토대로 간주되었다.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서는 보장(매우+다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75.3%이며 제한(매우+다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4.7%로 나타났다. 시계열적으로는 2019년 64.3%, 2020년 69.2%에 이어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강하게 표출되었다.

〈표 3-46〉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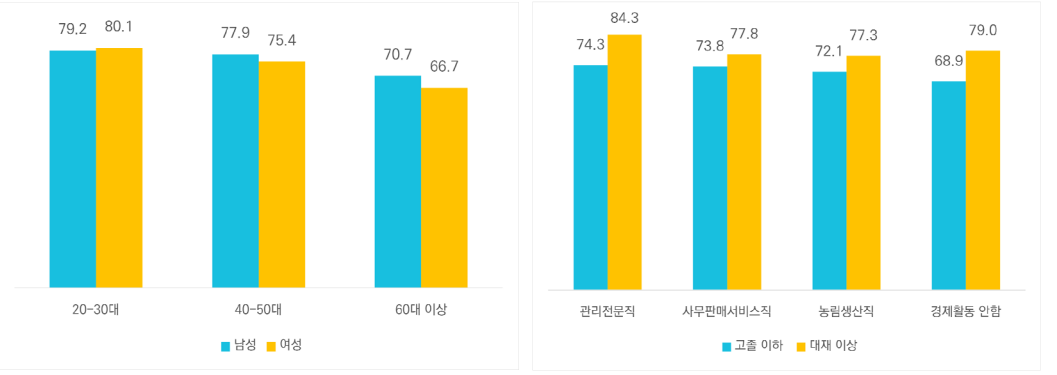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매우 보장해야	다소 보장해야	다소 제한해야	매우 제한해야	평균 (4점)	X^2 (df)
전체	32.8	42.5	19.1	5.6	3.0	
성별						
남자	35.0	41.4	18.2	5.3	3.1	39.496 (3)***
여자	30.7	43.5	19.9	5.9	3.0	
연령						
20-30대	36.5	43.1	16.1	4.3	3.1	271.678 (6)***
40-50대	35.1	41.6	18.4	4.9	3.1	
60대 이상	25.6	42.9	23.4	8.1	2.9	
학력						
고졸 이하	28.7	42.4	21.6	7.3	2.9	226.424 (3)***
대재 이상	36.8	42.5	16.7	4.0	3.1	
직업						
관리전문직	44.2	38.9	12.1	4.8	3.2	179.145 (9)***
사무판매서비스	32.8	43.6	18.8	4.7	3.0	
농림생산직	31.6	41.8	20.1	6.5	3.0	
비경제활동인구	30.1	42.7	20.9	6.3	3.0	
종교						
없음	32.2	43.4	19.2	5.2	3.0	18.258 (3)***
있음	33.9	41.0	18.8	6.3	3.0	
정치 성향						
보수	34.3	39.8	20.3	5.7	3.0	85.656 (9)***
중도	33.8	44.2	17.2	4.8	3.1	
진보	34.5	41.5	19.6	4.3	3.1	
무관심	30.0	42.6	20.2	7.2	3.0	
국가 목표						
물질주의	35.6	40.5	17.8	6.1	3.1	48.866(6)***
탈물질주의	32.0	45.0	19.0	4.1	3.0	
혼합형	31.3	43.3	19.9	5.5	3.0	

배경 요인별로는 전반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 20-30대 저연령층, 대학교 재학 이상 고학력층,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 그리고 정치적 중도 성향에서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여성층, 대학교 재학 이상의 관리전문직에서는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3-99]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찬성률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7) 학생 체벌 금지

2011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이후 공식적으로 학생 체벌은 허용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체벌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지(매우+다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43.7%로 나타났으며 학생 체벌을 허용(매우+다소)해야 한다는 의견 56.3%보다 낮은 수치이다. 학생 체벌 금지 의견은 2019년 33.7%, 2020년 34.5%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21년에는 43.7%로 9.2%p 증가하였다.

학생 체벌 금지 의견은 남성보다는 여성, 20-30대 젊은층, 대학교 재학 이상 고학력층, 사무판매서비스직, 정치적 진보 성향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여성 50.6%, 대학교 재학 이상 사무판매서비스직 49.2%로 학생 체벌 금지 의견이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가치지향에서는 탈물질주의 성향(48.8%)은 학생 체벌 금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물질주의 성향(40.8%)은 다른 가치 성향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이익 추구 성향에서는 공동체 이익 추구 성향(40.6%)이 다른 성향보다 학생체벌 금지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표 3-47〉 학생 체벌 금지에 대한 의견의 배경 요인별 비교

(단위 : %)

구분	매우 허용	다소 허용	다소 금지	매우 금지	평균 (4점)	X^2 (df)
전체	19.2	37.1	25.8	17.9	2.6	
성별						75.819 (3)***
남자	21.3	37.8	24.6	16.3	2.6	
여자	17.1	36.4	26.9	19.5	2.5	
연령						190.848 (6)***
20-30대	21.7	32.1	26.3	19.9	2.6	
40-50대	17.9	36.6	26.3	19.2	2.5	
60대 이상	18.1	43.5	24.6	13.9	2.7	
학력						132.611 (3)***
고졸 이하	19.5	40.6	24.5	15.3	2.6	
대재 이상	18.8	33.7	27.1	20.4	2.5	
직업						106.210 (9)***
관리전문직	22.3	33.3	24.5	19.9	2.6	
사무판매서비스	19.1	34.5	27.5	18.8	2.5	
농림생산직	21.9	39.3	23.1	15.6	2.7	
비경제활동인구	16.9	39.6	25.9	17.6	2.6	
종교						2.213 (3)
없음	18.9	37.1	26.1	18.0	2.6	
있음	19.7	37.1	25.4	17.9	2.6	
정치 성향						180.551 (9)***
보수	20.9	39.1	25.1	14.9	2.7	
중도	16.3	37.5	27.8	18.5	2.5	
진보	16.4	33.5	27.8	22.2	2.4	
무관심	23.0	37.4	22.9	16.8	2.7	
국가 목표						49.453 (6)***
물질주의	20.6	38.5	24.8	16.0	2.6	
탈물질주의	15.5	35.8	27.5	21.2	2.5	
혼합형	18.7	36.4	26.2	18.7	2.6	
공동체 이익						17.835 (6)**
공동체 이익 중요	22.2	37.2	23.4	17.2	2.6	
개인 이익 중요	18.8	36.3	26.7	18.2	2.6	
둘 다 중요	18.8	37.2	26.0	18.0	2.6	

[그림 3-100] 학생 체벌 금지 찬성률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8) 한국에서 난민의 인정

한국은 2020년에 난민법이 제정되었지만 난민 인정률은 매우 낮으며 2018년 제주도에 예멘 난민 집단신청을 계기로 난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난민 인정과 수용은 인권 뿐만 아니라 정치적 쟁점을 형성하기도 한다. 가급적 난민을 받아들여야(매우+다소) 한다는 의견은 38.7%인 반면, 제한(매우+다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61.3%로 난민 인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우세하다. 난민을 가급적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은 2019년 37.5%에서 2020년 33.1%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5.6%p 증가하였다.

배경 요인별로 한국에서의 난민 인정을 찬성하는 의견은 여성보다는 남성, 40-50대 중년층, 대학교 재학 이상 고학력층,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 정치적 진보 성향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40-50대 남성층 45.1%, 종교 없는 정치적 진보층 47.0%, 종교 있는 정치적 진보층 46.8%로 난민 인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높다. 가치지향에서는 탈물질주의 성향은 난민 인정에 찬성률이 42.4%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물질주의 성향은 36.1%로 더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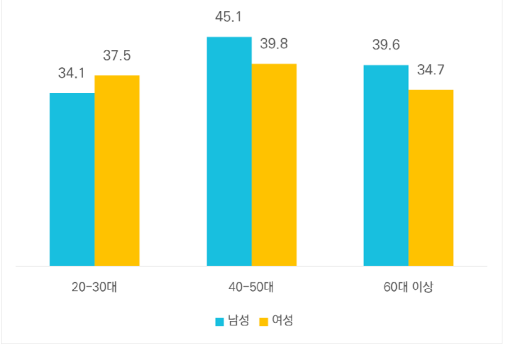
〈표 3-48〉 한국의 난민 인정에 대한 의견의 배경 요인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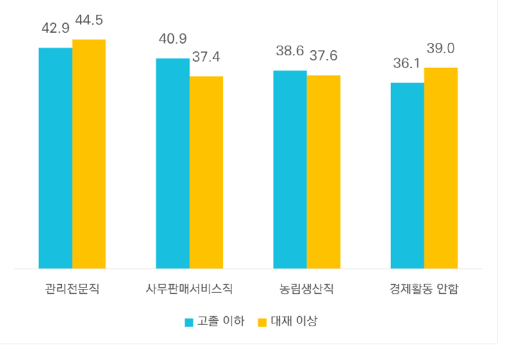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적극 수용	다소 수용	다소 제한	적극 제한	평균 (4점)	X^2 (df)
전체	7.6	31.1	38.4	22.9	2.2	
성별						19.353 (3)***
남자	8.3	31.5	37.4	22.8	2.3	
여자	6.8	30.7	39.4	23.1	2.2	
연령						170.934 (6)***
20-30대	5.1	30.7	37.4	26.8	2.1	
40-50대	9.1	33.4	37.7	19.8	2.3	
60대 이상	8.4	28.6	40.4	22.6	2.2	
학력						16.901 (3)**
고졸 이하	8.2	30.0	39.1	22.7	2.2	
대재 이상	7.0	32.2	37.7	23.1	2.2	
직업						58.177 (9)***
관리전문직	10.2	34.2	32.3	23.3	2.3	
사무판매서비스	7.0	31.6	39.2	22.2	2.2	
농림생산직	7.7	30.6	37.3	24.4	2.2	
비경제활동인구	7.3	30.0	40.0	22.8	2.2	
종교						55.229 (3)***
없음	6.6	31.5	39.6	22.3	2.2	
있음	9.2	30.5	36.4	23.9	2.3	
정치 성향						167.570 (9)***
보수	6.7	27.7	38.7	26.9	2.1	
중도	6.9	31.4	40.7	21.0	2.2	
진보	10.9	36.1	33.6	19.5	2.4	
무관심	7.1	30.2	38.2	24.5	2.2	
국가 목표						71.844 (6)***
물질주의	7.3	28.8	37.7	26.1	2.2	
탈물질주의	9.9	32.5	35.7	21.9	2.3	
혼합형	7.4	32.4	39.1	21.1	2.3	

[그림 3-101] 한국에서의 난민 인정 찬성률의 배경별 비교

(단위: %)





(9)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사회적 약자들이 구조적인 불리함 때문에 출발선에서부터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적극적 우대조치가 도입되었다. 단순히 현재의 차별을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거에 누적된 차별의 결과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한 의견을 2019년과 2020년에는 여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사회적 약자로 한데 묶었지만 2021년에는 여성을 분리하여 별도로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따라서 이전 문항의 조사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없으며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세를 살펴본다.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에 찬성(매우+다소)하는 의견은 64.0%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55.8%가 찬성하고 여성은 71.9%가 찬성하였다. 연령별로는 20-30대 젊은층은 57.3%가 찬성한 반면 60대 이상 노인층은 69.6%가 찬성하였으며, 고졸 이하의 찬성률이 대재 이상의 찬성률보다 더 높다. 특히 20-30대 남성과 20-30대 여성의 찬성률 격차가 약 30%로 크게 나타났다.

또한 탈물질주의 성향(72.1%)은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에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반면 물질주의 성향(61.4%)은 여성 우대 조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낮다. 공동체 이익 추구 성향 역시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68.0%로 다른 가치 성향을 가진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49〉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찬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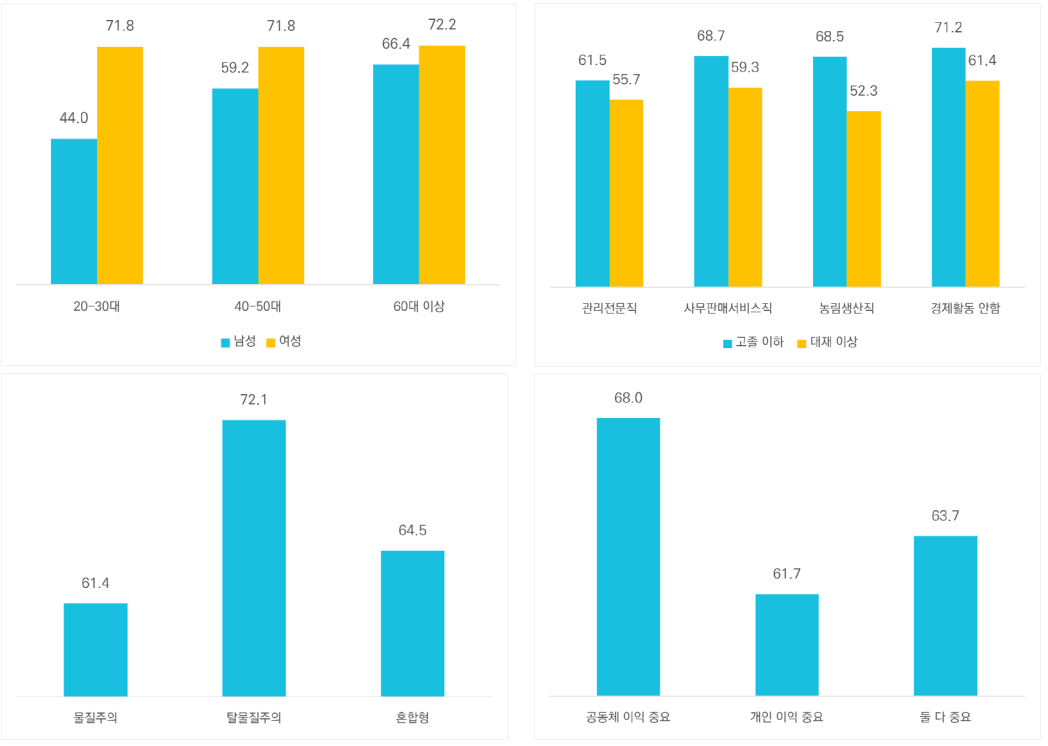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다소 반대	매우 반대	평균 (4점)	X^2 (df)
전체	17.0	47.0	25.8	10.2	2.7	
성별						648.667 (3)***
남자	13.3	42.6	29.3	14.8	2.5	
여자	20.6	51.3	22.3	5.8	2.9	
연령						346.963 (6)***
20-30대	15.6	41.7	27.1	15.5	2.6	
40-50대	18.2	47.2	25.7	8.9	2.7	
60대 이상	16.9	52.7	24.4	6.0	2.8	
학력						294.495 (3)***
고졸 이하	18.8	50.8	23.5	7.0	2.8	
대재 이상	15.3	43.3	28.0	13.4	2.6	
직업						152.243 (9)***
관리전문직	16.0	40.4	26.6	17.0	2.6	
사무판매서비스	16.8	45.8	26.9	10.5	2.7	
농림생산직	16.8	47.7	26.0	9.6	2.7	
비경제활동인구	17.6	49.8	24.4	8.2	2.8	

구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다소 반대	매우 반대	평균 (4점)	X^2 (df)
종교						
없음	15.8	46.8	27.1	10.4	2.7	43.919 (3)***
있음	19.0	47.3	23.7	10.0	2.8	
정치 성향						
보수	17.6	46.4	24.6	11.4	2.7	86.151 (9)***
중도	14.1	47.6	27.5	10.8	2.7	
진보	18.2	44.5	26.8	10.4	2.7	
무관심	19.2	48.0	24.0	8.8	2.8	
국가 목표						
물질주의	17.7	43.7	26.4	12.1	2.7	88.069 (6)***
탈물질주의	17.0	55.1	20.5	7.4	2.8	
혼합형	16.5	48.0	26.0	9.5	2.7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익 중요	22.4	45.6	22.4	9.6	2.8	71.981 (6)***
개인 이익 중요	16.6	45.1	25.4	12.9	2.7	
둘 다 중요	16.2	47.5	26.4	9.9	2.7	

[그림 3-102]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찬성률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장애인 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해서 찬성(매우+다소)하는 의견은 70.4%로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찬성률 64.0%보다 약 6% 더 높게 나타났다. 여성을 따로 구분하고 장애인 등의 약자로 한정 지어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2019년, 2020년에 비해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

〈표 3-50〉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찬성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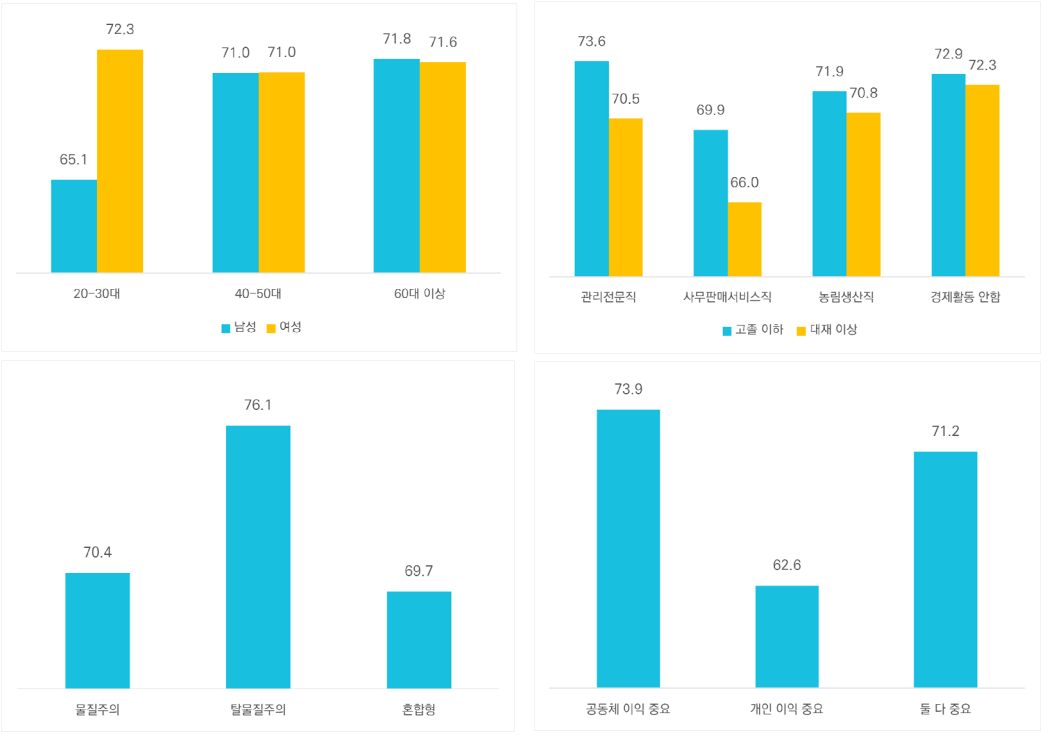
구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다소 반대	매우 반대	평균 (4점)	X^2 (df)
전체	17.0	47.0	25.8	10.2	2.7	
성별						648.667 (3)***
남자	13.3	42.6	29.3	14.8	2.5	
여자	20.6	51.3	22.3	5.8	2.9	
연령						346.963 (6)***
20-30대	15.6	41.7	27.1	15.5	2.6	
40-50대	18.2	47.2	25.7	8.9	2.7	
60대 이상	16.9	52.7	24.4	6.0	2.8	
학력						294.495 (3)***
고졸 이하	18.8	50.8	23.5	7.0	2.8	
대재 이상	15.3	43.3	28.0	13.4	2.6	
직업						152.243 (9)***
관리전문직	16.0	40.4	26.6	17.0	2.6	
사무판매서비스	16.8	45.8	26.9	10.5	2.7	
농림생산직	16.8	47.7	26.0	9.6	2.7	
비경제활동인구	17.6	49.8	24.4	8.2	2.8	
종교						43.919 (3)***
없음	15.8	46.8	27.1	10.4	2.7	
있음	19.0	47.3	23.7	10.0	2.8	
정치 성향						86.151 (9)***
보수	17.6	46.4	24.6	11.4	2.7	
중도	14.1	47.6	27.5	10.8	2.7	
진보	18.2	44.5	26.8	10.4	2.7	
무관심	19.2	48.0	24.0	8.8	2.8	
국가 목표						33.997 (6)***
물질주의	19.1	51.3	23.6	6.0	2.8	
탈물질주의	22.2	53.8	19.0	4.9	2.9	
혼합형	17.9	51.9	24.9	5.4	2.8	
공동체 이익						129.042 (6)***
공동체 이익 중요	24.0	49.9	20.1	6.0	2.9	
개인 이익 중요	15.8	46.8	29.3	8.1	2.7	
둘 다 중요	18.3	52.9	23.8	5.1	2.8	

배경 요인별로 40-50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의견에 차이가 없는 반면 20-30대 연령층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의견 차이가 약 7% 벌어지고 있다. 또한 직업별로는 사무 판매서비직에서의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한 찬성이 다소 높다.

또한 탈물질주의 성향(76.1%)은 장애인 등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에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반면 개인 이익 추구 성향(62.6%)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낮고, 공동체 이익 추구 성향(73.9%), 공동체와 개인 이익을 같이 추구하는 성향(71.2%)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다.

[그림 3-103]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찬성률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2)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정보 접근권 등을 보장받을 권리인 정보인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굳건하지 않다. 특히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이 비대면으로 바뀌고, 방역을 위해 개인정보를 자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보인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조사하였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내용 확인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동의서는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정보 이용 등을 설명하는데, 이에 체크할 때 내용을 확인(매우+대체로)하는 경우는 50.3%로 절반 정도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동의서에 체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 요인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는 비율이 높고, 20-30대와 40-50대에 비해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확인한다는 응답이 약 15%p 낮아서 세대 간에 격차를 보인다. 고졸 이하는 대재 이상보다 동의서 내용을 확인한다는 응답이 10%p 이상 낮고, 직업별로는 사무판매서비스직의 확인율이 56.6%로 가장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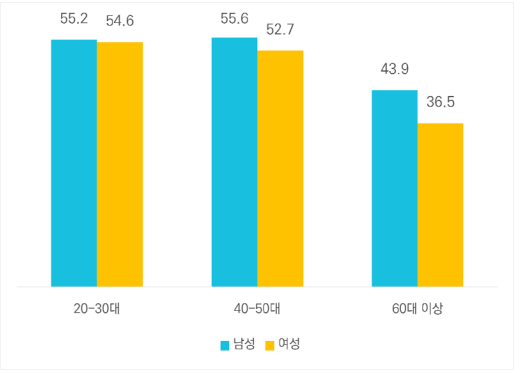
〈표 3-5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 확인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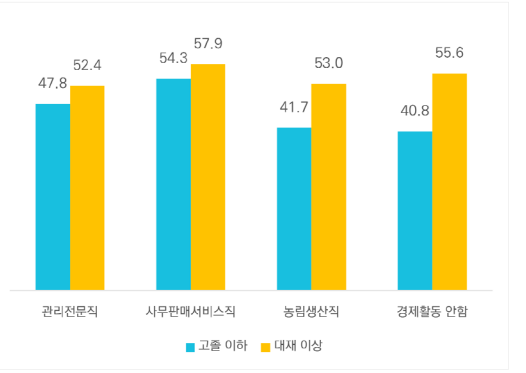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은 편	평균 (4점)	X^2 (df)
전체	10.7	39.6	36.5	13.1	2.5	
성별						
남자	11.3	41.1	35.6	12.0	2.5	37.481 (3)***
여자	10.1	38.2	37.4	14.3	2.6	
연령						
20-30대	13.6	41.3	33.2	11.9	2.4	547.576 (6)***
40-50대	11.2	42.9	37.1	8.7	2.4	
60대 이상	6.7	33.2	39.6	20.6	2.7	
학력						
고졸 이하	8.8	35.8	38.7	16.7	2.6	305.240 (3)***
대재 이상	12.6	43.3	34.4	9.7	2.4	
직업						
관리전문직	13.4	38.5	35.8	12.3	2.5	266.152 (9)***
사무판매서비스	12.7	43.9	34.2	9.2	2.4	
농림생산직	9.0	35.5	38.8	16.7	2.6	
비경제활동인구	8.8	37.7	37.9	15.5	2.6	

[그림 3-104] 개인정보 수입 및 이용 동의서 내용 확인율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2) 개인정보 입력 시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 여부

개인정보 유출은 해킹으로 일어나지만 업무 담당자의 부주의와 관리 부실로 인한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유출의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국내 대기업과 금융기관, 정부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해 짐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관심과 불안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신상정보 유출 우려로 불안하다(매우+다소)는 응답은 78.6%로 상당히 높고 불안하지 않다(매우+다소)는 응답은 21.4%로 나타났다.

배경 요인별로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응답자는 남성보다는 여성, 40-50대층, 대재 이상의 고학력층,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 사무직을 꼽을 수 있다. 특히 20-30대 여성, 40-50대 여성 응답자 중에서 불안하다는 의견이 약 83%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60대 이상, 농림생산직은 불안하다는 의견이 75%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다.

〈표 3-52〉 신상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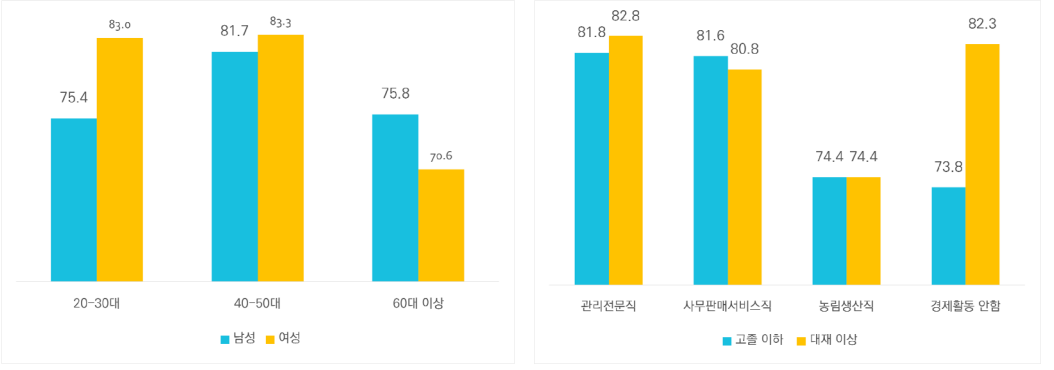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은 편	평균 (4점)	X^2 (df)
전체	29.1	49.6	17.4	4.0	2.0	
성별						9.435 (3)*
남자	28.2	49.8	18.1	3.9	2.0	
여자	29.9	49.4	16.7	4.0	1.9	
연령						224.230 (6)***
20-30대	29.8	49.2	17.7	3.3	1.9	
40-50대	31.6	50.9	14.9	2.6	1.9	
60대 이상	24.8	48.1	20.5	6.5	2.1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은 편	평균 (4점)	X^2 (df)
학력						
고졸 이하	27.5	48.7	18.9	4.9	2.0	80.690 (3)***
대재 이상	30.6	50.4	16.0	3.0	1.9	
직업						
관리전문직	31.8	50.8	14.5	2.8	1.9	122.560 (9)***
사무판매서비스	30.9	50.2	16.2	2.7	1.9	
농림생산직	27.3	47.1	19.6	6.0	2.0	
비경제활동인구	27.4	49.8	18.3	4.5	2.0	

[그림 3-105] 신상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불안도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3) 공공장소의 CCTV 설치는 사생활 침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CCTV는 사생활 침해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범죄 예방 및 억제의 목적이 강해지면서 CCTV 없는 시설을 찾아보기 힘들고, 공원, 아파트단지 등까지 확대되고 있다. 각종 범죄 사건 해결에 CCTV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타인의 행동 감시를 목적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장소의 CCTV 설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에 동의(매우+다소)하는 의견은 30.3%로, 동의하지 않는(매우+다소) 의견 69.7%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범죄발생 우려와 안전을 위해서 공공장소에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

공공장소의 CCTV 설치가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자들은 40-50대층, 대학교 재학 이상 고학력층, 직업별로는 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 정치적 진보 성향이다. 특히

40-50대 남성(34.4%), 사무판매서비스직, 종교 없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CCTV의 설치를 사생활 침해로 인식하는 비율이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동체 이익 추구 성향(30.4%)에 비해서 개인 이익 추구 성향(41.8%)을 가진 경우에 공공장소의 CCTV 설치가 사생활 침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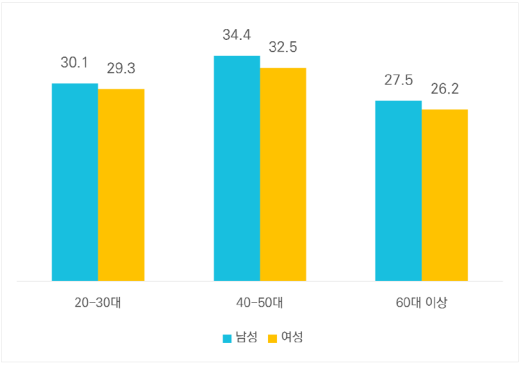
〈표 3-53〉 공공장소의 CCTV 설치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의견의 배경 요인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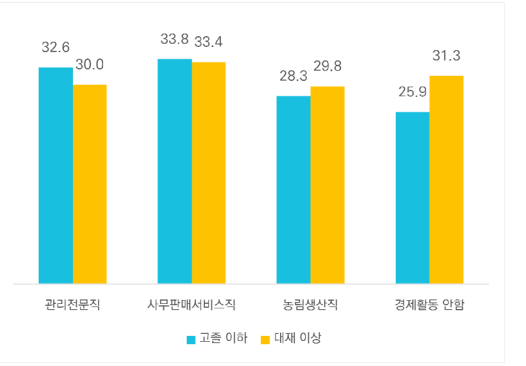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4점)	X^2 (df)
전체	6.4	24.0	43.2	26.5	2.9	
연령						
20-30대	6.9	22.8	44.0	26.3	2.9	99.758 (6)***
40-50대	7.3	26.2	42.5	24.0	2.8	
60대 이상	4.5	22.2	43.3	29.9	3.0	
학력						
고졸 이하	6.1	22.6	43.1	28.2	2.9	34.296 (3)***
대재 이상	6.6	25.3	43.3	24.8	2.9	
직업						
관리전문직	6.0	24.3	43.7	26.0	2.9	97.726 (9)***
사무판매서비스	8.2	25.3	42.9	23.6	2.8	
농림생산직	5.4	23.2	42.6	28.7	2.9	
비경제활동인구	5.1	22.9	43.7	28.3	3.0	
종교						
없음	6.5	25.6	43.0	24.9	2.9	60.983 (3)***
있음	6.2	21.2	43.5	29.1	3.0	
정치 성향						
보수	6.0	22.3	46.0	25.7	2.9	115.931 (9)***
중도	6.9	24.4	44.5	24.1	2.9	
진보	8.1	26.6	40.8	24.5	2.8	
무관심	5.1	23.0	41.3	30.6	3.0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익 중요	6.3	24.1	40.0	29.6	2.9	186.034 (6)***
개인 이익 중요	9.1	32.7	39.3	18.9	2.7	
둘 다 중요	5.9	22.5	44.3	27.2	2.9	

[그림 3-106] 공공장소의 CCTV 설치는 사생활 침해 공감도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3)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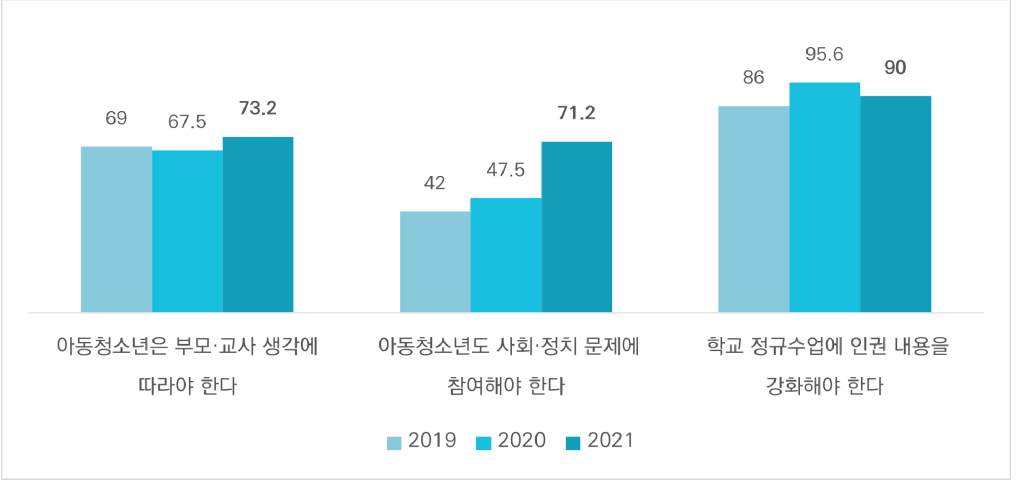
어느 사회나 아동·청소년은 미성년으로서 미숙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로 간주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인권의 측면에서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권의 담지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취약집단이기도 하다. 한국은 나이에 따른 위계질서가 강하고 장유유서의 전통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인권 관련 쟁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해 보았다.

(1) 아동·청소년 인권 쟁점의 시계열 추이

[그림 3-105]는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쟁점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 변화를 제시한 것으로서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를 합친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항목은 '아동·청소년의 사회.정치 참여 필요' 항목으로 2019년 42.0%에서 2020년 47.5%로 5.5%p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71.2%로 무려 23.7%p 증가하였다. '아동·청소년은 부모/교사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항목은 2019년 69.0%에서 2020년 67.5%로 근소하게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73.2%로 다시 5.7%p 증가하였다. 반면 '학교 인권교육 강화'는 2020년 95.6%에서 2021년 90.0%로 오히려 5.6%p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90%의 높은 찬성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07] 아동·청소년인권 쟁점의 시계열 추이

(단위: %)



(2)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능력

아동·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므로 부모, 교사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매우+다소)한다는 응답은 73.2%로 우세한 반면 동의하지 않는(매우+다소) 응답은 26.8%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을 불완전, 미성숙의 존재로 보는 시각이 매우 우세하게 퍼져있다.

배경 요인별로 남성과 여성 간의 의견 차이가 없으며, 연령은 예상한대로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아동·청소년은 어른(부모, 교사) 말을 들어야 한다에 동의하는 응답 비율이 증가한다. 고졸 이하의 저학력층, 농림생산직, 그리고 정치적 보수 성향층이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과 남성, 고졸 이하 농림생산직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은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능력의 주체로 보지 않고 있다.

가치 지향을 보면 물질주의 성향(75.9%)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의견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반면 탈물질주의 성향은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 능력을 인정하는 의견이 32.6%로 상대적으로 더 높다. 또한 공동체 이익 추구 성향(83.0%)은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의견이 개인 이익 추구 성향(73.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54〉 아동·청소년은 부모·교사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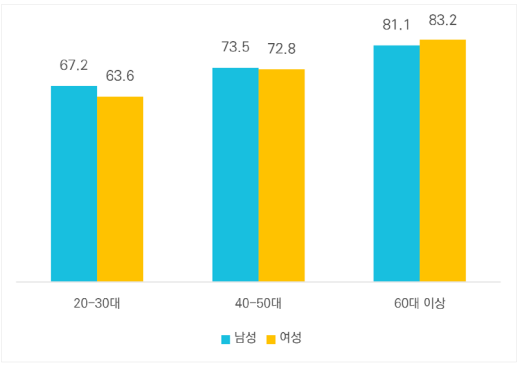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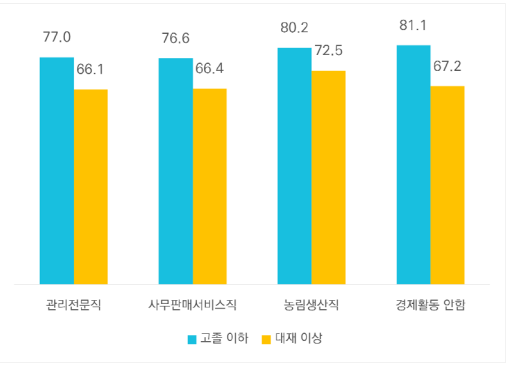
구분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다소 동의 안함	매우 동의 안함	평균 (4점)	X^2 (df)
전체	13.1	60.1	24.4	2.4	2.8	
성별						
남자	13.1	60.2	24.2	2.5	2.8	0.535 (3)
여자	13.1	60.0	24.5	2.3	2.8	
연령						
20-30대	10.2	55.3	30.4	4.1	2.7	486.664 (6)***
40-50대	12.4	60.8	24.7	2.2	2.8	
60대 이상	17.6	64.7	17.0	0.7	3.0	
학력						
고졸 이하	16.1	63.5	18.9	1.4	2.9	417.966 (3)***
대재 이상	10.2	56.9	29.6	3.3	2.7	
직업						
관리전문직	10.6	56.9	28.7	3.9	2.7	170.510 (9)***
사무판매서비스	11.7	58.2	27.0	3.0	2.8	
농림생산직	16.6	61.7	20.0	1.7	2.9	
비경제활동인구	13.6	62.1	22.6	1.7	2.9	
종교						
없음	12.5	60.5	24.5	2.5	2.8	9.008 (3)*
있음	14.1	59.4	24.2	2.3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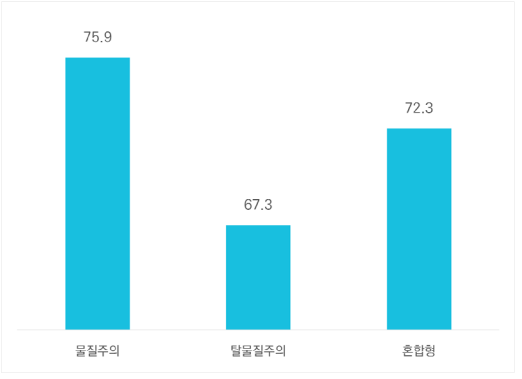
구분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다소 동의 안함	매우 동의 안함	평균 (4점)	X^2 (df)
정치 성향						
보수	17.3	61.0	19.9	1.8	2.9	169.133 (9)***
중도	10.8	59.9	26.9	2.4	2.8	
진보	11.9	56.8	27.8	3.6	2.8	
무관심	13.9	61.5	22.4	2.1	2.9	
국가 목표						
물질주의	14.7	61.2	22.1	2.0	2.9	63.726(6)***
탈물질주의	11.3	56.0	28.8	3.8	2.7	
혼합형	12.4	59.9	25.2	2.5	2.8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익 중요	17.4	65.6	15.6	1.5	3.0	133.003(6)***
개인 이익 중요	11.5	61.6	24.0	2.9	2.8	
둘 다 중요	12.8	59.0	25.8	2.5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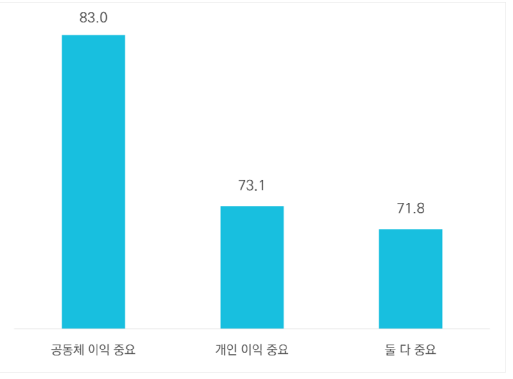
[그림 3-108] 아동청소년은 부모·교사 생각에 따라야 한다 공감도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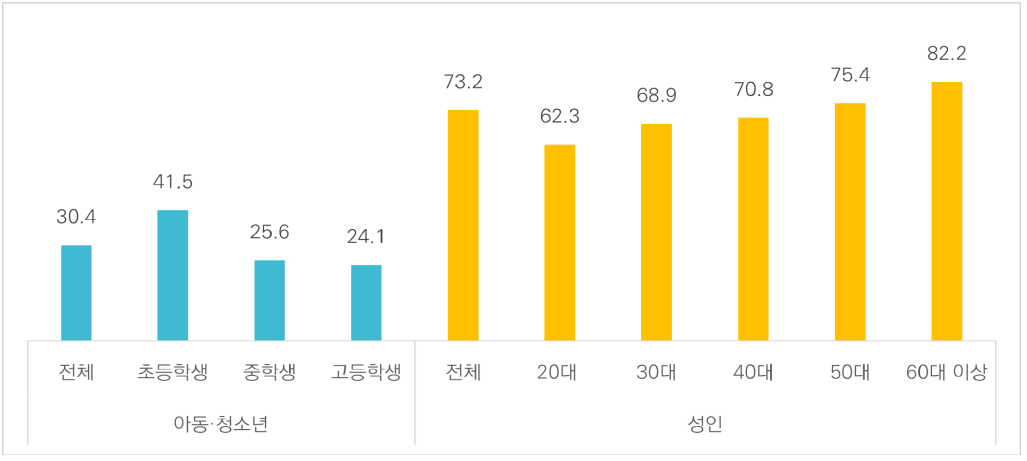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와 비교해 보면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성인과 아동·청소년의 인식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므로 부모·교사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매우+다소)하는 비율이 30.4%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인(73.2%)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더욱이 초등학생은 41.5%가 동의한 반면 중학생은 25.6%, 고등학생은 24.1%가 동의하여 훨씬 더 낮아진다. 청소년 시기를 거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대층도 아동·청소년이 부모·교사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는데 60% 이상이 동의하여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그림 3-109] 연령층별 아동·청소년은 부모·교사 생각을 따라야 한다는 동의율 비교

(단위 : %)



(3) 아동·청소년의 사회·정치 문제에 참여

아동·청소년도 사회·정치 문제에 관심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매우+다소)하는 비율이 71.2%이고 동의하지 않는(매우+다소) 28.8%보다 2배 이상 많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사회정치 참여에 대한 동의가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42.0%, 47.5%였는데 2021년에는 약 70% 급상승하였다.

배경 요인별로 아동·청소년의 사회·정치문제 참여를 찬성하는 의견은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가 없으며, 연령층별로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낮아진다. 대학교 재학 이상의 고학력, 관리전문직, 정치적 진보층에서 아동·청소년의 사회·정치 참여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 상대

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특히 20-30대 여성, 대학교 재학 이상 관리전문직은 약 78%가 동의하여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가장 많이 지지한다. 또한 탈물질주의 성향은 아동·청소년의 사회·정치 문제 참여에 찬성하는 비율 비율(77.3%)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반면 물질주의 성향은 다른 성향보다 찬성 비율(68.1%)이 더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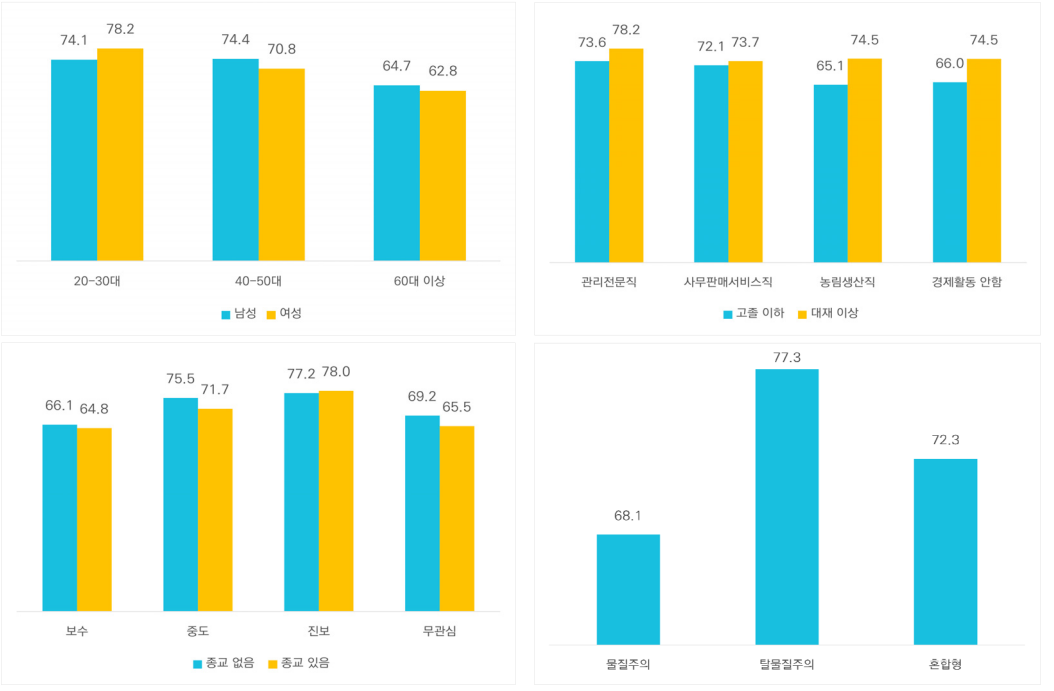
〈표 3-55〉 아동·청소년도 사회·정치문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

(단위 : %)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다소 동의 안함	전혀 동의 안함	평균 (4점)	X^2 (df)
전체	14.5	56.8	24.3	4.5	2.8	
성별						7.134 (3)
남자	15.1	56.7	23.7	4.5	2.8	
여자	13.9	56.8	24.9	4.5	2.8	
연령						325.991 (6)***
20-30대	18.2	57.9	21.0	2.9	2.9	
40-50대	13.8	58.9	23.6	3.7	2.8	
60대 이상	11.1	52.5	29.0	7.4	2.7	
학력						195.246 (3)***
고졸 이하	12.4	55.1	26.3	6.2	2.7	
대재 이상	16.5	58.3	22.3	2.9	2.9	
직업						150.734 (9)***
관리전문직	16.9	60.7	19.4	3.0	2.9	
사무판매서비스	16.5	56.6	23.0	3.9	2.9	
농림생산직	11.8	55.7	25.6	6.9	2.7	
비경제활동인구	13.0	56.3	26.4	4.4	2.8	
종교						28.907 (3)***
없음	15.4	56.9	23.5	4.2	2.8	
있음	12.9	56.5	25.6	5.0	2.8	
정치 성향						241.933 (9)***
보수	13.0	52.4	28.4	6.1	2.7	
중도	15.2	58.9	22.6	3.3	2.9	
진보	19.2	58.3	20.0	2.5	2.9	
무관심	11.9	56.1	26.0	6.0	2.7	
국가 목표						95.032 (6)***
물질주의	14.7	53.5	26.0	5.9	2.8	
탈물질주의	18.0	59.3	20.5	2.2	2.9	
혼합형	13.9	58.4	23.7	3.9	2.8	

[그림 3-110] 아동청소년도 사회·정치 문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찬성률의 배경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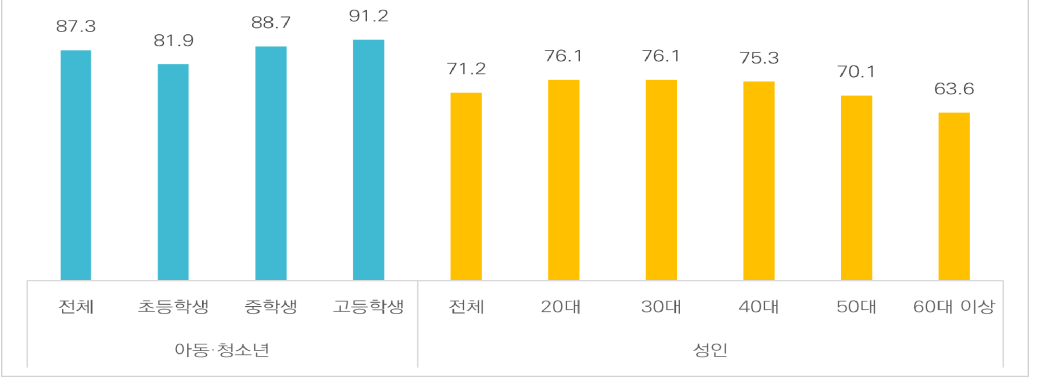
(단위 : %)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2020년 기준)'와 비교해 보면 아동·청소년의 사회. 정치문제 참여에 대해 예전보다는 차이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아동·청소년의 인식 차이가 벌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사회.정치문제에 관심과 참여에 대해서 약 70%가 동의하였지만 아동·청소년은 80% 이상의 동의를 보였다.

[그림 3-111] 연령층별 아동·청소년도 사회. 정치문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찬성률 비교

(단위 : %)



(4) 초중고 정규수업에서의 인권교육 강화

학교 정규수업에서 인권 관련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동의(매우+다소)하는 의견이 90.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30대 남성의 동의율은 87.9%로 나타나 다른 하위집단과 비교해서 가장 낮은 동의율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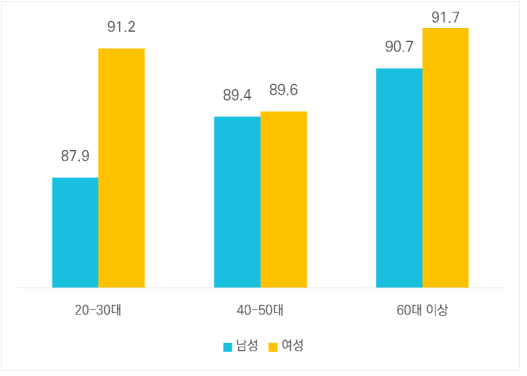
〈표 3-55〉 학교 정규수업에서 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의 배경 요인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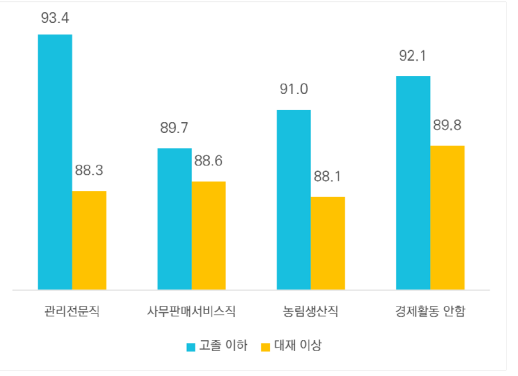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다소 동의 안함	전혀 동의 안함	계	평균 (4점)	X^2 (df)
전체	28.7	61.3	8.9	1.2	100.0	3.2	
성별							12.350 (3)**
남자	28.7	60.5	9.6	1.2	100.0	3.2	
여자	28.7	62.0	8.1	1.1	100.0	3.2	
연령							23.774 (6)**
20-30대	29.7	59.8	9.2	1.3	100.0	3.2	
40-50대	28.6	60.9	9.2	1.3	100.0	3.2	
60대 이상	27.8	63.4	8.0	0.8	100.0	3.2	
학력							48.767 (3)***
고졸 이하	27.5	63.6	7.8	1.0	100.0	3.2	
대재 이상	29.8	59.0	9.9	1.3	100.0	3.2	
직업							42.866 (9)***
관리전문직	31.5	57.4	9.8	1.3	100.0	3.2	
사무판매서비스	29.3	59.7	9.8	1.3	100.0	3.2	
농림생산직	26.6	63.6	8.4	1.4	100.0	3.2	
비경제활동인구	28.4	62.8	7.9	0.9	100.0	3.2	
종교							8.145 (3)*
없음	28.7	61.4	9.0	1.0	100.0	3.2	
있음	28.8	61.0	8.7	1.5	100.0	3.2	
정치 성향							63.121 (9)***
보수	28.6	59.3	10.7	1.4	100.0	3.2	
중도	28.4	61.7	8.7	1.3	100.0	3.2	
진보	33.0	57.4	8.8	0.9	100.0	3.2	
무관심	26.8	64.1	8.1	1.0	100.0	3.2	
국가 목표							7.081 (6)
물질주의	28.4	61.0	9.2	1.4	100.0	3.2	
탈물질주의	30.6	59.7	8.6	1.1	100.0	3.2	
혼합형	28.7	61.6	8.7	1.0	100.0	3.2	
공동체 이익							31.705 (6)***
공동체 이익 중요	29.3	61.7	7.3	1.6	100.0	3.2	
개인 이익 중요	27.4	59.8	11.1	1.7	100.0	3.1	
둘 다 중요	28.8	61.4	8.7	1.0	100.0	3.2	

[그림 3-112] 학교 정규수업에 인권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찬성률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4)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개선해야 한다. 약자/소수자에 편견과 혐오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포용적이고 관용적인지는 인권침해와 차별 발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간명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사회적 거리감인데 '수용 가능한 사회적 접촉의 범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가족, 이웃, 친구 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로 측정된다.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거리감은 공적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약자/소수자가 선출직 정치인(지자체 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지 파악한다. 정치과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표출되는 갈등을 조정, 합의에 이르는 것이므로 약자/소수자의 이해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스스로 정치에 진출하고 대표자로 선출되어야 한다. 선출직 정치인 약자/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크다면 이들의 권리는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적 관계인 선출직 정치인으로서 약자/소수자에 대해 어느 정도 불편하게 느끼는지를 질문하였다.

(1) 선출직 정치인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시계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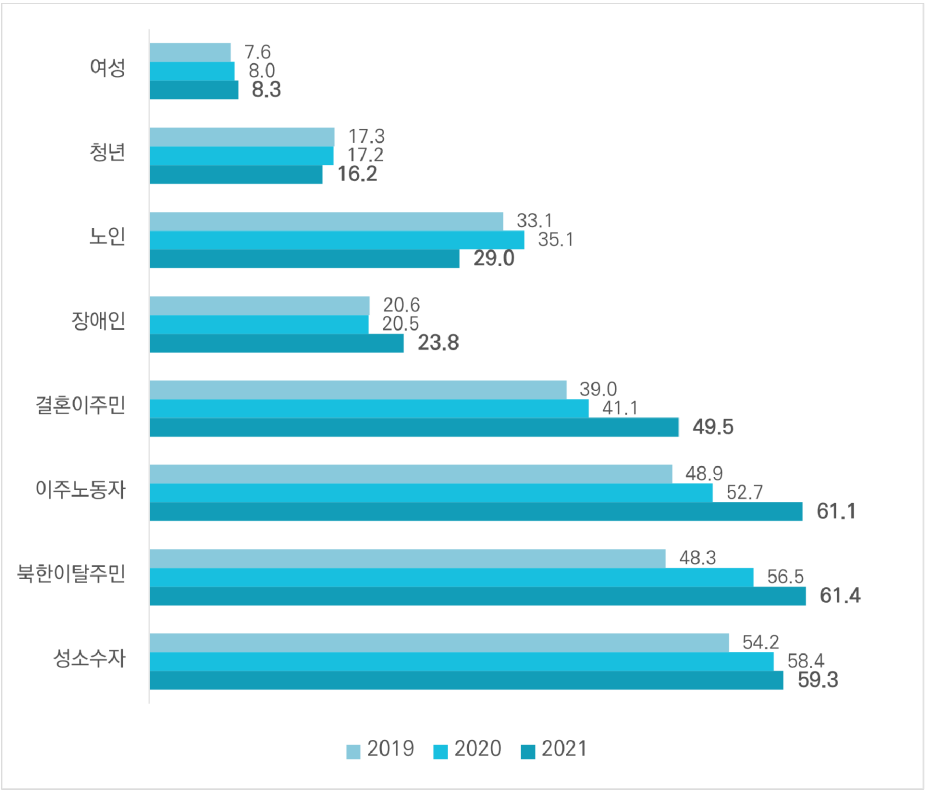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다양한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관용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한 결과,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집단은 북한이탈주민(61.4%), 이주노동자(61.1%), 성소수자(59.3%), 결혼이주민(49.5%)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8.3%)과 청년(16.2%)은 불편함을 느낀다는 비율이 높지 않아서 사회적 거리감이 낮게 나타났다. 선출직 정치인으로서 장애인(23.8%)과 노인(29.0%)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는 비율은 23~29%로 중간 이하 수준이다.

2019~2021년 사이에 청년과 노인을 제외하고 약자/소수자에 대한 거리감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0년과 비교해서 가장 변화의 폭이 큰 집단은 이주노동자(+8.4%p 증가), 결혼이주민(+8.4%p 증가)이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은 +4.9%p,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은 +3.3%p 증가하였다. 반면 노인에 대한 거리감은 6.1%p 감소하였다.

여성, 청년, 성소수자의 경우에는 시계열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적 거리감에 커다란 변화가 없는데, 여성과 청년은 거리감이 낮은 상태에서 변화가 별로 없고, 성소수자는 거리감이 높은 상태에서 변화가 별로 없다.

[그림 3-113] 선출직 정치인 약자/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시계열 추이

(단위 : %)



(2)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국제비교

유럽위원회가 2019년에 실시한 Eurobarometer 특별보고서에서 사회적 약자/소수자가 최고위급 정치인이 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반응은 사회적 약자/소수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각 국가별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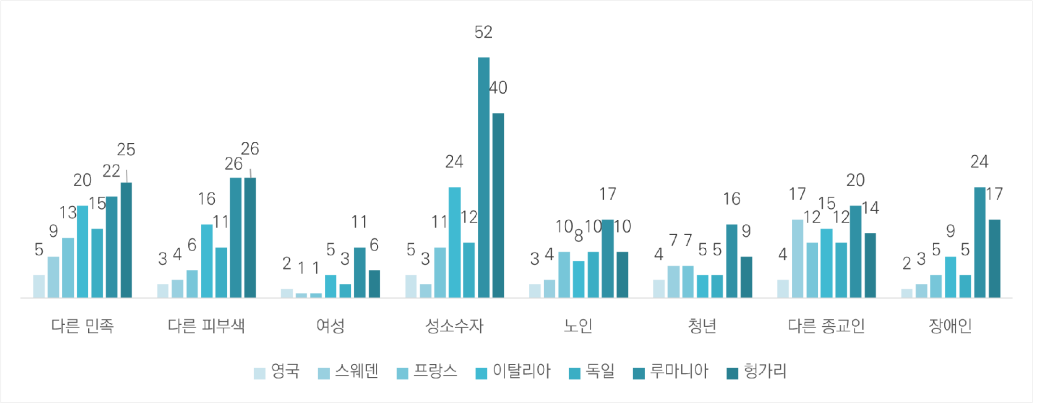
제시된 사회적 약자/소수자는 민족.피부색, 집시, 성별, 성적 지향성, 연령, 종교.신념, 장애였으나 이중 민족, 피부색, 여성, 성소수자, 청년, 노인, 종교. 장애인이 최고위급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보였다. 응답 범주가 '매우 불편하다(totally uncomfortable), '다소 편하다(moderately comfortable)', '매우 편하다(totally comfortable)'의 3개 범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4개 범주로 구성된 국가인권실태조사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여러 사회적 약자/소수자 중에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10% 이하

로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루마니아, 헝가리에서는 성소수자가 최고위급 정치인이 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40% 이상을 차지한다. 전반적으로 영국,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정치적 진출에 대한 불편함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편이다. 반면 루마니아, 헝가리는 다른 국가들보다 불편하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사회적 거리감이 큰 편이다.

[그림 3-114] 최고위급 정치인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국제비교

(단위 : %)



출처: European Commission(2019), Special Eurobarometer Report 493: Discrimination in the European Union.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북한이탈주민,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이주(migration)를 통해 해당 사회에 정주하게 되었지만 주변부에 위치하게 된 집단이다. 이주민의 인종적, 사회적 특성과 함께 지역내부인의 태도와 반응으로 인해 이주민에 대한 배타성은 다르게 형성된다.

북한이탈주민이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매우+다소)는 의견은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020년 선거에서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후보가 선출직 정치인(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례가 있다.

배경 요인별로 남성보다는 여성, 60대 이상 노인층,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층, 직업별로는 농림생산직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 종교가 있는 경우,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층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치 성향에서 물질주의 성향은 북한이탈주민이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반면 탈물질주의 성향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치적 대표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불편해하고 있다. 또한 개인 이익 중시 성향은 북한이탈주민이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불편해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다른 집단보다 불편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집단은 60대 이상의 여성층(73.3%),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농림생산직 및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56.8%), 그리고 종교가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67.7%)을 가진 사람들이다.

〈표 3-57〉 선출직 정치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

(단위 : %)

구분	매우 불편	다소 불편	별로 불편하지 않음	전혀 불편하지 않음	평균 (4점)	X^2 (df)
전체	20.2	41.2	28.5	10.1	2.3	
성별						
남자	19.8	39.6	29.9	10.7	2.3	31.079 (3)***
여자	20.6	42.8	27.1	9.5	2.3	
연령						
20-30대	17.8	39.6	30.1	12.5	2.4	334.874 (6)***
40-50대	17.2	41.1	30.9	10.8	2.4	
60대 이상	26.9	43.3	23.4	6.4	2.1	
학력						
고졸 이하	23.9	43.6	25.0	7.5	2.2	325.406 (3)***
대재 이상	16.6	39.0	31.8	12.6	2.4	
직업						
관리전문직	15.4	34.4	34.0	16.3	2.5	217.874 (9)***
사무판매서비스	18.1	41.7	29.8	10.4	2.3	
농림생산직	23.7	41.4	26.7	8.2	2.2	
비경제활동인구	21.9	42.7	26.6	8.9	2.2	
종교						
없음	19.3	41.3	29.2	10.3	2.3	17.298 (3)**
있음	21.7	41.1	27.4	9.8	2.3	
정치 성향						
보수	24.2	42.3	25.3	8.1	2.2	120.612 (9)***
중도	17.3	41.4	30.7	10.5	2.3	
진보	18.0	41.2	28.6	12.2	2.4	
무관심	22.1	40.3	27.9	9.7	2.3	
국가 목표						
물질주의	23.0	40.9	27.4	8.8	2.2	119.153 (6)***
탈물질주의	16.7	37.2	29.0	17.1	2.5	
혼합형	18.9	41.9	29.1	10.0	2.3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익 중요	22.3	39.6	27.6	10.5	2.3	56.436 (6)***
개인 이익 중요	22.7	43.8	27.0	6.5	2.2	
둘 다 중요	19.4	41.0	28.9	10.6	2.3	

[그림 3-115] 선출직 정치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3)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이주노동자가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매우+다소)는 의견은 61.1%로 높게 나타났고, 2020년에 비해 사회적 거리감이 +8.4%p의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배경 요인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 60대 이상 노인층,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저학력층, 직업별로는 농림생산직 및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 종교가 있는 경우,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주노동자가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물질주의 성향은 이주노동자가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반면 탈물질주의 성향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편이다.

특히 60대 이상의 남성(67.9%) 및 60대 이상의 여성(73.2%),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농림생산직(56.7%) 및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57.1%), 종교가 있는 정치적 보수 성향(70.9%), 그리고

종교가 없는 정치적 보수 성향층(66.5%)에서는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서 선출직 정치인으로서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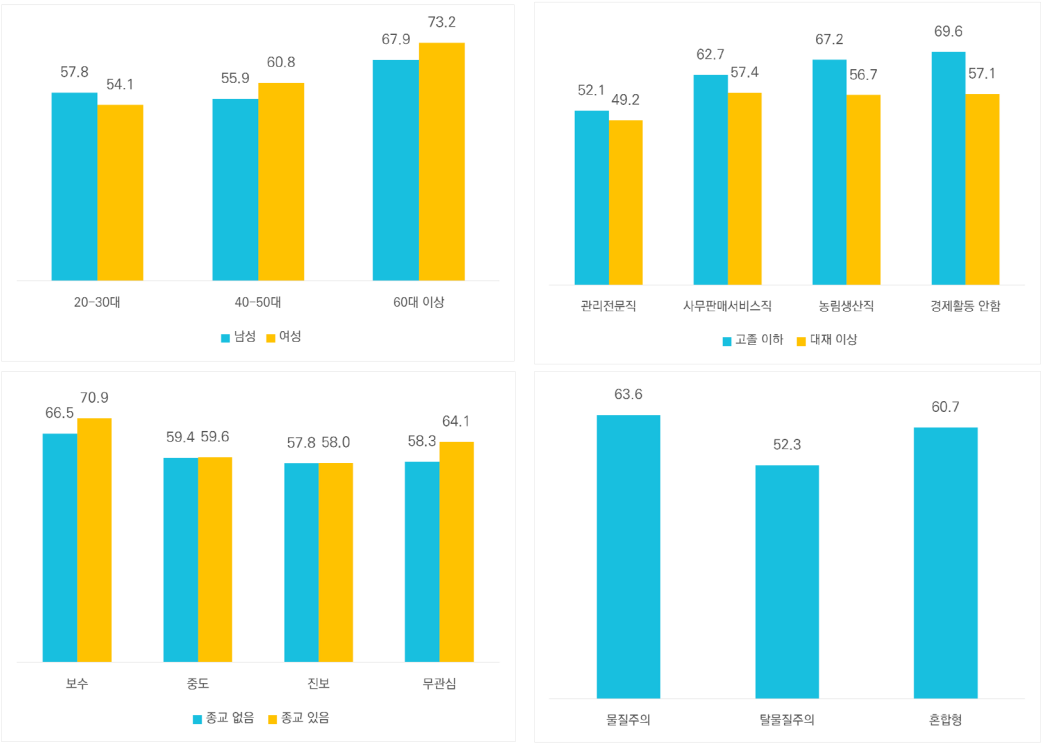
〈표 3-58〉 선출직 정치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거리감

(단위 : %)

구분	매우 불편	다소 불편	별로 불편하지 않음	전혀 불편하지 않음	평균 (4점)	X^2 (df)
전체	18.5	42.6	28.2	10.6	2.3	
성별						
남자	18.4	41.3	29.0	11.3	2.3	17.789 (3)***
여자	18.6	43.9	27.4	10.0	2.3	
연령						
20-30대	15.6	40.5	30.3	13.6	2.4	405.946 (6)***
40-50대	15.8	42.5	30.5	11.1	2.4	
60대 이상	25.5	45.3	22.6	6.6	2.1	
학력						
고졸 이하	21.9	44.9	25.3	7.9	2.2	293.098 (3)***
대재 이상	15.3	40.5	31.0	13.3	2.4	
직업						
관리전문직	14.2	35.3	32.8	17.7	2.5	239.175 (9)***
사무판매서비스	16.4	42.9	29.8	10.9	2.4	
농림생산직	22.3	42.3	26.3	9.1	2.2	
비경제활동인구	20.0	44.7	26.2	9.0	2.2	
종교						
없음	17.8	42.1	29.1	10.9	2.3	21.219 (3)***
있음	19.7	43.5	26.6	10.2	2.3	
정치 성향						
보수	23.4	45.2	23.4	8.0	2.2	158.935 (9)***
중도	16.4	43.1	29.5	11.0	2.4	
진보	15.6	42.3	28.9	13.3	2.4	
무관심	19.5	40.7	29.3	10.5	2.3	
국가 목표						
물질주의	21.2	42.3	26.8	9.6	2.2	121.867 (6)***
탈물질주의	15.3	37.0	30.0	17.7	2.5	
혼합형	17.2	43.5	28.8	10.4	2.3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익 중요	21.2	42.7	25.7	10.3	2.3	54.831 (6)***
개인 이익 중요	20.2	44.9	27.7	7.1	2.2	
둘 다 중요	17.8	42.3	28.7	11.3	2.3	

[그림 3-116] 선출직 정치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거리감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4) 결혼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결혼이주민이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매우+다소)는 의견은 49.5%로 나타났고, 2020년에 비해 거리감이 8.4%p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결혼이주민 출신 후보가 선출직 정치인에 당선된 사례가 있고, 2010년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결혼이주민 출신 후보가 당선되었다.

배경 요인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 60대 이상 노인층,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층, 직업별로는 농림생산직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 종교가 있는 경우, 정치적 보수 성향층에서 결혼이주민이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을 더 많이 불편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 지향에서는 물질주의 성향은 결혼이주민이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비율이 52.2%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반면 탈물질주의 성향(44.6%)은 결혼이주민에 대한 거리감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편이

다. 특히 60대 이상 남성 및 여성, 고등학교 졸업 이하 농림생산직 및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 종교가 있는 정치적 보수 성향층에서는 다른 인구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거리감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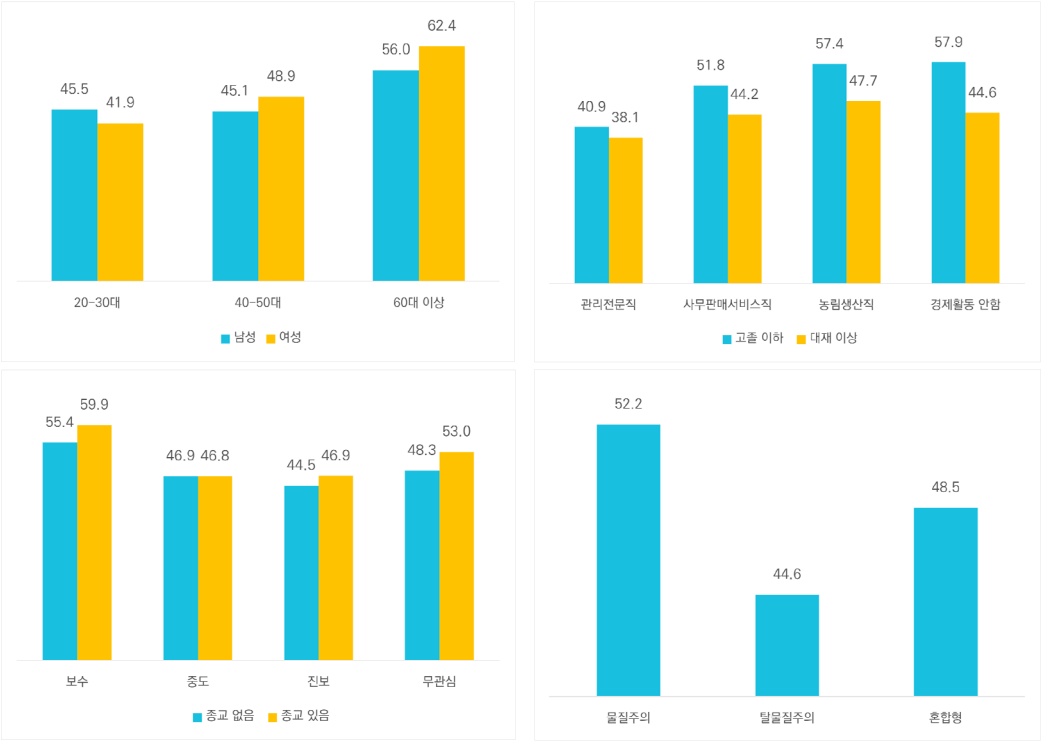
〈표 3-59〉 선출직 정치인 결혼이주민에 대한 거리감

(단위 : %)

구분	매우 불편	다소 불편	별로 불편하지 않음	전혀 불편하지 않음	평균 (4점)	X^2 (df)
전체	13.0	36.5	36.7	13.8	2.5	
성별						18.918 (3)***
남자	12.6	35.5	37.2	14.7	2.5	
여자	13.4	37.5	36.2	12.9	2.5	
연령						409.061 (6)***
20-30대	10.6	33.2	38.8	17.5	2.6	
40-50대	10.8	36.2	38.7	14.3	2.6	
60대 이상	18.7	40.8	31.5	9.0	2.3	
학력						318.582 (3)***
고졸 이하	15.4	40.4	33.7	10.5	2.4	
대재 이상	10.7	32.8	39.5	17.0	2.6	
직업						228.812 (9)***
관리전문직	9.9	28.6	40.4	21.1	2.7	
사무판매서비스	11.1	35.7	39.0	14.2	2.6	
농림생산직	15.8	39.2	33.2	11.8	2.4	
비경제활동인구	14.4	38.3	35.0	12.3	2.5	
종교						24.855 (3)***
없음	12.2	36.0	37.7	14.1	2.5	
있음	14.3	37.3	35.0	13.4	2.5	
정치 성향						173.436 (9)***
보수	16.2	41.3	32.2	10.2	2.4	
중도	10.7	36.1	38.0	15.2	2.6	
진보	11.0	34.4	38.4	16.3	2.6	
무관심	14.6	35.2	37.0	13.1	2.5	
국가 목표						87.545 (6)***
물질주의	14.7	37.5	35.0	12.8	2.5	
탈물질주의	12.1	32.5	34.6	20.8	2.6	
혼합형	12.0	36.4	37.9	13.6	2.5	
공동체 이익						69.824 (6)***
공동체 이익 중요	15.5	39.0	32.7	12.8	2.4	
개인 이익 중요	13.7	39.8	36.7	9.9	2.4	
둘 다 중요	12.5	35.6	37.3	14.6	2.5	

[그림 3-117] 선출직 정치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거리감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5)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성소수자에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매우+다소)는 의견은 59.3%로 높게 나타났으며, 2020년의 58.4%와 큰 차이 없이 사회적 거리감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배경 요인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 60대 이상 노인층,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층, 직업별로는 농림생산직 및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 종교가 있는 경우,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성소수자가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는 응답이 더 높다. 또한 가치 지향에서는 물질주의 성향은 성소수자가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비율이 62.5%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반면 탈물질주의 성향은 사회적 거리감이 53.8%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특히 60대 이상 남성 및 여성,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농림생산직 및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

단, 종교가 있는 정치적 보수 성향층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높은 거리감을 보였다. 반면 20-30대 여성, 대학교 재학 이상의 전문관리직(44.5%)은 성소수자의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한 거리감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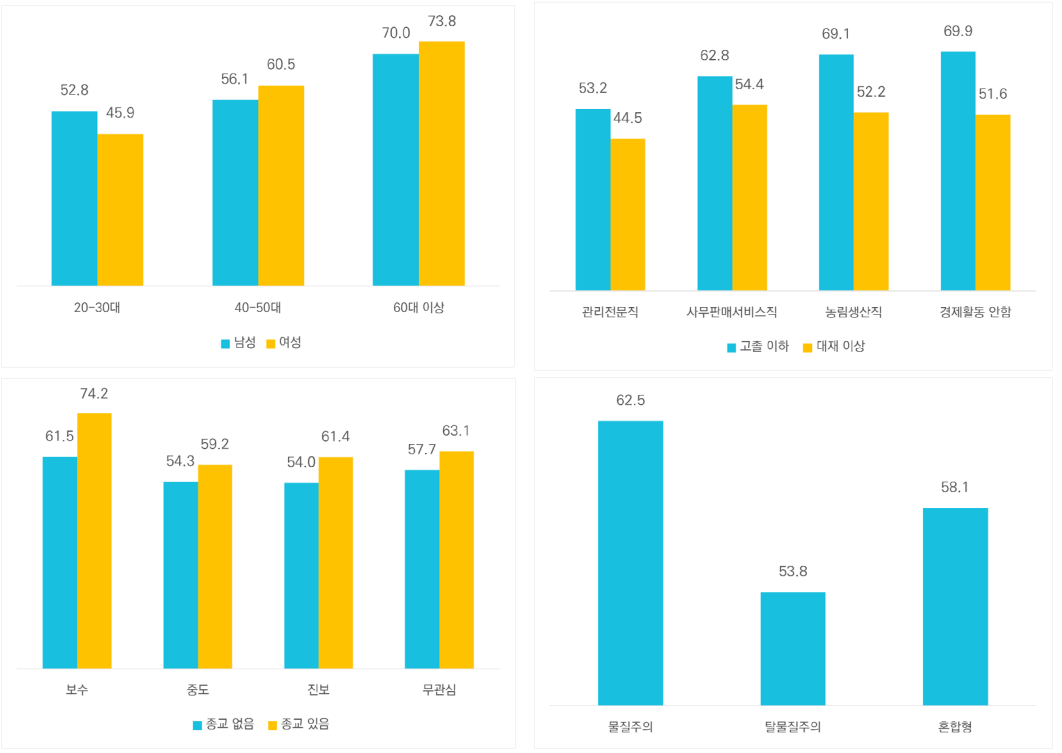
〈표 3-60〉 선출직 정치인 성소수자에 대한 거리감

(단위 : %)

구분	매우 불편	다소 불편	별로 불편하지 않음	전혀 불편하지 않음	평균 (4점)	X^2 (df)
전체	24.2	35.1	28.1	12.6	2.3	
성별						11.538 (3)**
남자	24.1	34.4	29.2	12.2	2.3	
여자	24.3	35.8	27.0	12.9	2.3	
연령						710.146 (6)***
20-30대	19.5	30.0	31.8	18.7	2.5	
40-50대	22.3	36.0	29.7	12.0	2.3	
60대 이상	32.3	39.8	21.4	6.5	2.0	
학력						549.740 (3)***
고졸 이하	28.3	39.1	24.5	8.0	2.1	
대재 이상	20.3	31.3	31.5	17.0	2.5	
직업						289.805 (9)***
관리전문직	18.3	27.2	33.5	21.0	2.6	
사무판매서비스	22.2	35.1	29.6	13.2	2.3	
농림생산직	27.3	37.6	26.0	9.1	2.2	
비경제활동인구	26.5	36.3	26.0	11.3	2.2	
종교						117.908 (3)***
없음	22.1	34.3	30.0	13.5	2.3	
있음	27.7	36.5	24.8	11.0	2.2	
정치 성향						207.343 (9)***
보수	30.0	37.6	23.8	8.6	2.1	
중도	21.6	34.5	30.7	13.2	2.4	
진보	22.0	34.8	26.2	17.0	2.4	
무관심	24.9	34.5	28.7	11.9	2.3	
국가 목표						164.377 (6)***
물질주의	27.9	34.6	26.6	10.9	2.2	
탈물질주의	22.6	31.2	24.9	21.3	2.4	
혼합형	22.2	35.9	29.3	12.6	2.3	
공동체 이익						97.970 (6)***
공동체 이익 중요	28.2	37.8	23.3	10.7	2.2	
개인 이익 중요	27.1	34.9	29.6	8.4	2.2	
둘 다 중요	23.1	34.7	28.5	13.6	2.3	

[그림 3-118] 선출직 정치인 성소수자에 대한 거리감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6)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전통적인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는 장애인이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매우+다소)는 의견은 23.8%, 불편하지 않다(매우+다소)는 의견은 76.2%로, 불편하다는 의견은 불편하지 않다는 의견의 약 1/3 수준이다.

배경 요인별로는 종교가 있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으며, 남성보다는 여성, 60대 이상의 고연령층,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층, 직업별로는 농림생산직,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과 무관심층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물질주의 성향(24.9%)은 탈물질주의 성향(21.3%)에 비해서 장애인이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개인 이익 중시 성향은 공동체 이익 중시 성향에 비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남성 및 여성,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농림생산직 및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 종교가 없는 보수적 성향, 종교가 없는 무관심층 및 종교가 있는 무관심층에서 장애인의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더 강하게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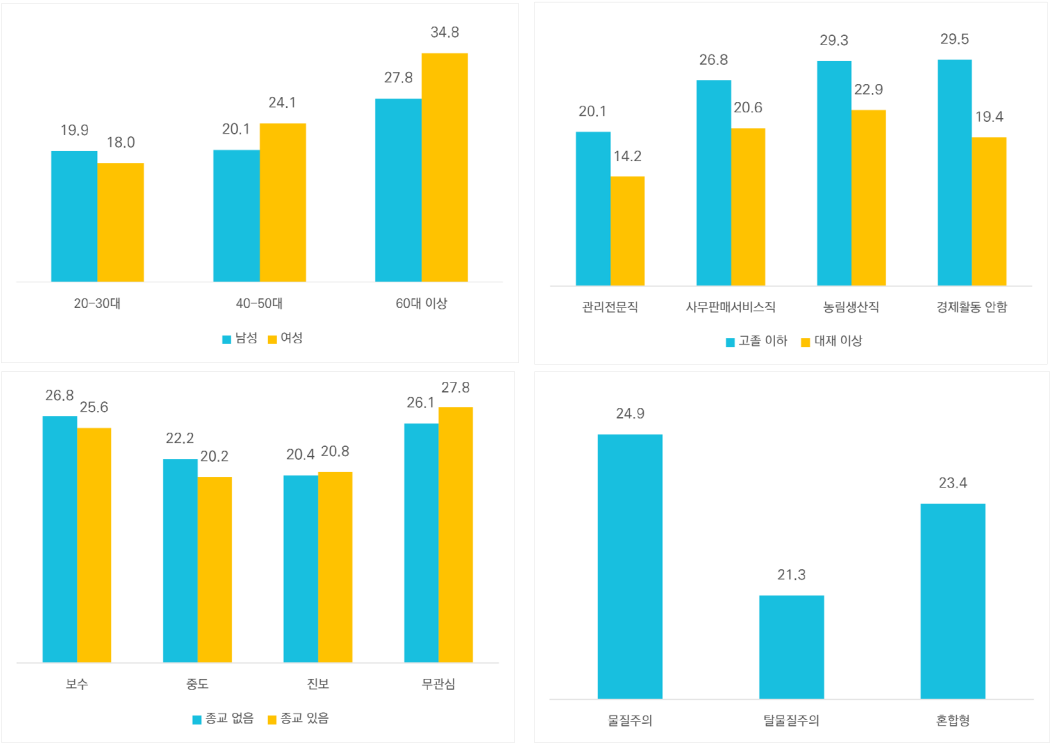
〈표 3-61〉 선출직 정치인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

(단위 : %)

구분	매우 불편	다소 불편	별로 불편하지 않음	전혀 불편하지 않음	평균 (4점)	X^2 (df)
전체	3.8	20.0	49.8	26.4	3.0	
성별						30.028 (3)***
남자	3.6	18.4	50.9	27.1	3.0	
여자	4.0	21.6	48.7	25.8	3.0	
연령						352.685 (6)***
20-30대	3.0	16.0	49.7	31.3	3.1	
40-50대	3.1	18.9	50.5	27.5	3.0	
60대 이상	5.6	26.1	49.0	19.3	2.8	
학력						329.656 (3)***
고졸 이하	4.7	23.8	50.3	21.2	2.9	
대재 이상	2.9	16.4	49.4	31.4	3.1	
직업						244.026 (9)***
관리전문직	2.3	12.7	46.8	38.3	3.2	
사무판매서비스	3.4	19.3	49.8	27.5	3.0	
농림생산직	4.5	23.2	50.9	21.4	2.9	
비경제활동인구	4.3	21.2	50.2	24.3	2.9	
종교						5.492 (3)
없음	3.8	20.1	50.3	25.8	3.0	
있음	3.8	19.8	49.0	27.4	3.0	
정치 성향						150.660 (9)***
보수	4.4	21.8	50.7	23.1	2.9	
중도	2.7	18.8	49.9	28.6	3.0	
진보	4.0	16.5	47.8	31.6	3.1	
무관심	4.5	22.1	50.2	23.1	2.9	
국가 목표						42.339 (6)***
물질주의	4.1	20.9	48.9	26.2	3.0	
탈물질주의	3.1	18.3	45.1	33.6	3.1	
혼합형	3.7	19.7	50.9	25.7	3.0	
공동체 이익						138.836 (6)***
공동체 이익 중요	3.8	23.5	48.4	24.3	2.9	
개인 이익 중요	5.8	25.9	48.0	20.3	2.8	
둘 다 중요	3.5	18.5	50.3	27.7	3.0	

[그림 3-119] 선출직 정치인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7) 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지역구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은 17대 50.8세, 18대 53.2세, 19대 54.5세, 20대 55.7세, 21대 54.9세이다. 2018년 광역단체장 후보의 평균 연령은 55.4세, 기초단체장 후보의 평균 연령은 58.3세였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이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매우+다소)는 의견은 29.0%인 반면 불편하지 않다(매우+다소)는 의견은 71.0%로 나타났다.

배경 요인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 60대 이상 노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층, 직업별로는 농림생산직, 종교가 있는 경우,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사람들 중에서 노인이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60대 이상 노인층에서 노인 정치인에 대한 거리감을 보인 비율은 34.5%로 나타났다. 또한 물질주의 성향은 노인이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고 탈물질주의 성향은 노인 정치인에 대한 거리감이 상대

적으로 낮은 편이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37.5%), 고등학교 졸업 이하 농림생산직(36.3%), 종교가 있는 정치 무관심층(35.3%)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감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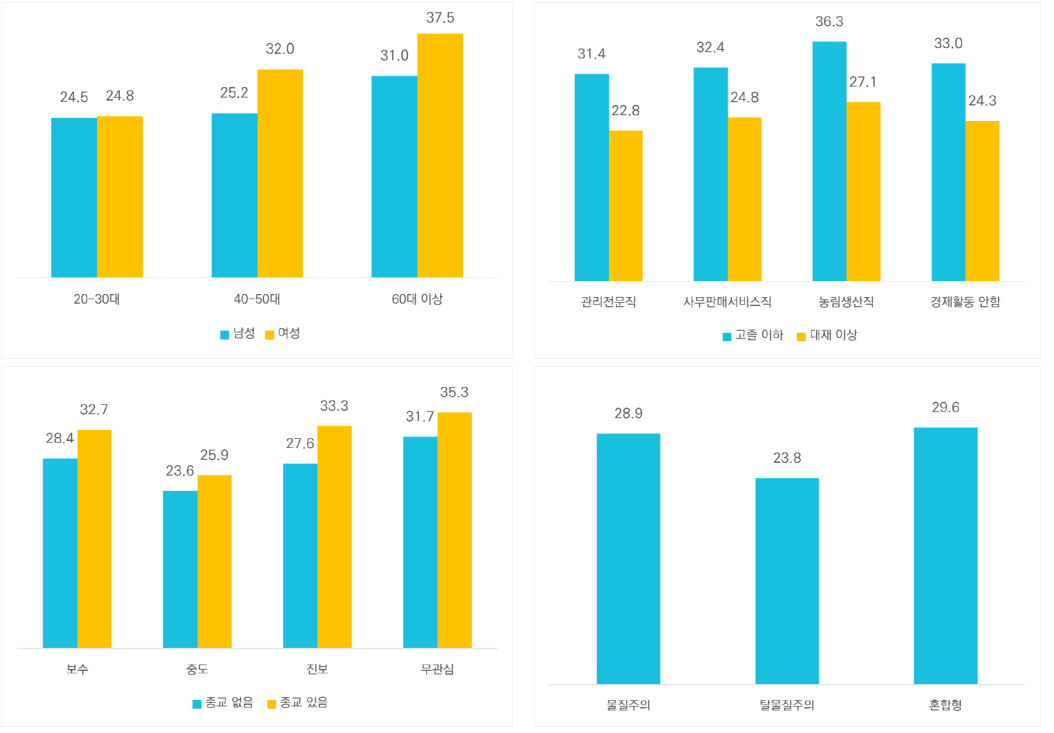
〈표 3-62〉 선출직 정치인 노인에 대한 거리감

(단위 : %)

구분	매우 불편	다소 불편	별로 불편하지 않음	전혀 불편하지 않음	평균 (4점)	X^2 (df)
전체	4.6	24.4	44.4	26.6	2.9	
성별						56.661 (3)***
남자	4.5	21.9	45.9	27.6	3.0	
여자	4.7	26.7	42.9	25.7	2.9	
연령						204.507 (6)***
20-30대	3.5	21.2	44.6	30.7	3.0	
40-50대	4.6	24.0	43.9	27.6	2.9	
60대 이상	6.0	28.5	44.9	20.6	2.8	
학력						249.480 (3)***
고졸 이하	5.5	28.2	44.1	22.3	2.8	
대재 이상	3.8	20.7	44.7	30.8	3.0	
직업						152.712 (9)***
관리전문직	4.3	19.5	41.5	34.6	3.1	
사무판매서비스	4.3	23.1	44.2	28.4	3.0	
농림생산직	5.7	28.3	45.1	20.9	2.8	
비경제활동인구	4.5	25.0	45.1	25.4	2.9	
종교						30.232 (3)***
없음	4.3	23.4	45.6	26.8	2.9	
있음	5.2	26.0	42.4	26.4	2.9	
정치 성향						149.018 (9)***
보수	5.1	25.4	44.9	24.6	2.9	
중도	3.7	20.7	45.6	30.0	3.0	
진보	4.9	24.9	41.4	28.9	2.9	
무관심	5.3	27.6	44.3	22.8	2.8	
국가 목표						37.619 (6)***
물질주의	5.2	23.7	45.5	25.6	2.9	
탈물질주의	3.6	20.3	44.7	31.5	3.0	
혼합형	4.4	25.2	43.7	26.7	2.9	
공동체 이익						91.700 (6)***
공동체 이익 중요	6.1	28.5	42.6	22.8	2.8	
개인 이익 중요	5.9	24.0	48.4	21.6	2.9	
둘 다 중요	4.2	23.8	44.0	28.0	3.0	

[그림 3-120] 선출직 정치인 노인에 대한 거리감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8) 청년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17대 이래 20대까지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이 계속 높아지자 청년 정치에 대한 언론 보도들이 있었다. 그러나 나이 기준의 위계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풍부한 경륜이 있는 정치인에 대한 선호가 강한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이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매우+다소)는 16.2%인 반면 불편하지 않다(매우+다소)는 의견은 83.8%로 나타났다.

배경 요인별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으며, 60대 이상 노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층, 직업별로는 농림생산직, 종교가 있는 경우, 정치적 보수 성향 중에서 청년이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20-30대에서 청년 정치인에 대한 거리감은 14.0%로 나타났다. 또한 물질주의 성향(18.5%)은 청년의 선출직 정치 진출에 대해 불편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탈물질주의 성향(12.9%)은 청년 정치인에 대한 거리감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

특히 60대 이상 남성(18.5%)과 여성(18.2%), 고등학교 졸업 이하 사무판매서비스직(18.5%)과 관리전문직(18.0%), 종교가 있는 보수층(21.7%)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감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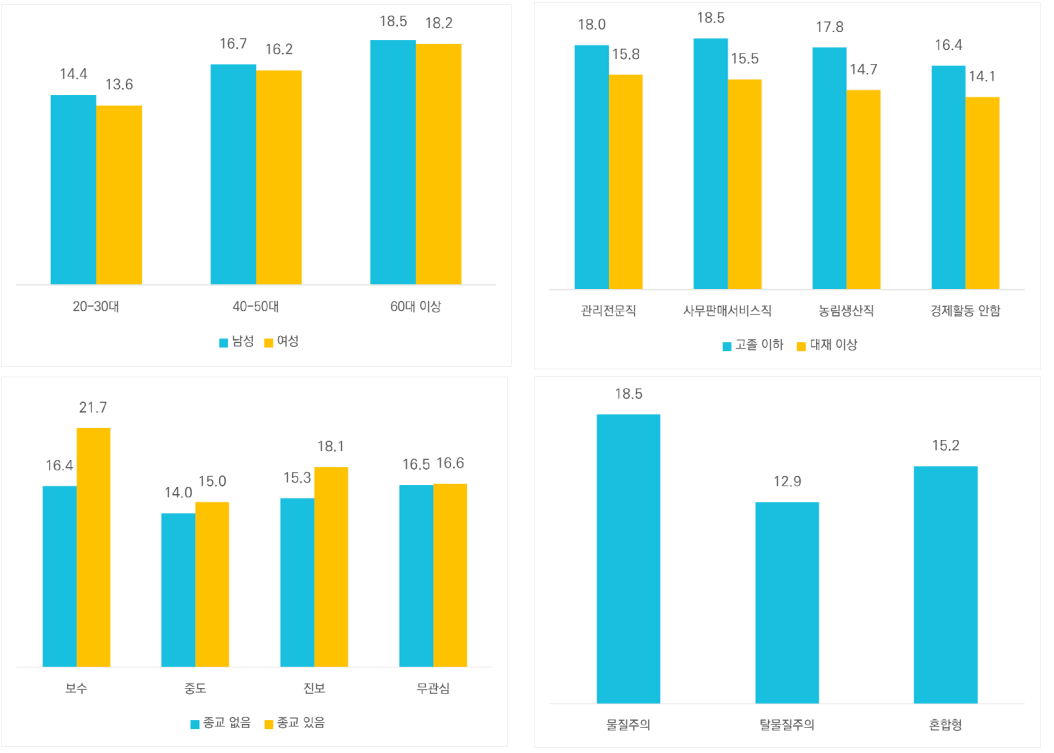
〈표 3-63〉 선출직 정치인 청년에 대한 거리감의 배경 요인별 비교

(단위 : %)

구분	매우 불편	다소 불편	별로 불편하지 않음	전혀 불편하지 않음	평균 (4점)	X^2 (df)
전체	2.8	13.4	45.4	38.4	3.2	
성별						6.377 (3)
남자	3.1	13.3	44.9	38.7	3.2	
여자	2.5	13.5	45.8	38.1	3.2	
연령						139.254 (6)***
20-30대	2.9	11.1	42.6	43.4	3.3	
40-50대	2.9	13.6	45.5	38.0	3.2	
60대 이상	2.6	15.8	48.4	33.2	3.1	
학력						124.482 (3)***
고졸 이하	2.5	14.9	48.0	34.6	3.1	
대재 이상	3.1	12.0	42.8	42.1	3.2	
직업						75.235 (9)***
관리전문직	3.3	12.7	42.3	41.6	3.2	
사무판매서비스	3.4	13.1	43.9	39.6	3.2	
농림생산직	2.2	14.8	49.8	33.2	3.1	
비경제활동인구	2.3	13.2	45.5	38.9	3.2	
종교						20.461 (3)***
없음	2.9	12.5	45.9	38.7	3.2	
있음	2.7	14.9	44.5	38.0	3.2	
정치 성향						89.876 (9)***
보수	3.1	15.8	46.0	35.1	3.1	
중도	2.5	11.8	44.8	40.9	3.2	
진보	3.6	12.8	41.9	41.7	3.2	
무관심	2.5	14.0	47.6	35.9	3.2	
국가 목표						70.037 (6)***
물질주의	3.0	15.5	45.5	36.0	3.1	
탈물질주의	1.6	11.3	41.7	45.4	3.3	
혼합형	2.8	12.4	45.7	39.1	3.2	
공동체 이익						123.598 (6)***
공동체 이익 중요	4.7	17.2	43.2	34.9	3.1	
개인 이익 중요	3.7	16.2	47.2	32.9	3.1	
둘 다 중요	2.4	12.4	45.4	39.9	3.2	

[그림 3-121] 선출직 정치인 청년에 대한 거리감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9) 여성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국회의원 중 여성의 비율이 20%를 넘지는 못하지만 여성의 정치 진출은 이전부터 시도되었고 다른 약자/소수자에 비해서 여성 후보의 공천도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매우+다소)은 8.3%로 낮게 나타났다.

배경 요인별로는 여성보다는 남성, 60대 이상 고령층, 고등학교 졸업 이하, 농림생산직, 정치적 무관심층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감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11.2%),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사무판매서비스직과 농림생산직(10.4%), 종교가 없는 정치적 보수 성향층(10.4%)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감이 높다. 또한 가치 지향에서는 물질주의 성향은 여성 선출직 정치인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반면 탈물질주의 성향은 여성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거리감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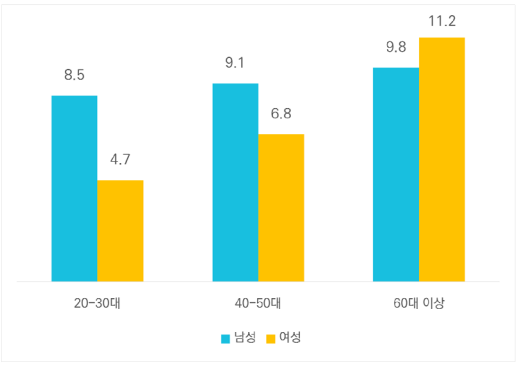
〈표 3-64〉 선출직 정치인 여성에 대한 거리감의 배경 요인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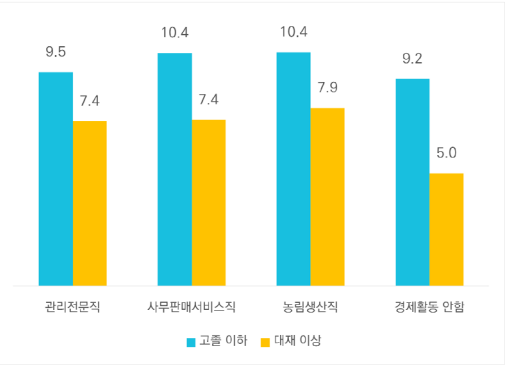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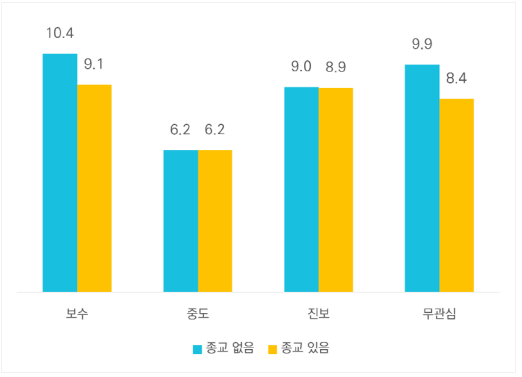
구분	매우 불편	다소 불편	별로 불편하지 않음	전혀 불편하지 않음	평균 (4점)	X^2 (df)
전체	1.0	7.3	45.7	91.7	3.4	
성별						44.658 (3)***
남자	1.2	7.9	47.3	90.9	3.3	
여자	0.8	6.7	44.2	92.5	3.4	
연령						166.260 (6)***
20-30대	1.1	5.6	42.5	93.3	3.4	
40-50대	0.8	7.2	45.4	92.0	3.4	
60대 이상	1.2	9.4	49.9	89.4	3.3	
학력						180.861 (3)***
고졸 이하	1.0	8.9	49.0	90.1	3.3	
대재 이상	1.0	5.8	42.6	93.2	3.4	
직업						113.490 (9)***
관리전문직	1.2	6.5	39.9	92.4	3.4	
사무판매서비스	0.9	7.5	43.9	91.6	3.4	
농림생산직	1.3	8.5	51.4	90.2	3.3	
비경제활동인구	0.9	6.7	46.4	92.4	3.4	
종교						5.314 (3)
없음	1.0	7.6	45.9	91.5	3.4	
있음	1.1	6.8	45.3	92.1	3.4	
정치 성향						105.294 (9)***
보수	1.6	8.2	47.2	90.2	3.3	
중도	0.6	5.5	45.3	93.8	3.4	
진보	1.1	7.8	41.6	91.1	3.4	
무관심	1.0	8.4	47.5	90.6	3.3	
국가 목표						74.824(6)***
물질주의	1.4	8.2	46.7	43.7	3.3	
탈물질주의	1.1	4.7	39.4	54.8	3.5	
혼합형	0.7	7.1	45.9	46.3	3.4	
공동체 이익						197.773(6)***
공동체 이익 중요	1.5	11.6	44.3	42.6	3.3	
개인 이익 중요	1.8	11.4	47.8	39.0	3.2	
둘 다 중요	0.8	6.0	45.6	47.7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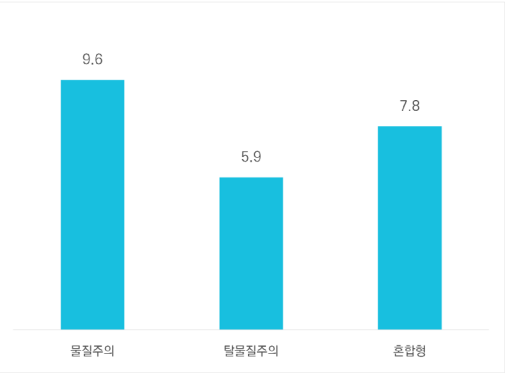
[그림 3-122] 선출직 정치인 여성에 대한 거리감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5) 혐오표현의 경험 및 대응

(1) 혐오표현에 노출된 경험 및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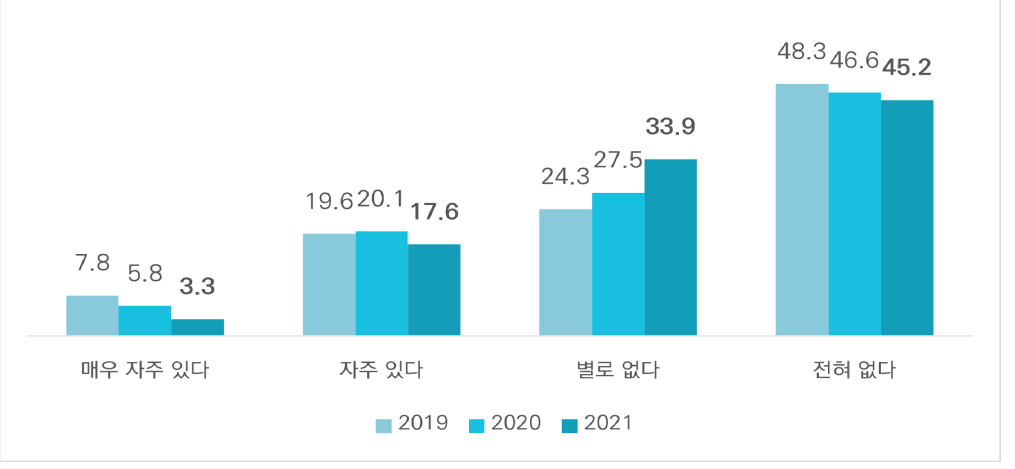
① 혐오표현에 노출된 경험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다'(매우+자주+별로)는 응답은 54.8%이고, '자주 있다'(매우+자주)는 경우는 20.9%를 차지한 반면 응답자의 45.2%는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2019년 48.3%에서 2020년 46.6%로 근소하게 감소하였고 2021년에도 45.2%로 다시 근소하게 감소하였다. '매우 자주 있다'는 응답은 2019년 7.8%, 2020년 5.8%에서 2021년 3.3%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자주 있다'는 응답은 2019년 19.6%에서 2020년 20.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 17.6%로 근소하게 감소하였다. 반면 '별로 없다'는 2019년 24.3%에서 2020년 27.5%, 그리고 2021년 33.9%로 약 10%p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혐오표현 노출 경험은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3-123] 혐오표현의 노출 경험 시계열 추이

(단위 : %)



배경 요인별로 종교에 따른 차이는 없으며, 여성보다는 남성, 저연령층일수록, 대재 이상,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과 사무판매서비스직, 정치적 진보 성향층에서 상대적으로 혐오표현에 노출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물질주의 성향(62.2%)은 물질주의 성향(51.2%)에 비해서 혐오표현 노출 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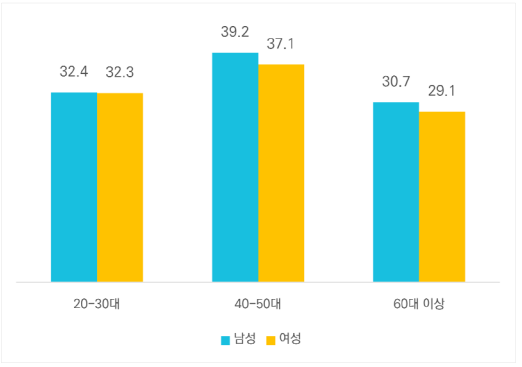
〈표 3-65〉 혐오표현 노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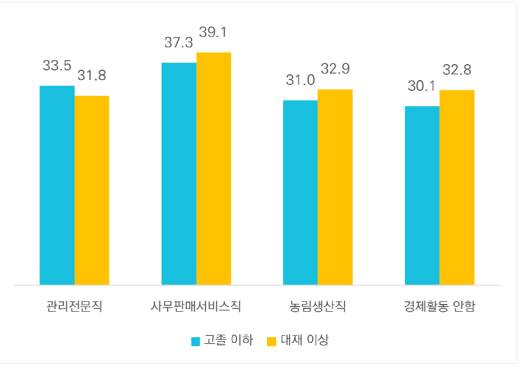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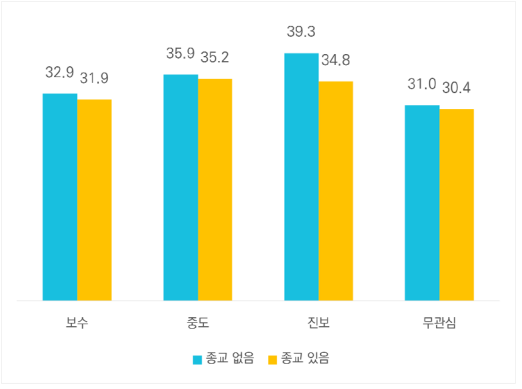
구분	매우 자주있다	자주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평균 (4점)	X^2 (df)
전체	3.3	17.6	33.9	45.2	3.2	
성별						
남자	3.5	17.9	34.6	43.9	3.2	11.295 (3)*
여자	3.2	17.2	33.2	46.4	3.2	
연령						
20-30대	7.4	24.0	32.4	36.3	3.0	1,016.997 (6)***
40-50대	1.8	16.6	38.2	43.4	3.2	
60대 이상	0.8	11.5	29.8	57.9	3.4	
학력						
고졸 이하	1.3	13.1	32.2	53.4	3.4	673.359 (3)***
대재 이상	5.3	21.9	35.5	37.3	3.0	
직업						
관리전문직	6.9	23.5	32.0	37.6	3.0	385.199 (9)***
사무판매서비스	3.5	19.0	38.5	39.0	3.1	
농림생산직	1.6	13.9	31.5	53.0	3.4	
비경제활동인구	3.0	16.2	31.1	49.7	3.3	
종교						
없음	3.5	17.4	34.4	44.7	3.2	6.099 (3)
있음	3.1	17.9	33.1	46.0	3.2	
정치 성향						
보수	2.9	16.3	32.4	48.4	3.3	250.503 (9)***
중도	3.5	18.2	35.6	42.6	3.2	
진보	4.8	22.4	37.6	35.2	3.0	
무관심	2.7	15.0	30.8	51.5	3.3	
국가 목표						
물질주의	3.5	16.4	31.2	48.8	3.3	102.052 (6)***
탈물질주의	4.6	24.4	33.2	37.8	3.0	
혼합형	3.1	17.5	35.6	43.9	3.2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익 중요	2.5	18.1	32.6	46.9	3.2	35.576 (6)***
개인 이익 중요	3.8	20.5	35.3	40.3	3.1	
둘 다 중요	3.4	17.0	33.8	45.7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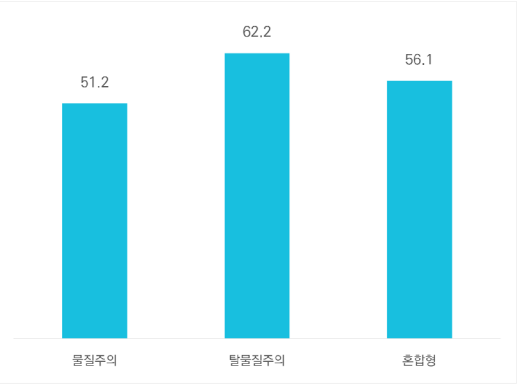
[그림 3-124] 혐오표현 노출 경험도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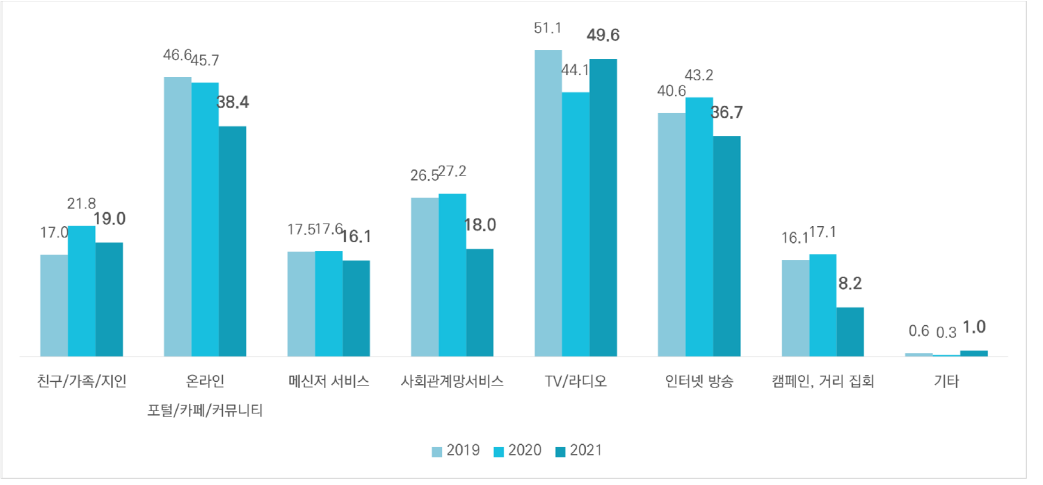
② 혐오표현의 접촉 경로

혐오표현 경험자를 대상으로 접촉 경로를 모두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TV/라디오방송(49.6%), 온라인 포털 등(38.4%), 인터넷방송(36.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20년 대비 혐오표현의 접촉 경로는 온라인 포털 등의 순위가 1위에서 2위로 바뀌고 TV/라디오방송의 순위가 2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TV/라디오 방송은 5.5%p 증가한 반면 온라인 포털 등은 7.3%p 감소하였다. 또한 인터넷방송은 6.5%p 감소하였고 SNS도 9.2%p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3-125] 혐오표현의 접촉 경로 시계열 추이

(단위 : %)



배경 요인별로 TV/라디오는 여성, 60대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하, 농림생산직 및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 종교가 있는 경우, 정치적 보수층이 상대적으로 많고, 온라인포털과 인터넷 방송은 남성, 20-30대, 대학교 재학 이상, 관리전문직 및 사무판매서비스, 정치적 진보층이 상대적으로 많다. 한편 가치 지향에서 물질주의 성향과 혼합형은 혐오표현의 노출 경로에서 TV/라디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탈물질주의 성향은 온라인 포털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6〉 혐오표현 접촉 경로

(단위 : %)

구분	친구/가족/지인	온라인 포털 등	메신저 서비스	SNS	TV/라디오	인터넷 방송	캠페인, 집회	기타
전체	19.0	38.4	16.1	18.0	49.6	36.7	8.2	1.0
성별								
남자	19.0	40.3	17.4	17.3	47.5	39.0	8.5	0.9
여자	19.0	36.6	14.6	18.6	51.8	34.4	7.9	1.0
연령								
20-30대	18.0	56.1	23.2	30.7	36.1	46.3	9.3	1.0
40-50대	17.1	35.7	13.7	13.3	51.3	37.7	8.1	0.8
60대 이상	24.2	12.7	7.9	4.2	70.0	18.4	6.7	1.3
학력								
고졸 이하	21.9	21.7	10.1	8.2	61.9	28.2	6.3	1.2
대재 이상	16.9	50.4	20.3	25.0	40.9	42.8	9.6	0.8
직업								
관리전문직	16.5	54.4	19.2	25.1	37.8	41.0	12.1	0.9
사무판매서비스	18.6	42.0	18.7	19.6	45.2	40.3	7.9	0.9
농림생산직	20.0	27.3	11.2	10.5	56.2	33.5	7.4	1.0
비경제활동인구	19.9	33.5	14.0	16.8	56.3	32.3	7.6	1.1
종교								
없음	19.1	39.8	17.9	19.4	47.7	38.4	7.1	0.8
있음	18.8	36.1	12.9	15.6	52.9	34.0	10.2	1.3
정치 성향								
보수	22.0	29.0	11.9	11.2	59.3	29.1	8.6	0.8
중도	20.1	40.5	17.1	20.4	47.5	38.4	8.8	1.0
진보	16.0	44.3	18.4	21.5	44.2	40.2	8.2	1.1
무관심	17.8	37.7	15.7	16.7	50.1	36.9	7.1	0.9
국가 목표								
물질주의	22.0	35.6	17.5	16.6	46.5	37.9	9.1	1.4
탈물질주의	18.6	48.1	16.1	25.4	45.7	42.3	14.8	0.8
혼합형	17.4	38.8	15.2	17.7	51.9	35.4	6.9	0.8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익 중요	17.0	34.7	21.1	13.9	55.1	31.1	5.7	1.7
개인 이익 중요	22.0	35.8	16.5	18.3	49.1	36.4	7.1	0.8
둘 다 중요	18.8	39.5	15.2	18.5	48.9	37.6	8.8	0.9

③ 혐오표현의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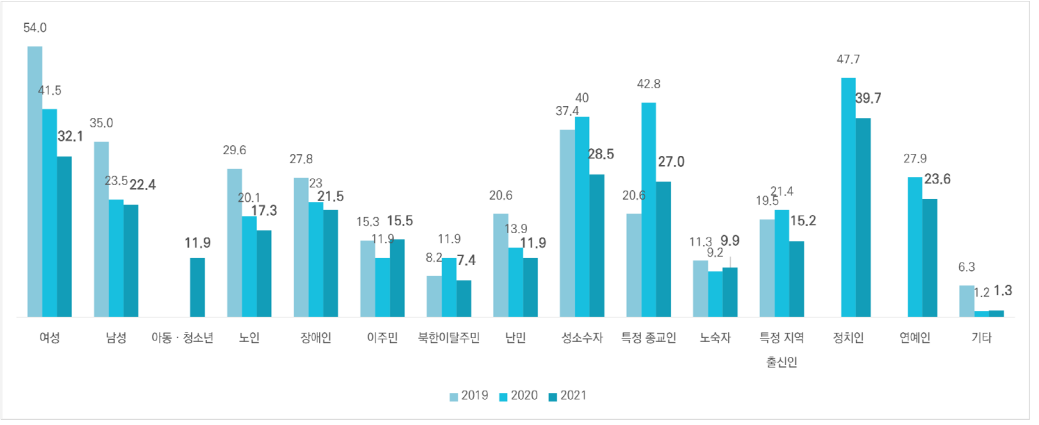
혐오표현의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모두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다양한 집단이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정치인(39.7%), 여성(32.1%), 성소수자(28.5%), 특정 종교인(27.0%), 연예인(23.6%), 남성(22.4%), 장애인(2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민(15.5%), 아동청소년(11.9%), 난민(11.9%), 노숙자(9.9%), 북한이탈주민(7.4%)에 대한 혐오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2020년 대비 혐오표현의 대상자로서 여성, 성소수자, 특정 종교인, 정치인, 특정 지역 출신인 등은 뚜렷한 감소 경향을 보이는 반면 남성, 노인, 장애인, 노숙자, 난민 등은 큰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그림 3-126] 혐오표현의 대상 시계열 추이

(단위 : %)



배경 요인별로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각 혐오표현의 대상자로 지목했는지를 살펴보면 혐오표현의 대상자로서 가장 순위가 높은 정치인은 60대 이상(43.0%), 관리전문직(43.6%)에서 상대적으로 많다. 또한 여성과 성소수자를 혐오표현 대상자로 지목한 사람들은 여성, 20-30대, 대학교 재학 이상, 관리전문직에서 상대적으로 많다. 특정 종교인을 혐오표현 대상자로 지목한 사람들은 정치적 보수 성향층(29.4%)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가치 지향을 살펴보면 물질주의 성향은 혐오표현의 대상자로 남성을 지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고, 반면 탈물질주의 성향은 남성과 특정 종교인을 제외한 여러 사회적 약자 집단이 혐오표현의 대상이었다고 지목한 비율이 더 높다.

〈표 3-66〉 혐오표현의 주요 대상자 인식의 배경 요인별 차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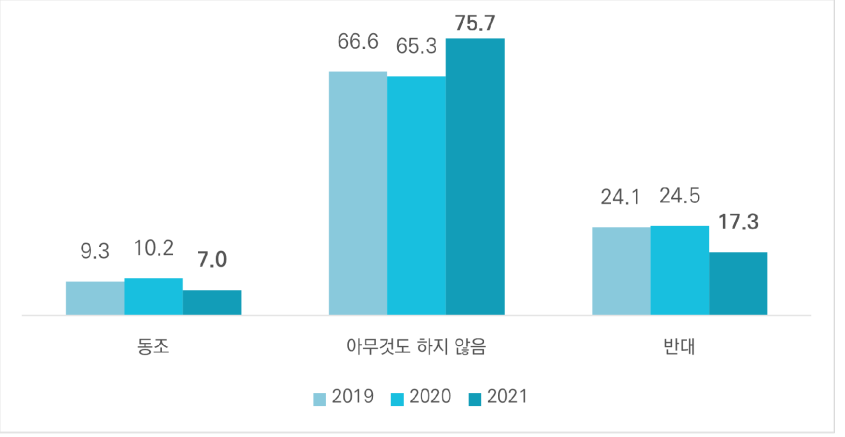
구분	정치인	여성	성소수자	특정 종교인	연예인	남성	장애인
전체	39.7	32.1	28.5	27.0	23.6	22.4	21.5
성별							
남자	41.5	29.9	27.3	28.1	21.7	25.0	21.5
여자	37.8	34.3	29.8	25.9	25.4	19.7	21.5
연령							
20-30대	38.4	45.3	33.7	27.2	28.0	32.6	23.9
40-50대	39.1	27.5	28.5	27.4	22.6	18.1	20.0
60대 이상	43.0	17.5	19.5	25.9	17.6	12.4	20.0
학력							
고졸 이하	40.5	23.7	21.3	26.2	21.0	17.1	19.4
대재 이상	39.1	38.0	33.7	27.6	25.4	26.1	23.0
직업							
관리전문직	43.6	39.5	35.8	29.2	22.4	25.4	22.3
사무판매서비스	38.0	32.8	28.9	26.3	24.3	22.9	21.4
농림생산직	39.2	25.9	24.0	25.9	20.6	19.3	18.7
비경제활동인구	40.4	31.4	27.6	27.6	24.4	22.1	22.5
종교							
없음	39.2	33.3	28.3	26.5	24.0	24.1	21.7
있음	40.4	30.0	28.8	27.9	22.7	19.4	21.1
정치 성향							
보수	40.1	26.7	27.9	29.4	19.7	22.6	20.2
중도	41.0	34.3	30.0	29.0	25.0	24.3	21.5
진보	41.6	31.7	30.5	28.5	24.4	17.5	23.6
무관심	36.1	32.8	25.4	21.7	23.5	23.1	20.7
국가 목표							
물질주의	41.2	30.2	26.5	28.3	22.7	25.2	19.7
탈물질주의	40.4	43.0	37.6	27.8	28.2	23.0	29.8
혼합형	38.7	31.7	28.5	26.2	23.4	20.7	21.3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익 중요	34.1	28.1	25.3	24.4	16.1	20.3	21.4
개인 이익 중요	36.7	29.6	28.4	25.8	21.9	20.9	23.3
둘 다 중요	41.0	33.1	29.0	27.6	25.0	23.0	21.1

④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행동

혐오표현의 경험자를 대상으로 대응 행동을 질문한 결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75.7%로 가장 많고, '반대 의견 및 시정 요구'는 17.3%, '동조'하는 경우도 7.0%에 달한다. 2020년 대비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대응은 65.3%에서 75.7%로 10.4%p 증가한 반면 '반대의견 및 시정요구'는 24.5%에서 17.3%로 7.2%p 감소하였고, '동조'는 10.2%에서 7.0%로 3.2%p 감소하였다. '무대응'이 증가한 반면 '반대' 또는 '동조'가 모두 감소하였다.

[그림 3-127] 혐오표현 노출시 대응의 변화

(단위 : %)



배경 요인별로 '무대응'은 남성과 여성간 차이가 없고, 60대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하층, 직업별로는 농림생산직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 종교가 없는 경우, 정치적 무관심층에서 높다. 가치 지향에서는 탈물질주의 성향(65.8%)에 비해서 물질주의 성향(76.3%), 혼합형(76.67%)은 '무대응'했다고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또한 공동체 이익 추구 성향(73.6%)보다 개인 이익 추구 성향(79.3%)의 경우 '무대응'이라는 응답이 더 높았다.

〈표 3-68〉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행동 배경 요인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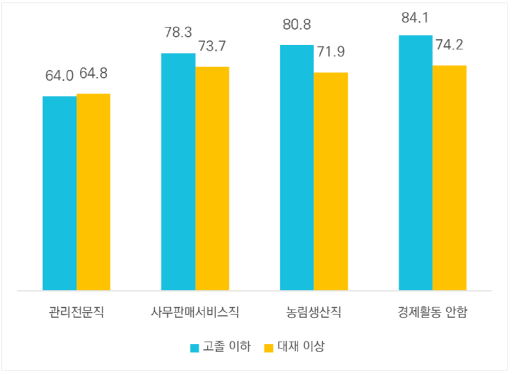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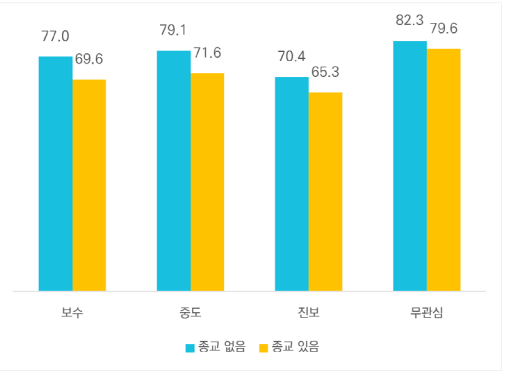
구분	매우 동조	다소 동조	무대응	다소 반대	매우 반대	평균(5점)	X^2(df)
전체	1.3	5.7	75.7	14.2	3.1	2.9	
성별							3.181 (4)
남자	1.3	5.9	76.0	13.7	3.0	2.9	
여자	1.2	5.5	75.4	14.7	3.2	2.9	

구분	매우 동조	다소 동조	무대응	다소 반대	매우 반대	평균(5점)	X²(df)
연령							
20-30대	1.6	6.0	73.2	16.2	2.9	2.9	75.582
40-50대	1.1	5.7	74.7	14.8	3.7	2.9	(8)***
60대 이상	1.1	5.2	81.9	9.4	2.4	2.9	
학력							
고졸 이하	1.1	5.2	80.9	10.1	2.7	2.9	112.364
대재 이상	1.4	6.1	72.0	17.1	3.4	2.9	(4)***
직업							
관리전문직	2.0	5.5	64.7	22.1	5.7	2.8	141.114
사무판매서비스	1.2	6.5	75.1	14.0	3.2	2.9	(12)***
농림생산직	1.5	5.5	78.2	11.8	3.0	2.9	
비경제활동인구	1.0	4.9	79.4	12.6	2.1	2.9	
종교							
없음	1.1	5.4	78.0	13.1	2.3	2.9	64.101
있음	1.6	6.2	71.7	16.0	4.4	2.8	(4)***
정치 성향							
보수	1.6	6.5	73.4	14.8	3.6	2.9	132.751
중도	1.1	5.8	76.4	14.1	2.6	2.9	(12)***
진보	1.3	6.1	68.6	18.6	5.4	2.8	
무관심	1.3	4.9	81.5	10.6	1.8	2.9	
국가 목표							
물질주의	1.0	7.1	76.3	12.8	2.7	2.9	84.937
탈물질주의	1.3	5.1	65.8	22.7	5.1	2.7	(8)***
혼합형	1.4	5.0	76.7	13.8	3.1	2.9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익 중요	0.9	7.5	73.6	14.6	3.4	2.9	32.085
개인 이익 중요	1.3	6.5	79.3	10.5	2.3	2.9	(8)***
둘 다 중요	1.4	5.3	75.4	14.8	3.2	2.9	

[그림 3-128] 혐오표현에 대한 무대응 비율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2) 혐오표현의 심각성

혐오표현이 심각(매우+다소)하다는 의견은 54.2%인 반면 심각하지 않다(매우+다소)는 의견은 45.8%로 나타나서 두 의견간 차이가 10%도 되지 않는다.

배경 요인별로 혐오표현이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 간에는 차이가 없고, 20-30대 젊은층, 대학교 재학 이상의 고학력층,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과 사무판매서비스직, 종교가 있는 경우, 정치적 진보 성향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사람들은 60대 이상층, 고졸 이하의 저학력층, 직업별로는 농림생산직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 종교가 없는 경우, 정치적 무관심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난다. 또한 물질주의 성향에 비해서 탈물질주의 성향의 경우 혐오표현의 심각성 인식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특히 20-30대 여성(65.8%), 대학교 재학 이상 관리전문직(65.7%) 및 고등학교 졸업 이하 관리전문직(63.4%), 종교가 있는 정치적 진보 성향(59.9%)과 정치적 중도층(59.7%)에서 혐오표현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표출되었다. 반면 60대 이상 여성, 고졸 이하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 종교가 있는 정치적 무관심층에서는 혐오표현이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표 3-69〉 혐오표현의 심각성 인지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구분	매우 심각	다소 심각	다소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평균 (4점)	X^2 (df)
전체	12.1	42.1	40.9	4.9	2.4	
성별						2.494 (3)
남자	11.8	42.0	41.3	4.9	2.4	
여자	12.5	42.1	40.5	4.9	2.4	
연령						705.366 (6)***
20-30대	19.2	43.6	33.7	3.5	2.2	
40-50대	11.0	43.8	40.9	4.3	2.4	
60대 이상	5.5	37.9	49.0	7.5	2.6	
학력						389.981 (3)***
고졸 이하	8.0	40.5	45.1	6.4	2.5	
대재 이상	16.1	43.6	36.8	3.6	2.3	
직업						255.283 (9)***
관리전문직	19.4	46.1	31.6	3.0	2.2	
사무판매서비스	12.7	44.3	38.9	4.1	2.3	
농림생산직	9.1	39.6	44.8	6.5	2.5	
비경제활동인구	10.9	39.9	43.7	5.5	2.4	
종교						17.051 (3)**
없음	12.1	41.2	42.0	4.7	2.4	
있음	12.2	43.5	39.0	5.2	2.4	

구분	매우 심각	다소 심각	다소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평균 (4점)	X^2 (df)
정치 성향						
보수	11.3	42.2	41.9	4.6	2.4	113.786 (9)***
중도	11.5	44.1	40.7	3.7	2.4	
진보	15.4	43.0	37.0	4.6	2.3	
무관심	11.5	39.2	42.6	6.7	2.4	
국가 목표						
물질주의	11.6	41.6	41.6	5.1	2.4	19.478 (6)**
탈물질주의	15.7	42.0	38.0	4.3	2.3	
혼합형	12.0	42.3	40.8	4.9	2.4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익 중요	12.1	42.1	40.9	5.0	2.4	8.544 (6)
개인 이익 중요	12.4	41.7	39.7	6.1	2.4	
둘 다 중요	12.1	42.1	41.1	4.7	2.4	

[그림 3-129] 혐오표현의 심각성 인지도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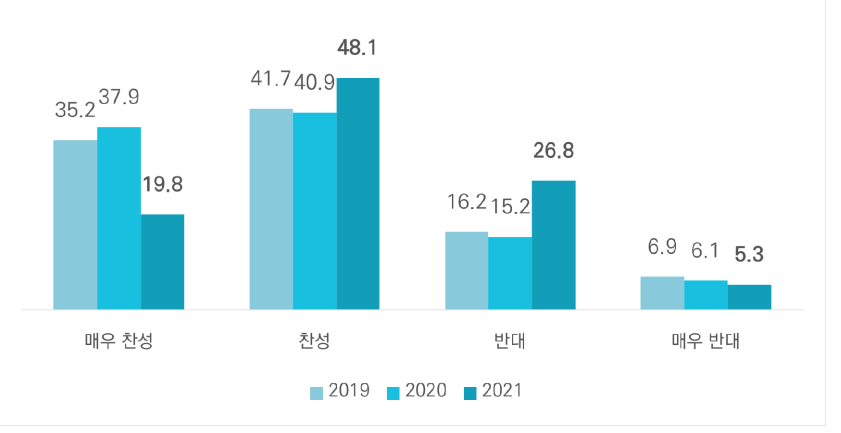
(3)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한 의견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는 누구나 누려야 하는 표현의 자유와 차별받지 않을 자유 간의 충돌이다.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비율은 67.9%로, 반대하는 비율 32.1%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2020년 대비 '매우 찬성'한다는 비율이 37.9%에서 19.8%로 무려 18.1%p나 감소한 반면 '다소 찬성'한다는 의견은 40.9%에서 48.1%로 7.2%p 증가하였고 , '다소 반대' 의견도 15.2%에서 26.8%로 11.6%p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법적 규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2020년 78.8%에서 2021년 67.9%로 10.9%p 감소하였다.

[그림 3-130]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

(단위 : %)



배경 요인별로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찬성하는 의견은 남성보다는 여성, 40-50대, 대학교 재학 이상 고학력층,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 종교가 있는 경우, 정치적 진보 성향층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특히 20-30대 여성(70.9%),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관리직(74.0%), 종교가 있는 정치적 진보 성향층(73.1%)에서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또한 가치 지향에 있어서 물질주의 성향, 혼합형에 비해서 탈물질주의 성향의 경우에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71.5%로 상대적으로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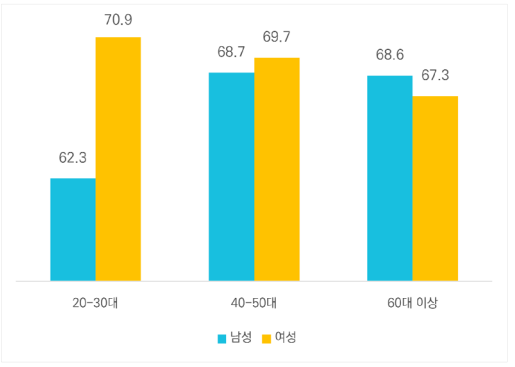
〈표 3-70〉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 찬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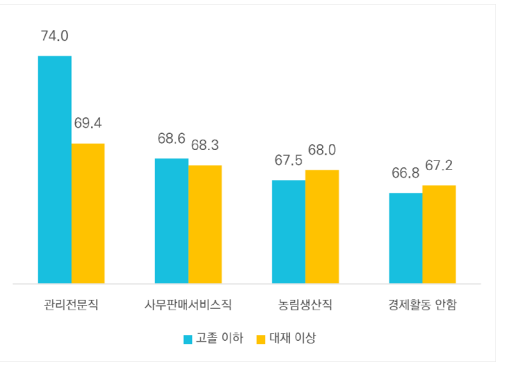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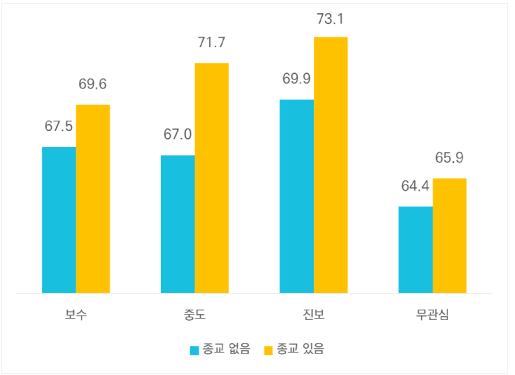
구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다소 반대	매우 반대	평균 (4점)	X^2 (df)
전체	19.8	48.1	26.8	5.3	2.8	
성별						37.092 (3)***
남자	19.0	47.5	27.3	6.2	2.8	
여자	20.6	48.7	26.3	4.4	2.9	
연령						131.171 (6)***
20-30대	19.7	46.7	26.0	7.6	2.8	
40-50대	21.7	47.5	26.2	4.6	2.9	
60대 이상	17.3	50.6	28.5	3.7	2.8	
학력						60.945 (3)***
고졸 이하	19.0	48.6	28.2	4.1	2.8	
대재 이상	20.5	47.7	25.4	6.4	2.8	
직업						67.207 (9)***
관리전문직	24.8	45.2	23.0	7.0	2.9	
사무판매서비스	19.8	48.6	26.3	5.3	2.8	
농림생산직	20.4	47.2	27.2	5.2	2.8	
비경제활동인구	18.0	49.0	28.1	4.9	2.8	
종교						33.554 (3)***
없음	18.6	48.1	27.7	5.6	2.8	
있음	21.7	48.2	25.3	4.8	2.9	
정치 성향						67.316 (9)***
보수	19.2	49.3	26.1	5.4	2.8	
중도	19.0	49.8	25.8	5.5	2.8	
진보	23.4	47.7	23.8	5.1	2.9	
무관심	19.1	45.8	30.0	5.1	2.8	
국가 목표						10.727 (6)
물질주의	19.6	47.5	27.3	5.6	2.8	
탈물질주의	21.2	50.4	23.3	5.1	2.9	
혼합형	19.7	48.2	26.9	5.1	2.8	
공동체 이익						36.363 (6)***
공동체 이익 중요	21.6	47.0	26.2	5.1	2.9	
개인 이익 중요	17.1	48.3	27.1	7.5	2.7	
둘 다 중요	20.0	48.3	26.8	5.0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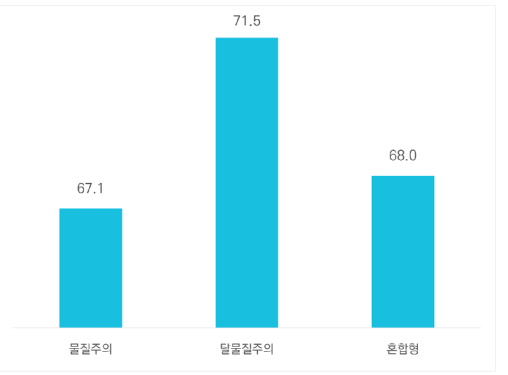
[그림 3-131]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 찬성률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6) 인권 의식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바람직한 인권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한 사회의 개인들이 어떤 인권의식의 폭과 깊이를 가지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각 개인들은 인권의식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어떤 집단이 인권에 민감한지, 어떤 분야의 인권이 취약한지 등을 파악함으로써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인권에 취약한 집단을 보호하는 등의 방안과 장치를 도출해 볼 수 있다.

인권의식은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 태도, 경험, 행동으로 구성된 다차원의 개념이며, 개인들간의 차이를 낳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은 핵심적인 일이 된다.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정치적 성향 등의 요인에 따라서 개인이 인권에 대한 태도가 차이를 보인다면 보편적 인권을 추구하는 이상과는 괴리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의식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통해 그러한 요인에 대한 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

회귀분석은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어 변수간에 서로 관련성을 보일 경우에 적용하는 통계분석방법이다. 회귀분석은 단순히 변수간의 상관성을 보여주는 상관관계와 달리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다중 회귀분석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2개 이상이라고 보고 각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인권 의식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은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한국사회의 개인들이 갖는 인권의식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또는 인권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 의식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 회귀분석에서 인권의식은 인권쟁점에 대한 인권친화적 태도,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용(↔사회적 거리감), 혐오표현의 심각성 인식을 선택하였다.

독립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수준, 직업, 종교, 정치적 성향이다. 이 중 성별은 남성=0인 더미변수로 여성을 포함하였다. 학력 수준은 중학교 이하=0인 더미변수로,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직업은 비경제활동=0인 더미변수이며, 관리전문직, 사무판매서비스직, 농림생산직으로 분류하였다. 종교는 종교 없음=0인 더미변수로 종교 있음을 포함하였으며, 정치적 성향은 중도 및 무관심=0인 더미변수로 보수 성향, 진보 성향으로 분류하였다.

(1) 인권친화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요 쟁점에 대해 인권친화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면 인권상황이 개선되고 인권정책과 제도를 추진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인권친화적인 태도를 갖는지, 인권친화적인 태도를 갖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지를 파악함으로써 인권친화성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권친화적 태도의 측정은 인권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해서 인권을 옹호하는 의견을 응답한 점수를 모두 합산한 후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인권 관련 8개 쟁점에서 인권을 옹호하는 의견이란 '사형제 폐지 찬성',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반대', '국가정보기관의 통신기록 수집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 '학생 체벌 반대', '한국에서 난민을 가급적 수용',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 찬성'을 말한다.

〈표 3-71〉의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인권친화성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더 인권친화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학력수준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중학교이하에 비해서 고등학교, 대재이상의 학력은 인권친화성이 더 강하다. 직업은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서 관리전문직, 사무판매서비스직 종사자는 인권친화성이 더 높지만, 농림생산직 종사자는 인권친화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종교가 있는 사람이 인권친화성이 더 높고, 정치 성향이 중도이거나 무관심한 경우에 비해서 보수적인 성향은 인권친화성이 낮지만 진보적인 성향은 인권친화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71〉 인권친화적 태도에 대한 다변량 회귀분석

	회귀계수 추정치	t
연령	0.001***	6409.961
성별(여성=1)	0.039***	221.020
학력		
고졸 이하	0.083***	328.546
대재 이상	0.134***	442.641
직업		
관리전문직	0.036***	644.497
사무판매서비스	0.013***	170.176
농림생산직	-0.009***	87.317
종교(있음=1)	0.001***	-56.093
정치적 이념		
보수	-0.060***	6.715
진보	0.094***	-396.546
상수항	2.115***	606.290

*** p<0.001

(2)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해 친구, 이웃, 직장 동료로서 거리감을 갖거나 배제하지 않으면 관용적인 사회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소수자가 정치적 대의에 성공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다양성이 증가하고 통합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각 개인들이 인권을 보장받는데 유리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소수자로 꼽히는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가 각각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느끼는지(=사회적 거리감), 불편하지 않은지(=사회적 관용) 질문하였다. 불편하지 않다는 방향을 기준으로 응답을 모두 합산한 후 평균값을 계산한 결과를 사회적 관용도로 간주하였다.

〈표 3-72〉의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정치적 진출에 대해 불편해하고 남성보다 여성이 더 불편함을 느낀다. 학력요인도 사회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학교이하에 비해서 고등학교, 대재이상의 학력은 사회적 거리감이 더 낮고 더 관용적이다. 또한 직업은 비경제활동에 비해서 관리전문직은 사회적 거리감이 더 낮지만, 사무판매서비스직, 농림생산직은 사회적 거리감이 더 높고 덜 관용적이다.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더 관용적이고, 정치 성향이 중도이거나 무관심한 사람에 비해 보수 성향은 사회적 거리감이 더 강하고 관용이 떨어진다. 반면 진보 성향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정치적 진출에 대해서 덜 불편해하고 더 관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2〉 사회적 관용도에 대한 다변량 회귀분석

	회귀계수 추정치	t
연령	-0.004***	5186.059
성별(여성=1)	-0.006***	-587.982
학력		
고졸 이하	0.116***	-29.368
대재 이상	0.172***	375.126
직업		
관리전문직	0.100***	499.460
사무판매서비스	-0.029***	287.182
농림생산직	-0.058***	-120.989
종교(있음=1)	-0.011***	-208.357
정치적 이념		
보수	-0.054***	-56.445
진보	0.014***	-213.754
상수항	2.839***	53.815

*** p<0.001

(3) 혐오표현의 심각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혐오표현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멸시하고 부정적으로 낙인을 찍는 것이기에 혐오표현의 확산은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악화시키고 약자/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무엇이 혐오표현이 제대로 인식하고 심각성을 인식할수록 인권옹호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묻는 단일한 문항에 대하여 혐오표현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할 경우 4점~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할 경우 1점을 주어 평균값을 구하였다.

〈표 3-73〉의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혐오표현이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남성보다 여성은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다. 학력 요인을 살펴보면 중학교 이하에 비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은 혐오표현이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직업별로는 비경제활동에 비해서 관리전문직은 혐오표현이 더 심각하다고 여기는 반면, 사무판매서비스직, 농림생산직은 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더 크게 여기고, 정치 성향이 중도이거나 무관심한 사람에 비해 보수 성향, 진보 성향 모두 혐오표현이 더 크게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3-73〉 혐오표현의 심각성 인식에 대한 다변량 회귀분석

	회귀계수 추정치	t
연령	-0.008***	-923.272
성별(여성=1)	0.046***	192.483
학력		
고졸 이하	0.113***	294.633
대재 이상	0.122***	286.942
직업		
관리전문직	0.147***	341.654
사무판매서비스	-0.006***	-20.633
농림생산직	-0.027***	-78.175
종교(있음=1)	0.062***	256.338
정치적 이념		
보수	0.097***	311.296
진보	0.060***	189.525
상수항	2.820***	4183.906

*** p<0.001

4 인권교육 및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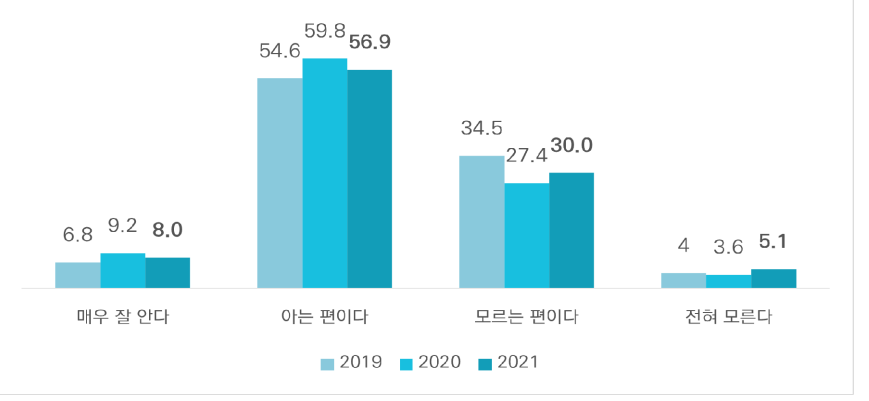
1) 인권에 대한 인지와 교육

(1) 인권 존중의 의무와 규범에 대한 인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매우+아는 편)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 64.9%로 2020년 69.0% 대비 4.1%가 감소했다. 반면에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2019년 4.0%에서 2020년 3.6%로 감소했다가 2021년에는 다시 5.1%로 증가했다.

[그림 3-132] 인권 존중을 위한 의무와 행동 규범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



인권 존중을 위한 의무와 행동 규범에 대한 인지 정도에 대해 남성이 67.9%가 안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62.0%가 안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이 5.9%p정도 높게 인권 존중을 위한 규범에 대해 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20-30대가 69.7%로 인권 존중을 위한 의무와 행동 규범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이 40-50대(67.1%), 60대 이상(56.3%) 순이었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이 인권 존중을 위한 의무와 행동 규범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0.3%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59.2%)보다 11.1%p 높았다. 직업의 경우 관리전문직(78.4%), 사무판매서비스(65.8%), 농림생산직(62.9%),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61.0%) 순으로 인권 존중을 위한 의무와 행동규범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고려했을 때, 종교가 없는 경우(63.8%) 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66.8%)에 3.0%p 정도 인권 존중을 위한 의무와 행동 규범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정치 성향의 경우, 중도(70.2%), 진보(66.1%), 보수(66.0%), 정치에 무관심한 집단(57.5%) 순이었다.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 중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67.9%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61.8%)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공동체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중 인권존중을 위한 의무와 행동 규범을 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64.7%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54.5%)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3-74〉 인권 존중을 위한 의무와 행동 규범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평균 (4점)	X^2 (df)
전체	8.0	56.9	30.0	5.1	2.7	
성별						92.651 (3)***
남자	8.9	58.9	28.1	4.0	2.7	
여자	7.1	54.9	31.8	6.2	2.6	
연령						419.552 (6)***
20-30대	9.5	60.2	26.9	3.4	2.8	
40-50대	8.6	58.5	29.5	3.3	2.7	
60대 이상	5.4	50.9	34.2	9.5	2.5	
학력						419.114 (3)***
고졸 이하	5.8	53.5	33.1	7.7	2.6	
대재 이상	10.2	60.2	27.1	2.6	2.8	
직업						358.596 (9)***
관리전문직	15.0	63.4	20.0	1.6	2.9	
사무판매서비스	8.3	57.6	30.5	3.7	2.7	
농림생산직	6.1	56.8	30.6	6.5	2.6	
비경제활동인구	6.7	54.3	32.2	6.8	2.6	
종교						24.613 (3)***
없음	7.5	56.3	30.8	5.4	2.7	
있음	8.9	57.8	28.7	4.5	2.7	
정치 성향						341.611 (9)***
보수	8.7	57.3	28.6	5.5	2.7	
중도	8.5	61.7	27.0	2.9	2.8	
진보	9.1	57.0	31.0	2.9	2.7	
무관심	6.4	51.1	33.9	8.6	2.6	
국가 목표						62.185 (6)***
물질주의	8.9	59.0	27.3	4.8	2.7	
탈물질주의	7.4	54.3	30.3	7.9	2.6	
혼합형	7.5	55.9	31.6	4.9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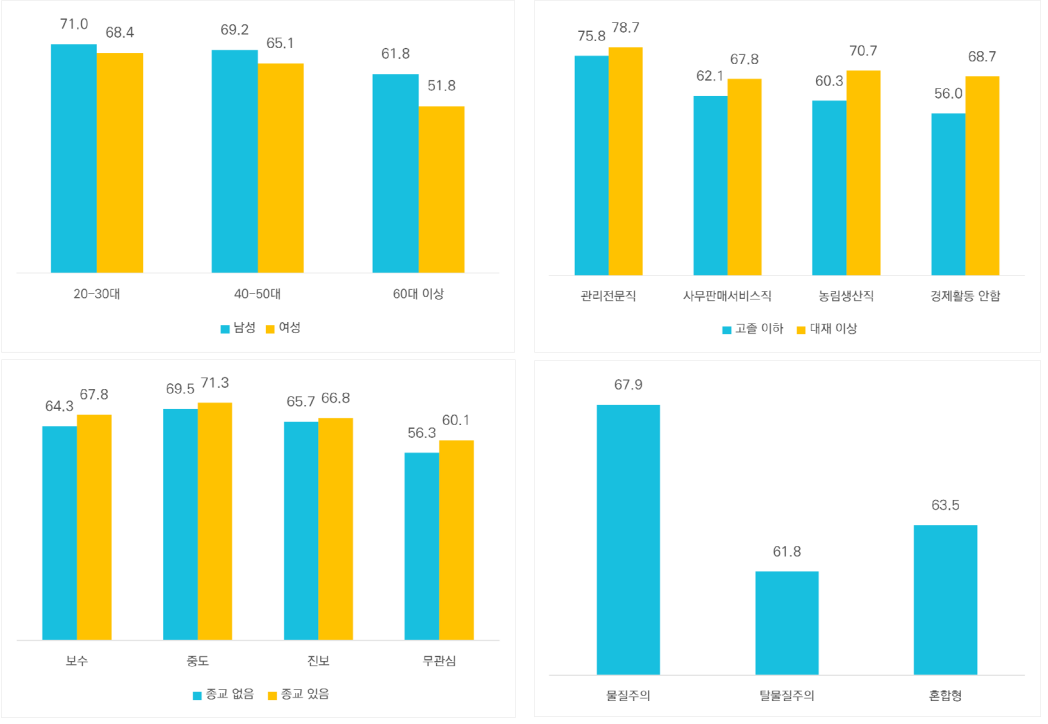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평균 (4점)	X^2 (df)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익 중요	8.9	55.8	29.2	6.1	2.7	140.177 (6)***
개인 이익 중요	5.1	49.4	39.6	5.9	2.5	
둘 다 중요	8.4	58.3	28.6	4.8	2.7	

인구학적 배경 요인별 인권 존중을 위한 의무와 행동 규범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20-30대의 남성 집단(71.0%)인 반면, 비율이 낮은 집단은 60대 이상 여성 집단(51.8%)이었다.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별 인권 존중을 위한 의무와 행동 규범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대학교 재학 이상의 관리전문직 종사자(78.7%)인 반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낮은 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56.0%)이었다.

[그림 3-133] 인권 존중을 위한 의무와 행동 규범 인지도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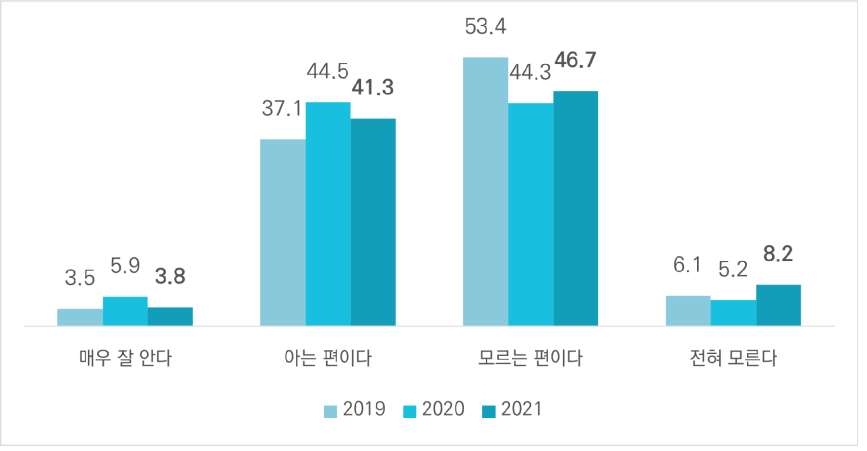


(2) 인권침해와 차별 시 대처 방법에 대한 인지

본인이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았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안다(매우+아는 편)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45.0%로 2020년 50.4% 대비 5.4%p가 감소했다. 반면에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6.1%(2019)→5.2%(2020)로 감소했다가 2021년 8.2%로 다시 증가하였다.

[그림 3-134] 인권침해/차별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



인권침해/차별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인지 정도에 대해 남성이 49.4%가 안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40.8%가 안다고 응답하였다. 즉, 여성에 비해 남성이 8.6%p 정도 높게 인권침해/차별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20-30대가 50.9%로 인권침해/차별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이 40-50대(48.9%), 60대 이상(33.0%) 순이었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이 인권침해/차별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3.0%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36.7%)보다 16.3%p 높았다. 직업의 경우 관리전문직(61.2%), 사무판매서비스(48.9%), 농림생산직(41.1%),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38.4%) 순으로 인권침해/차별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고려했을 때, 종교가 없는 경우(44.2%) 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46.5%)에 2.3%p 정도 인권침해/차별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정치 성향의 경우, 진보(50.7%), 중도(49.2%), 보수(46.0%), 무관심(36.6%) 순이었다.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 중 인권침해/차별을 받은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 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46.1%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43.7%)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공동체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중 인권침해 시 대처 방법을 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49.3%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42.4%)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3-75〉 인권침해/차별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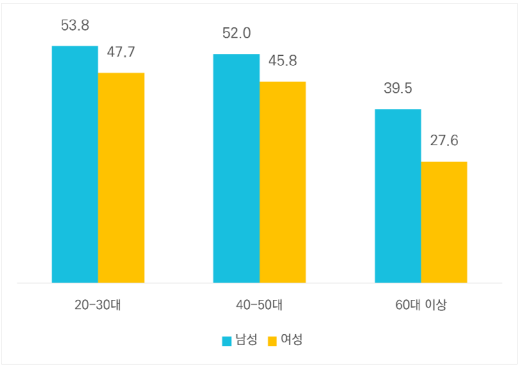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계	평균 (4점)	X^2 (df)
전체	3.8	41.3	46.7	8.2	100.0	2.4	
성별							169.449 (3)***
남자	4.6	44.8	44.0	6.6	100.0	2.5	
여자	2.9	37.8	49.4	9.9	100.0	2.3	
연령							777.070 (6)***
20-30대	5.3	45.6	43.6	5.5	100.0	2.5	
40-50대	3.7	45.2	46.1	5.0	100.0	2.5	
60대 이상	2.1	30.9	51.2	15.8	100.0	2.2	
학력							699.617 (3)***
고졸 이하	2.1	34.6	51.0	12.2	100.0	2.3	
대재 이상	5.4	47.7	42.6	4.4	100.0	2.5	
직업							565.426 (9)***
관리전문직	8.8	52.4	34.9	3.9	100.0	2.7	
사무판매서비스	3.7	45.2	45.8	5.3	100.0	2.5	
농림생산직	2.4	38.7	48.6	10.3	100.0	2.3	
비경제활동인구	3.1	35.4	50.2	11.4	100.0	2.3	
종교							9.650 (3)*
없음	3.6	40.6	47.3	8.5	100.0	2.4	
있음	4.0	42.4	45.7	7.9	100.0	2.4	
정치 성향							498.202 (9)***
보수	4.2	41.8	44.2	9.8	100.0	2.4	
중도	4.1	45.0	46.7	4.2	100.0	2.5	
진보	4.0	46.7	44.0	5.2	100.0	2.5	
무관심	3.0	33.6	49.8	13.6	100.0	2.3	
국가 목표							24.285 (6)***
물질주의	4.5	41.6	45.3	8.6	100.0	2.4	
탈물질주의	3.1	40.6	46.6	9.7	100.0	2.4	
혼합형	3.4	41.2	47.6	7.8	100.0	2.4	
공동체 이익							33.375 (6)***
공동체 이익 중요	4.9	44.4	41.7	9.1	100.0	2.5	
개인 이익 중요	3.9	38.6	49.0	8.6	100.0	2.4	
둘 다 중요	3.6	41.2	47.1	8.1	100.0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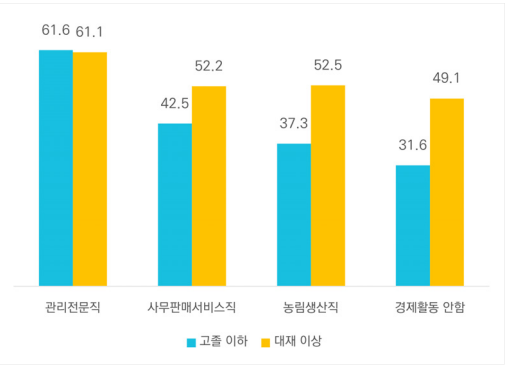
인구학적 배경 요인별 인권침해/차별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20-30대의 남성 집단(53.8%)인 반면, 인구학적 배경 요인별 인권 존중을 위한 의무와 행동 규범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낮은 집단은 60대 이상 여성 집단(27.6%)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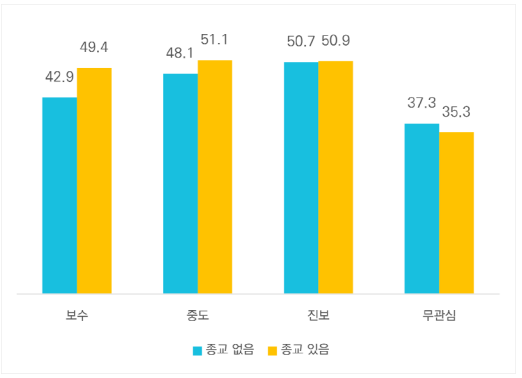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별 인권침해/차별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관리전문직 종사자(61.6%)인 반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낮은 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31.6%)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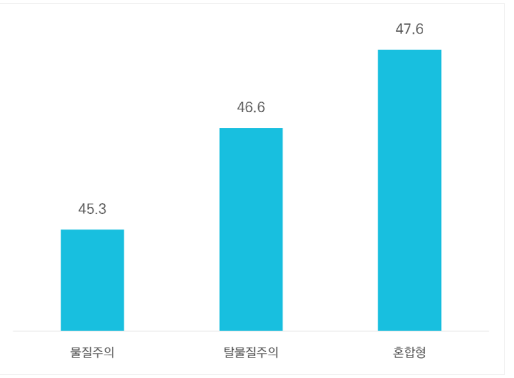
[그림 3-135] 인권침해/차별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인지도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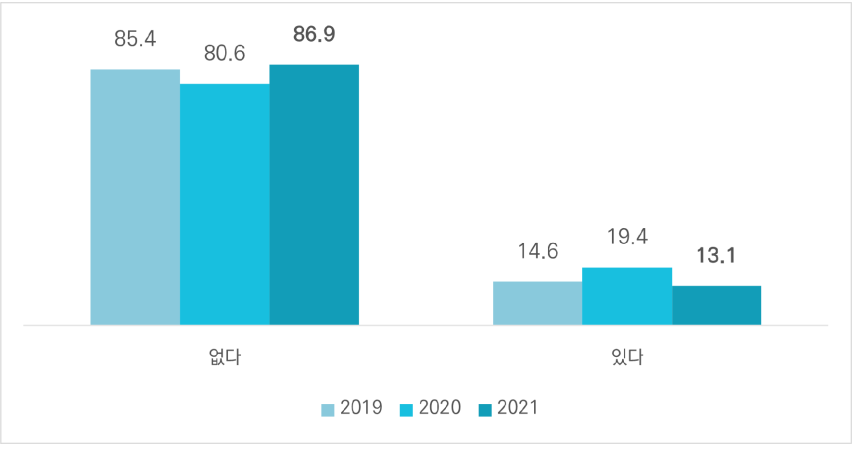


⑶ 인권교육 경험

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4.6%(2019)→19.4%(2020)→13.1%(2021)로 최근 3년 중 2021년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 교육이나 집단 교육의 진행이 어려웠던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36] 인권교육 경험 추이

(단위 : %)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해 남성이 14.7%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11.6%가 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20-30대가 19.7%로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이 40-50대(14.4%), 60대 이상(3.7%) 순이었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은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4%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5.5%)보다 14.9%p 높았다. 직업의 경우 관리전문직(34.3%), 사무판매서비스(16.4%), 농림생산직(8.4%),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5.9%)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고려했을 때, 종교가 없는 경우(12.3%) 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14.4%)에 2.1%p 정도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정치 성향의 경우, 진보(17.0%), 중도(15.7%), 무관심(10.1%), 보수(9.8%) 순이었다.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 중 최근 1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8.5%로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11.4%)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공동체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중 최근 1년 인권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1.5%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11.0%)에 비해 약간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3-76〉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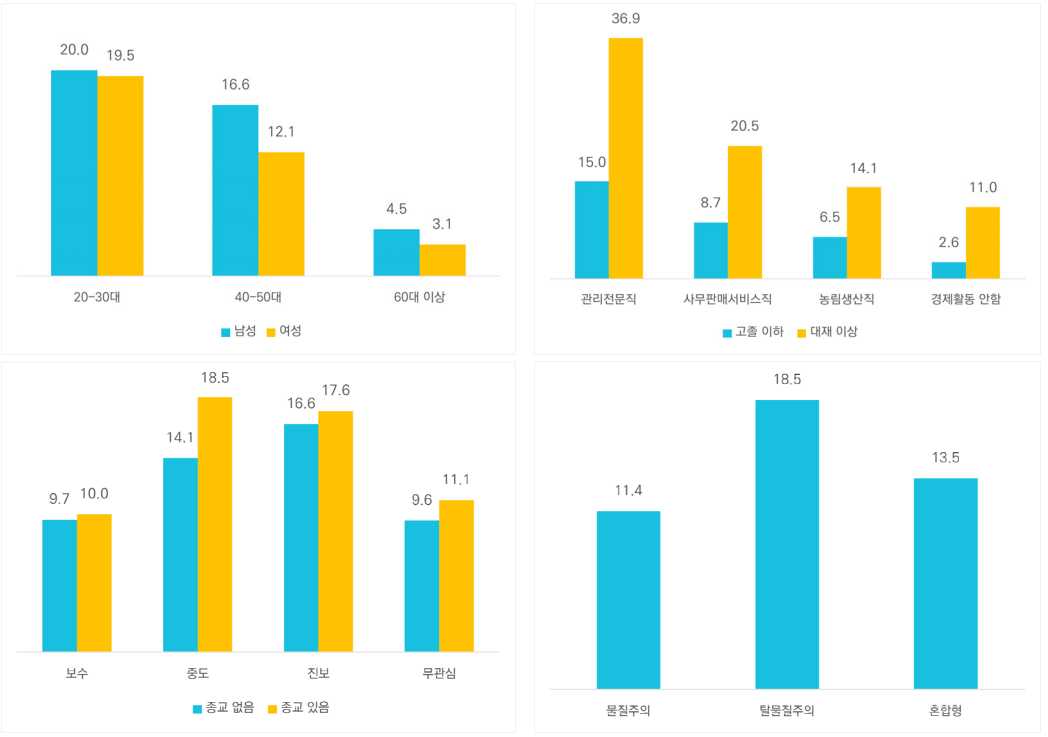
구분	없다	있다	X^2(df)
전체	86.9	13.1	
성별			
남자	85.3	14.7	36.557(1)***
여자	88.4	11.6	
연령			
20-30대	80.3	19.7	620.075(2)***
40-50대	85.6	14.4	
60대 이상	96.3	3.7	
학력			
고졸 이하	94.5	5.5	855.156(1)***
대재 이상	79.6	20.4	
직업			
관리전문직	65.7	34.3	
사무판매서비스	83.6	16.4	1,158.007(3)***
농림생산직	91.6	8.4	
비경제활동인구	94.1	5.9	
종교			
없음	87.7	12.3	14.702(1)***
있음	85.6	14.4	
정치 성향			
보수	90.2	9.8	
중도	84.3	15.7	147.718(3)***
진보	83.0	17.0	
무관심	89.9	10.1	
국가 목표			
물질주의	88.6	11.4	48.575(2)***
탈물질주의	81.5	18.5	
혼합형	86.5	13.5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익 중요	88.5	11.5	16.484(2)***
개인 이익 중요	89.0	11.0	
둘 다 중요	86.3	13.7	

인구학적 배경 요인별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20-30대의 남성 집단(20.0%)인 반면, 인구학적 배경 요인별 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낮은 집단은 60대 이상 여성 집단(3.1%)이었다.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별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대학교 재학 이상의 관리-전문직 종사자(36.9%)인 반면, 비율이 낮은 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2.6%)이었다.

[그림 3-137] 최근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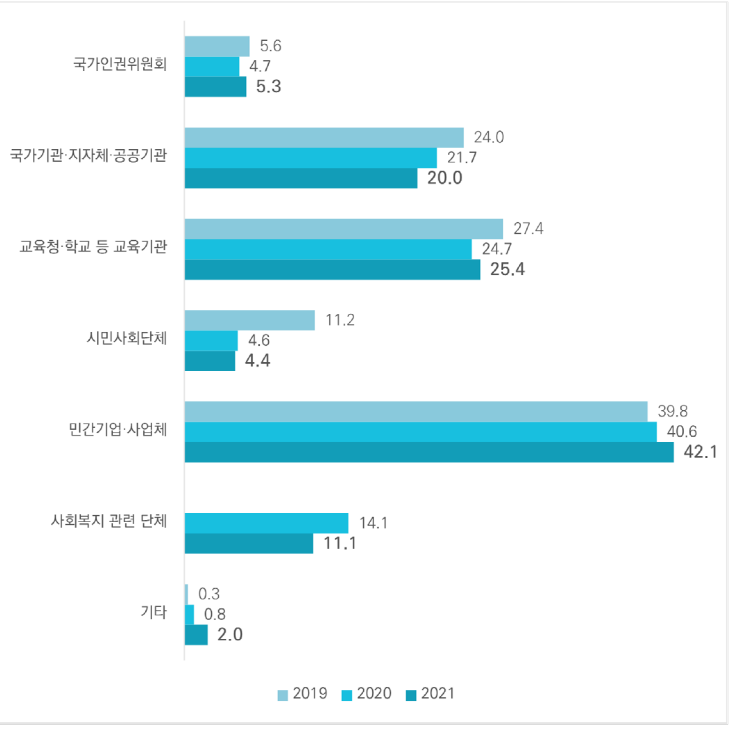


(4) 인권교육을 받은 기관

인권교육을 받은 기관은 1위가 민간기업·사업체 42.1%로 2020년 대비 1.5%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교육청·학교 등 교육기관이 25.4%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0년 대비 0.7%p가 증가한 수치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중은 5.6%(2019)->4.7%(2020)->5.3%(2021)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8] 인권교육을 받은 기관 추이(중복응답)

(단위 : %)



인권교육을 받은 기관에 대해 남성은 민간기업·사업체가 46.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다음이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23.0%), 교육청·학교 등 교육기관(21.6%)였다. 반면, 여성은 민간기업·사업체(36.5%), 교육청·학교 등 교육기관(30.2%),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16.4%) 순이었다. 연령대에 따라서 교육받은 기관에 대해 20-30대와 40-50대의 경우 민간기업·사업체가 각각 41.7%, 45.2%로 1순위를 차지한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가 32.7%로 1순위를 차지했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이 인권교육을 받은 기관은 민간기업·사업체(41.6%), 교육청·학교 등 교육기관(28.3%)인 반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 민간기업·사업체(44.0%), 사회복지 관련 단체(23.6%)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관리전문직(41.3%), 사무판매서비스(47.8%), 농림생산직(59.1%) 모두 민간기업·사업체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의 경우 교육청·학교 등 교육기관(47.5%)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종교를 고려했을 때, 종교가 없는 경우(43.9%)와 있는 경우(39.4%) 모두 민간기업·사업체의 비

율이 가장 높았으며, 정치 성향에서도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민간기업·사업체에 인권교육을 받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과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 모두 민간기업·사업체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비율이 각각 46.2%, 36.3%로 가장 높았다. 공동체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중 인권교육을 받은 기관이 가장 높은 곳은 교육청·학교 등 교육기관(30.6%)이 가장 높았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의 경우 민간기업·사업체(40.4%)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3-77〉 인권교육을 주관한 기관의 배경 요인별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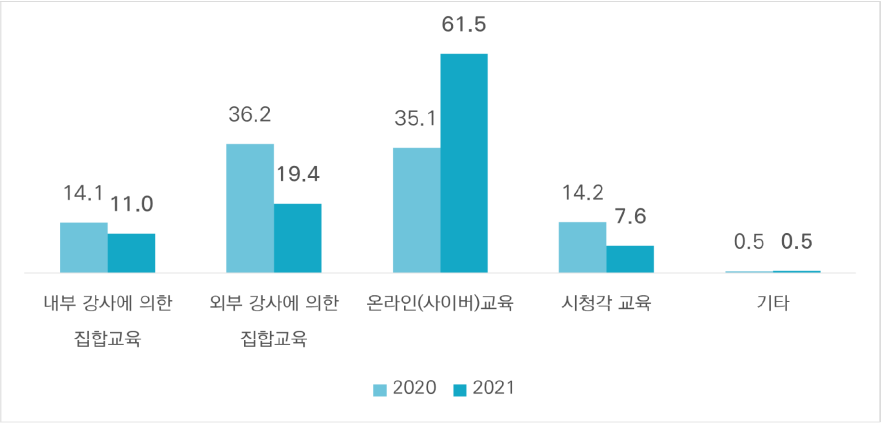
구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교육청·학교 등 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민간기업·사업체	사회복지 관련 단체	기타
전체	5.3	20.0	25.4	4.4	42.1	11.1	2.0
성별							
남자	5.3	23.0	21.6	3.9	46.6	7.6	2.8
여자	5.4	16.4	30.2	5.0	36.5	15.4	1.0
연령							
20-30대	5.5	20.2	30.0	3.3	41.7	7.9	3.0
40-50대	4.9	20.5	21.8	4.7	45.2	10.7	0.9
60대 이상	6.5	16.7	16.7	9.2	27.9	32.7	1.4
학력							
고졸 이하	5.6	13.5	14.2	6.6	44.0	23.6	1.2
대재 이상	5.2	21.7	28.3	3.8	41.6	7.8	2.2
직업							
관리전문직	6.4	20.8	29.9	2.5	41.3	7.9	0.8
사무판매서비스	5.2	21.9	17.9	4.4	47.8	11.2	1.3
농림생산직	5.7	15.2	12.4	7.3	59.1	11.1	0.7
비경제활동인구	3.5	16.9	47.5	5.5	15.5	16.4	6.9
종교							
없음	5.4	20.0	25.3	3.7	43.9	9.1	2.1
있음	5.1	20.1	25.6	5.4	39.4	14.0	1.8
정치 성향							
보수	6.2	18.3	25.4	3.7	41.1	13.3	1.1
중도	5.6	22.3	23.0	4.4	41.0	10.3	2.1
진보	5.0	21.5	28.9	5.5	43.0	10.6	1.8
무관심	4.5	15.6	26.6	3.7	43.7	11.5	2.5
국가 목표							
물질주의	3.8	21.3	21.7	4.9	46.2	9.9	2.2
탈물질주의	4.4	15.3	33.2	4.7	36.3	10.0	3.6
혼합형	6.2	20.2	26.0	4.1	40.9	11.8	1.6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익 중요	7.0	22.1	30.6	6.0	29.2	13.2	3.2
개인 이익 중요	9.1	21.5	24.7	5.6	40.4	9.7	1.3
둘 다 중요	4.6	19.6	24.9	4.0	43.9	11.0	1.9

(5) 인권교육방식

인권교육방식을 보면 1위가 온라인교육(61.5%)으로 이 수치는 2020년 대비 26.4%p가 증가한 것이다. 1위는 외부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19.4%)으로 2020년에 비해서 16.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방식의 변화는 비대면 방식의 교육을 선호한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39] 경험한 인권교육 방식 추이

(단위 : %)



인권교육의 방식에 대해 남성과 여성 모두 온라인(사이버)교육의 비율이 각각 59.4%, 64.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외부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이 각각 22.2%, 16.0%로 두 번째로 높았다. 연령대에 따라서 교육받은 기관에 대해 20-30대와 40-50대, 60대 이상 모두 온라인(사이버)교육이 각각 64.6%, 61.7%, 41.1%로 1순위를 차지했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 모두 온라인(사이버)교육의 비율이 각각 66.6%, 4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그다음으로는 외부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순이었다. 직업의 경우 관리전문직(70.3%)과 사무판매서비스(67.8%),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51.1%)의 경우 온라인(사이버)교육이 1순위를 차지한 반면, 농림생산직의 경우 외부강사에 의한 집합교육(35.3%)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종교를 고려했을 때, 종교가 없는 경우(61.4%)와 있는 경우(61.6%) 모두 온라인(사이버)교육을 받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정치 성향에서도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온라인 인권교육을 받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치 지향에 따르면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61.4%)과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67.0%) 모두 온라인(사이버)교육을 받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공동체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53.3%)과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57.1%) 모두 온라인으로 인권교육을 받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3-78〉 경험한 인권교육 방식

(단위: %)

구분	내부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외부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온라인 (사이버)교육	시청각 교육	기타
전체	11.0	19.4	61.5	7.6	0.5
성별					
남자	11.7	22.2	59.4	6.5	0.2
여자	10.2	16.0	64.0	8.9	0.9
연령					
20-30대	9.6	17.8	64.6	7.5	0.5
40-50대	11.8	18.6	61.7	7.2	0.6
60대 이상	15.3	33.2	41.1	9.9	0.4
학력					
고졸 이하	15.5	28.8	41.6	12.3	1.8
대재 이상	9.9	17.0	66.6	6.4	0.2
직업					
관리전문직	7.5	18.4	70.3	3.5	0.3
사무판매서비스	10.2	15.0	67.8	6.6	0.3
농림생산직	18.9	35.3	29.7	15.4	0.7
비경제활동인구	13.7	21.9	51.1	11.9	1.5
종교					
없음	11.4	19.1	61.4	7.8	0.3
있음	10.5	19.8	61.6	7.2	0.8
정치 성향					
보수	11.4	23.9	57.6	6.9	0.2
중도	11.2	15.0	66.3	7.3	0.3
진보	7.6	24.0	60.9	7.0	0.5
무관심	13.6	20.4	55.8	9.0	1.1
국가 목표					
물질주의	11.4	20.0	61.4	6.9	0.3
탈물질주의	7.7	16.4	67.0	8.4	0.5
혼합형	11.4	19.6	60.6	7.8	0.6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익 중요	12.6	26.9	53.3	7.1	0.0
개인 이익 중요	15.4	15.6	57.1	11.3	0.7
둘 다 중요	10.2	19.0	63.1	7.1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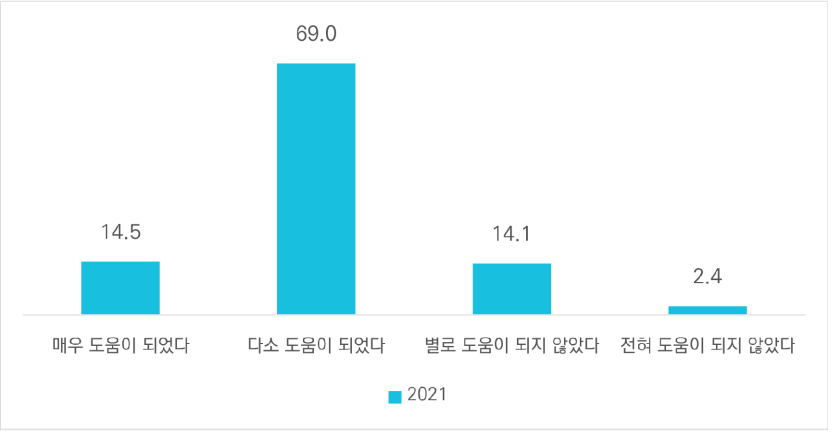
2) 인권교육에 대한 의견

(1) 인권교육이 도움 된 정도

인권교육이 인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매우+다소)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83.6%로 대부분이 인권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40] 인권교육 도움 정도

(단위 : %)



인권교육이 도움이 된 정도에 대해 남성이 84.4%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여성은 82.5%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40-50대가 88.0%로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이 60대 이상(86.5%), 20-30대(79.4%), 순이었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이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83.0%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85.9%)보다 2.9%p 낮았다. 직업의 경우 농림생산직(85.9%), 관리전문직(84.7%), 사무판매서비스(84.2%),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78.4%) 순으로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고려했을 때, 종교가 없는 경우(81.7%)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86.3%)에 4.6%p 정도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정치 성향의 경우, 중도(85.7%), 진보(84.5%), 보수(84.3%), 무관심(78.5%) 순이었다.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 중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83.7%로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82.9%)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공동체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중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93.1%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69.8%)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3-79〉 인권교육이 도움이 된 정도

(단위 : %)

구분	매우 도움 됨	다소 도움 됨	별로 도움되지 않음	전혀 도움되지 않음	평균 (4점)	X^2 (df)
전체	14.5	69.0	14.1	2.4	2.0	
성별						7.875 (3)*
남자	15.5	69.0	12.7	2.8	2.0	
여자	13.4	69.1	15.7	1.8	2.1	
연령						63.848 (6)***
20-30대	10.2	69.2	16.8	3.8	2.1	
40-50대	18.7	69.2	11.1	0.9	1.9	
60대 이상	19.3	67.2	12.8	0.7	1.9	
학력						3.470 (3)
고졸 이하	16.5	69.4	12.0	2.0	2.0	
대재 이상	14.0	68.9	14.6	2.4	2.1	
직업						23.101 (9)**
관리전문직	17.9	66.8	12.9	2.4	2.0	
사무판매서비스	13.7	70.5	13.7	2.1	2.0	
농림생산직	10.7	75.3	12.8	1.2	2.0	
비경제활동인구	13.9	64.5	17.7	3.9	2.1	
종교						23.154 (3)***
없음	12.3	69.4	15.2	3.1	2.1	
있음	17.8	68.5	12.4	1.3	2.0	
정치 성향						36.279 (9)***
보수	21.4	62.9	11.3	4.4	2.0	
중도	13.5	72.2	12.7	1.6	2.0	
진보	13.6	70.9	13.2	2.3	2.0	
무관심	13.0	65.5	19.0	2.5	2.1	
국가 목표						21.301 (6)**
물질주의	14.4	68.5	12.8	4.3	2.1	
탈물질주의	18.4	65.2	14.0	2.4	2.0	
혼합형	14.0	69.9	14.7	1.4	2.0	
공동체 이익						68.551 (6)***
공동체 이익 중요	25.5	67.6	5.4	1.6	1.8	
개인 이익 중요	9.7	60.1	25.7	4.5	2.3	
둘 다 중요	13.8	70.4	13.6	2.2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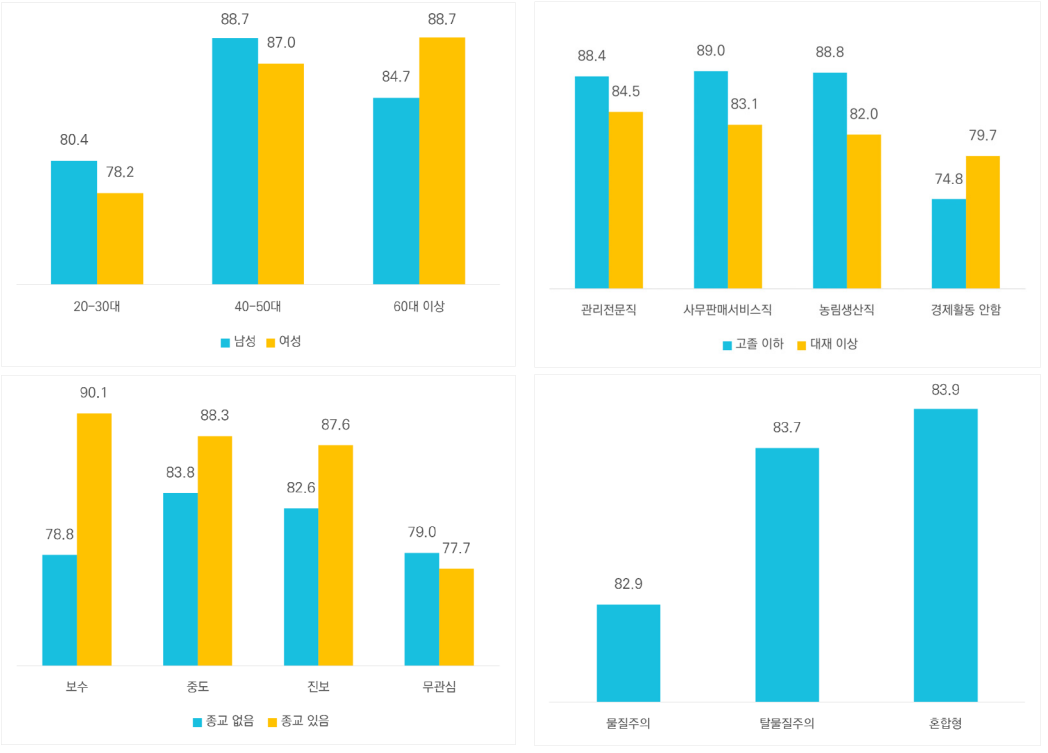
인구학적 배경 요인별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40-50대 남성(88.7%)와 60대 이상의 여성 집단(88.7%)인 반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낮은 집단은 20-30대 여성 집단(78.2%)이었다.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별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사무판매서비스 종사자(89.0%)인 반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낮은 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74.8%)이었다.

의식적 배경 요인별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보수성향의 종교가 있는 집단(90.1%)인 반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낮은 집단은 보수성향의 종교가 없는 집단(78.8%)이었다.

[그림 3-141]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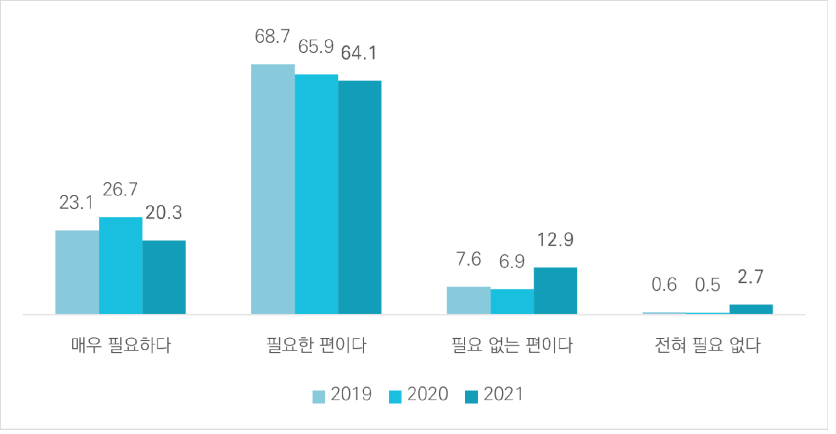


⑵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매우+필요한 편)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84.4%로 2020년 92.6%에 비해 8.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42] 인권교육의 필요성

(단위 : %)



인권교육의 전반적인 필요성에 대해 남성이 83.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여성은 85.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20-30대가 87.0%로 전반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이 40-50대(85.5%), 60대 이상(80.1%) 순이었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이 인권교육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6.7%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82.1%)보다 4.6%p 높았다. 직업의 경우 관리전문직(89.5%), 사무판매서비스(85.2%),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83.7%), 농림생산직(81.2%)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고려했을 때, 종교가 없는 경우(83.5%) 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85.9%)에 2.4%p 정도 인권교육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정치 성향의 경우, 중도(87.4%), 진보(87.2%), 보수(82.6%), 무관심(80.7%) 순이었다.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 중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84.5%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81.9%)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공동체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중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85.8%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77.6%)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3-80〉 인권교육의 전반적인 필요성에 대한 의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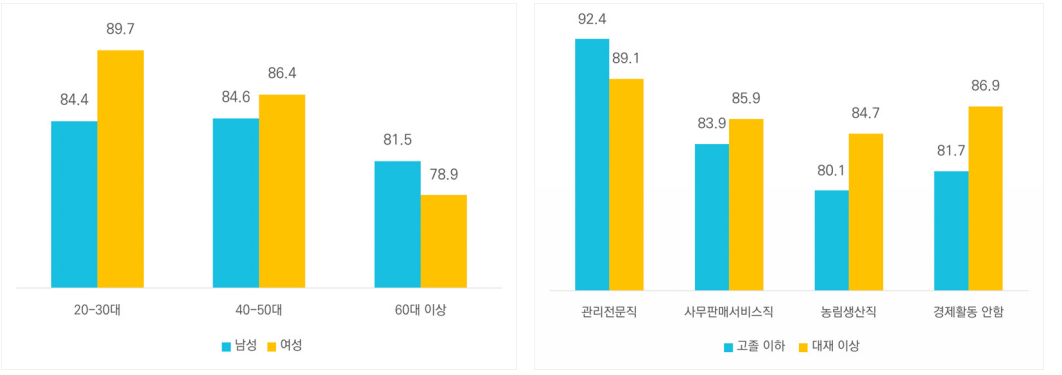
구분	매우 필요	필요한 편	필요 없는 편	전혀 필요 없음	평균 (4점)	X^2 (df)
전체	20.3	64.1	12.9	2.7	3.0	
성별						
남자	18.9	64.8	13.7	2.5	3.0	28.695 (3)***
여자	21.7	63.4	12.0	2.9	3.0	
연령						
20-30대	22.6	64.3	11.5	1.5	3.1	202.765 (6)***
40-50대	21.1	64.4	12.3	2.1	3.0	
60대 이상	16.6	63.4	15.1	4.8	2.9	
학력						
고졸 이하	17.7	64.4	14.1	3.8	3.0	152.164 (3)***
대재 이상	22.8	63.9	11.7	1.7	3.1	
직업						
관리전문직	27.7	61.9	9.2	1.3	3.2	157.156 (9)***
사무판매서비스	20.0	65.2	12.9	1.9	3.0	
농림생산직	17.8	63.4	14.4	4.3	2.9	
비경제활동인구	19.6	64.1	13.1	3.2	3.0	
종교						
없음	19.2	64.3	13.7	2.8	3.0	33.841 (3)***
있음	22.2	63.8	11.5	2.6	3.1	
정치 성향						
보수	19.4	63.2	14.0	3.4	3.0	221.888 (9)***
중도	20.7	66.7	11.2	1.4	3.1	
진보	25.0	62.1	11.4	1.4	3.1	
무관심	17.9	62.8	14.8	4.5	2.9	
국가 목표						
물질주의	20.2	64.3	13.4	2.0	3.0	43.452 (6)***
탈물질주의	24.2	57.8	14.2	3.9	3.0	
혼합형	19.9	64.8	12.4	3.0	3.0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익 중요	19.6	66.2	12.0	2.1	3.0	123.722 (6)***
개인 이익 중요	15.5	62.1	19.5	2.8	2.9	
둘 다 중요	21.2	64.1	11.9	2.8	3.0	

인구학적 배경 요인별 전반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20-30대의 여성 집단(89.7%)인 반면, 인구학적 배경 요인별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낮은 집단은 60대 이상 여성 집단(78.9%)이었다.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별 인권교육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관리전문직 종사자(92.4%)인 반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낮은 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농림생산직(80.1%)이었다.

[그림 3-143] 인권교육의 전반적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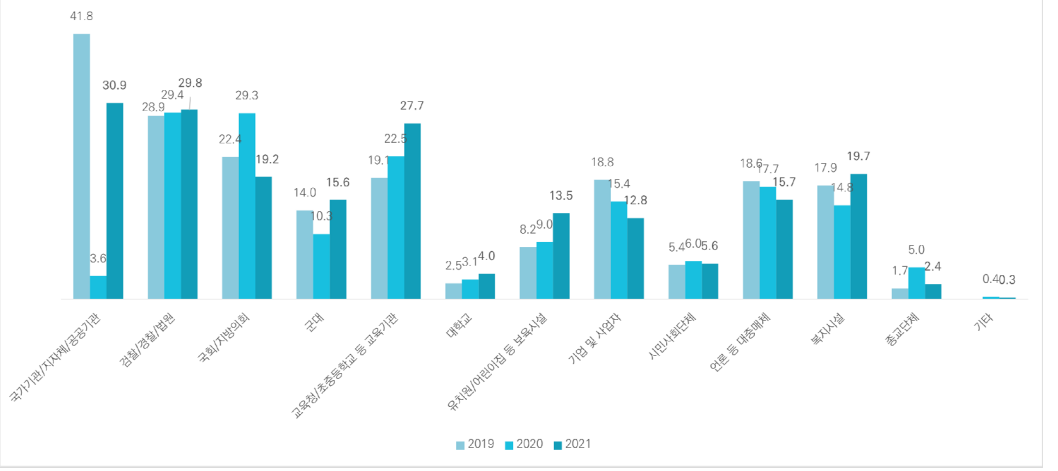
(3) 인권교육의 대상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 의식의 제고가 필요한 대상(1순위+2순위)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응답은 1위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30.9%), 2위는 검찰/경찰/법원 (29.8%), 3위는 교육청/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27.7%)이었다. 2020년과 순위의 변화는 없으나 교육청/초/중등학교는 2019년 19.1%에서 2020년 22.5%, 2021년 27.7%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검찰/경찰/법원의 경우도 28.9%(2019), 29.4%(2020), 29.8%(2021)로 약간씩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교육대상의 1위이기는 하지만,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경우 41.8%(2019) → 36.3%(2020) → 30.9%(2021)로 꾸준히 그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그림 3-144]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제고가 필요한 대상 추이

(단위 : %)



인권교육을 더 많이 받아야 할 대상으로 응답한 1순위와 2순위를 모두 살펴본 결과 남성은 검찰/경찰/법원이 33.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다음이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31.3%)였다. 반면, 여성은 교육청/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30.6%),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30.5%) 순이었다.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을 높여야 할 대상에 대해 20-30대는 교육청/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30.7%)을, 40-5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31.4%, 33.2%의 비율로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을 꼽았다.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 중 인권의식을 높여야 할 대상에 대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곳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33.0%), 검찰/경찰/법원(30.7%) 순이었다. 탈물질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의 경우 검찰/경찰/법원(32.5%), 교육청/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29.0%) 순이었다.

공동체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경우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37.3%), 검찰/경찰/법원(34.7%) 순이었고, 개인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경우 검찰/경찰/법원(30.2%),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29.1%) 순이었다.

〈표 3-81〉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 의식 높여야 할 대상(1순위+2순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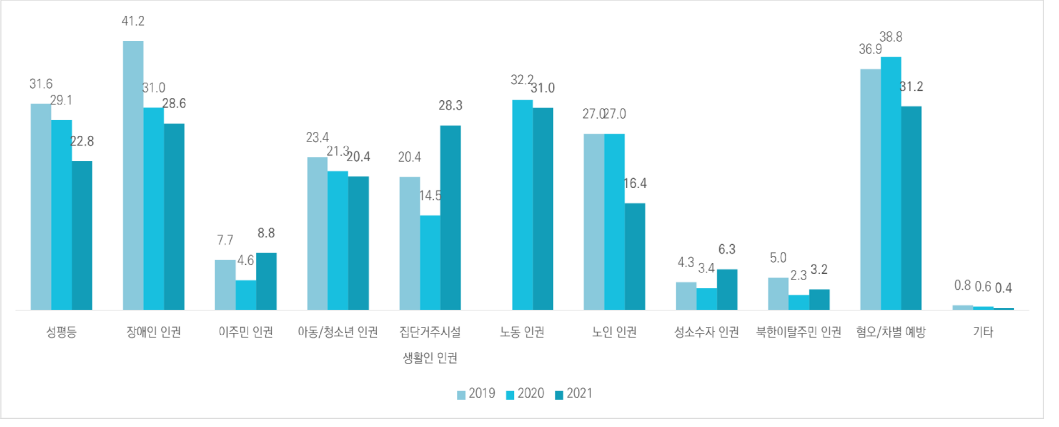
구분	국가기관/자치체/공공기관	검찰 경찰 법원	국회/지방의회	군대	교육청/교육기관	대학	보육시설	기업 및 사업자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 대중매체	복지시설	종교단체	기타
전체	30.9	29.8	19.2	15.6	27.7	4.0	13.5	12.8	5.6	15.7	19.7	2.4	0.3
성별													
남자	31.3	33.0	19.6	18.4	24.7	3.7	11.8	13.8	5.9	14.9	17.1	2.6	0.3
여자	30.5	26.8	18.9	12.8	30.6	4.3	15.2	11.8	5.3	16.4	22.3	2.2	0.2
연령													
20-30대	28.2	26.0	16.2	20.7	30.7	5.7	14.3	15.0	5.4	17.6	14.8	2.3	0.3
40-50대	31.4	32.2	20.0	14.6	25.4	3.0	12.8	13.3	6.0	15.3	20.6	2.3	0.2
60대 이상	33.2	31.1	21.6	11.2	27.3	3.4	13.7	9.5	5.3	14.0	24.3	2.5	0.2
학력													
고졸 이하	32.0	29.8	20.7	12.6	27.5	3.3	13.8	11.9	5.7	15.0	22.4	2.6	0.2
대재 이상	29.8	29.9	17.8	18.5	27.9	4.7	13.2	13.6	5.5	16.3	17.2	2.2	0.3
직업													
관리전문직	29.0	36.0	22.0	19.9	23.4	3.9	10.9	12.1	4.2	16.0	15.8	3.1	0.6
사무판매서비스	31.0	28.8	19.0	15.3	27.0	3.9	13.2	15.3	6.4	15.9	19.1	2.0	0.2
농림생산직	31.7	30.4	20.5	15.4	27.6	2.8	12.4	13.6	5.7	14.2	19.9	2.3	0.3
비경제활동인구	30.9	28.7	18.0	14.7	29.6	4.7	15.2	10.2	5.2	16.1	21.4	2.6	0.2
종교													
없음	30.5	29.5	18.9	15.9	27.9	4.2	13.3	13.9	5.7	15.9	18.8	2.3	0.2
있음	31.4	30.4	19.9	15.2	27.2	3.6	13.9	10.8	5.4	15.4	21.3	2.5	0.3
정치 성향													
보수	32.0	31.5	20.9	14.0	25.7	4.5	14.4	10.9	5.7	14.4	20.7	2.7	0.2
중도	29.6	30.0	18.3	16.6	28.6	3.5	14.1	13.1	5.8	15.8	20.0	1.9	0.3
진보	28.7	32.2	19.5	16.3	27.0	3.9	11.6	14.5	5.4	18.0	16.6	2.8	0.1
무관심	32.8	27.3	19.1	15.1	28.3	4.4	13.3	12.6	5.4	15.0	20.5	2.5	0.4
국가 목표													
물질주의	33.0	30.7	19.9	15.8	25.0	4.0	15.1	11.0	4.9	14.2	21.6	2.1	0.2
탈물질주의	24.4	32.5	17.9	16.0	29.0	5.3	11.2	14.6	7.4	17.7	17.5	3.4	0.4
혼합형	30.4	29.0	19.0	15.4	29.1	3.8	12.9	13.7	5.8	16.3	18.9	2.4	0.3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익 중요	37.3	34.7	21.2	15.4	24.1	5.2	12.3	12.7	5.2	12.6	14.6	2.1	0.4
개인 이익 중요	29.1	30.2	16.8	14.0	26.5	5.7	15.7	13.7	5.8	14.9	21.6	2.7	0.1
둘 다 중요	30.2	29.0	19.3	15.9	28.4	3.6	13.4	12.7	5.6	16.3	20.2	2.4	0.3

⑷ 인권교육의 주제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1순위와 2순위를 함께 살펴보았을 때, 1위는 혐오/차별 예방(31.2%), 2위는 노동인권(31.0%)이었다. 순위는 2020년도와 동일하지만 혐오/차별의 경우 2020년 38.8%에서 31.2%로 노동인권은 2020년 32.2%에서 2021년 31.0%로 감소하였다. 반면 집단거주시설 생활인 인권은 2020년 14.5%에서 2021년 28.3%로 13.8%p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의 경우는 2019년 31.6%에서 2020년 29.1%, 2021년 22.8%로 연도별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45]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 추이

(단위 :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노동인권이란 응답이 34.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혐오/차별 예방(31.2%)이었다. 반면, 여성은 혐오/차별 예방(31.2%), 집단거주시설 생활인 인권(29.5%) 순이었다. 연령별로 20-30대는 혐오/차별 예방(34.9%)을, 40-50대는 노동인권(33.7%)을, 60대 이상은 집단거주시설 생활인 인권(36.0%)을 꼽았다.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30.9%)과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32.3%) 모두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 또는 내용으로 혐오/차별 예방을 꼽았다. 공동체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경우 장애인 인권(32.3%)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개인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경우 집단거주시설 생활인 인권(31.9%)을 꼽았다.

〈표 3-82〉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 또는 내용(1순위+2순위)

(단위: %)

구분	성평등	장애인 인권	이주민 인권	아동·청소년 인권	집단거주 시설 생활인 인권	노동 인권	노인 인권	성소수자 인권	북한이탈주민 인권	혐오/차별 예방	기타
전체	15.3	16.7	4.3	10.7	14.8	14.0	5.7	1.9	1.1	15.3	0.2
성별											
남자	13.8	17.8	4.7	9.5	14.2	16.0	5.5	1.9	1.2	15.0	0.4
여자	16.7	15.6	3.9	11.9	15.3	12.1	5.9	1.8	1.0	15.6	0.1
연령											
20-30대	19.1	16.9	3.8	11.4	11.1	13.8	2.8	2.1	0.9	17.9	0.4
40-50대	15.1	17.1	5.0	10.7	14.8	15.2	4.2	1.9	1.2	14.7	0.1
60대 이상	11.2	16.0	3.9	9.8	18.9	12.8	11.1	1.7	1.2	13.3	0.2
학력											
고졸 이하	13.3	16.5	4.5	10.3	16.8	14.6	7.9	1.8	1.1	13.2	0.1
대재 이상	17.2	16.9	4.1	11.0	12.8	13.5	3.6	2.0	1.1	17.4	0.4
직업											
관리전문직	17.7	17.2	3.7	11.2	10.3	12.2	4.3	1.3	0.9	20.6	0.5
사무판매서비스	16.2	17.0	5.2	11.5	14.1	13.9	4.0	2.3	1.4	14.1	0.3
농림생산직	13.0	15.9	4.9	10.0	17.2	17.6	6.4	1.7	0.8	12.4	0.3
비경제활동인구	14.8	16.5	3.3	10.2	15.6	12.8	7.5	1.7	1.0	16.5	0.2
종교											
없음	15.5	16.8	4.5	10.5	14.3	15.0	5.3	2.0	1.0	14.9	0.3
있음	14.9	16.6	4.0	11.1	15.5	12.4	6.4	1.7	1.1	16.0	0.2
정치 성향											
보수	14.6	15.9	3.8	10.7	15.6	13.0	8.5	1.8	1.5	14.5	0.2
중도	15.8	17.3	3.9	10.4	14.1	14.4	4.1	1.9	0.8	17.1	0.2
진보	15.9	15.4	5.4	11.1	13.8	14.8	4.4	2.5	1.0	15.5	0.2
무관심	14.8	17.2	4.5	10.9	15.6	13.8	6.5	1.6	1.1	13.7	0.3
국가 목표											
물질주의	21.6	29.8	8.8	19.6	29.8	30.3	18.2	5.0	3.5	30.9	0.4
탈물질주의	24.5	24.6	8.4	21.3	26.4	31.1	15.3	9.0	3.8	32.3	0.2
혼합형	23.3	28.3	8.8	20.8	27.6	31.4	15.4	6.8	2.9	31.2	0.4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익 중요	23.1	32.3	12.4	18.1	24.5	30.1	21.7	6.0	3.2	25.9	0.4
개인 이익 중요	22.8	27.1	9.9	23.2	31.9	30.4	14.4	8.4	3.5	24.8	0.1
둘 다 중요	22.8	28.3	8.0	20.3	28.3	31.2	15.9	6.0	3.1	33.0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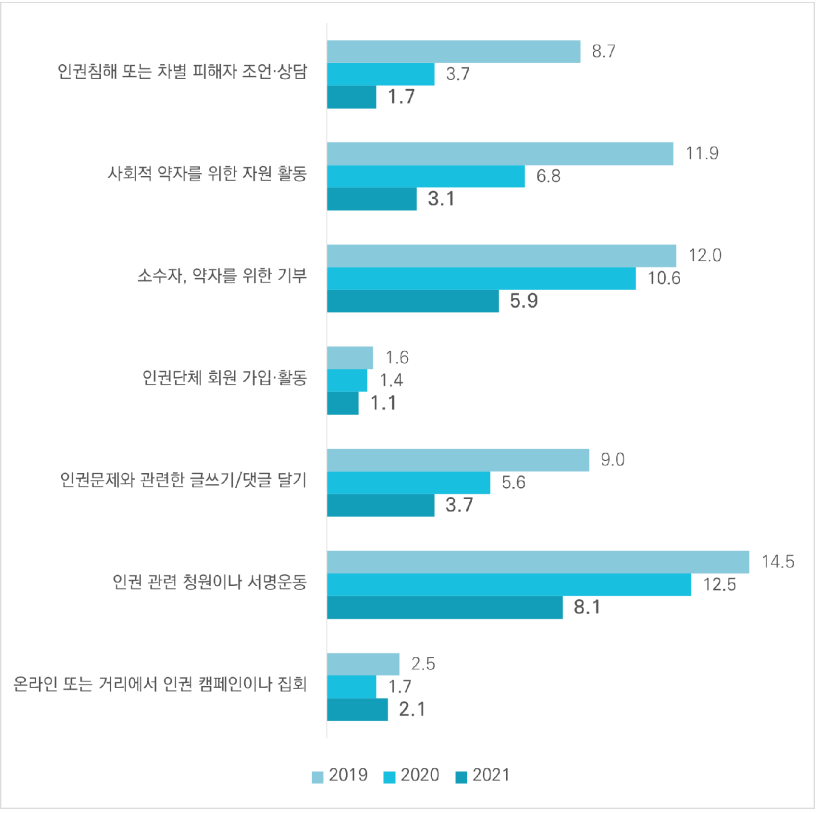
3) 인권침해 또는 차별 해소

(1) 인권침해 또는 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최근 1년간 인권침해 및 차별 해소를 위해 어떠한 활동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의 그림 [3-145]와 같다.

[그림 3-146] 인권침해 및 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추이

(단위 : %)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인권침해 또는 차별 피해자 조언·상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1.8%, 여성 1.6%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0.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20-30대가 2.2%, 40-50대가 2.0%, 60대 이상이 0.8% 순으로 20-30대의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2.3%)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1.2%)로 고학력층에서 경험률이 높았다.

〈표 3-83〉 지난 1년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피해자 조언·상담 경험

(단위 : %)

구분	있다	없다	X^2(df)
전체	1.7	98.3	
성별			
남자	1.8	98.2	1.098(1)
여자	1.6	98.4	
연령			
20-30대	2.2	97.8	36.862(2)***
40-50대	2.0	98.0	
60대 이상	0.8	99.2	
학력			
고졸 이하	1.2	98.8	28.550(1)***
대재 이상	2.3	97.7	
직업			
관리전문직	4.0	96.0	
사무판매서비스	2.0	98.0	80.989(3)***
농림생산직	1.3	98.7	
비경제활동인구	1.0	99.0	
종교			
없음	1.5	98.5	7.892(1)**
있음	2.1	97.9	
정치 성향			
보수	1.6	98.4	
중도	1.6	98.4	27.151(3)***
진보	2.9	97.1	
무관심	1.3	98.7	
국가 목표			
물질주의	1.4	98.6	4.858(2)*
탈물질주의	1.8	98.2	
혼합형	1.9	98.1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익 중요	2.3	97.7	5.824(2)*
개인 이익 중요	2.0	98.0	
둘 다 중요	1.6	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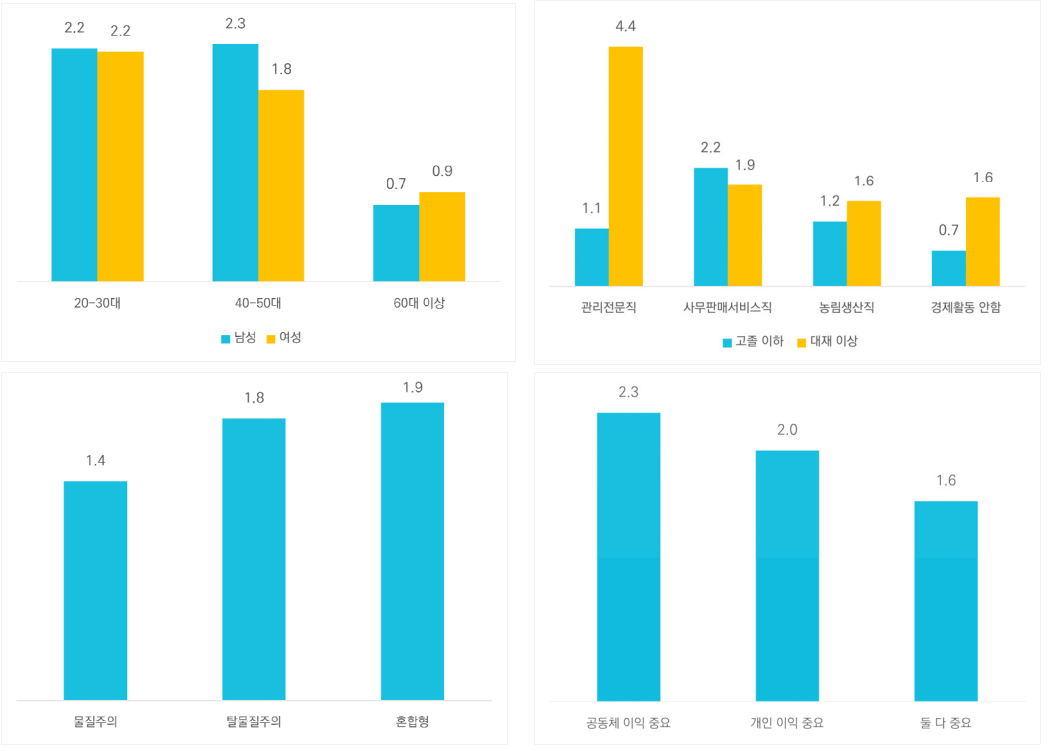
인구학적 배경 요인별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인권침해 또는 차별 피해자 조언·상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40-50대의 남성 집단(2.3%)인 반면,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낮은 집단은 60대 이상 남성 집단(0.7%)이었다.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 중 인권침해 또는 차별 피해자에게 조언이나 상담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8%로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1.4%)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공동체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중 조언이나 상담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

율은 2.3%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2.0%)과 유사한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3-147] 지난 1년 인권침해 또는 차별 피해자 조언·상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 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3.2%, 여성 3.0%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0.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20-30대가 4.3%, 40-50대가 3.4%, 60대 이상이 1.4% 순으로 20-30대의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4.6%)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1.5%) 보다 3.1%p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종교가 없는 경우(2.4%)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4.3%)에 경험했다는 비율이 높았고, 정치적 성향이 진보인 경우(4.7%)에 경험했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고, 정치에 무관심한 경우(2.2%)에 가장 낮았다.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 중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 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4.7%로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2.6%)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공동체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중 자원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4.4%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2.2%)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3-84〉 지난 1년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 활동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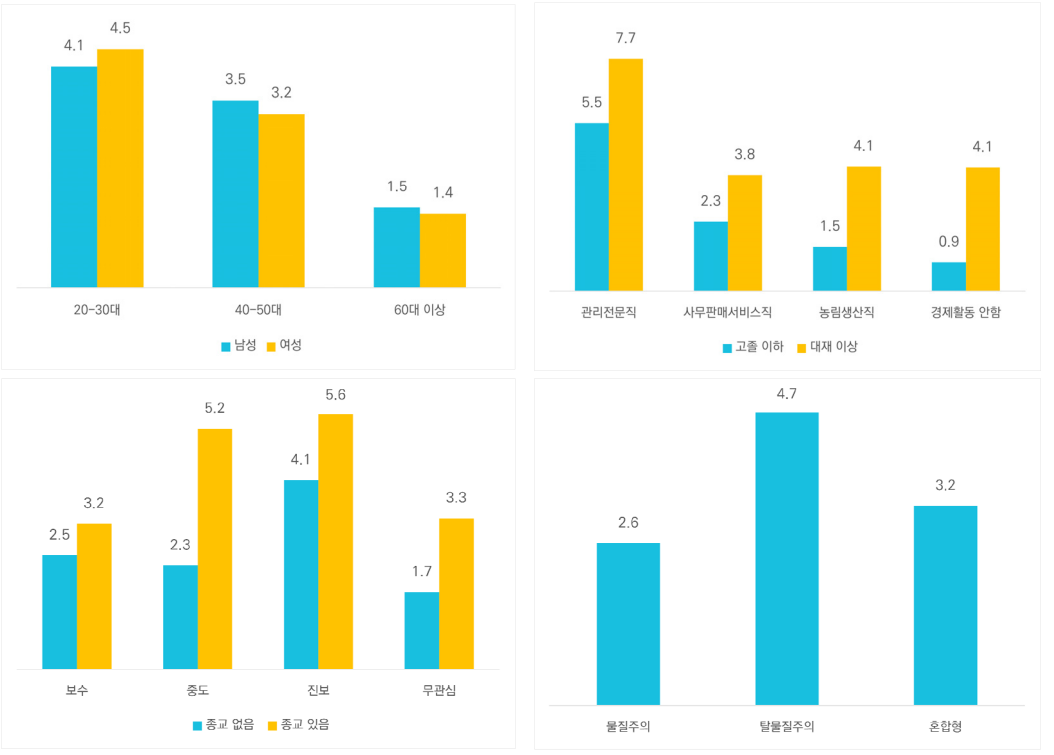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있다	없다	X^2(df)
전체	3.1	96.9	
성별			
남자	3.2	96.8	0.349(1)
여자	3.0	97.0	
연령			
20-30대	4.3	95.7	75.531(2)***
40-50대	3.4	96.6	
60대 이상	1.4	98.6	
학력			
고졸 이하	1.5	98.5	139.675(1)***
대재 이상	4.6	95.4	
직업			
관리전문직	7.4	92.6	
사무판매서비스	3.3	96.7	144.724(3)***
농림생산직	2.1	97.9	
비경제활동인구	2.2	97.8	
종교			
없음	2.4	97.6	47.790(1)***
있음	4.3	95.7	
정치 성향			
보수	2.8	97.2	
중도	3.3	96.7	39.315(3)***
진보	4.7	95.3	
무관심	2.2	97.8	
국가 목표			
물질주의	2.6	97.4	15.123(2)***
탈물질주의	4.7	95.3	
혼합형	3.2	96.8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익 중요	4.4	95.6	16.335(2)***
개인 이익 중요	2.2	97.8	
둘 다 중요	3.1	96.9	

인구학적 배경 요인별 지난 1년 동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 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20-30대의 여성 집단(4.5%)인 반면,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낮은 집단은 60대 이상 여성 집단(1.4%)이었다.

[그림 3-148] 지난 1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 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소수자, 약자를 위한 기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5.5%, 여성 6.3%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0.8%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20-30대가 7.0%, 40-50대가 7.5%, 60대 이상이 2.6% 순으로 40-50대의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8.8%)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3.0%) 보다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8%p 높았고,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이 14.1%로 다른 집단에 비해 약 2~3배 높은 기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 중 소수자나 약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0.6%로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5.5%)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공동체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중 기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6.1%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4.5%)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3-85〉 지난 1년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소수자, 약자 대상 기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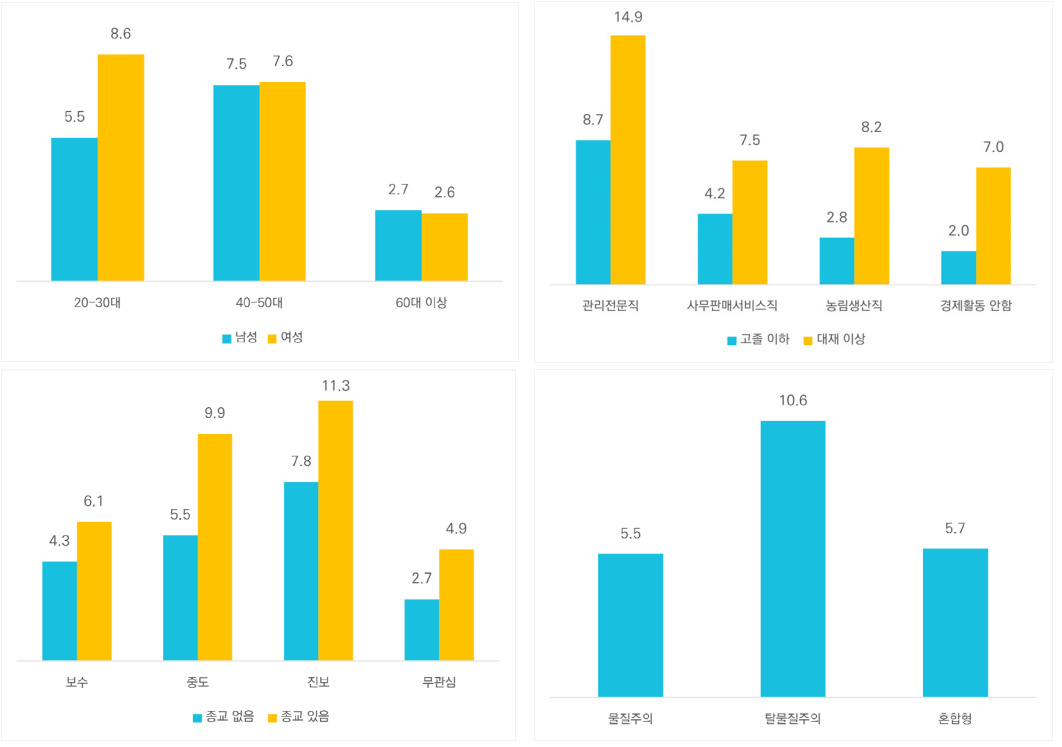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있다	없다	X^2(df)
전체	5.9	94.1	
성별			
남자	5.5	94.5	5.311(1)*
여자	6.3	93.7	
연령			
20-30대	7.0	93.0	138.991(2)***
40-50대	7.5	92.5	
60대 이상	2.6	97.4	
학력			
고졸 이하	3.0	97.0	265.431(1)***
대재 이상	8.8	91.2	
직업			
관리전문직	14.1	85.9	
사무판매서비스	6.3	93.7	289.496(3)***
농림생산직	4.2	95.8	
비경제활동인구	4.0	96.0	
종교			
없음	4.8	95.2	71.440(1)***
있음	7.9	92.1	
정치 성향			
보수	5.2	94.8	
중도	7.1	92.9	131.247(3)***
진보	9.1	90.9	
무관심	3.4	96.6	
국가 목표			
물질주의	5.5	94.5	49.466(2)***
탈물질주의	10.6	89.4	
혼합형	5.7	94.3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익 중요	6.1	93.9	9.610(2)**
개인 이익 중요	4.5	95.5	
둘 다 중요	6.1	93.9	

인구학적 배경 요인별 지난 1년 동안 소수자, 약자를 위한 기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20-30대의 여성 집단(8.6%)인 반면,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낮은 집단은 60대 이상 여성 집단(2.6%)이었다.

[그림 3-149] 지난 1년 소수자, 약자를 위한 기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인권단체 회원가입/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 1.1%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20-30대가 1.4%, 40-50대가 1.2%, 60대 이상이 0.5% 순으로 20-30대의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1.4%)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0.8%) 보다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0.6%p 높았다.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2.4%)이 다른 직업군보다 인권단체 회원 가입/활동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종교별로는 종교가 없는 경우(0.9%)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에(1.3%),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 성

향(2.3%)이 다른 성향 집단보다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인권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경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 중 인권단체 회원가입이나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7%로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0.7%)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공동체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중 인권단체 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7%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1.1%)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3-86〉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인권단체 회원 가입·활동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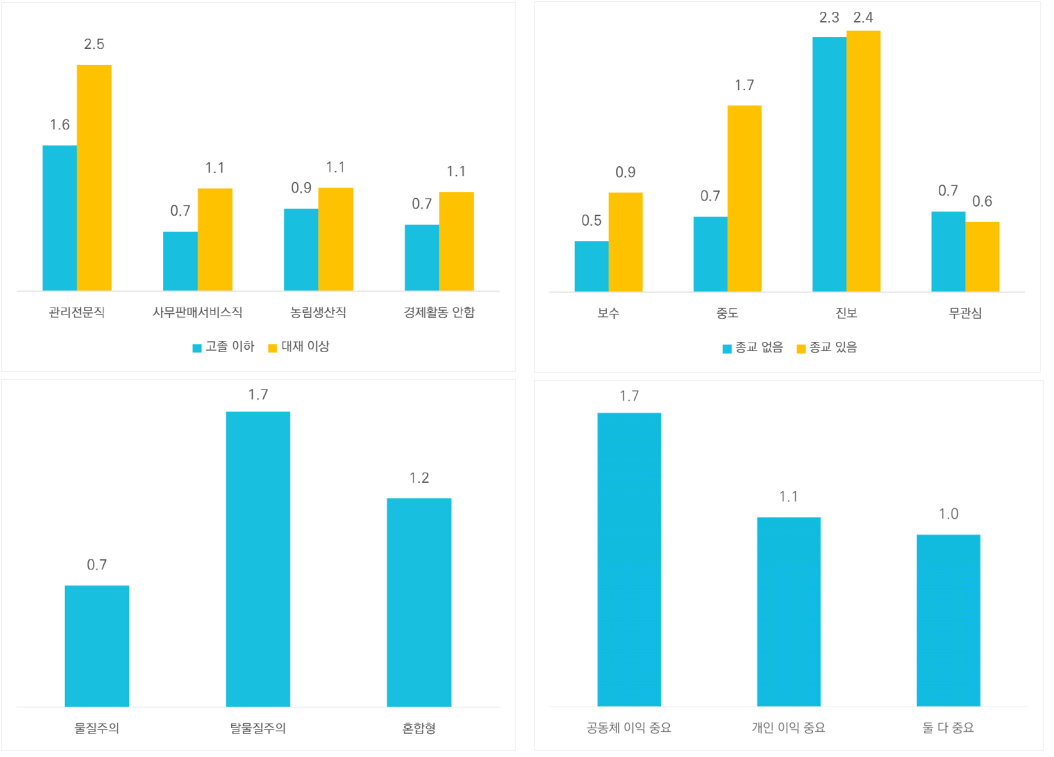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있다	없다	X^2(df)
전체	1.1	98.9	
성별			
남자	1.1	98.9	0.005(1)
여자	1.1	98.9	
연령			
20-30대	1.4	98.6	22.757(2)***
40-50대	1.2	98.8	
60대 이상	0.5	99.5	
학력			
고졸 이하	0.8	99.2	13.729(1)***
대재 이상	1.4	98.6	
직업			
관리전문직	2.4	97.6	
사무판매서비스	1.0	99.0	33.387(3)***
농림생산직	1.0	99.0	
비경제활동인구	0.9	99.1	
종교			
없음	0.9	99.1	6.211(1)*
있음	1.3	98.7	
정치 성향			
보수	0.7	99.3	
중도	1.0	99.0	55.958(3)***
진보	2.3	97.7	
무관심	0.7	99.3	
국가 목표			
물질주의	0.7	99.3	14.428(2)***
탈물질주의	1.7	98.3	
혼합형	1.2	98.8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익 중요	1.7	98.3	8.619(2)**
개인 이익 중요	1.1	98.9	
둘 다 중요	1.0	99.0	

인구학적 배경 요인별 지난 1년 동안 인권단체 회원가입/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20-30대의 여성 집단(1.6%)인 반면,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낮은 집단은 60대 이상 남성 집단(0.4%)이었다.

[그림 3-150] 지난 1년 인권단체 회원가입/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인권문제와 관련한 글쓰기/댓글 달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3.4%, 여성 3.9%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0.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20-30대가 5.8%, 40-50대가 3.7%, 60대 이상이 1.3% 순으로 20-30대의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5.8%)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1.5%) 보다 4.3%p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 중 인권문제와 관련한 글쓰기 및 댓글을 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7.0%로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2.9%)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

다. 공동체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중 인권문제 관련 글쓰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3.6%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4.3%)에 비해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3-87〉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글쓰기/댓글 달기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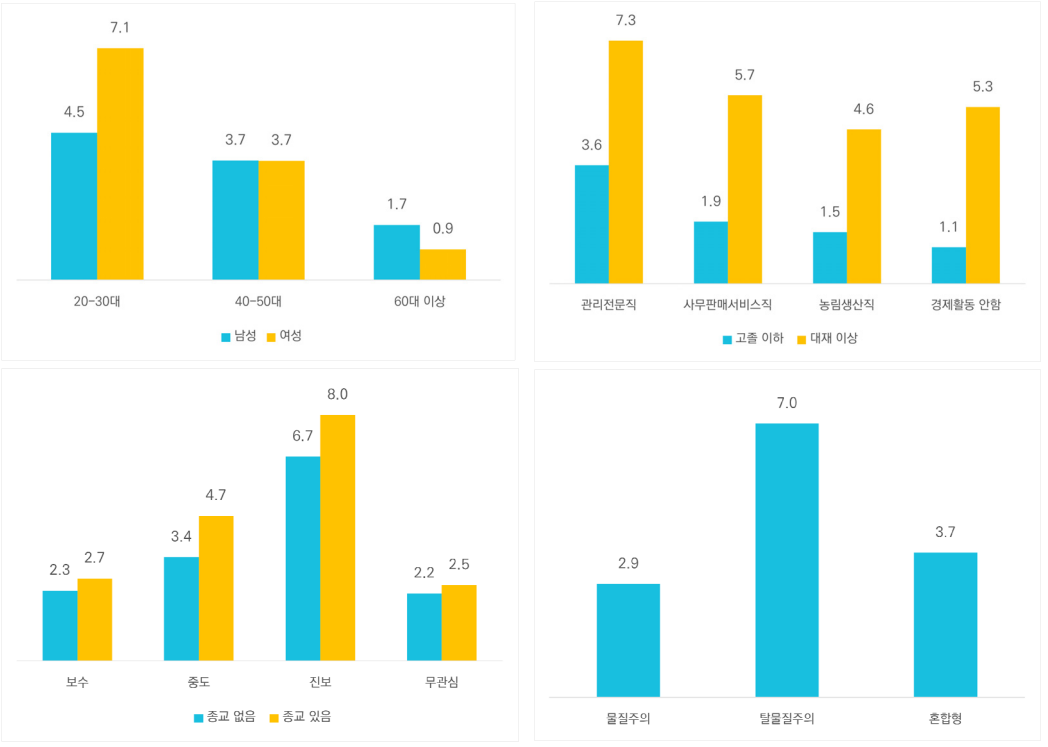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있다	없다	X^2(df)
전체	3.7	96.3	
성별			
남자	3.4	96.6	2.373(1)
여자	3.9	96.1	
연령			
20-30대	5.8	94.2	152.089(2)***
40-50대	3.7	96.3	
60대 이상	1.3	98.7	
학력			
고졸 이하	1.5	98.5	229.106(1)***
대재 이상	5.8	94.2	
직업			
관리전문직	6.8	93.2	
사무판매서비스	4.3	95.7	93.058(3)***
농림생산직	2.3	97.7	
비경제활동인구	2.7	97.3	
종교			
없음	3.4	96.6	8.134(1)**
있음	4.2	95.8	
정치 성향			
보수	2.5	97.5	
중도	3.9	96.1	142.091(3)***
진보	7.2	92.8	
무관심	2.3	97.7	
국가 목표			
물질주의	2.9	97.1	48.694(2)***
탈물질주의	7.0	93.0	
혼합형	3.7	96.3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익 중요	3.6	96.4	3.220(2)
개인 이익 중요	4.3	95.7	
둘 다 중요	3.6	96.4	

인구학적 배경 요인별 지난 1년 동안 인권문제와 관련한 글쓰기/댓글 달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20-30대의 여성 집단(7.1%)인 반면,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낮은 집단은 60대 이상 여성 집단(0.9%)이었다.

[그림 3-151] 지난 1년 인권문제와 관련한 글쓰기/댓글 달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인권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7.2%, 여성 9.0%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1.8%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20-30대가 12.3%, 40-50대가 8.8%, 60대 이상이 2.3% 순으로 20-30대의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12.3%)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3.7%)보다 8.6%p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 중 인권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2.5%로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5.7%)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공

동체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중 청원이나 서명운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7.4%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7.0%)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3-88〉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인권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에 참여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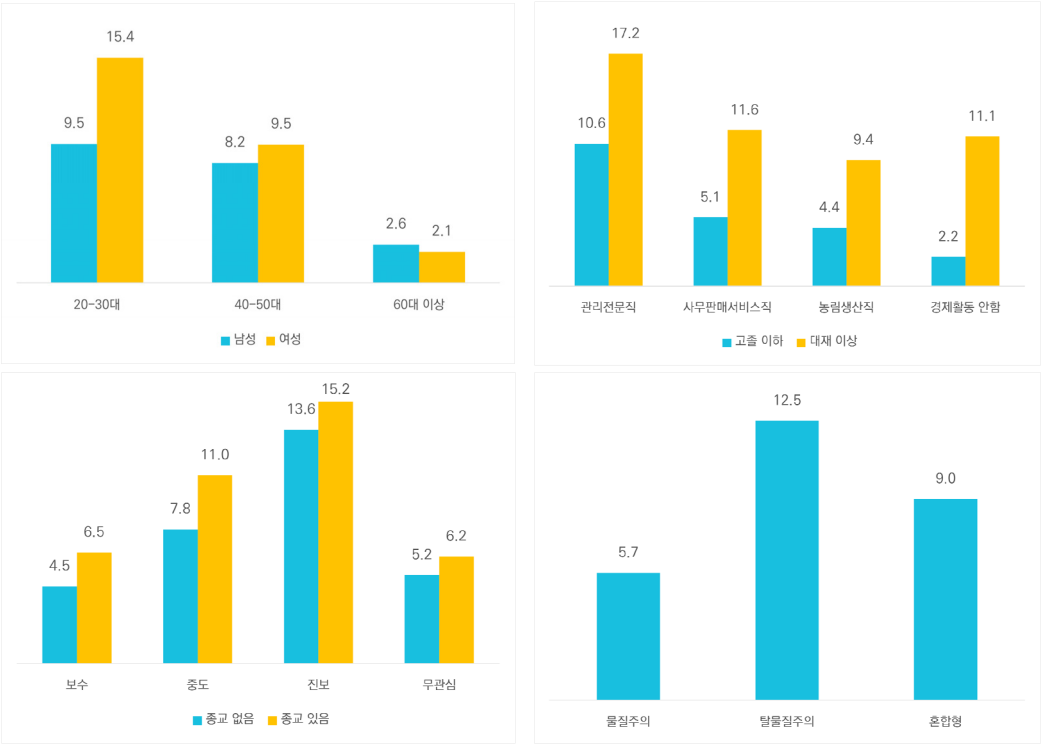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있다	없다	X^2(df)
전체	8.1	91.9	
성별			
남자	7.2	92.8	19.623(1)***
여자	9.0	91.0	
연령			
20-30대	12.3	87.7	365.312(2)***
40-50대	8.8	91.2	
60대 이상	2.3	97.7	
학력			
고졸 이하	3.7	96.3	432.799(1)***
대재 이상	12.3	87.7	
직업			
관리전문직	16.4	83.6	
사무판매서비스	9.3	90.7	266.143(3)***
농림생산직	5.6	94.4	
비경제활동인구	5.7	94.3	
종교			
없음	7.4	92.6	21.566(1)***
있음	9.3	90.7	
정치성향			
보수	5.4	94.6	
중도	8.9	91.1	230.825(3)***
진보	14.2	85.8	
무관심	5.5	94.5	
국가 목표			
물질주의	5.7	94.3	88.753(2)***
탈물질주의	12.5	87.5	
혼합형	9.0	91.0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익 중요	7.4	92.6	7.290(2)**
개인 이익 중요	7.0	93.0	
둘 다 중요	8.4	91.6	

인구학적 배경 요인별 지난 1년 동안 인권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20-30대의 여성 집단(15.4%)인 반면,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낮은 집단은 60대 이상 여성 집단(2.1%)이었다.

[그림 3-152] 지난 1년 인권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온라인 또는 거리에서 인권 캠페인이나 집회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 2.1%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20-30대가 2.8%, 40-50대가 2.6%, 60대 이상이 0.8% 순으로 20-30대의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2.9%)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1.3%)보다 1.6%p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 중 온라인 또는 거리에서 인권 캠페인이나 집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6%로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1.0%)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

타냈다. 공동체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중 인권 캠페인이나 집회 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8%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2.1%)에 비해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3-89〉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인권 캠페인이나 집회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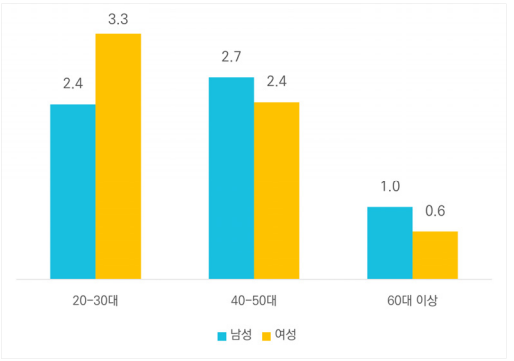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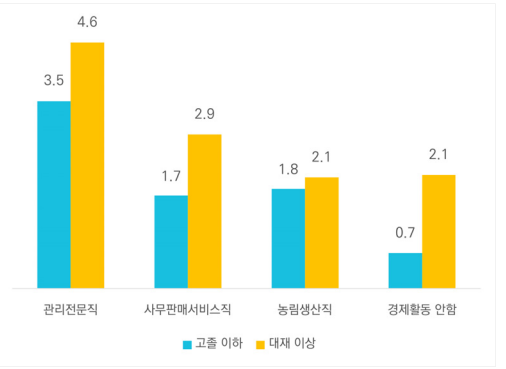
구분	있다	없다	X^2(df)
전체	2.1	97.9	
성별			
남자	2.1	97.9	0.002(1)
여자	2.1	97.9	
연령			
20-30대	2.8	97.2	61.132(2)***
40-50대	2.6	97.4	
60대 이상	0.8	99.2	
학력			
고졸 이하	1.3	98.7	52.642(1)***
대재 이상	2.9	97.1	
직업			
관리전문직	4.4	95.6	
사무판매서비스	2.5	97.5	77.898(3)***
농림생산직	1.9	98.1	
비경제활동인구	1.2	98.8	
종교			
없음	1.8	98.2	12.507(1)***
있음	2.6	97.4	
정치 성향			
보수	1.9	98.1	
중도	1.8	98.2	37.419(3)***
진보	3.6	96.4	
무관심	1.8	98.2	
국가 목표			
물질주의	1.0	99.0	53.920(2)***
탈물질주의	2.6	97.4	
혼합형	2.7	97.3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익 중요	1.8	98.2	1.607(2)
개인 이익 중요	2.1	97.9	
둘 다 중요	2.2	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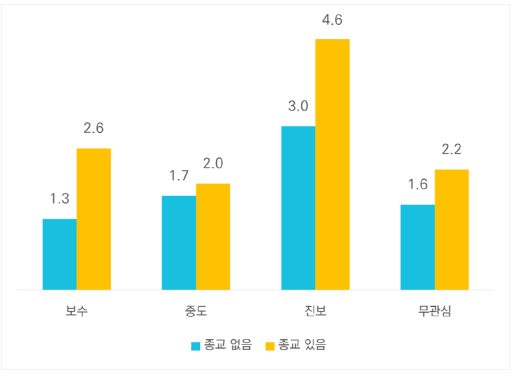
인구학적 배경 요인별 지난 1년 동안 온라인 또는 거리에서 인권 캠페인이나 집회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20-30대의 여성 집단(3.3%)인 반면,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낮은 집단은 60대 이상 여성 집단(0.6%)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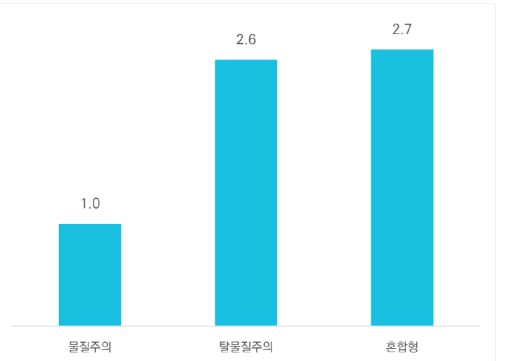
[그림 3-153] 지난 1년 인권 캠페인이나 집회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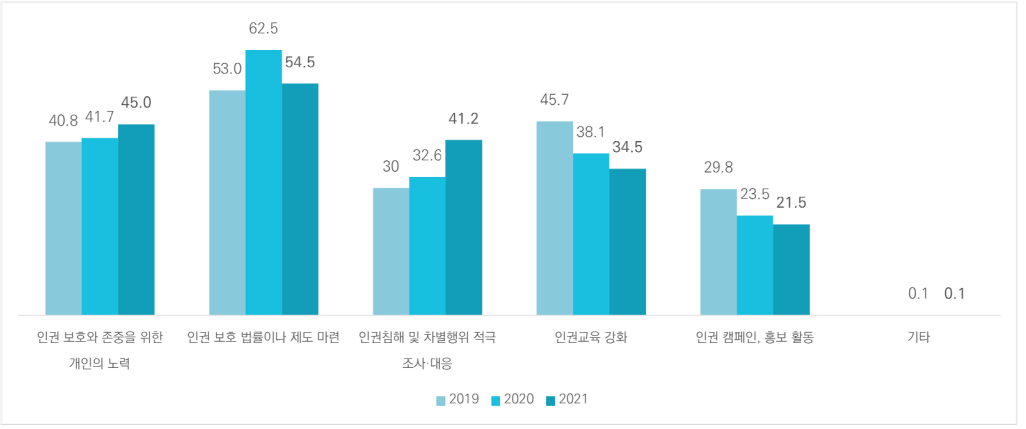


⑵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인권 보호 법률이나 제도 마련(54.5%)이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다. 그다음으로는 인권 보호와 존중을 위한 개인의 노력(45.0%),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적극 조사·대응(41.2%)이 응답되었으며 이는 2019년과 2020년을 거치며 점차 응답의 비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54]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1순위+2순위)

(단위 : %)



인권보호 증진, 차별 해소를 위해 효과적인 방법 1순위와 2순위를 모두 살펴본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가장 높은 비율로 인권보호 법률이나 제도 마련을 꼽았으며, 그다음으로 인권보호와 존중을 위한 개인의 노력이라 답했다. 연령대에 따라서도 세 집단 모두에서 20-30대(55.7%), 40-50대(56.5%), 60대 이상(50.6%)의 비율로 인권보호 법률이나 제도 마련 비율이 가장 높았다.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52.4%)과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56.6%) 모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인권 보호 법률이나 제도 마련을 꼽았다. 마찬가지로 공동체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55.2%)과 개인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54.6%) 모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인권보호와 존중을 위한 개인의 노력이라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3-90〉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1순위+2순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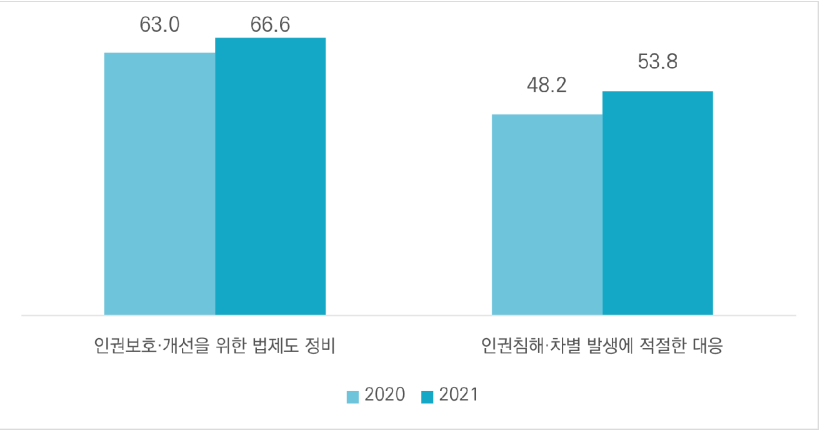
구분	인권보호와 존중을 위한 개인의 노력	인권보호 법률이나 제도 마련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적극 조사·대응	인권교육 강화	인권 캠페인, 홍보 활동	기타
전체	45.0	54.5	41.2	34.5	21.5	0.1
성별						
남자	46.9	54.0	41.2	33.1	21.4	0.1
여자	43.2	55.1	41.3	35.9	21.6	0.1
연령						
20-30대	46.0	55.7	43.1	33.1	18.2	0.2
40-50대	42.8	56.5	40.6	34.1	23.2	0.1
60대 이상	47.0	50.6	40.0	36.8	22.9	0.1
학력						
고졸 이하	47.2	53.5	39.5	34.1	23.2	0.0
대재 이상	43.0	55.5	42.9	35.0	19.8	0.2
직업						
관리전문직	39.4	58.4	40.3	35.6	22.3	0.3
사무판매서비스	44.4	54.8	44.2	33.3	19.4	0.1
농림생산직	46.3	54.1	39.0	34.5	23.0	0.0
비경제활동인구	46.7	53.3	39.7	35.5	22.5	0.0
종교						
없음	46.0	54.7	42.6	33.2	20.4	0.1
있음	43.4	54.3	39.1	36.8	23.2	0.1
정치 성향						
보수	47.7	50.0	40.0	37.6	22.6	0.1
중도	44.4	55.6	42.7	33.2	21.4	0.1
진보	42.5	58.0	40.8	34.0	20.1	0.0
무관심	45.5	54.3	40.6	34.4	21.6	0.2
국가 목표						
물질주의	46.8	56.6	38.5	34.0	21.7	0.1
탈물질주의	42.3	52.4	46.6	34.4	20.2	0.1
혼합형	44.3	53.6	42.3	34.9	21.5	0.1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익 중요	48.8	55.2	38.1	33.3	21.0	0.1
개인 이익 중요	46.1	54.6	44.0	31.0	20.3	0.2
둘 다 중요	44.3	54.4	41.3	35.3	21.7	0.1

⑶ 우리나라 정부의 인권증진 행위평가

우리나라 정부가 '인권보호 및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잘 갖추고 있다'는 인식은 66.6%로 2020년의 63.0%보다 증가하였으며, '인권침해·차별 발생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인식은 53.8%로 2020년의 48.2%보다 증가하였다.

[그림 3-155] 우리나라 정부의 인권증진 행위평가

(단위 : %)



"인권보호와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남성은 67.6%가, 여성은 65.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60대 이상이 69.8%로 정부가 인권보호와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데 동의하였고, 그다음이 40-50대(67.7%), 20-30대(62.5%) 순이었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이 법과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65.4%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67.8%)보다 2.4%p 낮았다. 직업의 경우 농림생산직(68.5%), 사무판매서비스(67.5%),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65.5%), 관리전문직(64.2%) 순으로 인권보호/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고려했을 때, 종교가 없는 경우(67.1%) 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65.7%)에 1.4%p 정도 인권보호/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잘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 정치 성향의 경우, 진보(70.1%), 중도(67.9%), 무관심(64.8%), 보수(64.1%) 순이었다.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 중 정부의 인권보호 및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잘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69.1%로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57.4%)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공동체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중 법제도 정비가 잘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73.3%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60.9%)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3-91〉 우리나라 정부의 인권보호·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잘 되어있다는 평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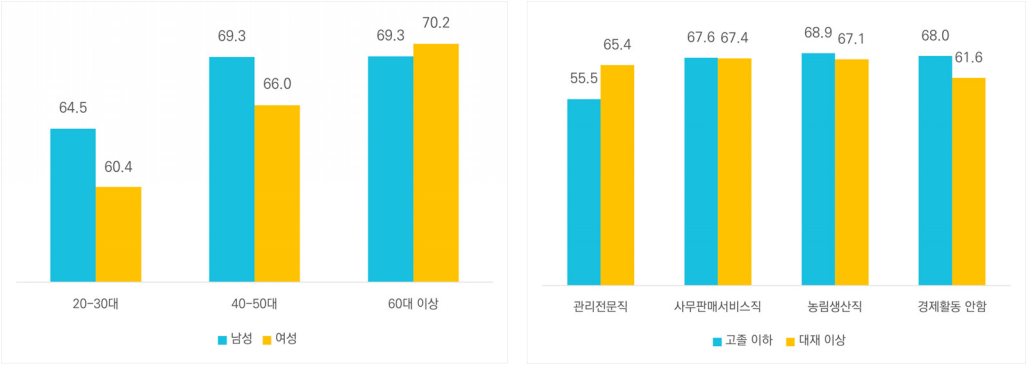
구분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4점)	X^2 (df)
전체	3.0	63.6	30.8	2.6	2.7	
성별						
남자	3.5	64.1	29.5	2.9	2.7	26.675 (3)***
여자	2.6	63.0	32.0	2.4	2.7	
연령						
20-30대	2.8	59.8	33.6	3.9	2.6	116.974 (6)***
40-50대	3.6	64.1	30.5	1.8	2.7	
60대 이상	2.6	67.2	28.0	2.2	2.7	
학력						
고졸 이하	2.6	65.2	29.9	2.2	2.7	28.371 (3)***
대재 이상	3.4	62.0	31.6	3.0	2.7	
직업						
관리전문직	3.8	60.4	31.8	4.0	2.6	34.859 (9)***
사무판매서비스	3.1	64.3	30.2	2.3	2.7	
농림생산직	3.0	65.5	29.0	2.6	2.7	
비경제활동인구	2.8	62.8	31.9	2.5	2.7	
종교						
없음	2.9	64.2	30.2	2.7	2.7	6.625 (3)
있음	3.2	62.5	31.8	2.6	2.7	
정치 성향						
보수	3.7	60.4	32.1	3.8	2.6	94.774 (9)***
중도	2.6	65.3	30.4	1.8	2.7	
진보	4.1	65.9	27.9	2.1	2.7	
무관심	2.6	62.2	32.0	3.2	2.6	
국가 목표						
물질주의	4.0	65.1	28.0	2.9	2.7	98.494(6)***
탈물질주의	2.4	55.1	38.7	3.9	2.6	
혼합형	2.6	63.6	31.5	2.3	2.7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익 중요	4.3	69.0	24.7	2.0	2.8	83.648(6)***
개인 이익 중요	3.2	57.7	35.8	3.3	2.6	
둘 다 중요	2.8	63.7	30.9	2.6	2.7	

인구학적 배경 요인별 인권보호/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잘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60대 이상의 여성 집단(70.2%)인 반면, 비율이 낮은 집단은 20-30대 여성 집단(60.4%)이었다.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별 정부의 인권보호/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잘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농림생산직(68.9%)인 반면, 비율이 낮은 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관리전문직(55.5%)이었다.

[그림 3-156] 우리나라 정부의 인권보호·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잘 되어있다는 평가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우리나라 정부가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했을 때 잘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남성은 54.4%가, 여성은 53.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60대 이상이 59.4%로 정부가 인권 차별 사건에 대해 잘 대응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였고, 그다음이 40-50대(53.7%), 20-30대(49.2%) 순이었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이 정부가 인권침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51.1%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56.7%)보다 5.6%p 낮았다. 직업의 경우 농림생산직(55.5%), 사무판매서비스(54.4%),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54.3%), 관리전문직(47.5%) 순으로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지향별로 보면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 중 정부가 인권침해 및 차별 발생에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55.9%로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47.0%)에 비해 높았고, 공동체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중 정부가 인권침해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60.9%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51.6%)에 비해 높았다.

〈표 3-92〉 우리나라 정부의 인권침해·차별 발생에 적절한 대응에 대한 평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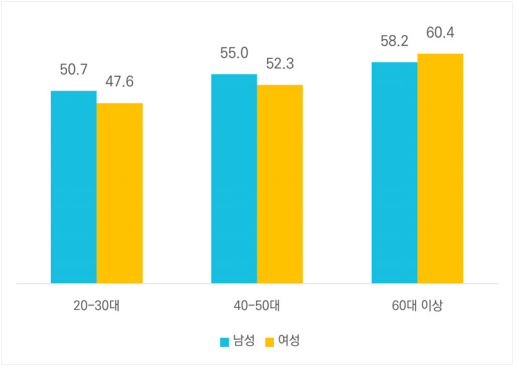
구분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4점)	X^2 (df)
전체	5.3	48.5	41.1	5.1	2.5	
성별						15.187 (3)**
남자	5.4	48.9	40.0	5.6	2.5	
여자	5.1	48.2	42.1	4.6	2.5	
연령						209.274 (6)***
20-30대	5.6	43.6	43.3	7.5	2.5	
40-50대	5.6	48.0	42.3	4.0	2.6	
60대 이상	4.5	54.8	36.9	3.7	2.6	
학력						89.253 (3)***
고졸 이하	4.9	51.8	39.2	4.1	2.6	
대재 이상	5.7	45.4	42.9	6.0	2.5	
직업						113.632 (9)***
관리전문직	3.7	43.8	44.9	7.5	2.4	
사무판매서비스	7.1	47.3	40.6	5.0	2.6	
농림생산직	4.3	51.1	39.5	5.0	2.5	
비경제활동인구	4.5	49.8	41.2	4.5	2.5	
종교						3.251 (3)
없음	5.4	49.0	40.6	5.1	2.5	
있음	5.2	47.8	41.9	5.0	2.5	
정치 성향						103.414 (9)***
보수	5.5	45.1	42.6	6.8	2.5	
중도	4.9	49.0	41.8	4.3	2.5	
진보	8.0	48.1	39.5	4.3	2.6	
무관심	4.2	50.4	40.1	5.3	2.5	
국가 목표						60.426 (6)***
물질주의	5.5	50.4	38.6	5.5	2.6	
탈물질주의	5.1	41.9	45.1	7.9	2.4	
혼합형	5.2	48.2	42.1	4.5	2.5	
공동체 이익						102.697 (6)***
공동체 이익 중요	8.3	52.6	35.4	3.7	2.7	
개인 이익 중요	6.5	45.1	41.6	6.8	2.5	
둘 다 중요	4.6	48.5	41.9	5.0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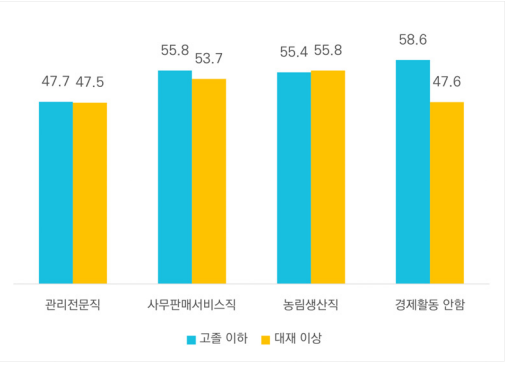
인구학적 배경 요인별 정부가 인권침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60대 이상의 여성 집단(60.4%)인 반면, 인구학적 배경 요인별 정부가 인권침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낮은 집단은 20-30대 여성 집단(47.6%)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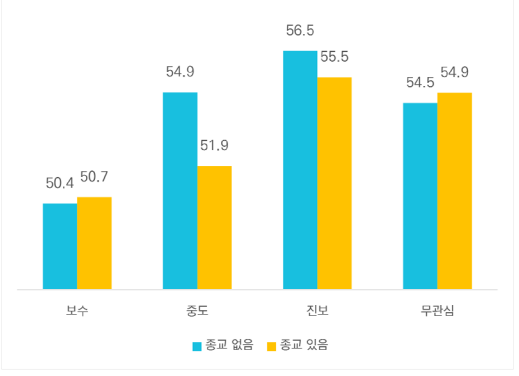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별 정부가 인권침해나 차별에 잘 대응하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58.6%)인 반면, 잘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낮은 집단은 대학교 재학 이상의 관리전문직(47.5%)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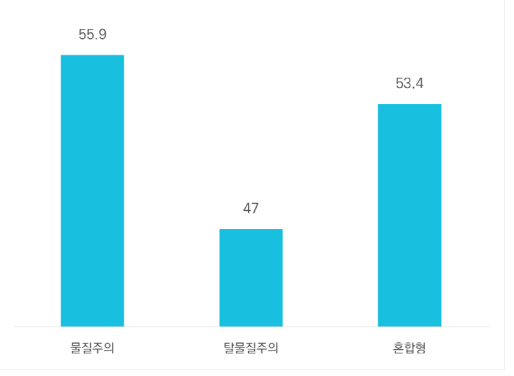
[그림 3-157] 우리나라 정부의 인권침해·차별 발생에 적절한 대응에 대한 평가의 배경별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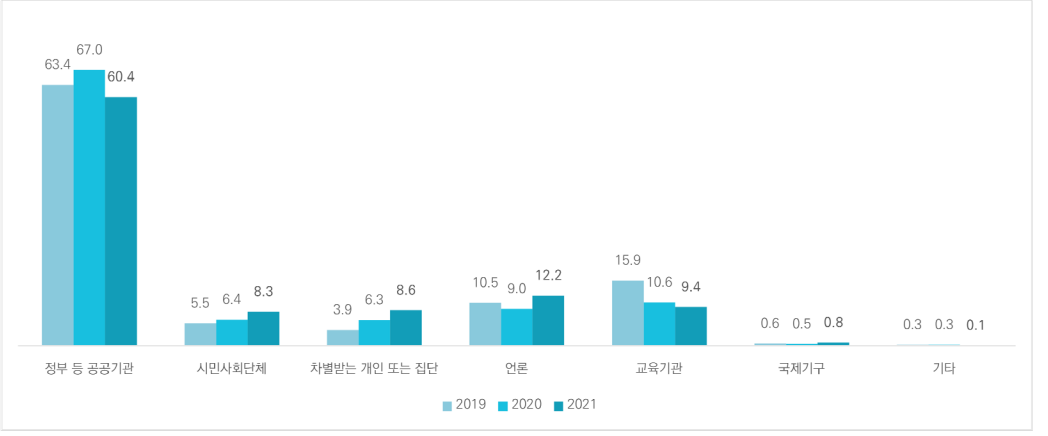


(3)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은 정부 등 공공기관이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60.4%).

[그림 3-158]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

(단위 : %)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 및 차별 해소를 위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에 대해 남성(60.5%)과 여성(60.3%) 모두 정부 등 공공기관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는 남성(12.4%), 여성(12.1%)의 비율로 언론을 꼽았다.

연령대를 살펴본 결과, 연령대와 무관하게 20-30대(60.2%), 40-50대(59.3%), 60대 이상(62.2%)의 비율로 정부 등 공공기관을 꼽았으며, 학력을 살펴보아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61.2%)와 대학교 재학 이상(59.7%) 모두 정부 등 공공기관을 꼽았다. 정부 등 공공기관이 인권침해 및 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이라는 것에 대해 직업과 종교,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의 경우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에 대해 정부 등 공공기관(63.2%), 언론(11.3%), 교육기관(8.8%) 순으로 응답하였고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의 경우 정부 등 공공기관(51.8%), 언론(13.9%), 교육기관(12.0%)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이익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경우 인권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으로 정부 등 공공기관(57.7%)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개인 이익을 중요시 한 경우에도 정부 등 공공기관(53.5%)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3-93〉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

(단위: %)

구분	정부 등 공공기관	시민사회 단체	차별받는 개인/집단	언론	교육기관	국제기구	기타	X^2 (df)
전체	60.4	8.3	8.6	12.2	9.4	0.8	0.1	
성별								16.547 (6)*
남자	60.5	7.6	9.0	12.4	9.5	0.9	0.2	
여자	60.3	9.0	8.3	12.1	9.4	0.8	0.1	
연령								51.236 (12)***
20-30대	60.2	6.8	9.2	12.9	9.7	0.9	0.2	
40-50대	59.3	9.5	8.7	12.4	9.3	0.7	0.1	
60대 이상	62.2	8.3	7.9	11.3	9.3	0.8	0.1	
학력								34.852 (6)***
고졸 이하	61.2	8.9	8.6	11.5	9.1	0.7	0.0	
대재 이상	59.7	7.8	8.7	13.0	9.8	0.9	0.2	
직업								82.001 (18)***
관리전문직	60.2	8.6	7.3	12.7	9.8	1.1	0.3	
사무판매서비스	58.4	8.6	9.5	13.3	8.9	1.1	0.1	
농림생산직	63.5	7.8	8.4	10.5	9.7	0.1	0.0	
비경제활동인구	61.0	8.2	8.3	12.0	9.7	0.7	0.1	
종교								15.963 (6)*
없음	60.8	8.2	9.0	12.2	8.9	0.8	0.1	
있음	59.8	8.4	8.0	12.3	10.4	0.9	0.1	
정치 성향								71.095 (18)***
보수	60.3	7.9	7.6	12.2	10.8	1.0	0.1	
중도	60.4	8.5	8.4	12.2	9.5	1.0	0.1	
진보	56.6	9.2	9.9	14.6	9.1	0.5	0.1	
무관심	62.7	7.8	8.9	11.0	8.7	0.6	0.2	
국가 목표								67.043 (12)***
물질주의	63.2	8.1	7.9	11.3	8.8	0.8	0.1	
탈물질주의	51.8	10.8	10.2	13.9	12.0	1.0	0.4	
혼합형	59.8	8.2	8.9	12.6	9.5	0.8	0.1	
공동체 이익								142.523 (12)***
공동체 이익 중요	57.7	11.0	9.5	12.1	8.8	0.7	0.2	
개인 이익 중요	53.5	10.6	13.3	12.9	8.6	0.9	0.2	
둘 다 중요	62.0	7.5	7.8	12.1	9.7	0.8	0.1	

Ⅳ

결과 요약 및 정책 함의와 과제

1 요약 및 결론

1) 인권 인식

인권인식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평소 인권이란 용어에 접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80.7%로 2020년 79.9% 대비 0.8%p 증가하였다. 인권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정도에 있어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인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접하는 집단은 40-50대 남성 집단인 반면(38.7%), 가장 접하지 못하는 집단은 60대 이상의 여성 집단(15.9%)이었다.

인권인식은 높아졌지만 인권에 대한 지식은 높아지지 못했다. 우리나라 헌법에 기본적 인권보호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66.4%로 2020년 73.1% 대비 6.7%p가 감소하였다. 헌법에 인권보호가 명시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남성이 여성보다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에 기본적 인권의 보호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집단은 40-50대 남성 집단인 반면(77.0%), 가장 알지 못하는 집단은 60대 이상의 여성 집단(3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1년 전에 비해서 인권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36.3%로 2020년 대비 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82.9%로 2020년 79.4% 대비 3.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도 77.8%로 2019년 61.4% 대비 16.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인권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 평소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89.0%로 나타났다. 타인에 대한 인권침해/차별 여부에 대해서 남성이 89.3%, 여성이 88.7%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여성의 인권이 존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82.7%로 나타났다. 취약집단에 대해 인권 존중받는지 여부를 응답한 순서대로 보면 여성(82.7%)→아동·청소년(80.3%)→노인(72.2%)→장애인(53.1%)→이주민(37.5%)으로 나타나서 취약집단 중 인권을 가장 존중받지 못한다는 응답을 많이 받은 집단은 이주민이다.

자신의 기본적 권리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73.6%로 개인주의보다 공동체주의가 여전히 강한 것을 보여준다.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87.2%로 나타나서 인권에 대한 위선적 태도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2) 인권침해와 차별

우리 사회에서 인권 내용별로 존중받는 정도에 대해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비해 시민, 정치적 권리에 대해 더 높은 비율로 존중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되는 결과이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존중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2019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존중에 대해 20-30대 여성의 긍정적 평가의 비율이 다른 성별, 연령대별 집단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다.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의 존중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2019년부터 2021년에 걸쳐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도 20-30대 여성에서 긍정적 평가가 낮다.

한국 사회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의 심각도에 대해 인권침해의 경우 41.8%가, 그리고 차별의 경우 47.4%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개선된다는 의견이 많지만 인권침해와 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도 절반에 못 미치지만 적지 않다.

인권침해와 차별의 취약집단으로는 경제적 빈곤층과 장애인, 이주민의 순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경제적 빈곤층과 이주민은 응답 비율이 증가한 반면, 장애인은 감소하였다. 인권침해와 차별의 취약집단으로 응답 비율이 감소한 집단은 여성이다.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에 대해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와 수사, 보호시설, 그리고 직장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보호시설과 군대의 경우 응답 비율이 높아진 반면, 검찰, 경찰 조사와 수사 및 직장은 응답 비율이 조금 낮아졌다. 대체로 자신과 가깝거나 처하기 쉬운

상황에 대해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인권침해 경험도 인권의 존중 정도 평가와 마찬가지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침해 경험이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에 비해 낮은 비율이다. 정치적 의사표현의 제지, 종교 선택이나 활동 제한, 단체 결성이나 가입의 제한 등의 경험이 증가했다. 보수와 진보 모두 중도에 비해 높은 비율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침해 경험을 응답했다. 20-30대 여성의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 응답 비율이 다른 성별, 연령대별 집단에 비해 높다.

차별의 경험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나 내용이든 상관없이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9.4%이며, 이는 2019년의 28.2%와 2020년의 29.5%에 비해 줄었다. 차별 경험 비율은 20-30대 여성이 다른 성별, 연령대별 집단보다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진보적일수록 응답 비율이 높다. 차별 경험의 사유는 성별과 연령, 경제적 지위와 고용형태, 학력 학벌의 순이다. 모든 차별의 사유에 대해 20-30대 여성의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이 높다.

인권침해나 차별의 가해자로는 50대 남성의 비율이 30.4%로 전체 성별, 연령대별 집단 중에서 가장 높았다. 동시에 자신과 가까운 성별, 연령대별 집단을 응답하는 경향도 존재한다.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그 이유로는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응답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 공공기관으로는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국가인권위원회의 순이었고, 민간기관으로는 시민사회단체, 법률가, 언론기관의 순이었다. 공공기관의 도움 요청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은 53.6%로 민간기관에 대한 도움 요청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인 66.2%에 비해 낮다.

3) 인권 관련 쟁점

주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서 서로 의견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으며, 일부 인권 쟁점은 의견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학생 체벌 금지 등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여론이 개선되는 쟁점이 있는 반면 사형제 폐지,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등 좀처럼 여론이 개선되지 않는 쟁점도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여론의 형성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의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할 경우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여론이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정보 접근권 등을 보장받을 권리인 정보인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굳건하지 않다. 정보인권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높으면서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는 경우는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동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작용한 때문이며, 동의서의 가독성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이 비대면으로 바뀌고, 방역을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보인권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한국은 나이에 따른 위계질서가 강하고 장유유서의 전통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아동청소년 인권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동·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기보다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간주하는 의견이 더 많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을 교육대상자로 인식하고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대다수가 동의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아동·청소년이 의사결정의 주체로 보지 않으면서도 아동·청소년의 사회·정치 참여가 필요하다는 모순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성인의 인식과 아동·청소년 당사자의 인식은 현격한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선출직 정치인으로 측정된 사회적 소수자/약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북한이탈주민,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등 이주민 집단과 성소수자가 가장 크다. 더욱이 이주민과 성소수자가 정치적 대표자가 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반면 여성과 청년의 정치적 대표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감이 다소 낮게 나타난다. 다양한 이해관계의 표출로 생긴 갈등을 조정, 협의하는 것이 정치과정이라면 사회적 소수자/약자들이 정치에 진출하고 대표자로 선출되어야 할 것이다.

혐오표현에 노출된 경험은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었다는 경험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혐오표현의 대상은 젠더 이슈 뿐만 아니라 연령, 장애, 난민, 종교, 성지향성, 이주 등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특히 여성혐오는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30% 이상이 여성혐오를 경험하였다. 혐오표현이 심각하다고 보는 의견과 심각하지 않다고 보는 의견이 55 : 45로 나뉘지만,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4) 인권교육

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4.6%(2019)→19.4%(2020)→13.1%(2021)로 최근 3년 중 2021년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교육이나 집체교육의 진행이 어려웠던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85.3%, 여성이 88.4%이다.

인권교육을 받은 기관은 민간기업·사업체(42.1%), 교육청·학교 등 교육기관(25.4%) 순이다. 인권교육방식은 온라인교육(61.5%)이 가장 많고 외부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19.4%)은 2020년에 비해 16.8%가 줄어들었다. 교육방식의 큰 변화는 비대면 방식의 교육을 선호한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교육이 인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83.6%로 대부분이 인권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84.4%로 2020년 92.6%에 비해 8.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20-30대의 여성 집단(89.7%) 이었다.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의 제고가 필요한 대상으로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30.9%), 검찰/경찰/법원(29.8%), 교육청/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27.7%)의 순이다.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혐오/차별 예방(31.2%), 노동인권(31.0%)의 순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인권보호와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 남성은 67.6%가, 여성은 65.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우리나라 정부가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했을 때 잘 대응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 남성은 54.4%가, 여성은 53.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은 정부 등 공공기관이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60.4%).

2 정책적 함의

1) 인권증진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젊은 세대의 성별갈등 해소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누가 인권침해와 차별을 많이 받는다는 집단에 대해서 여성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8.3%에 불과해 다른 인권취약집단에 비해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인권의 침해와 차별을 덜 받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집단별로 분석해보면 여성 내부에서도 세대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을 보면, 20-30대 여성은 우리나라의 인권개선 정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 집단은 우리나라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주거권, 노동권, 사회보장권, 안전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가장 낮았을 뿐만 아니라, 여성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이주민에 대한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도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인권을 존중해야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는 존중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대해 20-30대 여성이 가장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동년배인 20-30대 남성들의 인권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이어서 본인의 인권이 가장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집단은 20-30대 남성이었다(84.9%). 그리고 20-30대 남성의 경우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으나(90.4%) 여성은 74.2%만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며, 남성은 타인의 인권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와 성별 집단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인권단체 회원가입/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 1.1%로 나타나서 아직까지는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연령과 성별 특징을 보면 전반적으로 20-30대의 젊은 세대들은 인권캠페인이나 거리 집회 등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30대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소수자, 약자를 위한 기부, 인권단체 활동, 인권문제와 관련한 글쓰기/댓글 달기, 인권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 인권 캠페인이나 거리 집회 등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입각해볼 때, 향후의 인권침해나 차별 해소를 위한 교육이나 정책을 실시할 때, 여성을 취약계층 전체로 보지 않고 이들 내부의 세대 차이를 감안해서 맞춤형 교육이 실시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남녀 간의 인권의식이나 차별 경험의 격차가 큰 20-30대의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현재에 보이고 있는 성별 갈등구도를 줄여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2) 국가인권실태조사의 활용 및 향후 발전방향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을 년도 별로 인권의식과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입안자와 결정자들이 새로운 인권정책 수립 및 기존 정책 성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활용방안을 살펴보면,

(1) 국민의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인식과 인권보호의 준수 및 달성 정도를 확인과 점검,
(2) 인권 취약한 집단이나 상황을 파악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발굴,
(3) 인권보호 및 교육정책 수립 및 인권교육의 효과성 파악,
(4) 인권 정책의 영향과 성과에 대한 평가 자료의 근거,
(5) 시계열적인 조사자료가 추적될 경우 한국사회의 인권의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인권에 대한 학술적 연구 기초자료의 축적,
(6) 시민 교육을 위한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요한 기능 및 역할의 하나는 인권상황의 모니터링과 함께 인권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인권 관련 쟁점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인권에 대해 사회집단 사이에서 상충되는 주장들이 충돌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국가인권실태조사를 통해서 국가적 차원의 인권 통계 자료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축적되면 이를 이용하여 인권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가 제시될 수 있어 갈등 조정과 인권에 대한 공감대와 합의 형성을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2019년과 2020년은 조사의 정착 단계에서 자체적 조사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하여 통계청과 협력을 통해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2021년 조사부터 설문조사를 담당할 기관이 통계청 위탁으로부터 민간

조사기관으로 바뀌어서 향후 하기 위해서 조사 설계와 분석을 담당할 연구팀과 조사기관의 협조가 더욱 필요한 상황으로 향후 이러한 협조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인권통계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1년 현재 인권통계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충원된 상태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자료의 관리가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승인통계 자료로 시계열적 연속성 우수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인권상황을 보여주는 장기적인 인권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법무부, 경찰청, 보건복지부에서 생산되고 있는 관련된 자료들을 전산화시켜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3년 동안 이루어진 인권실태조사를 통해서 인권 관련 통계가 수집되고 보다 요약된 인권지표가 생산되어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메타데이터와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는 서비스체계가 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3) 인권취약집단 조사의 인권 관련 문항 조정 및 확대

국가인권실태조사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모든 국민을 조사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 국가인권실태조사의 확률적 표집에 의존해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아동과 청소년 외에 노인과 장애인, 취업이나 결혼 이주민 또한 인권 취약집단은 비율적으로 표본에 소수만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권취약집단에 대한 인권실태의 파악을 위해서는 이들 집단을 조사대상으로 한 조사(장애인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등)들과의 협조 및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도 일부 조사들에서는 인권 관련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청소년 대상의 인권실태조사는 전략적으로 국가인권실태조사와 협력해서 공통 문항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집단별 조사 결과는 국가인권실태조사와 연계하여 비교하는 분석이 시도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인권취약집단의 인권에 대해서는 조사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 취약집단 대상 조사에서 국가인권실태조사와 보다 많은 공통 문항을 포함하도록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각 조사에서 파악된 집단별 인권현황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취합해서 취약집단 인권통계를 집계하고 발표한다면, 개별조사에서 흩어져서 파악하기 힘들었던 취약집단의 인권상황과 개선정도에 대해서 좀 더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4) 인권교육의 개선방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의하면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지칭한다. 인권교육이란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규정에 의하면,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태도·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 능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권 존중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일체의 교육 활동’[5] 으로 정의되어 있다.

인권교육 대상은 공공 영역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및 군·경 분야, 학교 영역인 영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분야, 시민 영역인 장애, 노인, 이주, 아동·청소년, 북한이탈주민, 기업, 언론 및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등이나, 지금은 제한된 인원만 인권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인권위의 인권교육 노력으로 국가인권실태조사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이 이전에 비해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2021년 조사에서 응답자 중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13.1%로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인권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권 취약계층이기도 한 노인의 경우 인권교육을 받을 기회가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인권의식이 상대적으로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인권침해의 대표적 집단이 남성 50대의 경우 이미 노동시장에서 은퇴가 시작되어 인권위 및 관계 기관에서 실시하는 여러 인권교육의 대상이 되기 쉽지 않다. 보다 폭넓고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5)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 제2조.

참고문헌

구정우 외(2011).「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국가인권위원회.

구정우·남윤창·황태희(2018) “인권감수성 예측모형 구축: 데이터마이닝 분석 기법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5(1): 53-11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운영과(2021). 2021년도 인권교육 과정운영 계획.

김자영. 2011. “청소년 인권의식의 형성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법교육연구』, 6(2): 57-83.

노희정(2020)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 인권교육 방안” 『윤리교육연구』 58: 137-158.

류지헌·허창영. 2008. “대학생의 인권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및 인권태도의 인식수준.” 『민주주의와 인권』, 8(1): 175-204.

문용린 외. 2002.「인권감수성 지표 개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이승미. 1999. “인권의식 발달경향에 관한 연구: 사형, 고문, 장애인 처우에 관한 추론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6(2): 103-119.

정진성·공석기·구정우. 2010.「인권으로 읽는 동아시아: 한국과 일본의 인권 개선조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허종렬, 나달숙, 이대성(2013). “국내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외국의 인권교육 제도화 사례와 시사점.” 『법과인권교육연구』, 6(1): 171-202.

Crowson, H. Michael. 2004. "Human Rights Attitudes: Dimentionality and Psychological Correlates." Ethics & Behavior 14(3): 235-253.

Donnelly, Jack. 2003.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Cornell University Press.

Diaz-Veizades, Jeannette, Keith F. Widaman, Todd D. Little, and Katherine W. Gibbs. 1995. “The Measurement and Structure of Human Rights Attitud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5(3): 313-328.

Getz, Irene Rose. 1985. Moral reasoning, Religion, and Attitudes toward Human rights. Dissertation, Univ of Minnesota

Hunt, Lynn. 2008. Inventing Human Rights: A History. W. W. Norton & Company

Jost, J. T., Glaser, J. Kruglanski, A. W. and Sulloway, F. J. 2003. "Political Conservatism as motivated Social Cognition." Psychological Bulletin 129: 339-375.

Koo, Jeong-Woo. 2017. "The construction of human rights actorhood: Findings from th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Journal of Human Rights, 16(3): 261-275

Koo, Jeong-Woo and Francisco O. Ramirez. 2009. "UNESCO and the Associated Schools Project: Symbolic Affirmation of World Community,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Human Rights." Sociology of Education 82: 197-216.

Koo, J. W., Cheong, B. E., & Ramirez, F. O. (2015). Who thinks and behaves

according to human rights?: Evidence from the Korean National Human

Rights Survey. Korea Observer, 46(1): 53-87.

Mcfarland, Sam and Melissa Mathews. 2005. "Do Americans Care About Human Rights?." Journal of Human Rights 4: 305-319.

McFarland, Sam and Melissa Mathews. 2005b. "Who Cares About Human Rights?." Political Psychology 26(3): 365-385.

Stellmacher, Jost, Gert Sommer, and Elmar Brahler. 2005. "The Cognitive Representation of Human Rights: Knowledge, Importance, and Commitment." Peace and Conflict : Journal of Peace Psychology 11: 267-292.

Tibbits, Felisa(2010). Impact Assessment of the Right Education Action Programme(REAP)-Final Report. Anest Internation Norway.

부 록

1

주요 항목별 상대표준오차

문항 3.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조금 좋아지고 있다					비슷하다					조금 나빠지고 있다					많이 나빠지고 있다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전 체	1000	0.048	5.650	5.118	6.183	5326	0.023	30.616	29.263	31.969	9614	0.013	54.471	53.060	55.882	1245	0.042	7.003	6.420	7.585	408	0.069	2.260	1.956	2.564
ㅣ성 별ㅣ																									
남자	542	0.060	3.260	2.875	3.645	2543	0.029	15.939	15.044	16.835	4209	0.019	25.641	24.679	26.603	558	0.057	3.399	3.019	3.779	207	0.084	1.249	1.043	1.455
여자	458	0.065	2.391	2.087	2.694	2783	0.027	14.677	13.906	15.448	5405	0.017	28.830	27.895	29.765	687	0.053	3.604	3.230	3.978	201	0.092	1.012	0.828	1.195
ㅣ지 역ㅣ																									
도 시(동 부)	797	0.054	4.717	4.218	5.217	4079	0.028	25.158	23.786	26.530	7371	0.017	44.693	43.169	46.218	948	0.050	5.594	5.046	6.142	323	0.077	1.865	1.582	2.147
농어촌(읍면부)	203	0.113	0.933	0.727	1.139	1247	0.058	5.459	4.840	6.078	2243	0.045	9.777	8.920	10.635	297	0.086	1.409	1.171	1.647	85	0.153	0.395	0.276	0.514
ㅣ연 령ㅣ																									
20대 이하	97	0.124	0.824	0.624	1.025	638	0.056	5.441	4.840	6.042	1125	0.040	9.248	8.515	9.980	142	0.108	1.147	0.903	1.390	49	0.173	0.397	0.262	0.532
30대	134	0.113	0.900	0.701	1.100	731	0.051	4.931	4.438	5.424	1294	0.041	8.457	7.782	9.131	146	0.101	0.998	0.801	1.195	62	0.146	0.455	0.325	0.586
40대	279	0.073	1.405	1.202	1.607	1076	0.043	6.154	5.630	6.678	1739	0.033	9.924	9.290	10.559	201	0.096	1.117	0.908	1.327	53	0.175	0.293	0.192	0.394
50대	245	0.083	1.347	1.129	1.566	1135	0.049	6.550	5.926	7.174	1816	0.034	10.183	9.505	10.860	219	0.090	1.266	1.042	1.489	83	0.133	0.459	0.339	0.579
60대 이상	245	0.096	1.174	0.953	1.395	1746	0.040	7.541	6.943	8.138	3640	0.029	16.660	15.727	17.593	537	0.070	2.475	2.133	2.817	161	0.103	0.656	0.523	0.790
ㅣ학 력ㅣ																									
중졸 이하	123	0.145	0.556	0.398	0.715	1104	0.051	4.498	4.045	4.950	2578	0.037	11.197	10.375	12.018	333	0.077	1.449	1.229	1.668	92	0.132	0.383	0.284	0.482
고등학교 졸업 이하	317	0.076	1.829	1.556	2.101	1887	0.034	10.921	10.193	11.649	3563	0.024	21.314	20.292	22.335	511	0.060	2.898	2.555	3.241	165	0.106	0.978	0.774	1.182
대졸 이하	495	0.062	2.864	2.516	3.212	2191	0.035	14.399	13.402	15.396	3286	0.027	20.782	19.689	21.874	374	0.076	2.475	2.104	2.846	134	0.111	0.818	0.639	0.996
대학원졸 이상	65	0.161	0.402	0.275	0.529	144	0.106	0.798	0.632	0.964	187	0.097	1.179	0.955	1.403	27	0.237	0.181	0.097	0.266	17	0.289	0.081	0.035	0.128
ㅣ직 업ㅣ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28	0.093	1.303	1.066	1.540	588	0.066	3.799	3.304	4.294	760	0.051	4.797	4.320	5.273	93	0.126	0.568	0.428	0.708	43	0.194	0.283	0.175	0.391
사무직	137	0.109	0.800	0.629	0.972	823	0.059	5.540	4.904	6.175	1156	0.045	7.970	7.274	8.666	114	0.133	0.815	0.602	1.028	28	0.222	0.179	0.101	0.257
서비스/판매직	190	0.094	1.044	0.851	1.237	1044	0.046	6.074	5.525	6.623	1910	0.033	10.895	10.192	11.598	276	0.081	1.578	1.327	1.829	86	0.132	0.499	0.370	0.627
생산/기술직	82	0.131	0.457	0.340	0.574	446	0.065	2.527	2.205	2.849	831	0.049	4.862	4.398	5.326	95	0.126	0.540	0.406	0.674	32	0.211	0.199	0.117	0.28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1	0.263	0.152	0.074	0.231	318	0.104	1.061	0.845	1.276	579	0.077	1.992	1.691	2.294	64	0.169	0.232	0.155	0.308	13	0.396	0.046	0.010	0.082
단순노무직	52	0.161	0.265	0.182	0.349	320	0.077	1.579	1.340	1.818	633	0.058	3.341	2.960	3.721	104	0.124	0.499	0.378	0.619	39	0.195	0.203	0.125	0.281
기타	7	0.532	0.035	0.000	0.071	5	0.536	0.027	0.000	0.056	7	0.492	0.034	0.001	0.066	0	0.000	0.000	0.000	0.000	1	1.000	0.006	0.000	0.018
무직	263	0.086	1.594	1.325	1.863	1782	0.037	10.010	9.293	10.727	3738	0.024	20.581	19.619	21.544	499	0.062	2.772	2.436	3.107	166	0.098	0.844	0.683	1.006
ㅣ국가목표ㅣ																									
물질주의	389	0.072	2.161	1.858	2.464	1717	0.044	10.234	9.351	11.118	3339	0.031	18.809	17.661	19.957	511	0.064	2.839	2.481	3.196	188	0.100	0.958	0.771	1.145
탈물질주의	77	0.148	0.432	0.306	0.557	386	0.082	2.079	1.746	2.411	579	0.074	3.670	3.139	4.201	90	0.129	0.573	0.429	0.718	28	0.221	0.162	0.092	0.232
혼합형	534	0.060	3.058	2.700	3.416	3223	0.030	18.303	17.235	19.372	5696	0.020	31.991	30.724	33.259	644	0.056	3.591	3.194	3.987	192	0.092	1.140	0.935	1.346
ㅣ공동체 이익ㅣ																									
공동체 이익 중요	173	0.102	1.013	0.810	1.216	605	0.073	3.840	3.292	4.387	936	0.056	5.673	5.047	6.299	156	0.112	0.777	0.606	0.948	53	0.174	0.278	0.183	0.372
개인 이익 중요	87	0.128	0.484	0.363	0.605	518	0.070	3.318	2.860	3.776	1175	0.060	7.372	6.504	8.241	169	0.114	0.962	0.747	1.176	59	0.168	0.323	0.217	0.430
둘 다 중요	740	0.052	4.154	3.730	4.577	4203	0.025	23.459	22.284	24.633	7503	0.017	41.425	40.070	42.780	920	0.047	5.264	4.778	5.750	296	0.077	1.659	1.407	1.911

***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RSE) 유의사항** : 가구통계 기준 $RSE < 25\%$ 구간에서 $n \geq 10$인 경우 신뢰도 높음, $n < 10$인 경우 신뢰도 다소 낮음.
$25\% \leq RSE < 50\%$ 구간은 신뢰도 다소 낮음. $50\% \leq RSE$ 구간은 신뢰도 낮음

문항 4. 우리나라에서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매우 존중받는다					존중받는 편이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전 체	603	0.063	3.386	2.970	3.803	13974	0.007	79.493	78.386	80.601	2810	0.032	16.040	15.038	17.041	206	0.088	1.081	0.895	1.267
ㅣ성 별ㅣ																				
남자	318	0.079	1.890	1.598	2.183	6303	0.013	38.866	37.899	39.834	1333	0.039	8.132	7.514	8.751	105	0.110	0.599	0.470	0.728
여자	285	0.074	1.496	1.279	1.713	7671	0.012	40.627	39.714	41.540	1477	0.038	7.907	7.326	8.489	101	0.123	0.482	0.365	0.599
ㅣ지 역ㅣ																				
도 시(동 부)	453	0.070	2.714	2.339	3.088	10757	0.012	65.405	63.882	66.929	2154	0.036	13.077	12.143	14.010	154	0.104	0.831	0.662	1.000
농어촌(읍면부)	150	0.142	0.673	0.485	0.860	3217	0.044	14.088	12.885	15.291	656	0.081	2.963	2.494	3.432	52	0.164	0.250	0.169	0.330
ㅣ연 령ㅣ																				
20대 이하	100	0.118	0.866	0.665	1.066	1661	0.034	13.838	12.909	14.767	271	0.080	2.220	1.870	2.570	19	0.266	0.132	0.063	0.201
30대	110	0.112	0.705	0.550	0.860	1858	0.033	12.358	11.570	13.145	370	0.070	2.500	2.156	2.844	29	0.205	0.180	0.108	0.252
40대	130	0.112	0.606	0.472	0.740	2701	0.028	15.346	14.509	16.183	477	0.065	2.713	2.370	3.057	40	0.183	0.228	0.146	0.309
50대	108	0.120	0.552	0.422	0.683	2780	0.027	15.704	14.880	16.527	577	0.053	3.371	3.020	3.723	33	0.201	0.177	0.107	0.247
60대 이상	155	0.125	0.658	0.497	0.819	4974	0.026	22.249	21.132	23.365	1115	0.048	5.235	4.740	5.730	85	0.141	0.364	0.264	0.465
ㅣ학 력ㅣ																				
중졸 이하	84	0.162	0.344	0.235	0.453	3293	0.034	13.881	12.962	14.799	794	0.058	3.599	3.189	4.010	59	0.169	0.258	0.172	0.344
고등학교 졸업 이하	194	0.101	1.107	0.888	1.326	5042	0.019	29.703	28.606	30.801	1117	0.044	6.654	6.083	7.226	90	0.135	0.475	0.350	0.600
대졸 이하	287	0.078	1.719	1.455	1.984	5312	0.021	33.980	32.598	35.363	828	0.061	5.318	4.683	5.953	53	0.160	0.320	0.219	0.420
대학원졸 이상	38	0.203	0.216	0.130	0.302	327	0.078	1.929	1.634	2.225	71	0.157	0.468	0.324	0.612	4	0.560	0.029	0.000	0.060
ㅣ직 업ㅣ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18	0.111	0.657	0.514	0.801	1338	0.044	8.409	7.675	9.142	237	0.090	1.570	1.294	1.846	19	0.258	0.114	0.056	0.171
사무직	101	0.135	0.687	0.505	0.868	1931	0.037	13.000	12.061	13.939	215	0.110	1.543	1.210	1.876	11	0.330	0.074	0.026	0.122
서비스/판매직	102	0.128	0.556	0.416	0.695	2778	0.029	15.851	14.962	16.739	584	0.058	3.434	3.041	3.827	42	0.178	0.249	0.162	0.336
생산/기술직	43	0.190	0.251	0.158	0.345	1175	0.040	6.860	6.317	7.402	248	0.077	1.375	1.168	1.582	20	0.256	0.100	0.050	0.15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0	0.395	0.120	0.027	0.213	824	0.073	2.779	2.382	3.177	154	0.135	0.546	0.402	0.690	7	0.469	0.037	0.003	0.072
단순노무직	27	0.233	0.116	0.063	0.168	825	0.052	4.207	3.779	4.635	272	0.082	1.451	1.218	1.683	24	0.256	0.114	0.057	0.171
기타	4	0.507	0.019	0.000	0.038	13	0.430	0.065	0.010	0.120	2	0.708	0.012	0.000	0.029	1	1.000	0.006	0.000	0.017
무직	178	0.091	0.981	0.807	1.155	5090	0.019	28.323	27.248	29.399	1098	0.046	6.109	5.562	6.657	82	0.145	0.388	0.278	0.498
ㅣ국가목표ㅣ																				
물질주의	208	0.098	1.226	0.990	1.463	4882	0.025	27.673	26.300	29.047	974	0.052	5.695	5.118	6.272	80	0.136	0.406	0.298	0.515
탈물질주의	46	0.190	0.253	0.158	0.347	854	0.068	5.173	4.486	5.860	240	0.084	1.408	1.177	1.639	20	0.263	0.083	0.040	0.125
혼합형	349	0.074	1.908	1.630	2.186	8238	0.016	46.647	45.184	48.110	1596	0.040	8.937	8.239	9.635	106	0.122	0.592	0.450	0.734
ㅣ공동체 이익ㅣ																				
공동체 이익 중요	82	0.136	0.441	0.323	0.559	1500	0.051	9.288	8.354	10.222	314	0.079	1.706	1.441	1.971	27	0.215	0.146	0.084	0.207
개인 이익 중요	65	0.147	0.411	0.292	0.529	1469	0.053	9.032	8.093	9.972	438	0.076	2.794	2.377	3.212	36	0.195	0.222	0.137	0.307
둘 다 중요	456	0.070	2.535	2.187	2.883	11005	0.012	61.174	59.684	62.663	2058	0.035	11.539	10.742	12.336	143	0.104	0.713	0.568	0.859

문항 9-12. 인권의 존중 정도: 노동권

	매우 존중받는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전 체	1758	0.052	9.435	8.474	10.396	10504	0.012	59.204	57.821	60.587	4900	0.024	29.069	27.725	30.413	431	0.084	2.292	1.914	2.670
ㅣ성 별ㅣ																				
남자	819	0.059	4.821	4.262	5.380	4758	0.017	29.008	28.047	29.970	2264	0.029	14.387	13.561	15.213	218	0.092	1.272	1.042	1.501
여자	939	0.057	4.614	4.095	5.134	5746	0.016	30.196	29.273	31.118	2636	0.027	14.682	13.893	15.471	213	0.106	1.021	0.808	1.233
ㅣ지 역ㅣ																				
도 시(동 부)	1256	0.061	7.540	6.637	8.444	7989	0.016	47.989	46.466	49.511	3922	0.028	24.558	23.197	25.918	351	0.094	1.940	1.583	2.297
농어촌(읍면부)	502	0.095	1.895	1.543	2.247	2515	0.047	11.215	10.188	12.242	978	0.063	4.511	3.958	5.065	80	0.180	0.352	0.228	0.477
ㅣ연 령ㅣ																				
20대 이하	227	0.088	1.863	1.543	2.183	1156	0.041	9.536	8.771	10.300	599	0.054	5.205	4.656	5.754	69	0.166	0.452	0.305	0.599
30대	186	0.093	1.285	1.049	1.520	1356	0.036	9.009	8.374	9.643	742	0.053	4.910	4.396	5.424	83	0.130	0.539	0.402	0.675
40대	320	0.084	1.699	1.420	1.977	1938	0.032	10.969	10.277	11.662	1005	0.048	5.799	5.249	6.349	85	0.144	0.426	0.305	0.546
50대	332	0.086	1.784	1.483	2.085	2069	0.030	11.730	11.051	12.410	1017	0.043	5.886	5.389	6.382	80	0.161	0.405	0.277	0.533
60대 이상	693	0.076	2.804	2.386	3.223	3985	0.028	17.960	16.966	18.954	1537	0.045	7.270	6.631	7.909	114	0.151	0.472	0.332	0.612
ㅣ학 력ㅣ																				
중졸 이하	461	0.088	1.714	1.420	2.009	2744	0.036	11.798	10.966	12.631	955	0.056	4.289	3.820	4.758	70	0.169	0.281	0.187	0.374
고등학교 졸업 이하	621	0.068	3.523	3.052	3.994	3726	0.024	22.047	21.029	23.065	1901	0.034	11.369	10.608	12.130	195	0.116	1.001	0.773	1.230
대졸 이하	627	0.073	3.857	3.306	4.408	3779	0.024	23.905	22.797	25.013	1918	0.038	12.627	11.692	13.562	156	0.105	0.948	0.752	1.143
대학원졸 이상	49	0.190	0.341	0.214	0.468	255	0.084	1.453	1.215	1.692	126	0.116	0.785	0.605	0.964	10	0.349	0.063	0.020	0.106
ㅣ직 업ㅣ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47	0.111	0.919	0.718	1.119	1014	0.049	6.249	5.650	6.849	512	0.061	3.301	2.909	3.693	39	0.189	0.280	0.177	0.384
사무직	235	0.111	1.549	1.212	1.885	1366	0.042	9.271	8.509	10.033	603	0.060	4.188	3.694	4.683	54	0.165	0.296	0.200	0.392
서비스/판매직	330	0.085	1.953	1.626	2.280	1975	0.032	11.206	10.502	11.910	1097	0.047	6.417	5.823	7.011	104	0.138	0.513	0.374	0.652
생산/기술직	146	0.106	0.801	0.634	0.968	844	0.048	4.958	4.490	5.427	443	0.064	2.543	2.224	2.863	53	0.173	0.283	0.187	0.38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55	0.155	0.508	0.353	0.662	667	0.077	2.271	1.926	2.616	188	0.117	0.687	0.530	0.845	5	0.445	0.017	0.002	0.032
단순노무직	95	0.136	0.423	0.310	0.535	677	0.056	3.457	3.081	3.834	338	0.076	1.820	1.550	2.090	38	0.195	0.186	0.115	0.258
기타	3	0.588	0.014	0.000	0.030	14	0.406	0.070	0.014	0.126	2	0.707	0.012	0.000	0.028	1	1.000	0.006	0.000	0.019
무직	647	0.068	3.269	2.834	3.704	3947	0.024	21.721	20.720	22.722	1717	0.037	10.101	9.362	10.840	137	0.134	0.710	0.524	0.896
ㅣ국가목표ㅣ																				
물질주의	644	0.074	3.506	3.000	4.011	3709	0.029	20.921	19.752	22.091	1613	0.043	9.606	8.790	10.422	178	0.138	0.967	0.705	1.230
탈물질주의	112	0.129	0.560	0.419	0.701	653	0.073	3.992	3.418	4.567	369	0.077	2.207	1.875	2.539	26	0.227	0.157	0.087	0.226
혼합형	1002	0.064	5.369	4.695	6.044	6142	0.018	34.290	33.053	35.528	2918	0.032	17.256	16.169	18.342	227	0.100	1.168	0.940	1.397
ㅣ공동체 이익ㅣ																				
공동체 이익 중요	220	0.111	1.218	0.954	1.482	1175	0.057	7.054	6.272	7.837	494	0.069	3.112	2.689	3.536	34	0.216	0.196	0.113	0.279
개인 이익 중요	184	0.108	1.186	0.936	1.436	1152	0.055	7.010	6.254	7.765	596	0.080	3.813	3.215	4.411	76	0.159	0.450	0.310	0.591
둘 다 중요	1354	0.057	7.031	6.243	7.818	8177	0.015	45.140	43.775	46.505	3810	0.028	22.144	20.948	23.340	321	0.094	1.646	1.341	1.951

문항 20-5. 인권 쟁점: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정도

	보장해야 한다					다소 보장해야 한다					다소 제한해야 한다					제한해야 한다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전 체	5664	0.025	32.847	31.247	34.446	7390	0.017	42.462	41.039	43.884	3440	0.034	19.085	17.801	20.370	1099	0.048	5.606	5.074	6.139
ㅣ성 별ㅣ																				
남자	2749	0.030	17.345	16.336	18.353	3331	0.023	20.505	19.585	21.425	1499	0.041	9.026	8.307	9.746	480	0.059	2.612	2.310	2.915
여자	2915	0.030	15.502	14.602	16.402	4059	0.020	21.957	21.088	22.826	1941	0.037	10.059	9.330	10.789	619	0.057	2.994	2.660	3.329
ㅣ지 역ㅣ																				
도 시(동 부)	4458	0.030	27.138	25.565	28.711	5665	0.022	34.861	33.371	36.351	2576	0.041	15.521	14.273	16.769	819	0.055	4.508	4.020	4.995
농어촌(읍면부)	1206	0.066	5.709	4.969	6.448	1725	0.053	7.601	6.819	8.384	864	0.062	3.565	3.131	3.998	280	0.103	1.099	0.877	1.320
ㅣ연 령ㅣ																				
20대 이하	755	0.051	6.079	5.469	6.690	882	0.047	7.564	6.867	8.261	338	0.081	2.797	2.355	3.240	76	0.137	0.615	0.450	0.780
30대	873	0.046	5.892	5.365	6.419	1001	0.043	6.566	6.014	7.119	368	0.078	2.495	2.116	2.875	125	0.104	0.788	0.627	0.949
40대	1206	0.045	6.652	6.068	7.236	1392	0.037	7.951	7.375	8.528	583	0.065	3.377	2.948	3.805	167	0.103	0.913	0.728	1.098
50대	1221	0.043	6.914	6.332	7.497	1399	0.038	8.160	7.545	8.776	676	0.058	3.753	3.325	4.181	202	0.089	0.977	0.807	1.147
60대 이상	1609	0.044	7.309	6.679	7.938	2716	0.034	12.220	11.396	13.044	1475	0.046	6.663	6.056	7.271	529	0.072	2.314	1.989	2.638
ㅣ학 력ㅣ																				
중졸 이하	940	0.054	3.899	3.483	4.314	1875	0.041	8.030	7.379	8.681	1058	0.053	4.598	4.119	5.077	357	0.087	1.556	1.289	1.822
고등학교 졸업 이하	2150	0.037	12.901	11.964	13.839	2620	0.030	15.732	14.815	16.649	1237	0.047	7.023	6.381	7.664	436	0.068	2.284	1.979	2.589
대졸 이하	2341	0.035	14.637	13.633	15.641	2746	0.030	17.803	16.773	18.833	1100	0.058	7.205	6.386	8.023	293	0.076	1.692	1.441	1.943
대학원졸 이상	233	0.087	1.410	1.170	1.650	149	0.115	0.897	0.695	1.099	45	0.184	0.260	0.166	0.354	13	0.311	0.075	0.029	0.121
ㅣ직 업ㅣ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768	0.053	4.751	4.259	5.243	652	0.055	4.182	3.733	4.631	204	0.095	1.302	1.059	1.545	88	0.150	0.515	0.363	0.667
사무직	794	0.055	5.035	4.489	5.581	972	0.048	6.861	6.220	7.502	399	0.092	2.856	2.343	3.370	93	0.129	0.552	0.412	0.692
서비스/판매직	1123	0.044	6.576	6.010	7.143	1483	0.040	8.581	7.903	9.259	676	0.063	3.809	3.337	4.280	224	0.092	1.123	0.921	1.324
생산/기술직	488	0.062	2.831	2.487	3.176	623	0.056	3.644	3.247	4.040	301	0.076	1.711	1.457	1.966	74	0.130	0.400	0.298	0.503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28	0.106	0.835	0.661	1.008	483	0.086	1.642	1.366	1.918	216	0.125	0.726	0.548	0.904	88	0.187	0.280	0.177	0.383
단순노무직	366	0.076	2.004	1.707	2.301	433	0.069	2.224	1.924	2.523	246	0.084	1.176	0.982	1.370	103	0.121	0.482	0.368	0.597
기타	5	0.697	0.025	0.000	0.060	10	0.379	0.049	0.013	0.086	5	0.449	0.027	0.003	0.051	0	.	.	.	.
무직	1892	0.037	10.789	10.007	11.571	2734	0.029	15.279	14.425	16.134	1393	0.045	7.478	6.816	8.140	429	0.072	2.255	1.938	2.571
ㅣ국가목표ㅣ																				
물질주의	2177	0.041	12.466	11.476	13.456	2470	0.036	14.179	13.180	15.178	1100	0.059	6.214	5.494	6.935	397	0.072	2.142	1.839	2.445
탈물질주의	373	0.069	2.212	1.911	2.512	509	0.084	3.110	2.595	3.625	221	0.122	1.311	0.997	1.624	57	0.156	0.284	0.197	0.370
혼합형	3114	0.030	18.169	17.108	19.230	4411	0.025	25.173	23.931	26.415	2119	0.042	11.561	10.616	12.505	645	0.062	3.181	2.793	3.570
ㅣ공동체 이익ㅣ																				
공동체 이익 중요	648	0.062	3.842	3.372	4.312	733	0.072	4.611	3.957	5.266	386	0.080	2.223	1.872	2.574	156	0.113	0.904	0.704	1.104
개인 이익 중요	614	0.071	3.859	3.318	4.399	857	0.064	5.349	4.683	6.015	398	0.095	2.521	2.050	2.992	139	0.109	0.730	0.574	0.887
둘 다 중요	4402	0.027	25.146	23.808	26.483	5800	0.021	32.502	31.186	33.817	2656	0.038	14.341	13.286	15.397	804	0.055	3.972	3.547	4.397

문항 22-1. 아동, 청소년 권리 쟁점에 대한 동의 수준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전 체	2604	0.041	13.131	12.067	14.195	10628	0.013	60.096	58.544	61.649	3943	0.032	24.372	22.829	25.915	418	0.079	2.401	2.028	2.774
ㅣ성 별ㅣ																				
남자	1183	0.046	6.500	5.909	7.091	4894	0.018	29.778	28.731	30.824	1793	0.038	11.989	11.090	12.887	189	0.099	1.222	0.985	1.458
여자	1421	0.048	6.631	6.012	7.250	5734	0.016	30.319	29.373	31.264	2150	0.036	12.384	11.505	13.262	229	0.090	1.179	0.971	1.387
ㅣ지 역ㅣ																				
도 시(동 부)	1822	0.049	9.991	9.033	10.948	8275	0.017	49.812	48.173	51.451	3064	0.037	20.129	18.684	21.573	357	0.087	2.096	1.738	2.453
농어촌(읍면부)	782	0.078	3.140	2.663	3.618	2353	0.057	10.284	9.139	11.430	879	0.089	4.244	3.499	4.988	61	0.186	0.305	0.194	0.417
ㅣ연 령ㅣ																				
20대 이하	210	0.104	1.747	1.391	2.102	1088	0.043	8.880	8.135	9.625	654	0.056	5.720	5.092	6.348	99	0.145	0.709	0.507	0.910
30대	251	0.080	1.588	1.338	1.838	1368	0.038	9.253	8.572	9.934	645	0.054	4.250	3.798	4.701	103	0.130	0.651	0.485	0.817
40대	411	0.073	2.182	1.869	2.495	1969	0.032	11.203	10.493	11.913	863	0.053	4.958	4.446	5.471	105	0.155	0.550	0.383	0.717
50대	501	0.064	2.606	2.277	2.936	2184	0.031	12.327	11.574	13.081	753	0.058	4.589	4.065	5.113	60	0.175	0.283	0.185	0.380
60대 이상	1231	0.055	5.008	4.469	5.548	4019	0.028	18.433	17.421	19.446	1028	0.062	4.856	4.264	5.447	51	0.168	0.209	0.140	0.278
ㅣ학 력ㅣ																				
중졸 이하	878	0.066	3.353	2.916	3.791	2685	0.038	11.725	10.862	12.587	639	0.074	2.896	2.473	3.318	28	0.217	0.108	0.062	0.155
고등학교 졸업 이하	951	0.056	5.238	4.665	5.811	3956	0.023	23.113	22.075	24.152	1379	0.043	8.704	7.972	9.436	157	0.104	0.885	0.704	1.066
대졸 이하	733	0.063	4.304	3.772	4.837	3770	0.025	23.903	22.721	25.086	1769	0.045	11.883	10.844	12.921	208	0.105	1.247	0.989	1.504
대학원졸 이상	42	0.193	0.236	0.147	0.325	217	0.099	1.355	1.091	1.619	156	0.105	0.890	0.708	1.073	25	0.265	0.160	0.077	0.244
ㅣ직 업ㅣ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12	0.084	1.140	0.951	1.329	947	0.053	6.112	5.480	6.744	482	0.061	3.083	2.715	3.451	71	0.148	0.415	0.295	0.535
사무직	260	0.111	1.597	1.250	1.944	1275	0.046	8.612	7.835	9.389	642	0.061	4.524	3.980	5.068	81	0.176	0.571	0.374	0.769
서비스/판매직	465	0.074	2.550	2.179	2.921	2116	0.033	11.996	11.225	12.767	829	0.054	5.049	4.513	5.585	96	0.131	0.494	0.367	0.621
생산/기술직	203	0.091	1.217	1.001	1.434	931	0.045	5.336	4.865	5.806	319	0.074	1.862	1.592	2.131	33	0.202	0.172	0.104	0.24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61	0.133	0.876	0.648	1.104	600	0.082	2.105	1.765	2.445	149	0.158	0.474	0.327	0.620	5	0.528	0.028	0.000	0.057
단순노무직	184	0.103	0.881	0.704	1.059	715	0.054	3.644	3.255	4.033	227	0.099	1.254	1.010	1.498	22	0.259	0.107	0.053	0.162
기타	3	0.578	0.016	0.000	0.034	11	0.487	0.055	0.002	0.107	6	0.479	0.031	0.002	0.061	0	.	.	.	.
무직	1016	0.052	4.854	4.359	5.349	4033	0.024	22.237	21.205	23.270	1289	0.049	8.096	7.320	8.873	110	0.129	0.614	0.459	0.769
ㅣ국가목표ㅣ																				
물질주의	1011	0.055	5.146	4.596	5.696	3813	0.029	21.430	20.209	22.650	1199	0.060	7.719	6.815	8.623	121	0.114	0.706	0.548	0.864
탈물질주의	146	0.131	0.784	0.583	0.985	655	0.078	3.874	3.278	4.470	312	0.085	1.994	1.661	2.328	47	0.165	0.264	0.179	0.350
혼합형	1447	0.052	7.202	6.462	7.941	6160	0.020	34.793	33.406	36.180	2432	0.039	14.659	13.537	15.780	250	0.094	1.431	1.167	1.694
ㅣ공동체 이익ㅣ																				
공동체 이익 중요	363	0.088	2.014	1.667	2.362	1236	0.055	7.594	6.779	8.408	293	0.083	1.805	1.512	2.097	31	0.211	0.168	0.098	0.238
개인 이익 중요	276	0.090	1.431	1.179	1.684	1224	0.063	7.675	6.725	8.625	448	0.083	2.986	2.501	3.472	60	0.174	0.367	0.242	0.492
둘 다 중요	1965	0.046	9.686	8.807	10.565	8168	0.016	44.828	43.381	46.275	3202	0.035	19.581	18.250	20.912	327	0.083	1.866	1.563	2.169

문항 24-2. 사회적 거리감 - 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청년

	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전 체	452	0.102	2.801	2.238	3.364	2402	0.041	13.397	12.330	14.463	8019	0.018	45.383	43.804	46.962	6720	0.025	38.420	36.543	40.296
ㅣ성 별ㅣ																				
남자	224	0.123	1.527	1.158	1.897	1090	0.048	6.573	5.948	7.197	3649	0.022	22.236	21.294	23.178	3096	0.029	19.152	18.074	20.229
여자	228	0.107	1.273	1.007	1.539	1312	0.045	6.824	6.217	7.431	4370	0.022	23.147	22.129	24.166	3624	0.028	19.268	18.197	20.339
ㅣ지 역ㅣ																				
도 시(동 부)	356	0.118	2.367	1.818	2.916	1786	0.047	10.625	9.652	11.598	6166	0.022	37.642	36.056	39.229	5210	0.029	31.392	29.598	33.187
농어촌(읍면부)	96	0.163	0.434	0.295	0.572	616	0.096	2.771	2.252	3.291	1853	0.048	7.741	7.017	8.465	1510	0.074	7.027	6.004	8.051
ㅣ연 령ㅣ																				
20대 이하	44	0.210	0.411	0.241	0.580	190	0.106	1.768	1.402	2.134	879	0.045	7.017	6.394	7.641	938	0.050	7.860	7.096	8.624
30대	73	0.167	0.541	0.364	0.717	274	0.082	1.871	1.571	2.170	1047	0.044	6.953	6.358	7.548	973	0.045	6.378	5.811	6.945
40대	94	0.135	0.609	0.448	0.770	405	0.073	2.264	1.940	2.587	1456	0.035	8.304	7.732	8.876	1393	0.045	7.716	7.041	8.391
50대	82	0.150	0.507	0.358	0.656	511	0.072	2.991	2.572	3.410	1646	0.035	9.305	8.671	9.938	1259	0.044	7.002	6.400	7.604
60대 이상	159	0.128	0.733	0.549	0.918	1022	0.055	4.504	4.020	4.987	2991	0.033	13.805	12.911	14.699	2157	0.044	9.464	8.648	10.280
ㅣ학 력ㅣ																				
중졸 이하	94	0.137	0.391	0.286	0.497	707	0.068	2.873	2.489	3.256	2075	0.042	9.121	8.370	9.871	1354	0.054	5.697	5.093	6.302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7	0.125	0.966	0.730	1.202	872	0.054	5.107	4.567	5.647	2933	0.028	17.235	16.304	18.167	2471	0.035	14.632	13.639	15.624
대졸 이하	173	0.143	1.288	0.926	1.649	766	0.066	5.060	4.405	5.716	2870	0.031	18.240	17.136	19.345	2671	0.034	16.749	15.643	17.854
대학원졸 이상	18	0.265	0.156	0.075	0.237	57	0.174	0.356	0.235	0.478	141	0.108	0.788	0.620	0.955	224	0.090	1.342	1.105	1.579
ㅣ직 업ㅣ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52	0.182	0.360	0.231	0.488	218	0.092	1.365	1.119	1.612	721	0.053	4.551	4.079	5.023	721	0.055	4.474	3.990	4.959
사무직	71	0.233	0.585	0.317	0.852	267	0.099	1.815	1.463	2.166	953	0.049	6.405	5.794	7.017	967	0.053	6.500	5.825	7.175
서비스/판매직	103	0.150	0.626	0.442	0.810	465	0.078	2.812	2.382	3.242	1621	0.037	9.140	8.480	9.801	1317	0.046	7.511	6.832	8.190
생산/기술직	25	0.261	0.173	0.084	0.262	191	0.093	1.108	0.905	1.312	730	0.050	4.321	3.898	4.744	540	0.059	2.983	2.639	3.32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5	0.255	0.107	0.053	0.160	186	0.142	0.616	0.444	0.788	449	0.089	1.503	1.241	1.765	345	0.110	1.257	0.985	1.529
단순노무직	21	0.243	0.123	0.064	0.182	175	0.098	0.925	0.748	1.103	596	0.061	3.119	2.748	3.489	356	0.076	1.720	1.464	1.976
기타	0	.	.	.	.	0	.	.	.	.	10	0.549	0.054	0.000	0.113	10	0.379	0.048	0.012	0.083
무직	145	0.123	0.828	0.629	1.028	900	0.054	4.755	4.253	5.257	2939	0.029	16.291	15.353	17.228	2464	0.036	13.927	12.949	14.905
ㅣ국가목표ㅣ																				
물질주의	169	0.127	1.055	0.793	1.318	977	0.062	5.423	4.767	6.078	2798	0.036	15.934	14.825	17.043	2200	0.041	12.588	11.566	13.611
탈물질주의	17	0.289	0.110	0.048	0.173	136	0.141	0.782	0.566	0.998	482	0.075	2.882	2.457	3.307	525	0.078	3.142	2.663	3.621
혼합형	266	0.125	1.635	1.233	2.038	1289	0.050	7.192	6.493	7.891	4739	0.025	26.568	25.290	27.845	3995	0.032	22.689	21.284	24.094
ㅣ공동체 이익ㅣ																				
공동체 이익 중요	81	0.223	0.548	0.309	0.788	314	0.086	1.995	1.658	2.332	832	0.057	4.999	4.436	5.561	696	0.071	4.039	3.472	4.605
개인 이익 중요	77	0.199	0.460	0.281	0.640	343	0.101	2.018	1.618	2.418	954	0.061	5.881	5.181	6.581	634	0.084	4.100	3.425	4.774
둘 다 중요	294	0.106	1.792	1.420	2.165	1745	0.044	9.384	8.566	10.201	6233	0.021	34.503	33.112	35.894	5390	0.027	30.281	28.655	31.907

문항 25.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정도

	매우 자주 있다					자주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전 체	497	0.064	3.349	2.930	3.768	2746	0.035	17.581	16.369	18.792	5696	0.025	33.888	32.211	35.565	8654	0.022	45.183	43.255	47.110
ㅣ성 별ㅣ																				
남자	236	0.082	1.740	1.460	2.021	1308	0.040	8.869	8.172	9.567	2649	0.029	17.138	16.165	18.111	3866	0.025	21.740	20.674	22.806
여자	261	0.087	1.609	1.334	1.883	1438	0.043	8.711	7.979	9.444	3047	0.029	16.750	15.786	17.714	4788	0.024	23.443	22.319	24.567
ㅣ지 역ㅣ																				
도 시(동 부)	427	0.070	2.953	2.545	3.360	2330	0.039	15.605	14.404	16.806	4641	0.030	28.761	27.093	30.430	6120	0.027	34.708	32.849	36.566
농어촌(읍면부)	70	0.152	0.396	0.278	0.514	416	0.087	1.976	1.638	2.313	1055	0.076	5.127	4.364	5.890	2534	0.046	10.475	9.525	11.425
ㅣ연 령ㅣ																				
20대 이하	192	0.092	1.699	1.391	2.006	499	0.062	4.397	3.859	4.935	582	0.058	4.913	4.351	5.476	778	0.054	6.047	5.409	6.685
30대	117	0.115	0.715	0.553	0.877	519	0.061	3.482	3.065	3.899	809	0.049	5.700	5.155	6.244	922	0.048	5.845	5.296	6.394
40대	98	0.130	0.490	0.365	0.614	593	0.058	3.497	3.100	3.894	1241	0.043	7.169	6.562	7.775	1416	0.042	7.737	7.099	8.376
50대	49	0.179	0.225	0.146	0.305	469	0.066	2.918	2.542	3.294	1278	0.043	7.603	6.970	8.237	1702	0.037	9.058	8.395	9.720
60대 이상	41	0.239	0.220	0.117	0.324	666	0.074	3.286	2.813	3.760	1786	0.044	8.504	7.778	9.229	3836	0.033	16.495	15.422	17.568
ㅣ학 력ㅣ																				
중졸 이하	13	0.296	0.050	0.021	0.079	352	0.102	1.669	1.336	2.001	1035	0.056	4.668	4.154	5.183	2830	0.038	11.695	10.822	12.567
고등학교 졸업 이하	186	0.099	1.333	1.075	1.592	1020	0.050	6.462	5.824	7.101	2175	0.034	13.145	12.262	14.027	3062	0.032	17.000	15.938	18.061
대졸 이하	269	0.082	1.752	1.472	2.033	1273	0.047	8.855	8.034	9.677	2350	0.038	15.283	14.142	16.424	2588	0.034	15.447	14.405	16.489
대학원졸 이상	29	0.215	0.214	0.123	0.304	101	0.127	0.594	0.446	0.743	136	0.116	0.792	0.612	0.973	174	0.105	1.042	0.827	1.256
ㅣ직 업ㅣ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04	0.130	0.741	0.551	0.930	366	0.081	2.522	2.122	2.922	557	0.055	3.443	3.070	3.815	685	0.061	4.044	3.564	4.524
사무직	76	0.137	0.534	0.390	0.678	442	0.071	3.246	2.792	3.700	888	0.057	6.126	5.439	6.814	852	0.058	5.398	4.786	6.011
서비스/판매직	106	0.118	0.716	0.550	0.882	556	0.058	3.482	3.082	3.881	1300	0.044	7.490	6.845	8.136	1544	0.040	8.401	7.738	9.064
생산/기술직	29	0.223	0.162	0.091	0.233	243	0.090	1.501	1.236	1.765	493	0.060	2.930	2.586	3.274	721	0.053	3.993	3.578	4.408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	0.583	0.013	0.000	0.029	64	0.231	0.241	0.132	0.350	210	0.119	0.775	0.595	0.956	738	0.076	2.453	2.088	2.819
단순노무직	20	0.251	0.109	0.056	0.163	138	0.118	0.760	0.584	0.936	356	0.075	1.954	1.667	2.241	634	0.058	3.063	2.715	3.412
기타	1	1.000	0.006	0.000	0.018	7	0.382	0.036	0.009	0.063	2	0.738	0.009	0.000	0.022	10	0.624	0.051	0.000	0.113
무직	158	0.101	1.068	0.855	1.280	930	0.052	5.793	5.204	6.383	1890	0.042	11.161	10.237	12.084	3470	0.030	17.780	16.745	18.814
ㅣ국가목표ㅣ																				
물질주의	172	0.098	1.226	0.990	1.462	907	0.065	5.757	5.028	6.486	1786	0.047	10.933	9.915	11.950	3279	0.034	17.085	15.933	18.237
탈물질주의	49	0.165	0.315	0.213	0.417	241	0.106	1.687	1.337	2.038	387	0.088	2.298	1.901	2.695	483	0.094	2.616	2.131	3.100
혼합형	276	0.079	1.808	1.529	2.087	1598	0.045	10.136	9.250	11.022	3523	0.033	20.658	19.341	21.974	4892	0.026	25.482	24.166	26.798
ㅣ공동체 이익ㅣ																				
공동체 이익 중요	43	0.185	0.286	0.182	0.390	308	0.115	2.094	1.622	2.565	618	0.070	3.774	3.255	4.293	954	0.059	5.426	4.800	6.053
개인 이익 중요	78	0.140	0.479	0.347	0.610	372	0.089	2.555	2.108	3.001	661	0.087	4.402	3.648	5.155	897	0.065	5.025	4.389	5.660
둘 다 중요	376	0.073	2.584	2.214	2.954	2066	0.037	12.932	11.995	13.870	4417	0.028	25.712	24.278	27.147	6803	0.024	34.732	33.090	36.374

문항 28. 인권존중을 위한 의무와 행동 규범에 대한 인지 정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전 체	1398	0.050	8.023	7.235	8.811	9838	0.016	56.881	55.152	58.609	5306	0.029	30.012	28.300	31.724	1051	0.072	5.085	4.366	5.804
ㅣ성 별ㅣ																				
남자	734	0.053	4.425	3.963	4.887	4704	0.019	29.168	28.081	30.254	2256	0.036	13.931	12.941	14.921	365	0.098	1.965	1.586	2.343
여자	664	0.067	3.599	3.126	4.071	5134	0.020	27.713	26.642	28.783	3050	0.030	16.081	15.122	17.040	686	0.070	3.120	2.693	3.546
ㅣ지 역ㅣ																				
도 시(동 부)	1056	0.058	6.497	5.761	7.232	7707	0.019	47.153	45.360	48.946	4134	0.034	24.846	23.202	26.490	621	0.091	3.532	2.903	4.161
농어촌(읍면부)	342	0.104	1.527	1.216	1.837	2131	0.058	9.728	8.624	10.832	1172	0.076	5.166	4.399	5.933	430	0.113	1.553	1.209	1.896
ㅣ연 령ㅣ																				
20대 이하	221	0.097	1.864	1.508	2.219	1205	0.041	10.179	9.369	10.990	548	0.064	4.367	3.821	4.913	77	0.169	0.647	0.432	0.861
30대	196	0.091	1.264	1.039	1.489	1430	0.040	9.560	8.804	10.315	670	0.055	4.465	3.983	4.947	71	0.133	0.453	0.335	0.572
40대	299	0.087	1.576	1.306	1.846	2011	0.033	11.224	10.496	11.952	927	0.050	5.495	4.952	6.038	111	0.141	0.597	0.432	0.763
50대	332	0.082	1.767	1.483	2.052	1996	0.035	11.417	10.630	12.204	1040	0.055	5.928	5.286	6.570	130	0.128	0.692	0.519	0.866
60대 이상	350	0.091	1.553	1.276	1.829	3196	0.033	14.501	13.574	15.427	2121	0.039	9.757	9.020	10.495	662	0.080	2.695	2.274	3.116
ㅣ학 력ㅣ																				
중졸 이하	145	0.147	0.580	0.412	0.748	1965	0.045	8.455	7.712	9.197	1519	0.045	6.638	6.052	7.224	601	0.085	2.410	2.009	2.811
고등학교 졸업 이하	541	0.069	3.095	2.674	3.516	3716	0.026	22.016	20.895	23.137	1912	0.040	11.246	10.368	12.124	274	0.101	1.582	1.268	1.897
대졸 이하	627	0.064	3.821	3.340	4.302	3889	0.026	24.859	23.599	26.118	1793	0.050	11.588	10.452	12.725	171	0.135	1.069	0.786	1.351
대학원졸 이상	85	0.138	0.528	0.385	0.670	268	0.087	1.551	1.288	1.815	82	0.148	0.540	0.383	0.696	5	0.459	0.024	0.002	0.045
ㅣ직 업ㅣ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67	0.080	1.608	1.355	1.860	1070	0.050	6.817	6.154	7.481	344	0.078	2.148	1.821	2.475	31	0.192	0.177	0.110	0.243
사무직	198	0.109	1.273	1.001	1.544	1364	0.044	9.156	8.370	9.943	633	0.067	4.435	3.848	5.022	63	0.199	0.440	0.269	0.612
서비스/판매직	290	0.084	1.653	1.379	1.926	1955	0.035	11.218	10.438	11.998	1118	0.049	6.364	5.749	6.980	143	0.147	0.854	0.607	1.101
생산/기술직	106	0.119	0.566	0.434	0.699	900	0.048	5.272	4.780	5.765	423	0.072	2.471	2.125	2.818	57	0.172	0.276	0.182	0.369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6	0.230	0.149	0.082	0.217	508	0.096	1.747	1.417	2.078	316	0.105	1.067	0.848	1.287	155	0.188	0.519	0.327	0.711
단순노무직	78	0.153	0.378	0.265	0.492	591	0.057	3.183	2.830	3.537	388	0.078	1.950	1.653	2.246	91	0.138	0.375	0.274	0.477
기타	2	0.721	0.010	0.000	0.023	17	0.372	0.087	0.024	0.151	1	1.000	0.005	0.000	0.015	0	.	.	.	.
무직	421	0.075	2.387	2.034	2.740	3433	0.027	19.399	18.379	20.420	2083	0.037	11.571	10.735	12.407	511	0.078	2.444	2.072	2.816
ㅣ국가목표ㅣ																				
물질주의	547	0.069	3.129	2.702	3.555	3607	0.032	20.642	19.364	21.920	1666	0.051	9.542	8.595	10.490	324	0.099	1.688	1.359	2.016
탈물질주의	90	0.149	0.515	0.364	0.665	598	0.074	3.758	3.213	4.304	368	0.091	2.098	1.723	2.473	104	0.174	0.545	0.359	0.730
혼합형	761	0.059	4.380	3.874	4.886	5633	0.022	32.480	31.108	33.851	3272	0.037	18.371	17.055	19.688	623	0.085	2.853	2.378	3.327
ㅣ공동체 이익ㅣ																				
공동체 이익 중요	171	0.140	1.031	0.748	1.313	1025	0.059	6.460	5.714	7.205	586	0.071	3.385	2.915	3.855	141	0.131	0.705	0.524	0.886
개인 이익 중요	111	0.114	0.639	0.496	0.782	1026	0.054	6.150	5.495	6.806	736	0.081	4.931	4.147	5.715	135	0.133	0.739	0.547	0.931
둘 다 중요	1116	0.055	6.354	5.664	7.044	7787	0.018	44.271	42.683	45.859	3984	0.032	21.695	20.353	23.038	775	0.078	3.640	3.086	4.195

문항 31. 인권교육의 전반적 필요성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 없는 편이다					전혀 필요 없다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전 체	3712	0.032	20.311	19.038	21.584	11060	0.012	64.117	62.597	65.637	2193	0.051	12.859	11.561	14.158	628	0.094	2.713	2.210	3.215
ㅣ성 별ㅣ																				
남자	1597	0.038	9.372	8.668	10.075	5156	0.017	32.074	31.032	33.115	1045	0.057	6.783	6.026	7.540	261	0.105	1.260	0.999	1.520
여자	2115	0.037	10.940	10.156	11.724	5904	0.016	32.044	31.066	33.021	1148	0.057	6.077	5.397	6.756	367	0.105	1.453	1.155	1.751
ㅣ지 역ㅣ																				
도 시(동 부)	2903	0.036	16.885	15.682	18.087	8629	0.016	52.976	51.283	54.669	1656	0.059	10.456	9.238	11.675	330	0.114	1.710	1.327	2.094
농어촌(읍면부)	809	0.070	3.426	2.958	3.895	2431	0.056	11.141	9.923	12.359	537	0.112	2.403	1.874	2.932	298	0.161	1.002	0.686	1.319
ㅣ연 령ㅣ																				
20대 이하	500	0.061	3.933	3.465	4.402	1292	0.039	10.757	9.938	11.577	227	0.115	2.138	1.656	2.619	32	0.211	0.228	0.134	0.322
30대	551	0.062	3.490	3.068	3.911	1558	0.036	10.338	9.613	11.063	213	0.101	1.643	1.317	1.968	45	0.204	0.272	0.163	0.381
40대	782	0.057	4.067	3.611	4.523	2169	0.030	12.389	11.649	13.128	322	0.086	2.098	1.743	2.452	75	0.184	0.339	0.216	0.462
50대	763	0.052	4.084	3.671	4.497	2195	0.032	12.551	11.756	13.345	440	0.082	2.677	2.249	3.106	100	0.144	0.493	0.353	0.632
60대 이상	1116	0.057	4.737	4.208	5.266	3846	0.029	18.083	17.042	19.124	991	0.057	4.304	3.827	4.782	376	0.113	1.381	1.075	1.688
ㅣ학 력ㅣ																				
중졸 이하	710	0.070	2.839	2.452	3.227	2492	0.039	11.312	10.454	12.170	692	0.067	2.745	2.385	3.106	336	0.124	1.186	0.898	1.473
고등학교 졸업 이하	1344	0.046	7.507	6.836	8.177	4157	0.021	24.728	23.688	25.769	789	0.065	4.924	4.295	5.554	153	0.121	0.780	0.596	0.965
대졸 이하	1528	0.042	9.134	8.386	9.883	4132	0.023	26.520	25.313	27.728	686	0.084	4.966	4.150	5.783	134	0.160	0.716	0.491	0.940
대학원졸 이상	130	0.116	0.831	0.641	1.021	279	0.085	1.557	1.297	1.817	26	0.241	0.223	0.118	0.329	5	0.464	0.031	0.003	0.059
ㅣ직 업ㅣ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479	0.065	2.973	2.593	3.353	1068	0.048	6.651	6.020	7.283	142	0.121	0.988	0.755	1.222	23	0.254	0.138	0.069	0.206
사무직	500	0.065	3.048	2.661	3.434	1481	0.041	10.176	9.362	10.990	236	0.123	1.836	1.394	2.278	41	0.250	0.245	0.125	0.365
서비스/판매직	743	0.055	4.041	3.603	4.479	2255	0.030	12.895	12.136	13.653	423	0.086	2.740	2.280	3.201	85	0.146	0.413	0.294	0.532
생산/기술직	273	0.082	1.518	1.273	1.763	969	0.045	5.595	5.101	6.089	196	0.098	1.246	1.006	1.486	48	0.193	0.226	0.141	0.31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76	0.154	0.583	0.407	0.760	541	0.085	1.953	1.627	2.279	187	0.141	0.600	0.434	0.766	111	0.209	0.346	0.204	0.488
단순노무직	232	0.089	1.099	0.906	1.292	709	0.055	3.837	3.426	4.248	156	0.116	0.743	0.574	0.912	51	0.209	0.207	0.122	0.292
기타	5	0.451	0.024	0.003	0.044	14	0.450	0.073	0.009	0.138	1	1.000	0.005	0.000	0.015	0	.	.	.	.
무직	1304	0.045	7.025	6.406	7.644	4023	0.024	22.937	21.851	24.024	852	0.059	4.701	4.158	5.243	269	0.113	1.138	0.886	1.390
ㅣ국가목표ㅣ																				
물질주의	1320	0.056	7.079	6.297	7.862	3875	0.029	22.512	21.226	23.798	804	0.069	4.703	4.064	5.341	145	0.130	0.706	0.526	0.886
탈물질주의	301	0.078	1.670	1.415	1.926	644	0.070	3.996	3.444	4.548	151	0.169	0.983	0.657	1.308	64	0.222	0.267	0.151	0.383
혼합형	2091	0.037	11.561	10.715	12.408	6541	0.018	37.609	36.253	38.966	1238	0.067	7.174	6.234	8.114	419	0.116	1.739	1.345	2.133
ㅣ공동체 이익ㅣ																				
공동체 이익 중요	415	0.073	2.270	1.945	2.595	1208	0.057	7.669	6.813	8.526	240	0.102	1.395	1.116	1.675	60	0.175	0.246	0.162	0.330
개인 이익 중요	343	0.088	1.928	1.595	2.262	1244	0.053	7.742	6.935	8.550	355	0.101	2.435	1.951	2.918	66	0.186	0.354	0.225	0.483
둘 다 중요	2954	0.034	16.112	15.030	17.195	8608	0.016	48.706	47.213	50.199	1598	0.058	9.030	8.011	10.048	502	0.104	2.113	1.681	2.544

문항 37.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 (1)

	정부 등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차별받는 개인/집단					언론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전 체	10992	0.015	60.434	58.698	62.169	1296	0.048	8.306	7.518	9.095	1384	0.052	8.645	7.765	9.525	2124	0.037	12.237	11.347	13.127
] 성 별]																				
남자	5011	0.019	29.953	28.854	31.052	568	0.062	3.758	3.301	4.215	652	0.063	4.441	3.890	4.992	1005	0.046	6.123	5.566	6.680
여자	5981	0.018	30.481	29.400	31.561	728	0.058	4.548	4.031	5.065	732	0.057	4.204	3.731	4.676	1119	0.042	6.114	5.606	6.622
] 지 역]																				
도 시(동 부)	8303	0.019	48.952	47.165	50.738	1046	0.056	6.997	6.232	7.762	1131	0.059	7.478	6.617	8.339	1638	0.043	10.035	9.198	10.872
농어촌(읍면부)	2689	0.043	11.482	10.519	12.445	250	0.115	1.309	1.013	1.605	253	0.112	1.167	0.911	1.423	486	0.095	2.202	1.792	2.611
] 연 령]																				
20대 이하	1270	0.039	10.195	9.409	10.980	113	0.118	0.972	0.748	1.196	179	0.099	1.723	1.389	2.056	249	0.085	2.094	1.745	2.444
30대	1481	0.039	9.554	8.831	10.277	163	0.101	1.268	1.018	1.519	187	0.096	1.294	1.051	1.537	314	0.076	2.128	1.810	2.445
40대	2116	0.032	11.433	10.724	12.142	240	0.092	1.593	1.305	1.882	275	0.089	1.712	1.415	2.010	406	0.071	2.358	2.029	2.687
50대	2112	0.031	11.509	10.813	12.206	313	0.085	2.097	1.749	2.445	281	0.090	1.658	1.366	1.949	427	0.064	2.433	2.128	2.737
60대 이상	4013	0.030	17.743	16.690	18.797	467	0.070	2.376	2.050	2.701	462	0.074	2.259	1.932	2.586	728	0.057	3.225	2.862	3.588
] 학 력]																				
중졸 이하	2785	0.038	11.753	10.873	12.632	276	0.093	1.302	1.065	1.538	300	0.085	1.323	1.101	1.544	440	0.075	1.860	1.586	2.134
고등학교 졸업 이하	3978	0.024	22.524	21.470	23.579	514	0.066	3.408	2.965	3.852	534	0.067	3.475	3.017	3.934	774	0.049	4.698	4.245	5.150
대졸 이하	3947	0.025	24.542	23.316	25.767	478	0.069	3.371	2.918	3.824	524	0.075	3.675	3.134	4.216	851	0.058	5.339	4.728	5.950
대학원졸 이상	282	0.082	1.615	1.355	1.875	28	0.271	0.225	0.106	0.345	26	0.228	0.173	0.095	0.250	59	0.179	0.340	0.221	0.460
]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067	0.048	6.473	5.862	7.085	126	0.129	0.920	0.688	1.153	115	0.123	0.781	0.593	0.970	221	0.081	1.361	1.144	1.577
사무직	1391	0.039	9.132	8.428	9.837	155	0.110	1.239	0.972	1.507	200	0.103	1.482	1.182	1.781	303	0.096	2.030	1.649	2.412
서비스/판매직	2119	0.033	11.531	10.779	12.284	284	0.088	1.809	1.496	2.123	294	0.082	1.884	1.582	2.187	447	0.069	2.678	2.318	3.038
생산/기술직	943	0.046	5.372	4.882	5.862	108	0.117	0.635	0.489	0.781	112	0.115	0.729	0.565	0.894	175	0.094	0.938	0.765	1.11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664	0.074	2.265	1.935	2.595	68	0.189	0.251	0.158	0.343	82	0.157	0.313	0.216	0.409	101	0.166	0.331	0.223	0.438
단순노무직	751	0.055	3.769	3.362	4.175	83	0.144	0.521	0.374	0.668	87	0.138	0.465	0.340	0.591	127	0.115	0.609	0.471	0.746
기타	11	0.487	0.055	0.002	0.107	0	.	.	.	.	1	1.001	0.003	0.000	0.010	4	0.500	0.023	0.000	0.046
무직	4046	0.026	21.837	20.732	22.941	472	0.068	2.931	2.541	3.320	493	0.071	2.987	2.573	3.402	746	0.052	4.268	3.831	4.705
] 국가목표]																				
물질주의	3964	0.030	22.103	20.798	23.408	434	0.080	2.821	2.376	3.266	431	0.068	2.770	2.400	3.140	687	0.054	3.944	3.523	4.365
탈물질주의	624	0.066	3.582	3.119	4.044	110	0.139	0.747	0.544	0.951	120	0.128	0.704	0.527	0.880	172	0.113	0.961	0.748	1.175
혼합형	6404	0.021	34.749	33.302	36.196	752	0.057	4.738	4.206	5.270	833	0.068	5.172	4.485	5.859	1265	0.048	7.332	6.640	8.024
]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익 중요	1135	0.052	6.685	6.002	7.367	197	0.108	1.270	1.000	1.539	174	0.111	1.096	0.857	1.335	242	0.110	1.403	1.101	1.705
개인 이익 중요	1118	0.051	6.668	6.004	7.332	202	0.114	1.320	1.024	1.616	238	0.141	1.662	1.203	2.120	251	0.098	1.605	1.298	1.913
둘 다 중요	8739	0.018	47.081	45.407	48.755	897	0.051	5.717	5.150	6.283	972	0.056	5.888	5.242	6.534	1631	0.042	9.229	8.468	9.990

문항 37.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 (2)

	교육기관					국제기구					기타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전 체	10992	0.015	60.434	58.698	62.169	1296	0.048	8.306	7.518	9.095	1384	0.052	8.645	7.765	9.525
ㅣ성 별ㅣ															
남자	5011	0.019	29.953	28.854	31.052	568	0.062	3.758	3.301	4.215	652	0.063	4.441	3.890	4.992
여자	5981	0.018	30.481	29.400	31.561	728	0.058	4.548	4.031	5.065	732	0.057	4.204	3.731	4.676
ㅣ지 역ㅣ															
도 시(동 부)	8303	0.019	48.952	47.165	50.738	1046	0.056	6.997	6.232	7.762	1131	0.059	7.478	6.617	8.339
농어촌(읍면부)	2689	0.043	11.482	10.519	12.445	250	0.115	1.309	1.013	1.605	253	0.112	1.167	0.911	1.423
ㅣ연 령ㅣ															
20대 이하	1270	0.039	10.195	9.409	10.980	113	0.118	0.972	0.748	1.196	179	0.099	1.723	1.389	2.056
30대	1481	0.039	9.554	8.831	10.277	163	0.101	1.268	1.018	1.519	187	0.096	1.294	1.051	1.537
40대	2116	0.032	11.433	10.724	12.142	240	0.092	1.593	1.305	1.882	275	0.089	1.712	1.415	2.010
50대	2112	0.031	11.509	10.813	12.206	313	0.085	2.097	1.749	2.445	281	0.090	1.658	1.366	1.949
60대 이상	4013	0.030	17.743	16.690	18.797	467	0.070	2.376	2.050	2.701	462	0.074	2.259	1.932	2.586
ㅣ학 력ㅣ															
중졸 이하	2785	0.038	11.753	10.873	12.632	276	0.093	1.302	1.065	1.538	300	0.085	1.323	1.101	1.544
고등학교 졸업 이하	3978	0.024	22.524	21.470	23.579	514	0.066	3.408	2.965	3.852	534	0.067	3.475	3.017	3.934
대졸 이하	3947	0.025	24.542	23.316	25.767	478	0.069	3.371	2.918	3.824	524	0.075	3.675	3.134	4.216
대학원졸 이상	282	0.082	1.615	1.355	1.875	28	0.271	0.225	0.106	0.345	26	0.228	0.173	0.095	0.250
ㅣ직 업ㅣ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067	0.048	6.473	5.862	7.085	126	0.129	0.920	0.688	1.153	115	0.123	0.781	0.593	0.970
사무직	1391	0.039	9.132	8.428	9.837	155	0.110	1.239	0.972	1.507	200	0.103	1.482	1.182	1.781
서비스/판매직	2119	0.033	11.531	10.779	12.284	284	0.088	1.809	1.496	2.123	294	0.082	1.884	1.582	2.187
생산/기술직	943	0.046	5.372	4.882	5.862	108	0.117	0.635	0.489	0.781	112	0.115	0.729	0.565	0.894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664	0.074	2.265	1.935	2.595	68	0.189	0.251	0.158	0.343	82	0.157	0.313	0.216	0.409
단순노무직	751	0.055	3.769	3.362	4.175	83	0.144	0.521	0.374	0.668	87	0.138	0.465	0.340	0.591
기타	11	0.487	0.055	0.002	0.107	0	.	.	.	.	1	1.001	0.003	0.000	0.010
무직	4046	0.026	21.837	20.732	22.941	472	0.068	2.931	2.541	3.320	493	0.071	2.987	2.573	3.402
ㅣ국가목표ㅣ															
물질주의	3964	0.030	22.103	20.798	23.408	434	0.080	2.821	2.376	3.266	431	0.068	2.770	2.400	3.140
탈물질주의	624	0.066	3.582	3.119	4.044	110	0.139	0.747	0.544	0.951	120	0.128	0.704	0.527	0.880
혼합형	6404	0.021	34.749	33.302	36.196	752	0.057	4.738	4.206	5.270	833	0.068	5.172	4.485	5.859
ㅣ공동체 이익ㅣ															
공동체 이익 중요	1135	0.052	6.685	6.002	7.367	197	0.108	1.270	1.000	1.539	174	0.111	1.096	0.857	1.335
개인 이익 중요	1118	0.051	6.668	6.004	7.332	202	0.114	1.320	1.024	1.616	238	0.141	1.662	1.203	2.120
둘 다 중요	8739	0.018	47.081	45.407	48.755	897	0.051	5.717	5.150	6.283	972	0.056	5.888	5.242	6.534

부 록

2

통계결과표

차 례

1. 평소 ' 인권 ' 용어에 노출되는 정도 ····· 6
2. 헌법에 명시된 ' 기본적 인권 보호 ' 에 대한 인지 정도 ····· 7
3.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 ····· 8
4. 우리나라에서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 9
5.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 10
6. 타인에 대한 인권침해/차별 여부 ····· 11
7-1.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여성 ····· 12
7-2.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아동·청소년 ····· 13
7-3.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노인 ····· 14
7-4.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장애인 ····· 15
7-5.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이주민(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 16
8-1.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나의 기본적 권리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 ····· 17
8-2.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 18
9-1. 인권의 존중 정도-신체의 자유 ····· 19
9-2. 인권의 존중 정도-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20
9-3. 인권의 존중 정도-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 ····· 21
9-4. 인권의 존중 정도-집회·결사의 자유 ····· 22
9-5. 인권의 존중 정도-신속·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 ····· 23
9-6. 인권의 존중 정도-공공 행정·정책에 참여할 권리 ····· 24
9-7. 인권의 존중 정도-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받을 권리 ····· 25
9-8. 인권의 존중 정도-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 26
9-9. 인권의 존중 정도-주거권 ····· 27
9-10. 인권의 존중 정도-사회보장권 ····· 28
9-11. 인권의 존중 정도-복지서비스 받을 권리 ····· 29
9-12. 인권의 존중 정도-노동권 ····· 30
9-13. 인권의 존중 정도-건강권 ····· 31
9-14. 인권의 존중 정도-교육권 ····· 32
9-15. 인권의 존중 정도-안전권 ····· 33
9-16. 인권의 존중 정도-환경권 ····· 34
9-17. 인권의 존중 정도-문화권 ····· 35
10-a.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사람 (1순위) ····· 36

10-b.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사람 (1순위+2순위) ····· 37
11-a. 인권침해·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 (1순위) ····· 38
11-b. 인권침해·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 (1순위+2순위) ····· 39
12. 우리나라의 인권침해 정도에 대한 평가 ····· 40
13.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권침해 경험 (해당사항 모두 선택) ····· 41
14. 인권침해 경험 (해당사항 모두 선택) ····· 42
15.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불이익 (해당사항 모두 선택) ····· 43
16. 우리나라의 차별 정도에 대한 평가 ····· 44
17-1. 지난 1년 동안 차별 경험 (1) ····· 45
17-1. 지난 1년 동안 차별 경험 (2) ····· 46
17-1. 지난 1년 동안 차별 경험 (3) ····· 47
17-1-1-1. 차별 경험의 유형-성별 (해당사항 모두 선택) ····· 48
17-1-1-2. 차별 경험의 유형-임신/출산 (해당사항 모두 선택) ····· 49
17-1-1-3. 차별 경험의 유형-종교 (해당사항 모두 선택) ····· 50
17-1-1-4. 차별 경험의 유형-사상 정치적 입장 (해당사항 모두 선택) ····· 51
17-1-1-5. 차별 경험의 유형-장애 (해당사항 모두 선택) ····· 52
17-1-1-6. 차별 경험의 유형-연령 (해당사항 모두 선택) ····· 53
17-1-1-7. 차별 경험의 유형-경제 지위 (해당사항 모두 선택) ····· 54
17-1-1-8. 차별 경험의 유형-고용 형태 (해당사항 모두 선택) ····· 55
17-1-1-9. 차별 경험의 유형-학력/학벌 (해당사항 모두 선택) ····· 56
17-1-1-10. 차별 경험의 유형-인종, 출신 국가/ 민족, 피부색 (해당사항 모두 선택) ····· 57
17-1-1-11. 차별 경험의 유형-신체조건 (해당사항 모두 선택) ····· 58
17-1-1-12. 차별 경험의 유형-혼인상황 (해당사항 모두 선택) ····· 59
17-1-1-13. 차별 경험의 유형-가족상황 (해당사항 모두 선택) ····· 60
17-1-1-14. 차별 경험의 유형-질병/병력 (해당사항 모두 선택) ····· 61
17-1-1-15. 차별 경험의 유형-출신지역 (해당사항 모두 선택) ····· 62
18. 차별로 인한 피해·불이익 (해당사항 모두 선택) ····· 63
19-1-a.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사람 또는 상황(1순위) (1) ····· 64
19-1-a.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사람 또는 상황(1순위) (2) ····· 65
19-1-b.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사람 또는 상황(1순위+2순위) (1) ····· 66
19-1-b.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사람 또는 상황(1순위+2순위) (2) ····· 67
19-1-1-1.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한 사람-성별 ····· 68
19-1-1-2.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한 사람-연령대 ····· 69
19-2.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대응방법 (해당사항 모두 선택) ····· 70
19-2-1.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대응-도움 요청한 공공기관 (해당사항 모두 선택) ····· 71

19-2-2.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대응-도움 요청한 공공기관의 도움 정도 ····· 72
19-3-1.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대응-도움 요청한 민간기관·전문가 (해당사항 모두 선택) · 73
19-3-2.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대응-도움 요청한 민간기관·전문가의 도움 정도 ····· 74
19-4.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대응-아무런 행동하지 않은 이유 ····· 75
20-1. 인권 쟁점-사형제도의 존폐 ····· 76
20-1-1. 인권 쟁점-대체형벌의 도입 ····· 77
20-2. 인권 쟁점-강력 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 78
20-3. 인권 쟁점-국정원의 사이버 감찰 ····· 79
20-4. 인권 쟁점-국가보안법의 존폐 ····· 80
20-4-1. 인권 쟁점-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안보 사안에 형법 등 다른 법률 적용 ····· 81
20-5. 인권 쟁점-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정도 ····· 82
20-6. 인권 쟁점-학생 체벌 ····· 83
20-7. 인권 쟁점-한국에서 난민의 인정 ····· 84
20-8. 인권 쟁점-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 85
20-9. 인권 쟁점-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 86
21-1. 정보인권 관련 민감도-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를 체크할 때, 관련된 내용을 모두 확인한다 ····· 87
21-2. 정보인권 관련 민감도-스마트폰,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나의 신상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될 것 같아 불안하다 ····· 88
21-3. 정보인권 관련 민감도-안전을 위해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이다 ····· 89
22-1. 아동·청소년 권리 쟁점에 대한 동의 수준-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므로 부모/교사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 ····· 90
22-2. 아동·청소년 권리 쟁점에 대한 동의 수준-아동·청소년도 사회·정치문제에 관심 갖고 의견 제시 등의 참여할 필요있다 ····· 91
22-3. 아동·청소년 권리 쟁점에 대한 동의 수준-초중고교 정규 수업시간에 인권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 92
23-1. 가족, 이웃, 친구 중 관계 유무-장애인 ····· 93
23-2. 가족, 이웃, 친구 중 관계 유무-결혼이주민 ····· 94
23-3. 가족, 이웃, 친구 중 관계 유무-이주노동자 ····· 95
23-4. 가족, 이웃, 친구 중 관계 유무-북한이탈주민 ····· 96
23-5. 가족, 이웃, 친구 중 관계 유무-성소수자 ····· 97
23-6. 가족, 이웃, 친구 중 관계 유무-난민 ····· 98
24-1.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여성 ····· 99
24-2.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청년 ····· 100

24-3.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노인 ····· 101
24-4.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장애인 ····· 102
24-5.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결혼이주민 ····· 103
24-6.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이주노동자 ····· 104
24-7.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북한이탈주민 ····· 105
24-8.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성소수자 ····· 106
25.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정도 ····· 107
25-1. 혐오표현을 접하게 된 경로 (해당사항 모두 선택) ····· 108
25-2. 혐오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 (해당사항 모두 선택) ····· 109
25-3.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행동 ····· 110
26. 혐오 표현의 심각성 정도 ····· 111
27.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한 찬반 ····· 112
28. 인권존중을 위한 의무와 행동 규범에 대한 인지 정도 ····· 113
29. 인권침해/차별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인지 정도 ····· 114
30.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 받은 경험 ····· 115
30-1. 인권교육을 주관한 기관 (해당사항 모두 선택) ····· 116
30-2. 인권교육 방식 ····· 117
30-3. 인권교육이 도움된 정도 ····· 118
31. 인권교육의 전반적인 필요성 ····· 119
32-a.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 높여야 할 대상 (1순위) ····· 120
32-b.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 높여야 할 대상 (1순위+2순위) ····· 121
33-a.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 또는 내용 (1순위) ····· 122
33-b.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 또는 내용 (1순위+2순위) ····· 123
34-1.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인권침해 또는 차별 피해자 조언 상담 · 124
34-2.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 활동 ·· 125
34-3.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소수자, 약자를 위한 기부 ·· 126
34-4.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인권단체 회원 가입·활동 ·· 127
34-5.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인권문제와 관련한 글쓰기/댓글달기 128
34-6.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인권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 ·· 129
34-7.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온라인 또는 거리에서 인권 캠페인이나 집회 130
35-a.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1순위) ····· 131
35-b.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1순위+2순위) ····· 132
36-1. 우리나라 정부의 인권증진 행위 평가-인권보호·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 ····· 133
36-2. 우리나라 정부의 인권증진 행위 평가-인권침해·차별 발생에 적절한 대응 ····· 134
37.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 ····· 135

Ⅰ 인권 인식

1. 평소 '인권' 용어에 노출되는 정도

(단위: %, 점)

	거의 매일 접한다	비교적 자주 접한다	가끔 접한다	거의 접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3.6**	**28.4**	**48.6**	**19.3**	**2.2**
| 성 별 |				
남자	4.4	31.2	48.4	15.9	2.2
여자	2.9	25.6	48.8	22.6	2.1
| 지역 |				
도 시[동 부]	3.8	29.5	49.4	17.2	2.2
농어촌[읍면부]	3.0	23.1	45.0	28.9	2.0
| 연 령 |				
20대 이하	4.9	32.7	48.8	13.6	2.3
30대	3.6	32.1	51.3	13.1	2.3
40대	4.1	31.8	51.3	12.9	2.3
50대	3.8	31.6	50.2	14.4	2.2
60대 이상	2.5	19.3	44.3	33.9	1.9
| 학 력 |				
중졸 이하	1.1	12.1	40.6	46.2	1.7
고졸 이하	3.6	27.2	52.3	16.9	2.2
대졸 이하	4.3	35.5	49.7	10.4	2.3
대학원졸 이상	11.6	45.0	34.6	8.8	2.6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6.6	42.6	41.0	9.8	2.5
사무직	4.1	36.5	49.9	9.5	2.4
서비스/판매직	4.2	27.7	53.3	14.9	2.2
생산/기술직	2.6	27.6	53.5	16.3	2.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3	16.3	44.1	37.3	1.8
단순노무직	2.8	22.5	47.8	26.8	2.0
기타	30.6	37.4	18.4	13.6	2.9
무직	2.7	23.4	47.3	26.6	2.0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3.5	27.7	48.0	20.9	2.1
탈물질주의	5.3	30.3	47.1	17.3	2.2
혼합형	3.5	28.6	49.2	18.6	2.2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4.6	30.2	43.3	21.8	2.2
개인 이익 중요	2.5	25.6	50.1	21.9	2.1
둘 다 중요	3.7	28.6	49.2	18.5	2.2

2.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 보호'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점)

	매우 잘 알고 있다	다소 알고 있다	잘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평균 (4점)
전 체	15.3	51.0	25.1	8.5	2.7
| 성 별 |				
남자	17.1	55.1	22.0	5.8	2.8
여자	13.6	47.0	28.2	11.2	2.6
| 지역 |				
도 시[동 부]	15.9	52.5	25.0	6.6	2.8
농어촌[읍면부]	12.6	44.4	25.9	17.1	2.5
| 연 령 |				
20대 이하	21.4	52.6	22.0	4.0	2.9
30대	19.3	58.2	19.3	3.2	2.9
40대	19.7	58.2	19.3	2.9	2.9
50대	14.1	55.1	25.8	5.0	2.8
60대 이상	7.4	38.5	33.7	20.4	2.3
| 학 력 |				
중졸 이하	3.2	28.2	39.0	29.7	2.0
고졸 이하	13.4	53.2	27.5	5.9	2.7
대졸 이하	20.5	59.4	18.0	2.1	3.0
대학원졸 이상	45.8	44.9	8.1	1.2	3.4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0.9	56.1	11.5	1.6	3.2
사무직	18.1	61.5	18.3	2.2	3.0
서비스/판매직	14.9	55.2	25.3	4.6	2.8
생산/기술직	12.2	56.0	27.1	4.6	2.8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6.1	34.3	30.7	28.9	2.2
단순노무직	10.1	43.9	32.3	13.7	2.5
기타	37.2	54.1	3.8	4.9	3.2
무직	12.1	44.3	29.9	13.6	2.5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5.6	50.3	25.6	8.6	2.7
탈물질주의	17.3	51.8	21.9	8.9	2.8
혼합형	14.9	51.4	25.3	8.4	2.7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5.5	51.7	22.4	10.4	2.7
개인 이익 중요	13.3	47.2	30.3	9.2	2.6
둘 다 중요	15.6	51.6	24.7	8.1	2.7

3.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

(단위: %, 점)

	많이 좋아지고 있다	조금 좋아지고 있다	비슷하다	조금 나빠지고 있다	많이 나빠지고 있다	평균 (5점)
전 체	5.7	30.6	54.5	7.0	2.3	3.3
| 성 별 |						
남자	6.6	32.2	51.8	6.9	2.5	3.3
여자	4.7	29.1	57.1	7.1	2.0	3.3
| 지역 |						
도 시[동 부]	5.8	30.7	54.5	6.8	2.3	3.3
농어촌[읍면부]	5.2	30.4	54.4	7.8	2.2	3.3
| 연 령 |						
20대 이하	4.8	31.9	54.2	6.7	2.3	3.3
30대	5.7	31.3	53.7	6.3	2.9	3.3
40대	7.4	32.6	52.5	5.9	1.6	3.4
50대	6.8	33.1	51.4	6.4	2.3	3.4
60대 이상	4.1	26.5	58.4	8.7	2.3	3.2
| 학 력 |						
중졸 이하	3.1	24.9	61.9	8.0	2.1	3.2
고졸 이하	4.8	28.8	56.2	7.6	2.6	3.3
대졸 이하	6.9	34.8	50.3	6.0	2.0	3.4
대학원졸 이상	15.2	30.2	44.6	6.9	3.1	3.5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2.1	35.3	44.6	5.3	2.6	3.5
사무직	5.2	36.2	52.1	5.3	1.2	3.4
서비스/판매직	5.2	30.2	54.2	7.9	2.5	3.3
생산/기술직	5.3	29.4	56.6	6.3	2.3	3.3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4	30.5	57.2	6.6	1.3	3.3
단순노무직	4.5	26.8	56.7	8.5	3.5	3.2
기타	34.1	26.8	33.2	0.0	5.9	3.8
무직	4.5	28.0	57.5	7.7	2.4	3.2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6.2	29.2	53.7	8.1	2.7	3.3
탈물질주의	6.2	30.1	53.1	8.3	2.3	3.3
혼합형	5.3	31.5	55.1	6.2	2.0	3.3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8.7	33.2	49.0	6.7	2.4	3.4
개인 이익 중요	3.9	26.6	59.2	7.7	2.6	3.2
둘 다 중요	5.5	30.9	54.5	6.9	2.2	3.3

4. 우리나라에서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단위: %, 점)

	매우 존중받는다	존중받는 편이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평균 (4점)
전 체	3.4	79.5	16.0	1.1	2.9
| 성 별 |					
남자	3.8	78.5	16.4	1.2	2.8
여자	3.0	80.4	15.7	1.0	2.9
| 지역 |					
도 시[동 부]	3.3	79.7	15.9	1.0	2.9
농어촌[읍면부]	3.7	78.4	16.5	1.4	2.8
| 연 령 |					
20대 이하	5.1	81.1	13.0	0.8	2.9
30대	4.5	78.5	15.9	1.1	2.9
40대	3.2	81.2	14.4	1.2	2.9
50대	2.8	79.3	17.0	0.9	2.8
60대 이상	2.3	78.0	18.4	1.3	2.8
| 학 력 |					
중졸 이하	1.9	76.8	19.9	1.4	2.8
고졸 이하	2.9	78.3	17.5	1.3	2.8
대졸 이하	4.2	82.2	12.9	0.8	2.9
대학원졸 이상	8.2	73.0	17.7	1.1	2.9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6.1	78.2	14.6	1.1	2.9
사무직	4.5	84.9	10.1	0.5	2.9
서비스/판매직	2.8	78.9	17.1	1.2	2.8
생산/기술직	2.9	79.9	16.0	1.2	2.8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5	79.8	15.7	1.1	2.9
단순노무직	2.0	71.5	24.6	1.9	2.7
기타	18.6	63.8	12.0	5.6	3.0
무직	2.7	79.1	17.1	1.1	2.8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3.5	79.1	16.3	1.2	2.8
탈물질주의	3.7	74.8	20.4	1.2	2.8
혼합형	3.3	80.3	15.4	1.0	2.9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3.8	80.2	14.7	1.3	2.9
개인 이익 중요	3.3	72.5	22.4	1.8	2.8
둘 다 중요	3.3	80.5	15.2	0.9	2.9

5.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단위: %, 점)

	매우 존중받는다	존중받는 편이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평균 (4점)
전 체	2.8	75.0	21.3	0.9	2.2
| 성 별 |				
남자	3.1	74.7	21.0	1.1	2.2
여자	2.4	75.3	21.6	0.7	2.2
| 지역 |				
도 시[동 부]	2.8	75.0	21.3	0.9	2.2
농어촌[읍면부]	2.5	75.2	21.3	1.1	2.2
| 연 령 |				
20대 이하	4.0	76.8	18.1	1.1	2.2
30대	3.6	74.7	20.4	1.2	2.2
40대	3.4	75.4	20.4	0.8	2.2
50대	2.3	73.8	23.3	0.6	2.2
60대 이상	1.5	74.6	23.0	0.9	2.2
| 학 력 |				
중졸 이하	1.2	76.4	21.6	0.7	2.2
고졸 이하	2.5	73.4	22.9	1.2	2.2
대졸 이하	3.4	76.2	19.7	0.7	2.2
대학원졸 이상	7.4	68.8	22.1	1.6	2.2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5.3	73.1	20.6	1.1	2.2
사무직	3.8	79.1	16.3	0.8	2.1
서비스/판매직	2.4	73.4	23.2	1.0	2.2
생산/기술직	2.5	74.5	22.1	0.9	2.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0	77.4	20.6	0.0	2.2
단순노무직	1.3	70.0	27.5	1.1	2.3
기타	13.7	75.0	11.3	0.0	2.0
무직	2.1	75.4	21.6	0.9	2.2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3.0	75.3	20.8	0.9	2.2
탈물질주의	2.3	69.4	27.1	1.1	2.3
혼합형	2.7	75.4	21.0	0.9	2.2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3.7	74.7	20.7	0.8	2.2
개인 이익 중요	2.4	71.2	25.1	1.3	2.3
둘 다 중요	2.7	75.7	20.8	0.9	2.2

6. 타인에 대한 인권침해/차별 여부

(단위: %, 점)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4점)
전 체	16.6	72.4	9.7	1.3	2.0
| 성 별 |				
남자	16.8	72.5	9.5	1.2	2.0
여자	16.5	72.3	9.9	1.3	2.0
| 지역 |				
도 시[동 부]	16.5	72.3	9.9	1.2	2.0
농어촌[읍면부]	17.0	72.7	8.6	1.6	1.9
| 연 령 |				
20대 이하	19.4	70.2	9.4	1.0	1.9
30대	17.3	72.9	8.3	1.4	1.9
40대	17.4	71.6	10.0	1.0	1.9
50대	15.5	73.1	10.4	1.1	2.0
60대 이상	14.9	73.5	10.0	1.6	2.0
| 학 력 |				
중졸 이하	13.9	74.3	9.9	1.9	2.0
고졸 이하	15.3	73.1	10.3	1.3	2.0
대졸 이하	18.1	71.8	9.3	0.9	1.9
대학원졸 이상	31.1	59.8	7.4	1.7	1.8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4.3	66.8	7.7	1.3	1.9
사무직	17.6	73.5	7.9	1.0	1.9
서비스/판매직	15.1	72.2	11.6	1.1	2.0
생산/기술직	12.6	75.5	10.9	0.9	2.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4.6	76.3	7.0	2.1	2.0
단순노무직	13.7	74.5	10.1	1.7	2.0
기타	17.4	76.9	5.7	0.0	1.9
무직	16.4	72.2	10.0	1.4	2.0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7.8	71.1	9.5	1.6	1.9
탈물질주의	19.2	69.0	11.1	0.7	1.9
혼합형	15.6	73.6	9.7	1.1	2.0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6.4	72.5	9.3	1.7	2.0
개인 이익 중요	13.0	71.4	14.7	0.9	2.0
둘 다 중요	17.3	72.5	9.0	1.2	1.9

7-1)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여성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11.2	71.5	16.4	0.8	2.1
| 성 별 |				
남자	15.7	72.1	11.8	0.5	2.0
여자	6.8	71.0	21.0	1.2	2.2
| 지역 |				
도 시[동 부]	11.1	71.5	16.5	0.9	2.1
농어촌[읍면부]	11.9	71.4	16.0	0.7	2.1
| 연 령 |				
20대 이하	16.5	66.0	15.8	1.7	2.0
30대	14.7	68.0	16.1	1.2	2.0
40대	8.3	73.7	17.4	0.6	2.1
50대	9.5	72.1	17.8	0.6	2.1
60대 이상	9.2	74.9	15.4	0.5	2.1
| 학 력 |				
중졸 이하	8.9	76.2	14.2	0.6	2.1
고졸 이하	10.8	70.4	17.9	0.9	2.1
대졸 이하	12.1	71.2	15.9	0.8	2.1
대학원졸 이상	19.3	60.4	19.0	1.3	2.0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4.7	68.5	15.3	1.5	2.0
사무직	11.3	74.6	13.3	0.8	2.0
서비스/판매직	10.4	69.9	19.2	0.5	2.1
생산/기술직	12.7	71.7	14.7	0.9	2.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2.9	74.5	12.4	0.2	2.0
단순노무직	9.2	70.7	19.0	1.1	2.1
기타	44.6	40.8	14.5	0.0	1.7
무직	10.3	71.9	17.0	0.8	2.1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3.2	72.1	14.2	0.5	2.0
탈물질주의	9.1	66.1	22.9	1.8	2.2
혼합형	10.3	71.8	17.0	0.9	2.1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5.2	70.8	13.2	0.7	2.0
개인 이익 중요	12.8	69.9	16.4	0.9	2.1
둘 다 중요	10.3	71.9	16.9	0.8	2.1

7-2)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아동·청소년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12.8	67.5	18.7	1.0	2.1
| 성 별 |				
남자	15.3	67.3	16.5	0.9	2.0
여자	10.2	67.7	20.9	1.2	2.1
| 지역 |				
도 시[동 부]	12.9	67.1	19.0	1.1	2.1
농어촌[읍면부]	12.2	69.5	17.4	1.0	2.1
| 연 령 |				
20대 이하	19.6	60.4	18.5	1.5	2.0
30대	15.7	62.5	20.2	1.6	2.1
40대	9.9	68.3	20.7	1.0	2.1
50대	10.7	68.6	19.8	0.8	2.1
60대 이상	10.4	73.2	15.8	0.6	2.1
| 학 력 |				
중졸 이하	10.0	75.8	13.5	0.6	2.0
고졸 이하	12.5	66.8	19.6	1.1	2.1
대졸 이하	14.0	65.1	19.8	1.1	2.1
대학원졸 이상	16.3	58.7	22.7	2.2	2.1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4.6	64.6	19.0	1.8	2.1
사무직	14.2	66.0	19.0	0.7	2.1
서비스/판매직	13.4	65.7	19.9	1.0	2.1
생산/기술직	11.2	69.5	17.9	1.4	2.1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2.7	72.7	14.0	0.6	2.0
단순노무직	10.8	69.3	19.0	0.9	2.1
기타	42.0	41.6	16.4	0.0	1.7
무직	11.8	68.9	18.4	1.0	2.1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3.6	68.8	16.8	0.8	2.0
탈물질주의	11.5	63.2	23.1	2.1	2.2
혼합형	12.4	67.2	19.3	1.1	2.1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7.6	66.1	15.2	1.2	2.0
개인 이익 중요	13.1	63.5	21.8	1.6	2.1
둘 다 중요	12.0	68.4	18.7	0.9	2.1

7-3)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노인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10.4	61.8	25.9	1.9	2.2
| 성 별 |					
남자	11.6	61.6	24.9	1.9	2.2
여자	9.2	62.1	26.8	1.9	2.2
| 지역 |					
도 시[동 부]	10.2	61.2	26.6	2.0	2.2
농어촌[읍면부]	11.3	64.6	22.7	1.4	2.1
| 연 령 |					
20대 이하	13.7	58.7	25.1	2.4	2.2
30대	9.6	62.7	25.8	2.0	2.2
40대	9.6	63.1	25.6	1.7	2.2
50대	10.1	62.9	25.3	1.6	2.2
60대 이상	9.5	61.6	27.0	1.9	2.2
| 학 력 |					
중졸 이하	10.2	63.2	24.9	1.7	2.2
고졸 이하	10.2	61.0	26.6	2.3	2.2
대졸 이하	10.5	62.2	25.7	1.6	2.2
대학원졸 이상	14.2	58.0	25.8	2.0	2.2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9.8	62.8	25.0	2.4	2.2
사무직	11.2	61.8	25.7	1.2	2.2
서비스/판매직	10.9	60.9	26.3	1.9	2.2
생산/기술직	9.8	61.1	27.0	2.2	2.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6.7	65.5	17.0	0.8	2.0
단순노무직	8.5	59.6	29.9	2.0	2.3
기타	31.2	58.0	10.8	0.0	1.8
무직	9.8	62.3	25.9	2.0	2.2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0.9	61.7	25.6	1.9	2.2
탈물질주의	8.0	58.7	30.3	2.9	2.3
혼합형	10.4	62.3	25.5	1.8	2.2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3.5	61.0	23.3	2.1	2.1
개인 이익 중요	9.7	56.7	30.7	2.8	2.3
둘 다 중요	10.0	62.8	25.5	1.7	2.2

7-4)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장애인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6.4	46.7	41.2	5.7	2.5
| 성 별 |				
남자	7.5	47.5	39.7	5.3	2.4
여자	5.4	46.0	42.6	6.0	2.5
| 지역 |				
도 시[동 부]	6.3	46.5	41.6	5.6	2.5
농어촌[읍면부]	7.0	47.8	39.3	5.9	2.4
| 연 령 |				
20대 이하	8.4	42.3	42.6	6.8	2.5
30대	5.8	43.9	43.1	7.2	2.5
40대	5.6	43.9	44.4	6.1	2.5
50대	5.9	48.2	40.2	5.7	2.5
60대 이상	6.5	51.8	37.8	3.9	2.4
| 학 력 |				
중졸 이하	6.0	54.6	36.4	2.9	2.4
고졸 이하	6.2	45.9	41.6	6.2	2.5
대졸 이하	6.5	44.5	42.8	6.1	2.5
대학원졸 이상	10.6	38.4	41.7	9.2	2.5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8.1	44.0	40.4	7.6	2.5
사무직	6.7	46.8	40.8	5.7	2.5
서비스/판매직	6.5	43.7	43.5	6.3	2.5
생산/기술직	4.9	47.9	41.4	5.8	2.5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9.4	55.8	31.5	3.3	2.3
단순노무직	6.5	49.8	38.5	5.3	2.4
기타	15.4	39.5	40.1	4.9	2.3
무직	5.8	47.5	41.6	5.0	2.5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7.5	45.9	41.3	5.3	2.4
탈물질주의	4.8	39.7	45.3	10.2	2.6
혼합형	6.0	48.0	40.6	5.4	2.5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8.4	46.2	39.2	6.2	2.4
개인 이익 중요	6.3	42.1	44.8	6.9	2.5
둘 다 중요	6.2	47.6	40.9	5.4	2.5

7-5)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이주민(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3.1	34.4	52.8	9.7	2.7
| 성 별 |				
남자	3.7	35.0	51.9	9.5	2.7
여자	2.6	33.8	53.8	9.9	2.7
| 지역 |				
도 시[동 부]	3.0	34.0	53.4	9.7	2.7
농어촌[읍면부]	3.7	36.2	50.4	9.7	2.7
| 연 령 |				
20대 이하	4.6	34.4	49.8	11.3	2.7
30대	3.8	33.5	52.1	10.6	2.7
40대	2.5	30.8	56.6	10.2	2.7
50대	2.4	34.0	53.9	9.8	2.7
60대 이상	2.8	37.5	51.9	7.8	2.6
| 학 력 |				
중졸 이하	2.4	39.9	51.8	5.9	2.6
고졸 이하	3.4	34.6	51.9	10.2	2.7
대졸 이하	3.0	32.3	54.1	10.6	2.7
대학원졸 이상	6.0	25.7	54.9	13.4	2.8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9	32.2	53.4	10.5	2.7
사무직	3.2	34.0	52.6	10.2	2.7
서비스/판매직	2.9	33.3	53.3	10.4	2.7
생산/기술직	3.3	32.9	53.3	10.5	2.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4	47.5	42.8	6.3	2.5
단순노무직	3.0	37.2	50.9	8.9	2.7
기타	4.9	51.2	43.8	0.0	2.4
무직	2.9	34.3	53.8	9.1	2.7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3.8	34.8	52.9	8.5	2.7
탈물질주의	2.0	30.1	53.4	14.6	2.8
혼합형	2.8	34.6	52.8	9.8	2.7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3.5	34.9	50.9	10.7	2.7
개인 이익 중요	3.9	34.4	51.2	10.5	2.7
둘 다 중요	2.9	34.3	53.4	9.4	2.7

8-1)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
– 나의 기본적 권리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

(단위: %, 점)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6.0	67.6	22.8	3.6	2.2
| 성 별 |				
남자	6.7	67.8	21.4	4.1	2.2
여자	5.4	67.4	24.2	3.1	2.2
| 지역 |				
도 시[동 부]	5.9	67.5	23.0	3.5	2.2
농어촌[읍면부]	6.6	67.7	21.8	3.9	2.2
| 연 령 |				
20대 이하	5.7	58.9	29.7	5.7	2.4
30대	6.0	61.7	27.4	4.9	2.3
40대	6.1	67.1	23.1	3.7	2.2
50대	6.8	71.4	19.5	2.2	2.2
60대 이상	5.6	73.6	18.3	2.5	2.2
| 학 력 |				
중졸 이하	5.2	73.9	18.4	2.5	2.2
고졸 이하	5.8	67.6	22.4	4.2	2.2
대졸 이하	6.3	65.4	25.1	3.3	2.3
대학원졸 이상	11.5	58.1	22.4	8.1	2.3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8.4	62.5	23.6	5.5	2.3
사무직	6.0	66.6	23.7	3.7	2.3
서비스/판매직	5.7	66.5	24.4	3.4	2.3
생산/기술직	6.4	67.7	22.0	3.9	2.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6.8	74.0	17.9	1.3	2.1
단순노무직	5.6	71.0	19.4	4.0	2.2
기타	12.4	62.0	25.6	0.0	2.1
무직	5.4	68.9	22.5	3.2	2.2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6.5	67.9	20.7	5.0	2.2
탈물질주의	6.7	59.9	29.4	4.0	2.3
혼합형	5.7	68.3	23.3	2.7	2.2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1.9	75.0	12.3	0.9	2.0
개인 이익 중요	4.2	59.2	30.4	6.2	2.4
둘 다 중요	5.4	67.8	23.1	3.6	2.2

8-2)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
–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단위: %, 점)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21.7	65.5	12.2	0.6	1.9
| 성 별 |				
남자	22.3	64.5	12.7	0.5	1.9
여자	21.1	66.6	11.8	0.6	1.9
| 지역 |				
도 시[동 부]	22.4	65.4	11.7	0.5	1.9
농어촌[읍면부]	18.6	66.0	14.5	0.8	2.0
| 연 령 |				
20대 이하	25.3	62.8	11.5	0.4	1.9
30대	24.2	64.6	10.7	0.5	1.9
40대	21.2	67.2	11.0	0.6	1.9
50대	21.6	63.8	13.8	0.8	1.9
60대 이상	18.6	67.7	13.2	0.5	2.0
| 학 력 |				
중졸 이하	17.4	68.6	13.3	0.6	2.0
고졸 이하	22.3	64.9	12.2	0.6	1.9
대졸 이하	22.8	64.8	11.9	0.5	1.9
대학원졸 이상	26.0	64.7	9.1	0.2	1.8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5.1	64.3	10.2	0.5	1.9
사무직	23.2	64.3	12.2	0.4	1.9
서비스/판매직	23.4	63.9	12.1	0.6	1.9
생산/기술직	19.4	66.4	13.4	0.7	2.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7.4	69.0	13.1	0.5	2.0
단순노무직	22.2	64.6	12.6	0.6	1.9
기타	27.3	62.8	9.9	0.0	1.8
무직	20.0	66.9	12.4	0.6	1.9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21.8	65.0	12.7	0.5	1.9
탈물질주의	27.8	60.1	11.2	0.9	1.9
혼합형	20.9	66.5	12.0	0.6	1.9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20.8	66.2	12.3	0.7	1.9
개인 이익 중요	25.9	60.7	13.1	0.3	1.9
둘 다 중요	21.2	66.2	12.0	0.6	1.9

9-1) 인권의 존중 정도-신체의 자유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14.5	73.2	11.7	0.6	3.0
| 성 별 |				
남자	15.0	72.6	11.7	0.7	3.0
여자	14.0	73.8	11.7	0.4	3.0
| 지역 |				
도 시[동 부]	14.1	73.7	11.6	0.5	3.0
농어촌[읍면부]	16.1	70.9	12.4	0.6	3.0
| 연 령 |				
20대 이하	20.4	67.2	11.6	0.7	3.1
30대	17.1	71.1	11.2	0.7	3.0
40대	14.6	72.7	12.1	0.6	3.0
50대	11.6	74.9	12.9	0.5	3.0
60대 이상	11.3	77.2	11.1	0.4	3.0
| 학 력 |				
중졸 이하	11.2	77.5	11.2	0.1	3.0
고졸 이하	13.5	73.3	12.5	0.7	3.0
대졸 이하	16.1	71.9	11.4	0.6	3.0
대학원졸 이상	25.9	63.9	9.8	0.4	3.2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6.8	70.8	11.4	1.0	3.0
사무직	16.7	72.9	10.1	0.3	3.1
서비스/판매직	14.7	72.1	12.7	0.5	3.0
생산/기술직	13.3	73.0	12.8	1.0	3.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6.9	73.0	10.1	0.0	3.1
단순노무직	11.1	74.0	13.8	1.1	2.9
기타	29.9	52.5	17.6	0.0	3.1
무직	13.2	74.8	11.6	0.4	3.0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4.9	72.8	11.6	0.7	3.0
탈물질주의	15.0	74.3	9.8	0.9	3.0
혼합형	14.1	73.4	12.1	0.4	3.0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3.8	73.0	12.5	0.7	3.0
개인 이익 중요	15.2	71.8	12.4	0.6	3.0
둘 다 중요	14.4	73.5	11.5	0.5	3.0

9-2) 인권의 존중 정도-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23.6	65.0	10.5	0.8	3.1
| 성 별 |					
남자	24.8	64.2	10.2	0.8	3.1
여자	22.5	65.7	10.9	0.9	3.1
| 지역 |					
도 시[동 부]	23.1	65.7	10.4	0.8	3.1
농어촌[읍면부]	26.0	61.9	11.1	1.0	3.1
| 연 령 |					
20대 이하	28.2	60.6	10.7	0.5	3.2
30대	25.7	63.1	9.8	1.4	3.1
40대	24.2	64.8	10.1	0.9	3.1
50대	21.1	67.0	10.9	1.0	3.1
60대 이상	21.1	67.4	10.9	0.6	3.1
| 학 력 |					
중졸 이하	22.0	67.7	9.9	0.5	3.1
고졸 이하	22.4	65.6	11.0	0.9	3.1
대졸 이하	24.6	64.1	10.4	0.9	3.1
대학원졸 이상	37.1	51.2	10.9	0.8	3.2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8.9	59.1	10.7	1.4	3.2
사무직	25.2	64.4	9.5	0.9	3.1
서비스/판매직	22.6	64.7	11.9	0.8	3.1
생산/기술직	20.8	66.7	11.5	1.0	3.1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0.4	59.4	9.8	0.4	3.2
단순노무직	20.5	68.4	10.4	0.7	3.1
기타	41.5	53.5	4.9	0.0	3.4
무직	22.5	66.8	10.1	0.7	3.1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24.2	64.7	10.3	0.8	3.1
탈물질주의	21.3	66.4	11.0	1.3	3.1
혼합형	23.5	65.0	10.6	0.8	3.1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23.7	65.6	10.1	0.7	3.1
개인 이익 중요	22.4	64.3	12.6	0.7	3.1
둘 다 중요	23.8	65.0	10.3	0.9	3.1

9-3) 인권의 존중 정도-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16.6	66.7	15.8	1.0	3.0
| 성 별 |					
남자	16.9	66.2	15.9	1.1	3.0
여자	16.2	67.2	15.7	0.9	3.0
| 지역 |					
도 시[동 부]	16.5	66.9	15.6	1.0	3.0
농어촌[읍면부]	16.6	65.7	16.6	1.1	3.0
| 연 령 |					
20대 이하	20.1	60.5	17.9	1.4	3.0
30대	17.1	64.3	17.5	1.1	3.0
40대	16.7	67.4	14.8	1.0	3.0
50대	15.9	67.2	15.9	1.0	3.0
60대 이상	14.4	70.8	14.1	0.6	3.0
| 학 력 |					
중졸 이하	14.6	71.7	13.2	0.6	3.0
고졸 이하	16.1	67.0	15.7	1.1	3.0
대졸 이하	17.2	64.8	17.0	1.0	3.0
대학원졸 이상	25.8	58.0	15.0	1.2	3.1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8.7	63.9	16.4	1.1	3.0
사무직	17.9	65.9	14.8	1.4	3.0
서비스/판매직	16.9	63.5	18.7	1.0	3.0
생산/기술직	15.7	67.2	15.9	1.3	3.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9.0	67.3	13.5	0.2	3.1
단순노무직	12.4	70.8	15.4	1.4	2.9
기타	34.9	47.3	5.6	12.2	3.0
무직	15.8	68.9	14.6	0.7	3.0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7.8	65.8	15.3	1.2	3.0
탈물질주의	13.6	66.5	18.6	1.3	2.9
혼합형	16.2	67.3	15.7	0.8	3.0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7.6	65.9	16.0	0.5	3.0
개인 이익 중요	17.8	64.8	16.3	1.1	3.0
둘 다 중요	16.2	67.1	15.7	1.0	3.0

9-4) 인권의 존중 정도-집회·결사의 자유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14.7	64.1	19.7	1.6	2.9
| 성 별 |				
남자	15.9	62.6	19.6	1.9	2.9
여자	13.4	65.6	19.7	1.3	2.9
| 지역 |				
도 시[동 부]	14.4	64.3	19.9	1.5	2.9
농어촌[읍면부]	15.9	63.1	18.8	2.2	2.9
| 연 령 |				
20대 이하	19.1	59.3	19.5	2.1	3.0
30대	16.4	64.3	18.0	1.3	3.0
40대	14.7	65.6	18.6	1.1	2.9
50대	12.8	63.8	21.6	1.8	2.9
60대 이상	12.3	66.0	20.1	1.5	2.9
| 학 력 |				
중졸 이하	11.5	69.1	18.3	1.0	2.9
고졸 이하	14.2	63.4	20.6	1.8	2.9
대졸 이하	15.8	62.9	19.8	1.5	2.9
대학원졸 이상	25.2	58.1	13.6	3.0	3.1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8.5	62.4	17.2	1.9	3.0
사무직	17.0	63.4	18.2	1.4	3.0
서비스/판매직	14.7	61.4	22.3	1.5	2.9
생산/기술직	13.6	63.4	20.9	2.1	2.9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7.0	67.4	14.5	1.1	3.0
단순노무직	9.2	65.0	23.8	2.0	2.8
기타	41.5	42.0	10.6	5.9	3.2
무직	13.3	66.1	19.1	1.4	2.9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4.7	62.6	20.7	2.1	2.9
탈물질주의	14.2	64.2	20.2	1.4	2.9
혼합형	14.7	65.0	19.0	1.3	2.9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6.2	61.5	20.7	1.5	2.9
개인 이익 중요	14.0	62.0	22.0	2.0	2.9
둘 다 중요	14.5	64.8	19.1	1.5	2.9

9-5) 인권의 존중 정도-신속·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7.4**	**57.0**	**32.2**	**3.5**	**2.7**
| 성 별 |				
남자	7.8	55.9	32.4	3.9	2.7
여자	6.9	58.0	32.0	3.1	2.7
| 지역 |				
도 시[동 부]	7.2	57.1	32.4	3.3	2.7
농어촌[읍면부]	7.9	56.4	31.3	4.4	2.7
| 연 령 |				
20대 이하	10.1	56.0	29.7	4.2	2.7
30대	6.7	55.1	34.3	3.9	2.6
40대	6.7	55.7	33.8	3.8	2.7
50대	6.4	55.9	34.6	3.1	2.7
60대 이상	7.1	60.3	29.7	2.9	2.7
| 학 력 |				
중졸 이하	6.8	62.4	27.5	3.3	2.7
고졸 이하	7.3	57.0	32.0	3.6	2.7
대졸 이하	7.4	55.3	34.0	3.3	2.7
대학원졸 이상	10.6	45.0	37.6	6.8	2.6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7.8	49.3	37.6	5.3	2.6
사무직	9.2	57.3	31.6	1.9	2.7
서비스/판매직	7.3	56.8	32.2	3.7	2.7
생산/기술직	6.9	55.9	33.0	4.2	2.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8.3	62.0	27.2	2.5	2.8
단순노무직	5.0	54.0	37.1	3.9	2.6
기타	25.1	42.7	32.2	0.0	2.9
무직	6.8	59.6	30.2	3.4	2.7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8.2	57.7	30.3	3.8	2.7
탈물질주의	5.5	53.9	37.0	3.6	2.6
혼합형	7.0	56.9	32.7	3.3	2.7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9.5	57.8	29.0	3.7	2.7
개인 이익 중요	7.6	56.6	31.6	4.2	2.7
둘 다 중요	7.0	56.9	32.8	3.4	2.7

9-6) 인권의 존중 정도-공공 행정·정책에 참여할 권리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8.0	59.3	29.1	3.6	2.7
| 성 별 |				
남자	8.3	58.4	29.3	3.9	2.7
여자	7.6	60.2	28.9	3.2	2.7
| 지역 |				
도 시[동 부]	7.8	59.5	29.2	3.5	2.7
농어촌[읍면부]	8.6	58.5	28.8	4.0	2.7
| 연 령 |				
20대 이하	9.4	60.6	25.9	4.2	2.8
30대	8.0	58.3	29.9	3.8	2.7
40대	8.0	58.5	30.6	3.0	2.7
50대	7.0	59.9	30.5	2.6	2.7
60대 이상	7.8	59.4	28.7	4.1	2.7
| 학 력 |				
중졸 이하	7.5	60.7	27.7	4.1	2.7
고졸 이하	7.8	59.2	29.2	3.7	2.7
대졸 이하	8.2	59.3	29.5	3.1	2.7
대학원졸 이상	10.3	52.5	31.2	5.9	2.7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8.0	54.7	32.7	4.6	2.7
사무직	10.2	61.7	25.8	2.4	2.8
서비스/판매직	8.2	58.3	29.8	3.7	2.7
생산/기술직	7.6	57.4	30.8	4.2	2.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9.0	60.0	26.7	4.4	2.7
단순노무직	5.0	57.1	34.3	3.5	2.6
기타	20.2	59.8	16.3	3.8	3.0
무직	7.3	61.0	28.1	3.5	2.7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8.3	59.2	27.6	4.9	2.7
탈물질주의	7.0	56.9	33.0	3.1	2.7
혼합형	7.9	59.7	29.5	2.8	2.7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9.7	62.0	26.0	2.3	2.8
개인 이익 중요	7.4	56.8	30.1	5.8	2.7
둘 다 중요	7.8	59.4	29.4	3.4	2.7

9-7) 인권의 존중 정도-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받을 권리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10.8	62.3	23.8	3.1	2.8
| 성 별 |					
남자	11.7	62.7	22.6	3.1	2.8
여자	10.0	61.8	25.1	3.1	2.8
| 지역 |					
도 시[동 부]	10.7	62.2	23.9	3.1	2.8
농어촌[읍면부]	11.3	62.6	23.4	2.7	2.8
| 연 령 |					
20대 이하	14.2	56.4	25.8	3.7	2.8
30대	10.1	59.7	25.7	4.4	2.8
40대	11.0	60.8	25.2	3.1	2.8
50대	9.6	64.3	23.6	2.5	2.8
60대 이상	9.9	66.8	20.9	2.3	2.8
| 학 력 |					
중졸 이하	9.7	68.1	20.1	2.1	2.9
고졸 이하	10.7	62.4	23.8	3.1	2.8
대졸 이하	11.1	60.1	25.5	3.3	2.8
대학원졸 이상	15.8	54.6	24.6	5.0	2.8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1.3	57.9	26.7	4.1	2.8
사무직	12.9	61.4	22.9	2.9	2.8
서비스/판매직	10.9	60.7	25.3	3.1	2.8
생산/기술직	10.0	62.3	24.0	3.7	2.8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1.2	69.1	18.4	1.3	2.9
단순노무직	9.6	62.1	24.6	3.7	2.8
기타	29.8	36.9	16.4	16.9	2.8
무직	10.1	64.3	22.9	2.7	2.8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0.9	63.3	21.4	4.4	2.8
탈물질주의	9.3	57.7	29.2	3.7	2.7
혼합형	11.0	62.2	24.6	2.1	2.8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2.3	64.0	21.8	2.0	2.9
개인 이익 중요	10.4	61.9	23.2	4.5	2.8
둘 다 중요	10.7	62.1	24.2	3.0	2.8

9-8) 인권의 존중 정도-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8.8	63.7	25.3	2.2	2.8
| 성 별 |				
남자	9.4	63.7	24.5	2.3	2.8
여자	8.1	63.7	26.1	2.0	2.8
| 지역 |				
도 시[동 부]	8.7	63.7	25.5	2.1	2.8
농어촌[읍면부]	9.1	63.8	24.5	2.5	2.8
| 연 령 |				
20대 이하	11.7	58.5	26.4	3.3	2.8
30대	8.2	60.6	27.6	3.6	2.7
40대	8.4	62.4	27.6	1.6	2.8
50대	7.6	64.7	25.7	2.0	2.8
60대 이상	8.3	68.8	21.7	1.1	2.8
| 학 력 |				
중졸 이하	7.9	70.5	20.2	1.5	2.8
고졸 이하	8.7	63.1	25.8	2.4	2.8
대졸 이하	9.1	61.8	27.1	2.0	2.8
대학원졸 이상	11.4	56.4	27.0	5.1	2.7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9.0	60.0	27.1	3.9	2.7
사무직	10.8	62.4	25.2	1.6	2.8
서비스/판매직	8.6	61.5	27.8	2.1	2.8
생산/기술직	7.5	61.8	28.1	2.5	2.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8.6	69.2	20.9	1.3	2.9
단순노무직	7.6	61.4	28.4	2.6	2.7
기타	29.8	47.5	16.4	6.3	3.0
무직	8.3	67.0	22.8	1.8	2.8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8.9	65.4	23.7	2.0	2.8
탈물질주의	6.7	59.8	30.2	3.3	2.7
혼합형	8.9	63.2	25.8	2.1	2.8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9.9	67.0	21.5	1.7	2.8
개인 이익 중요	8.6	62.8	25.8	2.8	2.8
둘 다 중요	8.6	63.4	25.9	2.1	2.8

9-9) 인권의 존중 정도-주거권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11.0	73.7	13.9	1.3	2.9
| 성 별 |				
남자	11.6	72.6	14.3	1.6	2.9
여자	10.5	74.9	13.6	1.0	2.9
| 지역 |				
도 시[동 부]	10.2	74.0	14.4	1.4	2.9
농어촌[읍면부]	14.9	72.5	11.9	0.8	3.0
| 연 령 |				
20대 이하	11.7	68.4	17.0	2.8	2.9
30대	9.5	69.9	18.1	2.5	2.9
40대	10.8	73.4	14.8	1.0	2.9
50대	10.3	76.8	12.3	0.6	3.0
60대 이상	12.1	77.1	10.4	0.4	3.0
| 학 력 |				
중졸 이하	12.1	77.6	9.8	0.5	3.0
고졸 이하	10.9	73.9	13.7	1.5	2.9
대졸 이하	10.7	72.6	15.5	1.2	2.9
대학원졸 이상	10.6	63.9	20.5	5.0	2.8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0.5	68.2	19.5	1.8	2.9
사무직	11.6	74.2	12.5	1.7	3.0
서비스/판매직	10.7	73.3	14.8	1.1	2.9
생산/기술직	11.1	75.0	12.8	1.1	3.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7.8	71.4	10.7	0.2	3.1
단순노무직	10.1	72.1	16.1	1.7	2.9
기타	29.2	53.9	10.6	6.3	3.1
무직	10.6	75.7	12.6	1.1	3.0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1.6	74.1	12.9	1.4	3.0
탈물질주의	8.6	72.2	16.9	2.3	2.9
혼합형	11.0	73.7	14.2	1.1	2.9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0.9	75.8	11.9	1.3	3.0
개인 이익 중요	10.3	74.5	13.8	1.4	2.9
둘 다 중요	11.2	73.3	14.3	1.3	2.9

9-10) 인권의 존중 정도-사회보장권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10.4	59.6	27.8	2.2	2.8
| 성 별 |				
남자	10.9	59.2	27.5	2.3	2.8
여자	10.0	60.0	28.0	2.0	2.8
| 지역 |				
도 시[동 부]	10.1	59.0	28.6	2.3	2.8
농어촌[읍면부]	12.1	62.4	24.0	1.5	2.9
| 연 령 |				
20대 이하	11.0	57.2	28.7	3.1	2.8
30대	9.6	55.2	31.8	3.4	2.7
40대	9.8	58.7	30.0	1.5	2.8
50대	10.2	61.1	27.3	1.3	2.8
60대 이상	11.2	63.0	23.9	1.9	2.8
| 학 력 |				
중졸 이하	11.3	65.1	21.8	1.8	2.9
고졸 이하	10.3	57.5	29.6	2.5	2.8
대졸 이하	10.2	59.3	28.5	2.0	2.8
대학원졸 이상	9.6	55.9	32.0	2.6	2.7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8.6	59.0	29.5	2.9	2.7
사무직	12.2	58.8	27.4	1.7	2.8
서비스/판매직	10.0	57.8	30.2	2.0	2.8
생산/기술직	9.5	60.0	28.1	2.4	2.8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5.0	65.3	19.2	0.5	2.9
단순노무직	7.1	56.9	32.6	3.4	2.7
기타	8.2	64.4	27.4	0.0	2.8
무직	10.8	60.9	26.1	2.2	2.8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1.1	59.9	26.5	2.5	2.8
탈물질주의	9.3	57.5	30.3	2.9	2.7
혼합형	10.2	59.7	28.3	1.9	2.8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2.8	61.8	23.6	1.8	2.9
개인 이익 중요	10.5	56.5	30.6	2.4	2.8
둘 다 중요	10.1	59.8	28.0	2.2	2.8

9-11) 인권의 존중 정도-복지서비스 받을 권리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15.3	66.7	17.0	1.0	3.0
| 성 별 |				
남자	15.4	66.5	17.2	1.0	3.0
여자	15.3	66.9	16.9	1.0	3.0
| 지역 |				
도 시[동 부]	14.5	66.8	17.7	1.1	2.9
농어촌[읍면부]	19.2	66.2	14.1	0.6	3.0
| 연 령 |				
20대 이하	14.2	65.7	18.7	1.4	2.9
30대	12.9	65.9	19.8	1.4	2.9
40대	13.7	67.0	18.2	1.1	2.9
50대	16.3	67.5	15.4	0.8	3.0
60대 이상	17.7	66.9	14.8	0.6	3.0
| 학 력 |				
중졸 이하	18.1	67.8	13.1	1.0	3.0
고졸 이하	14.6	66.3	18.1	1.1	2.9
대졸 이하	14.7	66.8	17.6	0.9	3.0
대학원졸 이상	16.7	63.1	19.4	0.8	3.0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4.1	67.3	16.9	1.7	2.9
사무직	15.7	66.7	16.8	0.8	3.0
서비스/판매직	14.8	65.4	19.1	0.7	2.9
생산/기술직	14.1	65.1	19.7	1.1	2.9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6.2	63.4	10.4	0.0	3.2
단순노무직	13.5	67.0	17.5	2.1	2.9
기타	23.1	65.6	11.3	0.0	3.1
무직	15.3	67.9	15.9	0.9	3.0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5.6	66.9	16.6	1.0	3.0
탈물질주의	12.0	67.1	19.8	1.0	2.9
혼합형	15.5	66.5	16.9	1.0	3.0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7.9	67.0	14.4	0.7	3.0
개인 이익 중요	14.2	64.5	19.8	1.5	2.9
둘 다 중요	15.1	67.0	17.0	1.0	3.0

9-12) 인권의 존중 정도-노동권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9.4	59.2	29.1	2.3	2.8
| 성 별 |				
남자	9.7	58.6	29.1	2.6	2.8
여자	9.1	59.8	29.1	2.0	2.8
| 지역 |				
도 시[동 부]	9.2	58.5	29.9	2.4	2.7
농어촌[읍면부]	10.5	62.4	25.1	2.0	2.8
| 연 령 |				
20대 이하	10.9	55.9	30.5	2.7	2.8
30대	8.2	57.2	31.2	3.4	2.7
40대	9.0	58.1	30.7	2.3	2.7
50대	9.0	59.2	29.7	2.0	2.8
60대 이상	9.8	63.0	25.5	1.7	2.8
| 학 력 |				
중졸 이하	9.5	65.2	23.7	1.6	2.8
고졸 이하	9.3	58.1	30.0	2.6	2.7
대졸 이하	9.3	57.8	30.5	2.3	2.7
대학원졸 이상	12.9	55.0	29.7	2.4	2.8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8.5	58.1	30.7	2.6	2.7
사무직	10.1	60.6	27.4	1.9	2.8
서비스/판매직	9.7	55.8	31.9	2.6	2.7
생산/기술직	9.3	57.7	29.6	3.3	2.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4.6	65.2	19.7	0.5	2.9
단순노무직	7.2	58.7	30.9	3.2	2.7
기타	13.8	68.6	11.3	6.3	2.9
무직	9.1	60.7	28.2	2.0	2.8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0.0	59.8	27.4	2.8	2.8
탈물질주의	8.1	57.7	31.9	2.3	2.7
혼합형	9.2	59.0	29.7	2.0	2.8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0.5	60.9	26.9	1.7	2.8
개인 이익 중요	9.5	56.3	30.6	3.6	2.7
둘 다 중요	9.3	59.4	29.2	2.2	2.8

9-13) 인권의 존중 정도-건강권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16.9	72.7	9.8	0.5	3.1
| 성 별 |				
남자	17.0	71.9	10.5	0.6	3.1
여자	16.8	73.6	9.2	0.4	3.1
| 지역 |				
도 시[동 부]	16.6	72.9	9.9	0.5	3.1
농어촌[읍면부]	17.9	71.9	9.6	0.6	3.1
| 연 령 |				
20대 이하	19.9	70.5	9.1	0.5	3.1
30대	16.1	70.7	12.0	1.1	3.0
40대	15.1	73.9	10.5	0.5	3.0
50대	15.0	74.4	10.2	0.4	3.0
60대 이상	18.0	73.3	8.3	0.4	3.1
| 학 력 |				
중졸 이하	17.6	74.0	8.0	0.4	3.1
고졸 이하	16.3	73.4	9.7	0.5	3.1
대졸 이하	16.8	72.0	10.6	0.6	3.1
대학원졸 이상	20.6	66.4	11.7	1.2	3.1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8.7	68.1	12.7	0.5	3.0
사무직	18.6	72.0	9.0	0.5	3.1
서비스/판매직	16.0	72.1	11.2	0.7	3.0
생산/기술직	14.9	74.7	9.8	0.6	3.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7.1	65.8	7.0	0.2	3.2
단순노무직	14.2	73.5	11.4	0.9	3.0
기타	23.6	64.5	6.3	5.6	3.1
무직	16.0	74.9	8.6	0.4	3.1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6.3	73.7	9.5	0.5	3.1
탈물질주의	14.4	73.0	11.5	1.1	3.0
혼합형	17.5	72.2	9.8	0.5	3.1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6.4	73.8	9.2	0.6	3.1
개인 이익 중요	14.2	74.3	10.6	0.9	3.0
둘 다 중요	17.4	72.3	9.8	0.5	3.1

9-14) 인권의 존중 정도-교육권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21.1	69.0	9.2	0.7	3.1
| 성 별 |				
남자	21.2	68.6	9.3	0.8	3.1
여자	20.9	69.3	9.1	0.6	3.1
| 지역 |				
도 시[동 부]	20.9	69.0	9.4	0.7	3.1
농어촌[읍면부]	21.9	68.8	8.6	0.7	3.1
| 연 령 |				
20대 이하	25.8	65.0	8.5	0.7	3.2
30대	20.3	68.1	10.1	1.4	3.1
40대	20.5	68.7	10.1	0.8	3.1
50대	19.1	70.6	9.7	0.6	3.1
60대 이상	20.5	70.9	8.3	0.3	3.1
| 학 력 |				
중졸 이하	20.6	70.8	8.3	0.4	3.1
고졸 이하	19.7	70.6	8.9	0.8	3.1
대졸 이하	22.1	67.4	9.9	0.7	3.1
대학원졸 이상	30.0	58.8	10.0	1.3	3.2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3.5	66.0	9.5	1.0	3.1
사무직	22.6	67.3	9.4	0.6	3.1
서비스/판매직	20.8	68.3	10.2	0.7	3.1
생산/기술직	17.9	68.8	11.9	1.4	3.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8.9	64.9	6.1	0.1	3.2
단순노무직	16.2	72.7	10.4	0.7	3.0
기타	39.6	49.1	11.3	0.0	3.3
무직	20.7	70.8	8.0	0.5	3.1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21.4	69.3	8.6	0.7	3.1
탈물질주의	17.0	72.9	9.0	1.1	3.1
혼합형	21.4	68.3	9.6	0.7	3.1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8.9	71.2	8.9	1.0	3.1
개인 이익 중요	18.8	68.4	11.5	1.3	3.0
둘 다 중요	21.8	68.7	8.9	0.6	3.1

9-15) 인권의 존중 정도-안전권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11.8**	**64.0**	**21.9**	**2.4**	**2.9**
| 성 별 |				
남자	12.6	64.3	21.1	2.0	2.9
여자	11.0	63.6	22.6	2.7	2.8
| 지역 |				
도 시[동 부]	11.7	63.5	22.3	2.4	2.8
농어촌[읍면부]	12.0	66.1	19.9	2.0	2.9
| 연 령 |				
20대 이하	15.9	59.9	20.5	3.7	2.9
30대	11.3	61.3	24.6	2.9	2.8
40대	11.0	64.1	23.1	1.9	2.8
50대	10.3	66.0	21.8	2.0	2.8
60대 이상	11.2	66.5	20.5	1.9	2.9
| 학 력 |				
중졸 이하	10.3	69.0	18.7	2.1	2.9
고졸 이하	11.7	63.2	22.4	2.6	2.8
대졸 이하	12.3	63.0	22.5	2.2	2.9
대학원졸 이상	16.7	55.6	24.7	3.0	2.9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3.7	61.1	22.4	2.7	2.9
사무직	13.7	61.9	22.5	1.9	2.9
서비스/판매직	10.9	63.7	22.9	2.5	2.8
생산/기술직	11.0	65.3	21.1	2.6	2.8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4.3	69.7	15.0	1.0	3.0
단순노무직	7.7	64.7	24.8	2.8	2.8
기타	25.2	63.5	11.3	0.0	3.1
무직	11.5	64.9	21.2	2.4	2.9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1.9	65.1	20.0	3.1	2.9
탈물질주의	11.1	62.7	23.8	2.4	2.8
혼합형	11.8	63.5	22.8	1.9	2.9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3.7	64.0	20.7	1.6	2.9
개인 이익 중요	10.9	63.1	22.2	3.8	2.8
둘 다 중요	11.7	64.1	22.0	2.2	2.9

9-16) 인권의 존중 정도-환경권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11.2**	**67.7**	**19.5**	**1.5**	**2.9**
| 성 별 |				
남자	11.1	67.3	19.8	1.7	2.9
여자	11.3	68.1	19.2	1.3	2.9
| 지역 |				
도 시[동 부]	11.1	67.3	20.1	1.5	2.9
농어촌[읍면부]	11.9	69.6	17.0	1.5	2.9
| 연 령 |				
20대 이하	13.8	65.1	19.4	1.7	2.9
30대	9.9	66.9	20.9	2.3	2.8
40대	10.2	66.9	21.3	1.6	2.9
50대	10.7	68.5	19.3	1.5	2.9
60대 이상	11.4	69.8	17.8	1.0	2.9
| 학 력 |				
중졸 이하	11.2	72.5	15.4	1.0	2.9
고졸 이하	10.7	66.6	21.1	1.6	2.9
대졸 이하	11.8	67.1	19.5	1.7	2.9
대학원졸 이상	9.8	61.7	25.7	2.8	2.8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9.7	64.6	23.6	2.1	2.8
사무직	13.4	66.7	18.1	1.7	2.9
서비스/판매직	11.4	66.0	21.3	1.3	2.9
생산/기술직	10.0	68.4	19.9	1.7	2.9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5.5	69.9	13.8	0.8	3.0
단순노무직	8.0	69.7	19.9	2.4	2.8
기타	28.3	49.1	22.5	0.0	3.1
무직	11.0	69.4	18.3	1.3	2.9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1.9	67.5	18.5	2.0	2.9
탈물질주의	8.2	67.0	22.9	2.0	2.8
혼합형	11.1	67.9	19.7	1.2	2.9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2.4	70.4	16.3	0.9	2.9
개인 이익 중요	9.0	66.6	22.7	1.7	2.8
둘 다 중요	11.4	67.5	19.5	1.6	2.9

9-17) 인권의 존중 정도-문화권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14.1	69.9	15.2	0.8	3.0
| 성 별 |				
남자	14.5	69.8	14.8	0.9	3.0
여자	13.7	70.0	15.6	0.7	3.0
| 지역 |				
도 시[동 부]	14.6	70.4	14.3	0.7	3.0
농어촌[읍면부]	11.8	67.6	19.4	1.1	2.9
| 연 령 |				
20대 이하	19.8	66.0	13.5	0.7	3.0
30대	14.0	68.3	16.5	1.2	2.9
40대	14.6	69.3	15.5	0.6	3.0
50대	11.6	71.9	15.7	0.9	2.9
60대 이상	12.3	72.1	15.0	0.7	3.0
| 학 력 |				
중졸 이하	10.9	72.3	15.8	1.0	2.9
고졸 이하	13.9	70.3	15.0	0.8	3.0
대졸 이하	15.7	68.7	15.0	0.7	3.0
대학원졸 이상	14.5	66.2	17.8	1.5	2.9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5.4	68.1	15.3	1.2	3.0
사무직	17.1	68.8	13.6	0.6	3.0
서비스/판매직	14.1	68.5	16.5	0.8	3.0
생산/기술직	12.4	68.4	18.1	1.1	2.9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1.9	71.6	15.5	1.0	2.9
단순노무직	11.7	69.2	17.6	1.4	2.9
기타	28.7	61.9	9.4	0.0	3.2
무직	13.4	72.0	14.0	0.6	3.0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4.6	70.2	14.2	0.9	3.0
탈물질주의	12.5	69.9	16.0	1.6	2.9
혼합형	14.0	69.7	15.7	0.6	3.0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4.7	71.6	13.3	0.4	3.0
개인 이익 중요	13.2	69.0	16.4	1.3	2.9
둘 다 중요	14.2	69.8	15.3	0.8	3.0

10-a.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사람(1순위)

(단위: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이주민	학력/학벌	전과자	성소수자	경제적 빈곤	병력	비정규직	기타
전 체	6.1	5.3	8.7	18.4	4.8	11.2	7.9	7.7	6.5	16.3	2.0	4.6	0.5
| 성 별 |													
남자	3.9	5.2	8.7	17.8	4.4	11.7	8.9	8.1	6.4	17.2	2.0	5.0	0.9
여자	8.3	5.4	8.6	19.0	5.2	10.8	6.9	7.4	6.7	15.3	2.1	4.2	0.2
| 지역 |													
도 시[동 부]	6.3	5.3	8.7	18.7	4.9	11.0	7.5	7.5	6.7	16.2	2.0	4.6	0.5
농어촌[읍면부]	5.3	4.9	8.4	16.7	4.3	12.1	9.5	8.8	6.0	16.3	2.3	4.7	0.6
| 연 령 |													
20대 이하	7.9	5.6	6.4	19.3	4.6	10.3	7.4	6.9	6.9	16.4	2.3	4.7	1.4
30대	7.3	7.2	6.8	19.9	4.9	11.2	7.5	5.3	7.8	15.5	1.4	4.3	1.0
40대	5.9	6.5	5.7	18.8	4.3	12.4	7.5	7.7	8.8	14.9	1.9	5.3	0.2
50대	6.7	4.5	7.8	17.2	6.3	12.6	8.8	8.0	6.7	14.0	1.7	5.5	0.3
60대 이상	4.0	3.7	13.7	17.5	4.1	10.1	8.0	9.4	4.1	19.0	2.6	3.5	0.2
| 학 력 |													
중졸 이하	3.7	2.9	13.5	19.0	3.8	9.8	7.8	10.2	3.1	19.7	2.9	3.4	0.2
고졸 이하	6.6	5.0	8.3	17.4	4.8	11.4	8.7	7.7	6.1	16.3	1.7	5.5	0.6
대졸 이하	6.8	6.6	7.1	19.2	5.2	11.7	7.3	6.8	7.9	14.5	2.0	4.3	0.6
대학원졸 이상	5.0	3.9	5.2	15.6	4.4	11.1	6.3	6.6	15.3	19.9	1.4	3.9	1.4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5.6	5.1	6.1	18.2	3.8	13.7	7.9	6.5	11.3	15.6	1.1	4.2	1.0
사무직	6.0	8.2	7.2	19.6	5.5	11.3	7.0	7.2	7.6	13.6	2.1	4.4	0.4
서비스/판매직	7.7	5.6	8.0	17.8	5.0	11.5	8.7	7.3	6.2	14.4	2.6	4.6	0.6
생산/기술직	4.3	4.7	9.4	17.1	5.7	12.0	8.3	7.1	5.7	16.9	1.6	6.9	0.3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8	3.9	8.9	16.7	4.5	13.6	9.0	10.8	5.5	17.1	2.9	3.4	0.0
단순노무직	5.2	4.8	10.1	17.7	3.4	11.8	9.0	8.8	6.3	14.1	1.4	6.5	0.9
기타	14.5	3.0	0.0	44.4	8.7	0.0	5.6	0.0	4.9	12.8	0.0	5.9	0.0
무직	6.1	4.3	10.0	18.7	4.7	9.9	7.4	8.3	5.2	18.8	2.1	4.0	0.5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5.5	5.0	9.7	18.0	4.0	11.0	7.9	9.3	6.1	16.5	2.3	4.2	0.6
탈물질주의	6.9	6.1	7.3	19.1	6.7	9.9	6.3	3.3	9.6	17.4	1.8	5.5	0.2
혼합형	6.3	5.4	8.2	18.5	5.0	11.5	8.1	7.3	6.5	16.0	1.9	4.7	0.6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6.3	6.8	11.7	16.4	6.5	10.2	7.1	8.5	5.7	13.9	1.7	4.6	0.7
개인 이익 중요	6.7	5.9	8.9	17.1	5.0	11.6	7.3	7.0	6.4	16.5	2.2	4.2	1.0
둘 다 중요	6.0	4.9	8.1	18.9	4.5	11.3	8.1	7.7	6.7	16.6	2.1	4.6	0.5

10-b.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사람(1순위+2순위)

(단위: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이주민	학력/학벌	전과자	성소수자	경제적 빈곤	병력	비정규직	기타
전 체	8.3	9.1	14.9	32.9	9.8	22.3	16.7	15.2	14.7	35.6	6.4	11.6	0.8
| 성 별 |												
남자	5.3	8.6	14.6	32.0	9.2	22.8	18.2	15.7	14.4	37.2	6.5	12.6	1.3
여자	11.3	9.6	15.1	33.8	10.4	21.9	15.3	14.7	15.0	34.1	6.4	10.6	0.3
| 지역 |												
도 시[동 부]	8.5	9.2	14.9	33.5	10.1	22.1	16.1	14.8	15.1	35.4	6.2	11.7	0.8
농어촌[읍면부]	7.4	8.7	14.6	29.9	8.7	23.5	19.5	16.7	13.0	36.8	7.6	11.2	0.8
| 연 령 |												
20대 이하	10.9	9.9	11.6	33.8	9.7	20.1	17.5	12.7	17.6	33.5	6.3	12.3	2.0
30대	9.9	12.3	11.2	34.8	11.0	24.5	14.5	11.0	15.6	33.5	5.7	12.7	1.5
40대	8.2	10.9	10.9	32.7	9.3	24.3	16.5	14.5	17.3	35.5	6.0	12.3	0.4
50대	8.7	7.8	14.0	31.3	11.0	23.9	17.6	16.7	15.3	32.7	5.5	13.6	0.3
60대 이상	5.7	6.5	22.0	32.5	8.7	20.1	17.1	18.3	10.4	40.2	7.9	8.6	0.3
| 학 력 |												
중졸 이하	4.9	5.3	21.9	32.9	8.1	19.8	16.7	19.4	9.4	42.3	9.3	7.5	0.2
고졸 이하	9.2	8.9	15.1	32.1	9.7	20.9	17.7	15.3	14.2	35.2	5.9	13.7	0.8
대졸 이하	9.1	10.9	11.9	33.7	10.8	24.2	16.1	13.5	17.1	33.1	5.7	11.3	1.0
대학원졸 이상	6.2	8.9	10.1	31.4	7.6	30.1	13.3	11.5	22.4	35.6	6.2	13.9	1.5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8.0	9.5	10.5	32.3	7.0	27.0	16.2	12.9	21.6	34.2	5.7	12.1	1.4
사무직	8.4	12.0	12.2	33.5	11.3	24.1	16.3	13.6	16.6	32.4	5.8	11.1	0.8
서비스/판매직	10.0	9.6	13.9	32.2	11.2	22.2	17.4	14.7	14.4	33.5	6.3	12.0	0.8
생산/기술직	5.4	7.7	15.2	32.3	11.2	23.4	17.3	14.6	13.4	35.5	5.6	16.9	0.5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5.0	6.2	15.3	29.6	8.7	25.0	18.3	21.3	12.8	36.8	10.2	8.1	0.0
단순노무직	7.6	7.7	19.6	33.0	7.5	19.6	16.4	17.1	12.7	36.9	6.4	13.1	0.9
기타	21.0	7.6	5.5	65.0	17.6	10.8	16.9	4.9	4.9	39.7	0.0	5.9	0.0
무직	8.5	8.3	17.0	33.5	9.4	20.2	16.5	16.1	12.9	38.3	6.9	10.2	0.7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7.6	8.6	16.1	33.3	8.3	22.0	17.5	17.3	14.1	35.3	7.0	10.6	0.9
탈물질주의	9.9	9.7	13.0	32.7	12.7	21.3	17.2	9.9	18.2	36.4	5.0	12.1	0.2
혼합형	8.6	9.3	14.3	32.6	10.4	22.6	16.2	14.5	14.7	35.7	6.3	12.1	0.8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8.8	10.2	17.9	32.1	13.2	21.8	17.6	17.3	13.3	30.3	5.6	9.9	0.8
개인 이익 중요	8.8	10.2	15.5	30.6	11.0	21.9	16.4	14.2	15.6	34.3	6.2	11.9	1.4
둘 다 중요	8.2	8.7	14.3	33.4	9.1	22.5	16.7	15.0	14.8	36.7	6.6	11.8	0.7

11-a. 인권침해·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1순위)

(단위: %)

	민원 처리	검·경 조사·수사	병원 치료 입원	재판	대중 교통 이용	재화·용역 이용	가정	유치원 어린이집	군대	보호 시설	교도소	직장	학교	기타
전 체	9.8	23.2	6.5	6.6	3.5	4.0	1.8	2.3	9.2	14.4	4.6	12.6	1.2	0.3
| 성 별 |														
남자	10.1	23.8	6.3	6.5	3.4	3.6	1.7	1.9	11.8	12.9	4.5	11.9	1.1	0.4
여자	9.4	22.7	6.7	6.8	3.5	4.3	2.0	2.6	6.7	15.9	4.7	13.2	1.3	0.3
| 지역 |														
도 시[동 부]	9.5	23.4	6.2	6.9	3.5	4.1	1.7	2.4	9.4	14.1	4.6	12.7	1.2	0.4
농어촌[읍면부]	10.9	22.4	7.9	5.4	3.2	3.2	2.4	1.8	8.3	16.1	4.8	12.1	1.2	0.3
| 연 령 |														
20대 이하	7.7	16.6	5.4	6.8	4.7	5.3	1.4	1.7	15.0	10.8	4.5	17.1	2.6	0.3
30대	9.3	22.4	6.1	6.1	3.6	4.3	1.4	2.4	11.2	13.0	3.6	15.3	1.2	0.3
40대	10.1	26.7	4.8	6.6	3.7	3.0	1.6	2.3	8.4	13.2	4.4	13.7	1.2	0.3
50대	10.3	25.3	6.8	7.0	2.7	3.4	2.1	2.5	7.1	14.4	4.6	12.4	1.0	0.3
60대 이상	10.7	23.8	8.2	6.5	3.0	4.0	2.3	2.3	6.7	18.3	5.5	7.7	0.6	0.5
| 학 력 |														
중졸 이하	10.9	21.5	8.7	5.5	2.7	4.1	2.4	2.1	5.8	20.7	5.9	8.5	0.6	0.5
고졸 이하	10.6	22.1	6.3	6.9	2.9	3.8	1.7	2.4	10.0	13.4	4.6	13.8	1.4	0.2
대졸 이하	8.7	24.3	5.9	6.6	4.5	4.1	1.8	2.2	9.9	13.0	4.1	13.3	1.4	0.3
대학원졸 이상	6.7	33.1	4.2	10.1	1.2	3.3	1.2	1.9	10.8	9.7	4.5	11.4	0.8	1.1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9.2	28.5	3.8	7.9	3.2	3.0	1.4	1.3	10.8	11.0	4.4	13.3	1.8	0.3
사무직	8.7	23.5	6.5	6.1	4.9	4.7	1.7	2.3	9.5	12.0	4.4	14.1	1.2	0.5
서비스/판매직	9.6	22.2	6.4	6.1	3.4	4.0	2.3	2.7	8.4	14.0	4.7	14.9	1.0	0.2
생산/기술직	11.2	24.8	5.3	5.6	3.7	3.9	0.9	3.0	9.4	13.9	3.2	13.5	1.1	0.6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9.3	24.3	8.2	3.8	2.1	2.9	2.6	1.9	6.8	20.2	7.8	8.9	1.3	0.0
단순노무직	11.5	22.2	6.4	5.3	3.6	3.5	1.6	2.3	9.7	15.4	4.6	12.3	1.3	0.4
기타	7.9	25.8	0.0	5.6	0.0	11.0	9.3	0.0	0.0	9.5	0.0	21.0	9.9	0.0
무직	9.9	21.7	7.5	7.5	3.0	4.1	1.9	2.1	9.2	16.2	4.8	10.5	1.2	0.3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0.2	24.2	6.1	6.5	2.6	3.5	2.3	2.1	9.8	14.1	4.9	12.3	1.1	0.4
탈물질주의	6.4	24.6	6.1	6.9	4.5	5.5	1.4	2.3	10.5	15.4	3.2	12.0	0.9	0.1
혼합형	9.9	22.4	6.8	6.7	3.8	4.1	1.6	2.3	8.7	14.5	4.6	12.8	1.3	0.3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1.7	28.6	7.0	8.6	3.6	3.9	1.3	2.2	8.3	9.8	4.8	9.0	0.7	0.5
개인 이익 중요	9.8	21.9	7.0	5.9	3.3	4.6	2.2	3.6	10.1	13.4	4.2	12.8	0.8	0.2
둘 다 중요	9.5	22.6	6.3	6.4	3.4	3.9	1.9	2.0	9.2	15.3	4.7	13.1	1.4	0.3

11-b. 인권침해·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1순위+2순위)

(단위: %)

	민원 처리	검·경 조사·수사	병원 치료 입원	재판	대중 교통 이용	재화·용역 이용	가정	유치원 어린이집	군대	보호 시설	교도소	직장	학교	기타
전 체	15.8	36.7	12.3	14.6	6.0	9.2	4.0	5.5	19.6	31.1	12.2	25.6	4.0	0.5
| 성 별 |														
남자	16.3	37.9	12.2	14.3	5.8	8.3	3.7	4.6	24.1	28.4	12.3	24.7	3.6	0.5
여자	15.4	35.6	12.4	14.8	6.2	10.1	4.3	6.3	15.2	33.7	12.2	26.5	4.3	0.5
| 지역 |														
도 시[동 부]	15.5	36.8	11.8	15.0	6.1	9.5	3.7	5.8	20.0	30.6	11.6	26.2	3.9	0.5
농어촌[읍면부]	17.5	36.3	14.7	12.4	5.7	8.0	5.5	4.1	17.9	33.1	14.9	22.6	4.2	0.3
| 연 령 |														
20대 이하	12.3	28.9	9.9	12.6	7.8	12.0	3.2	4.6	28.7	24.1	10.2	34.1	8.0	0.3
30대	16.5	36.3	11.4	14.4	6.6	8.9	3.4	5.8	21.7	26.1	8.5	32.5	4.5	0.3
40대	17.4	40.3	10.2	16.2	5.6	8.0	3.9	5.2	19.9	29.5	11.5	26.1	3.4	0.4
50대	16.6	39.2	12.7	15.4	4.5	8.8	4.4	6.4	16.2	31.8	12.9	24.2	3.2	0.5
60대 이상	16.0	37.6	15.4	14.1	5.9	8.8	4.6	5.4	15.1	38.6	15.5	17.3	2.1	0.6
| 학 력 |														
중졸 이하	16.3	36.0	16.4	12.1	6.0	9.6	4.5	4.8	14.6	40.1	16.2	17.2	1.9	0.6
고졸 이하	16.6	35.5	11.8	14.5	5.2	9.1	3.9	6.3	19.9	30.0	12.0	27.7	4.6	0.4
대졸 이하	15.1	37.5	11.3	15.2	6.9	9.3	4.0	5.1	21.4	28.5	10.8	27.3	4.3	0.4
대학원졸 이상	11.8	48.7	8.2	22.2	3.9	7.1	2.8	3.8	21.5	26.1	10.8	25.9	4.0	1.1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5.2	43.4	9.1	19.5	5.1	7.7	2.7	3.2	23.7	24.8	10.3	26.5	4.7	0.4
사무직	15.8	36.3	11.6	13.7	8.0	10.9	4.4	5.7	20.6	26.6	11.0	28.7	3.9	0.5
서비스/판매직	15.7	34.5	11.7	14.3	5.7	9.4	4.9	7.0	17.6	30.2	12.0	29.2	4.4	0.3
생산/기술직	17.3	39.5	12.9	12.3	6.5	9.0	2.9	6.0	20.2	31.2	9.5	26.7	2.7	0.6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5.9	37.2	14.7	11.2	4.5	7.2	5.7	3.7	18.5	37.1	20.3	17.0	2.7	0.2
단순노무직	17.3	36.8	11.0	13.4	6.0	8.6	3.6	5.6	16.5	33.8	11.8	28.5	3.1	0.4
기타	15.9	47.4	0.0	10.5	0.0	11.0	9.3	4.9	22.0	33.1	4.9	27.8	13.2	0.0
무직	15.5	35.5	13.9	14.7	5.7	9.2	3.9	5.2	19.5	34.3	13.5	22.1	4.1	0.6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6.6	37.4	12.8	14.8	5.0	7.9	4.5	5.3	20.6	31.7	13.3	23.9	3.7	0.5
탈물질주의	11.7	40.0	9.9	14.1	6.8	10.0	3.3	5.5	21.5	32.3	9.5	28.0	4.5	0.1
혼합형	15.9	36.0	12.3	14.5	6.5	10.0	3.8	5.6	18.8	30.5	11.9	26.3	4.1	0.5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8.9	42.1	13.8	18.3	6.1	10.3	3.0	4.6	18.2	25.4	13.7	19.3	3.1	0.6
개인 이익 중요	15.7	33.3	14.1	12.3	5.4	10.2	4.8	8.0	19.5	31.4	11.5	26.4	4.0	0.2
둘 다 중요	15.4	36.5	11.8	14.4	6.1	8.9	4.0	5.2	19.8	31.9	12.1	26.4	4.1	0.5

12. 우리나라의 인권침해 정도에 대한 평가

(단위: %, 점)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평균 (4점)
전 체	1.7	40.1	55.9	2.3	2.6
| 성 별 |				
남자	1.8	39.9	55.9	2.5	2.6
여자	1.7	40.2	55.9	2.1	2.6
| 지역 |				
도 시[동 부]	1.8	40.5	55.3	2.4	2.6
농어촌[읍면부]	1.4	38.1	58.4	2.1	2.6
| 연 령 |				
20대 이하	2.4	39.9	56.1	1.7	2.6
30대	1.6	40.7	55.1	2.6	2.6
40대	2.1	39.3	56.3	2.2	2.6
50대	1.8	43.2	52.7	2.3	2.6
60대 이상	1.1	38.2	58.1	2.6	2.6
| 학 력 |				
중졸 이하	1.0	35.2	60.9	2.9	2.7
고졸 이하	2.3	42.9	53.0	1.8	2.5
대졸 이하	1.5	39.4	56.7	2.4	2.6
대학원졸 이상	2.0	43.1	50.8	4.1	2.6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9	41.5	53.6	3.0	2.6
사무직	1.2	38.3	58.2	2.2	2.6
서비스/판매직	1.6	43.9	52.6	1.9	2.5
생산/기술직	2.6	40.6	54.7	2.1	2.6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8	32.0	65.4	1.8	2.7
단순노무직	2.7	42.9	53.1	1.3	2.5
기타	0.0	36.8	63.2	0.0	2.6
무직	1.7	38.4	57.2	2.7	2.6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9	40.0	55.3	2.7	2.6
탈물질주의	2.9	41.6	53.8	1.7	2.5
혼합형	1.5	39.9	56.5	2.1	2.6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8	42.1	53.7	2.4	2.6
개인 이익 중요	2.4	42.6	52.2	2.7	2.6
둘 다 중요	1.6	39.3	56.8	2.2	2.6

13.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권침해 경험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폭행이나 모욕적 언행	정치적 의사표현 제지	종교 선택, 활동 제한	단체 결성 및 가입 제한	집회나 시위 제한	신념,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 강요	경험 없음
전 체	3.3	3.8	2.3	2.1	1.5	1.6	90.2
| 성 별 |						
남자	3.3	4.3	2.3	2.1	1.8	1.7	89.6
여자	3.2	3.3	2.3	2.1	1.2	1.6	90.9
| 지역 |						
도 시[동 부]	3.4	3.9	2.5	2.2	1.6	1.6	89.9
농어촌[읍면부]	2.4	3.3	1.4	1.6	1.0	1.8	92.1
| 연 령 |						
20대 이하	2.9	3.4	2.0	2.1	1.1	2.3	90.4
30대	3.9	4.5	3.0	2.4	1.7	2.1	88.3
40대	3.1	4.0	2.6	2.2	1.5	1.8	89.8
50대	3.8	4.2	2.6	2.5	1.8	1.3	88.8
60대 이상	2.8	3.3	1.7	1.6	1.3	1.1	92.5
| 학 력 |						
중졸 이하	2.7	2.3	1.2	1.1	0.7	1.0	94.0
고졸 이하	3.4	3.4	2.1	1.7	1.5	1.5	90.6
대졸 이하	3.3	4.9	2.9	3.1	1.7	2.0	88.4
대학원졸 이상	3.7	2.7	3.7	0.3	2.1	2.6	88.2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4	3.3	3.0	1.8	2.3	2.4	88.2
사무직	2.7	5.2	3.7	3.0	1.6	1.5	88.9
서비스/판매직	4.3	4.7	3.1	3.1	1.8	1.8	87.6
생산/기술직	2.9	3.7	1.0	2.1	1.5	1.6	91.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0	1.6	0.4	0.4	0.8	0.8	96.2
단순노무직	3.3	2.7	2.3	1.4	1.6	2.1	89.2
기타	0.0	0.0	0.0	0.0	0.0	4.6	95.4
무직	3.1	3.3	1.5	1.6	1.1	1.4	92.4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4.2	5.2	2.2	2.4	2.2	2.1	88.4
탈물질주의	2.2	3.1	2.4	2.3	1.3	1.6	90.5
혼합형	2.8	3.1	2.3	1.9	1.0	1.4	91.3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5.2	5.8	3.6	3.1	1.6	1.7	86.6
개인 이익 중요	5.6	7.0	3.6	2.8	2.3	2.0	86.0
둘 다 중요	2.6	3.0	1.9	1.9	1.3	1.6	91.5

14. 인권침해 경험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안전 위협 (질병, 자연재해 제외)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함	주변 환경 때문에 일상생활 어려움	편의 시설 부족, 거리가 멀어 문화예술시설 이용 못함	신문, 방송, 인터넷에 사생활 공개	경험 없음
전 체	2.5	3.1	8.7	4.4	1.0	85.4
| 성 별 |					
남자	2.4	3.0	8.2	4.0	1.3	86.2
여자	2.7	3.2	9.3	4.7	0.8	84.7
| 지역 |					
도 시[동 부]	2.5	3.1	9.3	4.0	1.1	85.1
농어촌[읍면부]	2.4	2.9	6.2	5.9	0.8	87.0
| 연 령 |					
20대 이하	3.1	2.3	9.9	5.5	1.1	83.4
30대	3.3	3.4	11.7	6.2	1.5	80.7
40대	2.8	3.1	10.2	4.8	0.9	83.6
50대	2.3	3.2	9.1	4.5	1.3	85.0
60대 이상	1.7	3.3	5.2	2.3	0.6	90.9
| 학 력 |					
중졸 이하	1.3	3.2	4.5	2.1	0.3	91.9
고졸 이하	2.2	2.7	9.1	3.8	0.9	86.0
대졸 이하	3.3	3.5	9.9	5.4	1.5	82.6
대학원졸 이상	3.1	1.2	14.9	11.1	1.2	77.7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6	1.9	13.1	6.8	1.9	77.8
사무직	2.9	3.1	9.6	4.9	1.3	84.7
서비스/판매직	3.3	3.5	9.8	5.2	1.0	83.6
생산/기술직	1.8	3.1	7.7	3.4	0.5	87.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2	0.6	2.7	2.2	0.2	94.9
단순노무직	3.0	4.4	9.3	4.1	1.2	84.1
기타	5.6	0.0	27.5	3.3	0.0	63.6
무직	2.1	3.3	7.2	3.5	0.8	87.9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2.9	4.8	8.3	4.7	1.3	84.6
탈물질주의	3.1	2.4	10.1	5.8	0.8	82.9
혼합형	2.2	2.2	8.8	4.0	0.9	86.3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3.9	6.3	10.8	3.7	1.1	82.4
개인 이익 중요	3.7	5.5	9.1	5.7	1.5	83.3
둘 다 중요	2.1	2.2	8.4	4.3	0.9	86.3

15.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불이익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피해·불이익 없었다	신체적 상해	재산/금전상 손해	사회적 명예 실추	정신적/감정적 피해	기타
전 체	30.2	5.6	13.1	9.3	56.2	1.3
| 성 별 |						
남자	29.8	5.3	13.7	10.9	56.4	0.9
여자	30.6	5.9	12.6	7.8	56.0	1.7
| 지역 |						
도 시[동 부]	29.9	5.1	12.9	8.9	56.5	1.3
농어촌[읍면부]	31.9	8.1	14.1	11.6	54.7	1.6
| 연 령 |						
20대 이하	28.5	5.9	15.3	8.7	58.0	1.1
30대	26.4	7.1	13.2	7.5	57.0	2.1
40대	28.1	4.0	12.6	7.9	60.2	1.3
50대	32.4	5.5	10.9	9.8	56.6	1.6
60대 이상	35.9	5.7	14.0	12.7	48.8	0.4
| 학 력 |						
중졸 이하	35.1	7.8	15.6	9.1	47.7	0.1
고졸 이하	34.7	3.9	10.9	6.6	54.3	1.4
대졸 이하	26.5	6.8	14.3	11.4	58.5	1.5
대학원졸 이상	18.6	2.0	14.1	10.0	68.9	0.5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2.5	6.8	9.9	9.1	62.3	2.2
사무직	31.2	5.2	13.8	10.9	55.0	0.8
서비스/판매직	30.0	5.1	13.3	10.0	55.9	1.5
생산/기술직	32.6	0.9	10.1	7.2	57.7	1.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8.0	2.0	15.6	6.9	56.2	1.8
단순노무직	33.0	4.1	17.0	2.7	53.1	0.0
기타	41.8	15.2	15.2	0.0	58.2	0.0
무직	32.6	7.3	14.1	10.2	54.1	1.3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29.5	8.5	16.4	13.0	56.1	1.2
탈물질주의	29.3	3.7	10.6	4.3	58.6	1.8
혼합형	30.8	3.9	11.3	7.5	55.9	1.3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36.3	7.9	14.0	11.9	43.6	1.1
개인 이익 중요	27.5	7.6	14.5	11.9	59.1	0.6
둘 다 중요	29.6	4.7	12.7	8.2	58.1	1.5

16. 우리나라의 차별 정도에 대한 평가

(단위: %, 점)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평균 (4점)
전 체	3.1	44.4	49.7	2.8	2.5
| 성 별 |				
남자	3.3	43.3	50.3	3.1	2.5
여자	2.9	45.4	49.2	2.6	2.5
| 지역 |				
도 시[동 부]	3.2	44.8	48.9	3.0	2.5
농어촌[읍면부]	2.4	42.3	53.3	2.0	2.5
| 연 령 |				
20대 이하	4.6	47.8	44.8	2.8	2.5
30대	4.3	47.2	45.7	2.8	2.5
40대	3.3	45.9	48.1	2.7	2.5
50대	2.5	45.4	49.5	2.7	2.5
60대 이상	1.7	38.9	56.2	3.1	2.6
| 학 력 |				
중졸 이하	2.0	36.8	57.6	3.6	2.6
고졸 이하	3.4	46.2	48.1	2.3	2.5
대졸 이하	3.1	45.5	48.4	3.0	2.5
대학원졸 이상	5.6	51.8	39.6	3.0	2.4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4.7	49.8	42.9	2.6	2.4
사무직	2.2	43.5	50.4	3.9	2.6
서비스/판매직	3.3	47.3	46.9	2.5	2.5
생산/기술직	3.1	45.7	49.1	2.1	2.5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2	36.2	60.8	1.8	2.6
단순노무직	5.6	43.4	49.2	1.7	2.5
기타	6.3	33.2	60.5	0.0	2.5
무직	2.6	42.1	52.2	3.1	2.6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3.2	43.1	50.4	3.3	2.5
탈물질주의	4.6	49.2	44.6	1.7	2.4
혼합형	2.8	44.6	49.9	2.7	2.5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2.9	44.8	48.4	4.0	2.5
개인 이익 중요	3.5	45.5	48.5	2.6	2.5
둘 다 중요	3.0	44.1	50.1	2.7	2.5

17-1. 지난 1년 동안 차별 경험 (1)

(단위: %)

	성별		임신/출산		종교		사상 정치적 입장		장애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 체	**7.6**	**92.4**	**1.6**	**98.4**	**1.4**	**98.6**	**2.6**	**97.4**	**1.4**	**98.6**
| 성 별 |									
남자	4.6	95.4	0.0	100.0	1.0	99.0	2.9	97.1	1.6	98.4
여자	10.4	89.6	3.1	96.9	1.7	98.3	2.2	97.8	1.2	98.8
| 지역 |									
도 시[동 부]	8.3	91.7	1.7	98.3	1.5	98.5	2.7	97.3	1.5	98.5
농어촌[읍면부]	4.3	95.7	0.9	99.1	1.1	98.9	2.0	98.0	1.1	98.9
| 연 령 |									
20대 이하	15.6	84.4	1.0	99.0	1.4	98.6	2.8	97.2	1.4	98.6
30대	12.6	87.4	5.2	94.8	1.7	98.3	3.7	96.3	1.7	98.3
40대	7.5	92.5	2.1	97.9	2.2	97.8	3.4	96.6	1.4	98.6
50대	4.5	95.5	0.5	99.5	1.2	98.8	2.6	97.4	1.4	98.6
60대 이상	2.1	97.9	0.3	99.7	0.8	99.2	1.2	98.8	1.3	98.7
| 학 력 |									
중졸 이하	1.5	98.5	0.2	99.8	0.7	99.3	0.7	99.3	1.3	98.7
고졸 이하	6.7	93.3	1.0	99.0	1.1	98.9	2.3	97.7	1.7	98.3
대졸 이하	10.6	89.4	2.5	97.5	1.8	98.2	3.2	96.8	1.1	98.9
대학원졸 이상	13.4	86.6	4.5	95.5	4.0	96.0	8.1	91.9	3.9	96.1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3.6	86.4	3.1	96.9	2.3	97.7	5.8	94.2	1.5	98.5
사무직	10.6	89.4	1.8	98.2	1.5	98.5	2.4	97.6	1.1	98.9
서비스/판매직	8.8	91.2	1.3	98.7	1.8	98.2	2.9	97.1	1.3	98.7
생산/기술직	4.3	95.7	0.3	99.7	0.6	99.4	2.6	97.4	0.8	99.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0	99.0	0.2	99.8	0.1	99.9	0.8	99.2	0.8	99.2
단순노무직	5.9	94.1	1.0	99.0	2.1	97.9	2.4	97.6	1.4	98.6
기타	16.3	83.7	0.0	100.0	5.6	94.4	5.6	94.4	5.6	94.4
무직	5.4	94.6	1.7	98.3	1.0	99.0	1.6	98.4	1.8	98.2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6.3	93.7	0.9	99.1	1.1	98.9	2.9	97.1	1.2	98.8
탈물질주의	11.6	88.4	2.8	97.2	1.9	98.1	3.5	96.5	2.7	97.3
혼합형	7.8	92.2	1.8	98.2	1.5	98.5	2.2	97.8	1.4	98.6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5.6	94.4	1.0	99.0	1.6	98.4	2.5	97.5	1.3	98.7
개인 이익 중요	7.6	92.4	0.8	99.2	1.3	98.7	2.6	97.4	1.6	98.4
둘 다 중요	7.8	92.2	1.8	98.2	1.4	98.6	2.6	97.4	1.4	98.6

1) 없다는 비해당 포함

(다음에 계속)

17-1. 지난 1년 동안 차별 경험 (2)

(단위: %)

	연령		경제 지위		고용 형태		학력/학벌		인종, 출신 국가/민족, 피부색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 체	**7.5**	**92.5**	**6.2**	**93.8**	**5.4**	**94.6**	**4.2**	**95.8**	**1.0**	**99.0**
| 성 별 |									
남자	6.4	93.6	6.6	93.4	5.0	95.0	4.4	95.6	1.0	99.0
여자	8.7	91.3	5.8	94.2	5.7	94.3	4.0	96.0	1.0	99.0
| 지역 |									
도 시[동 부]	8.2	91.8	6.7	93.3	5.7	94.3	4.6	95.4	0.9	99.1
농어촌[읍면부]	4.6	95.4	4.0	96.0	3.7	96.3	2.4	97.6	1.3	98.7
| 연 령 |									
20대 이하	10.4	89.6	6.8	93.2	6.3	93.7	6.7	93.3	1.3	98.7
30대	7.6	92.4	9.1	90.9	8.8	91.2	7.0	93.0	1.7	98.3
40대	6.5	93.5	6.8	93.2	6.0	94.0	4.5	95.5	1.0	99.0
50대	6.0	94.0	6.5	93.5	5.3	94.7	3.3	96.7	0.6	99.4
60대 이상	7.5	92.5	3.5	96.5	2.5	97.5	1.7	98.3	0.6	99.4
| 학 력 |									
중졸 이하	7.3	92.7	3.7	96.3	2.2	97.8	1.7	98.3	0.5	99.5
고졸 이하	7.7	92.3	6.4	93.6	5.6	94.4	5.0	95.0	1.0	99.0
대졸 이하	7.3	92.7	6.9	93.1	6.4	93.6	4.6	95.4	1.1	98.9
대학원졸 이상	8.9	91.1	8.2	91.8	7.5	92.5	4.8	95.2	2.8	97.2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9.9	90.1	9.5	90.5	7.3	92.7	5.7	94.3	1.7	98.3
사무직	6.0	94.0	5.7	94.3	5.2	94.8	5.0	95.0	0.7	99.3
서비스/판매직	8.0	92.0	8.1	91.9	7.2	92.8	5.0	95.0	1.3	98.7
생산/기술직	5.7	94.3	6.7	93.3	6.4	93.6	4.4	95.6	0.9	99.1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0	98.0	1.6	98.4	1.1	98.9	0.9	99.1	0.3	99.7
단순노무직	13.8	86.2	10.3	89.7	11.3	88.7	7.0	93.0	1.1	98.9
기타	16.1	83.9	16.1	83.9	11.3	88.7	11.9	88.1	5.6	94.4
무직	7.1	92.9	4.0	96.0	3.0	97.0	2.8	97.2	0.7	99.3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6.6	93.4	5.4	94.6	4.4	95.6	3.4	96.6	0.9	99.1
탈물질주의	10.2	89.8	7.8	92.2	7.5	92.5	5.6	94.4	1.2	98.8
혼합형	7.8	92.2	6.5	93.5	5.7	94.3	4.6	95.4	1.0	99.0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7.6	92.4	6.2	93.8	5.0	95.0	3.7	96.3	1.3	98.7
개인 이익 중요	8.9	91.1	8.6	91.4	6.0	94.0	5.3	94.7	0.9	99.1
둘 다 중요	7.3	92.7	5.8	94.2	5.3	94.7	4.1	95.9	0.9	99.1

1) 없다는 비해당 포함

(다음에 계속)

17-1. 지난 1년 동안 차별 경험 (3)

(단위: %)

	신체조건		혼인상황		가족상황		질병/병력		출신지역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 체	3.0	97.0	1.8	98.2	1.2	98.8	1.4	98.6	1.8	98.2
| 성 별 |									
남자	2.5	97.5	1.2	98.8	0.8	99.2	1.5	98.5	1.9	98.1
여자	3.4	96.6	2.4	97.6	1.5	98.5	1.3	98.7	1.8	98.2
| 지역 |									
도 시[동 부]	3.1	96.9	1.9	98.1	1.2	98.8	1.4	98.6	1.9	98.1
농어촌[읍면부]	2.5	97.5	1.6	98.4	0.7	99.3	1.2	98.8	1.4	98.6
| 연 령 |									
20대 이하	5.8	94.2	1.6	98.4	1.6	98.4	1.2	98.8	2.3	97.7
30대	5.3	94.7	3.7	96.3	1.9	98.1	1.5	98.5	2.8	97.2
40대	3.1	96.9	2.0	98.0	1.3	98.7	1.6	98.4	2.3	97.7
50대	1.9	98.1	1.9	98.1	1.1	98.9	1.4	98.6	1.6	98.4
60대 이상	0.7	99.3	0.7	99.3	0.5	99.5	1.3	98.7	0.8	99.2
| 학 력 |									
중졸 이하	0.7	99.3	0.6	99.4	0.3	99.7	1.3	98.7	0.5	99.5
고졸 이하	3.2	96.8	1.6	98.4	1.2	98.8	1.4	98.6	1.8	98.2
대졸 이하	3.7	96.3	2.4	97.6	1.3	98.7	1.4	98.6	2.3	97.7
대학원졸 이상	4.7	95.3	3.5	96.5	2.8	97.2	2.8	97.2	4.2	95.8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4.6	95.4	3.0	97.0	1.5	98.5	1.4	98.6	3.8	96.2
사무직	3.4	96.6	2.6	97.4	1.4	98.6	1.3	98.7	1.5	98.5
서비스/판매직	3.5	96.5	2.1	97.9	1.7	98.3	1.1	98.9	1.7	98.3
생산/기술직	2.4	97.6	1.1	98.9	1.0	99.0	1.5	98.5	2.7	97.3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5	99.5	0.6	99.4	0.1	99.9	0.8	99.2	0.4	99.6
단순노무직	3.6	96.4	2.4	97.6	1.4	98.6	2.4	97.6	2.6	97.4
기타	11.9	88.1	5.6	94.4	5.6	94.4	16.5	83.5	11.9	88.1
무직	2.3	97.7	1.2	98.8	0.7	99.3	1.4	98.6	1.2	98.8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2.0	98.0	1.3	98.7	0.8	99.2	1.2	98.8	1.7	98.3
탈물질주의	4.4	95.6	2.5	97.5	1.4	98.6	1.7	98.3	2.9	97.1
혼합형	3.4	96.6	2.0	98.0	1.3	98.7	1.5	98.5	1.8	98.2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3.0	97.0	2.0	98.0	1.3	98.7	1.6	98.4	1.9	98.1
개인 이익 중요	3.1	96.9	1.9	98.1	1.7	98.3	2.2	97.8	2.0	98.0
둘 다 중요	3.0	97.0	1.8	98.2	1.1	98.9	1.2	98.8	1.8	98.2

1) 없다는 비해당 포함

17-1-1-1) 차별 경험의 유형-성별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신체적/언어적 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 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전 체	36.3	44.3	28.6	7.1
| 성 별 |				
남자	30.8	39.3	42.1	6.2
여자	38.6	46.4	22.7	7.5
| 지역 |				
도 시[동 부]	36.5	44.8	28.5	6.7
농어촌[읍면부]	34.1	39.9	29.1	10.9
| 연 령 |				
20대 이하	39.8	40.8	31.4	7.7
30대	37.0	51.5	23.8	6.9
40대	30.6	46.8	26.4	5.1
50대	30.4	40.6	36.4	6.3
60대 이상	40.0	35.4	25.3	11.1
| 학 력 |				
중졸 이하	43.5	21.6	28.4	9.7
고졸 이하	38.9	40.5	29.3	7.9
대졸 이하	34.0	48.0	27.8	6.6
대학원졸 이상	40.1	42.2	32.4	5.8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8.8	42.5	38.6	6.9
사무직	33.1	60.1	18.6	5.3
서비스/판매직	38.0	40.8	30.8	4.2
생산/기술직	36.7	34.5	44.1	5.8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75.3	7.2	24.7	0.0
단순노무직	44.9	44.6	17.1	6.7
기타	0.0	70.3	29.7	35.7
무직	40.9	37.8	26.6	11.7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32.0	42.7	31.3	6.7
탈물질주의	54.2	43.9	27.4	6.4
혼합형	35.1	45.1	27.5	7.4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38.6	39.4	31.7	7.6
개인 이익 중요	38.3	45.9	27.6	7.2
둘 다 중요	35.7	44.6	28.4	7.0

17-1-1-2) 차별 경험의 유형-임신/출산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신체적/언어적 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 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전 체	14.4	73.6	15.9	7.6
| 성 별 |				
남자	-	-	-	-
여자	14.4	73.6	15.9	7.6
| 지역 |				
도 시[동 부]	15.9	73.6	16.4	6.2
농어촌[읍면부]	1.3	73.8	11.2	19.9
| 연 령 |				
20대 이하	11.2	82.5	5.1	9.3
30대	12.8	69.9	21.3	8.5
40대	16.6	78.8	11.3	4.1
50대	10.5	83.2	12.6	1.9
60대 이상	33.9	51.6	9.0	22.4
| 학 력 |				
중졸 이하	9.2	37.8	29.8	38.7
고졸 이하	14.2	75.9	8.8	5.2
대졸 이하	13.8	74.4	18.3	5.4
대학원졸 이상	22.1	72.1	11.7	23.4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8.6	76.1	12.1	9.3
사무직	17.6	92.2	16.6	6.2
서비스/판매직	16.5	73.7	16.1	2.6
생산/기술직	30.3	38.4	24.1	37.5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0	100.0	0.0	0.0
단순노무직	25.4	63.4	14.3	6.7
기타	-	-	-	-
무직	13.8	66.2	17.4	8.4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8.9	79.9	10.9	6.9
탈물질주의	22.0	61.0	28.1	24.3
혼합형	14.7	73.9	15.2	4.8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0.0	80.8	19.2	0.0
개인 이익 중요	17.5	87.5	18.3	0.0
둘 다 중요	15.4	72.0	15.4	8.8

17-1-1-3) 차별 경험의 유형-종교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신체적/언어적 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 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전 체	26.7	11.4	22.8	50.6
| 성 별 |			
남자	28.0	7.5	24.7	46.1
여자	26.0	13.6	21.6	53.3
| 지역 |			
도 시[동 부]	27.9	11.8	21.7	51.4
농어촌[읍면부]	19.5	8.3	29.5	45.9
| 연 령 |			
20대 이하	19.1	17.3	33.4	43.1
30대	24.9	16.3	25.1	46.1
40대	30.5	15.2	17.3	46.1
50대	32.1	3.0	20.7	63.6
60대 이상	24.9	1.1	20.7	58.8
| 학 력 |			
중졸 이하	11.5	2.4	42.5	48.7
고졸 이하	23.7	10.5	18.8	60.5
대졸 이하	30.0	12.9	22.5	43.9
대학원졸 이상	33.6	14.4	16.1	61.3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7.8	10.9	24.6	40.3
사무직	13.4	16.5	19.2	65.6
서비스/판매직	27.7	2.7	26.0	44.8
생산/기술직	15.8	55.6	9.4	19.3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0	0.0	100.0	0.0
단순노무직	41.5	13.6	45.0	32.4
기타	0.0	0.0	0.0	100.0
무직	23.9	9.7	15.2	63.9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26.3	8.4	20.2	56.7
탈물질주의	30.6	12.7	16.3	62.3
혼합형	26.3	12.4	24.8	46.3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27.6	7.4	16.6	61.7
개인 이익 중요	20.2	14.4	24.6	49.6
둘 다 중요	27.6	11.6	23.6	48.7

17-1-1-4) 차별 경험의 유형-사상 정치적 입장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신체적/언어적 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 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전 체	36.5	19.6	14.5	41.2
| 성 별 |			
남자	39.4	19.4	15.3	39.8
여자	32.9	19.7	13.3	42.9
| 지역 |			
도 시[동 부]	36.6	20.1	14.6	41.0
농어촌[읍면부]	36.3	16.5	13.7	42.4
| 연 령 |			
20대 이하	36.5	13.6	17.2	38.5
30대	37.8	24.1	11.7	41.7
40대	37.7	23.1	9.0	39.8
50대	31.9	15.1	23.3	38.8
60대 이상	39.4	20.1	12.1	50.6
| 학 력 |			
중졸 이하	37.8	13.5	17.9	38.4
고졸 이하	34.3	20.7	12.5	40.3
대졸 이하	37.2	19.6	17.8	36.7
대학원졸 이상	40.7	17.9	0.0	74.4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4.0	22.9	16.6	41.2
사무직	28.3	24.6	12.3	42.8
서비스/판매직	44.0	12.7	15.9	41.3
생산/기술직	39.0	24.4	11.1	38.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1.1	0.0	0.0	58.9
단순노무직	36.8	37.6	6.5	29.9
기타	0.0	0.0	0.0	100.0
무직	36.2	14.4	16.1	42.6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45.7	15.5	13.4	41.9
탈물질주의	37.1	17.2	9.0	45.4
혼합형	29.1	23.2	16.3	39.8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40.1	13.1	7.9	47.5
개인 이익 중요	39.7	31.5	9.5	34.8
둘 다 중요	35.5	18.6	16.3	41.3

17-1-1-5) 차별 경험의 유형-장애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신체적/언어적 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 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전 체	23.6	30.3	30.9	37.1
| 성 별 |			
남자	22.4	32.8	29.6	34.2
여자	25.1	27.1	32.5	40.9
| 지역 |			
도 시[동 부]	21.9	31.0	31.8	37.7
농어촌[읍면부]	34.1	25.6	25.1	33.9
| 연 령 |			
20대 이하	33.6	18.7	25.5	49.4
30대	22.8	44.3	28.5	46.4
40대	15.9	44.3	28.9	22.7
50대	28.8	30.4	26.6	35.7
60대 이상	19.3	17.9	40.4	33.8
| 학 력 |			
중졸 이하	23.2	14.0	50.5	34.1
고졸 이하	29.1	31.3	29.8	30.5
대졸 이하	14.8	31.8	23.1	50.6
대학원졸 이상	28.0	53.1	27.5	26.4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3.2	37.5	35.5	42.7
사무직	21.8	50.8	16.9	37.0
서비스/판매직	17.6	31.5	25.7	48.7
생산/기술직	22.1	57.0	7.2	19.6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6.8	0.0	42.9	21.5
단순노무직	22.9	45.9	14.4	22.1
기타	0.0	0.0	0.0	100.0
무직	26.1	19.6	39.6	34.9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25.6	23.5	28.2	42.6
탈물질주의	22.3	23.5	34.8	35.3
혼합형	22.9	35.1	31.3	34.9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3.6	28.6	29.6	33.6
개인 이익 중요	11.9	44.0	23.2	35.8
둘 다 중요	27.2	27.9	32.5	37.9

17-1-1-6) 차별 경험의 유형-연령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신체적/언어적 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 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전 체	14.9	52.8	26.3	16.0
| 성 별 |			
남자	12.7	55.9	25.0	17.1
여자	16.5	50.5	27.2	15.2
| 지역 |			
도 시[동 부]	14.7	53.3	26.5	15.3
농어촌[읍면부]	16.7	48.5	25.1	21.9
| 연 령 |			
20대 이하	25.1	40.0	31.9	14.2
30대	14.6	63.1	21.3	15.0
40대	14.8	69.5	12.7	14.6
50대	6.9	70.2	14.3	13.7
60대 이상	11.1	38.4	38.9	20.2
| 학 력 |			
중졸 이하	10.4	28.0	47.8	22.7
고졸 이하	15.8	58.3	22.5	13.0
대졸 이하	15.3	58.1	21.6	15.0
대학원졸 이상	24.1	53.9	14.4	29.4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3.8	59.9	23.0	13.9
사무직	17.2	60.9	14.9	17.3
서비스/판매직	16.5	53.4	24.5	14.5
생산/기술직	10.1	71.6	12.8	9.1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8.9	7.5	39.3	44.3
단순노무직	15.6	64.4	16.1	11.6
기타	0.0	35.1	30.0	35.0
무직	14.4	40.5	38.5	19.2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3.2	50.7	29.2	14.8
탈물질주의	20.5	47.7	23.7	21.5
혼합형	14.9	54.6	25.2	15.8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3.4	47.2	26.6	21.1
개인 이익 중요	18.1	50.2	32.8	11.3
둘 다 중요	14.5	54.2	25.0	16.2

17-1-1-7) 차별 경험의 유형-경제 지위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신체적/언어적 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 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전 체	23.6	44.1	25.5	18.0
| 성 별 |			
남자	24.1	44.7	23.7	19.7
여자	23.2	43.6	27.5	16.0
| 지역 |			
도 시[동 부]	23.7	44.5	25.9	17.7
농어촌[읍면부]	23.1	41.6	22.2	20.2
| 연 령 |			
20대 이하	24.6	39.3	31.7	14.9
30대	25.4	46.8	22.5	18.0
40대	24.6	49.8	23.2	15.5
50대	22.1	46.9	19.7	20.4
60대 이상	20.8	35.1	32.9	21.6
| 학 력 |			
중졸 이하	21.7	31.8	30.4	24.5
고졸 이하	23.2	47.9	22.0	16.9
대졸 이하	23.5	45.9	26.5	16.8
대학원졸 이상	36.6	17.2	36.5	24.6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3.9	48.9	21.6	16.0
사무직	21.7	52.3	23.9	17.1
서비스/판매직	25.8	40.8	31.1	12.3
생산/기술직	24.3	52.6	22.0	15.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5.5	48.9	6.9	38.7
단순노무직	23.9	54.6	20.5	15.9
기타	0.0	30.0	0.0	70.0
무직	22.8	31.7	27.4	26.9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22.6	45.6	27.2	14.6
탈물질주의	27.8	26.7	29.8	29.3
혼합형	23.6	45.9	24.0	18.0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29.6	33.2	25.2	21.5
개인 이익 중요	25.0	40.7	35.4	11.3
둘 다 중요	22.3	46.8	23.1	19.0

17-1-1-8) 차별 경험의 유형-고용 형태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신체적/언어적 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 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전 체	13.5	73.6	10.6	11.1
| 성 별 |				
남자	11.7	73.9	11.1	9.6
여자	15.0	73.3	10.1	12.5
| 지역 |				
도 시[동 부]	12.9	74.5	11.0	10.3
농어촌[읍면부]	17.5	67.4	7.2	16.7
| 연 령 |				
20대 이하	12.8	71.7	11.7	12.6
30대	15.9	72.0	10.3	11.6
40대	12.4	77.9	7.7	8.7
50대	12.0	71.6	11.9	13.1
60대 이상	13.7	75.7	11.8	8.9
| 학 력 |				
중졸 이하	5.8	77.2	11.9	8.2
고졸 이하	13.1	75.1	8.6	13.1
대졸 이하	13.6	72.5	12.2	10.0
대학원졸 이상	32.1	65.7	7.0	11.4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3.2	74.7	10.3	8.0
사무직	15.4	75.4	8.5	10.7
서비스/판매직	16.3	68.1	14.9	10.3
생산/기술직	12.6	75.5	11.6	11.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0	44.9	0.0	55.1
단순노무직	16.5	72.2	10.1	11.3
기타	0.0	0.0	0.0	100.0
무직	7.6	80.8	6.7	12.3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0.7	76.1	13.9	9.4
탈물질주의	18.8	71.6	7.7	10.6
혼합형	13.9	72.8	9.5	12.0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3.5	65.7	13.4	17.2
개인 이익 중요	11.2	77.5	12.2	11.0
둘 다 중요	13.9	74.0	9.9	10.3

17-1-1-9) 차별 경험의 유형-학력/학벌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신체적/언어적 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 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전 체	9.9	70.3	10.7	17.2
| 성 별 |			
남자	10.3	70.6	9.5	16.6
여자	9.5	69.9	12.1	17.9
| 지역 |			
도 시[동 부]	9.6	71.0	11.6	16.3
농어촌[읍면부]	12.2	63.9	3.2	25.9
| 연 령 |			
20대 이하	11.3	69.8	13.4	13.1
30대	7.5	73.2	9.9	18.0
40대	11.0	73.9	7.7	15.5
50대	11.7	67.9	9.3	15.9
60대 이상	7.8	61.7	13.3	29.7
| 학 력 |			
중졸 이하	9.8	57.0	18.6	27.4
고졸 이하	11.4	75.4	6.8	16.9
대졸 이하	8.0	68.4	13.9	15.2
대학원졸 이상	16.3	55.0	1.8	26.8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8.6	78.2	8.7	9.3
사무직	8.1	78.7	7.0	11.4
서비스/판매직	6.9	73.4	11.0	15.8
생산/기술직	11.9	69.1	9.3	22.6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0	0.0	12.5	93.1
단순노무직	12.4	70.0	14.2	13.8
기타	52.7	0.0	0.0	47.3
무직	13.0	59.5	13.8	24.5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5.1	67.8	10.3	17.2
탈물질주의	14.6	64.0	8.1	18.9
혼합형	6.9	72.2	11.3	17.0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4.9	66.3	8.0	24.3
개인 이익 중요	9.5	70.2	11.0	18.9
둘 다 중요	10.7	70.8	11.1	15.9

17-1-1-10) 차별 경험의 유형-인종, 출신 국가/ 민족, 피부색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신체적/언어적 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 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전 체	22.5	37.6	18.2	32.5
| 성 별 |			
남자	14.2	42.2	20.7	36.2
여자	30.8	33.1	15.7	28.8
| 지역 |			
도 시[동 부]	19.2	36.4	17.8	35.9
농어촌[읍면부]	33.3	41.3	19.6	21.5
| 연 령 |			
20대 이하	24.9	26.9	21.6	53.0
30대	16.7	43.7	13.0	33.2
40대	29.9	41.9	7.8	26.0
50대	21.8	36.4	33.4	13.7
60대 이상	20.8	38.4	23.1	23.8
| 학 력 |			
중졸 이하	18.0	41.6	10.5	31.8
고졸 이하	24.2	51.5	15.7	21.2
대졸 이하	22.6	20.8	22.6	41.9
대학원졸 이상	19.0	63.6	13.0	33.0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7.0	41.2	19.9	27.6
사무직	27.0	35.3	10.5	43.5
서비스/판매직	23.3	31.6	19.7	33.8
생산/기술직	20.2	54.4	12.6	14.9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76.8	0.0	0.0	23.2
단순노무직	9.6	58.8	27.6	24.2
기타	0.0	0.0	0.0	100.0
무직	18.6	34.5	19.4	36.4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6.0	37.2	22.1	32.1
탈물질주의	43.3	26.6	5.3	40.6
혼합형	23.0	39.4	18.0	31.5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25.2	41.4	10.8	28.7
개인 이익 중요	20.1	33.2	29.6	28.1
둘 다 중요	22.4	37.5	18.0	33.9

17-1-1-11) 차별 경험의 유형-신체조건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신체적/언어적 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 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전 체	38.2	28.6	20.1	23.9
| 성 별 |			
남자	38.5	25.2	18.7	30.4
여자	38.0	31.1	21.2	19.2
| 지역 |			
도 시[동 부]	36.4	28.5	21.1	23.6
농어촌[읍면부]	48.2	29.6	14.9	25.5
| 연 령 |			
20대 이하	40.6	25.8	17.6	25.3
30대	40.8	27.9	19.4	21.6
40대	34.4	30.6	28.2	19.3
50대	42.7	25.5	17.8	25.8
60대 이상	18.5	44.8	16.0	36.3
| 학 력 |			
중졸 이하	48.8	12.1	9.0	37.5
고졸 이하	34.7	32.6	19.1	26.1
대졸 이하	38.5	28.1	21.7	21.4
대학원졸 이상	58.2	13.4	21.6	19.1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51.8	26.1	20.3	14.5
사무직	39.6	28.0	18.8	24.5
서비스/판매직	26.9	28.3	22.9	30.4
생산/기술직	55.5	24.6	8.5	11.4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55.5	39.3	29.4	15.1
단순노무직	39.8	24.1	19.4	26.7
기타	52.7	0.0	0.0	47.3
무직	33.2	33.2	21.8	25.9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40.9	22.7	19.7	28.1
탈물질주의	55.3	16.0	7.0	28.9
혼합형	34.6	32.8	22.3	21.6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32.2	35.7	9.5	28.8
개인 이익 중요	34.8	26.2	17.3	27.7
둘 다 중요	39.7	27.9	22.3	22.4

17-1-1-12) 차별 경험의 유형-혼인상황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신체적/언어적 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 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전 체	26.6	40.9	15.7	26.9
| 성 별 |				
남자	21.7	34.3	19.3	31.6
여자	29.0	44.0	14.0	24.6
| 지역 |				
도 시[동 부]	27.9	40.0	16.2	24.3
농어촌[읍면부]	19.6	45.5	13.0	41.0
| 연 령 |				
20대 이하	25.3	32.0	23.9	22.5
30대	29.0	45.1	15.3	19.2
40대	15.9	46.3	17.4	28.3
50대	39.2	34.2	8.0	34.9
60대 이상	17.9	42.3	17.8	37.2
| 학 력 |				
중졸 이하	43.2	16.5	8.5	39.5
고졸 이하	21.7	45.5	21.8	23.5
대졸 이하	25.9	43.2	12.9	27.1
대학원졸 이상	47.3	15.2	13.5	31.0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5.0	32.8	15.8	28.3
사무직	35.0	37.2	15.0	20.5
서비스/판매직	30.8	34.3	17.1	23.4
생산/기술직	12.7	37.5	29.1	36.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76.0	11.4	0.0	12.6
단순노무직	18.8	50.1	25.0	26.1
기타	0.0	0.0	0.0	100.0
무직	11.5	56.9	9.8	33.3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20.1	44.7	21.5	26.8
탈물질주의	48.8	15.8	4.8	35.6
혼합형	25.9	43.1	15.1	25.6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25.6	24.8	13.5	42.2
개인 이익 중요	29.8	47.2	19.8	16.8
둘 다 중요	26.3	42.5	15.4	26.0

17-1-1-13) 차별 경험의 유형-가족상황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신체적/언어적 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 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전 체	30.2	28.8	18.1	33.5
| 성 별 |			
남자	24.3	27.8	18.8	34.3
여자	33.5	29.4	17.7	32.9
| 지역 |			
도 시[동 부]	32.3	27.3	19.5	30.5
농어촌[읍면부]	14.4	39.7	7.7	55.9
| 연 령 |			
20대 이하	35.0	16.4	12.0	48.8
30대	29.1	34.3	12.2	27.4
40대	35.5	32.7	18.9	21.2
50대	27.7	29.4	27.1	26.3
60대 이상	16.4	33.3	28.1	50.9
| 학 력 |			
중졸 이하	6.6	33.3	15.5	70.4
고졸 이하	25.8	36.5	20.3	28.0
대졸 이하	32.0	25.6	18.5	34.1
대학원졸 이상	61.8	0.0	3.1	35.1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8.8	34.2	16.5	26.7
사무직	24.6	27.9	11.4	37.0
서비스/판매직	46.1	22.4	20.2	25.8
생산/기술직	16.1	31.7	37.7	25.4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0	0.0	0.0	100.0
단순노무직	5.1	51.2	20.2	49.3
기타	0.0	0.0	0.0	100.0
무직	28.8	27.2	15.1	40.3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29.9	35.3	20.6	28.9
탈물질주의	47.5	12.6	0.0	39.9
혼합형	28.1	28.4	19.4	34.3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20.6	30.2	17.7	37.7
개인 이익 중요	40.0	28.4	18.1	21.4
둘 다 중요	29.3	28.6	18.2	35.9

17-1-1-14) 차별 경험의 유형-질병/병력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신체적/언어적 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 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전 체	16.3	38.0	24.6	32.2
| 성 별 |			
남자	18.7	32.8	26.3	31.1
여자	13.7	43.8	22.6	33.3
| 지역 |			
도 시[동 부]	18.4	39.1	23.8	28.0
농어촌[읍면부]	4.5	32.0	28.9	55.4
| 연 령 |			
20대 이하	14.6	44.5	18.4	35.3
30대	25.4	37.6	15.4	34.3
40대	14.7	48.4	26.0	21.0
50대	17.5	33.3	23.1	28.9
60대 이상	12.0	29.9	33.5	40.5
| 학 력 |			
중졸 이하	12.9	22.2	43.8	50.7
고졸 이하	16.7	43.4	16.8	31.1
대졸 이하	17.5	39.4	24.9	25.0
대학원졸 이상	16.4	41.1	13.0	32.6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4.1	43.4	13.2	30.7
사무직	12.7	56.0	20.3	18.9
서비스/판매직	10.7	43.7	31.5	28.3
생산/기술직	12.0	35.0	36.7	16.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2.3	0.0	0.0	77.7
단순노무직	17.6	63.0	13.9	25.8
기타	38.0	0.0	27.8	34.1
무직	20.7	23.9	27.4	42.9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9.2	36.5	31.8	26.9
탈물질주의	8.7	21.7	38.0	49.8
혼합형	16.0	40.9	19.2	32.3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22.5	30.5	11.5	50.7
개인 이익 중요	22.3	40.8	23.9	12.9
둘 다 중요	13.3	38.7	27.4	34.1

17-1-1-15) 차별 경험의 유형-출신지역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신체적/언어적 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 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전 체	27.0	37.0	13.5	34.0
| 성 별 |			
남자	23.4	42.3	12.9	32.9
여자	30.6	31.5	14.1	35.2
| 지역 |			
도 시[동 부]	29.1	36.2	12.6	32.0
농어촌[읍면부]	13.9	42.2	18.7	46.7
| 연 령 |			
20대 이하	28.7	23.4	25.4	34.7
30대	22.7	41.9	14.3	32.8
40대	41.8	44.3	7.0	15.9
50대	23.7	33.3	9.6	37.8
60대 이상	7.7	42.5	9.1	65.5
| 학 력 |			
중졸 이하	9.2	29.8	7.5	76.6
고졸 이하	21.3	41.8	12.8	31.3
대졸 이하	31.6	34.0	14.7	32.3
대학원졸 이상	35.7	40.2	11.8	31.3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5.1	38.6	13.2	22.1
사무직	29.6	43.9	16.1	34.5
서비스/판매직	28.0	29.8	20.6	29.2
생산/기술직	23.7	38.1	14.5	26.4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65.9	21.7	21.7	34.1
단순노무직	4.6	44.3	9.7	53.6
기타	52.7	0.0	0.0	47.3
무직	24.9	35.8	7.4	46.0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22.8	39.2	12.0	39.6
탈물질주의	43.1	31.2	6.7	25.7
혼합형	26.2	36.9	15.7	32.4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23.3	39.2	8.3	46.4
개인 이익 중요	34.3	32.1	21.0	29.2
둘 다 중요	26.3	37.5	13.0	32.9

18. 차별로 인한 피해·불이익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피해·불이익 없었다	신체적 상해	재산/금전상 손해	사회적 명예 실추	정신적/감정적 피해	기타
전 체	20.8	1.6	9.8	5.2	72.6	0.8
| 성 별 |						
남자	22.2	2.0	11.2	6.0	70.2	0.8
여자	19.6	1.2	8.6	4.6	74.6	0.8
| 지역 |						
도 시[동 부]	20.2	1.7	9.6	5.1	73.1	0.8
농어촌[읍면부]	24.7	0.7	10.8	6.0	69.2	1.0
| 연 령 |						
20대 이하	24.0	3.1	7.8	5.4	70.5	0.8
30대	15.7	1.2	12.0	5.7	75.9	1.5
40대	19.6	1.0	14.3	5.7	72.0	0.8
50대	20.4	0.9	7.0	4.0	73.2	0.5
60대 이상	24.0	1.4	7.7	5.2	71.8	0.3
| 학 력 |						
중졸 이하	22.3	2.1	6.4	1.2	74.0	0.2
고졸 이하	22.5	1.7	9.9	3.8	70.6	1.2
대졸 이하	19.6	1.4	10.1	6.7	73.3	0.7
대학원졸 이상	14.1	0.5	14.6	13.0	79.9	0.1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9.6	1.3	12.8	7.3	72.9	1.0
사무직	17.3	0.9	8.3	8.3	76.7	1.0
서비스/판매직	19.9	1.3	9.2	4.7	73.7	0.3
생산/기술직	26.4	0.4	13.6	3.9	66.2	0.4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6.5	0.0	0.0	3.1	73.5	0.0
단순노무직	20.1	2.2	15.3	1.4	70.2	2.3
기타	31.9	0.0	17.7	17.7	50.4	0.0
무직	22.3	2.4	7.3	4.2	71.8	0.7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21.2	2.6	10.4	5.2	72.1	0.7
탈물질주의	14.8	0.9	7.1	3.8	79.8	1.8
혼합형	21.5	1.1	9.8	5.4	71.8	0.7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26.0	2.9	7.0	3.5	68.3	0.7
개인 이익 중요	22.5	1.7	8.6	4.3	72.1	0.8
둘 다 중요	19.6	1.3	10.4	5.6	73.4	0.8

19-1-a.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사람 또는 상황 (1순위) (1)

(단위: %)

	가족 또는 친인척						가족/친인척 이외 아는 사람				
	배우자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손)자녀/배우자의 (손)자녀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가족 이외 친인척	기타	직장 상사, 상급자	이웃 동호회, 동창회 등	학교 선후배, 친구, 동료	학원 강사, 교사, 교수	기타
전 체	**3.2**	**2.9**	**1.4**	**2.4**	**3.1**	**0.0**	**22.5**	**10.1**	**5.0**	**0.7**	**0.0**
| 성 별 |											
남자	2.8	2.1	1.5	2.4	2.3	0.0	25.1	8.5	6.0	0.8	0.0
여자	3.5	3.7	1.4	2.3	3.8	0.0	20.2	11.5	4.1	0.5	0.1
| 지역 |											
도 시[동 부]	2.7	3.1	1.4	2.3	3.2	0.0	23.5	9.3	5.2	0.8	0.0
농어촌[읍면부]	6.1	1.9	2.0	2.6	2.3	0.0	16.0	15.2	3.2	0.1	0.0
| 연 령 |											
20대 이하	1.1	2.4	0.8	1.0	3.1	0.1	26.1	6.0	8.5	1.2	0.0
30대	2.2	4.9	1.6	2.0	2.6	0.0	28.4	6.7	4.5	0.5	0.1
40대	3.2	3.7	1.3	2.4	2.6	0.0	24.4	10.8	4.1	0.6	0.0
50대	5.4	2.8	1.2	3.5	2.8	0.0	21.1	11.0	4.1	0.6	0.0
60대 이상	4.2	0.9	2.4	2.9	4.4	0.0	12.0	16.3	3.4	0.4	0.0
| 학 력 |											
중졸 이하	3.9	0.6	2.7	3.5	4.9	0.0	12.1	20.5	1.8	0.0	0.2
고졸 이하	3.3	2.2	1.2	2.8	3.4	0.0	21.2	8.0	6.0	0.8	0.0
대졸 이하	3.0	3.6	1.2	1.8	2.4	0.0	26.4	9.6	5.0	0.6	0.0
대학원졸 이상	1.3	10.0	3.3	1.0	3.9	0.0	18.9	4.1	3.8	2.9	0.0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8	6.1	1.4	2.1	2.3	0.0	27.0	4.5	4.8	1.1	0.0
사무직	1.4	3.3	1.6	1.6	2.9	0.0	34.9	7.7	3.3	0.6	0.0
서비스/판매직	4.5	2.4	0.6	2.3	3.0	0.1	21.8	8.9	4.2	0.3	0.0
생산/기술직	2.1	0.8	2.4	2.0	1.4	0.0	32.8	5.7	3.6	0.5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8	0.8	0.0	1.2	3.5	0.0	10.0	25.0	5.2	0.0	0.0
단순노무직	2.7	1.6	2.3	3.2	4.3	0.0	30.1	11.1	2.8	0.0	0.0
기타	0.0	0.0	0.0	0.0	0.0	0.0	43.4	0.0	0.0	0.0	0.0
무직	4.1	2.7	1.6	2.9	3.8	0.0	10.5	15.1	7.3	1.0	0.1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4.3	2.2	1.3	2.7	3.1	0.0	17.1	13.1	5.1	1.1	0.0
탈물질주의	1.6	4.9	2.2	3.6	2.9	0.0	28.6	10.2	3.1	0.2	0.0
혼합형	2.7	3.1	1.5	2.0	3.1	0.0	24.8	8.3	5.2	0.5	0.0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8	4.0	2.4	2.9	3.3	0.0	16.5	11.1	6.9	0.1	0.2
개인 이익 중요	4.9	2.4	1.1	1.4	4.8	0.0	22.3	11.2	6.6	0.5	0.0
둘 다 중요	3.1	2.9	1.3	2.5	2.8	0.0	23.6	9.7	4.3	0.8	0.0

(다음에 계속)

19-1-a.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사람 또는 상황 (1순위) (2)

(단위: %)

	잘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									상황이나 환경		
	공권력 가진 사람	집/방, 상가 소유주	고객	서비스업 사업자 및 종사자	거래처 사람	면접관, 채용관	길에서 만난 행인	온라인상으로 만난 사람	기타	자연 환경	주변 생활 환경	기타
전 체	**6.9**	**1.4**	**4.8**	**7.5**	**2.5**	**3.9**	**3.9**	**2.1**	**0.5**	**4.6**	**10.4**	**0.1**
| 성 별 |												
남자	9.0	1.3	4.5	6.6	3.4	3.3	3.0	1.9	0.6	4.6	10.2	0.2
여자	5.2	1.5	5.1	8.2	1.7	4.4	4.7	2.3	0.5	4.6	10.7	0.1
| 지역 |												
도 시[동 부]	6.8	1.5	4.8	7.5	2.5	3.9	4.1	2.4	0.6	4.2	9.9	0.2
농어촌[읍면부]	7.5	0.6	4.9	7.4	2.3	3.6	2.6	0.8	0.3	7.0	13.7	0.0
| 연 령 |												
20대 이하	3.5	1.4	5.1	7.9	2.1	5.1	4.7	6.1	1.0	3.2	9.6	0.1
30대	8.0	1.2	2.8	4.7	2.6	4.6	4.3	2.1	0.4	5.0	10.5	0.3
40대	8.1	1.1	5.0	5.7	3.6	3.3	2.5	0.6	0.8	4.6	11.5	0.3
50대	6.8	1.8	7.5	7.7	2.6	3.0	2.8	1.5	0.1	4.5	9.2	0.0
60대 이상	8.5	1.5	3.7	11.5	1.5	3.5	5.2	0.3	0.3	5.7	11.5	0.1
| 학 력 |												
중졸 이하	7.2	1.3	3.2	12.0	1.4	2.7	5.1	0.2	0.8	5.2	10.4	0.1
고졸 이하	6.0	1.4	5.8	8.3	2.5	3.4	3.6	2.8	0.3	4.8	12.1	0.1
대졸 이하	7.2	1.4	4.5	5.8	2.9	4.5	4.0	2.1	0.7	4.1	8.9	0.2
대학원졸 이상	11.3	1.7	3.9	5.8	0.0	5.6	1.9	1.7	0.0	6.3	12.6	0.0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9.4	0.6	3.1	3.9	3.2	5.3	4.9	1.6	0.8	4.7	11.3	0.1
사무직	8.2	1.6	2.6	3.2	3.0	4.3	3.2	3.2	0.4	5.2	7.4	0.5
서비스/판매직	5.3	2.1	11.6	8.5	2.5	3.0	2.8	2.2	0.6	3.6	9.6	0.0
생산/기술직	7.4	0.9	5.9	7.8	5.3	3.1	2.1	1.6	0.0	6.2	8.4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0.6	2.6	2.1	10.3	0.0	1.4	2.6	0.0	1.5	5.3	13.2	0.0
단순노무직	7.0	1.4	3.0	5.1	3.4	4.8	3.7	0.9	0.4	4.9	7.3	0.0
기타	0.0	10.7	0.0	9.2	0.0	0.0	0.0	0.0	0.0	0.0	36.6	0.0
무직	6.1	1.1	2.0	10.9	1.0	3.8	5.2	2.4	0.6	4.5	13.2	0.1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7.7	1.1	5.4	7.0	2.7	3.1	3.8	2.0	0.5	4.6	12.0	0.1
탈물질주의	6.1	0.5	2.3	6.5	2.3	3.0	4.8	2.7	0.0	5.9	8.1	0.4
혼합형	6.6	1.7	4.8	7.9	2.4	4.5	3.8	2.1	0.6	4.4	9.8	0.1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8.6	1.7	4.1	6.7	3.3	1.7	5.7	2.2	0.8	4.6	11.2	0.0
개인 이익 중요	6.9	0.7	4.8	8.4	2.5	4.2	4.4	1.7	0.4	3.9	7.1	0.0
둘 다 중요	6.6	1.5	4.9	7.4	2.3	4.2	3.5	2.2	0.5	4.7	11.0	0.2

19-1-b.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사람 또는 상황 (1순위+2순위) (1)

(단위: %)

	가족 또는 친인척						가족/친인척 이외 아는 사람				
	배우자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손)자녀/배우자의 (손)자녀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가족 이외 친인척	기타	직장 상사, 상급자	이웃 동호회, 동창회 등	학교 선후배, 친구, 동료	학원 강사, 교사, 교수	기타
전 체	**4.0**	**3.7**	**2.0**	**4.0**	**5.1**	**0.0**	**29.0**	**16.1**	**9.8**	**1.8**	**0.1**
| 성 별 |											
남자	3.2	2.8	2.2	4.0	4.1	0.0	31.4	14.8	10.5	1.9	0.1
여자	4.6	4.6	1.9	4.0	6.1	0.0	26.9	17.2	9.1	1.7	0.1
| 지역 |											
도 시[동 부]	3.4	4.0	1.9	4.0	5.1	0.0	30.1	15.0	10.2	2.0	0.1
농어촌[읍면부]	7.6	2.4	2.7	4.3	5.2	0.0	22.0	22.9	6.9	0.5	0.0
| 연 령 |											
20대 이하	1.1	2.9	1.0	1.9	4.6	0.1	32.6	10.7	17.2	4.9	0.0
30대	2.7	5.8	2.0	4.1	6.5	0.0	35.3	12.6	8.9	0.8	0.1
40대	4.5	4.7	2.1	3.9	4.8	0.0	30.8	17.1	7.6	0.6	0.0
50대	7.0	4.2	2.0	5.3	4.1	0.0	30.0	16.8	7.7	1.4	0.0
60대 이상	4.7	1.1	3.1	5.1	5.8	0.0	16.1	23.7	6.9	0.9	0.3
| 학 력 |											
중졸 이하	4.8	0.9	3.5	5.2	7.2	0.0	14.6	27.1	6.5	0.8	0.8
고졸 이하	3.9	3.1	1.8	4.6	5.2	0.0	27.3	13.0	10.3	2.1	0.0
대졸 이하	3.9	4.5	1.8	3.2	4.5	0.0	34.0	16.3	10.0	1.5	0.0
대학원졸 이상	2.0	10.5	3.6	4.3	6.5	0.0	30.2	10.7	11.7	4.9	0.0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8	7.3	2.4	4.1	4.0	0.0	34.3	9.8	8.7	2.4	0.0
사무직	1.8	3.7	1.9	3.4	5.1	0.0	44.0	13.9	9.7	1.6	0.0
서비스/판매직	5.5	3.0	1.1	3.9	4.8	0.1	28.7	15.2	9.5	1.4	0.0
생산/기술직	2.3	1.9	2.4	3.6	2.3	0.0	41.6	9.4	5.5	1.4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5.3	2.4	0.0	1.6	4.5	0.0	10.0	32.3	5.2	0.0	0.0
단순노무직	3.2	2.2	3.6	5.2	9.3	0.0	38.4	16.0	6.0	0.0	0.2
기타	0.0	0.0	0.0	0.0	0.0	0.0	43.4	0.0	19.4	0.0	0.0
무직	5.5	3.5	2.3	4.4	5.8	0.0	14.4	21.9	12.4	2.4	0.3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5.5	2.7	1.7	4.4	5.2	0.0	24.2	19.8	10.0	2.4	0.2
탈물질주의	4.0	6.4	2.3	5.5	6.7	0.0	36.1	16.0	6.5	0.2	0.0
혼합형	3.0	4.0	2.2	3.6	4.9	0.0	30.9	13.9	10.1	1.6	0.0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2.0	4.6	3.4	5.7	5.7	0.0	23.5	18.1	11.3	1.6	0.6
개인 이익 중요	6.1	3.3	1.3	3.6	6.2	0.0	29.3	19.3	12.8	1.3	0.0
둘 다 중요	3.9	3.7	1.9	3.8	4.8	0.0	29.9	15.1	8.9	1.9	0.0

(다음에 계속)

19-1-b.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사람 또는 상황 (1순위+2순위) (2)

(단위: %)

	잘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									상황이나 환경		
	공권력 가진 사람	집/방, 상가 소유주	고객	서비스업 사업자 및 종사자	거래처 사람	면접관, 채용관	길에서 만난 행인	온라인상으로 만난 사람	기타	자연 환경	주변 생활 환경	기타
전 체	**11.6**	**4.2**	**9.6**	**13.0**	**7.2**	**7.6**	**7.1**	**4.3**	**0.6**	**9.6**	**19.2**	**0.4**
| 성 별 |												
남자	14.4	3.8	8.8	11.4	10.0	7.4	5.8	4.1	0.8	9.5	19.5	0.4
여자	9.2	4.5	10.3	14.3	4.8	7.9	8.3	4.5	0.5	9.7	18.8	0.3
| 지역 |												
도 시[동 부]	11.3	4.5	9.7	13.2	7.4	8.0	7.4	4.7	0.6	9.0	18.2	0.4
농어촌[읍면부]	13.1	1.9	9.0	11.7	5.5	5.4	5.7	1.9	0.3	13.6	25.1	0.3
| 연 령 |												
20대 이하	7.4	3.4	12.4	12.9	5.0	10.1	8.5	11.1	1.0	6.6	17.7	0.3
30대	12.9	4.3	6.2	10.2	7.9	9.6	8.0	4.3	0.4	11.4	20.3	0.6
40대	13.6	4.4	9.2	10.8	11.5	7.4	5.3	2.5	1.0	9.3	21.4	0.5
50대	11.0	4.8	12.8	13.1	7.8	5.2	5.2	2.4	0.1	9.4	17.3	0.2
60대 이상	13.2	4.1	7.0	17.9	3.7	5.6	8.5	0.7	0.4	11.6	19.2	0.2
| 학 력 |												
중졸 이하	9.7	3.9	5.7	17.6	3.2	3.6	8.0	0.7	0.8	10.1	18.5	0.1
고졸 이하	10.7	3.5	10.6	13.0	7.5	7.3	7.4	4.9	0.4	10.3	20.6	0.1
대졸 이하	12.5	4.7	10.1	12.0	8.4	8.8	6.8	4.8	0.8	8.7	17.8	0.6
대학원졸 이상	14.8	5.5	3.9	9.8	0.0	10.3	6.0	3.3	0.0	13.3	23.7	0.7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4.6	4.7	7.8	8.9	7.3	10.4	7.1	4.7	0.9	10.7	21.9	0.4
사무직	14.6	5.7	7.4	8.4	9.8	8.8	4.9	5.5	0.4	8.8	16.1	0.5
서비스/판매직	8.6	4.8	19.9	14.9	7.4	6.3	6.0	4.5	0.7	8.0	17.0	0.2
생산/기술직	12.1	3.7	9.8	13.3	17.1	5.7	3.6	3.1	0.0	10.4	19.6	0.1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5.7	2.6	3.0	19.0	8.0	7.2	5.0	0.0	1.5	16.2	28.4	0.0
단순노무직	12.0	1.6	8.6	8.2	9.7	9.0	7.5	2.2	0.4	10.1	16.6	0.3
기타	9.7	10.7	0.0	9.2	0.0	11.0	6.2	11.9	0.0	0.0	56.6	0.0
무직	10.4	3.5	4.4	16.6	2.5	6.9	10.0	4.3	0.6	10.2	21.0	0.5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2.9	3.8	10.6	11.9	6.3	5.2	6.6	4.0	0.7	9.7	20.0	0.1
탈물질주의	8.0	3.0	9.4	14.9	7.3	7.1	7.9	5.2	0.0	12.4	16.8	0.8
혼합형	11.3	4.6	9.0	13.4	7.7	9.2	7.4	4.4	0.6	9.2	19.0	0.4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4.9	4.4	7.1	12.6	6.9	5.1	8.6	4.6	0.9	9.2	19.4	0.0
개인 이익 중요	10.3	4.0	10.5	14.3	7.1	8.9	7.6	3.1	0.4	7.7	12.5	0.2
둘 다 중요	11.2	4.2	9.8	12.8	7.2	7.8	6.8	4.5	0.6	10.1	20.5	0.4

19-1-1-1)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한 사람-성별

(단위: %)

	남자	여자	잘 모름
전 체	52.2	22.7	25.0
| 성 별 |			
남자	56.6	16.5	26.9
여자	48.5	28.2	23.4
| 지역 |			
도 시[동 부]	52.7	22.8	24.5
농어촌[읍면부]	49.3	22.1	28.7
| 연 령 |			
20대 이하	55.9	19.9	24.2
30대	54.8	19.5	25.7
40대	52.7	23.4	24.0
50대	51.1	24.2	24.8
60대 이상	46.3	27.0	26.7
| 학 력 |			
중졸 이하	45.1	30.7	24.2
고졸 이하	54.4	21.2	24.5
대졸 이하	51.7	22.1	26.2
대학원졸 이상	60.8	20.6	18.6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54.1	21.0	24.9
사무직	53.3	20.9	25.8
서비스/판매직	51.5	24.7	23.8
생산/기술직	63.4	14.9	21.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58.5	16.9	24.6
단순노무직	57.8	22.1	20.0
기타	54.0	0.0	46.0
무직	47.0	25.5	27.5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49.1	21.1	29.8
탈물질주의	55.7	23.8	20.5
혼합형	53.6	23.5	23.0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49.2	22.2	28.6
개인 이익 중요	52.2	20.4	27.4
둘 다 중요	52.8	23.3	23.9

19-1-1-2)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한 사람-연령대

(단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잘 모름
전 체	3.6	7.2	16.6	28.8	17.7	26.1
| 성 별 |					
남자	3.7	7.1	17.4	29.2	15.4	27.3
여자	3.5	7.4	15.9	28.5	19.7	25.1
| 지역 |					
도 시[동 부]	3.9	7.5	17.1	29.0	17.0	25.4
농어촌[읍면부]	1.3	5.2	12.8	27.6	22.1	31.0
| 연 령 |					
20대 이하	9.0	12.5	18.4	21.2	7.4	31.5
30대	3.1	8.3	18.9	29.8	14.5	25.4
40대	1.5	5.0	20.2	33.4	15.3	24.6
50대	1.3	3.5	13.3	38.7	20.5	22.6
60대 이상	2.4	6.3	11.7	21.6	32.1	25.9
| 학 력 |					
중졸 이하	2.2	6.9	9.6	19.8	35.9	25.7
고졸 이하	5.2	7.0	17.1	30.4	14.6	25.7
대졸 이하	2.9	7.6	17.8	29.6	15.5	26.6
대학원졸 이상	0.0	6.6	17.0	31.1	19.0	26.2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5.1	8.0	14.8	30.1	15.1	26.9
사무직	2.3	7.7	21.8	30.2	13.2	24.8
서비스/판매직	3.0	7.1	17.5	31.6	16.2	24.6
생산/기술직	2.6	6.5	16.6	39.6	12.0	22.8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0	3.2	9.8	32.6	33.0	18.4
단순노무직	2.7	4.4	12.3	33.5	21.8	25.3
기타	0.0	0.0	26.1	29.3	0.0	44.5
무직	4.5	7.8	15.1	21.3	22.4	28.9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3.3	6.5	14.4	25.6	19.7	30.4
탈물질주의	4.5	2.8	13.1	37.5	18.2	24.0
혼합형	3.6	8.3	18.3	29.4	16.4	24.0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3.9	7.8	15.7	27.6	19.1	25.9
개인 이익 중요	3.3	6.8	19.5	28.1	20.6	21.7
둘 다 중요	3.6	7.2	16.1	29.2	16.8	27.1

19-2.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대응방법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가해자에게 시정 요구	주변인에게 도움 요청	인터넷/SNS에 알림	공공기관에 도움 요청	민간단체/전문가에게 도움 요청	아무런 행동하지 않음
전 체	14.3	8.7	5.0	4.8	1.4	72.8
| 성 별 |						
남자	14.8	8.5	5.1	5.3	1.3	72.6
여자	13.8	9.0	5.0	4.3	1.4	72.9
| 지역 |						
도 시[동 부]	13.8	8.6	5.3	5.0	1.4	72.8
농어촌[읍면부]	17.2	9.3	3.2	3.5	1.0	72.8
| 연 령 |						
20대 이하	11.7	7.1	6.5	3.9	0.9	74.7
30대	13.2	10.7	7.3	3.8	1.0	72.3
40대	17.1	9.7	4.6	6.1	2.3	69.1
50대	15.6	10.1	3.8	4.1	1.3	71.7
60대 이상	14.1	6.1	2.9	6.2	1.3	76.0
| 학 력 |						
중졸 이하	14.0	6.5	1.9	3.4	0.3	78.8
고졸 이하	12.7	7.1	5.1	4.9	1.3	75.2
대졸 이하	15.2	10.8	5.8	4.9	1.4	69.5
대학원졸 이상	21.2	7.2	3.9	6.7	4.5	70.0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5.5	7.7	3.7	5.5	2.0	71.3
사무직	11.7	10.5	8.0	5.8	1.0	72.3
서비스/판매직	17.4	8.4	5.5	5.1	1.3	69.9
생산/기술직	13.5	7.9	4.5	3.8	1.0	73.9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5.2	6.2	0.0	7.4	1.3	81.5
단순노무직	13.4	4.9	3.7	5.0	1.7	77.6
기타	21.7	19.7	9.2	20.3	0.0	59.4
무직	13.5	9.6	4.4	3.7	1.3	74.2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8.4	10.9	5.1	4.5	1.3	68.9
탈물질주의	15.1	7.1	5.2	5.3	1.9	73.8
혼합형	11.7	7.6	4.9	4.9	1.3	75.0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5.7	11.9	8.1	7.7	1.4	67.2
개인 이익 중요	14.4	10.7	4.6	6.3	2.2	68.6
둘 다 중요	14.0	7.7	4.6	4.0	1.2	74.6

19-2-1.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대응-도움 요청한 공공기관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검찰/경찰	기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전 체	23.8	14.9	39.4	21.6	26.0
| 성 별 |				
남자	19.6	14.7	40.7	28.9	25.6
여자	28.2	15.0	38.0	13.8	26.4
| 지역 |				
도 시[동 부]	25.4	15.2	40.7	20.0	22.3
농어촌[읍면부]	9.8	11.9	27.5	35.8	59.2
| 연 령 |				
20대 이하	23.4	19.0	58.2	8.6	12.3
30대	19.5	18.9	49.6	30.2	33.8
40대	24.6	11.7	35.8	27.1	22.5
50대	28.8	16.1	18.9	26.2	30.8
60대 이상	22.7	12.0	37.4	16.5	30.7
| 학 력 |				
중졸 이하	14.0	9.6	56.9	15.0	26.5
고졸 이하	21.0	17.9	37.0	23.9	31.0
대졸 이하	30.4	14.9	37.4	19.9	19.7
대학원졸 이상	0.0	0.0	47.3	30.0	45.7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7.5	0.0	33.9	16.8	35.2
사무직	43.9	26.8	38.1	11.4	10.6
서비스/판매직	35.4	14.7	28.4	21.3	25.2
생산/기술직	6.9	0.0	56.2	31.4	32.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0	0.0	40.8	0.0	69.0
단순노무직	0.0	5.6	55.6	54.7	21.9
기타	0.0	0.0	51.9	0.0	48.1
무직	14.3	23.7	45.5	23.3	28.5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33.9	13.7	31.1	17.2	19.4
탈물질주의	2.0	2.0	53.0	53.0	17.0
혼합형	21.8	17.6	41.7	19.0	31.0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45.5	34.9	36.6	9.7	11.1
개인 이익 중요	22.5	11.9	48.4	24.2	10.7
둘 다 중요	16.7	8.9	37.4	24.8	36.1

19-2-2.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대응-도움 요청한 공공기관의 도움 정도

(단위: %, 점)

	매우 도움이 되었다	다소 도움이 되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평균 (4점)
전 체	6.7	46.9	34.3	12.1	2.5
| 성 별 |				
남자	4.1	48.0	35.6	12.2	2.4
여자	9.4	45.7	32.8	12.1	2.5
| 지역 |				
도 시[동 부]	7.4	47.7	32.9	12.0	2.5
농어촌[읍면부]	0.0	39.3	47.2	13.4	2.3
| 연 령 |				
20대 이하	18.4	43.6	28.1	9.9	2.7
30대	0.0	70.3	23.3	6.4	2.6
40대	5.2	47.5	33.8	13.5	2.4
50대	7.5	30.2	47.7	14.6	2.3
60대 이상	3.9	45.0	36.8	14.3	2.4
| 학 력 |				
중졸 이하	8.1	43.3	26.2	22.4	2.4
고졸 이하	4.1	51.6	34.1	10.1	2.5
대졸 이하	9.2	48.6	30.4	11.7	2.6
대학원졸 이상	0.0	0.0	85.4	14.6	1.9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9.4	28.6	27.8	34.2	2.1
사무직	1.5	69.9	26.9	1.7	2.7
서비스/판매직	4.9	55.1	31.0	9.0	2.6
생산/기술직	21.6	14.8	41.6	22.0	2.4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0	31.0	69.0	0.0	2.3
단순노무직	0.0	44.9	51.4	3.7	2.4
기타	0.0	100.0	0.0	0.0	3.0
무직	9.9	40.6	39.3	10.2	2.5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2.8	49.7	36.0	11.5	2.4
탈물질주의	4.3	58.2	20.2	17.3	2.5
혼합형	9.2	43.5	35.6	11.6	2.5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2.0	71.3	26.8	0.0	2.8
개인 이익 중요	5.7	52.4	39.6	2.4	2.6
둘 다 중요	8.7	36.7	35.2	19.5	2.3

19-3-1.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대응-도움 요청한 민간기관·전문가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시민사회단체	법률가	언론기관	기타
전 체	47.4	37.5	18.6	12.1
| 성 별 |				
남자	46.3	57.4	20.4	2.0
여자	48.4	20.6	17.0	20.8
| 지역 |				
도 시[동 부]	46.8	38.7	20.6	11.3
농어촌[읍면부]	53.3	27.1	0.0	19.6
| 연 령 |				
20대 이하	35.4	44.7	0.0	26.9
30대	42.0	5.8	52.2	0.0
40대	55.0	45.3	23.5	12.5
50대	40.8	38.8	6.8	22.0
60대 이상	54.1	42.2	9.4	0.0
| 학 력 |				
중졸 이하	0.0	100.0	0.0	0.0
고졸 이하	44.9	39.7	19.4	5.1
대졸 이하	45.9	29.1	15.1	18.4
대학원졸 이상	71.5	52.3	34.5	10.6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1.8	46.1	9.2	12.9
사무직	55.0	45.4	0.0	20.8
서비스/판매직	65.4	28.2	6.6	7.1
생산/기술직	71.9	71.9	71.9	28.1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0	100.0	0.0	0.0
단순노무직	29.2	56.4	14.4	0.0
기타	-	-	-	-
무직	44.7	20.2	33.6	12.9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58.7	32.0	35.2	2.9
탈물질주의	20.6	60.8	0.0	27.0
혼합형	46.7	35.7	13.0	14.3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36.5	60.9	14.4	0.0
개인 이익 중요	55.9	26.7	14.6	6.9
둘 다 중요	46.4	36.8	21.0	16.8

19-3-2.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대응-도움 요청한 민간기관·전문가의 도움 정도

(단위: %, 점)

	매우 도움이 되었다	다소 도움이 되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평균 (4점)
전 체	12.7	53.4	32.6	1.2	2.8
| 성 별 |				
남자	15.2	34.5	47.7	2.6	2.6
여자	10.6	69.6	19.8	0.0	2.9
| 지역 |				
도 시[동 부]	14.1	53.3	31.3	1.3	2.8
농어촌[읍면부]	0.0	55.0	45.0	0.0	2.6
| 연 령 |				
20대 이하	13.4	59.3	27.3	0.0	2.9
30대	0.0	33.0	67.0	0.0	2.3
40대	14.0	59.0	23.4	3.7	2.8
50대	27.2	38.8	34.0	0.0	2.9
60대 이상	5.5	69.9	24.6	0.0	2.8
| 학 력 |				
중졸 이하	0.0	100.0	0.0	0.0	3.0
고졸 이하	17.7	47.9	34.4	0.0	2.8
대졸 이하	10.2	46.4	40.9	2.5	2.6
대학원졸 이상	10.6	89.4	0.0	0.0	3.1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9.5	35.8	24.7	0.0	3.1
사무직	8.3	59.2	32.5	0.0	2.8
서비스/판매직	8.2	83.2	3.1	5.5	2.9
생산/기술직	0.0	71.9	28.1	0.0	2.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0	100.0	0.0	0.0	3.0
단순노무직	8.3	40.3	51.4	0.0	2.6
기타	-	-	-	-	-
무직	3.2	39.9	56.9	0.0	2.5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8.9	70.1	21.0	0.0	2.9
탈물질주의	49.9	33.0	17.0	0.0	3.3
혼합형	6.8	48.3	42.7	2.2	2.6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3.2	55.8	31.0	0.0	2.8
개인 이익 중요	7.9	47.0	45.1	0.0	2.6
둘 다 중요	14.5	55.4	28.1	1.9	2.8

19-4.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대응-아무런 행동하지 않은 이유

(단위: %)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짐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함	신고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림	가해자 처벌이 어려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움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움	어떻게 대응할지 모름	기타
전 체	33.9	21.8	6.1	8.2	3.0	3.4	21.6	2.1
| 성 별 |								
남자	35.4	23.4	6.1	8.2	2.7	3.6	19.0	1.5
여자	32.6	20.4	6.0	8.2	3.2	3.3	23.8	2.6
| 지역 |								
도 시[동 부]	34.4	21.0	6.1	7.8	3.2	3.6	21.6	2.1
농어촌[읍면부]	30.6	26.7	5.6	10.4	1.4	2.0	21.2	2.0
| 연 령 |								
20대 이하	32.3	24.3	5.7	8.5	2.9	4.8	18.1	3.4
30대	31.6	18.0	5.8	11.8	3.5	2.8	23.9	2.7
40대	38.5	17.6	7.3	8.9	3.2	1.8	20.4	2.3
50대	37.4	23.3	6.8	5.0	2.9	4.1	19.8	0.6
60대 이상	30.3	25.0	5.0	6.8	2.5	3.3	25.8	1.2
| 학 력 |								
중졸 이하	31.9	26.6	5.5	3.6	2.2	2.8	26.3	1.2
고졸 이하	35.9	23.7	5.5	6.6	2.2	3.0	21.2	1.9
대졸 이하	33.5	18.6	5.9	10.4	3.8	4.1	21.1	2.6
대학원졸 이상	24.2	22.1	16.6	15.5	2.9	2.8	15.1	0.9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2.0	16.4	8.3	13.7	5.0	2.8	18.5	3.2
사무직	35.1	18.0	6.7	11.2	3.0	3.3	21.0	1.7
서비스/판매직	36.5	22.4	6.7	7.0	2.4	3.7	19.2	2.1
생산/기술직	38.9	22.7	4.1	8.4	2.6	3.2	18.7	1.4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5.1	33.3	11.5	7.8	1.8	2.2	14.5	3.9
단순노무직	44.8	21.4	5.0	5.2	2.7	3.4	16.7	0.8
기타	38.7	25.2	18.0	0.0	0.0	0.0	18.1	0.0
무직	28.9	24.9	4.8	5.8	2.7	3.7	27.1	2.2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33.4	24.3	6.2	8.3	1.8	2.9	20.8	2.2
탈물질주의	29.7	18.7	5.4	7.7	4.8	3.2	28.3	2.3
혼합형	34.8	20.8	6.1	8.2	3.4	3.7	21.0	2.0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33.0	22.5	6.7	5.8	3.7	3.0	22.8	2.6
개인 이익 중요	34.6	22.0	5.4	8.4	2.3	3.4	22.6	1.3
둘 다 중요	34.0	21.6	6.1	8.5	3.0	3.5	21.2	2.2

Ⅲ 인권 관련 쟁점

20-1) 인권 쟁점-사형제도의 존폐

(단위: %, 점)

	매우 유지해야 한다	다소 유지해야 한다	다소 폐지해야 한다	매우 폐지해야 한다	평균 (4점)
전 체	58.4	24.2	9.1	8.3	3.3
| 성 별 |				
남자	58.7	23.1	9.1	9.1	3.3
여자	58.0	25.2	9.1	7.6	3.3
| 지역 |				
도 시[동 부]	57.5	24.9	9.4	8.3	3.3
농어촌[읍면부]	62.5	20.9	7.9	8.7	3.4
| 연 령 |				
20대 이하	55.6	27.3	10.5	6.7	3.3
30대	58.2	25.8	8.5	7.4	3.3
40대	55.1	25.8	9.3	9.8	3.3
50대	58.5	21.5	9.0	11.0	3.3
60대 이상	62.2	22.2	8.6	7.1	3.4
| 학 력 |				
중졸 이하	63.6	22.5	8.0	6.0	3.4
고졸 이하	59.7	23.9	8.7	7.7	3.4
대졸 이하	55.2	25.4	10.1	9.3	3.3
대학원졸 이상	52.6	20.8	8.3	18.4	3.1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56.5	22.8	8.6	12.1	3.2
사무직	55.5	27.5	9.9	7.1	3.3
서비스/판매직	56.2	25.0	9.8	9.0	3.3
생산/기술직	60.8	21.9	9.0	8.3	3.4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61.5	22.3	9.0	7.1	3.4
단순노무직	62.8	19.8	8.7	8.7	3.4
기타	60.4	16.2	9.7	13.7	3.2
무직	59.7	24.1	8.7	7.4	3.4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62.7	21.4	7.7	8.1	3.4
탈물질주의	46.2	31.9	11.4	10.4	3.1
혼합형	57.2	24.9	9.7	8.2	3.3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59.4	21.5	9.9	9.2	3.3
개인 이익 중요	54.3	27.6	10.9	7.2	3.3
둘 다 중요	58.9	24.0	8.7	8.4	3.3

20-1-1) 인권 쟁점-대체형벌의 도입

(단위: %, 점)

	매우 찬성한다	다소 찬성한다	다소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평균 (4점)
전 체	15.8	19.6	30.4	34.3	2.2
| 성 별 |				
남자	15.9	20.1	28.5	35.6	2.2
여자	15.7	19.0	32.2	33.0	2.2
| 지역 |				
도 시[동 부]	15.8	19.9	31.0	33.4	2.2
농어촌[읍면부]	15.8	18.1	27.6	38.5	2.1
| 연 령 |				
20대 이하	14.0	22.3	31.6	32.2	2.2
30대	15.2	19.9	27.6	37.2	2.1
40대	17.8	18.1	27.9	36.2	2.2
50대	17.9	18.9	29.7	33.5	2.2
60대 이상	14.4	19.1	33.2	33.2	2.1
| 학 력 |				
중졸 이하	13.3	19.0	35.3	32.5	2.1
고졸 이하	16.4	18.4	30.7	34.4	2.2
대졸 이하	15.8	20.9	28.6	34.7	2.2
대학원졸 이상	23.7	18.5	19.1	38.7	2.3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1.7	17.4	23.5	37.4	2.2
사무직	12.1	20.9	31.9	35.1	2.1
서비스/판매직	14.9	21.0	28.6	35.5	2.2
생산/기술직	17.0	17.5	29.5	36.0	2.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6.2	15.6	30.3	37.9	2.1
단순노무직	18.4	19.3	26.9	35.4	2.2
기타	26.1	19.1	14.3	40.5	2.3
무직	15.3	19.8	33.6	31.4	2.2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4.5	18.3	29.5	37.7	2.1
탈물질주의	18.8	23.1	32.3	25.9	2.3
혼합형	16.2	19.9	30.7	33.3	2.2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6.7	19.4	29.2	34.6	2.2
개인 이익 중요	12.8	21.3	32.6	33.2	2.1
둘 다 중요	16.1	19.3	30.2	34.4	2.2

20-2) 인권 쟁점-강력 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단위: %, 점)

	매우 찬성한다	다소 찬성한다	다소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평균 (4점)
전 체	**78.4**	**16.5**	**3.5**	**1.6**	**3.7**
| 성 별 |				
남자	78.3	16.6	3.5	1.6	3.7
여자	78.4	16.4	3.6	1.5	3.7
| 지역 |				
도 시[동 부]	77.7	16.9	3.8	1.6	3.7
농어촌[읍면부]	81.8	14.4	2.5	1.3	3.8
| 연 령 |				
20대 이하	77.6	18.0	2.5	1.9	3.7
30대	77.3	17.0	4.1	1.6	3.7
40대	78.5	16.5	3.3	1.7	3.7
50대	79.0	15.4	4.0	1.5	3.7
60대 이상	79.0	16.1	3.7	1.3	3.7
| 학 력 |				
중졸 이하	79.5	15.8	3.1	1.6	3.7
고졸 이하	79.3	15.7	3.2	1.7	3.7
대졸 이하	76.9	17.7	3.9	1.5	3.7
대학원졸 이상	80.5	13.3	5.3	0.9	3.7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81.5	13.4	3.4	1.7	3.7
사무직	73.3	20.8	4.6	1.3	3.7
서비스/판매직	76.2	17.8	4.3	1.7	3.7
생산/기술직	79.8	15.0	2.9	2.4	3.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83.3	12.8	2.9	0.9	3.8
단순노무직	81.1	14.6	2.9	1.4	3.8
기타	88.8	4.9	0.0	6.2	3.8
무직	79.5	15.9	3.0	1.5	3.7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79.8	15.1	3.3	1.8	3.7
탈물질주의	69.2	25.5	4.2	1.1	3.6
혼합형	78.6	16.3	3.6	1.5	3.7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78.0	16.1	4.3	1.5	3.7
개인 이익 중요	68.7	23.9	5.3	2.1	3.6
둘 다 중요	80.1	15.3	3.1	1.5	3.7

20-3) 인권 쟁점-국정원의 사이버 감찰

(단위: %, 점)

	매우 찬성한다	다소 찬성한다	다소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평균 (4점)
전 체	**10.3**	**21.5**	**31.8**	**36.4**	**2.1**
| 성 별 |				
남자	10.3	20.8	30.4	38.5	2.0
여자	10.3	22.1	33.2	34.4	2.1
| 지역 |				
도 시[동 부]	10.4	21.2	31.9	36.5	2.1
농어촌[읍면부]	9.8	22.9	31.4	36.0	2.1
| 연 령 |				
20대 이하	11.8	21.0	30.2	37.0	2.1
30대	9.2	20.8	31.7	38.4	2.0
40대	11.0	19.6	30.9	38.5	2.0
50대	9.8	19.9	29.8	40.5	2.0
60대 이상	9.9	24.5	34.9	30.7	2.1
| 학 력 |				
중졸 이하	11.0	26.0	35.9	27.1	2.2
고졸 이하	11.2	20.9	31.0	36.9	2.1
대졸 이하	9.3	20.5	31.3	38.9	2.0
대학원졸 이상	8.5	13.9	23.9	53.7	1.8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9.9	16.6	28.3	45.1	1.9
사무직	8.5	20.5	32.5	38.4	2.0
서비스/판매직	9.7	22.9	29.7	37.6	2.0
생산/기술직	13.2	20.2	32.0	34.6	2.1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7.3	29.4	31.1	32.2	2.1
단순노무직	12.2	22.7	29.0	36.1	2.1
기타	19.8	18.7	22.6	38.9	2.2
무직	10.7	21.9	34.3	33.1	2.1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0.1	19.7	31.1	39.1	2.0
탈물질주의	8.5	21.1	36.6	33.8	2.0
혼합형	10.6	22.6	31.7	35.1	2.1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3.9	23.6	28.9	33.6	2.2
개인 이익 중요	10.0	20.9	35.8	33.3	2.1
둘 다 중요	9.8	21.3	31.6	37.3	2.0

20-4) 인권 쟁점-국가보안법의 존폐

(단위: %, 점)

	매우 유지해야 한다	다소 유지해야 한다	다소 폐지해야 한다	매우 폐지해야 한다	평균 (4점)
전 체	**38.3**	**35.8**	**17.5**	**8.4**	**3.0**
| 성 별 |				
남자	38.7	34.0	17.5	9.9	3.0
여자	37.9	37.6	17.5	7.0	3.1
| 지역 |				
도 시[동 부]	37.1	36.0	18.4	8.6	3.0
농어촌[읍면부]	43.9	35.0	13.4	7.6	3.2
| 연 령 |				
20대 이하	33.9	40.4	18.8	6.8	3.0
30대	34.8	37.3	19.8	8.1	3.0
40대	31.3	36.9	19.5	12.4	2.9
50대	38.0	31.3	19.2	11.5	3.0
60대 이상	47.7	34.6	13.0	4.7	3.3
| 학 력 |				
중졸 이하	46.5	38.0	12.2	3.4	3.3
고졸 이하	41.3	34.8	16.5	7.4	3.1
대졸 이하	32.4	36.4	20.5	10.7	2.9
대학원졸 이상	31.8	25.8	21.6	20.9	2.7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5.0	31.7	19.4	13.9	2.9
사무직	31.2	39.2	21.4	8.3	2.9
서비스/판매직	36.7	35.4	18.6	9.2	3.0
생산/기술직	38.3	33.7	18.6	9.3	3.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4.6	40.7	10.2	4.4	3.3
단순노무직	44.4	34.0	14.5	7.1	3.2
기타	64.7	19.1	0.0	16.2	3.3
무직	41.5	36.2	15.6	6.7	3.1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46.7	30.1	15.7	7.4	3.2
탈물질주의	20.8	41.6	22.9	14.7	2.7
혼합형	35.3	38.5	17.9	8.2	3.0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44.8	30.4	16.7	8.1	3.1
개인 이익 중요	32.7	37.8	20.0	9.5	2.9
둘 다 중요	38.2	36.3	17.2	8.3	3.0

20-4-1) 인권 쟁점-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안보 사안에 형법 등 다른 법률 적용

(단위: %, 점)

	매우 찬성한다	다소 찬성한다	다소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평균 (4점)
전 체	14.0	36.5	32.9	16.6	2.5
| 성 별 |				
남자	15.5	35.3	31.7	17.5	2.5
여자	12.5	37.7	34.0	15.7	2.5
| 지역 |				
도 시[동 부]	14.2	36.7	32.9	16.2	2.5
농어촌[읍면부]	12.9	35.8	32.7	18.6	2.4
| 연 령 |				
20대 이하	12.5	43.0	31.3	13.2	2.5
30대	14.4	38.7	30.9	15.9	2.5
40대	18.1	36.5	30.6	14.8	2.6
50대	15.9	35.3	31.0	17.8	2.5
60대 이상	10.5	32.3	37.8	19.4	2.3
| 학 력 |				
중졸 이하	8.3	34.2	39.9	17.7	2.3
고졸 이하	14.3	35.7	32.7	17.4	2.5
대졸 이하	15.6	38.6	30.7	15.1	2.5
대학원졸 이상	23.5	31.5	22.4	22.7	2.6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9.6	37.7	25.5	17.2	2.6
사무직	14.1	39.3	31.8	14.8	2.5
서비스/판매직	14.8	38.2	30.3	16.7	2.5
생산/기술직	16.3	33.9	34.1	15.7	2.5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9.2	37.2	36.8	16.8	2.4
단순노무직	14.4	31.0	34.0	20.7	2.4
기타	16.8	21.8	33.8	27.5	2.3
무직	11.6	35.5	36.2	16.7	2.4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2.0	33.8	31.6	22.5	2.4
탈물질주의	18.6	38.0	33.7	9.7	2.7
혼합형	14.6	38.0	33.6	13.9	2.5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8.4	35.1	29.2	17.3	2.5
개인 이익 중요	11.7	36.7	35.6	16.0	2.4
둘 다 중요	13.7	36.7	33.0	16.6	2.5

20-5) 인권 쟁점-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정도

(단위: %, 점)

	보장해야 한다	다소 보장해야 한다	다소 제한해야 한다	제한해야 한다	평균 (4점)
전 체	32.8	42.5	19.1	5.6	3.0
| 성 별 |				
남자	35.0	41.4	18.2	5.3	3.1
여자	30.7	43.5	19.9	5.9	3.0
| 지역 |				
도 시[동 부]	33.1	42.5	18.9	5.5	3.0
농어촌[읍면부]	31.8	42.3	19.8	6.1	3.0
| 연 령 |				
20대 이하	35.6	44.3	16.4	3.6	3.1
30대	37.4	41.7	15.9	5.0	3.1
40대	35.2	42.1	17.9	4.8	3.1
50대	34.9	41.2	18.9	4.9	3.1
60대 이상	25.6	42.9	23.4	8.1	2.9
| 학 력 |				
중졸 이하	21.6	44.4	25.4	8.6	2.8
고졸 이하	34.0	41.5	18.5	6.0	3.0
대졸 이하	35.4	43.1	17.4	4.1	3.1
대학원졸 이상	53.4	33.9	9.8	2.8	3.4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44.2	38.9	12.1	4.8	3.2
사무직	32.9	44.8	18.7	3.6	3.1
서비스/판매직	32.7	42.7	19.0	5.6	3.0
생산/기술직	33.0	42.4	19.9	4.7	3.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4.0	47.1	20.8	8.0	2.9
단순노무직	34.0	37.8	20.0	8.2	3.0
기타	25.0	48.5	26.6	0.0	3.0
무직	30.1	42.7	20.9	6.3	3.0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35.6	40.5	17.8	6.1	3.1
탈물질주의	32.0	45.0	19.0	4.1	3.0
혼합형	31.3	43.3	19.9	5.5	3.0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33.2	39.8	19.2	7.8	3.0
개인 이익 중요	31.0	42.9	20.2	5.9	3.0
둘 다 중요	33.1	42.8	18.9	5.2	3.0

20-6) 인권 쟁점-학생 체벌

(단위: %, 점)

	매우 허용될 수 있다	다소 허용될 수 있다	다소 금지되어야 한다	매우 금지되어야 한다	평균 (4점)
전 체	19.2	37.1	25.8	17.9	2.6
| 성 별 |				
남자	21.3	37.8	24.6	16.3	2.6
여자	17.1	36.4	26.9	19.5	2.5
| 지역 |				
도 시[동 부]	18.4	36.6	26.3	18.7	2.5
농어촌[읍면부]	22.6	39.4	23.6	14.5	2.7
| 연 령 |				
20대 이하	21.2	32.4	26.3	20.0	2.5
30대	22.1	31.9	26.2	19.8	2.6
40대	17.7	35.1	26.9	20.3	2.5
50대	18.1	38.0	25.7	18.2	2.6
60대 이상	18.1	43.5	24.6	13.9	2.7
| 학 력 |				
중졸 이하	16.3	44.9	23.7	15.0	2.6
고졸 이하	21.5	37.2	24.6	16.8	2.6
대졸 이하	18.1	33.9	28.0	19.9	2.5
대학원졸 이상	22.1	31.6	22.6	23.7	2.5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2.3	33.3	24.5	19.9	2.6
사무직	16.2	33.3	29.8	20.7	2.4
서비스/판매직	21.4	35.5	25.7	17.4	2.6
생산/기술직	21.4	38.9	25.4	14.3	2.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9.0	43.1	22.7	15.3	2.7
단순노무직	24.6	37.7	20.0	17.8	2.7
기타	37.1	28.1	20.4	14.4	2.9
무직	16.9	39.7	25.9	17.6	2.6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20.6	38.5	24.8	16.0	2.6
탈물질주의	15.5	35.8	27.5	21.2	2.5
혼합형	18.7	36.4	26.2	18.7	2.6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22.2	37.2	23.4	17.2	2.6
개인 이익 중요	18.8	36.3	26.7	18.2	2.6
둘 다 중요	18.8	37.2	26.0	18.0	2.6

20-7) 인권 쟁점-한국에서 난민의 인정

(단위: %, 점)

	되도록 받아들여야 한다	다소 받아들여야 한다	다소 제한해야 한다	되도록 제한해야 한다	평균 (4점)
전 체	7.6	31.1	38.4	22.9	2.2
| 성 별 |					
남자	8.3	31.5	37.4	22.8	2.3
여자	6.8	30.7	39.4	23.1	2.2
| 지역 |					
도 시[동 부]	7.5	30.9	38.9	22.7	2.2
농어촌[읍면부]	7.7	32.3	36.2	23.8	2.2
| 연 령 |					
20대 이하	4.9	30.9	37.9	26.3	2.1
30대	5.2	30.4	37.0	27.4	2.1
40대	9.2	33.3	38.3	19.2	2.3
50대	9.0	33.5	37.1	20.3	2.3
60대 이상	8.4	28.6	40.4	22.6	2.2
| 학 력 |					
중졸 이하	7.1	28.5	41.4	23.0	2.2
고졸 이하	8.1	31.2	37.8	23.0	2.2
대졸 이하	7.1	32.1	37.9	22.9	2.2
대학원졸 이상	11.4	33.2	33.0	22.3	2.3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0.2	34.2	32.3	23.3	2.3
사무직	6.1	30.7	41.9	21.3	2.2
서비스/판매직	7.7	32.2	37.2	22.9	2.2
생산/기술직	7.5	32.1	37.8	22.6	2.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6.4	32.8	37.8	23.0	2.2
단순노무직	8.7	27.2	36.2	27.9	2.2
기타	8.0	24.6	28.4	39.0	2.0
무직	7.3	30.0	40.0	22.7	2.2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7.3	28.8	37.7	26.1	2.2
탈물질주의	9.9	32.5	35.7	21.9	2.3
혼합형	7.4	32.4	39.1	21.1	2.3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0.2	31.2	35.8	22.8	2.3
개인 이익 중요	6.2	29.8	36.7	27.3	2.1
둘 다 중요	7.4	31.3	39.1	22.2	2.2

20-8) 인권 쟁점-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단위: %, 점)

	매우 찬성한다	다소 찬성한다	다소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평균 (4점)
전 체	17.0	47.0	25.8	10.2	2.7
| 성 별 |					
남자	13.3	42.6	29.3	14.8	2.5
여자	20.6	51.3	22.3	5.8	2.9
| 지역 |					
도 시[동 부]	17.0	46.5	26.2	10.3	2.7
농어촌[읍면부]	17.0	49.2	24.0	9.9	2.7
| 연 령 |					
20대 이하	15.2	40.8	27.2	16.8	2.5
30대	16.1	42.7	27.0	14.1	2.6
40대	18.2	45.9	26.2	9.6	2.7
50대	18.2	48.5	25.1	8.2	2.8
60대 이상	16.9	52.7	24.4	6.0	2.8
| 학 력 |					
중졸 이하	16.0	55.9	23.8	4.4	2.8
고졸 이하	19.1	46.5	23.9	10.5	2.7
대졸 이하	15.6	44.2	28.3	11.9	2.6
대학원졸 이상	15.9	37.2	26.9	20.0	2.5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6.0	40.4	26.6	17.0	2.6
사무직	16.0	46.7	27.8	9.6	2.7
서비스/판매직	17.4	45.1	26.2	11.2	2.7
생산/기술직	15.5	44.4	28.7	11.4	2.6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3.9	53.9	24.7	7.5	2.7
단순노무직	20.4	48.7	22.7	8.3	2.8
기타	14.0	17.2	32.6	36.2	2.1
무직	17.6	49.9	24.4	8.2	2.8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7.7	43.7	26.4	12.1	2.7
탈물질주의	17.0	55.1	20.5	7.4	2.8
혼합형	16.5	48.0	26.0	9.5	2.7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22.4	45.6	22.4	9.6	2.8
개인 이익 중요	16.6	45.1	25.4	12.9	2.7
둘 다 중요	16.2	47.5	26.4	9.9	2.7

20-9) 인권 쟁점-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단위: %, 점)

	매우 찬성한다	다소 찬성한다	다소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평균 (4점)
전 체	18.6	51.8	24.0	5.6	2.8
| 성 별 |					
남자	18.7	50.5	24.2	6.6	2.8
여자	18.5	53.1	23.9	4.5	2.9
| 지역 |					
도 시[동 부]	18.5	51.4	24.5	5.5	2.8
농어촌[읍면부]	19.0	53.4	21.9	5.7	2.9
| 연 령 |					
20대 이하	17.2	53.6	21.9	7.3	2.8
30대	17.5	48.6	26.1	7.7	2.8
40대	18.7	52.5	22.9	5.9	2.8
50대	20.2	50.7	24.7	4.4	2.9
60대 이상	18.9	52.7	24.4	3.9	2.9
| 학 력 |					
중졸 이하	18.6	54.2	23.9	3.2	2.9
고졸 이하	20.3	51.0	23.7	5.0	2.9
대졸 이하	16.7	51.6	24.6	7.1	2.8
대학원졸 이상	24.2	49.0	20.1	6.7	2.9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9.3	51.5	20.2	9.0	2.8
사무직	14.8	52.1	27.0	6.1	2.8
서비스/판매직	18.5	49.2	25.9	6.5	2.8
생산/기술직	19.2	51.7	24.7	4.3	2.9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8.3	52.5	24.3	5.0	2.8
단순노무직	26.6	46.6	21.6	5.1	2.9
기타	25.5	37.0	6.2	31.3	2.6
무직	18.6	54.0	23.2	4.1	2.9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9.1	51.3	23.6	6.0	2.8
탈물질주의	22.2	53.8	19.0	4.9	2.9
혼합형	17.9	51.9	24.9	5.4	2.8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24.0	49.9	20.1	6.0	2.9
개인 이익 중요	15.8	46.8	29.3	8.1	2.7
둘 다 중요	18.3	52.9	23.8	5.1	2.8

21-1) 정보인권 관련 민감도
-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를 체크할 때, 관련된 내용을 모두 확인한다

(단위: %, 점)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4점)
전 체	10.7	39.6	36.5	13.1	2.5
| 성 별 |				
남자	11.3	41.1	35.6	12.0	2.5
여자	10.1	38.2	37.4	14.3	2.6
| 지역 |				
도 시[동 부]	11.0	41.3	36.3	11.4	2.5
농어촌[읍면부]	9.2	32.2	37.7	20.9	2.7
| 연 령 |				
20대 이하	13.8	40.5	33.4	12.2	2.4
30대	13.3	42.2	33.0	11.4	2.4
40대	12.5	42.5	35.9	9.1	2.4
50대	10.1	43.4	38.2	8.4	2.4
60대 이상	6.7	33.2	39.6	20.6	2.7
| 학 력 |				
중졸 이하	4.8	28.5	39.3	27.4	2.9
고졸 이하	11.5	40.0	37.8	10.8	2.5
대졸 이하	12.3	44.0	34.7	9.0	2.4
대학원졸 이상	16.1	42.0	28.7	13.3	2.4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3.4	38.5	35.8	12.3	2.5
사무직	13.7	48.1	30.3	8.0	2.3
서비스/판매직	12.0	40.8	37.1	10.1	2.5
생산/기술직	11.2	39.7	38.5	10.5	2.5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7.8	23.8	35.1	33.3	2.9
단순노무직	6.3	36.4	41.4	15.9	2.7
기타	0.0	59.3	40.7	0.0	2.4
무직	8.8	37.7	37.9	15.6	2.6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0.5	39.7	35.1	14.7	2.5
탈물질주의	13.3	37.3	35.4	14.0	2.5
혼합형	10.5	39.9	37.5	12.1	2.5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1.1	41.7	34.0	13.2	2.5
개인 이익 중요	13.3	39.4	35.6	11.7	2.5
둘 다 중요	10.2	39.3	37.1	13.4	2.5

21-2) 정보인권 관련 민감도
-스마트폰,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나의 신상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될 것 같아 불안하다

(단위: %, 점)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4점)
전 체	**29.1**	**49.6**	**17.4**	**4.0**	**2.0**
| 성 별 |				
남자	28.2	49.8	18.1	3.9	2.0
여자	29.9	49.4	16.7	4.0	1.9
| 지역 |				
도 시[동 부]	29.1	51.1	16.7	3.2	1.9
농어촌[읍면부]	29.2	42.5	20.8	7.6	2.1
| 연 령 |				
20대 이하	28.2	48.9	18.6	4.2	2.0
30대	31.5	49.6	16.6	2.3	1.9
40대	32.8	49.9	14.7	2.7	1.9
50대	30.5	51.8	15.0	2.6	1.9
60대 이상	24.8	48.1	20.5	6.5	2.1
| 학 력 |				
중졸 이하	22.7	46.1	22.5	8.8	2.2
고졸 이하	30.2	49.8	17.0	3.0	1.9
대졸 이하	30.2	51.1	16.0	2.7	1.9
대학원졸 이상	39.4	46.0	11.2	3.4	1.8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1.8	50.8	14.5	2.8	1.9
사무직	31.6	51.1	14.4	2.9	1.9
서비스/판매직	30.3	49.5	17.7	2.5	1.9
생산/기술직	28.2	49.3	18.5	4.0	2.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4.7	38.7	25.0	11.5	2.2
단순노무직	27.4	48.9	18.0	5.6	2.0
기타	24.8	51.6	23.6	0.0	2.0
무직	27.4	49.8	18.3	4.6	2.0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31.2	47.9	17.4	3.5	1.9
탈물질주의	30.0	48.5	17.2	4.3	2.0
혼합형	27.7	50.6	17.4	4.2	2.0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30.6	45.9	19.0	4.5	2.0
개인 이익 중요	28.5	48.5	19.9	3.0	2.0
둘 다 중요	28.9	50.3	16.8	4.0	2.0

21-3) 정보인권 관련 민감도
-안전을 위해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이다

(단위: %, 점)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4점)
전 체	6.4	24.0	43.2	26.5	2.9
| 성 별 |				
남자	6.7	24.4	43.0	25.9	2.9
여자	6.0	23.5	43.4	27.0	2.9
| 지역 |				
도 시[동 부]	6.2	24.5	43.5	25.9	2.9
농어촌[읍면부]	7.4	21.7	41.9	29.1	2.9
| 연 령 |				
20대 이하	7.5	22.7	43.9	25.9	2.9
30대	6.3	22.9	44.0	26.8	2.9
40대	6.7	25.3	44.3	23.7	2.9
50대	7.8	27.0	40.8	24.3	2.8
60대 이상	4.5	22.2	43.3	29.9	3.0
| 학 력 |				
중졸 이하	4.5	19.8	40.8	34.9	3.1
고졸 이하	6.7	24.1	44.1	25.1	2.9
대졸 이하	6.7	26.0	43.3	24.1	2.8
대학원졸 이상	9.8	19.5	45.8	24.9	2.9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6.0	24.3	43.7	26.0	2.9
사무직	8.4	25.4	42.9	23.3	2.8
서비스/판매직	8.1	25.3	42.9	23.7	2.8
생산/기술직	6.2	24.2	43.4	26.3	2.9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5.4	21.5	41.7	31.3	3.0
단순노무직	4.4	22.8	42.1	30.7	3.0
기타	0.0	21.7	47.4	30.9	3.1
무직	5.1	22.9	43.7	28.3	3.0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6.4	23.1	42.5	28.0	2.9
탈물질주의	6.7	23.0	46.6	23.8	2.9
혼합형	6.3	24.6	43.3	25.8	2.9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6.3	24.1	40.0	29.6	2.9
개인 이익 중요	9.1	32.7	39.3	18.9	2.7
둘 다 중요	5.9	22.5	44.3	27.2	2.9

22-1) 아동·청소년 권리 쟁점에 대한 동의 수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므로 부모/교사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

(단위: %, 점)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13.1	60.1	24.4	2.4	2.8
| 성 별 |				
남자	13.1	60.2	24.2	2.5	2.8
여자	13.1	60.0	24.5	2.3	2.8
| 지역 |				
도 시[동 부]	12.2	60.7	24.5	2.6	2.8
농어촌[읍면부]	17.5	57.2	23.6	1.7	2.9
| 연 령 |				
20대 이하	10.2	52.1	33.5	4.2	2.7
30대	10.1	58.8	27.0	4.1	2.7
40대	11.5	59.3	26.2	2.9	2.8
50대	13.2	62.2	23.2	1.4	2.9
60대 이상	17.6	64.7	17.0	0.7	3.0
| 학 력 |				
중졸 이하	18.5	64.8	16.0	0.6	3.0
고졸 이하	13.8	60.9	22.9	2.3	2.9
대졸 이하	10.4	57.8	28.7	3.0	2.8
대학원졸 이상	8.9	51.3	33.7	6.1	2.6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0.6	56.9	28.7	3.9	2.7
사무직	10.4	56.3	29.6	3.7	2.7
서비스/판매직	12.7	59.7	25.1	2.5	2.8
생산/기술직	14.2	62.1	21.7	2.0	2.9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5.2	60.4	13.6	0.8	3.1
단순노무직	15.0	61.9	21.3	1.8	2.9
기타	15.8	53.6	30.6	0.0	2.9
무직	13.6	62.1	22.6	1.7	2.9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4.7	61.2	22.1	2.0	2.9
탈물질주의	11.3	56.0	28.8	3.8	2.7
혼합형	12.4	59.9	25.2	2.5	2.8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7.4	65.6	15.6	1.5	3.0
개인 이익 중요	11.5	61.6	24.0	2.9	2.8
둘 다 중요	12.8	59.0	25.8	2.5	2.8

22-2) 아동·청소년 권리 쟁점에 대한 동의 수준
-아동·청소년도 사회·정치문제에 관심 갖고 의견제시 등의 참여할 필요있다

(단위: %, 점)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14.5	56.8	24.3	4.5	2.8
| 성 별 |				
남자	15.1	56.7	23.7	4.5	2.8
여자	13.9	56.8	24.9	4.5	2.8
| 지역 |				
도 시[동 부]	14.8	57.1	24.1	4.0	2.8
농어촌[읍면부]	12.9	55.2	24.9	7.0	2.7
| 연 령 |				
20대 이하	18.4	57.6	20.9	3.1	2.9
30대	17.9	58.2	21.2	2.7	2.9
40대	15.3	60.0	21.8	2.9	2.9
50대	12.3	57.8	25.4	4.5	2.8
60대 이상	11.1	52.5	29.0	7.4	2.7
| 학 력 |				
중졸 이하	10.2	51.3	29.7	8.8	2.6
고졸 이하	14.3	57.2	24.0	4.5	2.8
대졸 이하	16.1	58.7	22.4	2.7	2.9
대학원졸 이상	19.4	57.6	20.3	2.7	2.9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6.9	60.7	19.4	3.0	2.9
사무직	17.0	59.0	21.1	2.9	2.9
서비스/판매직	16.2	54.7	24.4	4.7	2.8
생산/기술직	14.7	58.3	22.5	4.5	2.8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0.5	50.0	29.2	10.3	2.6
단순노무직	8.3	55.1	28.1	8.4	2.6
기타	29.1	45.4	25.5	0.0	3.0
무직	13.0	56.3	26.4	4.4	2.8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4.7	53.5	26.0	5.9	2.8
탈물질주의	18.0	59.3	20.5	2.2	2.9
혼합형	13.9	58.4	23.7	3.9	2.8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6.3	55.1	24.1	4.5	2.8
개인 이익 중요	16.0	56.1	23.7	4.2	2.8
둘 다 중요	13.9	57.1	24.4	4.6	2.8

22-3) 아동·청소년 권리 쟁점에 대한 동의 수준
-초중고교 정규 수업시간에 인권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단위: %, 점)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28.7	61.3	8.9	1.2	3.2
| 성 별 |					
남자	28.7	60.5	9.6	1.2	3.2
여자	28.7	62.0	8.1	1.1	3.2
| 지역 |					
도 시[동 부]	29.0	61.2	8.6	1.2	3.2
농어촌[읍면부]	27.5	61.4	10.3	0.8	3.2
| 연 령 |					
20대 이하	30.7	58.4	9.5	1.4	3.2
30대	28.5	61.3	8.9	1.2	3.2
40대	29.3	60.9	8.4	1.4	3.2
50대	28.0	60.9	10.0	1.2	3.2
60대 이상	27.8	63.4	8.0	0.8	3.2
| 학 력 |					
중졸 이하	26.9	65.4	6.9	0.8	3.2
고졸 이하	28.3	62.1	8.5	1.1	3.2
대졸 이하	29.5	59.3	9.9	1.3	3.2
대학원졸 이상	35.5	52.1	11.1	1.4	3.2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1.5	57.4	9.8	1.3	3.2
사무직	29.6	60.5	8.6	1.4	3.2
서비스/판매직	29.0	59.1	10.7	1.2	3.2
생산/기술직	26.5	62.7	9.5	1.2	3.1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9.8	59.8	9.0	1.4	3.2
단순노무직	24.9	67.1	6.4	1.5	3.2
기타	34.0	61.0	4.9	0.0	3.3
무직	28.4	62.8	7.9	0.9	3.2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28.4	61.0	9.2	1.4	3.2
탈물질주의	30.6	59.7	8.6	1.1	3.2
혼합형	28.7	61.6	8.7	1.0	3.2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29.3	61.7	7.3	1.6	3.2
개인 이익 중요	27.4	59.8	11.1	1.7	3.1
둘 다 중요	28.8	61.4	8.7	1.0	3.2

23-1) 가족, 이웃, 친구 중 관계 유무-장애인

(단위: %)

	있다	없다
전 체	29.7	70.3
| 성 별 |		
남자	30.3	69.7
여자	29.0	71.0
| 지역 |		
도 시[동 부]	29.0	71.0
농어촌[읍면부]	32.8	67.2
| 연 령 |		
20대 이하	23.2	76.8
30대	26.9	73.1
40대	29.0	71.0
50대	30.9	69.1
60대 이상	34.6	65.4
| 학 력 |		
중졸 이하	37.3	62.7
고졸 이하	29.6	70.4
대졸 이하	26.1	73.9
대학원졸 이상	34.6	65.4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1.2	68.8
사무직	24.4	75.6
서비스/판매직	27.3	72.7
생산/기술직	29.9	70.1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3.8	56.2
단순노무직	35.9	64.1
기타	39.3	60.7
무직	30.3	69.7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28.4	71.6
탈물질주의	32.4	67.6
혼합형	30.1	69.9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32.0	68.0
개인 이익 중요	28.2	71.8
둘 다 중요	29.5	70.5

23-2) 가족, 이웃, 친구 중 관계 유무-결혼이주민

(단위: %)

	있다	없다
전 체	10.9	89.1
| 성 별 |		
남자	10.6	89.4
여자	11.1	88.9
| 지역 |		
도 시[동 부]	9.5	90.5
농어촌[읍면부]	17.4	82.6
| 연 령 |		
20대 이하	6.2	93.8
30대	11.9	88.1
40대	12.5	87.5
50대	13.3	86.7
60대 이상	10.4	89.6
| 학 력 |		
중졸 이하	13.1	86.9
고졸 이하	11.1	88.9
대졸 이하	9.6	90.4
대학원졸 이상	13.6	86.4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2.2	87.8
사무직	7.6	92.4
서비스/판매직	9.9	90.1
생산/기술직	15.3	84.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9.7	70.3
단순노무직	17.0	83.0
기타	10.3	89.7
무직	8.6	91.4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9.3	90.7
탈물질주의	13.1	86.9
혼합형	11.6	88.4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3.8	86.2
개인 이익 중요	10.0	90.0
둘 다 중요	10.6	89.4

23-3) 가족, 이웃, 친구 중 관계 유무-이주노동자

(단위: %)

	있다	없다
전 체	6.7	93.3
| 성 별 |		
남자	7.8	92.2
여자	5.6	94.4
| 지역 |		
도 시[동 부]	6.3	93.7
농어촌[읍면부]	8.6	91.4
| 연 령 |		
20대 이하	4.2	95.8
30대	7.9	92.1
40대	8.2	91.8
50대	8.6	91.4
60대 이상	5.2	94.8
| 학 력 |		
중졸 이하	6.9	93.1
고졸 이하	7.0	93.0
대졸 이하	6.4	93.6
대학원졸 이상	6.4	93.6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8.4	91.6
사무직	5.7	94.3
서비스/판매직	6.4	93.6
생산/기술직	12.3	87.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2.7	87.3
단순노무직	13.3	86.7
기타	10.3	89.7
무직	3.8	96.2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5.9	94.1
탈물질주의	8.0	92.0
혼합형	7.0	93.0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9.1	90.9
개인 이익 중요	5.8	94.2
둘 다 중요	6.5	93.5

23-4) 가족, 이웃, 친구 중 관계 유무-북한이탈주민

(단위: %)

	있다	없다
전 체	1.9	98.1
| 성 별 |		
남자	2.1	97.9
여자	1.8	98.2
| 지역 |		
도 시[동 부]	2.0	98.0
농어촌[읍면부]	1.6	98.4
| 연 령 |		
20대 이하	2.1	97.9
30대	2.6	97.4
40대	2.1	97.9
50대	2.2	97.8
60대 이상	1.2	98.8
| 학 력 |		
중졸 이하	1.5	98.5
고졸 이하	2.1	97.9
대졸 이하	1.7	98.3
대학원졸 이상	6.0	94.0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8	96.2
사무직	1.3	98.7
서비스/판매직	1.9	98.1
생산/기술직	3.4	96.6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9	99.1
단순노무직	1.9	98.1
기타	5.7	94.3
무직	1.4	98.6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8	98.2
탈물질주의	3.6	96.4
혼합형	1.8	98.2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3.4	96.6
개인 이익 중요	1.8	98.2
둘 다 중요	1.7	98.3

23-5) 가족, 이웃, 친구 중 관계 유무-성소수자

(단위: %)

	있다	없다
전 체	2.3	97.7
| 성 별 |		
남자	1.8	98.2
여자	2.9	97.1
| 지역 |		
도 시[동 부]	2.5	97.5
농어촌[읍면부]	1.4	98.6
| 연 령 |		
20대 이하	7.9	92.1
30대	2.8	97.2
40대	1.6	98.4
50대	0.8	99.2
60대 이상	0.3	99.7
| 학 력 |		
중졸 이하	0.3	99.7
고졸 이하	2.8	97.2
대졸 이하	2.7	97.3
대학원졸 이상	4.6	95.4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4.2	95.8
사무직	2.2	97.8
서비스/판매직	2.8	97.2
생산/기술직	1.8	98.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7	99.3
단순노무직	1.7	98.3
기타	0.0	100.0
무직	2.0	98.0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9	98.1
탈물질주의	5.8	94.2
혼합형	2.2	97.8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2.3	97.7
개인 이익 중요	2.1	97.9
둘 다 중요	2.4	97.6

23-6) 가족, 이웃, 친구 중 관계 유무-난민

(단위: %)

	있다	없다
전 체	0.4	99.6
| 성 별 |		
남자	0.6	99.4
여자	0.3	99.7
| 지역 |		
도 시[동 부]	0.4	99.6
농어촌[읍면부]	0.4	99.6
| 연 령 |		
20대 이하	0.6	99.4
30대	0.4	99.6
40대	0.6	99.4
50대	0.3	99.7
60대 이상	0.3	99.7
| 학 력 |		
중졸 이하	0.3	99.7
고졸 이하	0.7	99.3
대졸 이하	0.3	99.7
대학원졸 이상	0.8	99.2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0.3	99.7
사무직	0.4	99.6
서비스/판매직	0.4	99.6
생산/기술직	1.3	98.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2	99.8
단순노무직	0.8	99.2
기타	0.0	100.0
무직	0.2	99.8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0.4	99.6
탈물질주의	0.7	99.3
혼합형	0.4	99.6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0.3	99.7
개인 이익 중요	0.7	99.3
둘 다 중요	0.4	99.6

24-1)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여성

(단위: %, 점)

	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평균 (4점)
전 체	1.0	7.3	45.7	46.0	3.4
| 성 별 |				
남자	1.2	7.9	47.3	43.6	3.3
여자	0.8	6.7	44.2	48.3	3.4
| 지역 |				
도 시[동 부]	1.0	7.5	45.5	46.1	3.4
농어촌[읍면부]	1.0	6.5	46.8	45.7	3.4
| 연 령 |				
20대 이하	1.2	5.2	41.0	52.6	3.5
30대	0.9	6.1	44.1	48.9	3.4
40대	0.8	6.2	43.4	49.5	3.4
50대	0.8	8.0	47.2	43.9	3.3
60대 이상	1.2	9.4	49.9	39.5	3.3
| 학 력 |				
중졸 이하	1.1	10.2	50.8	37.9	3.3
고졸 이하	1.0	7.5	46.4	45.1	3.4
대졸 이하	0.9	6.0	43.9	49.3	3.4
대학원졸 이상	1.6	4.9	30.3	63.2	3.6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2	6.5	39.9	52.5	3.4
사무직	1.0	6.9	42.7	49.4	3.4
서비스/판매직	0.9	7.9	44.9	46.3	3.4
생산/기술직	0.9	7.1	53.8	38.1	3.3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8	10.3	46.6	41.4	3.3
단순노무직	1.5	9.5	50.7	38.4	3.3
기타	0.0	0.0	42.2	57.8	3.6
무직	0.9	6.8	46.4	46.0	3.4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4	8.2	46.7	43.7	3.3
탈물질주의	1.1	4.7	39.4	54.8	3.5
혼합형	0.7	7.1	45.9	46.3	3.4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5	11.6	44.3	42.6	3.3
개인 이익 중요	1.8	11.4	47.8	39.0	3.2
둘 다 중요	0.8	6.0	45.6	47.7	3.4

24-2)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청년

(단위: %, 점)

	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평균 (4점)
전 체	2.8	13.4	45.4	38.4	3.2
| 성 별 |					
남자	3.1	13.3	44.9	38.7	3.2
여자	2.5	13.5	45.8	38.1	3.2
| 지역 |					
도 시[동 부]	2.9	13.0	45.9	38.3	3.2
농어촌[읍면부]	2.4	15.4	43.1	39.1	3.2
| 연 령 |					
20대 이하	2.4	10.4	41.1	46.1	3.3
30대	3.4	11.9	44.2	40.5	3.2
40대	3.2	12.0	44.0	40.8	3.2
50대	2.6	15.1	47.0	35.4	3.2
60대 이상	2.6	15.8	48.4	33.2	3.1
| 학 력 |					
중졸 이하	2.2	15.9	50.4	31.5	3.1
고졸 이하	2.5	13.5	45.4	38.6	3.2
대졸 이하	3.1	12.2	44.1	40.5	3.2
대학원졸 이상	5.9	13.5	29.8	50.8	3.3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3	12.7	42.3	41.6	3.2
사무직	3.8	11.9	41.9	42.5	3.2
서비스/판매직	3.1	14.0	45.5	37.4	3.2
생산/기술직	2.0	12.9	50.3	34.7	3.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1	17.7	43.2	36.1	3.1
단순노무직	2.1	15.7	53.0	29.2	3.1
기타	0.0	0.0	53.3	46.7	3.5
무직	2.3	13.3	45.5	38.9	3.2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3.0	15.5	45.5	36.0	3.1
탈물질주의	1.6	11.3	41.7	45.4	3.3
혼합형	2.8	12.4	45.7	39.1	3.2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4.7	17.2	43.2	34.9	3.1
개인 이익 중요	3.7	16.2	47.2	32.9	3.1
둘 다 중요	2.4	12.4	45.4	39.9	3.2

24-3)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노인

(단위: %, 점)

	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평균 (4점)
전 체	4.6	24.4	44.4	26.6	2.9
| 성 별 |					
남자	4.5	21.9	45.9	27.6	3.0
여자	4.7	26.7	42.9	25.7	2.9
| 지역 |					
도 시[동 부]	4.4	24.0	45.1	26.5	2.9
농어촌[읍면부]	5.7	26.0	41.1	27.2	2.9
| 연 령 |					
20대 이하	3.3	20.3	43.6	32.8	3.1
30대	3.6	22.1	45.7	28.5	3.0
40대	4.4	21.3	44.9	29.4	3.0
50대	4.8	26.6	42.9	25.8	2.9
60대 이상	6.0	28.5	44.9	20.6	2.8
| 학 력 |					
중졸 이하	7.1	30.4	43.9	18.6	2.7
고졸 이하	4.4	25.6	43.9	26.1	2.9
대졸 이하	3.6	21.2	45.7	29.4	3.0
대학원졸 이상	6.0	14.3	33.2	46.5	3.2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4.3	19.5	41.5	34.6	3.1
사무직	4.0	21.4	45.5	29.2	3.0
서비스/판매직	4.5	24.5	43.2	27.8	2.9
생산/기술직	3.8	25.6	48.1	22.5	2.9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8.6	29.2	39.7	22.5	2.8
단순노무직	6.6	31.7	43.9	17.7	2.7
기타	0.0	12.5	41.5	46.0	3.3
무직	4.5	25.1	45.1	25.3	2.9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5.2	23.7	45.5	25.6	2.9
탈물질주의	3.6	20.3	44.7	31.5	3.0
혼합형	4.4	25.2	43.7	26.7	2.9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6.1	28.5	42.6	22.8	2.8
개인 이익 중요	5.9	24.0	48.4	21.6	2.9
둘 다 중요	4.2	23.8	44.0	28.0	3.0

24-4)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장애인

(단위: %, 점)

	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평균 (4점)
전 체	3.8	20.0	49.8	26.4	3.0
| 성 별 |				
남자	3.6	18.4	50.9	27.1	3.0
여자	4.0	21.6	48.7	25.8	3.0
| 지역 |				
도 시[동 부]	3.6	19.4	50.3	26.7	3.0
농어촌[읍면부]	4.7	22.6	47.6	25.1	2.9
| 연 령 |				
20대 이하	3.0	15.6	48.6	32.8	3.1
30대	3.1	16.4	50.9	29.6	3.1
40대	2.5	16.6	50.0	30.9	3.1
50대	3.7	21.2	50.9	24.2	3.0
60대 이상	5.6	26.1	49.0	19.3	2.8
| 학 력 |				
중졸 이하	6.5	28.9	47.4	17.2	2.8
고졸 이하	3.7	19.6	51.3	25.4	3.0
대졸 이하	2.7	17.0	50.3	30.0	3.1
대학원졸 이상	2.6	12.5	36.2	48.7	3.3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3	12.7	46.8	38.3	3.2
사무직	3.0	17.2	50.6	29.2	3.1
서비스/판매직	3.6	21.0	49.3	26.1	3.0
생산/기술직	3.6	20.5	53.0	22.9	3.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7.8	25.9	46.0	20.4	2.8
단순노무직	4.0	25.4	50.7	19.9	2.9
기타	0.0	0.0	59.9	40.1	3.4
무직	4.3	21.3	50.1	24.3	2.9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4.1	20.9	48.9	26.2	3.0
탈물질주의	3.1	18.3	45.1	33.6	3.1
혼합형	3.7	19.7	50.9	25.7	3.0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3.8	23.5	48.4	24.3	2.9
개인 이익 중요	5.8	25.9	48.0	20.3	2.8
둘 다 중요	3.5	18.5	50.3	27.7	3.0

24-5)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결혼이주민

(단위: %, 점)

	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평균 (4점)
전 체	13.0	36.5	36.7	13.8	2.5
| 성 별 |				
남자	12.6	35.5	37.2	14.7	2.5
여자	13.4	37.5	36.2	12.9	2.5
| 지역 |				
도 시[동 부]	11.7	36.3	38.1	13.9	2.5
농어촌[읍면부]	19.1	37.5	30.2	13.3	2.4
| 연 령 |				
20대 이하	10.7	32.6	37.9	18.9	2.6
30대	10.6	33.8	39.7	15.9	2.6
40대	9.5	34.6	39.1	16.8	2.6
50대	12.1	37.7	38.3	11.9	2.5
60대 이상	18.7	40.8	31.5	9.0	2.3
| 학 력 |				
중졸 이하	21.8	41.6	28.8	7.8	2.2
고졸 이하	11.8	37.8	37.0	13.4	2.5
대졸 이하	10.4	33.8	39.9	15.9	2.6
대학원졸 이상	9.5	25.0	36.6	28.9	2.8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9.9	28.6	40.4	21.1	2.7
사무직	11.2	34.6	39.4	14.8	2.6
서비스/판매직	11.0	36.6	38.7	13.7	2.6
생산/기술직	12.0	38.9	37.6	11.6	2.5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7.4	35.8	24.9	11.9	2.2
단순노무직	14.4	41.7	31.8	12.1	2.4
기타	5.9	11.2	53.6	29.4	3.1
무직	14.4	38.4	35.0	12.2	2.5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4.7	37.5	35.0	12.8	2.5
탈물질주의	12.1	32.5	34.6	20.8	2.6
혼합형	12.0	36.4	37.9	13.6	2.5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5.5	39.0	32.7	12.8	2.4
개인 이익 중요	13.7	39.8	36.7	9.9	2.4
둘 다 중요	12.5	35.6	37.3	14.6	2.5

24-6)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이주노동자

(단위: %, 점)

	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평균 (4점)
전 체	18.5	42.6	28.2	10.6	2.3
| 성 별 |				
남자	18.4	41.3	29.0	11.3	2.3
여자	18.6	43.9	27.4	10.0	2.3
| 지역 |				
도 시[동 부]	16.7	43.0	29.4	10.9	2.3
농어촌[읍면부]	26.5	40.9	22.9	9.7	2.2
| 연 령 |				
20대 이하	15.9	40.3	29.3	14.6	2.4
30대	15.2	40.7	31.5	12.6	2.4
40대	14.1	40.3	32.3	13.3	2.4
50대	17.5	44.7	28.8	9.0	2.3
60대 이상	25.5	45.3	22.6	6.6	2.1
| 학 력 |				
중졸 이하	28.8	45.7	19.8	5.8	2.0
고졸 이하	17.7	43.2	28.9	10.3	2.3
대졸 이하	15.1	41.5	31.1	12.3	2.4
대학원졸 이상	13.6	32.4	30.2	23.8	2.6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4.2	35.3	32.8	17.7	2.5
사무직	15.6	42.9	29.9	11.6	2.4
서비스/판매직	16.9	42.9	29.7	10.4	2.3
생산/기술직	18.3	42.1	30.6	9.0	2.3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6.9	35.5	19.3	8.3	2.0
단순노무직	19.4	46.6	24.3	9.7	2.2
기타	5.9	24.9	49.6	19.6	2.8
무직	20.0	44.8	26.2	9.0	2.2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21.2	42.3	26.8	9.6	2.2
탈물질주의	15.3	37.0	30.0	17.7	2.5
혼합형	17.2	43.5	28.8	10.4	2.3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21.2	42.7	25.7	10.3	2.3
개인 이익 중요	20.2	44.9	27.7	7.1	2.2
둘 다 중요	17.8	42.3	28.7	11.3	2.3

24-7)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북한이탈주민

(단위: %, 점)

	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평균 (4점)
전 체	20.2	41.2	28.5	10.1	2.3
| 성 별 |				
남자	19.8	39.6	29.9	10.7	2.3
여자	20.6	42.8	27.1	9.5	2.3
| 지역 |				
도 시[동 부]	18.4	41.6	29.8	10.3	2.3
농어촌[읍면부]	28.4	39.4	22.8	9.4	2.1
| 연 령 |				
20대 이하	18.8	38.6	29.2	13.5	2.4
30대	16.8	40.6	31.1	11.5	2.4
40대	15.8	38.1	32.9	13.2	2.4
50대	18.5	44.0	29.0	8.5	2.3
60대 이상	26.9	43.3	23.4	6.4	2.1
| 학 력 |				
중졸 이하	30.5	43.8	19.9	5.7	2.0
고졸 이하	19.8	42.5	28.2	9.6	2.3
대졸 이하	16.4	39.8	32.1	11.6	2.4
대학원졸 이상	13.4	27.8	35.0	23.8	2.7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5.4	34.4	34.0	16.3	2.5
사무직	17.0	41.6	30.4	11.1	2.4
서비스/판매직	18.9	41.9	29.3	9.9	2.3
생산/기술직	19.6	41.8	30.5	8.1	2.3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8.0	34.6	19.6	7.7	2.0
단순노무직	21.4	44.8	25.2	8.6	2.2
기타	11.2	30.6	38.6	19.6	2.7
무직	21.9	42.7	26.5	8.8	2.2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23.0	40.9	27.4	8.8	2.2
탈물질주의	16.7	37.2	29.0	17.1	2.5
혼합형	18.9	41.9	29.1	10.0	2.3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22.3	39.6	27.6	10.5	2.3
개인 이익 중요	22.7	43.8	27.0	6.5	2.2
둘 다 중요	19.4	41.0	28.9	10.6	2.3

24-8)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성소수자

(단위: %, 점)

	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평균 (4점)
전 체	24.2	35.1	28.1	12.6	2.3
| 성 별 |					
남자	24.1	34.4	29.2	12.2	2.3
여자	24.3	35.8	27.0	12.9	2.3
| 지역 |					
도 시[동 부]	23.1	35.4	28.7	12.8	2.3
농어촌[읍면부]	29.5	34.0	25.0	11.5	2.2
| 연 령 |					
20대 이하	19.2	29.3	30.5	21.1	2.5
30대	19.8	30.8	33.3	16.1	2.5
40대	20.1	33.9	31.3	14.7	2.4
50대	24.4	38.1	28.3	9.3	2.2
60대 이상	32.3	39.8	21.4	6.5	2.0
| 학 력 |					
중졸 이하	34.2	40.1	19.7	6.0	2.0
고졸 이하	24.2	36.5	27.8	11.5	2.3
대졸 이하	20.2	32.6	31.8	15.4	2.4
대학원졸 이상	19.3	21.5	30.2	29.0	2.7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8.3	27.2	33.5	21.0	2.6
사무직	20.6	34.5	30.3	14.5	2.4
서비스/판매직	23.4	35.5	29.0	12.1	2.3
생산/기술직	24.8	36.6	28.8	9.9	2.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5.0	37.2	20.0	7.8	2.0
단순노무직	26.5	39.2	25.6	8.7	2.2
기타	17.1	26.0	42.8	14.0	2.5
무직	26.5	36.3	25.9	11.3	2.2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27.9	34.6	26.6	10.9	2.2
탈물질주의	22.6	31.2	24.9	21.3	2.4
혼합형	22.2	35.9	29.3	12.6	2.3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28.2	37.8	23.3	10.7	2.2
개인 이익 중요	27.1	34.9	29.6	8.4	2.2
둘 다 중요	23.1	34.7	28.5	13.6	2.3

25.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정도

(단위: %, 점)

	매우 자주 있다	자주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평균 (4점)
전 체	3.3	17.6	33.9	45.2	3.2
| 성 별 |				
남자	3.5	17.9	34.6	43.9	3.2
여자	3.2	17.2	33.2	46.4	3.2
| 지역 |				
도 시[동 부]	3.6	19.0	35.1	42.3	3.2
농어촌[읍면부]	2.2	11.0	28.5	58.3	3.4
| 연 령 |				
20대 이하	10.0	25.8	28.8	35.5	2.9
30대	4.5	22.1	36.2	37.1	3.1
40대	2.6	18.5	37.9	41.0	3.2
50대	1.1	14.7	38.4	45.7	3.3
60대 이상	0.8	11.5	29.8	57.9	3.4
| 학 력 |				
중졸 이하	0.3	9.2	25.8	64.7	3.5
고졸 이하	3.5	17.0	34.6	44.8	3.2
대졸 이하	4.2	21.4	37.0	37.4	3.1
대학원졸 이상	8.1	22.5	30.0	39.4	3.0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6.9	23.5	32.0	37.6	3.0
사무직	3.5	21.2	40.0	35.3	3.1
서비스/판매직	3.6	17.3	37.3	41.8	3.2
생산/기술직	1.9	17.5	34.1	46.5	3.3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4	6.9	22.3	70.4	3.6
단순노무직	1.9	12.9	33.2	52.0	3.4
기타	5.8	35.5	8.7	50.0	3.0
무직	3.0	16.2	31.2	49.7	3.3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3.5	16.4	31.2	48.8	3.3
탈물질주의	4.6	24.4	33.2	37.8	3.0
혼합형	3.1	17.5	35.6	43.9	3.2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2.5	18.1	32.6	46.9	3.2
개인 이익 중요	3.8	20.5	35.3	40.3	3.1
둘 다 중요	3.4	17.0	33.8	45.7	3.2

25-1. 혐오표현을 접하게 된 경로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친구/가족/지인	온라인 포털/카페	메신저 서비스	SNS	TV/라디오	인터넷 방송	캠페인, 거리집회	기타
전 체	19.0	38.4	16.1	18.0	49.6	36.7	8.2	1.0
| 성 별 |							
남자	19.0	40.3	17.4	17.3	47.5	39.0	8.5	0.9
여자	19.0	36.6	14.6	18.6	51.8	34.4	7.9	1.0
| 지역 |							
도 시[동 부]	18.5	39.5	16.2	18.5	48.6	37.1	8.4	0.9
농어촌[읍면부]	22.3	31.8	15.1	14.4	55.7	34.7	7.0	1.3
| 연 령 |							
20대 이하	20.6	60.4	27.4	36.9	33.2	48.5	9.7	1.1
30대	15.2	51.3	18.5	23.9	39.3	43.8	8.8	0.9
40대	14.4	44.2	15.2	17.0	45.8	43.2	8.7	0.6
50대	20.0	26.9	12.2	9.5	57.1	31.9	7.5	1.0
60대 이상	24.2	12.7	7.9	4.2	70.0	18.4	6.7	1.3
| 학 력 |							
중졸 이하	27.7	8.6	4.1	2.6	74.5	13.1	5.6	1.3
고졸 이하	19.5	33.3	16.0	16.1	52.5	38.1	8.2	1.0
대졸 이하	16.8	49.2	19.0	22.7	41.7	41.1	8.4	0.9
대학원졸 이상	14.1	51.3	17.8	27.7	39.8	43.3	15.8	1.0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6.5	54.4	19.2	25.1	37.8	41.0	12.1	0.9
사무직	15.3	49.1	20.3	22.4	42.8	42.7	9.2	0.7
서비스/판매직	21.4	35.9	17.3	17.3	47.2	38.3	6.7	1.1
생산/기술직	20.4	31.2	13.8	13.4	55.6	35.6	6.5	0.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5.6	12.1	5.3	5.2	75.6	16.7	4.6	0.6
단순노무직	20.9	26.5	9.2	7.8	50.1	36.2	9.9	1.6
기타	19.5	67.7	34.1	32.5	84.2	52.4	21.8	0.0
무직	19.9	33.4	13.9	16.8	56.2	32.3	7.5	1.1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22.0	35.6	17.5	16.6	46.5	37.9	9.1	1.4
탈물질주의	18.6	48.1	16.1	25.4	45.7	42.3	14.8	0.8
혼합형	17.4	38.8	15.2	17.7	51.9	35.4	6.9	0.8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7.0	34.7	21.1	13.9	55.1	31.1	5.7	1.7
개인 이익 중요	22.0	35.8	16.5	18.3	49.1	36.4	7.1	0.8
둘 다 중요	18.8	39.5	15.2	18.5	48.9	37.6	8.8	0.9

25-2. 혐오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여성	남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난민	성소수자	특정종교인	노숙자	특정지역출신인	정치인	연예인	기타
전 체	**32.1**	**22.4**	**11.9**	**17.3**	**21.5**	**15.5**	**7.4**	**11.9**	**28.5**	**27.0**	**9.9**	**15.2**	**39.7**	**23.6**	**1.3**
| 성 별 |														
남자	29.9	25.0	11.3	16.8	21.5	16.9	8.0	12.1	27.3	28.1	10.8	15.6	41.5	21.7	1.3
여자	34.3	19.7	12.6	17.8	21.5	14.1	6.8	11.6	29.8	25.9	9.1	14.9	37.8	25.4	1.4
| 지역 |														
도 시[동 부]	33.0	22.3	12.2	17.7	21.2	15.5	7.1	11.6	28.3	26.3	9.3	15.3	39.9	24.5	1.3
농어촌[읍면부]	26.5	22.9	10.2	14.8	23.1	15.7	8.9	13.7	30.2	31.2	14.1	14.7	38.3	17.8	1.4
| 연 령 |														
20대 이하	49.5	38.1	18.1	20.3	24.5	15.0	9.9	14.5	35.4	27.0	10.1	17.9	39.1	31.9	1.9
30대	40.7	26.5	14.2	19.4	23.3	17.5	7.7	16.2	31.9	27.4	7.9	15.4	37.5	23.7	1.1
40대	33.2	20.2	10.8	16.5	21.2	16.8	6.9	13.8	33.3	28.3	9.5	15.7	39.4	25.8	1.3
50대	21.6	16.0	8.3	14.8	18.7	16.1	6.9	8.0	23.5	26.6	10.4	14.5	38.8	19.3	1.2
60대 이상	17.5	12.4	8.6	15.7	20.0	12.6	5.8	7.6	19.5	25.9	11.4	12.8	43.0	17.6	1.1
| 학 력 |														
중졸 이하	15.9	12.2	7.0	15.3	18.4	11.3	5.7	7.7	18.9	26.4	12.2	10.1	39.8	15.7	1.0
고졸 이하	31.4	23.2	12.0	15.9	20.7	14.5	7.1	9.3	25.6	26.5	9.3	15.3	41.0	25.3	1.4
대졸 이하	36.0	24.2	13.1	18.5	22.7	16.6	7.9	14.2	32.4	27.4	10.0	16.0	38.1	24.1	1.3
대학원졸 이상	43.1	23.1	12.4	22.1	23.6	27.0	8.9	25.1	42.8	30.4	7.2	23.1	46.3	23.8	1.7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9.5	25.4	9.6	19.6	22.3	17.2	7.0	14.6	35.8	29.2	8.4	15.8	43.6	22.4	1.9
사무직	35.3	22.7	15.7	19.8	23.9	17.3	9.1	14.7	33.4	26.2	9.8	17.0	38.8	23.6	1.1
서비스/판매직	30.6	23.0	11.6	14.4	19.3	14.0	6.9	9.3	25.0	26.4	9.3	14.7	37.3	25.0	1.3
생산/기술직	28.0	19.9	11.0	17.3	20.4	17.3	7.1	8.9	26.1	26.2	12.0	13.1	40.0	24.8	0.8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6.2	14.2	7.3	9.8	16.7	16.0	6.3	9.9	18.3	21.1	12.0	12.8	39.6	10.3	0.5
단순노무직	26.1	20.3	7.9	17.3	16.5	15.2	6.5	11.0	22.5	27.2	10.1	13.1	37.9	17.5	1.5
기타	52.1	50.0	6.1	33.7	7.6	19.5	0.0	10.3	18.9	40.9	0.0	0.0	40.2	18.7	0.0
무직	31.3	22.0	12.0	17.2	22.6	14.5	7.2	12.0	27.6	27.5	10.3	15.5	40.4	24.4	1.4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30.2	25.2	9.6	15.8	19.7	13.1	7.1	11.6	26.5	28.3	9.8	15.2	41.2	22.7	1.3
탈물질주의	43.0	23.0	16.6	24.3	29.8	21.2	8.7	16.1	37.6	27.8	11.0	18.8	40.4	28.2	0.6
혼합형	31.7	20.7	12.6	17.2	21.3	16.1	7.4	11.5	28.5	26.2	9.9	14.8	38.7	23.4	1.5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28.1	20.3	15.6	19.1	21.4	16.5	9.2	13.9	25.3	24.4	13.8	14.6	34.1	16.1	1.9
개인 이익 중요	29.6	20.9	10.7	17.1	23.3	16.6	9.2	11.1	28.4	25.8	7.8	14.1	36.7	21.9	0.7
둘 다 중요	33.1	23.0	11.6	17.0	21.1	15.2	6.8	11.7	29.0	27.6	9.7	15.5	41.0	25.0	1.4

25-3.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행동

(단위: %, 점)

	적극 동조하는 의견과 행동을 취했다	다소 동조하는 의견과 행동을 취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다소 반대하는 의견, 시정을 요구했다	적극 반대하는 의견, 시정을 요구했다	평균 (5점)
전 체	1.3	5.7	75.7	14.2	3.1	2.9
| 성 별 |						
남자	1.3	5.9	76.0	13.7	3.0	2.9
여자	1.2	5.5	75.4	14.7	3.2	2.9
| 지역 |						
도 시[동 부]	1.3	5.6	75.3	14.8	3.1	2.9
농어촌[읍면부]	1.3	6.4	78.5	10.4	3.4	2.9
| 연 령 |						
20대 이하	1.6	5.8	72.1	17.5	3.1	2.9
30대	1.7	6.3	74.5	14.9	2.7	2.9
40대	0.9	5.4	73.8	16.3	3.6	2.8
50대	1.3	6.0	75.7	13.3	3.8	2.9
60대 이상	1.1	5.2	81.9	9.4	2.4	2.9
| 학 력 |						
중졸 이하	1.1	4.2	85.2	7.9	1.7	2.9
고졸 이하	1.2	5.8	76.8	12.9	3.2	2.9
대졸 이하	1.4	6.1	73.3	16.1	3.0	2.9
대학원졸 이상	0.6	4.5	62.1	23.9	8.8	2.6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0	5.5	64.7	22.1	5.7	2.8
사무직	1.0	6.6	74.7	14.9	2.8	2.9
서비스/판매직	1.4	6.5	75.5	13.1	3.5	2.9
생산/기술직	1.2	5.5	78.5	12.4	2.4	2.9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7	5.6	84.4	7.7	1.7	3.0
단순노무직	2.2	5.4	75.5	12.4	4.5	2.9
기타	23.4	0.0	64.0	12.6	0.0	3.3
무직	1.0	4.9	79.4	12.6	2.1	2.9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0	7.1	76.3	12.8	2.7	2.9
탈물질주의	1.3	5.1	65.8	22.7	5.1	2.7
혼합형	1.4	5.0	76.7	13.8	3.1	2.9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0.9	7.5	73.6	14.6	3.4	2.9
개인 이익 중요	1.3	6.5	79.3	10.5	2.3	2.9
둘 다 중요	1.4	5.3	75.4	14.8	3.2	2.9

26. 혐오 표현의 심각성 정도

(단위: %, 점)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평균 (4점)
전 체	12.1	42.1	40.9	4.9	2.4
| 성 별 |					
남자	11.8	42.0	41.3	4.9	2.4
여자	12.5	42.1	40.5	4.9	2.4
| 지역 |					
도 시[동 부]	12.7	42.4	40.4	4.5	2.4
농어촌[읍면부]	9.7	40.6	43.0	6.7	2.5
| 연 령 |					
20대 이하	21.5	42.8	32.4	3.3	2.2
30대	16.7	44.6	35.2	3.6	2.3
40대	12.7	45.3	38.9	3.1	2.3
50대	9.3	42.4	42.9	5.4	2.4
60대 이상	5.5	37.9	49.0	7.5	2.6
| 학 력 |					
중졸 이하	4.0	36.0	51.2	8.7	2.6
고졸 이하	12.4	42.6	40.5	4.5	2.4
대졸 이하	14.9	43.8	37.7	3.6	2.3
대학원졸 이상	19.9	48.9	25.9	5.3	2.2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9.4	46.1	31.6	3.0	2.2
사무직	13.6	42.1	40.6	3.7	2.3
서비스/판매직	12.0	46.1	37.6	4.4	2.3
생산/기술직	9.1	42.1	43.9	5.0	2.4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5.2	31.0	53.0	10.8	2.7
단순노무직	11.4	41.0	41.4	6.2	2.4
기타	27.8	47.2	25.0	0.0	2.0
무직	10.9	39.8	43.7	5.5	2.4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1.6	41.6	41.6	5.1	2.4
탈물질주의	15.7	42.0	38.0	4.3	2.3
혼합형	12.0	42.3	40.8	4.9	2.4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2.1	42.1	40.9	5.0	2.4
개인 이익 중요	12.4	41.7	39.7	6.1	2.4
둘 다 중요	12.1	42.1	41.1	4.7	2.4

27.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한 찬반

(단위: %, 점)

	매우 찬성한다	다소 찬성한다	다소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평균 (4점)
전 체	19.8	48.1	26.8	5.3	2.8
| 성 별 |				
남자	19.0	47.5	27.3	6.2	2.8
여자	20.6	48.7	26.3	4.4	2.9
| 지역 |				
도 시[동 부]	19.6	48.4	26.5	5.5	2.8
농어촌[읍면부]	20.9	46.7	28.0	4.4	2.8
| 연 령 |				
20대 이하	19.5	46.2	25.6	8.6	2.8
30대	19.9	47.3	26.4	6.4	2.8
40대	22.9	47.5	25.2	4.5	2.9
50대	20.6	47.5	27.2	4.7	2.8
60대 이상	17.3	50.6	28.5	3.7	2.8
| 학 력 |				
중졸 이하	16.5	49.1	30.7	3.7	2.8
고졸 이하	20.7	47.5	26.9	4.9	2.8
대졸 이하	19.7	48.7	25.5	6.1	2.8
대학원졸 이상	31.2	41.0	18.1	9.7	2.9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4.8	45.2	23.0	7.0	2.9
사무직	18.7	48.6	27.4	5.4	2.8
서비스/판매직	20.6	48.7	25.6	5.2	2.8
생산/기술직	19.4	47.2	27.9	5.6	2.8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8.5	49.9	27.6	4.1	2.8
단순노무직	23.0	45.7	26.1	5.2	2.9
기타	21.2	46.9	31.9	0.0	2.9
무직	18.0	49.0	28.1	4.9	2.8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9.6	47.5	27.3	5.6	2.8
탈물질주의	21.2	50.4	23.3	5.1	2.9
혼합형	19.7	48.2	26.9	5.1	2.8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21.6	47.0	26.2	5.1	2.9
개인 이익 중요	17.1	48.3	27.1	7.5	2.7
둘 다 중요	20.0	48.3	26.8	5.0	2.8

28. 인권존중을 위한 의무와 행동 규범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점)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평균 (4점)
전 체	8.0	56.9	30.0	5.1	2.7
ㅣ성 별ㅣ					
남자	8.9	58.9	28.1	4.0	2.7
여자	7.1	54.9	31.8	6.2	2.6
ㅣ지역ㅣ					
도 시[동 부]	7.9	57.5	30.3	4.3	2.7
농어촌[읍면부]	8.5	54.1	28.7	8.6	2.6
ㅣ연 령ㅣ					
20대 이하	10.9	59.7	25.6	3.8	2.8
30대	8.0	60.7	28.4	2.9	2.7
40대	8.3	59.4	29.1	3.2	2.7
50대	8.9	57.6	29.9	3.5	2.7
60대 이상	5.4	50.9	34.2	9.5	2.5
ㅣ학 력ㅣ					
중졸 이하	3.2	46.8	36.7	13.3	2.4
고졸 이하	8.2	58.0	29.6	4.2	2.7
대졸 이하	9.2	60.1	28.0	2.6	2.8
대학원졸 이상	20.0	58.7	20.4	0.9	3.0
ㅣ직 업ㅣ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5.0	63.4	20.0	1.6	2.9
사무직	8.3	59.8	29.0	2.9	2.7
서비스/판매직	8.2	55.8	31.7	4.3	2.7
생산/기술직	6.6	61.4	28.8	3.2	2.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3	50.2	30.6	14.9	2.4
단순노무직	6.4	54.1	33.1	6.4	2.6
기타	9.4	85.6	4.9	0.0	3.0
무직	6.7	54.2	32.3	6.8	2.6
ㅣ국가 목표ㅣ					
물질주의	8.9	59.0	27.3	4.8	2.7
탈물질주의	7.4	54.3	30.3	7.9	2.6
혼합형	7.5	55.9	31.6	4.9	2.7
ㅣ공동체 이익ㅣ					
공동체 이익 중요	8.9	55.8	29.2	6.1	2.7
개인 이익 중요	5.1	49.4	39.6	5.9	2.5
둘 다 중요	8.4	58.3	28.6	4.8	2.7

29. 인권침해/차별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점)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평균 (4점)
전 체	3.8	41.3	46.7	8.2	2.4
| 성 별 |				
남자	4.6	44.8	44.0	6.6	2.5
여자	2.9	37.8	49.4	9.9	2.3
| 지역 |				
도 시[동 부]	3.8	42.1	47.0	7.1	2.4
농어촌[읍면부]	3.8	37.4	45.6	13.3	2.3
| 연 령 |				
20대 이하	6.4	44.2	43.5	5.9	2.5
30대	4.1	47.2	43.8	5.0	2.5
40대	3.6	45.4	46.3	4.7	2.5
50대	3.9	45.0	45.8	5.3	2.5
60대 이상	2.1	30.9	51.2	15.8	2.2
| 학 력 |				
중졸 이하	0.9	24.0	53.9	21.3	2.0
고졸 이하	3.8	41.2	48.4	6.6	2.4
대졸 이하	4.4	48.2	43.1	4.3	2.5
대학원졸 이상	13.6	51.2	31.0	4.2	2.7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8.8	52.4	34.9	3.9	2.7
사무직	3.9	49.2	43.1	3.9	2.5
서비스/판매직	3.5	42.1	47.9	6.4	2.4
생산/기술직	2.8	45.4	46.7	5.1	2.5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5	30.3	46.6	21.5	2.1
단순노무직	2.2	33.9	52.6	11.2	2.3
기타	3.8	69.9	20.1	6.3	2.7
무직	3.0	35.3	50.3	11.4	2.3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4.5	41.6	45.3	8.6	2.4
탈물질주의	3.1	40.6	46.6	9.7	2.4
혼합형	3.4	41.2	47.6	7.8	2.4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4.9	44.4	41.7	9.1	2.5
개인 이익 중요	3.9	38.6	49.0	8.6	2.4
둘 다 중요	3.6	41.2	47.1	8.1	2.4

30.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 받은 경험

(단위: %)

	있다	없다
전 체	**13.1**	**86.9**
| 성 별 |		
남자	14.7	85.3
여자	11.6	88.4
| 지역 |		
도 시[동 부]	14.0	86.0
농어촌[읍면부]	9.0	91.0
| 연 령 |		
20대 이하	20.1	79.9
30대	19.4	80.6
40대	17.0	83.0
50대	11.9	88.1
60대 이상	3.7	96.3
| 학 력 |		
중졸 이하	2.4	97.6
고졸 이하	9.9	90.1
대졸 이하	18.7	81.3
대학원졸 이상	44.9	55.1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4.3	65.7
사무직	24.2	75.8
서비스/판매직	10.5	89.5
생산/기술직	10.5	89.5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7	98.3
단순노무직	9.3	90.7
기타	71.1	28.9
무직	5.7	94.3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1.4	88.6
탈물질주의	18.5	81.5
혼합형	13.5	86.5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1.5	88.5
개인 이익 중요	11.0	89.0
둘 다 중요	13.7	86.3

30-1. 인권교육을 주관한 기관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교육청/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민간기업/사업체	사회복지단체	기타
전 체	5.3	20.0	25.4	4.4	42.1	11.1	2.0
| 성 별 |						
남자	5.3	23.0	21.6	3.9	46.6	7.6	2.8
여자	5.4	16.4	30.2	5.0	36.5	15.4	1.0
| 지역 |						
도 시[동 부]	5.2	19.9	25.8	4.5	42.9	10.3	1.9
농어촌[읍면부]	6.2	20.7	22.6	3.4	36.2	16.3	2.6
| 연 령 |						
20대 이하	3.8	15.4	39.4	3.4	37.4	8.1	4.9
30대	7.3	25.6	19.4	3.3	46.6	7.6	1.0
40대	4.4	21.1	24.9	4.1	46.9	8.6	1.0
50대	5.6	19.5	17.5	5.5	42.9	13.5	0.8
60대 이상	6.5	16.7	16.7	9.2	27.9	32.7	1.4
| 학 력 |						
중졸 이하	2.8	15.1	15.6	3.8	39.8	32.1	0.0
고졸 이하	5.0	14.5	30.5	5.2	33.8	16.2	5.1
대졸 이하	5.4	22.1	20.9	4.3	48.5	8.2	0.3
대학원졸 이상	6.7	25.6	42.1	2.2	27.6	5.8	3.9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6.4	20.8	29.9	2.5	41.3	7.9	0.8
사무직	5.9	26.0	16.3	4.2	51.5	6.2	0.2
서비스/판매직	3.8	14.8	20.8	4.7	41.2	19.8	3.1
생산/기술직	6.8	15.7	9.4	7.0	70.9	4.5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0	31.0	14.4	10.9	17.6	18.9	7.2
단순노무직	4.5	12.7	17.2	7.6	44.1	21.2	1.3
기타	22.0	70.1	0.0	0.0	7.0	0.0	14.7
무직	2.9	15.0	49.2	5.7	15.9	17.0	6.6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3.8	21.3	21.7	4.9	46.2	9.9	2.2
탈물질주의	4.4	15.3	33.2	4.7	36.3	10.0	3.6
혼합형	6.2	20.2	26.0	4.1	40.9	11.8	1.6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7.0	22.1	30.6	6.0	29.2	13.2	3.2
개인 이익 중요	9.1	21.5	24.7	5.6	40.4	9.7	1.3
둘 다 중요	4.6	19.6	24.9	4.0	43.9	11.0	1.9

30-2. 인권교육 방식

(단위: %)

	내부강사의 집합교육	외부강사의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시청각 교육	기타
전 체	11.0	19.4	61.5	7.6	0.5
| 성 별 |				
남자	11.7	22.2	59.4	6.5	0.2
여자	10.2	16.0	64.0	8.9	0.9
| 지역 |				
도 시[동 부]	10.3	19.2	62.6	7.4	0.5
농어촌[읍면부]	16.1	21.1	53.6	8.9	0.3
| 연 령 |				
20대 이하	10.0	18.7	62.9	8.2	0.3
30대	9.2	16.9	66.5	6.7	0.7
40대	9.3	15.9	67.7	6.1	1.0
50대	15.3	22.3	53.5	8.8	0.2
60대 이상	15.3	33.2	41.3	9.9	0.4
| 학 력 |				
중졸 이하	18.5	32.8	39.1	9.6	0.0
고졸 이하	15.1	25.0	47.9	10.5	1.4
대졸 이하	9.2	16.0	68.1	6.6	0.1
대학원졸 이상	7.5	18.8	69.6	3.5	0.6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7.5	18.4	70.3	3.5	0.3
사무직	10.5	13.0	71.6	4.8	0.1
서비스/판매직	9.8	18.6	61.2	9.7	0.6
생산/기술직	17.8	39.3	27.1	15.8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2	31.2	37.3	28.2	0.0
단순노무직	22.3	29.2	33.3	13.4	1.8
기타	7.0	23.2	62.1	7.8	0.0
무직	13.9	21.8	50.7	12.1	1.5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1.4	20.0	61.4	6.9	0.3
탈물질주의	7.7	16.4	67.0	8.4	0.5
혼합형	11.4	19.6	60.6	7.8	0.6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2.6	26.9	53.3	7.1	0.0
개인 이익 중요	15.4	15.6	57.1	11.3	0.7
둘 다 중요	10.2	19.0	63.1	7.1	0.6

30-3. 인권교육이 도움된 정도

(단위: %, 점)

	매우 도움이 되었다	다소 도움이 되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평균 (4점)
전 체	14.5	69.0	14.1	2.4	2.0
| 성 별 |				
남자	15.5	69.0	12.7	2.8	2.0
여자	13.4	69.1	15.7	1.8	2.1
| 지역 |				
도 시[동 부]	13.7	69.1	14.7	2.5	2.1
농어촌[읍면부]	20.7	68.7	9.6	1.0	1.9
| 연 령 |				
20대 이하	10.9	66.2	17.6	5.4	2.2
30대	9.4	72.6	15.9	2.1	2.1
40대	13.1	72.3	13.0	1.6	2.0
50대	26.4	65.1	8.4	0.1	1.8
60대 이상	19.3	67.2	12.8	0.7	1.9
| 학 력 |				
중졸 이하	10.6	73.9	14.5	1.0	2.1
고졸 이하	17.0	66.1	12.9	3.9	2.0
대졸 이하	12.6	71.0	14.7	1.7	2.1
대학원졸 이상	21.2	63.9	13.0	2.0	2.0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7.9	66.8	12.9	2.4	2.0
사무직	12.2	72.8	13.3	1.6	2.0
서비스/판매직	16.2	66.4	14.5	2.8	2.0
생산/기술직	12.3	74.9	11.2	1.7	2.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5.7	60.5	23.7	0.0	2.1
단순노무직	7.5	77.5	14.4	0.5	2.1
기타	14.3	77.6	8.2	0.0	1.9
무직	13.9	64.0	18.1	4.1	2.1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4.4	68.5	12.8	4.3	2.1
탈물질주의	18.4	65.2	14.0	2.4	2.0
혼합형	14.0	69.9	14.7	1.4	2.0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25.5	67.6	5.4	1.6	1.8
개인 이익 중요	9.7	60.1	25.7	4.5	2.3
둘 다 중요	13.8	70.4	13.6	2.2	2.0

31. 인권교육의 전반적인 필요성

(단위: %, 점)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 없는 편이다	전혀 필요 없다	평균 (4점)
전 체	20.3	64.1	12.9	2.7	3.0
| 성 별 |				
남자	18.9	64.8	13.7	2.5	3.0
여자	21.7	63.4	12.0	2.9	3.0
| 지역 |				
도 시[동 부]	20.6	64.6	12.7	2.1	3.0
농어촌[읍면부]	19.1	62.0	13.4	5.6	2.9
| 연 령 |				
20대 이하	23.1	63.1	12.5	1.3	3.1
30대	22.2	65.7	10.4	1.7	3.1
40대	21.5	65.6	11.1	1.8	3.1
50대	20.6	63.4	13.5	2.5	3.0
60대 이상	16.6	63.4	15.1	4.8	2.9
| 학 력 |				
중졸 이하	15.7	62.6	15.2	6.6	2.9
고졸 이하	19.8	65.2	13.0	2.1	3.0
대졸 이하	22.1	64.2	12.0	1.7	3.1
대학원졸 이상	31.5	58.9	8.4	1.2	3.2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7.7	61.9	9.2	1.3	3.2
사무직	19.9	66.5	12.0	1.6	3.0
서비스/판매직	20.1	64.2	13.6	2.1	3.0
생산/기술직	17.7	65.2	14.5	2.6	3.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6.8	56.1	17.2	9.9	2.8
단순노무직	18.7	65.2	12.6	3.5	3.0
기타	23.1	72.0	4.9	0.0	3.2
무직	19.6	64.1	13.1	3.2	3.0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20.2	64.3	13.4	2.0	3.0
탈물질주의	24.2	57.8	14.2	3.9	3.0
혼합형	19.9	64.8	12.4	3.0	3.0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9.6	66.2	12.0	2.1	3.0
개인 이익 중요	15.5	62.1	19.5	2.8	2.9
둘 다 중요	21.2	64.1	11.9	2.8	3.0

32-a.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 높여야 할 대상 (1순위)

(단위: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검찰/경찰/법원	국회/지방의회	군대	교육청/교육기관	대학교	유치원/보육시설	기업/사업자	시민사회단체	언론대중매체	복지기관	종교단체	기타
전 체	21.9	16.2	9.5	8.8	15.4	1.4	5.1	4.9	2.0	5.3	8.5	0.8	0.2
| 성 별 |													
남자	22.0	18.2	9.4	11.1	13.2	1.3	4.1	5.2	2.3	5.1	7.0	0.8	0.2
여자	21.7	14.1	9.6	6.6	17.6	1.5	6.2	4.6	1.7	5.5	10.0	0.8	0.2
| 지역 |													
도 시[동 부]	22.1	16.4	9.3	9.0	15.6	1.4	5.2	4.8	1.9	5.2	8.1	0.7	0.2
농어촌[읍면부]	20.9	15.0	10.5	7.9	14.5	1.4	4.9	5.0	2.5	5.9	10.4	1.0	0.2
| 연 령 |													
20대 이하	17.1	11.9	7.5	15.1	18.0	3.2	5.9	5.7	2.1	6.9	5.8	0.6	0.2
30대	22.0	15.4	9.1	9.7	15.7	1.1	5.8	5.9	1.7	5.9	6.7	0.7	0.3
40대	21.8	18.4	9.4	8.5	14.2	0.9	4.8	6.1	2.1	5.4	7.3	0.9	0.1
50대	23.3	18.2	10.5	7.5	13.1	1.1	4.6	5.1	2.3	4.6	9.1	0.6	0.1
60대 이상	23.7	16.2	10.2	5.8	16.2	1.1	4.9	2.8	1.8	4.5	11.6	1.0	0.2
| 학 력 |													
중졸 이하	23.4	13.7	8.7	5.0	17.9	1.3	6.0	3.2	1.8	4.9	12.5	1.4	0.2
고졸 이하	21.6	15.8	10.0	9.2	15.1	1.4	4.9	4.8	2.4	5.6	8.3	0.7	0.1
대졸 이하	21.7	16.8	9.3	10.0	14.9	1.4	5.1	5.7	1.8	5.3	7.2	0.5	0.2
대학원졸 이상	16.9	28.5	11.1	11.5	10.6	2.3	3.6	3.6	0.4	4.8	4.7	1.4	0.7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0.3	21.3	10.8	11.2	12.0	1.5	5.1	4.8	1.0	5.3	5.4	0.8	0.3
사무직	23.3	16.7	10.4	8.8	14.8	1.3	4.9	6.6	2.3	4.9	5.5	0.2	0.2
서비스/판매직	21.4	15.7	9.3	8.9	14.1	1.2	4.9	5.8	2.1	6.0	9.5	0.9	0.1
생산/기술직	21.1	15.8	9.0	9.7	15.2	1.3	4.8	6.5	3.2	4.5	8.1	0.6	0.1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9.8	17.2	11.1	5.3	14.9	0.8	4.1	3.5	2.4	6.1	12.7	1.8	0.3
단순노무직	26.0	14.4	9.4	7.5	16.2	1.0	5.0	5.7	1.6	3.5	8.2	1.0	0.3
기타	20.4	29.0	4.6	7.1	12.0	0.0	5.5	5.8	10.5	5.1	0.0	0.0	0.0
무직	21.7	14.9	8.8	8.4	17.4	1.7	5.6	3.2	1.8	5.5	10.0	0.9	0.1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23.5	15.8	9.8	8.8	13.7	1.3	5.7	3.8	1.8	5.0	9.9	0.7	0.1
탈물질주의	17.1	19.6	8.7	8.9	16.2	2.6	4.9	5.0	3.1	6.4	6.4	0.8	0.2
혼합형	21.5	16.0	9.4	8.8	16.4	1.3	4.8	5.5	2.0	5.4	8.0	0.8	0.2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26.6	19.3	9.4	8.4	11.7	2.0	5.3	4.0	1.8	3.9	6.4	0.9	0.3
개인 이익 중요	20.5	16.5	8.7	8.8	14.9	2.1	6.2	4.8	2.5	4.8	9.3	1.0	0.1
둘 다 중요	21.4	15.6	9.6	8.9	16.1	1.2	4.9	5.0	1.9	5.6	8.7	0.7	0.2

32-b.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 높여야 할 대상 (1순위+2순위)

(단위: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검찰/경찰/법원	국회/지방의회	군대	교육청/교육기관	대학교	유치원/보육시설	기업/사업자	시민사회단체	언론대중매체	복지기관	종교단체	기타
전 체	30.9	29.8	19.2	15.6	27.7	4.0	13.5	12.8	5.6	15.7	19.7	2.4	0.3
| 성 별 |													
남자	31.3	33.0	19.6	18.4	24.7	3.7	11.8	13.8	5.9	14.9	17.1	2.6	0.3
여자	30.5	26.8	18.9	12.8	30.6	4.3	15.2	11.8	5.3	16.4	22.3	2.2	0.2
| 지역 |													
도 시[동 부]	31.0	30.0	19.0	15.8	28.1	4.1	13.7	12.9	5.3	15.5	19.3	2.2	0.3
농어촌[읍면부]	30.5	28.9	20.5	14.7	25.6	3.8	12.9	12.3	6.8	16.3	21.9	3.0	0.3
| 연 령 |													
20대 이하	26.2	23.1	15.1	22.7	32.1	7.8	14.7	14.0	5.8	18.7	14.6	2.5	0.3
30대	30.5	29.2	17.4	18.6	29.1	3.3	13.8	16.2	5.0	16.5	15.0	2.1	0.4
40대	30.8	31.8	19.0	15.2	25.4	3.0	12.9	14.0	5.7	16.2	20.1	2.7	0.2
50대	32.0	32.5	21.0	13.9	25.4	3.1	12.6	12.5	6.3	14.4	21.0	2.0	0.2
60대 이상	33.2	31.1	21.6	11.2	27.3	3.4	13.7	9.5	5.3	14.0	24.3	2.5	0.2
| 학 력 |													
중졸 이하	33.1	28.0	19.7	10.1	29.4	3.6	15.4	9.7	4.8	13.8	26.2	2.9	0.3
고졸 이하	30.4	29.8	20.0	16.0	27.4	4.1	13.4	12.7	6.2	16.5	18.6	2.3	0.2
대졸 이하	30.5	29.9	17.9	17.5	27.5	4.0	13.0	14.4	5.6	15.8	18.3	2.1	0.3
대학원졸 이상	28.5	41.5	24.9	18.8	22.9	5.6	10.8	9.8	2.5	14.7	14.8	3.2	0.7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9.0	36.0	22.0	19.9	23.4	3.9	10.9	12.1	4.2	16.0	15.8	3.1	0.6
사무직	32.4	28.9	19.6	15.4	28.0	3.7	12.4	16.5	5.7	15.3	17.2	1.7	0.3
서비스/판매직	30.0	28.8	18.6	15.2	26.3	4.0	13.8	14.3	7.0	16.4	20.6	2.2	0.2
생산/기술직	30.0	29.9	20.1	16.3	28.3	3.1	12.6	14.9	6.6	15.3	18.1	1.7	0.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8.3	34.4	23.5	12.0	24.8	2.4	12.9	8.2	5.1	14.9	25.2	4.0	0.4
단순노무직	36.1	28.9	19.4	16.1	28.3	2.7	11.7	14.8	4.8	12.1	19.4	2.2	0.4
기타	41.4	29.0	10.3	11.7	29.8	4.9	8.6	17.7	10.5	25.3	5.1	5.6	0.0
무직	30.9	28.7	18.0	14.8	29.6	4.7	15.2	10.2	5.2	16.1	21.5	2.6	0.2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33.0	30.7	19.9	15.8	25.0	4.0	15.1	11.0	4.9	14.2	21.6	2.1	0.2
탈물질주의	24.4	32.5	17.9	16.0	29.0	5.3	11.2	14.6	7.4	17.7	17.5	3.4	0.4
혼합형	30.4	29.0	19.0	15.4	29.1	3.8	12.9	13.7	5.8	16.3	18.9	2.4	0.3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37.3	34.7	21.2	15.4	24.1	5.2	12.3	12.7	5.2	12.6	14.6	2.1	0.4
개인 이익 중요	29.1	30.2	16.8	14.0	26.5	5.7	15.7	13.7	5.8	14.9	21.6	2.7	0.1
둘 다 중요	30.2	29.0	19.3	15.9	28.4	3.6	13.4	12.7	5.6	16.3	20.2	2.4	0.3

33-a.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 또는 내용 (1순위)

(단위: %)

	성평등	장애인 인권	이주민 인권	아동/청소년 인권	집단거주 시설 생활인 인권	노동 인권	노인 인권	성소수자 인권	북한 이탈 주민 인권	혐오/차별 예방	기타
전 체	15.3	16.7	4.3	10.7	14.8	14.0	5.7	1.9	1.1	15.3	0.2
| 성 별 |											
남자	13.8	17.8	4.7	9.5	14.2	16.0	5.5	1.9	1.2	15.0	0.4
여자	16.7	15.6	3.9	11.9	15.3	12.1	5.9	1.8	1.0	15.6	0.1
| 지역 |											
도 시[동 부]	15.6	16.7	4.3	10.9	14.1	14.2	5.4	2.0	1.0	15.5	0.2
농어촌[읍면부]	14.0	16.5	4.3	9.6	17.6	13.4	7.0	1.3	1.2	14.7	0.3
| 연 령 |											
20대 이하	21.9	16.2	3.5	9.1	10.2	13.2	3.2	2.0	1.0	19.4	0.4
30대	16.0	17.6	4.1	14.0	12.0	14.4	2.4	2.2	0.7	16.2	0.5
40대	15.2	17.2	5.2	11.7	13.6	14.9	3.3	2.0	1.1	15.8	0.1
50대	15.1	17.0	4.8	9.8	16.0	15.4	5.1	1.8	1.3	13.5	0.2
60대 이상	11.2	16.0	3.9	9.8	18.9	12.8	11.1	1.7	1.2	13.3	0.2
| 학 력 |											
중졸 이하	9.0	16.2	3.9	9.8	19.8	13.2	12.0	1.5	0.8	13.6	0.2
고졸 이하	16.3	16.5	4.4	10.6	14.2	15.0	5.1	2.0	1.2	14.5	0.1
대졸 이하	17.2	16.8	4.3	11.2	13.4	13.7	3.6	2.0	1.1	16.1	0.4
대학원졸 이상	12.3	20.2	4.6	10.4	9.1	9.4	4.7	1.4	1.3	26.5	0.1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7.7	17.2	3.7	11.2	10.3	12.2	4.3	1.3	0.9	20.6	0.5
사무직	17.0	18.4	5.0	11.4	13.0	13.1	3.3	2.5	1.5	14.6	0.2
서비스/판매직	15.6	16.0	5.4	11.5	14.9	14.6	4.5	2.2	1.3	13.6	0.3
생산/기술직	15.0	16.3	4.5	10.5	15.6	19.1	4.1	2.2	0.7	11.8	0.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8.8	13.6	4.2	8.3	24.0	12.2	11.5	1.3	1.2	14.7	0.2
단순노무직	12.6	16.8	5.7	10.2	15.3	18.6	6.7	1.2	0.6	11.9	0.5
기타	25.7	21.2	0.0	5.5	0.0	25.8	11.4	0.0	0.0	10.2	0.0
무직	14.7	16.5	3.3	10.2	15.6	12.8	7.5	1.7	1.0	16.5	0.2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5.0	16.9	4.2	9.2	15.5	14.0	6.9	1.5	1.3	15.2	0.3
탈물질주의	16.0	14.1	4.7	11.8	13.2	15.1	5.0	1.1	1.5	17.2	0.2
혼합형	15.3	16.9	4.3	11.4	14.5	13.9	5.1	2.2	0.9	15.2	0.2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5.6	19.6	6.8	9.1	12.0	12.8	8.0	1.7	1.2	12.9	0.3
개인 이익 중요	16.0	15.4	5.6	12.8	15.6	13.6	5.6	2.5	1.1	11.7	0.0
둘 다 중요	15.1	16.5	3.7	10.6	15.0	14.3	5.4	1.8	1.1	16.3	0.3

33-b.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 또는 내용 (1순위+2순위)

(단위: %)

	성평등	장애인 인권	이주민 인권	아동/청소년 인권	집단거주 시설 생활인 인권	노동 인권	노인 인권	성소수자 인권	북한 이탈 주민 인권	혐오/차별 예방	기타
전 체	22.8	28.6	8.8	20.4	28.3	31.0	16.4	6.3	3.2	31.2	0.4
| 성 별 |											
남자	20.5	29.6	9.6	18.5	27.0	34.5	16.2	6.1	3.3	31.2	0.5
여자	25.1	27.6	7.9	22.3	29.5	27.5	16.6	6.4	3.1	31.2	0.2
| 지역 |											
도 시[동 부]	23.4	28.6	8.8	20.7	27.4	31.2	15.4	6.6	3.2	31.6	0.4
농어촌[읍면부]	20.1	28.6	8.7	19.3	32.3	30.0	20.8	4.6	3.3	29.4	0.4
| 연 령 |											
20대 이하	32.1	29.3	8.1	17.6	20.2	30.7	10.6	7.5	3.2	36.7	0.5
30대	26.6	29.2	9.1	25.5	22.9	31.8	9.7	6.4	1.9	32.9	0.8
40대	23.2	29.0	9.7	23.7	25.2	33.3	12.4	6.2	3.1	32.0	0.2
50대	21.4	28.4	9.1	18.3	31.4	34.0	14.9	6.5	4.1	28.9	0.3
60대 이상	15.9	27.7	8.1	18.7	36.0	27.0	27.2	5.4	3.3	27.9	0.2
| 학 력 |											
중졸 이하	13.4	28.9	8.2	18.5	38.2	26.1	29.2	4.4	2.8	27.7	0.2
고졸 이하	23.4	28.4	8.7	20.0	27.3	33.5	15.4	6.5	3.2	30.9	0.3
대졸 이하	26.3	28.4	9.0	21.6	25.5	31.2	12.0	6.8	3.3	32.3	0.5
대학원졸 이상	24.4	33.4	10.7	21.7	17.7	24.6	12.4	8.4	3.3	41.1	0.4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8.1	28.7	8.6	22.6	20.5	29.5	12.2	5.0	3.4	37.2	0.8
사무직	26.1	30.4	10.0	21.4	26.3	30.5	11.6	7.5	3.5	29.9	0.3
서비스/판매직	23.2	27.0	9.4	20.4	28.2	33.1	14.3	7.5	3.9	29.4	0.3
생산/기술직	19.8	28.0	9.5	19.7	28.1	39.3	13.4	6.4	2.2	30.3	0.6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2.6	25.5	10.3	16.7	39.9	27.0	26.6	4.5	2.4	30.5	0.2
단순노무직	18.7	29.1	9.0	19.5	29.3	37.9	19.2	4.0	2.9	27.8	0.5
기타	41.8	43.2	4.6	23.3	11.2	29.6	20.4	0.0	0.0	25.9	0.0
무직	22.0	29.0	7.6	20.1	30.3	27.7	20.1	6.0	3.0	31.8	0.2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21.6	29.8	8.8	19.6	29.8	30.3	18.2	5.0	3.5	30.9	0.4
탈물질주의	24.5	24.6	8.4	21.3	26.4	31.1	15.3	9.0	3.8	32.3	0.2
혼합형	23.3	28.3	8.8	20.8	27.6	31.4	15.4	6.8	2.9	31.2	0.4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23.1	32.3	12.4	18.1	24.5	30.1	21.7	6.0	3.2	25.9	0.4
개인 이익 중요	22.8	27.1	9.9	23.2	31.9	30.4	14.4	8.4	3.5	24.8	0.1
둘 다 중요	22.8	28.3	8.0	20.3	28.3	31.2	15.9	6.0	3.1	33.0	0.4

34-1)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 -인권침해 또는 차별 피해자 조언·상담

(단위: %)

	있다	없다
전 체	1.7	98.3
| 성 별 |		
남자	1.8	98.2
여자	1.6	98.4
| 지역 |		
도 시[동 부]	1.9	98.1
농어촌[읍면부]	1.1	98.9
| 연 령 |		
20대 이하	2.7	97.3
30대	1.6	98.4
40대	1.9	98.1
50대	2.2	97.8
60대 이상	0.8	99.2
| 학 력 |		
중졸 이하	0.5	99.5
고졸 이하	1.9	98.1
대졸 이하	1.9	98.1
대학원졸 이상	6.1	93.9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4.0	96.0
사무직	1.5	98.5
서비스/판매직	2.4	97.6
생산/기술직	1.6	98.4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7	99.3
단순노무직	1.1	98.9
기타	5.1	94.9
무직	1.0	99.0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4	98.6
탈물질주의	1.8	98.2
혼합형	1.9	98.1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2.3	97.7
개인 이익 중요	2.0	98.0
둘 다 중요	1.6	98.4

34-2)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 활동

(단위: %)

	있다	없다
전 체	3.1	96.9
| 성 별 |		
남자	3.2	96.8
여자	3.0	97.0
| 지역 |		
도 시[동 부]	3.4	96.6
농어촌[읍면부]	1.7	98.3
| 연 령 |		
20대 이하	4.8	95.2
30대	3.7	96.3
40대	3.3	96.7
50대	3.4	96.6
60대 이상	1.4	98.6
| 학 력 |		
중졸 이하	0.6	99.4
고졸 이하	3.0	97.0
대졸 이하	3.8	96.2
대학원졸 이상	11.3	88.7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7.4	92.6
사무직	3.0	97.0
서비스/판매직	3.5	96.5
생산/기술직	2.2	97.8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5	98.5
단순노무직	2.3	97.7
기타	10.5	89.5
무직	2.1	97.9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2.6	97.4
탈물질주의	4.7	95.3
혼합형	3.2	96.8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4.4	95.6
개인 이익 중요	2.2	97.8
둘 다 중요	3.1	96.9

34-3)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 -소수자, 약자를 위한 기부

(단위: %)

	있다	없다
전 체	5.9	94.1
| 성 별 |		
남자	5.5	94.5
여자	6.3	93.7
| 지역 |		
도 시[동 부]	6.4	93.6
농어촌[읍면부]	4.0	96.0
| 연 령 |		
20대 이하	7.0	93.0
30대	6.9	93.1
40대	8.2	91.8
50대	6.9	93.1
60대 이상	2.6	97.4
| 학 력 |		
중졸 이하	1.1	98.9
고졸 이하	4.6	95.4
대졸 이하	8.3	91.7
대학원졸 이상	21.5	78.5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4.1	85.9
사무직	7.4	92.6
서비스/판매직	5.6	94.4
생산/기술직	4.1	95.9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3	97.7
단순노무직	5.3	94.7
기타	17.1	82.9
무직	3.9	96.1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5.5	94.5
탈물질주의	10.6	89.4
혼합형	5.7	94.3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6.1	93.9
개인 이익 중요	4.5	95.5
둘 다 중요	6.1	93.9

34-4)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 -인권단체 회원 가입·활동

(단위: %)

	있다	없다
전 체	1.1	98.9
| 성 별 |		
남자	1.1	98.9
여자	1.1	98.9
| 지역 |		
도 시[동 부]	1.2	98.8
농어촌[읍면부]	0.6	99.4
| 연 령 |		
20대 이하	1.8	98.2
30대	0.9	99.1
40대	1.1	98.9
50대	1.4	98.6
60대 이상	0.5	99.5
| 학 력 |		
중졸 이하	0.3	99.7
고졸 이하	1.2	98.8
대졸 이하	1.1	98.9
대학원졸 이상	4.0	96.0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4	97.6
사무직	0.7	99.3
서비스/판매직	1.1	98.9
생산/기술직	0.9	99.1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5	99.5
단순노무직	1.3	98.7
기타	0.0	100.0
무직	0.9	99.1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0.7	99.3
탈물질주의	1.7	98.3
혼합형	1.2	98.8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7	98.3
개인 이익 중요	1.1	98.9
둘 다 중요	1.0	99.0

34-5)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 -인권문제와 관련한 글쓰기/댓글 달기

(단위: %)

	있다	없다
전 체	3.7	96.3
| 성 별 |		
남자	3.4	96.6
여자	3.9	96.1
| 지역 |		
도 시[동 부]	3.8	96.2
농어촌[읍면부]	2.9	97.1
| 연 령 |		
20대 이하	6.8	93.2
30대	4.6	95.4
40대	4.5	95.5
50대	2.9	97.1
60대 이상	1.3	98.7
| 학 력 |		
중졸 이하	0.4	99.6
고졸 이하	3.0	97.0
대졸 이하	5.5	94.5
대학원졸 이상	7.3	92.7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6.8	93.2
사무직	4.6	95.4
서비스/판매직	4.1	95.9
생산/기술직	2.8	97.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3	98.7
단순노무직	2.3	97.7
기타	10.5	89.5
무직	2.7	97.3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2.9	97.1
탈물질주의	7.0	93.0
혼합형	3.7	96.3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3.6	96.4
개인 이익 중요	4.3	95.7
둘 다 중요	3.6	96.4

34-6)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 -인권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

(단위: %)

	있다	없다
전 체	8.1	91.9
| 성 별 |		
남자	7.2	92.8
여자	9.0	91.0
| 지역 |		
도 시[동 부]	8.8	91.2
농어촌[읍면부]	5.1	94.9
| 연 령 |		
20대 이하	14.3	85.7
30대	10.2	89.8
40대	10.5	89.5
50대	7.2	92.8
60대 이상	2.3	97.7
| 학 력 |		
중졸 이하	1.2	98.8
고졸 이하	7.0	93.0
대졸 이하	11.5	88.5
대학원졸 이상	17.6	82.4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6.4	83.6
사무직	10.7	89.3
서비스/판매직	8.3	91.7
생산/기술직	6.2	93.8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3	97.7
단순노무직	6.7	93.3
기타	16.7	83.3
무직	5.6	94.4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5.7	94.3
탈물질주의	12.5	87.5
혼합형	9.0	91.0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7.4	92.6
개인 이익 중요	7.0	93.0
둘 다 중요	8.4	91.6

34-7)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 -온라인 또는 거리에서 인권 캠페인이나 집회

(단위: %)

	있다	없다
전 체	2.1	97.9
| 성 별 |		
남자	2.1	97.9
여자	2.1	97.9
| 지역 |		
도 시[동 부]	2.4	97.6
농어촌[읍면부]	0.9	99.1
| 연 령 |		
20대 이하	3.0	97.0
30대	2.6	97.4
40대	2.6	97.4
50대	2.5	97.5
60대 이상	0.8	99.2
| 학 력 |		
중졸 이하	0.5	99.5
고졸 이하	2.1	97.9
대졸 이하	2.8	97.2
대학원졸 이상	3.9	96.1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4.4	95.6
사무직	2.6	97.4
서비스/판매직	2.3	97.7
생산/기술직	2.4	97.6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8	99.2
단순노무직	1.8	98.2
기타	0.0	100.0
무직	1.2	98.8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1.0	99.0
탈물질주의	2.6	97.4
혼합형	2.7	97.3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1.8	98.2
개인 이익 중요	2.1	97.9
둘 다 중요	2.2	97.8

35-a.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1순위)

(단위: %)

	각 개인의 노력	법률/제도 마련	인권침해/차별 조사·대응	인권교육 강화	캠페인, 홍보 활동	기타
전 체	29.7	28.4	17.1	15.3	9.4	0.1
| 성 별 |						
남자	31.2	27.9	16.9	14.7	9.2	0.1
여자	28.3	28.9	17.3	15.9	9.6	0.0
| 지역 |						
도 시[동 부]	28.9	28.9	17.7	15.3	9.1	0.0
농어촌[읍면부]	33.2	26.1	14.4	15.4	10.8	0.1
| 연 령 |						
20대 이하	32.9	29.2	17.2	13.5	7.2	0.1
30대	28.5	32.0	16.8	14.0	8.7	0.1
40대	26.7	31.5	16.9	14.8	10.0	0.0
50대	28.3	28.3	17.5	15.9	10.0	0.0
60대 이상	31.4	24.0	17.0	17.2	10.3	0.0
| 학 력 |						
중졸 이하	32.2	21.8	17.5	17.9	10.5	0.0
고졸 이하	30.5	28.3	16.1	14.7	10.5	0.0
대졸 이하	28.0	31.0	18.1	14.8	8.1	0.1
대학원졸 이상	27.7	35.8	13.6	15.7	6.9	0.4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7.1	34.8	15.5	13.8	8.5	0.3
사무직	29.5	29.1	20.4	13.5	7.4	0.0
서비스/판매직	29.6	28.1	18.6	14.3	9.3	0.0
생산/기술직	27.8	29.6	15.2	15.6	11.9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8.0	23.2	18.5	18.6	11.5	0.1
단순노무직	34.3	25.4	15.7	15.9	8.7	0.0
기타	4.9	60.3	8.9	25.8	0.0	0.0
무직	30.6	27.0	15.9	16.6	9.9	0.0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31.9	28.6	15.3	14.8	9.3	0.1
탈물질주의	27.7	29.0	19.6	15.8	7.8	0.1
혼합형	28.6	28.3	17.9	15.6	9.7	0.0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36.2	28.4	12.5	14.9	8.0	0.1
개인 이익 중요	29.5	28.8	18.7	12.8	10.1	0.1
둘 다 중요	28.8	28.4	17.5	15.8	9.5	0.0

35-b.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1순위+2순위)

(단위: %)

	각 개인의 노력	법률/제도 마련	인권침해/차별 조사·대응	인권교육 강화	캠페인, 홍보 활동	기타
전 체	45.0	54.5	41.2	34.5	21.5	0.1
| 성 별 |					
남자	46.9	54.0	41.2	33.1	21.4	0.1
여자	43.2	55.1	41.3	35.9	21.6	0.1
| 지역 |					
도 시[동 부]	44.4	54.5	42.0	34.5	21.3	0.1
농어촌[읍면부]	48.1	54.8	37.9	34.7	22.1	0.1
| 연 령 |					
20대 이하	48.5	54.7	43.7	32.4	16.8	0.2
30대	43.2	56.8	42.5	33.8	19.7	0.2
40대	41.3	58.0	40.1	34.5	23.1	0.1
50대	44.2	55.0	41.1	33.8	23.3	0.0
60대 이상	47.0	50.6	40.0	36.8	22.9	0.1
| 학 력 |					
중졸 이하	48.8	50.9	40.0	35.6	22.1	0.1
고졸 이하	46.4	55.3	39.4	33.0	23.2	0.0
대졸 이하	42.6	55.2	43.6	35.1	19.6	0.1
대학원졸 이상	37.5	57.8	40.0	39.6	22.5	0.6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9.4	58.4	40.3	35.6	22.3	0.3
사무직	44.5	53.1	46.6	34.3	17.5	0.2
서비스/판매직	44.4	56.1	42.4	32.5	20.8	0.1
생산/기술직	44.4	55.2	39.0	33.9	24.1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7.5	51.5	41.1	34.0	22.0	0.1
단순노무직	48.2	54.1	37.7	35.7	22.0	0.0
기타	32.7	75.5	42.0	28.9	20.9	0.0
무직	46.7	53.3	39.7	35.5	22.5	0.0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46.8	56.6	38.5	34.0	21.7	0.1
탈물질주의	42.3	52.4	46.6	34.4	20.2	0.1
혼합형	44.3	53.6	42.3	34.9	21.5	0.1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48.8	55.2	38.1	33.3	21.0	0.1
개인 이익 중요	46.1	54.6	44.0	31.0	20.3	0.2
둘 다 중요	44.3	54.4	41.3	35.3	21.7	0.1

36-1) 우리나라 정부의 인권증진 행위 평가-인권보호·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

(단위: %, 점)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4점)
전 체	3.0	63.6	30.8	2.6	2.7
| 성 별 |				
남자	3.5	64.1	29.5	2.9	2.7
여자	2.6	63.0	32.0	2.4	2.7
| 지역 |				
도 시[동 부]	3.0	63.3	31.1	2.5	2.7
농어촌[읍면부]	3.0	64.6	29.4	3.0	2.7
| 연 령 |				
20대 이하	3.0	58.7	33.6	4.8	2.6
30대	2.6	61.0	33.5	2.9	2.6
40대	3.4	63.5	31.2	1.8	2.7
50대	3.7	64.6	29.8	1.9	2.7
60대 이상	2.6	67.2	28.0	2.2	2.7
| 학 력 |				
중졸 이하	2.6	68.7	26.8	1.9	2.7
고졸 이하	2.8	62.4	31.9	2.9	2.7
대졸 이하	3.3	62.6	31.5	2.6	2.7
대학원졸 이상	4.3	60.3	30.7	4.8	2.6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8	60.4	31.8	4.0	2.6
사무직	3.1	67.0	27.7	2.2	2.7
서비스/판매직	3.1	62.3	32.2	2.4	2.7
생산/기술직	3.4	64.0	30.2	2.5	2.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3	72.9	23.7	1.1	2.8
단순노무직	2.8	63.3	30.3	3.6	2.7
기타	4.9	52.6	36.8	5.7	2.6
무직	2.8	62.8	31.9	2.5	2.7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4.0	65.1	28.0	2.9	2.7
탈물질주의	2.4	55.1	38.7	3.9	2.6
혼합형	2.6	63.6	31.5	2.3	2.7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4.3	69.0	24.7	2.0	2.8
개인 이익 중요	3.2	57.7	35.8	3.3	2.6
둘 다 중요	2.8	63.7	30.9	2.6	2.7

36-2) 우리나라 정부의 인권증진 행위 평가-인권침해·차별 발생에 적절한 대응

(단위: %, 점)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4점)
전 체	5.3	48.5	41.1	5.1	2.5
| 성 별 |				
남자	5.4	48.9	40.0	5.6	2.5
여자	5.1	48.2	42.1	4.6	2.5
| 지역 |				
도 시[동 부]	5.4	48.6	41.0	5.0	2.5
농어촌[읍면부]	5.0	48.3	41.3	5.4	2.5
| 연 령 |				
20대 이하	6.0	41.7	43.3	9.0	2.4
30대	5.1	45.7	43.2	5.9	2.5
40대	5.4	46.6	43.9	4.1	2.5
50대	5.9	49.4	40.7	4.0	2.6
60대 이상	4.5	54.8	36.9	3.7	2.6
| 학 력 |				
중졸 이하	4.1	57.5	35.1	3.3	2.6
고졸 이하	5.1	47.3	42.2	5.3	2.5
대졸 이하	5.9	46.3	42.4	5.4	2.5
대학원졸 이상	6.3	40.3	44.0	9.3	2.4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7	43.8	44.9	7.5	2.4
사무직	8.0	49.0	38.6	4.4	2.6
서비스/판매직	6.3	46.1	42.1	5.5	2.5
생산/기술직	5.2	51.0	39.5	4.2	2.6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0	53.5	38.6	3.8	2.6
단순노무직	3.3	49.9	40.0	6.8	2.5
기타	4.9	42.4	46.3	6.3	2.5
무직	4.5	49.9	41.2	4.5	2.5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5.5	50.4	38.6	5.5	2.6
탈물질주의	5.1	41.9	45.1	7.9	2.4
혼합형	5.2	48.2	42.1	4.5	2.5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8.3	52.6	35.4	3.7	2.7
개인 이익 중요	6.5	45.1	41.6	6.8	2.5
둘 다 중요	4.6	48.5	41.9	5.0	2.5

37.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

(단위: %)

	정부 등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차별받는 개인/집단	언론	교육기관	국제기구	기타
전 체	**60.4**	**8.3**	**8.6**	**12.2**	**9.4**	**0.8**	**0.1**
| 성 별 |						
남자	60.5	7.6	9.0	12.4	9.5	0.9	0.2
여자	60.3	9.0	8.3	12.1	9.4	0.8	0.1
| 지역 |						
도 시[동 부]	59.7	8.5	9.1	12.2	9.5	0.9	0.1
농어촌[읍면부]	63.9	7.3	6.5	12.3	9.4	0.6	0.1
| 연 령 |						
20대 이하	59.8	5.7	10.1	12.3	10.8	1.0	0.3
30대	60.7	8.1	8.2	13.5	8.6	0.8	0.1
40대	60.5	8.4	9.1	12.5	8.8	0.5	0.2
50대	58.1	10.6	8.4	12.3	9.7	0.9	0.0
60대 이상	62.2	8.3	7.9	11.3	9.3	0.8	0.1
| 학 력 |						
중졸 이하	65.0	7.2	7.3	10.3	9.7	0.5	0.0
고졸 이하	59.4	9.0	9.2	12.4	9.1	0.9	0.0
대졸 이하	59.4	8.2	8.9	12.9	9.6	0.9	0.2
대학원졸 이상	61.1	8.5	6.5	12.9	9.4	0.5	1.1
| 직 업 |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60.2	8.6	7.3	12.7	9.8	1.1	0.3
사무직	59.7	8.1	9.7	13.3	8.0	1.1	0.2
서비스/판매직	57.4	9.0	9.4	13.3	9.7	1.2	0.0
생산/기술직	62.6	7.4	8.5	10.9	10.6	0.1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65.0	7.2	9.0	9.5	9.0	0.3	0.0
단순노무직	64.0	8.8	7.9	10.3	8.7	0.2	0.0
기타	53.6	0.0	3.3	23.0	15.2	4.9	0.0
무직	61.0	8.2	8.3	11.9	9.7	0.7	0.1
| 국가 목표 |						
물질주의	63.2	8.1	7.9	11.3	8.8	0.8	0.1
탈물질주의	51.8	10.8	10.2	13.9	12.0	1.0	0.4
혼합형	59.8	8.2	8.9	12.6	9.5	0.8	0.1
| 공동체 이익 |						
공동체 이익 중요	57.7	11.0	9.5	12.1	8.8	0.7	0.2
개인 이익 중요	53.5	10.6	13.3	12.9	8.6	0.9	0.2
둘 다 중요	62.0	7.5	7.8	12.1	9.7	0.8	0.1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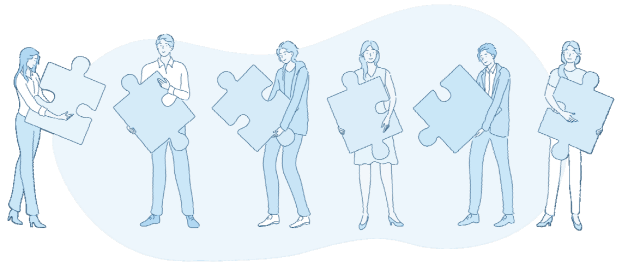
3

「국가인권실태조사」 조사표

승인번호
제 129001 호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리서치**와 함께 「**국가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에서 느끼거나 경험한 인권과 관련된 평소 생각과 평가, 그리고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시합니다. 이 조사 결과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하려면 응답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조사기간(2021.7.12. ~ 8.31.)에 조사원이 귀댁을 방문하면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응답 내용 및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문의처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 유승아 차장 02-3014-1051
㈜한국리서치 자료조사부 이희영 팀장 02-3014-0145

♣ 아래 표는 조사원이 적어 넣습니다.

응답자 이름		응답자 연락처	
주소	_____시·도_____시·군·구_____로(길)_____ _____동 _____호 (_____동 _____아파트(APT))		

관리 사항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 번호	가구원 번호

조사원 ID		구분	인원(명)
조사원 성명		전체 가구원 수	
조사원 연락처		조사 대상	
가구당 조사표 부수	총 ( )부 중 ( )부 성공	조사 완료	
조사표 작성 방법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자기 기입식 ③ 인터넷 조사	불응, 불능	
		비대상 (만 19세 미만)	

국가인권위원회

이 페이지는 가구주만 작성합니다.

- 현재 이 댁(가구)에서 상주하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 **가구주**란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 가구주를 1번에 기입하고 나머지 가구원을 순서대로 기입합니다.
- **가구주와의 관계**는 하단의 '1) 가구주와의 관계'를 참고해 번호로 기입합니다.

작성 예시

가구원 번호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1]	성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조사대상 여부	조사 여부	불응·불능 사유
1	나인권	①	남 ☑ 여 ☐	1965년 8월 19일			
2	너존중	②	남 ☐ 여 ☑	1970년 7월 2일	음영 부분은 조사원이 작성합니다.		
3	나자유	③	남 ☑ 여 ☐	1990년 3월 15일			
4	너평등	⑥	남 ☐ 여 ☑	1945년 4월 2일			

1) 가구주와의 관계: ① 본인 ② 배우자(사실혼 포함) ③ 미혼자녀(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
④ 기혼자녀(배우자의 기혼자녀 포함) ⑤ 손자손녀(배우자의 손자손녀 포함)
⑥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⑦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⑧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⑨ 기타( )

2) 조사 대상 : 만19세 이상(2002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가구원 명부

가구원 번호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1]	성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조사대상 여부	조사 여부	불응·불능 사유
1	가구주	①	남 ☐ 여 ☐	년 월 일			
2			남 ☐ 여 ☐	년 월 일			
3			남 ☐ 여 ☐	년 월 일			
4			남 ☐ 여 ☐	년 월 일			
5			남 ☐ 여 ☐	년 월 일			
6			남 ☐ 여 ☐	년 월 일			
7			남 ☐ 여 ☐	년 월 일			
8			남 ☐ 여 ☐	년 월 일			

1) 가구주와의 관계: ① 본인 ② 배우자(사실혼 포함) ③ 미혼자녀(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
④ 기혼자녀(배우자의 기혼자녀 포함) ⑤ 손자손녀(배우자의 손자손녀 포함)
⑥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⑦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⑧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⑨ 기타( )

2) 조사 대상 : 만19세 이상(2002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조사표 쓰는 요령

- 항목별로 응답 항목에 ○, ✓표를 하거나 해당되는 **숫자와 내용**을 기입하십시오.
- 한 항목의 기입이 끝나면 다음 항목을 기입하되, 건너뛰는 표시(→)가 있으면 지정된 항목으로 가서 응답하세요.
- 항목 중 지난 1년은 2020.7.1.~2021.6.30.을 말합니다.

Ⅰ 인권 인식

인권*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평소 생각대로 솔직하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

1 귀하는 평소에 '인권'이라는 단어를 어느 정도 접하십니까?

① 거의 매일 접한다
② 비교적 자주 접한다
③ 가끔 접한다
④ 거의 접하지 않는다

2 귀하는 우리나라 헌법에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다소 알고 있다
③ 잘 모르고 있다
④ 전혀 모르고 있다

3 귀하는 지난 1년 전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이 좋아지고 있다
② 조금 좋아지고 있다
③ 비슷하다
④ 조금 나빠지고 있다
⑤ 많이 나빠지고 있다

4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본인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존중받는다
② 존중받는 편이다
③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④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5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존중받는다
② 존중받는 편이다
③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④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6 귀하는 평소에 귀하가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7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다음 집단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구 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1) 여성	①	②	③	④
2) 아동·청소년	①	②	③	④
3) 노인	①	②	③	④
4) 장애인	①	②	③	④
5) 이주민(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①	②	③	④

8 귀하는 인권과 관련된 아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나의 기본적 권리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①	②	③	④

II 인권침해와 차별

9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구 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1) 신체의 자유 (불법적인 불심검문, 연행, 구금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	①	②	③	④
2)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①	②	③	④
3)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	①	②	③	④
4) 집회·결사의 자유	①	②	③	④
5)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①	②	③	④
6) 공공 행정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②	③	④
7)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②	③	④
8)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②	③	④

구 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9) 주거권(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	①	②	③	④
10) 사회보장권(빈곤 해결, 소득 보장)	①	②	③	④
11)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돌봄, 요양보호, 활동 지원 등)	①	②	③	④
12) 노동권(일할 권리, 공정한 노동조건 보장)	①	②	③	④
13) 건강권(건강하게 생활할 권리)	①	②	③	④
14) 교육권(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권리)	①	②	③	④
15) 안전권(범죄, 폭력, 사고,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①	②	③	④
16) 환경권(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②	③	④
17) 문화권(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①	②	③	④

10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누가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① 여성
② 아동/청소년
③ 노인
④ 장애인
⑤ 한부모가족
⑥ 결혼이주민(가족 포함)/이주노동자
⑦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
⑧ 전과자
⑨ 성소수자
⑩ 경제적 빈곤층
⑪ 병력(질병)이 있는 사람
⑫ 비정규직
⑬ 기타(적을 것 : _____)

11 귀하는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① 공무원과 업무 처리할 때
②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
③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입원 중일 때
④ 재판받을 때
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⑥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⑦ 가정에서 생활할 때
⑧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생활할 때
⑨ 군대 생활할 때
⑩ 보호시설(요양원, 장애인시설 등)에서 생활할 때
⑪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⑫ 직장 생활할 때(구직/취업 포함)
⑬ 학교에서 생활할 때(입학 포함)
⑭ 기타(적을 것 : _____)

12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침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인권침해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매우 심각하다
② 다소 심각하다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 다음은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귀하의 경험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13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① 폭행이나 모욕적 언행
② 정치적 의사 표현의 제지, 방해, 비난, 처벌 등
③ 종교 선택이나 활동의 자유 제한
④ 단체 결성이나 가입의 자유 제한
⑤ 집회나 시위의 자유 제한
⑥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 강요

⓪ 없음

14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인권침해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해당 사항 모두 선택)

① 질병과 자연재해를 제외한 안전의 위협
② 경제적인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함
③ 주변 환경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움(소음, 악취, 빛 공해, 일조량, 대기 등)
④ 편의 시설 부족 또는 거리가 멀어서 문화예술 시설(영화관, 공연장 등) 이용 못 함
⑤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에 사생활 공개

⓪ 없음

※ 13 , 14 모두 '⓪ 없음' ➡ 16 으로 이동

15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귀하에게 어떤 피해나 불이익이 있었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① 신체적 상해
② 재산/금전상 손해
③ 사회적 명예 실추
④ 정신적/감정적 피해(모욕, 분노, 울분 등)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⓪ 없었음

16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차별*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매우 심각하다
② 다소 심각하다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17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차별이 있었다면, 어떤 차별인지 아래의 보기를 참조하여 있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별 유형
  - ① 폭행, 위협, 조롱 등 신체적/언어적 폭력 : 폭행, 위협, 놀림이나 조롱, 폭언, 인격적 모욕, 무시
  - ② 채용이나 승진 등 일자리 관련 차별 :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정년, 퇴직, 해고 등의 불이익
  - ③ 일상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당하는 차별 :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당하는 거절이나 불이익
  - ④ 따돌림이나 배제 : 결혼, 친구 관계의 회피, 집단으로부터 따돌림

구 분	문17-1. 차별 경험			문17-1-1. 차별 유형 (해당사항 모두 선택)			
	없다 (해당없음)	있다		폭행, 위협, 조롱 등 신체적/언어적 폭력	채용이나 승진 등 일자리 관련 차별	일상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당하는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2) 임신 또는 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3) 종교를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4) 사상 또는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로	①	②		①	②	③	④
5) 장애를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6)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7) 직업이나 소득 등 경제적 지위를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8)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9) 학력이나 학벌을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10)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을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11) 키, 몸무게, 외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12) 미혼(비혼), 이혼, 사별 등 혼인상황을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13) 한부모, 미혼(비혼) 모/부 등 가족상황을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14) 질병 및 병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15) 출신지역을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 '② 있다'를 선택한 경우만 응답

※ 17-1 1) ~ 15) 모두 '① 없다' ➡ 19 로 이동

18 지난 1년 동안 차별을 받았을 때 귀하에게 어떤 피해나 불이익이 있었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① 신체적 상해
② 재산/금전상 손해
③ 사회적 명예 실추
④ 정신적/감정적 피해(모욕, 분노, 울분 등)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⓪ 없었음

19 귀하는 13 , 14 , 17 에서 하나라도 '있다'에 응답했습니까?

⓪ 그렇지 않다 ➡ 20 으로 이동

① 그렇다

19-1 귀하의 인권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차별한 사람 또는 상황을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1) 가족 또는 친인척	① 배우자 ②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③ (손)자녀/배우자의 (손)자녀 ④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가족 외의 친인척(손윗사람) ⑥ 기타(적을 것 : _____)	
(2) 가족/친인척 이외 아는 사람	⑦ 직장 상사나 상급자 ⑧ 이웃 또는 동호회, 동창회 등 내가 속한 집단 사람 ⑨ 학교 선후배, 친구, 동료 ⑩ 학원 강사, 학교 교사, 대학교수 ⑪ 기타(적을 것 : _____)	
(3) 잘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	⑫ 공권력을 가진 사람(경찰, 검찰, 공무원 등) ⑬ 집 또는 방, 상가의 소유주 ⑭ 고객(소비자/손님) ⑮ 서비스업 사업자 및 종사자 ⑯ 거래처 사람(원청·하청 관계 등) ⑰ 면접관, 채용관 ⑱ 길에서 만난 행인 ⑲ 온라인상으로 만난 사람 ⑳ 기타(적을 것 : _____)	
(4) 상황이나 환경	㉑ 자연환경(미세먼지, 폭염 등) ㉒ 주변 생활환경(소음, 문화 및 편의시설 부족 등) ㉓ 기타(적을 것 : _____)	

※ 19-1 의 1순위와 2순위 응답이 모두 ㉑~㉓일 경우는 ➡ 19-2 로 이동

19-1-1 지난 1년간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한 사람의 성별과 연령대는 무엇입니까?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③ 잘 모름
(2) 연령대	① 20대 이하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⑥ 잘 모름

19-2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① 가해자(사람, 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②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③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 20 으로 이동

④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 19-2-1 로 이동
⑤ 민간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 19-3-1 로 이동
⑥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 19-4 로 이동

19-2-1 귀하가 도움을 요청한 공공기관은 어디입니까?(해당 사항 모두 선택)

① 국가인권위원회
② 청와대
③ 검찰, 경찰
④ 기타 국가기관
⑤ 지방자치단체

19-2-2 도움을 요청한 공공기관은 전반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② 다소 도움이 되었다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9-3-1 도움을 요청한 민간단체/전문가는 무엇입니까?(해당 사항 모두 선택)

① 시민사회단체
② 법률가
③ 언론기관
④ 기타(적을 것 : _____)

19-3-2 도움을 요청한 민간단체 또는 전문가는 전반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② 다소 도움이 되었다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9-4 귀하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서
②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③ 신고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려서
④ 신고해도 가해자 처벌이 어려울 것 같아서
⑤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⑥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⑦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⑧ 기타(적을 것 : _____)

Ⅲ 인권 관련 쟁점

20 귀하는 다음의 상반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 사형제도는

유지해야 한다 ← → 폐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0-1-1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대체형벌(종신형 등)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한다 ← → 반대한다

① ② ③ ④

20-2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찬성한다 ← → 반대한다

① ② ③ ④

20-3 국가정보기관이 인터넷, 스마트폰의 개인 간 대화 내용과 통신 기록을 수집하고 조사하는 것에

찬성한다 ← → 반대한다

① ② ③ ④

20-4 국가보안법은

유지해야 한다 ← → 폐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0-4-1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안보' 관련 사안에는 형법 등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에

찬성한다 ← → 반대한다

① ② ③ ④

20-5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20-6 **학생에 대한 체벌은**

20-7 **한국에서 난민은**

20-8 **성평등을 위해 여성에게 '적극적으로 우대 조치'*하는 것에 대해**

- 적극적 우대 조치란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고 불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당제, 가산점 등의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20-9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적극적으로 우대 조치'*하는 것에 대해**

21 귀하는 정보인권에 대한 다음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를 체크할 때, 관련된 내용을 모두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2) 스마트폰,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나의 신상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될 것 같아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3) 안전을 위해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이다	①	②	③	④

22 귀하는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다음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아동·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아동·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3)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수업시간에 인권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23 귀하의 가족, 이웃, 친구 중에 다음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구 분	있다	없다
1) 장애인	①	②
2) 결혼이주민	①	②
3) 이주노동자	①	②
4) 북한이탈주민	①	②
5) 성소수자	①	②
6) 난민	①	②

24 다음의 사람이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1) 여성	①	②	③	④
2) 청년	①	②	③	④
3) 노인	①	②	③	④
4) 장애인	①	②	③	④
5) 결혼이주민	①	②	③	④
6) 이주노동자	①	②	③	④
7) 북한이탈주민	①	②	③	④
8) 성소수자	①	②	③	④

※ 다음은 혐오 표현에 대한 귀하의 경험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혐오 표현이란 성별, 장애, 나이, 지역, 인종, 성적 지향(성소수자), 종교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 무시, 모욕, 위협, 차별이나 폭력을 부추기는 말이나 표현을 의미합니다.

25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혐오 표현을 보거나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① 매우 자주 있다
② 자주 있다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 26 으로 이동

25-1 귀하가 혐오 표현을 접하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① 친구/가족/지인
② 온라인 포털/카페/커뮤니티
③ 메신저 서비스(카카오톡, 밴드, 라인, 위챗 등)
④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⑤ TV/라디오
⑥ 인터넷 방송(유튜브, 아프리카TV 등)
⑦ 캠페인, 거리 집회
⑧ 기타(적을 것 : _____)

25-2 혐오 표현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① 여성
② 남성
③ 아동 · 청소년
④ 노인
⑤ 장애인
⑥ 이주민(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등)
⑦ 북한이탈주민
⑧ 난민
⑨ 성소수자
⑩ 특정 종교인
⑪ 노숙자
⑫ 특정 지역 출신인
⑬ 정치인
⑭ 연예인
⑮ 기타(적을 것 : _____)

25-3 귀하는 혐오 표현을 보거나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동조하는 의견이나 행동을 취했다 ←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 반대하는 의견을 내거나 시정을 요구했다
①	②	③	④	⑤

26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혐오 표현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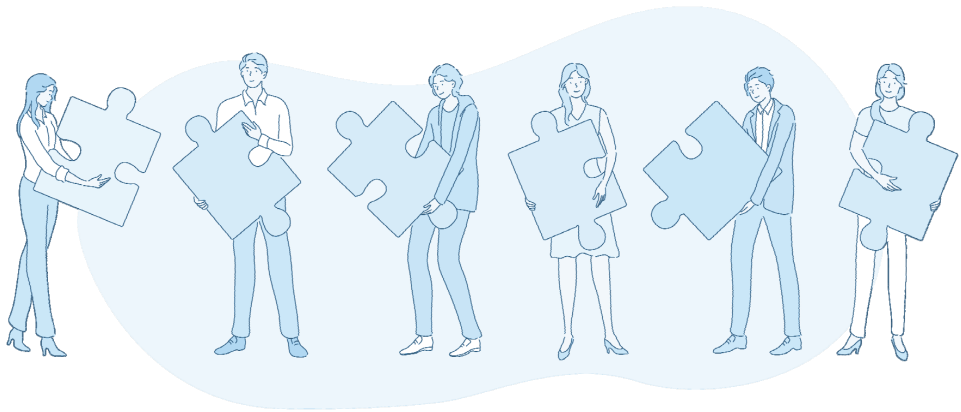
매우 심각하다 ← →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27 귀하는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 ← → 반대한다

① ② ③ ④



Ⅳ 인권 교육 및 개선

28 귀하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① 매우 잘 안다 ② 아는 편이다
③ 모르는 편이다 ④ 전혀 모른다

29 귀하는 본인이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았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① 매우 잘 안다 ② 아는 편이다
③ 모르는 편이다 ④ 전혀 모른다

30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인권교육이란 인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것인지를 교육하는 것으로,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한 교육 등을 포함합니다.

⓪ 없다 ➡ 31 로 이동
① 있다

30-1 귀하는 어디에서 인권교육을 받았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① 국가인권위원회 ②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③ 교육청·학교 등 교육기관 ④ 시민사회단체
⑤ 민간기업·사업체 ⑥ 사회복지 관련 단체
⑦ 기타(적을 것 : _____)

30-2 귀하는 인권교육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받았습니까?

① 내부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② 외부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③ 온라인(사이버)교육 ④ 시청각 교육
⑤ 기타(적을 것 : _____)

30-3 귀하가 받은 인권교육이 인권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② 다소 도움이 되었다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31 귀하는 전반적으로 인권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③ 필요 없는 편이다
④ 전혀 필요 없다

32 귀하는 다음 중 인권교육을 더 많이 받아야 할 대상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 2순위 [ ]

①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② 검찰/경찰/법원
③ 국회/지방의회
④ 군대
⑤ 교육청/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
⑥ 대학교
⑦ 유치원/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⑧ 기업 및 사업자
⑨ 시민사회단체
⑩ 언론 등 대중매체
⑪ 복지시설(요양원, 집단거주시설 등)
⑫ 종교단체
⑬ 기타(적을 것 : _____)

33 귀하는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 2순위 [ ]

① 성평등
② 장애인 인권
③ 이주민 인권
④ 아동/청소년 인권
⑤ 집단거주시설 생활인 인권
⑥ 노동 인권
⑦ 노인 인권
⑧ 성소수자 인권
⑨ 북한이탈주민 인권
⑩ 혐오/차별 예방
⑪ 기타(적을 것 : _____)

34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있다	없다
1) 인권침해 또는 차별 피해자 조언·상담	①	②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 활동	①	②
3) 소수자, 약자를 위한 기부	①	②
4) 인권단체 회원 가입·활동	①	②
5) 인권문제와 관련한 글쓰기/댓글 달기	①	②
6) 인권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	①	②
7) 온라인 또는 거리에서 인권 캠페인이나 집회	①	②

35 귀하는 인권 보호와 증진, 차별 해소를 위해 다음 중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____ 2순위 ____

① 인권 보호와 존중을 위한 개인의 노력
② 인권 보호 법률이나 제도 마련
③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적극 조사·대응
④ 인권교육 강화
⑤ 인권 캠페인, 홍보 활동
⑥ 기타(적을 것 : _____)

36 귀하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다음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인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했을 때 잘 대응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37 귀하는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 및 차별 해소를 위해 어느 집단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부 등 공공기관
② 시민사회단체
③ 차별받는 개인 또는 집단
④ 언론
⑤ 교육기관
⑥ 국제기구
⑦ 기타(적을 것 : _____)

V 개인 및 가구 관련 사항

배문1 귀하의 현재 혼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미혼/비혼
② 배우자 있음(동거 포함)
③ 사별
④ 이혼(별거 포함)

배문2 귀하는 정규교육을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⓪ 안 받았음 ➡ 배문3으로 이동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4년제 미만)
⑤ 대학교(4년제 이상)
⑥ 대학원 석사 과정
⑦ 대학원 박사 과정

→

① 졸업
② 재학
③ 수료
④ 휴학
⑤ 중퇴

배문3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⓪ 종교 없음

① 개신교
② 불교
③ 천주교(가톨릭)
④ 원불교
⑤ 유교
⑥ 천도교
⑦ 기타 종교(적을 것 : _____)

배문4 귀하는 지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 '일했음'과 '일시휴직'
  - 일했음 : ① 임금이나 이윤을 목적으로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했거나
    ②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 등에서 보수 없이 1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한 경우
  - 일시휴직 : 자신이나 가족의 병, 사고, 휴가(연가), 교육, 노사문제 등으로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는 않으나 복귀가 가능한 경우

① 일했음(일시 휴직 포함) →

② 일하지 않았음 ➡ 배문5 로 이동

배문4-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군인

배문4-2 직장(일)에서 귀하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 임금근로자는 고용 계약 기간에 따라 구분합니다
  (상용 : 1년 이상, 임시 :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 : 1개월 미만).

① 임금근로자 →
- ① 상용근로자
- ② 임시근로자
- ③ 일용근로자

②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③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④ 무급 가족 종사자
⑤ 기타 종사자(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배문5 귀하는 향후 10년간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할 국가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① 경제 성장
② 국방 강화
③ 직장 및 지역공동체에서의 참여 및 권한 증대
④ 도시 및 농촌의 환경 보호

배문6 귀하는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공동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②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③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다

배문7 귀하의 정치적 성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보수적
② 중도
③ 진보적
④ 관심 없음

※ 가구원은 설문을 종료합니다. 가구주는 배문8 로 이동

이 페이지는 가구주만 응답합니다.

배문8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종류입니까?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다세대 주택
④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⑤ 오피스텔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배문9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점유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기 집
② 전세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연세)
⑤ 무상(회사, 학교, 친인척, 친구 등이 제공)

배문10 지난 1년 동안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세금 공제 전 금액)은 얼마입니까?
(연간 총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해 기재해 주십시오.)

- 가구소득은 전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 등의 합계입니다.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⑧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⑨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⑩ 9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⑪ 1,000만원 이상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

| 인쇄일 | 2021년 12월 24일
| 발행일 | 2021년 12월 24일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문의전화 | 02)2125-9797
| F A X | 02)2125-0913

ISBN : 978-89-6114-874-0 93310 비매품